

2014 신진연구 논문집

2014 북한 및 통일관련

본 논문집은 2014년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
연구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1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통일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01** 로동신문(2008년 1월 ~ 2014년 8월)에서 나타난 김정일·김정은
현지도에 관한 내용 분석: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1
경제희(DMZ학술원)
- 02** 북잠계에서 본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응방향 123
: 급변사태 초기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김병욱(동덕여자대학교 외래교수)
- 03** 고난의 행군시기 영유아기를 보낸 20대 초반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 연구 195
김선화(공릉종합사회복지관)
- 04** 김정일-김정은 체제 대남정책의 새로운 이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285
김효진((사)남북경제연구원)
- 05**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371
: 집단치료놀이를 중심으로
이현주(IMChilds심리상담연구소)
- 06**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인력 실태분석 및 통합 방안 439
이혜경((사)새 삶 대표)
- 07**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547
: 대상자의 글에 대한 국어학적 문체 분석을 중심으로
임현열(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 08**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613
탁용달(코리아연구원)
- 09** 김정은 집권 전후(2008년 1월~2014년 3월) 북한 보도매체를 통해 본 685
정치사상 변화 연구
한승호(선문대학교)
-

로동신문(2008년 1월 ~ 2014년 8월)에서 나타난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에 관한 내용 분석
: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희
DMZ학술원

제1장 서론	6
제2장 로동신문의 이론적 분석틀	8
제3장 북한 경제의 현황	11
제4장 김정일·김정은의 현지지도 내용 분석	20
제5장 결론	37
참고 문헌	39
부록 1. 2008년 1월~2014년 8월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관한 로동신문 기사	42
부록 2. 북한의 환율과 쌀값	94
부록 3. 로동신문 경제 분야 세부 분류	98

표 목차

<표 1> 경제지표와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32
---	----

그림 목차

<그림 1> 북한의 경제성장률(2005년~2013년)	13
<그림 2> 북한의 농림어업·광업 성장률(2005년~2013년)	14
<그림 3> 북한의 제조업(경공업)·제조업(중공업) 성장률(2005년~2013년) ...	15
<그림 4> 북한의 서비스업 성장률(2005년~2013년)	16
<그림 5> 평양 환율의 추이	17
<그림 6> 평양 쌀가격의 추이	18
<그림 7> 월별 북중 무역의 추이	19
<그림 8> 월별 북중 무역의 전년도 대비 증감률 추이	20
<그림 9> 연도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수	23
<그림 10>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수	23
<그림 11> 분야별·연도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	24
<그림 12> 분야별·분기별 김정일·김정은 동선 기사 비중 추이	26
<그림 13> 정치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	26
<그림 14> 사회/문화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 ...	27
<그림 15> 경제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	27
<그림 16> 농림어업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 ...	30
<그림 17> 제조업(경공업)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	30
<그림 18> 제조업(중공업)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	31
<그림 19> 평양기준 환율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33
<그림 20> 평양기준 쌀값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34
<그림 21> 북중 무역(수출금액)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35
<그림 22> 북중 무역(수출증감률)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35
<그림 23> 북중 무역(수입금액)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36
<그림 24> 북중 무역(수입증감률)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36

요 약 문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도를 양적 분석하여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도가 북한 경제 상황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 처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김정일 또는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 목적, 연구 의의, 연구 구성을 서술하고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틀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황을 경제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환율, 쌀값, 북중 무역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4장의 주요 목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도가 북한의 경제상황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현지도도 내용의 분류법 등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제2절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실시한 현지도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제2절의 내용 가운데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세밀하게 논의하였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로동신문 상의 현지도도와 북한 경제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평양 기준의 환율과 쌀값에 따른 로동신문 경제 분야 현지도도 비중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로동신문의 현지도도 기사가 북한의 현실 경제를 고려하고 경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로동신문의 현지도도 기사 비중의 양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로동신문의 현지도도 기사 게재에는 북한의 경제적 현황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환율과 쌀값에 따른 결과가 유의하게 작용하여 로동신문의 대중설득의 기능은 현실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운용되고 있고 무역 관계가 아닌 북한 국내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지도’라는 북한 지도자의 정치적 행위가 북한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양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즉, 북한 정치의 가장 강력한 행위자인 지도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경제 분야 현지도가 북한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대 지도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현지도는 북한의 매체 대부분이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으로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로동신문, 조선중앙연감 등 시기와 부문에 상관없이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이 가운데 경제 분야에 대한 현지도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현지도의 내용이 시년공동사설이나 재정보고에서의 경제정책 등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¹⁾ 이처럼 기존 연구를 통해 정성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정책의 방향과 현지도 사이에 일정 정도의 정(正)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연 정량적인 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실적인 경제지표와 경제 분야 현지도의 행보 사이의 양적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최근의 김정은까지 경제 분야의 현지도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현지도는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북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지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경제 분야와 관련된 현지도의 비중과 경제지표의 관계를 살펴 정량적 차원에서도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경제지표가 나쁠수록 경제 분야와 관련된 현지도의 양이 증가한다면 북한당국은 지도자의 현지도를 통해 나빠진 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현지도 분석은 로동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에는 최근 북한 경제 변화의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외경제, 무역,

1) 김상기, “북한의 경제정책 분석: 최근의 물건을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1999. 3); 김상기, “김정일 경제부분 현지도 분석,” 『KDI북한경제리뷰』 (2001. 10); 조동호, “200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경제부문,” 『KDI북한경제리뷰』 (2001. 1).

시장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다. 간혹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물론, 많은 언론 매체가 민주체제 하에서 통용되는 언론 매체의 기능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로동신문에 게재되는 경제 분야 현지도 기사의 양과 경제지표 간에 일정한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북한 로동신문의 대중에 대한 설득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현지도의 양적 내용이 경제 지표와 일관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경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도가 활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로동신문의 현지도 기사의 양적 비중과 경제 지표 사이의 특정한 양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북한 당국은 로동신문을 활용하여 경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고 특정한 양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대외적 판단과 다른 목적이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 의의

최근 빅데이터(big data)로 사람들의 인식 및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 경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정성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매우 특수한 대상으로 접근되어 왔고 그에 대한 논의 역시 일반적인 학문의 시각에서보다 특수한 시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 사회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 구성한 사회로 보편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로동신문 등 북한의 언론 매체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언론, 매스미디어의 측면에서보다 특수한 북한 사회를 대변하는 도구로 그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로동신문의 기능은 신문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특히 대중설득의 기능이 발달한 매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에서 로동신문을 통한 대중설득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의 대중설득 전략이 과연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처한 실질적 상황보다는 체제의 공고화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로동신문이 갖는 특수성이 아닌 대중설득의 기능이

라는 차원에서 로동신문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 구성

현지도와 경제지표의 관계 분석을 통해 로동신문의 대중설득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먼저 다음 제2절에서 본 연구는 선전과 설득 차원의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로동신문 및 현지도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제3절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는 주요 경제적 동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북한 경제를 대변하는 경제성장률, 주요 산업의 성장률, 환율, 쌀값, 북중 무역 등의 주요 지표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한다. 제4장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에 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 제4장의 양적 분석의 대상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0개월분의 로동신문이다. 제4장에서는 먼저 제1절에서 김정일과 김정은 현지도 로동신문 기사에 대한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제2절에서 로동신문에 게재된 현지도를 정치, 사회/문화, 경제 분야로 구분하여 그 비중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다. 이후 제3절에서 경제 분야에 한정하여 다른 경제 지표와 비교 가능한 농림어업,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현지도 기사의 비중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 경제 지표 가운데 월별로 생성된 환율, 쌀값, 북중무역 지표와 현지도 기사의 비중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제5장을 통해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2장 로동신문의 이론적 분석틀

제1절 선전과 설득

타인의 의식을 자신의 생각에 가깝게 이끌고자 하는 노력은 현대사회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영향력이 확대된 현대사회에서 대중 설득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가중되어 왔다.

대중설득을 위한 대표적 행위인 선전(propaganda)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글이나 말 등 모든 형식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선전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 경제적 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목적,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효과적인 교육의 목적 등을 위해 사용된다.²⁾

선전을 위한 메시지는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된다. 먼저 이성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純)이성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스타일과 논거가 빈약할 때 설득력이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암시 또는 연상 등의 심리적 방법을 활용하는 반(半)이성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다. 또한 순수하게 감정으로 호소하여 선전자의 주관적인 아이디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열광적으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타일도 있는데 일부 종교의 종파, 히틀러시대의 나치스, 모택동 시대의 홍위병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이다. 또한 선전에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은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은유, 은유, 의인화 등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선전의 주제에는 영웅 또는 순교자, 투쟁과의 갈등, 의외의 새로운 사실 또는 놀라움, 속죄양, 예언, 죄와 벌, 초자연현상, 자기희생, 풍자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³⁾ 로동신문 기사에 자주 활용되는 반이성적 메시지나 감성적 메시지, 은유, 은유 등의 표현, 영웅 또는 순교자, 투쟁과의 갈등, 예언, 죄와 벌, 초자연현상, 자기희생 등의 주제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선전의 특징을 갖춘 매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전 매체물에는 멀티미디어, 건축물, 조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물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매체물이 인쇄매체이고 신문이 그 중 하나이다.

민주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문의 일반적인 정의는 “일반적인 뉴스를 일반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다.⁴⁾ 이러한 신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기능,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오락의 기능, 여론 설득의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이러한 신문의 기능이 북한의 신문에도 균형 있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정보 제공의 측면 또는 오락 제공의 측면보다 대중설득의 기능이 강한 인쇄매체에 해당한다.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과거만큼 절대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강력한 설득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논의된 매스미디어의 설득 기능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제1차대전 기간 중의 매스미디어 분석을 연구한 라스웰(Laswell)은 “선전은 근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하

2) 유일상. 「선전과 여론설득」(2001). 도서출판 아침, p. 20-26.

3) 유일상. 「선전과 여론설득」(2001). 도서출판 아침, p. 37-51.

4) 유재천. “신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개정판). 유재천 외. 커뮤니케이션북스(2010), p. 163.

고 매스미디어가 실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수용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인한 공황, 독일의 히틀러와 미국의 찰스 코글린(Coughlin)⁵⁾ 등과 같은 인물의 인기 등을 매스미디어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로 보았다. 이 외에도 매스미디어의 직접적인 효과는 대중적 담론의 정치적 태도, 인종주의적 편견, 소비자 선호도 등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하지만 최근에 논의되는 미디어의 설득 효과는 직접적 효과보다 간접적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매스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수가 단순히 증가한다고 해서 태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용자 심리상의 장벽이 극복되어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수용자들은 정보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형성된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로동신문 독자에 대한 로동신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설득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로동신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등의 방식이 가장 직접적인 연구 방법이 되겠지만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해 그러한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결과를 북한 주민의 인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한 무작위성(random)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식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에 게재되는 현지도 기사의 비중의 변화와 북한의 경제지표에 일정한 관계가 유의하게 인정될 경우, 북한에서는 로동신문의 대중설득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제2절 로동신문의 선행연구

로동신문을 통한 북한사회를 관찰하는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로동신문의 기능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각각의 연구 결과는 정보 제공의 차원보다 대중설득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도서관 검색을 통해 북한의 로동신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업적들을 살펴보면 로동신문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한 최초의 논문은 1973년에 제출한 조형

5) 미국의 우익 가톨릭 성직자.

6) 브라이언·올리버 편저.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역, 「미디어 효과이론(제3판)」 (2010), 나남, pp. 159-161.

준의 석사논문이다.⁷⁾ 조형준(1973)은 로동신문의 사설 내용을 통해 북한의 언론을 분석하였다. 이후 2014년 11월 현재까지 ‘로동신문’을 키워드로 검색한 학위논문은 24개가 검색된다.

로동신문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은 언론과 관련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의 기능이라기보다 로동신문의 기조 등 의식을 포함한 내용이 다수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대중 설득 전략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학술지 등에 게재된 로동신문 연구 역시 경제 분야의 내용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대중설득에 기여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제3장 북한 경제의 현황

제1절 북한 경제의 동향

2002년 7.1조치로 북한 경제에 개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7.1조치가 폐쇄되면서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혼선을 빚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발표 이후 김정은의 빠른 후계체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2014년 4월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북한 주민이 더 이상 굶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공업에 관한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가령 2013년 3월에는 10년 만에 전국 단위의 경공업 대회를 개최한 것과 같은 상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 대회에서 경공업 부문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이에 따라 일용품 공장, 방직공장, 식료품공장 등에 대한 설비 대체 투자가 몇 개 단위에서 시험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희망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⁸⁾

북한의 산업 생산력은 2001년 이후 일부분에 한정되어 회복하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경제난 지속과 시장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광공업 부문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농업의 비중이 1990년대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고 서비스

7) 조형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 <로동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3).

8) 통일연구원, 「북한의 이해 2014」 (2014), p. 198.

및 기타 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⁹⁾

북한의 경제적 변화는 2009년 화폐개혁과 2012년 6.28 조치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6.28조치는 기업과 농장 이익의 7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부분적인 도입 양상을 보인다. 이후 최근에는 ‘5.30조치’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개선 대책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개선 대책은 공장, 기업, 농업 부문의 생산과 분배의 독립채산제를 확대해 실적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언급되고 있다.¹⁰⁾

이처럼 경제 분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신문의 현지지도 기사에는 이러한 경제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제2절 경제성장률 및 주요 산업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따르면 2005년과 2008년에는 각각 3.8%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그 사이의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1.0%와 -1.2%의 마이너스 성장에 멈추었다. 2008년 잠시 3.1%의 성장이 있었지만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2011년 이후 최근 2013년까지는 각각 0.8%, 1.3%, 1.1%로 약하기는 하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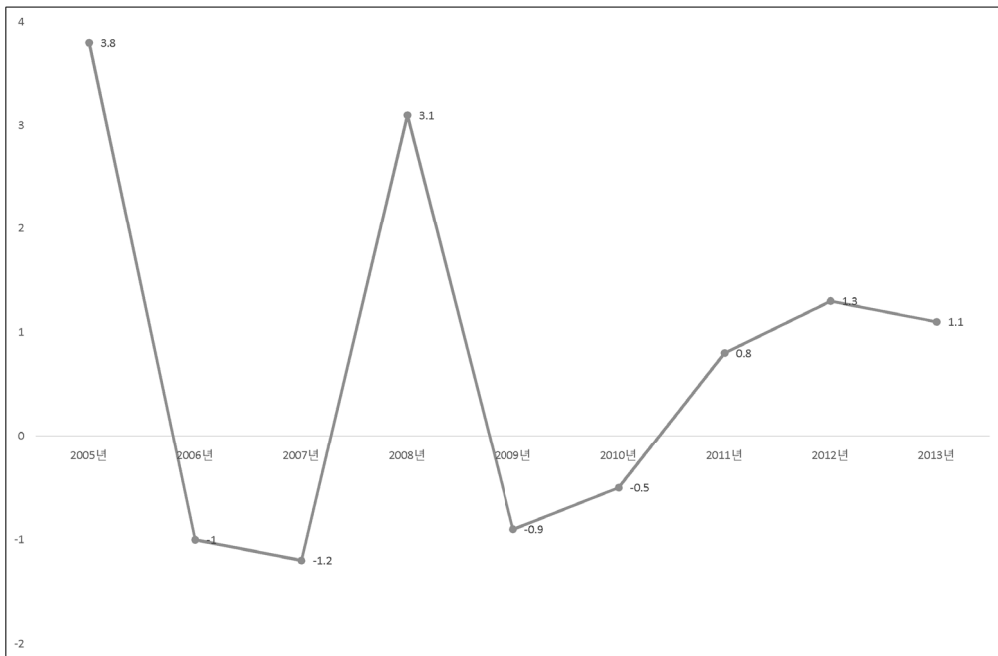
북한 경제는 199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¹¹⁾ 북한의 1990년대 생산력 수준은 고작 1980년대 말의 1/2정도에 불과하였다. 북한에서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부를 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근에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연평균 0%대의 성장률은 현재 상태의 유지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열악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9) 통일연구원, 「북한의 이해 2014」 (2014), p. 199.

10) SBS뉴스 2004/12/08.

11)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8%(통일연구원, 「북한의 이해 2014」(2014), p. 195).

12) 통일연구원, 「북한의 이해 2014」 (2014), pp. 195-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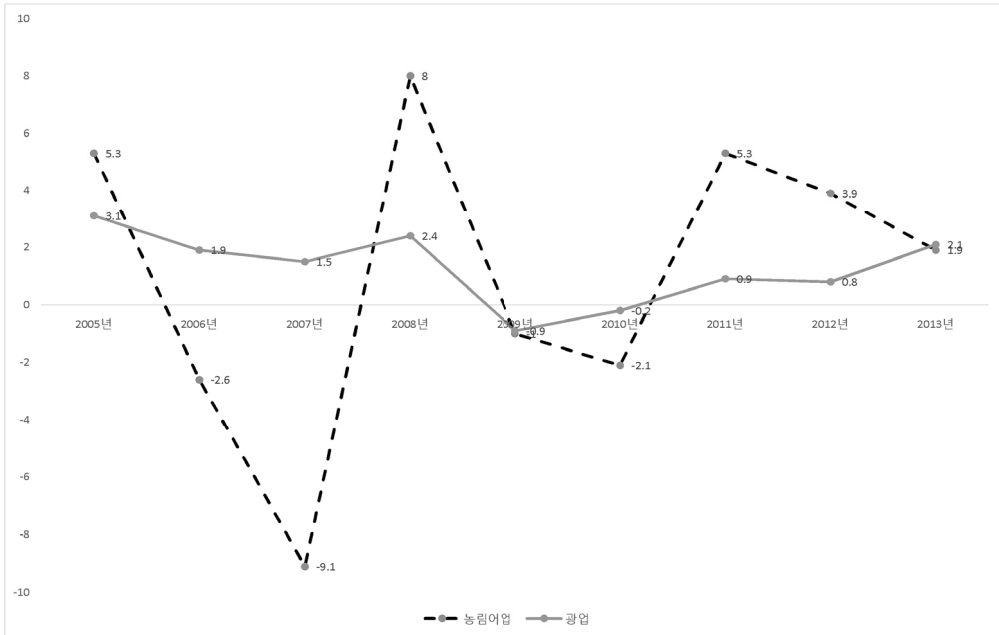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경제성장률(2005년~2013년)¹³⁾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외에 농림어업·광업, 제조업(경공업)·제조업(중공업), 서비스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그림 2>부터 <그림 4>까지와 같다.

<그림 2>에서 농림어업과 광업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광업의 성장률은 비교적 플러스 성장률이 많은 가운데 최소 -0.9%에서 최고 3.1%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최소 -9.1%에서 최대 8.0%까지 변동의 폭이 크다.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기후 및 외부 지원 등의 외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13) 출처: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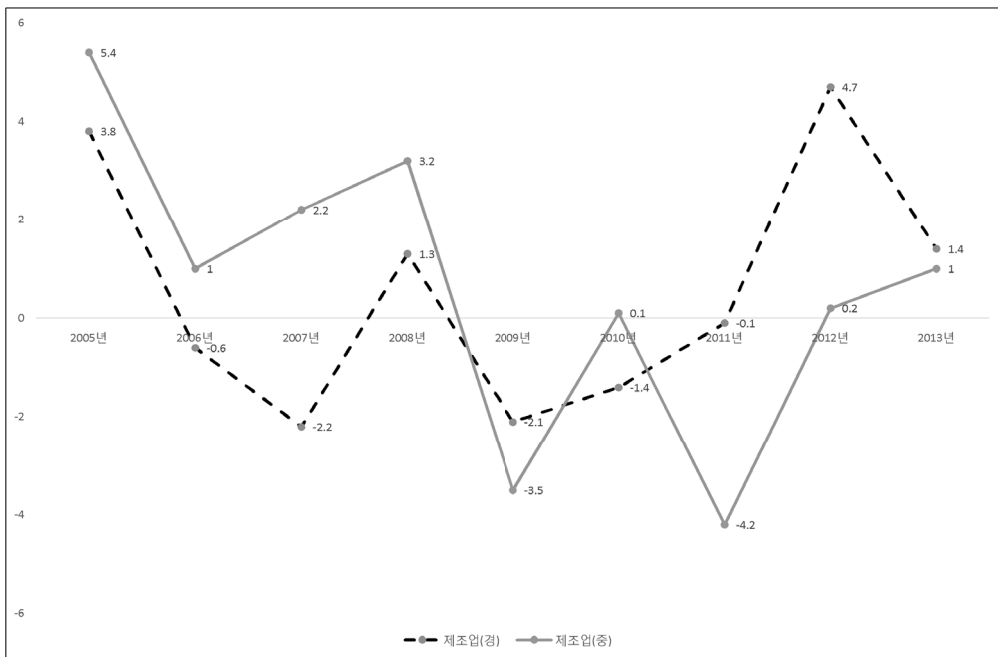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농림어업·광업 성장률(2005년~2013년)¹⁴⁾

한편, 중공업 분야의 제조업 성장률은 2008년까지 플러스를 유지하였지만 점차 하락하였고 최근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0.2%와 1% 정도로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 경공업 분야의 제조업 성장률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최근 2011년에 4.7%로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2013년에는 다시 1.4%의 현상유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조업(경공업)과 제조업(중공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0.42%와 2.5%로 미약하나마 단기간 회복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외부로부터 받은 원조를 투입한 전략산업, 기간산업 등의 발전이 각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7.1조치의 효과로 민생경제가 활성화된 점, 강수량이 확대되는 기후조건과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수력발전소들의 완공으로 전략생산이 증대된 점, 1999년 이후 매년 대규모로 유입된 남한 및 해외로부터의 지원 및 경험확대 등으로 외화가 유입되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¹⁵⁾

14) 출처: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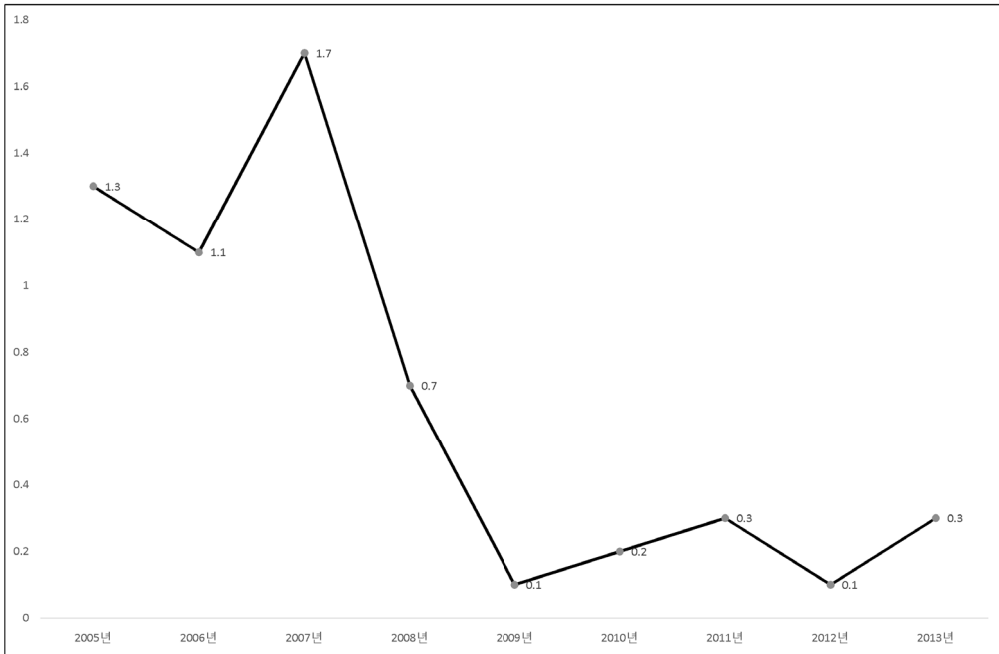
15) 통일연구원, 「북한의 이해 2014」(2014), pp. 196-197.



〈그림 3〉 북한의 제조업(경공업)·제조업(중공업) 성장률
(2005년~2013년)¹⁶⁾

다른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률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최저 0.1%에서 최고 1.7%까지 변동폭이 크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이 열악한 북한 실정 내에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서비스업의 위치가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 사회의 불균형 발전 속에서 시장화의 영향 증대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16) 출처: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림 4〉 북한의 서비스업 성장률(2005년~2013년)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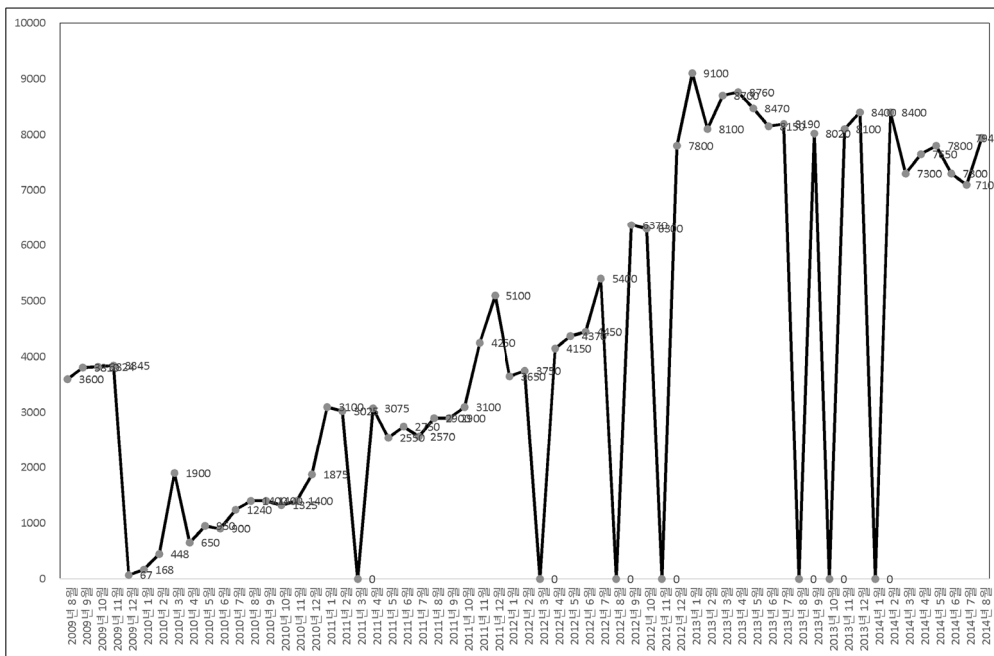
제3절 환율 및 쌀값

북한의 공식 환율은 2009년 8월 현재 1달러 당 140원이었지만 실질적인 시장 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의주에서 3,500원, 평양에서 3,600원, 해산에서 3,620원을 기록하였다. 쌀값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8년부터 2000원이 넘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¹⁸⁾ 이와 같은 북한의 환율과 가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국정가격 및 환율’과 ‘시장가격 및 환율’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정가격 및 환율과 시장가격 및 환율이 따로 이행될 경우, 국정환율은 회계 단위로만 사용될 뿐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환율 및 가격이라는 것이다. 국정환율과 시장환율 사이의 차이는 부정부패를 양산한다. 계획경제 부문에서 낮은 거래로 물자를 구입한 후 암시장을 통해 차액을 얻는 방식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북한

17) 출처: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 데일리nk 환율 데이터(<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참조.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7.1조치를 단행하여 국정환율 및 가격의 수준을 시장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나 이후 시장가격이 급속히 상승하여 다시 국정 환율과의 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⁹⁾



<그림 5> 평양 환율의 추이(단위: 원)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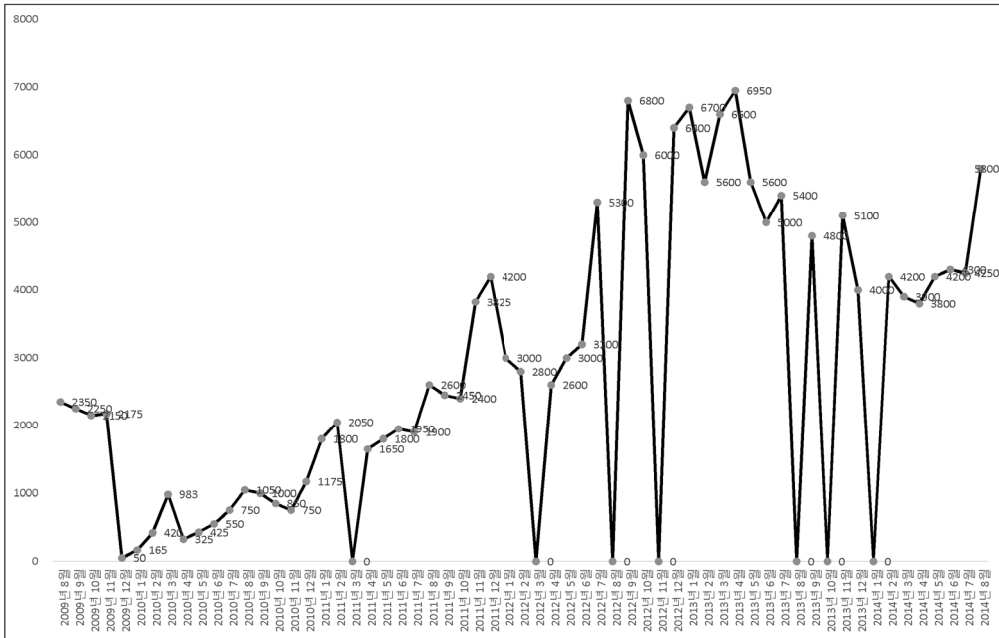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가격을 보여주는 환율과 쌀값의 추이는 북한 경제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데일리nk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월별 평양환율과 평양 기준 쌀값의 추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데일리nk의 북한 환율 및 쌀가격 정보는 매일 같은 날 또는 같은 기간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일정 기간의 환율과 쌀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의 데이터는 이러한 데일리nk의 데이터를 1달에 3번 나온 경우에는 3가지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1달에 한 번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환율 및 가격으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

19) 문성민, “매력평가이론에 근거한 북한 가격 및 환율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pp. 83-115.

20) 해당 월의 환율 또는 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었으나 그래프 상에서는 0으로 표현된다.

등 해당 월에 가장 가까운 환율과 쌀가격을 계산하여 각 월별 추이를 조사하였다.²¹⁾

환율과 쌀가격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양, 신의주, 해산에서 각각의 환율 및 쌀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는데 각 지역별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림 5>와 <그림 6>은 대표적으로 평양의 환율과 쌀가격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 6> 평양 쌀가격의 추이(단위: 원, 1Kg당)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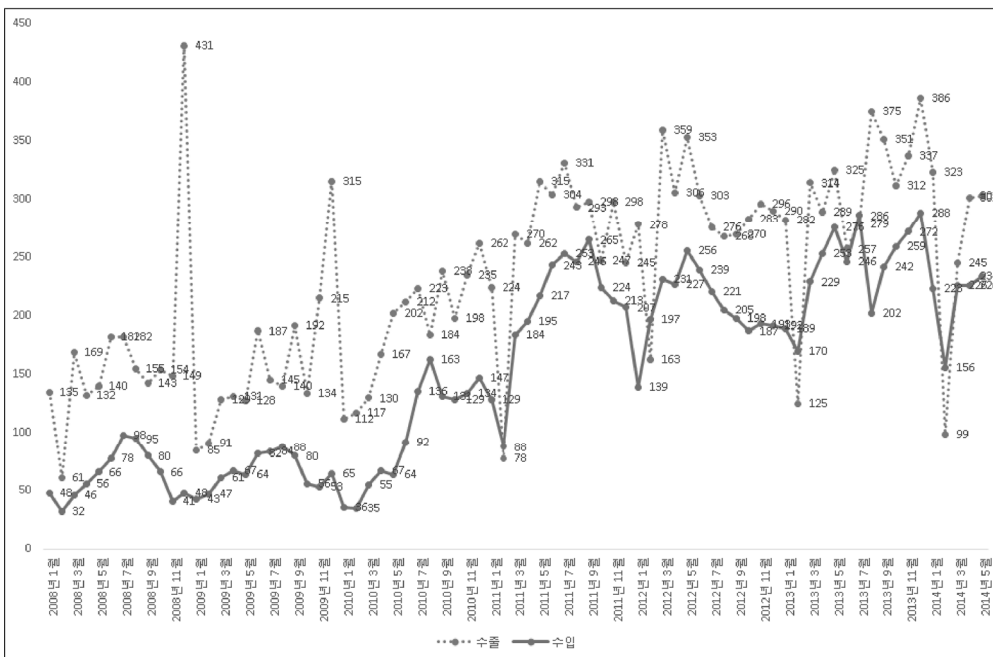
2009년 8월 현재의 평양 환율은 3,600원에, 쌀가격은 2,350원에 조사되었다. 이후 2009년 11월 북한 당국이 기습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후 2009년 12월말 평양 기준 환율이 67원으로, 쌀가격이 5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환율과 쌀가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4년 8월 현재 2009년 화폐개혁 이전의 수준을 넘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평양 기준 환율은 2009년 8월보다 2배 이상 높은 7,940원에 형성되어 있고 쌀가격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8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데일리nk가 발표한 데이터는 [부록 2] 참조.

22) 해당 월의 환율 또는 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었으나 그래프 상에서는 0으로 표현된다.

제4절 북중 무역

북한의 경제 현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북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액수 등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조치로 인해 실제로 무역의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중 무역의 수치가 거의 북한 대부분의 무역 수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 무역의 현황은 북중 무역의 현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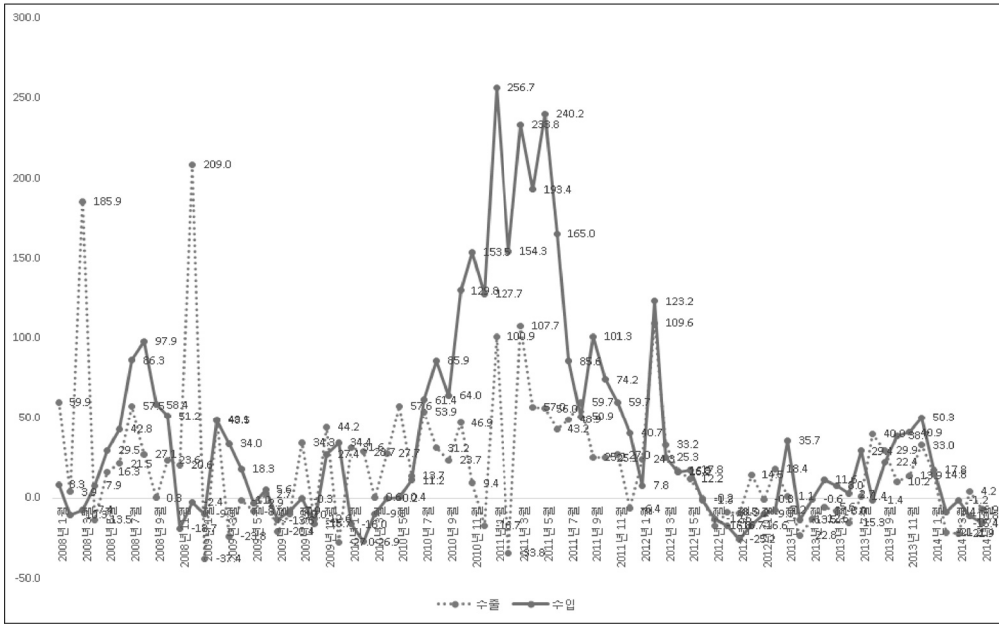


〈그림 7〉 월별 북중 무역의 추이²³⁾

〈그림 7〉의 점선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를 의미하고 실선은 수입하는 액수를 뜻한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고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에 따라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입과 수출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수입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2011년 8월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의 행보와의 관계에 따른 결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23) 출처: KITA 무역정보시스템



〈그림 8〉 월별 북중 무역의 전년도 대비 증감률 추이(단위: %)24)

북중 무역에서 액수면에서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고 수출과 수입 모두 꾸준한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 수출과 수입의 증감률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08년부터 2014년 8월 사이의 전년도 대비 증감률은 지속적인 수입/수출의 증가와 함께 대부분 플러스(+)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제4장 김정일·김정은의 현지도 내용 분석

본 장의 주요 목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도가 북한의 경제상황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제1절에서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현지도 내용의 분류법 등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제2절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실시한 현지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제2절의 내용 가운데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세밀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로동신문 상의 현지도와 북한 경제 간의 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24) 출처: KITA 무역정보시스템

제1절 연구 방법

북한의 현지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들이 북한의 공장, 기업소, 각종 농장 및 목장, 군부대 등 북한 내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지도하는 목적의 행위에 한정하여 현지도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참가자들과 같이 공연을 보고나 기념촬영을 하는 행위 역시 현지도로 간주된다. 공연 관람이나 기념촬영의 행위가 엄밀히 지도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행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역시 지도의 목적을 갖춘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실시하는 각종 현장에 대한 방문, 그리고 그 안에서의 행위는 모두 현지도의 범주에 속한다.

현지도는 1998년 김일성의 자강도 경제 관련 시설을 방문을 시작되었다.²⁵⁾ 이후 김정일과 현재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노동신문에서 언급되는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현지도는 ‘현지도, 돌아보심, 시찰, 방문, 접견, 관람, 기념촬영’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현지도에 대해 ‘실질적’ 현지도 방식과 ‘상징적’ 현지도 방식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²⁶⁾²⁷⁾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구분 없이 포괄적인 ‘현지도’로 간주하기로 한다.²⁸⁾

본 연구에서는 현지도를 크게 정치, 사회/문화, 경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정치 분야에는 군사적 내용, 대내정치 및 대외정치와 관련된 현지도 내용이 해당된다.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 금수산태양궁전(금수산기념궁전)²⁹⁾ 방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및 각종 회의 참석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정치 분야로 구분된다. 각종 사회 및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경우, 대학관련 현지도, 각종 연구소 등에 관한 현지도는 사회/문화 분야로 분류한다. 또한 군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각 군부대 소조 등의 공연 관람 시에는 해당 기사를 사회/문화로 분류하고 부대 산하 경제관련 시설 방문 등에 대해서는 경제로 분류한다.

25) 홍민, 「북한 현지도의 정치경제적 기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26) 이계성, 「북한 미디어보도 분석을 통한 김정일 현지도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pp. 93-95.

27) 이계성(2008, 93-95)은 북한의 미디어가 ‘현지도, 돌아보심, 시찰’로 표현한 현지도를 실질적 현지도 방식으로, ‘방문, 보시었다, 관람, 접견’ 방식으로 언급한 현지도를 ‘상징적 현지도’로 분류하였다.

28) 이 외에 가정방문 등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에 대해서만 표기하기로 한다([부록 I] 참조).

29) 금수산기념궁전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이전 명칭.

기념 촬영의 경우, 경제 분야와 관련된 인물들과 만나서 기념촬영을 하거나 사회/문화 분야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분야 즉 경제 또는 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한다. 이 외에 정치 또는 경제와 관련된 행사의 참가자들과 함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참가자 등과 공연을 같이 본 경우에는 사회/문화로 분류하기로 한다.³⁰⁾

이상과 같이 분류한 내용에 대해 제2절에서는 개괄적으로, 제3절에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김정일·김정은의 현지도 기사 내용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제3장에서 논의한 북한의 경제지표와 경제 분야 현지도 간의 관계를 논의한다. 즉, 경제지표와 경제 분야 현지도의 비중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찰한다. 일정 관계가 성립한다면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현지도는 단순히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김정일·김정은 현지도의 개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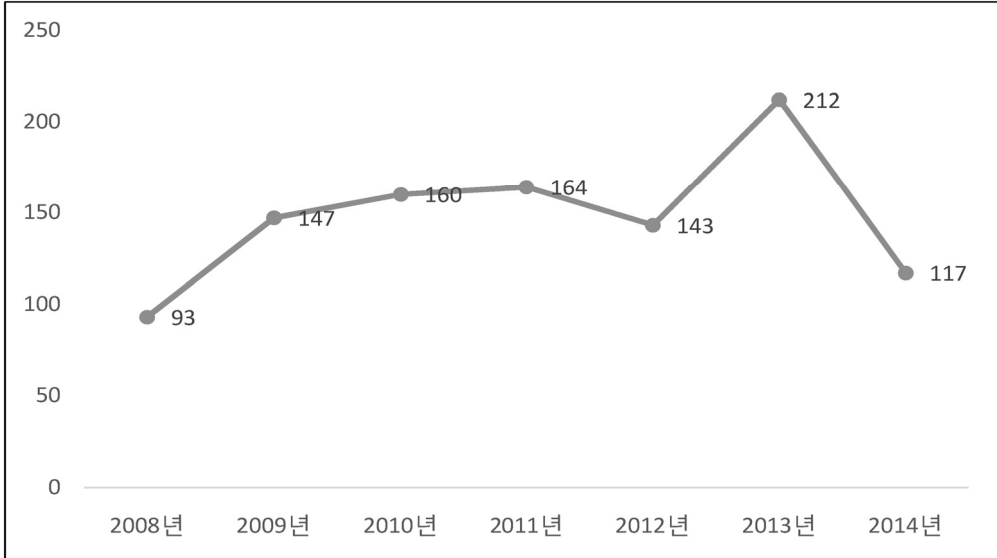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일·김정은³¹⁾의 현지도 기사는 총 1,036개이다. 이들 기사의 전체적 추이(<그림 9>)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93건 게재되었던 김정일·김정은의 현지도가 2011년까지 164건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1년 김정일의 사망이 보도된 이후 2012년 김정은의 현지도 기사는 2009년(147개)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에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2014년의 결과는 8월 현재까지 117개에 불과하지만 다른 연도에 비해 4개월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동선에 관한 기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별 추이 역시 완만하기는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로동신문에서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현지도 기사를 소개하는 기사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그림 10>). 로동신문에는 2008년 2월처럼 현지도 기사가 전혀 없었던 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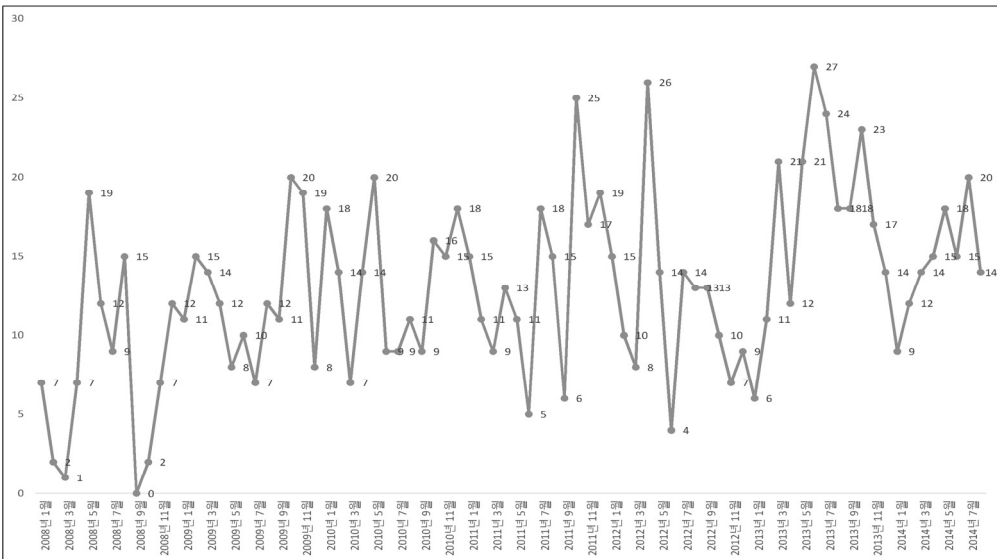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 간혹 방문처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2.8비날론련합기업소)과 같이 방문처를 괄호로 표시한다. 각 방문처의 용어 가운데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로씨야(연방)은 러시아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으로, ‘똥’은 ‘주년’으로 표기하였다. 현지도 방문처 가운데 가령 ‘리중옥 사업 기계공장’의 의미는 ‘리중옥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의미한다.

31) 김정일 사망 이후 2011년 12월 24일부터는 김정은의 행보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있지만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0개월 간 월평균 약 13개의 김정일 또는 김정은 현지지도 기사가 게재되어 왔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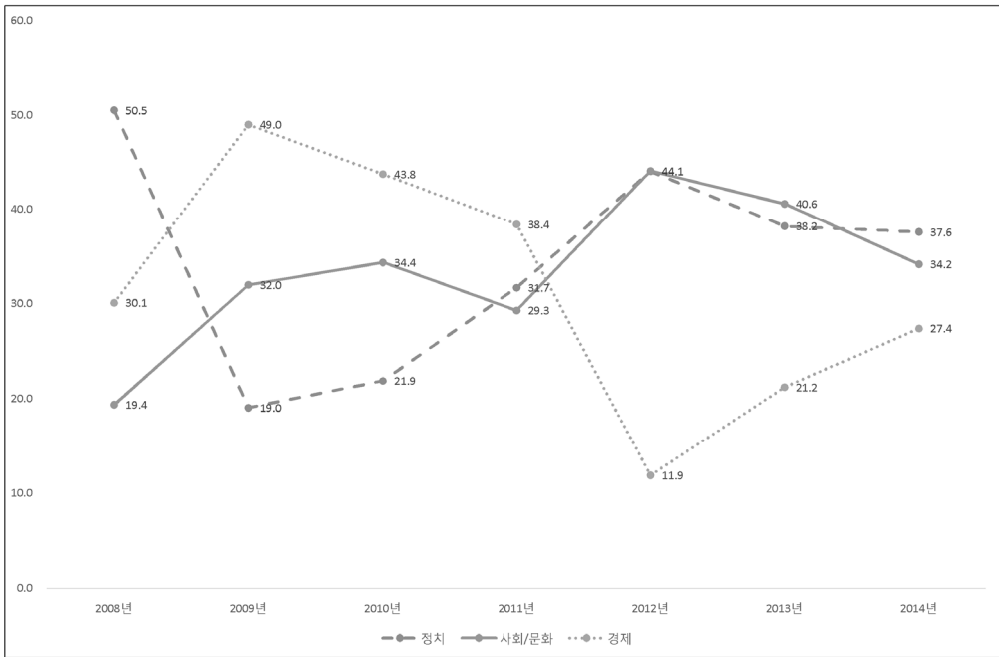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수



〈그림 10〉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수

32) 정확한 평균은 12.95건, 최대 27건(2013년 6월).



〈그림 11〉 분야별·연도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단위: %)

먼저 정치 분야의 경우, 그 비중이 본 연구 조사대상 연도의 시작인 2008년에 약 51%를 차지하여 2008년부터 2014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2009년에 19%로 전년도대비 약 32p%가 떨어져 2008년과 비교하여 군사 및 대내외적 정치 행보에 관한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 2009년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약 30%) 2012년에 약 44%로 높은 비중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다시 하강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정일 정권 시기보다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 분야의 현지지도 기사 비중이 김정일 사후인 2011년에서 2012년에 사이에 약 15%p나 증가한 것은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 체제 구축의 공고화를 위한 방편으로 정치 분야의 현지지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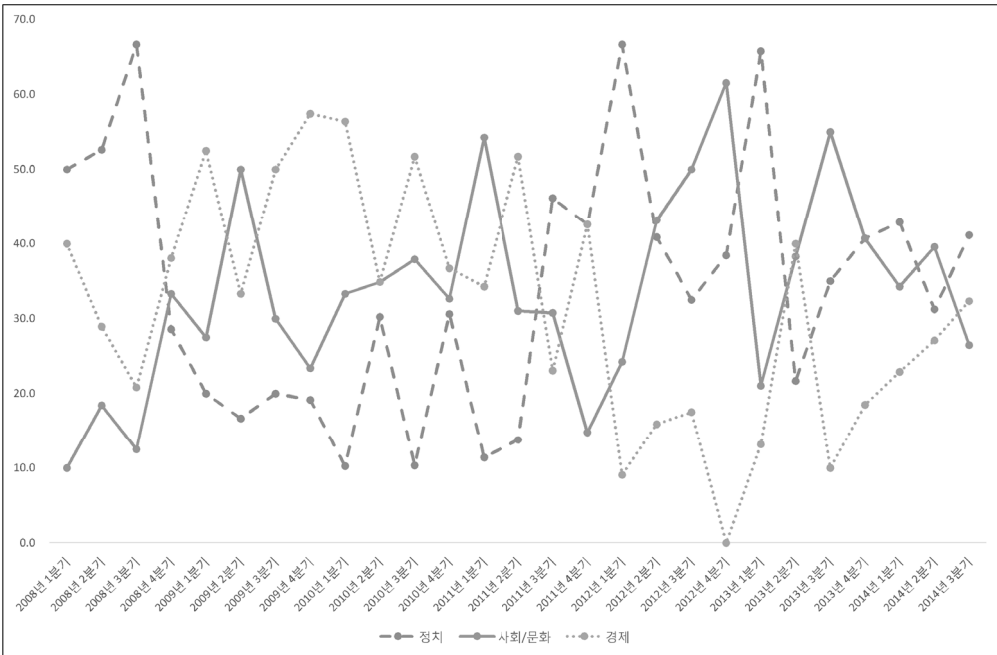
사회/문화 분야의 비중은 김정일정권 시기와 김정은정권 시기 사이의 차이가 있다. 시기에 따라 다소 증감의 추세가 전환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김정은정권 시기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현지지도 비중이 높다. 이는 김일성 또는 김정은의 개인적 선호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고 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가령 김정은이 경제적 부흥의 상징적 의미에서 경제 분야를 직접적으로 현지지도

하지는 않지만 윤택한 사회/문화 분야의 현지도를 통해 간접적인 효과를 과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간접적인 효과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초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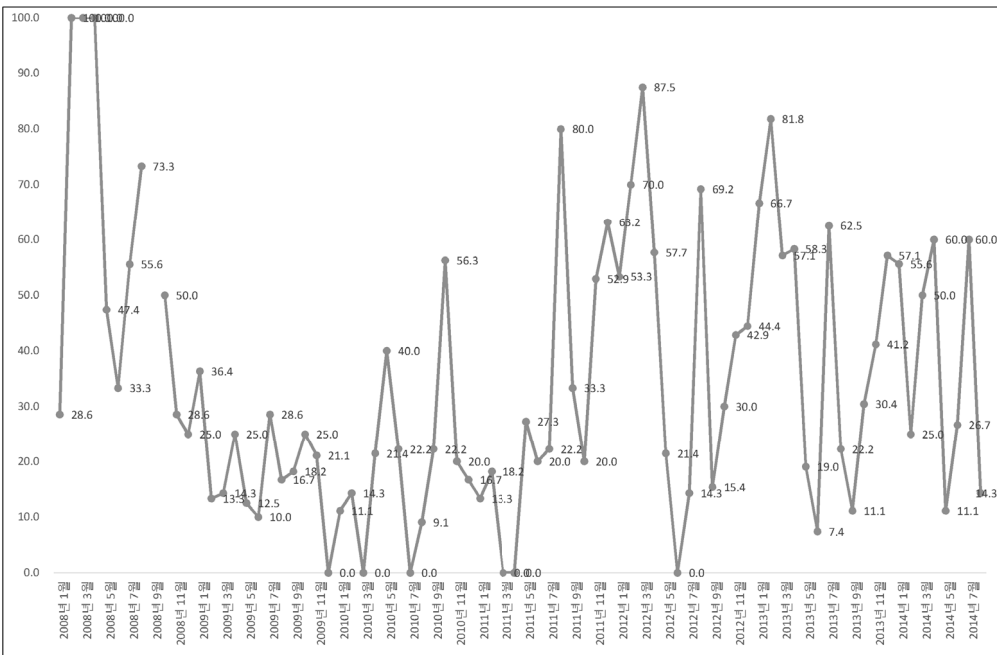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김정일·김정은 현지도 기사의 비중은 2008년에 약 30%였던 것이 2009년에 약 50%로 급증하였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김정일의 경제 분야 행보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김정은정권 시기에 들어서서는 경제 분야 동선 기사의 비중이 급감하였다. 김정일 사망 다음 해인 2012년도에는 14%로 전년도대비 약 26p%가 떨어졌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약 22%와 약 28%로 김정일정권 시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비중이지만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속도전으로 추진되어 온 김정은 후계자 수업 및 강도 높은 숙청·세력교체 등에 따른 김정은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반증의 가능성과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의 가능성을 내포한다.³³⁾

각 분야에 따른 연도별 증감세가 <그림 11>과 같은 가운데 김정일 또는 김정은 현지도 기사에 계절효과와 같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분야별 추이를 분기별로 살펴보았다(<그림 12>). 분기별로 증감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패턴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현지도는 일정 시기별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 움직이는 행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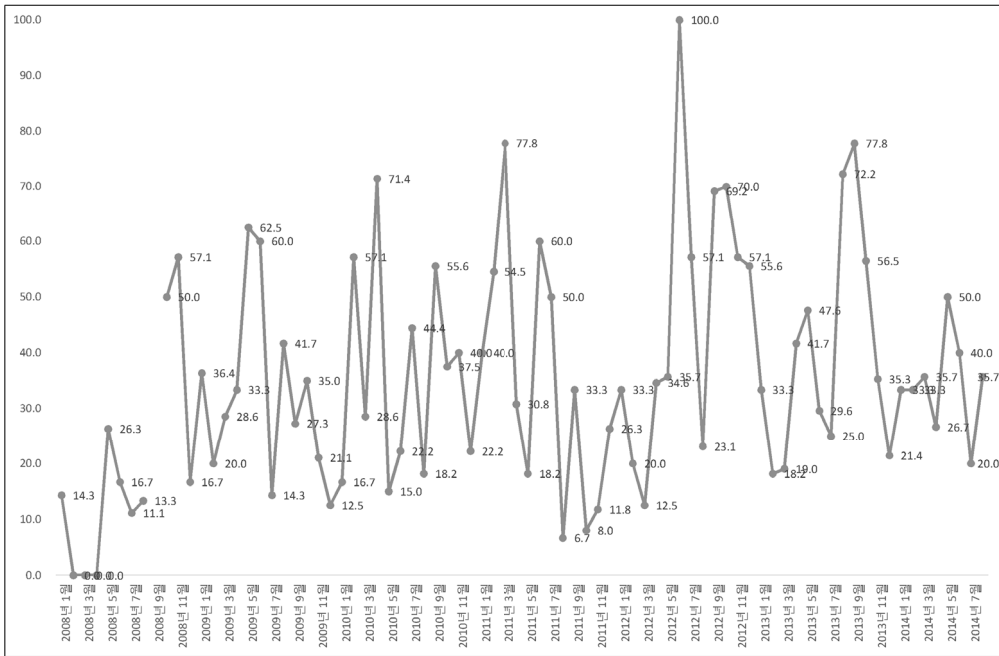
33) 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년 봄호(2014), pp.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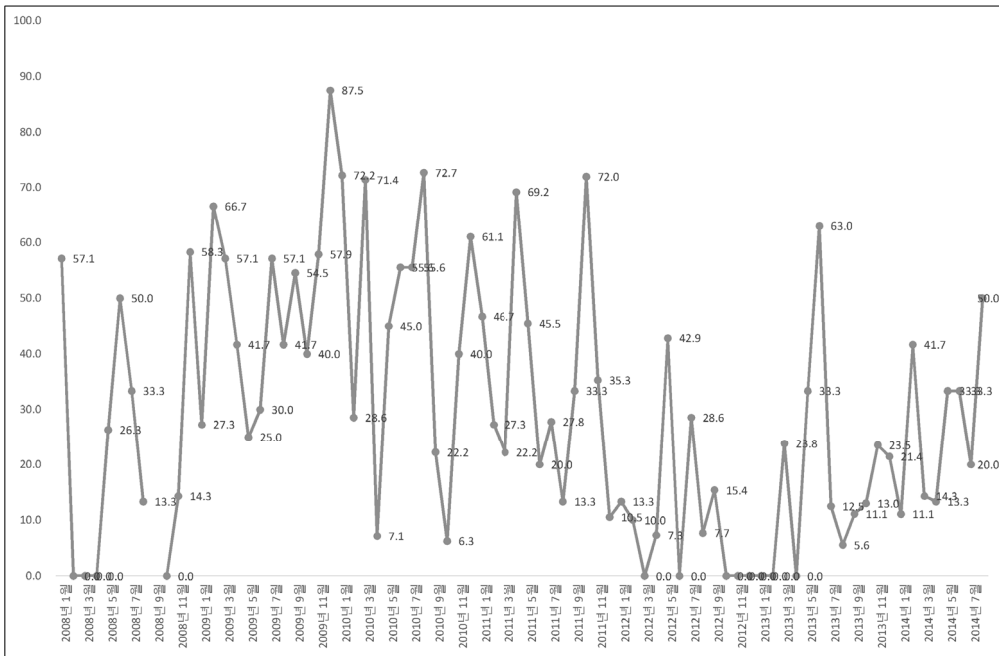
〈그림 12〉 분야별·분기별 김정일·김정은 동선 기사 비중 추이(단위: %)



〈그림 13〉 정치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도 기사 비중 추이(단위: %)



〈그림 14〉 사회/문화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단위: %)



〈그림 15〉 경제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단위: %)

그렇다면 각 분야의 비중은 어떠할까? 각 분야별 현지도 기사 비중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월별 각 분야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그림 13>부터 <그림 15>까지이다.

정치, 사회/문화, 경제 분야의 전반적 추세를 보면 <그림 11>의 연도별 추이가 반영되어 있다. 즉, 정치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의 현지도 기사 비중은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김정은정권 시기에서, 경제 분야의 현지도 기사 비중은 김정은정권 시기보다 김정일정권 시기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각 월별 차이를 보면 정치 분야의 김정일·김정은 현지도는 상대적으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김정은정권 시기에서 월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즉, <그림 11>의 연도별 추이에는 전반적으로 김정은정권 시기에 정치 분야 현지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월별로 구분해 보면 각 월에 따른 증가 또는 감소의 차이가 크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김정은정권 시기의 월별 차이가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크게 나타나지만 정치 분야의 차이만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김정은정권 시기보다 김정일정권 시기의 월별 차이가 심하다. 김정일 또는 김정은정권 시기에 따라 각 분야가 차지하는 연도별 비중의 대소(大小)가 전반적으로 높거나 또는 낮다고 하여 매월 비슷한 비중의 현지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의 현지도 비중에는 매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3절 경제 분야의 김정일·김정은 현지도

본 절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세 분야 가운데 경제 분야의 현지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 분야의 현지도 내용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축산을 포함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경공업), 제조업(중공업), 서비스업, 에너지, 기타 분야로 구분한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경공업, 중공업), 서비스업은 연도별이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각 산업에 대한 성장률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³⁴⁾

농림어업 분야에 속하는 현지도는 가공단계 이전의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물을 생산하는 곳을 방문하였을 경우를 의미한다. 가령, 농산물이나 생선 등을 생산하는 곳은 농림어업으로 구분하지만 이를 가공하는 공장은 제조업

34) 제3장 제2절 경제성장률 및 주요 산업 성장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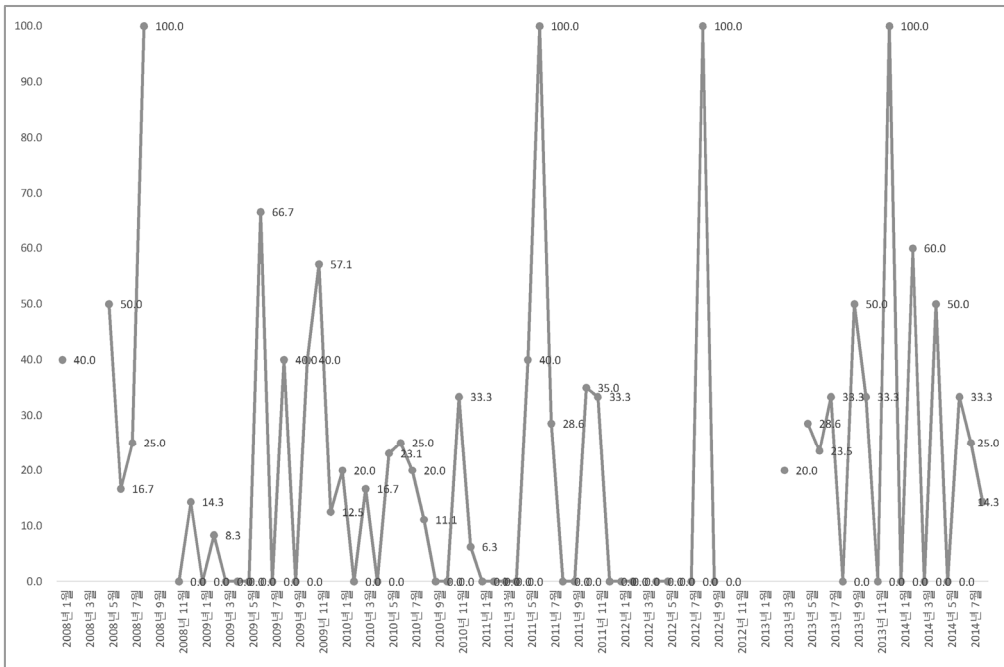
(경공업)으로 분류한다. 제조업은 크게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분류하고 계산한다. 상점이나 음식점 등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고 광산에 한정하여 광업으로 발전소 등은 에너지 분야로 처리하였다. 이 외의 경제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타로 상정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1,036개의 현지도 기사 중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기사의 수는 전체의 약 31%에 해당하는 326개에 해당한다. 하나의 기사에 다양한 현지도 방문처가 소개되어 있고 해당 내용의 세부 분야가 각기 다른 경우 각각을 따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경공업), 제조업(중공업), 서비스업, 에너지, 기타 분야의 현지도 수의 합은 326을 초과한다.³⁵⁾ 이하에서는 세부 분야 가운데 비교적 로동신문에 자주 언급된 농림어업, 제조업(경공업), 제조업(중공업)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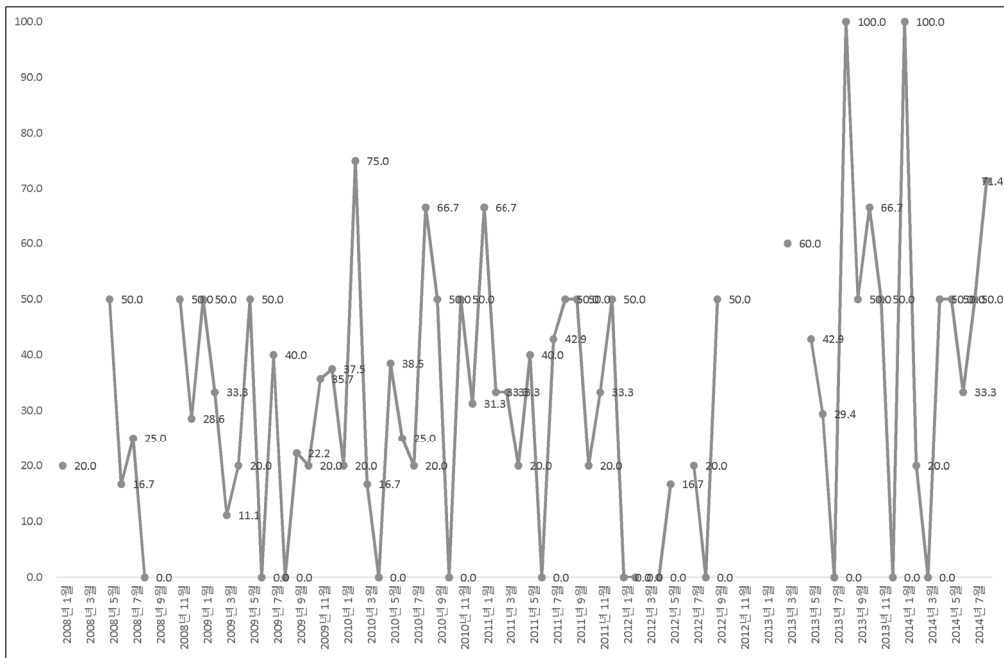
먼저 <그림 16>은 농림어업 분야의 현지도 기사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광업 분야의 현지도 기사가 게재된 달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80개월 가운데 7개월에 불과한 반면 농림어업 분야에 관한 현지도 기사는 비교적 많이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정권 시기와 김정은정권 시기를 비교해 보면 김정은정권 초기에 경제 분야에 관한 현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농림어업 분야의 비중도 낮게 나타나지만 2013년 이후로 가면 경제 분야 가운데 농림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김정은정권 시기에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 가운데 김정은정권에서 다른 세부 분야보다 농림어업에 관한, 즉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2012년 4월 열병식 연설에서 육성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약 1년 정도의 로동신문의 현지도 기사의 비중 변화를 바탕으로 김정은정권의 추진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현지도 기사 비중의 변화에 김정은정권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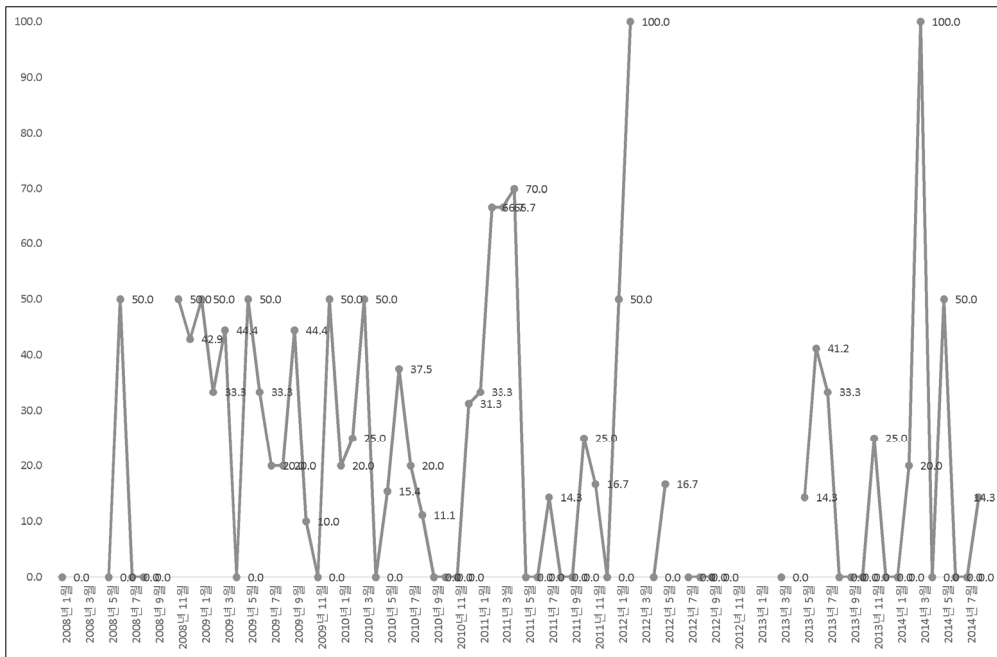
35) 경제 분야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부록 3] 참조.



〈그림 16〉 농림어업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단위: %)



〈그림 17〉 제조업(경공업)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단위: %)



<그림 18> 제조업(중공업) 분야의 월별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 추이(단위: %)

<그림 17>과 <그림 18>은 경제 분야 가운데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과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과 관련된 현지지도 기사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현지지도 기사 비중 역시 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꾸준히 일정 비중의 기사가 게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경공업 분야의 비중은 농림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김정은정권 시기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중공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김정은정권 시기보다 김정일정권 시기에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일정권보다 김정은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중공업보다 농림어업과 경공업에 주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러한 의지의 반영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로동신문의 현지지도 기사의 비중은 북한 현실을 반영하는 전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2절과 제3절의 내용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현지지도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제4절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북한의 환율, 쌀값, 북중 무역과 경제 분야의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를 살펴 현지지도가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북한의 현실과 상관없이 김정일 또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4절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와 경제 지표의 관계

본 장의 제2절과 제3절의 내용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현지지도 기사
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제4절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북한의 환율, 쌀값,
북중 무역과 경제 분야의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를 살펴 현지지도가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북한의 현실과 상관없이 김정일
또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지지도 기사의 경제 분야 비중과 경제지표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
기로 한다. 평양 기준 환율, 평양 기준 쌀값, 북중 무역(수출액수), 북중 무역(전년도
대비 수출 증감률), 북중 무역(수입액수), 북중 무역(전년도 대비 수입 증감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그림 19>부터 <그림 2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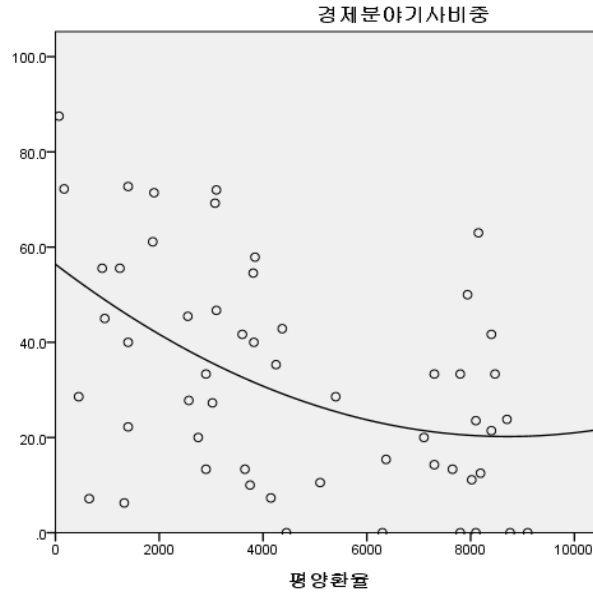
<그림 19>부터 <그림 2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가 <표 1>이다. 평양
기준의 환율과 쌀값이 높을수록 경제 분야의 현지지도 기사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중 무역의 수출입 액수 및 전년도 대비 증감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현지지도 기사의 비중은 북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환율과 쌀값으로 대외 무역보다는 국내의 실질
적인 경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 경제지표와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계수	표준편차	R ²	N
평양 환율	-0.008**	4.766E-007	0.229	82
평양 쌀값	-0.008***	3.513E-007	0.283	
북중 무역(수출액수)	-0.038	-1.827E-005	0.029	
북중 무역(수출증감율)	0.012	0.000	0.002	
북중 무역(수입액수)	-0.134	0.000	0.099	
북중 무역(수입증감율)	0.094	0.000	0.032	

*** p < 0.001, ** p < 0.05, * p < 0.01

<그림 19>는 데일리nk에서 발표하는 환율 가운데 평양의 환율과 200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제 분야 현지지도 기사의 비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데일
리nk의 환율데이터가 2009년 8월부터 공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9년 8월부
터 2014년 8월까지 약 6년간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다. 환율 데이터와 경제기사
비중 데이터는 모두 월별로 구성되었다.



〈그림 19〉 평양기준 환율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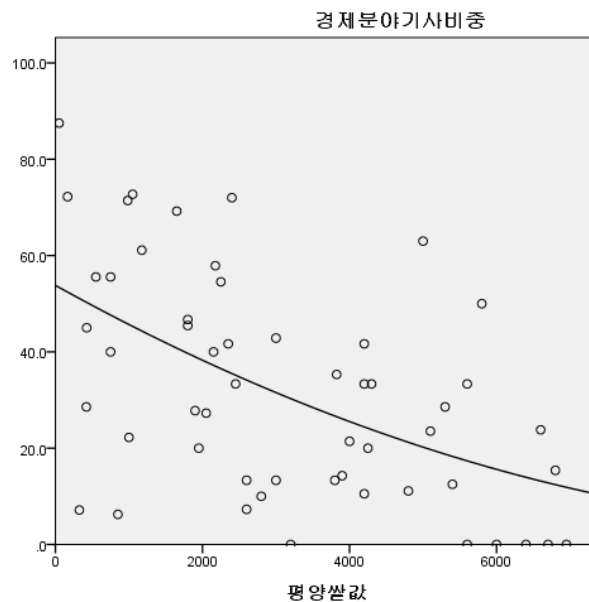
평양환율에 따른 경제기사 비중의 분포는 <그림 19>와 같고 평양환율이 1달러당 1원 오를 때 로동신문 현지지도 기사의 경제 분야 비중은 0.008%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도출되는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북한 사회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남한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환율이 오를 경우 시장의 수입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 시장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국내의 소비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가 나빠질 경우, 현지지도의 대중설득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나빠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 분야 현지지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서는 환율이 높을수록 경제 분야 현지지도의 비중이 낮아져 이러한 논리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환율이 높아지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무엇에 의한 변화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인지, 부정적인 변화인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³⁶⁾

36) 문성민, “북한 가격 및 환율 동향과 가격수준 국제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2014), pp. 60-95.

환율 상승과 경제 분야 현지도 기사 비중이 반비례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경제 환경의 상황에 따라 노동신문에 경제 분야 현지도 기사의 비중이 변화한다기보다 노동신문 경제 분야의 현지도 기사의 비중이 북한 경제의 현황을 반영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림 20>은 평양 기준 쌀값에 따른 경제 분야 현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를 <그림 19>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환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 기사 비중의 변화가 환율에 의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쌀값의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기준의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북한 사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지만³⁷⁾ 북한의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 역시 <그림 19>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 쌀 가격의 동향이 노동신문 경제 분야 현지도 기사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확인 수준으로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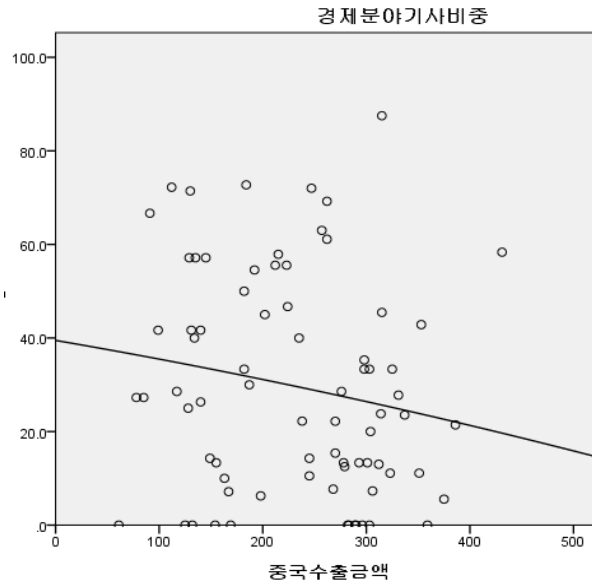


<그림 20> 평양기준 쌀값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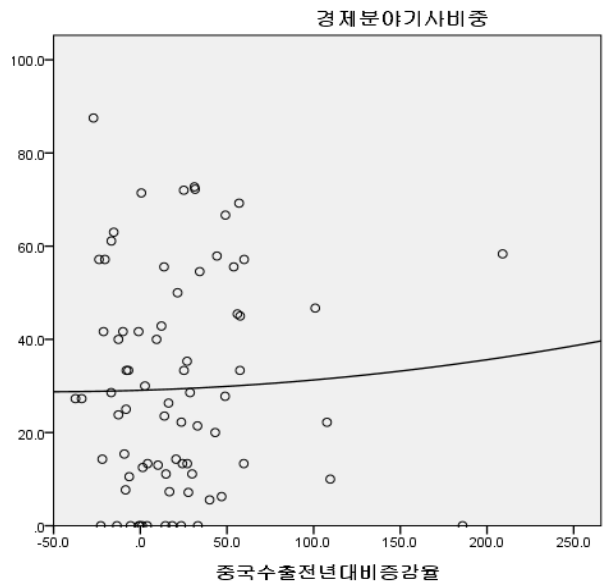
이 외에 <그림 21>부터 <그림 24>까지는 각각 북중 무역의 수출액수, 수출의 증감률, 수입액수, 수입증감률에 따라 경제 분야 현지도 기사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4가지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아 국내

37) 문성민, “북한 가격 및 환율 동향과 가격수준 국제비교,”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2014), pp. 6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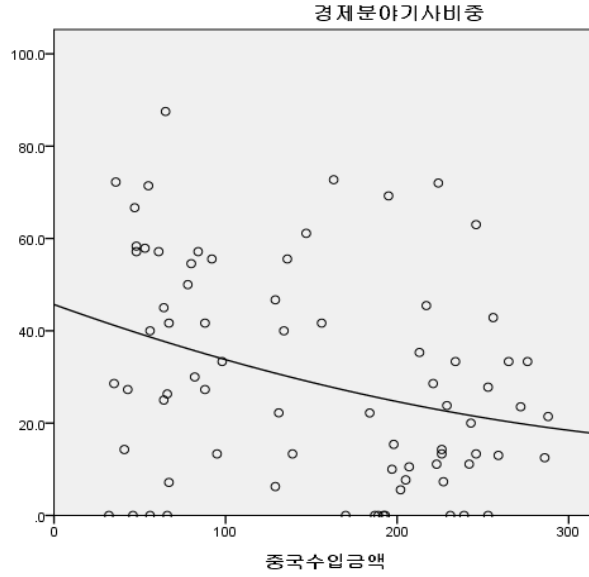
의 경제 상황이 아닌 대외 무역을 통한 경제 상황은 로동신문 경제 분야 현지지도 기사 비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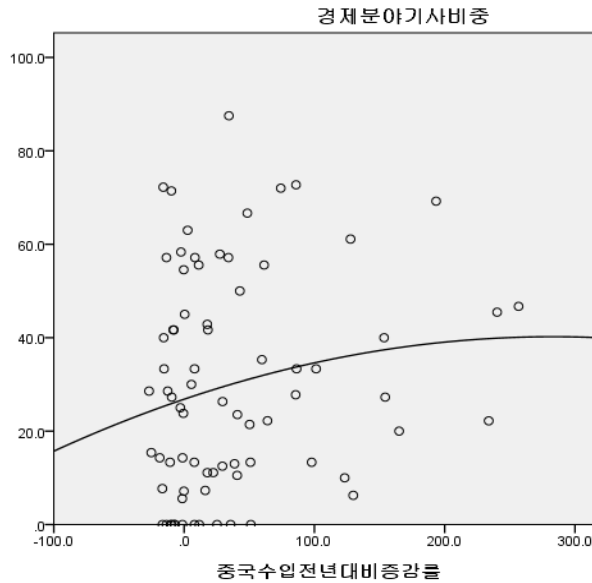
〈그림 21〉 북중 무역(수출금액)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그림 22〉 북중 무역(수출증감률)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그림 23〉 북중 무역(수입금액)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그림 24〉 북중 무역(수입증감률)과 경제 분야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관계

제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양적(量的) 분석하여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북한 경제 상황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 처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 목적, 연구 의의, 연구 구성을 서술하고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틀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황을 경제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환율, 쌀값, 북중 무역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4장의 주요 목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북한의 경제상황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현지지도 내용의 분류법 등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제2절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실시한 현지지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제2절의 내용 가운데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세밀하게 논의하였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로동신문 상의 현지지도와 북한 경제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평양 기준의 환율과 쌀값에 따른 로동신문 경제 분야 현지지도 비중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로동신문의 현지지도 기사가 북한의 현실 경제를 고려하고 경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로동신문의 현지지도 기사 비중의 양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로동신문의 현지지도 기사 게재에는 북한의 경제적 현황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환율과 쌀값에 따른 결과가 유의하게 작용하여 로동신문의 대중설득의 기능은 현실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운용되고 있고 무역 관계보다는 북한 국내의 경제적 상황이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경제지표는 그다지 많지 않다. 더욱이 몇 되지 않는 경제지표는 대부분 연도별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 경제와 관련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본 연구는 최근에 조사·발표되고 있는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성이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지만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북한 문제를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기초적인 자료 수입 및 분석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분석 및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강신창. 2001. “김정일체제의 선군정치와 군사.”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편.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 경기개발연구원. 2010.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대북경제협력 방향』. 『북한연구학회보』 12(1).
- 권영경. 2004.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개방전망.” 『통일이해』. 통일부.
- 권영경. 2008.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고찰.”
- 권오중. 2001. 『북한 ‘선군정치’의 등장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갑식. 2001. “김정일의 선군정치: 당·군 관계의 변화와 지속.” 『현대북한연구』 4(2).
- 김경호. 2006.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6(2).
- 김근식. 2000.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 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8(2).
- 김근식. 2002.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6(2).
- 김근식. 2003. “김정일시대 북한의 신발전전략: 실리사회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4).
- 김근식. 2014.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30(1).
- 김진환. 2001. 『북한의 선군정치 연구』. 동국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진환. 2013. “김정은 시대 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일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17(2).
- 김창희. 2013.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3).
- 박형중. 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30(1).
- 서재진. 2001. 『식량난에서 IT산업으로 - 변화하는 북한』. 지식마당.
- 서재진. 2001.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13.
- 서재진. 2002. “김정일시대 통치이념의 변화: 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으로.” 『북한체제의 현주소』.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02-02.

- 양문수. 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한울.
- 양문수. 2014a. “2013 북한의 시장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 양문수. 2014b.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0(1).
- 오승렬. 2002. 『북한 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 윤덕희. 2007. “북한의 경제개혁과 사회변화 전망.” 『여성가족생활연구』 11.
- 이기동. 2001.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현대북한연구』 4(2).
- 이기동. 2012.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북한연구학회보』 16(2).
- 이도기. 2004.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군·정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기. 2013.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정책과 변화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 이석기. 2014. “2013년 북한의 산업부문 동향과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 이수석. 2000.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조사연구』 4(1-2).
- 장달중. 2004. “김정일 체제와 주체비전: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장달중·이즈미 하지메 공편.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치·외교·경제·사상』.
- 정성장. 1999a.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붉은기사상’과 북한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3).
- 정성장. 1999b.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와 성격.” 『북한연구학회보』 3(2).
- 정성장. 2000. “주체사상의 기원과 형성 및 발전 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2).
- 정성장. 200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7(3).
- 정영태. 2000.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통일연구원.
- 정현수. 2005. “김정일 시대의 대외개방과 체제변동.” 『통일정책연구』 14(1).
- 조영건. 1990.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북한경제.”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 진희관. 2001. “북한 ‘변화론’ 쟁점분석: 대남혁명전략과 경제관리방식.” 『통일경제』.
- 진희관. 2008.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국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8(1).
- 최진욱. 1995. “전환기 북한의 당·정 관계.” 『통일연구논총』 4(2).
- 최진욱. 1998. “개정헌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의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7(2).

- 최진욱. 2001.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2).
- 한기범. 2009.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허인혜. 2011. “북한 경제개방의 사상적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44(2).

로동신문 2008/01/01~2014/05/31

부록 1. 2008년 1월~2014년 8월 로동신문의 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기사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	2008년	1월	7일	월	1	경제	레성강발전소 건설장
2	2008년	1월	8일	화	1	정치(군사)	제776군부대
3	2008년	1월	22일	화	1	사회/문화	제18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4	2008년	1월	26일	토	1	경제	강계담공장, 강계돼지공장
5	2008년	1월	27일	일	1-2	경제	장강군의 여러 부문 사업(장강버섯공장, 장강식료공장, 장강토끼종축장, 사진전시회장)
6	2008년	1월	30일	수	1-2	경제	3월5일청년광산
7	2008년	1월	31일	목	1	정치(대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대표단
8	2008년	2월	1일	금	1	정치(군사)	제375연합부대 지휘부
9	2008년	2월	15일	금	1	정치(군사)	제776군부대 관하 대대들
10	2008년	3월	2일	일	1	정치(대외)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11	2008년	4월	6일	일	1	정치(군사)	제350군부대 관하 중대
12	2008년	4월	7일	월	1	정치(군사)	제776군부대 관하 신입병사훈련구분대
13	2008년	4월	8일	화	1	정치(군사)	제493군부대 직속중대
14	2008년	4월	10일	목	1	정치(군사)	해군 제152군부대 지휘부
15	2008년	4월	11일	금	1	정치(군사)	제337연합부대 지휘부
16	2008년	4월	11일	금	2	정치(군사)	제109군부대관하 포중대
17	2008년	4월	15일	화	1	정치(대내)	금수산기념궁전
18	2008년	5월	2일	금	1	사회/문화	공훈국가 합창단 경축공연
19	2008년	5월	4일	일	1	정치(군사)	제720군부대 직속중대
20	2008년	5월	4일	일	1	정치(군사)	제409군부대관하 중대
21	2008년	5월	5일	월	1	경제	고산과수농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22	2008년	5월	6일	화	1-2	정치(군사)	제1105군부대
23	2008년	5월	9일	금	1	정치(군사)	제351군부대 지휘부
24	2008년	5월	9일	금	1	정치(군사)	제927군부대 지휘부
25	2008년	5월	11일	일	1	정치(군사)	제745군부대 지휘부
26	2008년	5월	13일	화	1	경제	청진염소목장, 청진수지관공장
27	2008년	5월	13일	화	1	경제	경성도자기공장, 온포휴향소
28	2008년	5월	14일	수	1	경제	길주군과 김책시의 여러 단위들
29	2008년	5월	19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30	2008년	5월	26일	월	1	정치(군사)	제324군부대 직속구분대
31	2008년	5월	27일	화	1	정치(군사)	제836군부대관하 구분대
32	2008년	5월	27일	화	1	정치(군사)	제1727사관양성군부대
33	2008년	5월	29일	목	1-2	경제	2.8비날론련합기업소
34	2008년	5월	29일	목	2	사회/문화	제324군부대/제604군부대 예술선전대들 공연
35	2008년	5월	30일	금	1	사회/문화	함흥의학대학
36	2008년	5월	31일	토	1	사회/문화	백운산유원지
37	2008년	6월	1일	일	1	경제	홍남제련소
38	2008년	6월	6일	금	1	경제	평양시 문화 및 급양봉사기지들 (대동문영화관, 옥류관, 청류관)
39	2008년	6월	10일	화	1	정치(군사)	제176군부대관하 구분대
40	2008년	6월	11일	수	1	정치(군사)	제958군부대
41	2008년	6월	11일	수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42	2008년	6월	12일	목	1	정치(군사)	제756군부대관하 구분대
43	2008년	6월	13일	금	1-2	경제	제534군부대산하 식료공장
44	2008년	6월	14일	토	1-2	경제	대계도간석지 건설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45	2008년	6월	15일	일	1	경제	북중기계연합기업소
46	2008년	6월	16일	월	1	경제	9월제철종합기업소
47	2008년	6월	19일	목	1	정치(대외)	중국 부주석 접견
48	2008년	6월	25일	수	1	사회/문화	러시아 엠.예.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카데미야민속합창단 공연
49	2008년	7월	3일	목	1-2	경제	화평군 여러 부문 사업(오가산자연보호구, 화평군민발전소)
50	2008년	7월	4일	금	1	경제	강계시 여러 단위(강계우편국혁명사적지,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 자강도공업립사업소 시험양묘장, 강계식료공장, 강계담내포국집)
51	2008년	7월	9일	수	1	정치(대내)	금수산기념궁전
52	2008년	7월	10일	목	1-2	경제	평안북도 농업부문 사업(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태천청년토끼축축장)
53	2008년	7월	11일	금	1	정치(군사)	제895군부대
54	2008년	7월	12일	토	1	정치(군사)	제280군부대
55	2008년	7월	18일	금	1	사회/문화	러시아 <베료즈까> 무용단 공연
56	2008년	7월	20일	일	1	정치(군사)	제205군부대관하 포중대
57	2008년	7월	20일	일	1	정치(군사)	제3898신입병사훈련군부대
58	2008년	8월	2일	토	1	정치(군사)	제1622군부대
59	2008년	8월	3일	일	1	정치(군사)	해군 제155군부대관하 구분대
60	2008년	8월	3일	일	1	사회/문화	제757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
61	2008년	8월	5일	화	1	정치(군사)	제1353군부대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62	2008년	8월	5일	화	1	정치(군사)	제1366군부대
63	2008년	8월	6일	수	1	정치(군사)	제3704군부대
64	2008년	8월	7일	목	1	정치(군사)	제891군부대 정찰중대
65	2008년	8월	8일	금	1-2	경제	함주돼지공장, 함주평풍터염소목장
66	2008년	8월	9일	토	1	경제	함경남도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67	2008년	8월	10일	일	1	정치(군사)	제3407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녀성중대
68	2008년	8월	10일	일	1	사회/문화	백두산밀영 현지지도 20주년과 <정일봉> 명명 2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69	2008년	8월	11일	월	1	정치(군사)	제826군부대관하 구분대
70	2008년	8월	12일	화	1	정치(군사)	제669군부대 직속중대
71	2008년	8월	12일	화	1	정치(군사)	제1374군부대관하 녀성중대
72	2008년	8월	15일	금	1	정치(군사)	제1319군부대
73	2008년	10월	5일	일	1	사회/문화	대학생축구경기
74	2008년	10월	11일	토	1	정치(군사)	제821군부대관하 녀성포중대
75	2008년	11월	2일	일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만경봉>팀과 <제비>팀간의 축구경기
76	2008년	11월	5일	수	1	정치(군사)	제2200군부대
77	2008년	11월	5일	수	1	정치(군사)	제534군부대 직속구분대 훈련장
78	2008년	11월	6일	목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예술인들 공연
79	2008년	11월	6일	일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
80	2008년	11월	7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
81	2008년	11월	25일	화	1	경제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비누직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82	2008년	12월	1일	월	1	정치(군사)	공군 제1016군부대
83	2008년	12월	2일	화	1	사회/문화	중앙동물원
84	2008년	12월	12일	금	1	경제	사리원닭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85	2008년	12월	12일	금	2	경제	사리원시 민속거리
86	2008년	12월	17일	수	1	경제	강계시의 여러 단위들(자강도전자업무연구소, 자강도도서관, 강계고려약공장)
87	2008년	12월	18일	목	1	경제	2월제강종합기업소
88	2008년	12월	19일	금	1	경제	리종옥 사업 기계공장
89	2008년	12월	20일	토	1	정치(군사)	제955군부대 지휘부
90	2008년	12월	21일	일	1	경제	희천도자기공장
91	2008년	12월	25일	목	1-2	경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92	2008년	12월	28일	일	1	정치(군사)	공군 제1017군부대
93	2008년	12월	29일	월	1	사회/문화	국립교향악단 공연
94	2009년	1월	3일	토	1-2	정치(군사)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95	2009년	1월	5일	월	1	정치(군사)	포병사령부관하 제1489군부대
96	2009년	1월	7일	수	1-3	경제	원산청년발전소
97	2009년	1월	14일	수	1-3	경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금성트락또르 공장
98	2009년	1월	16일	금	1	경제	평양시 경공업공장들
99	2009년	1월	18일	일	1	정치(군사)	제2752군부대관하 구분대
100	2009년	1월	18일	일	1-2	사회/문화	룡악산유원지
101	2009년	1월	24일	토	1	정치(대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102	2009년	1월	27일	화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03	2009년	1월	29일	목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4.25>팀과 종합팀 간 배구경기
104	2009년	1월	29일	목	1	사회/문화	해군사령부협주단/공군사령부협주단 공연
105	2009년	2월	1일	일	1	경제	레성강청년1호발전소
106	2009년	2월	1일	일	2	정치(군사)	제131부대관하 구분대
107	2009년	2월	4일	수	1	경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108	2009년	2월	5일	목	1	경제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09	2009년	2월	7일	토	1-3	경제	홍남비료연합기업소
110	2009년	2월	7일	토	1, 3	사회/문화	함경남도예술단 예술인들 음악무용종합공연
111	2009년	2월	9일	월	1-2	경제	락원기계연합기업소
112	2009년	2월	12일	목	1	정치(군사)	포병사령부관하 제681군부대
113	2009년	2월	13일	금	1-2	경제	원산시내 공장들(원산유리병공장, 원산구두공장)
114	2009년	2월	13일	금	2	사회/문화	원산농업대학
115	2009년	2월	22일	일	1	경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116	2009년	2월	23일	월	1	경제	7월7일연합기업소
117	2009년	2월	23일	월	1	사회/문화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118	2009년	2월	24일	화	1	경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19	2009년	2월	25일	수	1-2	경제	회령시 여러 부문 사업(혁명사적지관리소, 회령기초식품공장, 회령대성담배공장)
120	2009년	3월	1일	일	1-2	경제	만포시내 여러 단위(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야공장, 만포방사공장)
121	2009년	3월	5일	목	1-2	경제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건설사업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22	2009년	3월	9일	월	1	정치(대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123	2009년	3월	13일	금	1-2	경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124	2009년	3월	15일	일	1	정치(군사)	사령부관하 제1811군부대
125	2009년	3월	18일	수	1	경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126	2009년	3월	19일	목	1	사회/문화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
127	2009년	3월	20일	금	1	사회/문화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128	2009년	3월	21일	토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전초병열성자대회
129	2009년	3월	22일	일	1	사회/문화	가극 <홍루몽> 창조사업
130	2009년	3월	24일	화	1-2	경제	재령광산
131	2009년	3월	26일	목	1-2	경제	희천발전소 건설장
132	2009년	3월	2일	토	1	경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133	2009년	3월	28일	토	2	경제	구성공작기계공장
134	2009년	4월	5일	일	1	사회/문화	평양대극장
135	2009년	4월	6일	월	1	경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찾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과정
136	2009년	4월	8일	수	1	경제	삼일포특산물공장
137	2009년	4월	10일	금	2	정치(대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
138	2009년	4월	16일	목	1	사회/문화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
139	2009년	4월	19일	일	1-2	경제	녕원발전소
140	2009년	4월	22일	수	1	정치(군사)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141	2009년	4월	25일	토	1	경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
142	2009년	4월	27일	월	1	정치(군사)	조선인민군창건 77돐 즈음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지휘부 방문, 인민군장병들 축하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43	2009년	4월	27일	월	2	사회/문화	원산농업대학에 새로 건설된 온실
144	2009년	4월	28일	화	1	경제	원산시 여러 부문 사업(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원산시내, 도시경영사업, 송도원야외극장)
145	2009년	4월	30일	목	1	사회/문화	붉은기서중중학교
146	2009년	5월	2일	토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147	2009년	5월	3일	일	1	사회/문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
148	2009년	5월	6일	수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대학
149	2009년	5월	10일	일	1	경제	희천시내공장, 기업소들(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150	2009년	5월	22일	금	1	정치(군사)	공군 제814군부대
151	2009년	5월	24일	일	1-2	사회/문화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들 사업
152	2009년	5월	26일	화	1	사회/문화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품 공연
153	2009년	5월	29일	금	1-2	경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154	2009년	6월	1일	월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갈마극장개관공연
155	2009년	6월	2일	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156	2009년	6월	4일	목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157	2009년	6월	6일	토	1-2	경제	단천시내 공장/기업소
158	2009년	6월	6일	토	2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159	2009년	6월	7일	일	1	경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160	2009년	6월	8일	월	1	경제	고산과수농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61	2009년	6월	8일	월	1	사회/문화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창조사업
162	2009년	6월	15일	월	1-2	정치(군사)	제7보병사단 지휘부
163	2009년	6월	15일	월	2	사회/문화	가극 <홍루몽> 공연
164	2009년	7월	1일	수	1	경제	함흥반도체재료공장,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165	2009년	7월	6일	월	1-2	경제	대계도간석지건설장
166	2009년	7월	9일	목	1	정치(대내)	김일성 서거 15주년 중앙추모대회
167	2009년	7월	14일	화	1-2	경제	대동강타일공장
168	2009년	7월	18일	토	1	정치(군사)	해군 제597군부대
169	2009년	7월	28일	화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170	2009년	7월	31일	금	1-2	경제	평양방직공장
171	2009년	8월	5일	수	1	정치(대외)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172	2009년	8월	12일	수	1	사회/문화	김정숙해군대학
173	2009년	8월	13일	목	1	사회/문화	연극 <네온등밧의 초병> 공연
174	2009년	8월	14일	금	1	사회/문화	송도원청년야외극장
175	2009년	8월	14일	금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974군부대관하 부대의 군인가족예술 소조공연과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
176	2009년	8월	17일	월	1	경제	보통강상점
177	2009년	8월	17일	월	2	정치(대외)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
178	2009년	8월	18일	화	1-2	경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179	2009년	8월	19일	수	1	경제	구장양어장
180	2009년	8월	26일	수	1-2	경제	5월11일제련소
181	2009년	8월	29일	토	1	경제	원산제염소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82	2009년	8월	30일	일	1	사회/문화	문천시 문천중학교
183	2009년	9월	3일	목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184	2009년	9월	3일	목	1-3	경제	경성군과 명천군 여러 부문 사업(경성혁명사적관, 염분진혁명사적지, 경성애자공장, 김정숙료양소, 황진온천마을)
185	2009년	9월	4일	금	1-3	경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김책대흥수산기업소
186	2009년	9월	4일	금	3-4	경제	경성군과 명천군의 여러 부문 사업
187	2009년	9월	9일	수	1	사회/문화	러시아와 북한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188	2009년	9월	14일	월	1-3	정치(군사)	해군 제597군부대 련합부대 종합기동훈련
189	2009년	9월	15일	화	1-2	경제	북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190	2009년	9월	18일	금	1-2	경제	희천발전소 건설장
191	2009년	9월	19일	토	1	정치(대외)	중국 주석 특사
192	2009년	9월	30일	수	1	사회/문화	전군초기복무사관열성자대회 참가자들
193	2009년	9월	30일	수	1	경제	평양시 경공업부문 공장들
194	2009년	10월	1일	목	1-3	사회/문화	전군초기복무사관열성자대회 참가자들
195	2009년	10월	1일	목	2, 4-5	경제	평양시 여러 부문 사업(평양메기공장, 12월7일공장,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건설중인 대학도서관건설추진정형)
196	2009년	10월	3일	토	1	경제	군인건설자들
197	2009년	10월	3일	토	1-3	경제	중앙양묘장, 타조목장
198	2009년	10월	5일	월	1	정치(대외)	중국 국무원 총리(온가보) 맞이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99	2009년	10월	5일	월	2	정치(대외)	중국 국무원 총리(온가보)와 가극 <홍루몽> 공연
200	2009년	10월	6일	화	1	정치(대외)	중국 국무원 총리(온가보)와 대집단체조/예술공연
201	2009년	10월	6일	화	2	정치(대외)	중국 국무원 총리(온가보) 숙소
202	2009년	10월	6일	화	3	정치(대외)	중국 국무원 총리(온가보) 위한 만찬
203	2009년	10월	9일	금	1-2	경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204	2009년	10월	9일	금	2-3	사회/문화	황해북도예술극장 도예술단 개관공연
205	2009년	10월	10일	토	1	사회/문화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삼지연악단 합동경축공연
206	2009년	10월	19일	월	1	사회/문화	러시아내무성 내무군 아카데미야협주단공연
207	2009년	10월	20일	화	1	사회/문화	연어연구소
208	2009년	10월	21일	수	1-5	경제	만수대거리 주택들
209	2009년	10월	23일	금	1-3	경제	9월26일종자돼지공장, 10월22일돼지공장
210	2009년	10월	25일	일	1-2	경제	희천시 여러 부문 사업(청년전기련합소, 희천제사공장, 희천공업대학)
211	2009년	10월	26일	월	1-4	사회/문화	새로 꾸려진 묘향산유원지
212	2009년	10월	27일	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33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중대군인들 공연
213	2009년	10월	31일	토	1-2	경제	수풍발전소
214	2009년	11월	1일	일	1-4	경제	개건현대화된 평안북도안의 공장, 기업소들
215	2009년	11월	2일	월	1-2	경제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216	2009년	11월	7일	토	1-7	경제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공정건설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217	2009년	11월	7일	토	2	사회/문화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종업원예술소조공연
218	2009년	11월	8일	일	1-4	경제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219	2009년	11월	9일	월	1	정치(군사)	제1224군부대
220	2009년	11월	10일	화	1	사회/문화	인민보안성예술선전대 공연
221	2009년	11월	21일	토	1-4	경제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
222	2009년	11월	22일	일	1	정치(군사)	인민보안성 본부
223	2009년	11월	23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147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 예술소품공연
224	2009년	11월	23일	월	1	사회/문화	공장, 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들/예술소조원들 공연
225	2009년	11월	24일	화	1-5	경제	운산공구공장
226	2009년	11월	25일	수	1-5	경제	평안북도 공장, 기업소들
227	2009년	11월	26일	목	1	정치(대외)	중국 국방부장
228	2009년	11월	27일	금	1-4	경제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229	2009년	11월	28일	토	1-2	정치(군사)	해군 제587연합부대 지휘부
230	2009년	11월	29일	일	1-4	경제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염소목장, 제1596군부대산하 목화농장
231	2009년	11월	30일	월	1-4	경제	인민보안성 대동강과수종합농장
232	2009년	11월	30일	월	5-9	경제	석정돼지공장, 석정장아찌공장
233	2009년	12월	10일	목	1-5	경제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234	2009년	12월	10일	목	5-6	경제	강계목장
235	2009년	12월	11일	금	1-8	경제	강계시내 공장들
236	2009년	12월	12일	토	1-4	경제	평양곡산공장
237	2009년	12월	17일	목	1-6	경제	라선대흥무역회사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238	2009년	12월	18일	금	1-4	경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39	2009년	12월	20일	일	1-6	경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240	2009년	12월	28일	월	1	사회/문화	해군사령부협주단 공연
241	2010년	1월	4일	월	1-6	경제	희천발전소 건설장
242	2010년	1월	5일	화	1-2	경제	재령광산
243	2010년	1월	6일	수	1-5	정치(군사)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
244	2010년	1월	7일	목	1-2	경제	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장
245	2010년	1월	11일	월	1-5	경제	강동약전기구공장
246	2010년	1월	13일	수	2-3	경제	제313대련합부대 산하 돼지공장
247	2010년	1월	16일	토	1-5	경제	제534군부대산하 10월7일돼지공장
248	2010년	1월	18일	월	1	정치(군사)	륙해공군합동훈련
249	2010년	1월	19일	화	1	사회/문화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공연
250	2010년	1월	21일	목	1-3	경제	홍남제련소, 수산기업소들(홍남대흥 수산기업소)
251	2010년	1월	23일	토	1	사회/문화	국립민족예술단 공연
252	2010년	1월	24일	일	1-12	경제	평양밀가루가공공, 룡성식료공장
253	2010년	1월	24일	일	2	사회/문화	법정, 중앙재판소청사
254	2010년	1월	25일	월	1	경제	제567대련합부대 돼지공장
255	2010년	1월	26일	화	1-4	경제	북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256	2010년	1월	27일	수	1-5	경제	9월제철종합기업소, 덕현광산
257	2010년	1월	28일	목	1-2	경제	평안북도 도로들
258	2010년	1월	31일	일	1-4	경제	향산호텔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259	2010년	2월	1일	월	1	정치(군사)	제630대련합부대 지휘부
260	2010년	2월	1일	월	2	사회/문화	청년기동선전대 공연
261	2010년	2월	3일	수	1-3	경제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업소
262	2010년	2월	6일	토	3	사회/문화	가극 <예브게니 오네길> 공연
263	2010년	2월	8일	월	1-3	경제	2.8비날론련합기업소
264	2010년	2월	9일	화	1-2	정치(대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대 표단
265	2010년	2월	10일	수	1-8	경제	(2.8비날론련합기업소)
266	2010년	2월	16일	화	1	사회/문화	은하수관현악단설명절음악회
267	2010년	2월	18일	목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268	2010년	2월	18일	목	1	사회/문화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269	2010년	2월	18일	목	1	사회/문화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270	2010년	2월	21일	일	1-5	경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271	2010년	2월	22일	월	1	사회/문화	인민보안성협주단 공연
272	2010년	2월	23일	화	1-2	사회/문화	평양시 대학생들 예술소조공연
273	2010년	3월	5일	금	1-5	경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74	2010년	3월	7일	일	1-2	경제	비날론공장 준공 경축 함흥시군중대회
275	2010년	3월	11일	목	1-5	경제	희천시 공장들(칠성전기공장, 희천도자기공장,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276	2010년	3월	13일	토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협주단 공연
277	2010년	3월	14일	일	1-5	경제	사리원시 3중3대혁명 붉은기 미곡협동농장
278	2010년	3월	26일	금	1-3	경제	천마전기 기계공장, 대흥산기계공장
279	2010년	3월	2일	일	1	사회/문화	국립교향악단 공연
280	2010년	4월	4일	일	1-4	사회/문화	만수대에술단 공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281	2010년	4월	13일	화	1-9	사회/문화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282	2010년	4월	14일	수	1	정치(군사)	제567대련합부대 종합훈련
283	2010년	4월	16일	금	1	사회/문화	태양절음악회
284	2010년	4월	18일	일	1-7	경제	희천발전소건설장
285	2010년	4월	18일	일	2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소품공연
286	2010년	4월	19일	월	1	사회/문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
287	2010년	4월	19일	월	1	사회/문화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
288	2010년	4월	23일	금	1-3	사회/문화	개선청년공원
289	2010년	4월	25일	일	1-2	정치(군사)	제115군부대
290	2010년	4월	26일	월	1-2	정치(군사)	제586군부대 지휘부
291	2010년	4월	26일	월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건군절경축음악회
292	2010년	4월	27일	화	1-4	사회/문화	경희극 <산올림>
293	2010년	4월	29일	목	1	사회/문화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공연
294	2010년	5월	2일	일	1	사회/문화	5.1절합동음악회
295	2010년	5월	7일	금	1	정치(대외)	중국 동북지역 비공식 방문
296	2010년	5월	8일	토	1-2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297	2010년	5월	9일	일	1-9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298	2010년	5월	9일	일	2	사회/문화	경희극 <산올림>
299	2010년	5월	10일	월	1-5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300	2010년	5월	12일	수	2-7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301	2010년	5월	13일	목	2-7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302	2010년	5월	14일	금	2-7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303	2010년	5월	15일	토	2-3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304	2010년	5월	17일	월	1-5	경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305	2010년	5월	18일	화	1-2	경제	백암군 덕포지구 감자농장
306	2010년	5월	18일	화	3-7	경제	삼지연군 여러 부문 사업(삼지연공장)
307	2010년	5월	19일	수	1-4	경제	혜산시 여러 부문 사업(혜산시 혜산강철공장, 혜산신발공장, 김정숙사범대학)
308	2010년	5월	20일	목	1	경제	대흥단군(대흥단군농업경영위원회 산하 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국수집)
309	2010년	5월	21일	금	1-2	경제	관모봉기계공장
310	2010년	5월	21일	금	2-7	경제	어랑천발전소 건설장, 청진토끼종축장
311	2010년	5월	21일	금	1	경제	관모봉기계공장
312	2010년	5월	22일	토	1-10	경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313	2010년	5월	22일	토	3	사회/문화	함흥화학공업대학
314	2010년	6월	3일	목	1	사회/문화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315	2010년	6월	4일	금	1	경제	오문현 사업 기계공장
316	2010년	6월	6일	일	1-6	경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317	2010년	6월	7일	월	1-4	경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318	2010년	6월	8일	화	1	정치(대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회의
319	2010년	6월	15일	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320	2010년	6월	19일	토	1-3	경제	락원기계연합기업소
321	2010년	6월	20일	일	1	정치(군사)	제593군부대 지휘관강습소
322	2010년	6월	20일	일	1-5	경제	평안북도 여러 부문 사업(12월5일 청년광산,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북중전극공장,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323	2010년	7월	2일	금	1-2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
324	2010년	7월	8일	목	1-4	경제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장
325	2010년	7월	8일	목	5-6	경제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
326	2010년	7월	16일	금	1-5	경제	대계도간석지
327	2010년	7월	16일	금	6-7	경제	암록강수산사업소
328	2010년	7월	20일	화	1	사회/문화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 공연
329	2010년	7월	25일	일	1	사회/문화	평양교예단 종합교예공연
330	2010년	7월	28일	수	1	사회/문화	전승절경축음악회 관람
331	2010년	7월	31일	토	1-4	경제	자강도의 여러 공장(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332	2010년	8월	1일	일	1-5	경제	강계시의 경공업부문 공장들 현지지도(장자산종합식료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강계고려약공장)
333	2010년	8월	1일	일	3	경제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334	2010년	8월	3일	화	1-4	경제	2.8비날론연합기업소
335	2010년	8월	4일	수	1-4	경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336	2010년	8월	4일	수	5	경제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
337	2010년	8월	5일	목	1-5	경제	금야강군민발전소 건설장
338	2010년	8월	18일	수	1	사회/문화	경희극<산올림>
339	2010년	8월	23일	월	1	사회/문화	음악대공연 <선군승리 천만리>
340	2010년	8월	25일	수	1	경제	927닭공장
341	2010년	8월	26일	목	1-6	경제	평양곡산공장
342	2010년	8월	31일	화	1-2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343	2010년	9월	8일	수	1	사회/문화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344	2010년	9월	9일	목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9월음악회>
345	2010년	9월	10일	금	1	사회/문화	은하수 <9월음악회>
346	2010년	9월	12일	일	1-5	경제	3월5일청년광산
347	2010년	9월	13일	월	1-5	경제	만포문화공장
348	2010년	9월	20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 녀성취주악단 공연
349	2010년	9월	26일	일	1	사회/문화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 창조사업
350	2010년	9월	29일	수	2	정치(대내)	조선로동당대표자회
351	2010년	9월	30일	목	1-2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대표자회 참가자들
352	2010년	10월	3일	일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353	2010년	10월	6일	수	1-2	정치(군사)	제851군부대 군인들 협동훈련
354	2010년	10월	7일	목	1	사회/문화	은하수 <10월음악회>
355	2010년	10월	9일	토	1-5	사회/문화	국립연극극장 예술인 가정 방문
356	2010년	10월	10일	일	1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
357	2010년	10월	10일	일	2	사회/문화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대집단체조/예술공연 <아리랑>
358	2010년	10월	11일	월	1-2	정치(군사)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
359	2010년	10월	11일	월	3	사회/문화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동당시대>
360	2010년	10월	12일	화	1-2	정치(대외)	중국공산당대표단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361	2010년	10월	13일	수	1-2	정치(군사)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 참가 지휘성원들
362	2010년	10월	18일	월	1	경제	옥류관 료리전문식당
363	2010년	10월	19일	화	1	사회/문화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
364	2010년	10월	26일	화	1	정치(군사)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 군중대회
365	2010년	10월	26일	화	1-2	정치(대외)	중국 고위군사대표단 등 중국 여러 대 표단
366	2010년	10월	27일	수	1-4	정치(대외)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
367	2010년	10월	27일	수	4-5	정치(대외)	전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368	2010년	11월	2일	화	1	사회/문화	은하수 <10월음악회> 결속공연
369	2010년	11월	4일	목	1-10	경제	희천발전소 건설장
370	2010년	11월	7일	일	1	사회/문화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 예술소조공 연
371	2010년	11월	7일	일	1	사회/문화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관람
372	2010년	11월	9일	화	1	정치(대내)	고 조명록 애도
373	2010년	11월	13일	토	1	정치(군사)	제3875군부대
374	2010년	11월	18일	목	1-7	경제	창성군 공장들(창성식료공장, 창성군 문화회관)
375	2010년	11월	21일	일	1-2	정치(군사)	조선인민내무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
376	2010년	11월	23일	화	1-2	경제	룡호오리공장
377	2010년	11월	23일	화	2-4	경제	룡연바다가양어사업소, 룡정양어장
378	2010년	11월	24일	수	1-6	경제	룡성식료공장
379	2010년	11월	24일	수	7-10	사회/문화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
380	2010년	11월	25일	목	1-8	경제	대안친선유리공장, 강서약수가공공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381	2010년	11월	26일	금	1-5	사회/문화	해방산기슭 살림집, 평양무용대학
382	2010년	11월	29일	월	1	사회/문화	국립교향악단 공연
383	2010년	12월	1일	수	1-2	경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분공장
384	2010년	12월	2일	목	1-2	경제	함흥시 경공업공장들(백운산종합식료 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흥남제약공장건설정형)
385	2010년	12월	2일	목	3	사회/문화	함흥수리동력대학
386	2010년	12월	3일	금	1-5	경제	단천시 여러 단위들(단천마그네사이트공장, 단천광산기계공장, 단천항건설장)
387	2010년	12월	4일	토	1-3	경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무산식료공장
388	2010년	12월	5일	일	1-6	경제	회령시 여러 부문 사업(회령대성담배 공장, 회령식료가공공장, 회령고려약 공장)
389	2010년	12월	6일	월	1	사회/문화	함경북도예술단공연
390	2010년	12월	7일	화	1-4	경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391	2010년	12월	10일	금	1	정치(대외)	중국 국무위원
392	2010년	12월	11일	토	1-5	경제	평양시 경공업공장들, 보통강백화점
393	2010년	12월	12일	일	1-6	경제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선홍식료공장, 향만루대중식당
394	2010년	12월	13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34차 군무자예숙축전 당선 중대군인들 공연
395	2010년	12월	16일	목	1-3	경제	제522군부대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
396	2010년	12월	17일	금	1	정치(군사)	조선인민군 제2670군부대 시찰
397	2010년	12월	22일	수	1-6	경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398	2010년	12월	23일	목	1-2	경제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발전소 건설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399	2010년	12월	25일	토	1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최 경축연회
400	2010년	12월	26일	일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12월경축음악회>
401	2011년	1월	1일	토	3-4	정치(군사)	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 군사훈련
402	2011년	1월	2일	일	1	사회/문화	은한수관현악단 신년경축음악회
403	2011년	1월	13일	목	1-4	경제	남포유리병공장
404	2011년	1월	15일	토	1-5	경제	평안북도안의 공장들(압록강계기종합공장, 수봉베아링공장, 압록강일용품공장)
405	2011년	1월	16일	일	1-2	경제	대관유리공장
406	2011년	1월	19일	수	1-5	경제	1월18일기계종합공장
407	2011년	1월	20일	목	1-4	사회/문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408	2011년	1월	20일	목	5-7	사회/문화	중앙동물원
409	2011년	1월	21일	금	1-7	경제	11월20일공장, 룡악산생물공장
410	2011년	1월	22일	토	1-4	경제	사리원시 식료공장들
411	2011년	1월	23일	일	1-7	사회/문화	만수대창작사
412	2011년	1월	25일	화	1	정치(대외)	에짚트 오라스콧전기통신회사 리사장
413	2011년	1월	27일	목	1	사회/문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 공연
414	2011년	1월	31일	월	1-8	경제	항흥시의 중요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415	2011년	1월	31일	월	4	사회/문화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 종업원예술조소 공연
416	2011년	2월	1일	화	1	사회/문화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 공연
417	2011년	2월	2일	수	1	경제	신흥기계공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418	2011년	2월	3일	목	1	정치(군사)	제656부대 지휘부
419	2011년	2월	3일	목	1-2	사회/문화	정성의학종합연구소
420	2011년	2월	3일	목	2	사회/문화	은하수 <설명절음학회>
421	2011년	2월	10일	목	1	사회/문화	제963군부대예술선전대 공연
422	2011년	2월	12일	토	1-3	경제	운산공구공장
423	2011년	2월	15일	화	1	경제	구성공작기계공장, 태천발전소
424	2011년	2월	16일	수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425	2011년	2월	17일	목	1	정치(대내)	김정일 탄생 69주년 기념연회
426	2011년	2월	19일	토	1	사회/문화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427	2011년	3월	4일	금	1-6	경제	평양남새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428	2011년	3월	6일	일	1	사회/문화	국립교향악단 공연
429	2011년	3월	8일	화	1	사회/문화	조로예술인들의 합동공연
430	2011년	3월	11일	금	1-7	경제	함흥시의공장,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룡성기계연합기업소,설비조립연합기업소,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함흥산업건설사업소,홍남제련소,함흥모직공장)
431	2011년	3월	14일	월	1	사회/문화	해군협주단 공연
432	2011년	3월	17일	목	1	경제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
433	2011년	3월	24일	목	1	사회/문화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434	2011년	3월	25일	금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부문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
435	2011년	3월	27일	일	1	사회/문화	경희극 <산올림>
436	2011년	4월	7일	목	1-4	경제	자강도내 공장, 기업소들(자강도제련소, 압록강다이야공장)
437	2011년	4월	7일	목	4	사회/문화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 공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438	2011년	4월	8일	금	1-3	경제	강계시 공장들(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강계고려약공장)
439	2011년	4월	9일	토	1-4	경제	자강도 공장, 기업소들(2월제강종합기업소, 자강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440	2011년	4월	16일	토	1	사회/문화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
441	2011년	4월	21일	목	1-3	경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442	2011년	4월	21일	목	4	경제	수성천종합식료공장
443	2011년	4월	22일	금	1-2	경제	혜산청년광산
444	2011년	4월	23일	토	1	경제	라진조선소
445	2011년	4월	23일	토	1	사회/문화	제264대련합부대예술선전대 공연
446	2011년	4월	24일	일	1-4	경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447	2011년	4월	25일	월	1-3	경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448	2011년	4월	26일	화	1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건군절경축 공연
449	2011년	5월	5일	목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 개관식
450	2011년	5월	7일	토	1-7	경제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평양방직공장, 려량봉화회복공장, 봉화비누공장, 평야수지연필공장)
451	2011년	5월	8일	일	1-5	경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452	2011년	5월	10일	화	1	사회/문화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
453	2011년	5월	13일	금	1-2	경제	구장양어장
454	2011년	5월	18일	수	1-5	정치(대외)	러시아 대외정보국대표단
455	2011년	5월	19일	목	1	경제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
456	2011년	5월	27일	금	1	정치(대외)	중국 비공식 방문
457	2011년	5월	28일	토	1	정치(대외)	중국 동북지역/화동지역 비공식 방문
458	2011년	5월	29일	일	1-6	경제	희천발전소 건설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459	2011년	5월	29일	일	3	사회/문화	주선인민내무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 공연
460	2011년	6월	3일	금	1	경제	고산과수농장
461	2011년	6월	3일	금	5-7	사회/문화	신철희 사업 양어연구소
462	2011년	6월	6일	월	1	사회/문화	건설자들 예술소조 공연
463	2011년	6월	11일	토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군부대들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464	2011년	6월	14일	화	1	정치(대외)	중국공산당대표단
465	2011년	7월	2일	토	1	사회/문화	제963군부대예술선전대 공연
466	2011년	7월	3일	일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군부대들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467	2011년	7월	6일	수	1	사회/문화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참가자
468	2011년	7월	7일	목	1-3	경제	락원기계연합기업소
469	2011년	7월	7일	목	3-5	경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470	2011년	7월	11일	월	1	경제	경공업부문 사업(경공업부문, 평양제1백화점)
471	2011년	7월	11일	월	2	사회/문화	중앙동물원
472	2011년	7월	13일	수	1	정치(대외)	중국 친선대표단
473	2011년	7월	14일	목	1, 3	정치(군사)	제963군부대 지휘부
474	2011년	7월	14일	목	2-4	사회/문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475	2011년	7월	16일	토	1-2	사회/문화	중국감속성가무극원무용극 <비단길 위의 꽃보리>의 조선방문예술단 공연
476	2011년	7월	17일	일	1	사회/문화	은하수관현악단 은하수극장 개관기념 음악회
477	2011년	7월	22일	금	1-8	경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일종합 가공공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478	2011년	7월	22일	금	4	사회/문화	국립교향악단 공연
479	2011년	7월	25일	월	1	정치(대내)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
480	2011년	7월	26일	화	1	정치(군사)	해군사령부
481	2011년	7월	28일	목	1	사회/문화	전승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482	2011년	7월	29일	금	1	경제	5월11일공장
483	2011년	8월	9일	화	1-3	경제	2.8비날론연합기업소
484	2011년	8월	21일	일	1	정치(대외)	러시아 씨비리 및 원동지역 방문 관련 러시아 국경선 하산 통과
485	2011년	8월	22일	월	1	정치(대외)	러시아 아무르주 방문
486	2011년	8월	24일	수	1	정치(대외)	러시아 부랴찌야공화국
487	2011년	8월	25일	목	1	정치(대외)	러시아 대통령 접견
488	2011년	8월	25일	목	1	정치(대외)	러시아 대통령 회담
489	2011년	8월	25일	목	1	정치(대외)	러시아 대통령 연회 주최
490	2011년	8월	27일	토	1	정치(대외)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방문
491	2011년	8월	27일	토	1	정치(대외)	중국 허이룽강성 통과
492	2011년	8월	28일	일	1	정치(대외)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
493	2011년	8월	28일	일	1	정치(대외)	중국 지린성 통과
494	2011년	8월	29일	월	1-11	정치(대외)	러시아 씨비리 및 원동지역방문 관련 상보
495	2011년	8월	30일	화	1-9	정치(대외)	중국 동북지역통과 및 방문 관련 상보
496	2011년	8월	31일	수	1-4	경제	희천발전소 건설장
497	2011년	8월	31일	수	5-6	사회/문화	룡림군(물놀이장, 룡림군문화회관)
498	2011년	9월	9일	금	1-2	경제	보통문거리고기상점
499	2011년	9월	9일	금	3-5	경제	평양시 여러 부문 사업(평양풀가공공 장, 금성식료공장, 만수대지구 건설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500	2011년	9월	10일	토	1-2	정치(대내)	북한 건국 63주년 로농적위대열병식
501	2011년	9월	11일	일	1-3	사회/문화	목란비디오사
502	2011년	9월	12일	월	1	사회/문화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 공연
503	2011년	9월	24일	토	1	정치(대외)	라오스 주석 접견
504	2011년	10월	4일	화	1-2	경제	룡전과수농장
505	2011년	10월	4일	화	2	경제	단천항 건설장
506	2011년	10월	4일	화	3-4	경제	단처마스네샤공장
507	2011년	10월	5일	수	1	경제	단천항 건설장
508	2011년	10월	8일	토	1-2	경제	락량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509	2011년	10월	8일	토	2-3	경제	평성합성가죽공장
510	2011년	10월	10일	월	1-4	경제	중앙양묘장
511	2011년	10월	10일	월	5-7	경제	태양열설비센터
512	2011년	10월	11일	화	1	경제	태양열설비센터
513	2011년	10월	12일	수	1	사회/문화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514	2011년	10월	12일	수	2-3	경제	두단오리공장
515	2011년	10월	13일	목	1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창당 66주년 기념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주최 연회
516	2011년	10월	14일	금	1-2	경제	대동강자라공장
517	2011년	10월	14일	금	2-5	경제	대동강폐지공장, 대동강그물공장
518	2011년	10월	16일	일	1-8	경제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519	2011년	10월	17일	월	1-5	경제	함흥시 중요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련소 현지지도)
520	2011년	10월	18일	화	1	경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521	2011년	10월	19일	수	1	사회/문화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 군인들 예술소조 공연
522	2011년	10월	20일	목	1	정치(군사)	제4304군부대
523	2011년	10월	21일	금	1	정치(대외)	러시아 아무르주 장관일행 접견
524	2011년	10월	23일	일	1	정치(군사)	제985군부대 지휘부
525	2011년	10월	23일	일	2	경제	광덕돼지공장
526	2011년	10월	24일	월	1	경제	함경남도 일군/로력혁신자/과학자/기술자들 위한 연회
527	2011년	10월	25일	화	1-2	정치(대외)	중국 국무원 부총리(리커창) 접견
528	2011년	10월	30일	일	1-5	경제	자강도
529	2011년	11월	1일	화	1	정치(군사)	제789군부대
530	2011년	11월	1일	화	2	정치(대외)	북한주재 중국 특명전권대사
531	2011년	11월	3일	목	1-2	정치(군사)	공군 연합부대
532	2011년	11월	4일	금	1-2	정치(군사)	제322군부대
533	2011년	11월	4일	금	3	경제	태성기계공장
534	2011년	11월	8일	화	1	정치(군사)	공군 제813군부대
535	2011년	11월	12일	토	1-3	경제	김종환 사업 양어사업소
536	2011년	11월	13일	일	1-3	경제	제580군부대관하 엄덕성 사업 양어장
537	2011년	11월	14일	월	1-2	경제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
538	2011년	11월	18일	금	1-2	정치(대외)	중국인민해방군 고위군사대표단 접견
539	2011년	11월	19일	토	1	사회/문화	제6556군부대 지휘부 예술소조 공연
540	2011년	11월	23일	수	1-2	경제	제3154군부대 군인건설자들
541	2011년	11월	26일	토	1-7	경제	리명제 사업 돌가공공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542	2011년	11월	26일	토	1	정치(군사)	제233대연합부대 지휘부
543	2011년	11월	27일	일	1-2	정치(군사)	공군 제1016군부대
544	2011년	11월	27일	일	2	정치(군사)	제233대연합부대 지휘부
545	2011년	11월	28일	월	1-3	사회/문화	황해남도 과일군(과일군혁명사적관, 과일군연혁소개실, 과수연구소)
546	2011년	12월	1일	목	1-2	정치(군사)	제630대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
547	2011년	12월	4일	일	1-3	정치(군사)	공군 제378군부대 비행훈련
548	2011년	12월	5일	월	1	사회/문화	개선청년공원유의장
549	2011년	12월	5일	월	2	사회/문화	빙상취거모범출연
550	2011년	12월	7일	수	1-2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 당선 중대군인들 공연
551	2011년	12월	10일	토	1	사회/문화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 공연
552	2011년	12월	11일	일	1-8	경제	함남도 여러 부문 사업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 기업소분업장, 신흥산화학공장, 함흥편 직공장, 흥남구두공장, 흥남비료연합기 업소, 함흥시회상지구농장)
553	2011년	12월	14일	수	1-2	정치(군사)	제966대연합부대 화력타격훈련
554	2011년	12월	16일	금	1-3	사회/문화	하나음악정보센터
555	2011년	12월	16일	금	3-4	경제	광복지구상업중심
556	2011년	12월	21일	수	1	정치(대내)	김정일 영전
557	2011년	12월	23일	금	1	정치(대내)	김정일 영전
558	2011년	12월	24일	토	1	정치(대내)	김정은, 김정일 애도
559	2011년	12월	25일	일	1-2	정치(대내)	김정은, 김정일 애도
560	2011년	12월	27일	화	1	정치(대내)	김정은, 김정일 애도
561	2011년	12월	28일	수	2	정치(대내)	김정은, 김정일 애도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562	2011년	12월	29일	목	1-3	정치(대내)	김정은, 김정일 영결식 참석
563	2011년	12월	30일	금	1	정치(대내)	김정은, 중앙추도대회 참석
564	2011년	12월	31일	토	1	정치(대내)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
565	2012년	1월	2일	월	1	정치(군사)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566	2012년	1월	2일	월	2	정치(대내)	금수산기념궁전
567	2012년	1월	3일	화	1	사회/문화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568	2012년	1월	12일	목	1	경제	인민군대가 여러 건설대상(평양민속공원건설)
569	2012년	1월	15일	일	1	사회/문화	음악무용종합 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
570	2012년	1월	19일	목	1	정치(군사)	제169군부대
571	2012년	1월	21일	토	1	정치(군사)	공군 제354군부대
572	2012년	1월	21일	토	2	정치(군사)	제3870군부대
573	2012년	1월	22일	일	1	정치(군사)	제671연합부대 지휘부
574	2012년	1월	3일	월	1	경제	허철용 사업 기계공장
575	2012년	1월	25일	수	1-2	사회/문화	만경대혁명학원
576	2012년	1월	28일	토	1	정치(군사)	공군 제378군부대 비행훈련
577	2012년	1월	28일	토	2	사회/문화	서부지구 항공구락부 선수들 모범경기
578	2012년	1월	29일	일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군악단연주회 관람
579	2012년	1월	31일	화	1-2	정치(군사)	공군 제1017군부대
580	2012년	2월	7일	화	1-2	정치(군사)	해군 제597연합부대 지휘부/관하군부대
581	2012년	2월	8일	수	1-2	정치(군사)	제324연합부대 지휘부/관하군부대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582	2012년	2월	16일	목	2	정치(대내)	김정일 탄생 70주년 중앙보고대회
583	2012년	2월	17일	금	1	정치(대내)	금수산 기념공전을 <금수산태양공전>으로 개명 관련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장병들 레식 거행
584	2012년	2월	17일	금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공전
585	2012년	2월	17일	금	2	사회/문화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공연
586	2012년	2월	18일	토	1	사회/문화	은하수 광명성절음악회 <태양을 따르는 마음>
587	2012년	2월	22일	수	1	정치(군사)	제842군부대
588	2012년	2월	23일	목	1	경제	경기용충탄공장
589	2012년	2월	26일	일	1-2	정치(군사)	제4군단 사령부관하 군부대들
590	2012년	3월	3일	토	1-2	정치(군사)	전략로켓사령부
591	2012년	3월	4일	일	1-2	정치(군사)	판문점
592	2012년	3월	9일	금	1	사회/문화	3.8국제부녀절기념 은하수음악회 <녀성은 꽃이라네>
593	2012년	3월	10일	토	1-2	정치(군사)	초도방어대
594	2012년	3월	10일	토	2-3	정치(군사)	해군 제123군부대
595	2012년	3월	15일	목	1	정치(군사)	룡해공군합동타격훈련
596	2012년	3월	26일	월	1	정치(군사)	김정일 서거 100일 중앙추모대회
597	2012년	3월	26일	월	2	정치(군사)	금수산태양공전
598	2012년	4월	5일	목	1-2	정치(군사)	려도방어대
599	2012년	4월	6일	금	1	정치(군사)	해군 제155군부대
600	2012년	4월	11일	수	1	사회/문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국가산업미술타전시장
601	2012년	4월	11일	수	1	사회/문화	인민극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602	2012년	4월	12일	목	2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603	2012년	4월	12일	목	3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604	2012년	4월	15일	일	2	정치(대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605	2012년	4월	15일	일	3-6	정치(군사)	무장장비관 개관식
606	2012년	4월	16일	월	1	정치(대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
607	2012년	4월	16일	월	2-3	정치(대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608	2012년	4월	16일	월	2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609	2012년	4월	16일	월	4	사회/문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축포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변영하리라>
610	2012년	4월	18일	수	1-3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참가자들,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대표
611	2012년	4월	18일	수	1, 3, 4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군무자들
612	2012년	4월	18일	수	4-6	사회/문화	인민극장 건설 관련 군인건설자들, 설 계일군들
613	2012년	4월	20일	금	1-3	사회/문화	만수대창작사 일군들, 창작가들, 종업 원들
614	2012년	4월	21일	토	1-4	정치(대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참 가자들
615	2012년	4월	26일	목	1	정치(대내)	조선인민군창건 80주년 기념 중앙보 고대회
616	2012년	4월	26일	목	2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617	2012년	4월	26일	목	2	사회/문화	조선인민군창건 80주년 기념 공훈국 가합창단 공연
618	2012년	4월	26일	목	3-4	경제	만수교고기상점 준공
619	2012년	4월	27일	금	1	경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군인건설자들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620	2012년	4월	28일	토	1	정치(군사)	제655연합부대의 종합전술연습
621	2012년	4월	28일	토	2	사회/문화	조선인민군창건 80주년 기념 은하수 음악회 <잊지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622	2012년	4월	30일	월	1	경제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
623	2012년	4월	30일	월	2	사회/문화	조선인민군교예단 대형요술 공연 <세월의 끝까지>
624	2012년	5월	1일	화	1	경제	릉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
625	2012년	5월	2일	수	1-2	경제	대관유리공장, 허철용 사업 기계공장
626	2012년	5월	2일	수	2-3	사회/문화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식솔> 관람
627	2012년	5월	4일	금	1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628	2012년	5월	10일	목	1-2	경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
629	2012년	5월	10일	목	1-2	사회/문화	만경대유회장
630	2012년	5월	24일	목	1	정치(군사)	제6556군부대 장병들
631	2012년	5월	24일	목	1	정치(군사)	제1501군부대
632	2012년	5월	26일	토	1	사회/문화	개선청년공원 유희장
633	2012년	5월	26일	토	1-2	경제	창전거리
634	2012년	5월	26일	토	2-3	사회/문화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건설사업
635	2012년	5월	28일	월	1	사회/문화	중앙동물원
636	2012년	5월	31일	목	1	경제	창전거리 아동백화점, 살림집
637	2012년	5월	31일	목	2-3	사회/문화	창전거리 창전소학교, 경상탁아소, 경상유치원
638	2012년	6월	7일	목	1	사회/문화	조선소년단창립 66주년 기념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축하연설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639	2012년	6월	7일	목	2-4	사회/문화	조선소년단창립 66주년 기념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640	2012년	6월	7일	목	5-7	사회/문화	조선소년단창립 66주년 기념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
641	2012년	6월	8일	금	1-4	사회/문화	조선소년단창립 66주년 기념 경축행사 대표들
642	2012년	7월	2일	월	1	경제	룡라인민유원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643	2012년	7월	3일	화	1-2	경제	평양양말공장, 아동백화점
644	2012년	7월	6일	금	1	경제	평양항공역사업
645	2012년	7월	8일	일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646	2012년	7월	9일	월	1	사회/문화	조선해방전쟁승리기념관
647	2012년	7월	9일	월	2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
648	2012년	7월	15일	일	1-2	경제	중요대상건설에 모범적인 조선인민내무군 일군들
649	2012년	7월	16일	월	1	사회/문화	경상유치원
650	2012년	7월	25일	수	1	사회/문화	룡라인민유원지
651	2012년	7월	26일	목	1-5	사회/문화	룡라인민유원지 준공식
652	2012년	7월	27일	금	2-4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653	2012년	7월	27일	금	5	사회/문화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654	2012년	7월	31일	화	1-3	정치(대내)	전쟁로병대표들
655	2012년	7월	31일	화	4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공연
656	2012년	8월	3일	금	3	정치(대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대표단
657	2012년	8월	6일	월	1	경제	운곡지구종합목장
658	2012년	8월	7일	화	1	정치(군사)	제552군부대관한 구분대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659	2012년	8월	8일	수	1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 훈련
660	2012년	8월	24일	금	1-2	정치(군사)	제4302군부대관하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
661	2012년	8월	26일	일	1	사회/문화	8.25 기념 모란봉악단 화선 공연
662	2012년	8월	26일	일	2	정치(대내)	8.25 기념 연회 연설
663	2012년	8월	26일	일	2	정치(대내)	8.25 기념 연회
664	2012년	8월	28일	화	1-2	정치(군사)	제313대련합부대 지휘부, 관하군부대
665	2012년	8월	29일	수	1-2	정치(군사)	제318군부대
666	2012년	8월	30일	목	1	정치(대내)	인민무력부 김일성/김정일 동상
667	2012년	8월	31일	금	1-4	사회/문화	청년절경축행사 대표들
668	2012년	8월	31일	금	5	사회/문화	은하수음악회
669	2012년	9월	1일	토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전자도서관
670	2012년	9월	1일	토	2	경제	해맞이식당
671	2012년	9월	2일	일	1	경제	대동강타일공장
672	2012년	9월	2일	일	2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녀성취주악단 연주회
673	2012년	9월	3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군악단 연주회
674	2012년	9월	5일	수	1-2	사회/문화	창전거리살림집들 입사 근로자들 가정 방문
675	2012년	9월	8일	토	1-2	사회/문화	평양민속공원
676	2012년	9월	8일	토	2	사회/문화	통일거리운동센터
677	2012년	9월	9일	일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678	2012년	9월	10일	월	1	사회/문화	북한 건립 64주년 기념 조선인민군협주단 종합공연
679	2012년	9월	17일	월	1-2	사회/문화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아리랑>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680	2012년	9월	22일	토	1-2	사회/문화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681	2012년	9월	26일	수	1	정치(대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
682	2012년	10월	7일	일	1	정치(대내)	국가안전보위부 김정일 동상
683	2012년	10월	7일	일	2	사회/문화	만경대유희장, 대성산유희장
684	2012년	10월	8일	월	1	정치(대내)	중앙보고대회
685	2012년	10월	10일	수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686	2012년	10월	11일	목	1	사회/문화	모란봉악단공연 <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687	2012년	10월	15일	월	1-2	사회/문화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주년 경축대회 참가자들
688	2012년	10월	30일	화	1-2	사회/문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김정일 동상 설립
689	2012년	10월	30일	화	2-3	사회/문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교직원들
690	2012년	10월	30일	화	3	사회/문화	모란봉악단공연
691	2012년	10월	30일	화	4	사회/문화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남자축구 결승경기
692	2012년	11월	4일	일	1	사회/문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693	2012년	11월	4일	일	1-3	사회/문화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이 트장
694	2012년	11월	8일	목	1	사회/문화	4.25국방체육단 사격선수들의 사격경기, 번개팀과 평양팀 간 여자배구경기
695	2012년	11월	19일	월	1-2	사회/문화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
696	2012년	11월	20일	화	1	정치(군사)	제534군부대직속 기마중대 훈련장
697	2012년	11월	21일	수	1	정치(군사)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전사들
698	2012년	11월	27일	화	1-2	정치(대내)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699	2012년	12월	1일	토	1	정치(대외)	중국공산당대표
700	2012년	12월	14일	금	1-3	사회/문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회 발사과정
701	2012년	12월	15일	토	1	사회/문화	서해위성발사장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회 발사 공헌 과학자, 기술자
702	2012년	12월	18일	화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703	2012년	12월	18일	화	2-4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
704	2012년	12월	22일	토	1-2	사회/문화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공헌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 위한 연회, 연설
705	2012년	12월	24일	월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706	2012년	12월	31일	월	1	사회/문화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공헌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
707	2012년	12월	31일	월	2	사회/문화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공헌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 위한 연회
708	2013년	1월	1일	화	3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709	2013년	1월	2일	수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710	2013년	1월	20일	일	1	사회/문화	대성산종합병원
711	2013년	1월	27일	일	1	정치(대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
712	2013년	1월	29일	화	1-2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개막
713	2013년	1월	30일	수	3	정치(대내)	제4차 세포비서대회 연설
714	2013년	2월	3일	일	1	정치(대내)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715	2013년	2월	3일	일	2-5	정치(대내)	제4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
716	2013년	2월	17일	일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717	2013년	2월	17일	일	2-3	정치(대내)	김일성/김정일 동상 만경대혁명학원
718	2013년	2월	21일	목	1-2	정치(군사)	제323군부대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719	2013년	2월	22일	금	1	정치(군사)	제526대련합부대관하 구분대
720	2013년	2월	22일	금	2	사회/문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721	2013년	2월	23일	토	1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630대련합부대 비행훈련, 항공륙전병강하훈련
722	2013년	2월	26일	토	2	정치(대내)	전군당강습지도일군회의 참가자들
723	2013년	2월	26일	화	1	정치(군사)	포병화력타격훈련
724	2013년	2월	26일	화	2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725	2013년	3월	1일	금	1-2	사회/문화	미국농구팀 선수들 혼합경기, 미국 NBA 전선수
726	2013년	3월	8일	금	1-2	정치(군사)	장재도방어대, 무도영웅방어대
727	2013년	3월	9일	토	1	사회/문화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 경기
728	2013년	3월	9일	토	1-2	사회/문화	청춘거리 체육촌
729	2013년	3월	12일	화	1-2	정치(군사)	월내도방어대
730	2013년	3월	12일	화	3	정치(군사)	제641군부대관하 장거리포병구분대
731	2013년	3월	12일	화	4	경제	룡정양어장
732	2013년	3월	13일	수	1	사회/문화	제531군부대예술선전대 공연
733	2013년	3월	14일	목	1-3	정치(군사)	열점지역 포병구분대 실전능력 판정 위한 실탄사격훈련
734	2013년	3월	19일	화	3-4	경제	전국경공업대회 연설
735	2013년	3월	20일	수	1-3	경제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
736	2013년	3월	21일	목	1	정치(군사)	자행고사로켓사격 훈련
737	2013년	3월	23일	토	1	정치(군사)	제1973군부대
738	2013년	3월	24일	일	1-2	정치(군사)	제1973군부대관하 2대대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739	2013년	3월	25일	월	1	정치(군사)	제1501군부대 시찰
740	2013년	3월	25일	월	1-2	경제	인민군대 여러 부문 사업
741	2013년	3월	25일	월	2	경제	인민군대 식당배 ‘대동강’
742	2013년	3월	26일	화	1-2	정치(군사)	제324대련합부대, 제287대련합부대, 해군 제597련합부대 상륙 및 반상륙훈련
743	2013년	3월	29일	금	1	정치(군사)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 작전회의 긴급소집, 화력타격계획 최종검토, 비준
744	2013년	3월	29일	금	2-3	정치(대내)	전군선전일군회의
745	2013년	3월	29일	금	3-5	정치(대내)	전군선전일군회의 참가자들
746	2013년	4월	1일	월	1-2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747	2013년	4월	1일	월	3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748	2013년	4월	2일	화	3-4	정치(대내)	3월전원회의
749	2013년	4월	15일	월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750	2013년	4월	16일	화	1	사회/문화	태양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751	2013년	4월	16일	화	2	사회/문화	태양절 기념 군사학교 교직원 체육경기
752	2013년	4월	26일	금	1	정치(군사)	조선인민군창건 81주년 기념 조선인민군 레식
753	2013년	4월	26일	금	1-2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754	2013년	4월	26일	금	3	정치(대내)	조선인민군창건 81주년 기념 연회
755	2013년	4월	28일	일	1	사회/문화	해당화관(복합놀이시설)
756	2013년	4월	30일	화	1-2	사회/문화	만경대상체육대회 남자축구 결승경기, 최근 국제경기들 금메달 획득 선수들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757	2013년	4월	30일	화	2	사회/문화	양각도축구경기장
758	2013년	5월	2일	목	1-3	정치(대내)	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759	2013년	5월	2일	목	4	사회/문화	보건부문 근로자들 체육경기
760	2013년	5월	4일	토	1-2	사회/문화	은하수음악회
761	2013년	5월	6일	월	1	사회/문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
762	2013년	5월	7일	화	1-2	경제	인민군대 건설 여러 대상들
763	2013년	5월	9일	목	1	사회/문화	은하수 관현악단 창작가, 예술인들
764	2013년	5월	13일	월	1	사회/문화	만수대창작사, 영상작품창작사업
765	2013년	5월	13일	월	1-2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766	2013년	5월	15일	수	1	경제	김태호 사업 기계공장
767	2013년	5월	17일	금	1-2	경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
768	2013년	5월	19일	일	1	경제	룡문술공장
769	2013년	5월	20일	월	1-2	사회/문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
770	2013년	5월	21일	화	1, 3	정치(군사)	제405군부대
771	2013년	5월	21일	화	2	경제	제621호육종장
772	2013년	5월	26일	일	1-2	경제	종합식료가공공장
773	2013년	5월	26일	일	3	정치(군사)	제639군부대 동해후방기지
774	2013년	5월	27일	월	1-2	사회/문화	인민군대 건설 마식령스키장
775	2013년	5월	27일	월	2	정치(군사)	해군 제291군부대
776	2013년	5월	28일	화	1-2	경제	313군부대 8월25일수산사업소
777	2013년	5월	31일	금	1-2	사회/문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778	2013년	5월	31일	금	2	사회/문화	송도원청년야외국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779	2013년	6월	1일	토	1-3	경제	인민군 제1521호기업소 건설 성천강 그물공장, 수지관직장
780	2013년	6월	1일	토	3	사회/문화	마전해수욕장
781	2013년	6월	3일	월	1-3	정치(군사)	오성산 초소, 제507군부대
782	2013년	6월	3일	월	4	경제	제549군부대 돼지공장
783	2013년	6월	4일	화	1-2	경제	고산과수농장
784	2013년	6월	6일	목	1	경제	새로 건설한 보성버섯공장 현지도
785	2013년	6월	7일	금	1-2, 4	사회/문화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소년단대표
786	2013년	6월	7일	금	3-4	사회/문화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대표들
787	2013년	6월	8일	토	1-2	경제	평양기초식품공장
788	2013년	6월	11일	화	1	사회/문화	평양국제축구학교, 룡라인민체육공원
789	2013년	6월	14일	금	1-2	경제	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창성식료공장)
790	2013년	6월	14일	금	2-3	경제	창성, 창성국수집, 은덕원, 읍소재지
791	2013년	6월	14일	금	4	사회/문화	창성혁명사적관, 창골혁명사적지
792	2013년	6월	14일	금	4-5	사회/문화	창성군문화회관 군예술소조 공연
793	2013년	6월	15일	토	1	경제	대관유리공장
794	2013년	6월	16일	일	1-2	사회/문화	유평혁명사적지
795	2013년	6월	17일	월	1-2	경제	허철용 사업 기계공장
796	2013년	6월	19일	수	1-2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797	2013년	6월	19일	수	2	경제	1월18일기계종합공장
798	2013년	6월	2일	목	1-2	경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799	2013년	6월	20일	목	2-3	경제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온실
800	2013년	6월	22일	토	1-3	경제	강계뜨락뜨르종합공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801	2013년	6월	23일	일	1-2	경제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802	2013년	6월	24일	월	1-4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공연, 연설
803	2013년	6월	24일	월	4-5	경제	장자강공작기계공장
804	2013년	6월	29일	토	1-2	경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2월11일공장
805	2013년	6월	30일	일	1-2	경제	신흥기계공장
806	2013년	7월	1일	월	1	정치(군사)	제851군부대 포사격훈련
807	2013년	7월	2일	화	1	사회/문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808	2013년	7월	2일	화	1	정치(대내)	인민군렬사묘
809	2013년	7월	2일	화	2	경제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810	2013년	7월	4일	목	1	경제	강동정밀기계공장
811	2013년	7월	8일	월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812	2013년	7월	12일	금	1	사회/문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813	2013년	7월	16일	화	1-2	경제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 버섯공장
814	2013년	7월	17일	수	2-3	사회/문화	아동병원 구강병원
815	2013년	7월	25일	목	1	정치(대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표단
816	2013년	7월	26일	금	1	정치(대외)	중국 대표단
817	2013년	7월	26일	금	2-3	정치(대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
818	2013년	7월	27일	토	2-3	정치(대내)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
819	2013년	7월	27일	토	3	정치(대외)	60주년 기념 행사 방문 대표단 단장
820	2013년	7월	27일	토	4	사회/문화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 '아리랑'
821	2013년	7월	28일	일	1, 3-5	정치(대내)	60주년 기념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822	2013년	7월	28일	일	2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823	2013년	7월	28일	일	6-7	사회/문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824	2013년	7월	28일	일	8-9	사회/문화	60주년 기념 공연
825	2013년	7월	28일	일	9-10	정치(대내)	60주년 기념 연회
826	2013년	7월	30일	화	1-3	정치(대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위치했던 성 혹혁명사적지
827	2013년	7월	30일	화	3-4	정치(대외)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828	2013년	7월	31일	수	1-3	정치(대내)	60주년 기념행사 해외동포들
829	2013년	7월	31일	수	4	정치(대내)	60주년 기념행사 전쟁로병대표들
830	2013년	8월	1일	목	1	사회/문화	2013년 동아시아컴여자축구경기대회 1위 선수들
831	2013년	8월	1일	목	2	사회/문화	4.25팀과 회불팀 간 남자축구경기
832	2013년	8월	1일	목	3	사회/문화	4.25국방체육단,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 경기
833	2013년	8월	3일	토	1	정치(대내)	전쟁로병들, 지휘성원들
834	2013년	8월	4일	일	1-2	사회/문화	모란봉악단의 공연
835	2013년	8월	7일	수	1-2	사회/문화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836	2013년	8월	7일	수	2-3	사회/문화	평양체육관들
837	2013년	8월	10일	토	1	사회/문화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
838	2013년	8월	10일	토	2	사회/문화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839	2013년	8월	11일	일	1-2	경제	5월11일공장
840	2013년	8월	14일	월	1-2	사회/문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841	2013년	8월	15일	화	1	사회/문화	룡악산팀과 보통강팀 간 남자축구 경기
842	2013년	8월	18일	일	1	사회/문화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843	2013년	8월	18일	일	2	정치(군사)	제3404 군부대
844	2013년	8월	21일	수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과학기술전람관
845	2013년	8월	25일	일	4	정치(군사)	전투합선 기동훈련
846	2013년	8월	26일	월	1	정치(대내)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847	2013년	8월	29일	목	1	사회/문화	‘해볼컵’ 1급남자축구 결승 경기
848	2013년	9월	2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 공연
849	2013년	9월	3일	화	1-3	정치(군사)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850	2013년	9월	3일	화	4	경제	애국돌공장
851	2013년	9월	4일	수	1-2	정치(군사)	원내도방어대
852	2013년	9월	4일	수	2-3	경제	룡연바닷가양어사업소
853	2013년	9월	7일	토	2	사회/문화	미국 NBA 전 선수
854	2013년	9월	9일	월	2-4	사회/문화	은하과학자거리
855	2013년	9월	10일	화	1-3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856	2013년	9월	10일	화	3	사회/문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857	2013년	9월	15일	일	1	사회/문화	평양체육관
858	2013년	9월	15일	일	2	사회/문화	릉라인민유원지 유희장 내 립체물동 영화관, 전자오락관
859	2013년	9월	16일	월	1	사회/문화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 역기선수권대회 경기
860	2013년	9월	18일	수	1	사회/문화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861	2013년	9월	23일	월	1	사회/문화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862	2013년	9월	23일	월	2	사회/문화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
863	2013년	9월	24일	화	1	사회/문화	구강병원 건설장
864	2013년	9월	25일	수	1	사회/문화	5월1일경기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865	2013년	9월	29일	일	1	사회/문화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건설장
866	2013년	10월	6일	일	1	사회/문화	아동병원건설장
867	2013년	10월	8일	화	1	사회/문화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868	2013년	10월	9일	수	1	경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
869	2013년	10월	9일	수	2	경제	김익철 사업 일용품공장
870	2013년	10월	10일	목	2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871	2013년	10월	10일	목	3	사회/문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준공식
872	2013년	10월	10일	목	4	사회/문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입사 교원, 연구사들
873	2013년	10월	11일	금	1	사회/문화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
874	2013년	10월	11일	금	2	사회/문화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875	2013년	10월	12일	토	1	정치(군사)	전투합정 기동훈련
876	2013년	10월	14일	월	1-2	경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877	2013년	10월	14일	월	2	사회/문화	미림승마구락부 건설장
878	2013년	10월	14일	월	3	사회/문화	문수물놀이장
879	2013년	10월	16일	수	1	사회/문화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공연
880	2013년	10월	16일	수	2	사회/문화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
881	2013년	10월	21일	월	1-2	사회/문화	미림승마구락부
882	2013년	10월	25일	금	1-4	정치(대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883	2013년	10월	25일	금	5	정치(대내)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884	2013년	10월	25일	금	5	사회/문화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885	2013년	10월	28일	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 당선 중대 군인 공연
886	2013년	10월	30일	수	1-2	정치(군사)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사격경기대회
887	2013년	10월	31일	목	1-2	정치(군사)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화력타격훈련
888	2013년	10월	31일	목	3	정치(군사)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
889	2013년	11월	2일	토	1	정치(군사)	해군 제790부대 용사 모
890	2013년	11월	2일	토	2	경제	주성호 사업 선박공장
891	2013년	11월	3일	일	1	사회/문화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892	2013년	11월	9일	토	1	정치(대내)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최고사령관 과 전우관'
893	2013년	11월	12일	화	1	정치(대내)	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
894	2013년	11월	13일	수	1	경제	인민군 11월2일공장
895	2013년	11월	15일	금	1-3	사회/문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896	2013년	11월	17일	일	1-2	경제	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897	2013년	11월	17일	일	2	사회/문화	만경봉체육단 축구훈련장
898	2013년	11월	20일	수	1	사회/문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899	2013년	11월	21일	목	1-2	정치(대내)	인민군제2차보위일군대회
900	2013년	11월	21일	목	3	사회/문화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901	2013년	11월	21일	목	4	정치(대내)	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
902	2013년	11월	27일	수	1-2	사회/문화	평양건축종합대학
903	2013년	11월	30일	토	1-3	경제	삼지연군 여러 부문 사업(백두산지구 체육촌, 삼지연학생소년궁정, 베게봉 국수집, 주요혁명전적지)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904	2013년	11월	30일	토	2	정치(대내)	삼지연혁명전적지
905	2013년	11월	30일	토	3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906	2013년	12월	9일	월	1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907	2013년	12월	14일	토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건축물 설계)
908	2013년	12월	15일	일	1	사회/문화	마식령스키장
909	2013년	12월	16일	월	1	정치(대내)	고 김국태 애도
910	2013년	12월	16일	월	3-4	경제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
911	2013년	12월	18일	수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912	2013년	12월	18일	수	2	정치(대내)	김정일 사망 2주년 추모대회
913	2013년	12월	24일	화	1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914	2013년	12월	25일	수	1-2	정치(군사)	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지휘부
915	2013년	12월	27일	금	1-2	경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모범적 일군, 선장, 어로공 대상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
916	2013년	12월	27일	금	2	경제	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917	2013년	12월	28일	토	1	정치(군사)	인민군 제3168군부대, 제695군부대 군인들의 격술훈련
918	2013년	12월	28일	토	2	정치(군사)	인민군 초병대회 참가자들
919	2013년	12월	31일	화	1	사회/문화	마식령스키장
920	2014년	1월	7일	화	1-2	경제	제534군부대 수산물랭동시설
921	2014년	1월	9일	목	1-2	사회/문화	미국농구선수들 경기
922	2014년	1월	12일	일	1-2	정치(군사)	제534군부대 지휘부
923	2014년	1월	15일	수	1-3	사회/문화	국가과학원
924	2014년	1월	17일	금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악단 연주회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925	2014년	1월	20일	월	1	정치(군사)	항공륙전병구분대 야간훈련
926	2014년	1월	23일	목	1	정치(대내)	마두산혁명전적지
927	2014년	1월	28일	목	2	정치(군사)	제323군부대 전술훈련
928	2014년	1월	28일	화	1	정치(군사)	제323군부대 군인들
929	2014년	2월	4일	화	1-2	사회/문화	평양시 육아원, 애육원
930	2014년	2월	7일	금	1	경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931	2014년	2월	10일	월	1	경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
932	2014년	2월	12일	수	1	경제	경기용총탄공장, 메아리사격관
933	2014년	2월	15일	토	1	정치(대내)	로농적위군 회성원열성자회의 참가자들
934	2014년	2월	18일	화	1	사회/문화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
935	2014년	2월	18일	화	2	사회/문화	광명성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936	2014년	2월	20일	목	1-2	경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
937	2014년	2월	23일	일	1	경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
938	2014년	2월	24일	월	1	사회/문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939	2014년	2월	26일	수	3-4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연설
940	2014년	2월	26일	수	5-7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941	2014년	3월	3일	월	1	경제	평양약전기계공장
942	2014년	3월	7일	금	1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 비행훈련
943	2014년	3월	10일	월	1-2	정치(대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944	2014년	3월	11일	화	1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 당선 예술선전대들 공연
945	2014년	3월	12일	수	1-2	정치(군사)	군사학교 교직원들 사격경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946	2014년	3월	12일	수	3	사회/문화	중앙동물원
947	2014년	3월	17일	월	1-2	정치(대내)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948	2014년	3월	17일	월	2-3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공연
949	2014년	3월	17일	월	3	정치(군사)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사격경기
950	2014년	3월	17일	월	4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 비행훈련
951	2014년	3월	19일	수	1	정치(군사)	김정숙해군대학/김책항공공군대학 교직원들 사격경기
952	2014년	3월	20일	목	1	경제	강태호 사업 기계공장
953	2014년	3월	22일	토	1-2	사회/문화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954	2014년	3월	23일	일	1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공연
955	2014년	4월	2일	수	1-4	정치(군사)	연합부대 지휘관들
956	2014년	4월	6일	일	1	사회/문화	갈매기팀과 제비팀 간 남자축구경기
957	2014년	4월	7일	월	1	사회/문화	갈매기팀과 제비팀 간 여자축구경기
958	2014년	4월	9일	수	1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959	2014년	4월	11일	금	1	정치(대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960	2014년	4월	20일	일	1-6	정치(군사)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961	2014년	4월	20일	일	7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962	2014년	4월	21일	월	1-3	사회/문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963	2014년	4월	22일	화	1-2	경제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964	2014년	4월	22일	화	3-4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 비행훈련
965	2014년	4월	24일	목	1-2	정치(군사)	제851부대관하 여성방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966	2014년	4월	26일	토	1	정치(군사)	제681군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967	2014년	4월	27일	일	1-2	정치(대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968	2014년	4월	27일	일	2-4	정치(군사)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969	2014년	4월	30일	수	1-2	경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소
970	2014년	5월	3일	토	1-3	사회/문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
971	2014년	5월	3일	토	4	사회/문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건설 공헌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
972	2014년	5월	3일	토	5-7	사회/문화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973	2014년	5월	6일	화	1-2	경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건설 공헌 군인 건설자들
974	2014년	5월	10일	토	1-4	정치(군사)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
975	2014년	5월	14일	수	1	경제	1월18일기계종합공장
976	2014년	5월	14일	수	2	정치(군사)	항공 및 반항공군 제1447군부대
977	2014년	5월	16일	금	1	사회/문화	만경봉팀과소백수팀간남자축구경기
978	2014년	5월	16일	금	2	사회/문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 경기
979	2014년	5월	19일	월	1	사회/문화	대성산종합병원
980	2014년	5월	20일	화	1	사회/문화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981	2014년	5월	21일	수	1-2	사회/문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
982	2014년	5월	25일	일	1	경제	천마전기계공장
983	2014년	5월	26일	월	1	경제	대관유리공장
984	2014년	5월	27일	화	1-2	경제	허철용 사업 기계공장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985	2014년	5월	28일	수	1	경제	룡문술공장
986	2014년	5월	29일	목	1-2	사회/문화	과학자휴양소 건설장
987	2014년	5월	31일	토	1-2	사회/문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988	2014년	6월	2일	월	1-2	사회/문화	평양애육원
989	2014년	6월	2일	월	2-3	경제	속섬개발사업
990	2014년	6월	2일	월	3	사회/문화	인민군대 급강하물미끄럼대
991	2014년	6월	5일	목	1-2	경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992	2014년	6월	7일	토	1-3	사회/문화	만경대혁명학원
993	2014년	6월	10일	화	1	경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 협동농장
994	2014년	6월	10일	화	2	사회/문화	기상수문국
995	2014년	6월	13일	금	1-3	정치(군사)	려도방어대
996	2014년	6월	14일	토	1	정치(군사)	제863군부대
997	2014년	6월	16일	월	1-3	정치(군사)	해군 제167군부대
998	2014년	6월	20일	금	1-2	사회/문화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장
999	2014년	6월	20일	금	2-3	경제	5월1일경기장개건현장
1000	2014년	6월	25일	수	1-2	사회/문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
1001	2014년	6월	27일	금	1	정치(군사)	전술유도탄시험발사
1002	2014년	6월	29일	일	1	경제	갈마식료공장
1003	2014년	7월	1일	화	1-2	정치(군사)	화도방어대
1004	2014년	7월	2일	수	1	정치(군사)	해군 지휘성원들 수영능력판정훈련
1005	2014년	7월	5일	토	1-3	정치(군사)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섬상륙 전투훈련
1006	2014년	7월	6일	일	1	사회/문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007	2014년	7월	7일	월	1	정치(군사)	용도방어대
1008	2014년	7월	9일	수	1	정치(대내)	김일성 사망 20주년 중앙추모대회
1009	2014년	7월	10일	목	1	정치(군사)	서부전선타격부대들 전술로켓 발사 훈련
1010	2014년	7월	10일	목	2	정치(대내)	고 전병호 애도
1011	2014년	7월	11일	금	1	경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
1012	2014년	7월	15일	화	1-2	정치(군사)	제171부대 초소들
1013	2014년	7월	15일	화	2-3	정치(군사)	제171부대 포실탄사격훈련
1014	2014년	7월	18일	금	1-2	경제	제1521호기업소 성천강 그물공장, 수지관직장
1015	2014년	7월	18일	금	2	사회/문화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1016	2014년	7월	20일	일	1	사회/문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예정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
1017	2014년	7월	24일	목	1-2	경제	고산과수농장
1018	2014년	7월	26일	토	1	경제	원산구두공장
1019	2014년	7월	27일	일	3	정치(대내)	금수산태양궁전
1020	2014년	7월	27일	일	3-4	사회/문화	4.15팀과 압록강팀 간 남자배구경기
1021	2014년	7월	27일	일	4	정치(군사)	전략군 로켓발사훈련
1022	2014년	7월	28일	월	1	정치(대내)	조국해방전쟁참전사묘
1023	2014년	8월	3일	일	1-2	경제	천리마타일공장
1024	2014년	8월	5일	화	1-3	경제	천지윤희유공장
1025	2014년	8월	7일	목	1	경제	평양양말공장
1026	2014년	8월	10일	일	1	경제	전동렬 사업 기계공장
1027	2014년	8월	10일	일	2	사회/문화	민용항공총국과 룡해운성 간 남자배구경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분야	내용
1028	2014년	8월	12일	화	1	사회/문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예정 국가종합팀 여자축구검열경기
1029	2014년	8월	13일	수	1-2	사회/문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
1030	2014년	8월	13일	수	2-3	사회/문화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장
1031	2014년	8월	15일	금	1	정치(군사)	전술로켓탄시험발사
1032	2014년	8월	15일	금	2-3	경제	갈마식료공장
1033	2014년	8월	18일	월	1-2	사회/문화	연풍과학자휴양소 건설장
1034	2014년	8월	21일	목	1-2	경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
1035	2014년	8월	24일	일	1-2	경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
1036	2014년	8월	30일	토	1	정치(군사)	륙전병구분대 군인들

부록 2. 북한의 환율과 쌀값³⁸⁾

기간	환율(단위: 원)			쌀값(단위: 원, 1Kg당)		
	평양	신의주	해산	평양	신의주	해산
2009. 8. 01-2009. 8. 15	3,600	3,500	3,620	2,300	2,200	2,350
2009. 8. 06-2009. 8. 30	3,600	3,550	3,680	2,400	2,200	2,350
2009. 8. 31-2009. 9. 13	3,800	3,700	3,800	2,300	2,200	2,300
2009. 9. 14-2009. 9. 27	3,820	3,800	3,823	2,200	2,100	2,250
2009. 9. 28-2009. 10. 11	3,822	2,820	3,825	2,200	2,150	2,250
2009. 10. 12-2009. 10. 25	3,825	3,823	3,827	2,100	2,100	2,200
2009. 10. 26-2009. 11. 08	3,845	3,832	3,840	2,150	2,200	2,300
2009. 11. 09-2009.11. 22	3,845	3,840	3,845	2,200	2,200	2,300
2009. 12. 09-2009. 12. 15	0	0	0	44	46	44
2009. 12. 30-2010. 01. 04	134	130	133	55	53	60
2010. 01. 05-2010. 01.06	120	122	130	120	100	100
2010. 01. 08-2010. 01.14	215	217	220	210	190	200
2010. 02. 02-2010. 02.08	395	400	405	370	350	360
2010. 02. 17-2010. 02.23	500	510	515	470	450	450
2010. 02. 25-2010. 03.03	2,300	2,500	2,350	950	1,000	1,200
2010. 03. 02-2010. 03.08	2,300	2,500	2,350	1,300	1,100	1,450
2010. 03. 09-2010. 03.23	1,100	1,050	1,000	700	600	700
2010. 03. 26-2010. 04.01	600	550	600	200	200	250
2010. 04. 01-2010. 04.07	700	700	750	450	450	500
2010. 04. 26-2010. 05.06	900	800	850	400	380	400
2010. 05. 07-2010. 05.25	1,000	900	950	450	430	450

38) 출처: 데일리NK

기간	환율(단위: 원)			쌀값(단위: 원, 1Kg당)		
	평양	신의주	해산	평양	신의주	해산
2010. 06. 26-2010. 07.05	900	1,050	1,000	550	600	570
2010. 07. 07-2010. 07.13	900	1,085	1,050	600	650	750
2010. 07. 15-2010. 07.21	1,580	1,750	1,700	900	950	1,000
2010. 08. 04-2010. 08. 10	1,400	1,600	1,500	1,050	1,100	1,200
2010. 08. 25-2010. 08. 31	1,400	1,600	1,600	1,050	1,000	1,100
2010. 08. 31-2010. 09. 06	1,500	1,600	1,600	1,100	1,200	1,150
2010. 09. 30-2010. 10. 06	1,300	1,380	1,400	900	1,000	900
2010. 10. 12-2010. 10. 18	1,300	1,350	1,550	800	900	830
2010. 10. 26-2010. 11. 01	1,350	1,250	1,400	900	800	900
2010. 11. 24-2010. 11. 30	1,400	1,450	1,400	750	800	900
2010.12. 07-2010. 12. 13	1,750	1,800	1,800	1,250	1,300	1,350
2010. 12. 17-2010. 12. 23	2,000	2,050	2,100	1,100	1,250	1,300
2011. 01. 12-2011. 01. 18	3,100	3,300	3,300	1,800	2,200	2,300
2011. 02. 08-2011. 02. 14	3,000	3,100	3,100	2,200	2,150	1,900
2011. 02. 22-2011. 02. 28	3,050	3,000	3,000	1,900	1,800	1,750
2011. 04. 05-2011. 04. 11	3,000	2,900	2,850	1,500	1,500	1,650
2011. 04. 27-2011. 05. 03	3,150	3,200	3,200	1,800	1,900	2,000
2011. 05. 13-2011. 05. 19	2,550	2,600	2,650	1,800	1,850	1,900
2011. 06. 14-2011. 06. 20	2,800	2,850	2,900	2,000	2,000	2,100
2011. 06. 28-2011. 07. 04	2,700	2,750	2,800	1,900	1,900	2,000
2011. 07. 14-2011. 07. 20	2,570	2,600	2,650	1,900	1,900	2,000
2011. 08. 02-2011. 08. 24	2,900	2,800	2,850	2,600	2,500	2,500
2011. 08. 31-2011. 09. 06	2,900	2,850	2,900	2,600	2,700	2,500
2011. 09. 15-2011. 09. 21	2,900	2,875	2,850	2,300	2,300	2,400

기간	환율(단위: 원)			쌀값(단위: 원, 1Kg당)		
	평양	신의주	해산	평양	신의주	해산
2011. 10. 01-2011. 10. 07	3,100	3,100	3,150	2,400	2,400	2,600
2011. 11. 08-2011. 11. 14	4,000	3,900	3,850	3,800	3,700	3,500
2011. 11. 26-2011. 12. 02	4,500	4,550	4,600	3,850	3,900	4,000
2011. 12. 07-2011. 12. 13	5,100	5,100	5,200	4,200	4,300	5,000
2012. 01. 15-2012. 02. 10	3,650	3,690	3,720	3,000	3,100	3,100
2012. 02. 25-2012. 03. 02	3,750	3,780	3,640	2,800	2,700	2,800
2012. 04. 19-2012. 04. 25	4,150	3,900	3,630	2,600	2,600	2,800
2012. 05. 30-2012. 06. 05	4,370	4,400	4,500	3,000	3,100	3,800
2012. 06. 18-2012. 06. 14	4,450	4,470	4,540	3,200	3,400	3,900
2012. 07. 06-2012. 07. 13	5,400	5,190	5,280	5,300	4,300	5,000
2012. 09. 24-2012. 09. 27	6,370	6,450	6,500	6,800	6,500	6,300
2012. 10. 22-2012. 10. 29	6,300	6,700	6,460	6,000	6,100	6,200
2012. 12. 10-2012. 12-17	7,800	8,000	8,450	6,400	6,800	6,500
2013. 01. 02-2013. 01. 09	9,100	8,950	8,750	6,700	7,000	6,600
2013. 01. 31-2013. 02. 06	8,100	8,000	8,350	5,600	5,500	6,500
2013. 02. 26-2013. 03. 04	8,700	8,750	8,490	6,600	6,700	6,600
2013. 03. 18-2013. 04. 03	8,760	8,810	8,530	6,950	7,000	6,850
2013. 04. 25-2013. 05. 01	8,470	8,580	8,500	5,600	5,700	6,300
2013. 06. 19-2013. 06. 25	8,150	8,120	7,860	5,000	5,400	5,500
2013. 07. 27-2013. 08. 02	8,190	8,180	8,110	5,400	5,550	5,600
2013. 09. 11-2013. 09. 17	8,020	8,090	8,140	4,800	5,100	6,000
2013. 11. 07-2013. 11. 13	8,100	8,150	8,180	5,100	5,400	5,800
2013. 12. 20-2013. 12. 26	8,400	8,260	8,300	4,000	4,900	4,600
2014. 02. 11-2014. 02. 17	8,400	8,300	8,400	4,200	4,500	4,500

기간	환율(단위: 원)			쌀값(단위: 원, 1Kg당)		
	평양	신의주	해산	평양	신의주	해산
2014. 03. 18-2014. 03. 24	7,300	7,500	7,550	3,900	4,100	4,550
2014. 04. 15-2014. 04. 21	7,650	7,700	8,000	3,800	3,900	4,000
2014. 05-23-2014. 05. 29	7,800	8,140	8,260	4,200	4,700	4,900
2014. 06. 14-2014. 06. 20	7,300	7,690	8,100	4,300	4,500	5,050
2014. 07. 12-2014. 07. 18	7,100	7,350	7,500	4,250	4,380	4,800
2014. 08. 06-2014. 08. 12	7,940	8,120	8,310	5,800	5,850	6,000

부록 3. 로동신문 경제 분야 세부 분류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	2008년	1월	7일	월	1	레성강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황해북도	
2	2008년	1월	26일	토	1	강계닭공장, 강계 돼지공장	농림어업	자강도	강계시
3	2008년	1월	27일	일	1-2	장강군의 여러 부문 사업(장강벼섯 공장, 장강식료공장, 장강토끼종축장, 사진전시회장)	농림어업, 제조업(경)	자강도	장강군
4	2008년	1월	30일	수	1-2	3월5일청년광산	광업	자강도	
5	2008년	5월	5일	월	1	고산과수농장	농림어업	강원도	고산군
6	2008년	5월	13일	화	1	청진염소목장, 청진수지관공장	농림어업	함경북도	청진시
7	2008년	5월	13일	화	1	경성도자기공장, 온포휴향소	제조업(경)	함경북도	경성군
8	2008년	5월	14일	수	1	길주군과김책시의 여러단위들(길주농장, 김책대흥수산기업소)	농림어업, 제조업(경)	함경북도	김책시
9	2008년	5월	29일	목	1-2	2.8비날론연합기업소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10	2008년	6월	1일	일	1	홍남제련소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11	2008년	6월	6일	금	1	평양시 문화 및 급양봉사기지들(대동문영화관, 옥류관, 청류관)	서비스업	평양시	중구역
12	2008년	6월	13일	금	1-2	제534군부대산하 식료공장	제조업(경)	-	-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3	2008년	6월	14일	토	1-2	대계도간석지 건설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림어업	평안북도	룡천군
14	2008년	6월	15일	일	1	북중기계연합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북도	룡천군
15	2008년	6월	16일	월	1	9월제철종합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북도	신의주시
16	2008년	7월	3일	목	1-2	화평군 여러 부문 사업(오가산자연보호구, 화평군민발전소)	에너지	자강도	화평군
17	2008년	7월	4일	금	1	강계시 여러단위 (강계우편국혁명사적지,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 자강도공업립사업소시험양묘장, 강계식료공장, 강계닭내포국집)	제조업(경), 서비스업	자강도	강계시
18	2008년	7월	10일	목	1-2	평안북도 농업부문 사업(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태천청년토끼종축장)	농림어업 (축산)	평안북도	태천군
19	2008년	8월	8일	금	1-2	함주돼지공장, 함주평풍터염소목장	농림어업 (축산)	함경남도	함흥시
20	2008년	8월	9일	토	1	함경남도 리원군 산림경영소 양묘직장	농림어업	함경남도	리원군
21	2008년	11월	25일	화	1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비누직장	제조업(중), 제조업(경)	평안북도	신의주시
22	2008년	12월	12일	금	1	사리원닭공장, 사리원시미곡협동농장	농림어업 (축산)	황해북도	사리원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3	2008년	12월	12일	금	2	사리원시 민속거리	서비스업	황해북도	사리원시
24	2008년	12월	17일	수	1	강계시의 여러 단위들(자강도전자업무연구소, 자강도도서관, 강계고려약공장)	제조업(경)	자강도	강계시
25	2008년	12월	18일	목	1	2월제강종합기업소	제조업(중)	자강도	
26	2008년	12월	19일	금	1	리종옥 사업 기계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27	2008년	12월	21일	일	1	희천도자기공장	제조업(경)	자강도	희천시
28	2008년	12월	25일	목	1-2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남도	천리마군
29	2009년	1월	7일	수	1-3	원산청년발전소	에너지	강원도	원산시
30	2009년	1월	14일	수	1-3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	제조업(중)	평안남도	대안군/ 강서군
31	2009년	1월	16일	금	1	평양시 경공업공장들	제조업(경)	평양시	
32	2009년	2월	1일	일	1	레성강청년1호발전소	에너지	황해북도	
33	2009년	2월	4일	수	1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농림어업	함경남도	함주군
34	2009년	2월	5일	목	1	2.8비날론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제조업(경),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35	2009년	2월	7일	토	1-3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36	2009년	2월	9일	월	1-2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북도	신의주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37	2009년	2월	13일	금	1-2	원산시내 공장들 (원산유리병공장, 원산구두공장)	제조업(경)	강원도	원산시
38	2009년	2월	22일	일	1	김책제철련합기 업소, 라남탄광기 계련합기업소	제조업(중), 광업	함경북도	청진시
39	2009년	2월	23일	월	1	7월7일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함경북도	
40	2009년	2월	24일	화	1	무산광산련합기 업소	광업	함경북도	무산군
41	2009년	2월	25일	수	1-2	회령시여러부문 사업(혁명사적지 관리소, 회령기초 식품공장, 회령대 성담배공장)	제조업(경)	함경북도	회령시
42	2009년	3월	1일	일	1-2	만포시내여러단 위(만포제련소, 압 록강다이아공장, 만포방사공장)	제조업(중), 제조업(경)	자강도	만포시
43	2009년	3월	5일	목	1-2	삼지연지구 혁명 전적지건설사업	기타	-	
44	2009년	3월	13일	금	1-2	황해제철련합기 업소	제조업(중)	황해북도	송림시
45	2009년	3월	18일	수	1	승리자동차련합 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남도	덕천시
46	2009년	3월	24일	화	1-2	재령광산	광업	황해남도	재령군
47	2009년	3월	26일	목	1-2	희천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48	2009년	3월	2일	토	1	안주지구탄광련 합기업소	광업	평안남도	청남구
49	2009년	3월	28일	토	2	구성공작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안북도	구성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50	2009년	4월	6일	월	1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찾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과정	기타	평양시	룡성구역
51	2009년	4월	8일	수	1	삼일포특산물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52	2009년	4월	19일	일	1-2	녕원발전소	에너지	평안남도	녕원군
53	2009년	4월	25일	토	1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	기타		
54	2009년	4월	28일	화	1	원산시여러부문사업(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원산 시내,도시경영사업,송도원야외극장)	서비스업	강원도	원산시
55	2009년	5월	10일	일	1	희천시내공장, 기업소들(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희천시
56	2009년	5월	29일	금	1-2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제조업(경)	평안남도	안주시
57	2009년	6월	6일	토	1-2	단천시내 공장/기업소(단천마그네샤 공장, 단천제련소)	제조업(중)	함경남도	단천시
58	2009년	6월	7일	일	1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농림어업	함경남도	함주군
59	2009년	6월	8일	월	1	고산과수농장	농림어업	강원도	고산군
60	2009년	7월	1일	수	1	함흥반도체재료공장,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61	2009년	7월	6일	월	1-2	대계도간석지건설장	기타	-	-
62	2009년	7월	14일	화	1-2	대동강타일공장	제조업(경)	평안남도	남포시
63	2009년	7월	31일	금	1-2	평양방직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선교구역
64	2009년	8월	17일	월	1	보통강상점	서비스업	평양시	
65	2009년	8월	18일	화	1-2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에너지	평안남도	북창군
66	2009년	8월	19일	수	1	구장양어장	농림어업	평안북도	구장군
67	2009년	8월	26일	수	1-2	5월11일제련소	제조업(중)	-	-
68	2009년	8월	29일	토	1	원산제염소	농림어업	강원도	원산시
69	2009년	9월	3일	목	1-3	경성군과명천군의여러부문사업(경성혁명사적관, 염분진혁명사적지, 경성애자공장, 김정숙료양소, 황진온천마을)	제조업(중), 서비스업	함경북도	경성군/명천군
70	2009년	9월	4일	금	1-3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김책대홍수산기업소	제조업(중), 제조업(경)	함경북도	김책시
71	2009년	9월	4일	금	3-4	경성군과명천군의여러부문사업(경성혁명사적관, 염분진혁명사적지, 경성애자공장, 김정숙요양소, 칠보산유권지, 황진온천마을)	제조업(중), 서비스업	함경북도	경성군/명천군
72	2009년	9월	15일	화	1-2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북도	룡천군/신의주시 낙원일동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73	2009년	9월	18일	금	1-2	희천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74	2009년	9월	30일	수	1	평양시 경공업부 문 공장들	제조업(경)	평양시	
75	2009년	10월	1일	목	2, 4-5	평양시 여러부문 사업(평양메기공 장, 12월7일공장,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건설중인 대학도서관건설 추진정형)	농림어업, 제조업(경)	평양시	
76	2009년	10월	3일	토	1	군인건설자들	기타	-	-
77	2009년	10월	3일	토	1-3	중앙양묘장, 타조목장	농림어업	평양시	
78	2009년	10월	9일	금	1-2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림어업	황해북도	사리원시
79	2009년	10월	21일	수	1-5	만수대거리 주택들	기타	평양시	
80	2009년	10월	23일	금	1-3	9월26일종자돼지 공장, 10월22일돼 지공장	농림어업	-	-
81	2009년	10월	25일	일	1-2	희천시 여러부문 사업(청년전기련 합소, 희천제사공 장, 희천공업대학)	제조업(중), 제조업(경)	자강도	희천시
82	2009년	10월	31일	토	1-2	수풍발전소	에너지	평안북도	삭주군
83	2009년	11월	1일	일	1-4	개건현대화된 평 안북도안의 공장, 기업소들	제조업(경)	평안북도	
84	2009년	11월	2일	월	1-2	태천군 은흥협동 농장	농림어업	평안북도	태천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85	2009년	11월	7일	토	1-7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공정건설장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86	2009년	11월	8일	일	1-4	금진강구창청년발전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에너지, 농림어업	함경남도	정평군/ 함주군
87	2009년	11월	21일	토	1-4	제580군부대산하 7월18일소목장	농림어업 (축산)	-	-
88	2009년	11월	24일	화	1-5	운산공구공장	제조업(경)	평안북도	운산군
89	2009년	11월	25일	수	1-5	평안북도 공장, 기업소들(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담공장)	제조업(경), 농림어업	평안북도	신의주시
90	2009년	11월	27일	금	1-4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농림어업 (축산)	황해남도	안악군
91	2009년	11월	29일	일	1-4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염소목장, 제1596군부대산하 목화농장	농림어업 (축산)	-	-
92	2009년	11월	30일	월	1-4	인민보안성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농림어업	평양시	
93	2009년	11월	30일	월	5-9	석정돼지공장, 석정장아찌공장	농림어업, 제조업(경)	평안남도	
94	2009년	12월	10일	목	1-5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강계시
95	2009년	12월	10일	목	5-6	강계목장	농림어업 (축산)	자강도	강계시
96	2009년	12월	11일	금	1-8	강계시내 공장들(장자강공작기계공장, 강계편직공장, 강계포도술공장)	제조업(중), 제조업(경)	자강도	강계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97	2009년	12월	12일	토	1-4	평양곡산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선교구역
98	2009년	12월	17일	목	1-6	라선대흥무역회사	제조업(경)	함경북도	나선시
99	2009년	12월	18일	금	1-4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함경북도	청진시
100	2009년	12월	20일	일	1-6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함경북도	김책시
101	2010년	1월	4일	월	1-6	희천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102	2010년	1월	5일	화	1-2	재령광산	광업	황해남도	재령군
103	2010년	1월	7일	목	1-2	레성강청년2호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황해북도	
104	2010년	1월	11일	월	1-5	강동약전기구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강동군
105	2010년	1월	13일	수	2-3	제313대련합부대 산하 돼지공장	농림어업 (축산)	-	-
106	2010년	1월	16일	토	1-5	제534군부대산하 10월7일돼지공장	농림어업 (축산)	-	-
107	2010년	1월	21일	목	1-3	홍남제련소, 수산 기업소들(홍남대 홍수산기업소)	제조업(중),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108	2010년	1월	24일	일	1-12	평양밀가루가공 공장, 룡성식료공 장	제조업(경)	평양시	만경대구 역/룡성구 역
109	2010년	1월	25일	월	1	제567대련합부대 돼지공장	농림어업 (축산)	-	-
110	2010년	1월	26일	화	1-4	북중기계련합기 업소, 락원기계련 합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북도	룡천군/ 신의주시 낙원일동
111	2010년	1월	27일	수	1-5	9월제철종합기업 소, 덕현광산	제조업(중), 광업	평안북도	신의주시/ 의주군 덕현노동 지구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12	2010년	1월	28일	목	1-2	평안북도 도로들	기타	평안북도	
113	2010년	1월	31일	일	1-4	향산호텔	서비스업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
114	2010년	2월	3일	수	1-3	금야군 원평대흥 수산사업소	제조업(경)	함경남도	금야군
115	2010년	2월	8일	월	1-3	2.8비날론련합기 업소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116	2010년	2월	10일	수	1-8	(2.8비날론련합기 업소)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117	2010년	2월	21일	일	1-5	황해제철련합기 업소	제조업(중)	황해북도	송림시
118	2010년	3월	5일	금	1-5	김책제철련합기 업소	제조업(중)	함경북도	청진시
119	2010년	3월	7일	일	1-2	비날론공장 준공 경축 함흥시군중 대회	기타	함경남도	함흥시
120	2010년	3월	11일	목	1-5	희천시 공장들(칠 성전기공장, 희천 도자기공장, 희천 공작기계종합공 장)	제조업(경), 제조업(중)	자강도	희천시
121	2010년	3월	14일	일	1-5	사리원시 3중3대 혁명 붉은기 미곡 협동농장	농림어업	황해북도	사리원시
122	2010년	3월	26일	금	1-3	천마전기 기계공장, 대흥산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안북도	
123	2010년	4월	18일	일	1-7	희천발전소건설장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124	2010년	5월	17일	월	1-5	백두산선군청년 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강원도	
125	2010년	5월	18일	화	1-2	백암군 덕포지구 감자농장	농림어업	량강도	백암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26	2010년	5월	18일	화	3-7	삼지연군 여러 부문 사업(삼지연공장)	제조업(경)	량강도	삼지연군
127	2010년	5월	19일	수	1-4	해산시 여러 부문 사업(해산시해산강철공장, 해산신발공장, 김정숙사범대학)	제조업(중), 제조업(경)	량강도	해산시
128	2010년	5월	20일	목	1	대흥단군(대흥단군농업경영위원회 회산하백산돼지목장, 대흥단감자가공공장, 국수집)	농림어업, 제조업(경), 서비스업	량강도	대흥단군
129	2010년	5월	21일	금	1-2	관모봉기계공장	제조업(경)	함경북도	관모봉: 경성군/ 연사군 사이
130	2010년	5월	21일	금	2-7	어량천발전소 건설장, 청진토끼종축장	에너지, 농림어업 (축산)	함경북도	청진시
131	2010년	5월	21일	금	1	관모봉기계공장	제조업(경)	함경북도	관모봉: 경성군/ 연사군 사이
132	2010년	5월	22일	토	1-10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133	2010년	6월	4일	금	1	오문현 사업 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안북도	
134	2010년	6월	6일	일	1-6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제조업(경)	평안남도	안주시
135	2010년	6월	7일	월	1-4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농림어업	평양시	
136	2010년	6월	19일	토	1-3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평안북도	신의주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37	2010년	6월	20일	일	1-5	평안북도 여러 부문 사업(12월5일 청년광산,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북중전극공장,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광업, 제조업(중), 제조업(경), 농림어업	평안북도	
138	2010년	7월	8일	목	1-4	원산군 민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강원도	
139	2010년	7월	8일	목	5-6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	제조업(경)	-	-
140	2010년	7월	16일	금	1-5	대계도간석지	기타	평안북도	
141	2010년	7월	16일	금	6-7	암록강수산사업소	농림어업	평안북도	
142	2010년	7월	31일	토	1-4	자강도의 여러 공장(강계트락포르 종합공장, 장자강 공작기계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143	2010년	8월	1일	일	1-5	강계시의경공업 부문 공장들 현지 지도(장자산종합 식료공장, 강계기 초식품공장, 강계 고려약공장)	제조업(경)	자강도	강계시
144	2010년	8월	1일	일	3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제조업(경)	자강도	희천시
145	2010년	8월	3일	화	1-4	2.8비날론연합기업소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146	2010년	8월	4일	수	1-4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제조업(중),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147	2010년	8월	4일	수	5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	제조업(경)	함경남도	
148	2010년	8월	5일	목	1-5	금야강군 민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함경남도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49	2010년	8월	25일	수	1	927닭공장	농림어업 (축산)	-	-
150	2010년	8월	26일	목	1-6	평양곡산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선교구역
151	2010년	9월	12일	일	1-5	3월5일청년광산	광업	자강도	
152	2010년	9월	13일	월	1-5	만포문화공장	제조업(경)	자강도	
153	2010년	10월	18일	월	1	옥류관 료리전문 식당	서비스업	평양시	
154	2010년	11월	4일	목	1-10	희천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155	2010년	11월	18일	목	1-7	창성군공장들(창 성식료공장, 창성 군문화회관)	제조업(경)	평안북도	창성군
156	2010년	11월	23일	화	1-2	룡호오리공장	농림어업 (축산)	황해남도	룡연군
157	2010년	11월	23일	화	2-4	룡연바다가양어 사업소, 룡정양어장	농림어업	황해남도	룡연군
158	2010년	11월	24일	수	1-6	룡성식료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159	2010년	11월	25일	목	1-8	대안친선유리공 장, 강서약수가공 공장	제조업(경)	평안남도	대안군/ 강서군
160	2010년	12월	1일	수	1-2	룡성기계련합기 업소 분공장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161	2010년	12월	2일	목	1-2	함흥시 경공업공 장들(백운산종합 식료공장, 함흥영 예군인수지일용 품공장, 흥남제약 공장건설정형)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162	2010년	12월	3일	금	1-5	단천시 여러단위 들(단천마그네샤 공장, 단천광산기 계공장, 단천항건 설장)	제조업(중)	함경남도	단천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63	2010년	12월	4일	토	1-3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무산식료공장	광업, 제조업(경)	함경북도	무산군
164	2010년	12월	5일	일	1-6	회령시 여러 부문 사업(회령대성담 배공장, 회령식료 가공공장, 회령고려약공장)	제조업(경)	함경북도	회령시
165	2010년	12월	7일	화	1-4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제조업(중), 광업	함경북도	청진시
166	2010년	12월	11일	토	1-5	평양시 경공업공장들, 보통강백화점	제조업(경), 서비스업	평양시	
167	2010년	12월	12일	일	1-6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선홍식료공장, 향만루대중식당	제조업(경), 서비스업	평양시	
168	2010년	12월	16일	목	1-3	제522군부대산하대동강뱀장어공장	농림어업	-	-
169	2010년	12월	22일	수	1-6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희천시
170	2010년	12월	23일	목	1-2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발전소 건설장	제조업(중),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171	2011년	1월	13일	목	1-4	남포유리병공장	제조업(경)	평안남도	남포시
172	2011년	1월	15일	토	1-5	평안북도안의 공장들(압록강계기 종합공장, 수풍베아링공장, 압록강일용품공장)	제조업(중), 제조업(경)	평안북도	
173	2011년	1월	16일	일	1-2	대관유리공장	제조업(경)	평안북도	대관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74	2011년	1월	19일	수	1-5	1월18일기계종합 공장	제조업(중)	평안남도	개천시
175	2011년	1월	21일	금	1-7	11월20일공장, 룡악산샘물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176	2011년	1월	22일	토	1-4	사리원시 식료공 장들	제조업(경)	황해북도	사리원시
177	2011년	1월	31일	월	1-8	함흥시의 중요기 업소(2.8비날론련 합기업소, 룡성기 계련합기업소, 흥 남비료련합기업 소)	제조업(경),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178	2011년	2월	2일	수	1	신흥기계공장	제조업(중)	함경남도	신흥군
179	2011년	2월	12일	토	1-3	운산공구공장	제조업(경)	평안북도	운산군
180	2011년	2월	15일	화	1	구성공작기계공 장, 태천발전소	제조업(중), 에너지	평안북도	구성시/ 태천면
181	2011년	3월	11일	금	1-7	함흥시의공장,기 업소 (흥남비료련합기 업소, 룡성기계련 합기업소, 설비조 립련합기업소, 단 천광업건설련합 기업소, 함흥산업 건설사업소, 흥남 제련소, 함흥모직 공장)	제조업(경),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182	2011년	3월	17일	목	1	해군 제597군부대 관하 공장	제조업(중)	-	-
183	2011년	4월	7일	목	1-4	자강도내 공장, 기 업소들(자강도제 련소, 압록강다이 야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84	2011년	4월	8일	금	1-3	강계시 공장들(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강계고려약공장)	제조업(중), 제조업(경)	자강도	강계시
185	2011년	4월	9일	토	1-4	자강도 공장, 기업소들(2월제강종합기업소, 자강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186	2011년	4월	21일	목	1-3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함경북도	청진시
187	2011년	4월	21일	목	4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제조업(경)	함경북도	청진시
188	2011년	4월	22일	금	1-2	혜산청년광산	광업	량강도	혜산시
189	2011년	4월	23일	토	1	라진조선소	제조업(중)	함경북도	라진시
190	2011년	4월	24일	일	1-4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함경북도	김책시
191	2011년	4월	25일	월	1-3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192	2011년	5월	7일	토	1-7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평양방직공장, 력량봉화피복공장, 봉화비누공장, 평야수지연필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193	2011년	5월	8일	일	1-5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제조업(경)	평안남도	안주시
194	2011년	5월	13일	금	1-2	구장양어장	농림어업	평안북도	구장군
195	2011년	5월	19일	목	1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	농림어업	함경남도	북천군/ 덕성군
196	2011년	5월	29일	일	1-6	희천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197	2011년	6월	3일	금	1	고산과수농장	농림어업	강원도	고산군
198	2011년	7월	7일	목	1-3	락원기계련합기 업소	제조업(중)	평안북도	신의주시
199	2011년	7월	7일	목	3-5	룡천군 신암협동 농장	농림어업	평안북도	룡천군
200	2011년	7월	11일	월	1	경공업부문 사업 (경공업부문, 평양 제1백화점)	제조업(경), 서비스업	평양시	
201	2011년	7월	22일	금	1-8	대동강과수종합 농장, 대동강과일 종합가공공장	농림어업, 제조업(경)	평양시	
202	2011년	7월	29일	금	1	5월11일공장	제조업(경)	-	-
203	2011년	8월	9일	화	1-3	2.8비날론련합기 업소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204	2011년	8월	31일	수	1-4	희천발전소 건설장	에너지	자강도	희천시
205	2011년	9월	9일	금	1-2	보통문거리고기 상점	서비스업	평양시	
206	2011년	9월	9일	금	3-5	평양시여러부문 사업(평양폴가공 공장,금성식료공 장,만수대지구건 설장)	제조업(경)	평양시	
207	2011년	10월	4일	화	1-2	룡전과수농장	농림어업	함경남도	북천군
208	2011년	10월	4일	화	2	단천항 건설장	기타	함경남도	단천시
209	2011년	10월	4일	화	3-4	단천마그네사공장	제조업(중)	함경남도	단천시
210	2011년	10월	5일	수	1	단천항 건설장	기타	함경남도	단천시
211	2011년	10월	8일	토	1-2	락랑영예군인수 지일용품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락랑구역
212	2011년	10월	8일	토	2-3	평성합성가죽공장	제조업(경)	평양남도	평성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13	2011년	10월	10일	월	1-4	중앙양묘장	농림어업	평양시	
214	2011년	10월	10일	월	5-7	태양열설비센터	제조업(중)	평양시	
215	2011년	10월	11일	화	1	태양열설비센터	제조업(중)	평양시	
216	2011년	10월	12일	수	2-3	두단오리공장	농림어업	평양시	락랑구역
217	2011년	10월	14일	금	1-2	대동강자라공장	농림어업	평양시	
218	2011년	10월	14일	금	2-5	대동강돼지공장, 대동강그물공장	농림어업, 제조업(경)	평양시	
219	2011년	10월	16일	일	1-8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광업	평양시	
220	2011년	10월	17일	월	1-5	함흥시 중요기업 소(2.8비날론연합 기업소,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룡성 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제련소 현지 지도)	제조업(경),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221	2011년	10월	18일	화	1	함주군 동봉협동 농장	농림어업	함경남도	함주군
222	2011년	10월	23일	일	2	광덕돼지공장	농림어업	평양시	
223	2011년	10월	24일	월	1	함경남도 일군/로 력혁신자/과학자/ 기술자들 위한 연 회	기타	함경남도	
224	2011년	10월	30일	일	1-5	자강도(강계뜨락 또르종합공장, 장 자강공작기계공 장, 2.8기계종합공 장, 희천련하기계 종합공장, 희천정 밀기계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225	2011년	11월	4일	금	3	태성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26	2011년	11월	12일	토	1-3	김종환 사업 양어 사업소	농림어업	-	-
227	2011년	11월	13일	일	1-3	제580군부대관하 엄덕성 사업 양어장	농림어업	-	-
228	2011년	11월	14일	월	1-2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기공공장	제조업(경)	-	-
229	2011년	11월	23일	수	1-2	제3154군부대 군 인건설자들	기타	-	-
230	2011년	11월	26일	토	1-7	리명제 사업 돌가 공공장	제조업(경)	-	-
231	2011년	12월	11일	일	1-8	함남도여러부문 사업 (2.8비날론연합기 업소, 룡성기계련 합기업소분업장, 신흥산화학공장, 함흥편직공장, 흥 남구두공장,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함흥시회상지구 농장)	제조업(경)	함경남도	함흥시
232	2011년	12월	16일	금	3-4	광복지구상업중심	서비스업	평양시	
233	2012년	1월	12일	목	1	인민군대가 여러 건설대상(평양민 속공원건설)	기타	평양시	
234	2012년	1월	3일	월	1	허철용 사업 기계 공장	제조업(중)	평안북도	
235	2012년	2월	23일	목	1	경기용총탄공장	제조업(중)	평양시	
236	2012년	4월	26일	목	3-4	만수교고기상점 준공	서비스업	평양시	
237	2012년	4월	27일	금	1	조선인민군무장 장비관 군인건설 자들	기타	평양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38	2012년	5월	1일	화	1	릉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	서비스업	평양시	
239	2012년	5월	2일	수	1-2	대관유리공장, 허철용 사업 기계 공장	제조업(경)/ 제조업(중)	평안북도	대관군
240	2012년	5월	10일	목	1-2	국토관리총동원 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	기타	평양시	
241	2012년	5월	26일	토	1-2	창전거리	서비스업	평양시	
242	2012년	5월	31일	목	1	창전거리 아동백 화점, 살림집	서비스업	평양시	
243	2012년	7월	2일	월	1	릉라인민유원지, 평양산원 유선종 양연구소	서비스업	평양시	
244	2012년	7월	3일	화	1-2	평양양말공장, 아 동백화점	제조업(경), 서비스업	평양시	
245	2012년	7월	6일	금	1	평양항공역사업	서비스업	평양시	
246	2012년	7월	15일	일	1-2	중요대상건설에 모범적인 조선인 민내무군 일군들	기타	-	-
247	2012년	8월	6일	월	1	운곡지구종합목장	농림어업	평안남도	운곡지구
248	2012년	9월	1일	토	2	해맞이식당	서비스업	평양시	
249	2012년	9월	2일	일	1	대동강타일공장	제조업(경)	평안남도	남포시
250	2013년	3월	12일	화	4	룡정양어장	농림어업	황해남도	룡연군
251	2013년	3월	19일	화	3-4	전국경공업대회 연설	제조업(경)	평양시	
252	2013년	3월	20일	수	1-3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	제조업(경)	평양시	
253	2013년	3월	25일	월	1-2	인민군대 여러 부문 사업(문화기재 등)	제조업(경)	-	-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54	2013년	3월	25일	월	2	인민군대 식당배 '대동강'	서비스업	평양시	
255	2013년	5월	7일	화	1-2	인민군대 건설 여 러 대상들	기타	-	-
256	2013년	5월	15일	수	1	김태호 사업 기계 공장	제조업(중)	-	-
257	2013년	5월	17일	금	1-2	조선인민군 2월20 일공장	제조업(경)	-	-
258	2013년	5월	19일	일	1	룡문슬공장	제조업(경)	평안북도	
259	2013년	5월	21일	화	2	제621호육종장	농림어업 (축산)	-	-
260	2013년	5월	26일	일	1-2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 장	제조업(경)	-	-
261	2013년	5월	28일	화	1-2	313군부대 8월25 일수산사업소	농림어업	-	-
262	2013년	6월	1일	토	1-3	인민군 제1521호 기업소 건설 성천 강그물공장, 수지 관직장	제조업(경)	-	-
263	2013년	6월	3일	월	4	제549군부대 돼지 공장	농림어업 (축산)	-	-
264	2013년	6월	4일	화	1-2	고산과수농장	농림어업	강원도	고산군
265	2013년	6월	6일	목	1	새로 건설한 보성 버섯공장 현지지도	농림어업	-	-
266	2013년	6월	8일	토	1-2	평양기초식품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267	2013년	6월	14일	금	1-2	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창성식료공장)	제조업(경)	평안북도	창성군
268	2013년	6월	14일	금	2-3	창성각, 창성국수집, 은덕원, 읍소재지	제조업(경)	평안북도	창성군
269	2013년	6월	15일	토	1	대관유리공장	서비스업	평안북도	대관군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70	2013년	6월	17일	월	1-2	허철용 사업 기계 공장	제조업(중)	평안북도	
271	2013년	6월	19일	수	2	1월18일기계종합 공장	제조업(중)	평안남도	개천시
272	2013년	6월	2일	목	1-2	남흥청년화학련 합기업소	제조업(경)	평안남도	안주시
273	2013년	6월	20일	목	2-3	안주시 송학협동 농장 남새온실	농림어업	평안남도	안주시
274	2013년	6월	22일	토	1-3	강계뜨락또르중 합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강계시
275	2013년	6월	23일	일	1-2	강계정밀기계중 합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강계시
276	2013년	6월	24일	월	4-5	장자강공작기계 공장	제조업(중)	자강도	
277	2013년	6월	29일	토	1-2	룡성기계련합기 업소 2월11일공장	제조업(중)	함경남도	함흥시
278	2013년	6월	30일	일	1-2	신흥기계공장	제조업(중)	함경남도	신흥군
279	2013년	7월	2일	화	2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기타	-	-
280	2013년	7월	4일	목	1	강동정밀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양시	
281	2013년	7월	16일	화	1-2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농장 버섯 공장	농림어업	-	-
282	2013년	8월	11일	일	1-2	5월11일공장	제조업(경)	-	-
283	2013년	9월	3일	화	4	애국돌공장	제조업(경)	황해남도	해주시
284	2013년	9월	4일	수	2-3	룡연바닷가양어 사업소	농림어업	황해남도	룡연군
285	2013년	10월	9일	수	1	조선인민군 제621 호육종장	농림어업	-	-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86	2013년	10월	9일	수	2	김익철 사업 일용 품공장	제조업(경)	-	-
287	2013년	10월	14일	월	1-2	김정숙 평양방직 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288	2013년	11월	2일	토	2	주성호 사업 선박 공장	제조업(중)	-	-
289	2013년	11월	13일	수	1	인민군 11월2일공장	제조업(경)	-	-
290	2013년	11월	17일	일	1-2	인민군 제354호식 료공장	제조업(경)	-	-
291	2013년	11월	30일	토	1-3	삼지연군 여러 부 문 사업(백두산지 구체육촌, 삼지연 학생소년궁정, 배 계봉국수집, 주요 혁명전적지)	서비스업	량강도	삼지연군
292	2013년	12월	16일	월	3-4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	농림어업	-	-
293	2013년	12월	27일	금	1-2	조선인민군 수산 부문 모범적 일군, 선장, 어로공 대상 당 및 국가표창수 여식	농림어업	-	-
294	2013년	12월	27일	금	2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 자들과 기념사진	농림어업	-	-
295	2014년	1월	7일	화	1-2	제534군부대 수산 물랭동시설	제조업(경)	-	-
296	2014년	2월	7일	금	1	전국농업부문분 조장대회	농림어업	평양시	
297	2014년	2월	10일	월	1	전국농업부문분 조장대회 참가자들	농림어업	평양시	
298	2014년	2월	12일	수	1	경기용총탄공장, 메아리사격관	제조업(중)	평양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299	2014년	2월	20일	목	1-2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	제조업(경)	-	-
300	2014년	2월	23일	일	1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	농림어업	-	-
301	2014년	3월	3일	월	1	평양약전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양시	
302	2014년	3월	20일	목	1	강태호 사업 기계공장	제조업(중)	-	-
303	2014년	4월	22일	화	1-2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농림어업	-	-
304	2014년	4월	30일	수	1-2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소	제조업(경)	평양시	
305	2014년	5월	6일	화	1-2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건설 공헌 군인건설자들	제조업(경)	평양시	
306	2014년	5월	14일	수	1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제조업(중)	평안남도	개천시
307	2014년	5월	25일	일	1	천마전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안북도	
308	2014년	5월	26일	월	1	대관유리공장	제조업(경)	평안북도	대관군
309	2014년	5월	27일	화	1-2	허철용 사업 기계공장	제조업(중)	평안북도	
310	2014년	5월	28일	수	1	룡문술공장	제조업(경)	평안북도	
311	2014년	6월	2일	월	2-3	쑥섬개발사업	기타	-	-
312	2014년	6월	5일	목	1-2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농림어업, 제조업(경)	평양시	
313	2014년	6월	10일	화	1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 협동농장	농림어업	평양시	

ID	년도	월	일	요일	면	내용	산업 분야	행정구역	행정구역 (세부)
314	2014년	6월	20일	금	2-3	5월1일경기장개 건현장	기타	-	-
315	2014년	6월	29일	일	1	갈마식료공장	제조업(경)	강원도	원산시
316	2014년	7월	11일	금	1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	기타	평양시	
317	2014년	7월	18일	금	1-2	제1521호기업소 성천강 그물공장, 수지관직장	제조업(경)	-	-
318	2014년	7월	24일	목	1-2	고산과수농장	농림어업	강원도	고산군
319	2014년	7월	26일	토	1	원산구두공장	제조업(경)	강원도	원산시
320	2014년	8월	3일	일	1-2	천리마타일공장	제조업(경)	평안남도	남포시
321	2014년	8월	5일	화	1-3	천지윤활유공장	제조업(경)	평안남도	남포시
322	2014년	8월	7일	목	1	평양양말공장	제조업(경)	평양시	
323	2014년	8월	10일	일	1	전동렬 사업 기계 공장	제조업(중)	-	-
324	2014년	8월	15일	금	2-3	갈마식료공장	제조업(경)	강원도	원산시
325	2014년	8월	21일	목	1-2	조선인민군 제621 호육종장	농림어업	-	-
326	2014년	8월	24일	일	1-2	조선인민군 11월2 일공장	제조업(경)	-	-

복잡계에서 본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응방향 : 급변사태 초기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김병욱

동덕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제1장 서론	130
제2장 복잡계의 시스템 변화와 급변사태 적용가능성	137
제3장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해	147
제4장 급변사태 초기의 사회경제적 문제	165
제5장 시나리오 기법과 급변사태 초기 대책설계	172
제6장 급변사태 초기 사회경제적 문제의 대응방향	177
제7장 결론	190
참고 문헌	192

표 목차

<표 1>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 연구경향	133
<표 2> 자연적 선별과 사회적 선별 비교	140
<표 3> 문제의 유형과 해결	142
<표 4> 복잡계 관련 선행연구	146
<표 5> 체제 안정 및 불안정 시 통치행태 비교	157
<표 6> 시나리오 설계단계	173
<표 7>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 행태	175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흐름도	136
<그림 2> 체제시스템의 이행과정	141
<그림 3> 북한통치체제와 피드백 작용의 변화	156
<그림 4> 급변사태에 따른 북한군의 변화	159
<그림 5> 체제위기의 진전과정에서 본 급변사태 구분	160
<그림 6>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환경	167
<그림 7>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시나리오	175
<그림 8> 급변사태 초기 문제유형별 대책	177

요 약 문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이후의 사태변화에 대해 각종 설이 난무하다. 이를 이해하는데서 이론적 논의가 미약한 이 분야 연구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급변사태는 복잡도가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체제시스템의 질적변화 과정이므로 복잡계를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의 시각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급변사태 발생의 의미와 경로, 초기 발생 시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문제 유형별 대책이다.

복잡계의 시각에서 보면, 아래의 두 가지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된다.

첫째, 급변사태가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며 이후 어떠한 진화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이다. 복잡계에 따르면, 북한의 급변사태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성이 증대되고 자체동력에 의해 복귀불가능 한 상태를 지향하는 경우 발생한다.

북한체제는 종합시장의 공식적 운영으로 인해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2009년 화폐개혁과 같이 비선형적인 정책결과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휴대폰 사용자의 증가, 다양한 형식의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해 열린시스템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사회가 처하고 있는 선군정치와 분단구조, 사회정치적 신분제도의 운영과 전 주민이 상인화 된 환경은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으로 되고 있는데 급변사태 시 자기조직화 행태로 진전할 수 있고 강화피스백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으로 된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사회적 모순에 의해 외부세력의 개입이 가능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의 원자화가 새로운 양상으로 번져지고 있어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원자화가 주민사이에 발생하여 당국의 통치에 양호하게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국가와 주민사이에 나타나고 있어 주민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북한이라는 체제시스템은 불완전마비, 완전마비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의 급변사태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정치, 군사적 문제를 비롯한 특정분야의 문제보다 사회전반을 포괄하면서도 주민일상과 관계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 부문 연구가 갖고 있는 일반적 경향인 거시적인 담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또한 혼돈의 가장자리 형성과 임계점의 통과, 자기조직화와 강화 피드백의 형성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급변사태 발생의 초기단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제기하였고 이러한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점적 역할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계의 시스템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능하였다.

급변사태는 기존의 제도와 신념체계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통치체제가 마비됨에 따라 개인적인 신념체계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현상이 속출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다. 그러므로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치체계가 완전 혹은 불완전 마비되었는가에 따라 급변 초기단계와 이후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치체제가 불완전마비된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상황, 이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것은 북한 지역의 급변사태가 ‘국제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급변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변사태 시 초기단계에 무관하게 되면 행위의 주체인 북한의 과도정권을 배제하게 되고 외부세력을 통한 해결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해결하는데서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북한의 초기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문제에는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가시적인 문제와 현재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방치해두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예컨대 식품이나 생필품 지원과 같은 것은 전자와 선군정치에 따른 민수산업의 군수화는 후자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여러 변수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질서와 개별주민, 개별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초기 국가질서와 개인,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가시적 및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함께 발생형 및 잠재형 문제 해결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물질생활 안정화 대책, 북한의 전시비축물자 활용, 마셜플랜이나 양허성 차관 등의 인센티브 지불 등 북한 사회변화를 한국주도의 통일에 양호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로 북한 급변사태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 과도정권과 협력강화 대책,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한 북한사회의 긍정적 인식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까운 기간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거부할 경우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방관시 한다면 이에 따른 피해가 한반도의 재앙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발생 시 국제화 차단, 한반도 전반의 피해 최소화,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조성 등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급변사태, 복잡계, 체제시스템, 사회경제적 문제, 전시비축물자, 과도정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990년대 초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2010년 김정일의 와병 등과 함께 불거졌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혈맹관계로 북한을 유일하게 지지해오던 중국마저도 북한 급변사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대표단과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은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열고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시나리오 및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¹⁾

김정일은 집권 이후 김일성 때의 핵심 실세들을 일부 활용하거나 혁명의 원로라고 깎듯이 예우하며 고문격으로 뒷선에 세웠으며 자연사할 때까지 정치적·물질적 최고대우를 아끼지 않았다. 한마디로 ‘혁명 1세대’와 공생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몇 명 남지 않은 ‘혁명 1세대’들을 아무런 보직에 임명하지 않았다. 측근들로 교체하는 ‘원로 푸대접’을 서슴치 않았으며 제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처형하였다. 이는金正일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핵심엘리트들을 극단적인 위협을 통해 장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정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시장에 의존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사경제활동에 대한 통제가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자체모순에 의해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금보다 안팎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중국보다 더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간다면 체제변화가 발생한다 해도 급변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 북한 권력내부에서 심각한 변화가 대두하였다고 해도 붕괴에 이르기 전에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³⁾ 한마디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관적 인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
- 1)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정책연구』, (2014 봄호), p. 82.
 - 2) 김진환, “북한 급변사태가 현실이 되기 어려운 이유” 『디펜스21』 (2012. 2), p. 34. 1990년대 부터 근 20년이 되어오도록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이 붕괴한 것이 아니라 북한붕괴론이 붕괴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3) 박휘락, “북한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통일연구연구』, 제23권1호(2004), p. 49.

북한변화에 따른 객관적 논증의 결과라기보다 1990년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구권에서의 사태진전에 따른 기대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은 과거 동구사회주의권 나라들과 같은 정도의 민주주적 토양이 부재하며 육지로 연결된 유럽과 달리 고립되어 외부의 변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정전상황이어서 단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남북관계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근거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부흥계획”에 대해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거족적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급변사태에 관한 논의로 인해 북한 정부가 남한을 더욱 불신하게 되고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면서 한국정부의 공식적이면서 전통적인 평화통일 방안과도 거리감이 있다고 제기한다. 그러면서 “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만들어놓을 필요는 있지만, 그의 논의에 따른 부작용과 그로 인한 손익도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한다”며 급변사태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⁴⁾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급변사태라는 표현대신 “심각한 불안정 사태”로 고치는 것을 비롯해 “우호적인 용어”로 변경할 데 대해 제기한 것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⁵⁾ 이러한 논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는데 이를 가려보지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독의 경우 남북한과 달리 수시로 왕래할 수 있어 동독주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급변사태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흡수통일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짓기 어렵다.

국내외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단기간(10년 이내)이나 장기간(10년 이상)내 통일이 될 수 있는 위력한 증거로 북한정권이 붕괴된 경우라고 전망하고 있다.⁶⁾ 북한정권의 붕괴는 급변사태의 진전에 따른 것이므로 급변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숨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 볼 수 없다.

4) 위의 책, p. 49.

5) 박휘락,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분석”, 『국가전략』, 제16권4호(2010), p. 428. 필자의 생각으로는 체제가 심각히 불안정하다는 표현은 상황만을 가리킨 것으로 상황의 변화속도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급변사태라는 표현은 현 상황 뿐 아니라 이것의 변화속도,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는지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한 표현이라고 보아진다.

6)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북한의 미래』(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p. 15.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의 유무, 즉 발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한 주장에 앞서 이를 객관화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흔적 따라가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사회에서 어떠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향후 급변사태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식이다. 논의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제시스템이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행하며 이러한 시스템에서 행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의 시각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급변사태 발생의 의미와 경로, 초기발생 시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문제유형별 대책이다.

연구를 위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과연 발생하겠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990년대 초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많은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2014년에 나온 박휘락, 소치형, 2013년의 홍현익, 2012년의 전경주, 2011년의 이춘근, 박상근, 2010년의 박관용 등을 들 수 있다.⁷⁾ 비공개된 연구자료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이 분야 연구자들이 비공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여하를 불문하고 발간된 자료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는 발생원인 중심 연구와 발생 이후 대책 중심연구로 구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급변사태가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과 이후 어떠한 진화과정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 논의의 중심과 문제점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7)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통일연구원(2014),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정책연구(2014), 홍현익,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 세종연구소(2013), 전경주,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과 대비』, 살림(2012), 이춘근, 방상봉 저,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한국경제연구원(2011), 박관용,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한올아카데미(2007).

〈표 1〉 북한의 급변사태 관련 연구경향

구분	논의 핵심	문제점
발생원인 중심	급변사태의 발생원인 혹은 발생 가능성, 급변사태의 발생경로	대부분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함
발생이후 대책중심	급변사태 발생을 전제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대응책	대부분 급변사태 발생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논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사태 발생원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인 경우, 발생경로에 무관하고 있다. 이는 급변사태를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는 북한 붕괴상황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는 선행연구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 이로 인해 급변사태 시 국정운영의 마비단계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치체제의 붕괴는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 이는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의 중동에서 있는 ‘민주화의 봄’을 가져온 사변들에서 알 수 있다.

둘째, 급변사태 발생 이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인 경우, 한국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급변사태 시 특별한 경우(대남도발, 대량탈북)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서술⁹⁾ 하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¹⁰⁾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강조되면 현실성 여부를 떠나 어떠한 대비책이 강구되는가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것은 선행연구의 대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설득이나 UN개입을 통한 중국견제 등 외교적 문제로 치환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초기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려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치체제가 불완전 마비상태와 완전 마비상태에 놓이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하여 급변사태 초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급변사태가 국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지역에 친미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유사시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8) 고재홍,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국가전략』, 통권 제47호(2009), p. 9.

9) 백승주,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 차원 대비 방향.” 박관용 외. 『북한급변 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p. 76~77.

10)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p. 56.

회 성원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¹¹⁾ 한국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주변국들과의 충돌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유형에 불문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급변사태 시 국정운영이 완전히 마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군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국가기구상으로 보면, 집체적인 군령권을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개별적인 군령권을 최고사령관이 행사한다. 급변사태 시 군에 대한 지휘권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군 핵심관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북한에서 전시상황은 외부세력과 대치상황에서, 급변상황은 주로 내부의 반정부세력과 대치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체제위기라는 공통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시를 대비한 기구들이 가동된다. 이러한 체제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부재하다. 급변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나왔음에도 통일 대비차원의 연구나 체제통합 연구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넷째, 급변사태 시 북한적 요인, 다시 말해 당국의 대응이나 군 집단, 민간인 집단의 반응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¹²⁾ 선행연구에서도 “행위의 주체로서의 북한을 배제한 채 우리 또는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접근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 또한 지난 두 차례(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시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대응하였다고 하면서 “과도정권”과의 협조를 주장하고 있다.¹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북한의 과도정권을 한반도 위기극복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으려 한다. 그것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국제화 되는 것을 막고 사태를 신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가지 점을 강조하려 한다. 하나는 급변사

11)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 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통권 제56호(2012), pp. 149~179.

12) 정상돈·김진무·이강규, 『동독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3), p. 131.

13) 정상돈·김진무·이강규, 『동독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p. 18.

14)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 (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태 시 한국정부의 개입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과 관련한 연구가 많은 조건에서 급변사태 초기 한국정부의 선점적 역할을 밝히려 한다. 다른 하나는 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에 등장하게 될 과도정권과의 관계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려 한다.

다섯째, 유형에 불문하고 유사한 주제의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정치, 군사 등 특정분야의 거시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두려 한다.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각이한 문제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급변사태에 따른 정치, 외교, 군사적 문제에 대한 고찰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잠재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의 예방대책에는 무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연구방법론에 근거해 연구를 수행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문제

북한의 급변사태는 체제시스템의 위기가 가증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북한당국의 대책이나 외부세력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체제시스템의 이행과정이다. 체제시스템에서 위기가 가증되면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존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이전한다. 체제시스템의 이행 시 나타나는 특징과 결부시켜 고찰한다면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과 진전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체제시스템의 이행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살펴보려 한다.

복잡계의 시각에서 보면 다음의 주요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체제시스템이 혼돈의 가장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체제시스템 내부에서 강화피드백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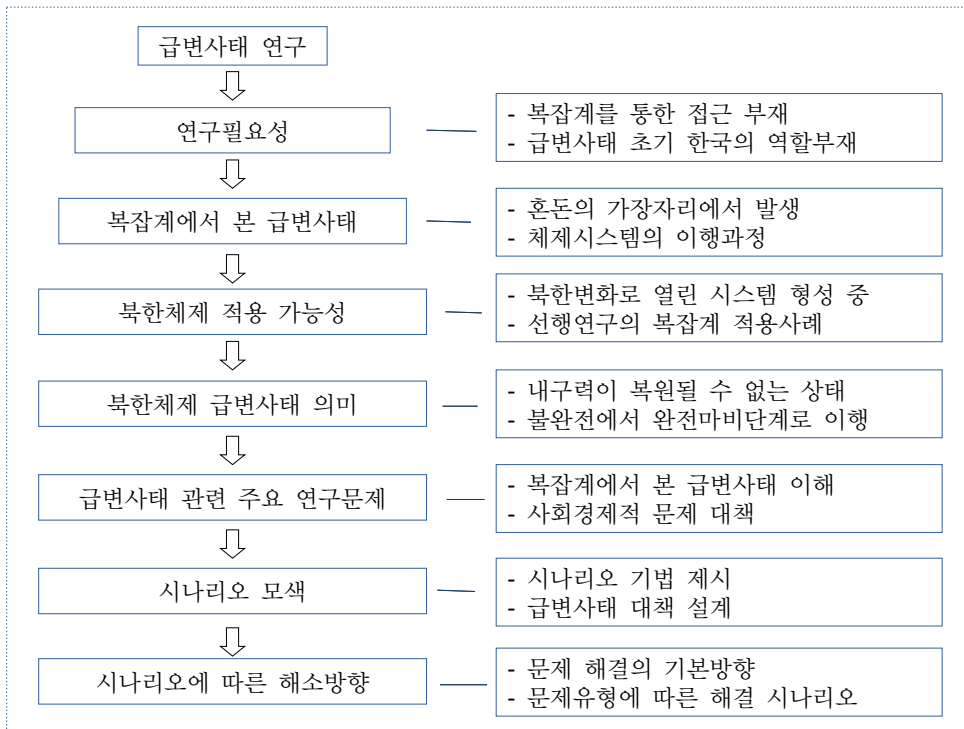
둘째, 체제시스템은 임계점 통과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급변사태 발생 이후 붕괴에 이르기까지 북한지역이 어떠한 경로를 밟게 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 기존통치체제의 기능을 완전 및 불완전 마비상태

로 구분하면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체제시스템의 진화 시 선별과정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통해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복잡계 이론의 정합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의 발생배경과 행태,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비상사태를 넘어서는 체제불안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결과,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지난기간 이와 가까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국이 취한 대책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북한의 공식문헌과 국내외의 연구자료 등 문헌연구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지난기간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는 단순계를 통해 밝혀보려는 것이었고 복잡계를 통한 시도가 처음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보는 데도 큰 관심을 두려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연구 흐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흐름도

제4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급변사태를 설명하는데서 복잡계 이론을 분석틀 및 기술을 위한 수단으로 병행해 사용하려 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의 발생원인이나 이것의 진전 단계는 체제시스템의 이행과정에 따른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및 김정일의 사망 시 급변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이나 향후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계 이론을 기술하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합의 혹은 방도적 측면을 밝혀내는데 관심을 두려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는 이론적 논의가 미약한 것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잡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한다면 핵심적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셋째, 북한의 급변사태를 외부세력이 개입된 상황이 아닌, 개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렇게 되면 급변사태 시 중국군의 즉시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급변사태 초기단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넷째,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가시적 혹은 극히 가시적인 비상사태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급변사태에 이르는 기간에 노동당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정권붕괴가 체제붕괴로 이어진다고 해도 국가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급변사태 기간에 존재하는 과도정권과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는 급변사태 시 국가질서와 주민, 그리고 주민들간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남북간의 군사적 상황이나 국민 안보의식의 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 주한외국인 보호나 철수 등 북한지역을 벗어나는 대상과 관련한 문제, 특히 급변사태 시 북한주민의 행태와 거리가 먼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제2장 복잡계의 시스템 변화와 급변사태 적용가능성

복잡계는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요소가 창출하는 전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¹⁵⁾ 북한의 급변사태는 복잡도가 가중된 속에 발생한다. 복잡계

에서 체제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복잡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복잡계의 이론을 통해 급변사태 발생과정과 문제해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제1절 복잡계에서 시스템의 변화

1. 시스템의 자기조직화와 진화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존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복잡계이다. 복잡계의 이러한 작용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가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¹⁵⁾ 전자를 자기조직화 과정, 후자를 진화과정이라 부른다. 자기조직화 과정은 구성요소들 사이의 본성적인 상호작용에 따른 자체내 동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기조직화는 목적지향적인 것과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연계와 달리 사회계에서는 목적의식적인 자기조직화를 통해 성과물이 얻어진다. 초기에는 특정분야, 예컨대 물질생활 환경의 결핍으로 인해 경제투쟁으로 일어나지만, 이후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한다. 다시말해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선각자에 의한 집단의식화에 의해 목적의식적인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전개된다. 20세기 공산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의 등장과 붕괴, 그리고 21세기 중동을 비롯한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가 이러한 사례이다. 목적의식적인 자기조직화가 강화되면 창발이 일어난다. 창발은 구성요소들 사이의 작용에 의해 현 시스템하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창발은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양적변화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창발이 강화되면 시스템이 진화한다. 시스템의 진화는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의 질적변화가 진화라 할 수 있다. 진화는 시스템내 구성요소들 사이의 작용과 함께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과의 작용의 산물이다. 진화는 적응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성요소들 사이의 작용이 활발한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단계에서 시스템은 주로 적응에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해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변화됨으로써 존재를 유지하려 한다.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에

15) 배경화,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복잡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3년 여름호. p. 98.

16) 김창욱, “북한경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KDI북한경제리뷰』, 2010년, p. 28.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유사하다.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진화는 다른 개념이다. 진화는 주위환경에 대한 타협이 아닌 도전에 따른 새로운 질서수립을 목표로 한 의도적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스템은 내부뿐 아니라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과의 작용에 의해 진화한다. 이 경우 진화를 촉진 혹은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순환관계가 이루어진다. 구성요소 중 특정한 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의 반응을 기하급수적으로 유발시키면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임계점을 통과하게 된다. 이를 강화피드백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를 조절피드백이라 한다.

진화가 성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성요소들 사이의 작용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강화피드백 관계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시스템 내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이탈행위가 많아진다고 해도 누적적 상승작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내구력에 의해 기존질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피드백이 형성되면 시스템은 임계점을 통과하게 된다. 임계점은 시스템의 양적변화가 끝난 점, 바꿔 말하면 질적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임계점을 통과한 이후 시스템은 극히 작은 자극에도 요동이 일어나게 되고 멀리 떨어진 요소에 그 영향력이 전달되어 시스템 전체가 변화된다.

2. 정합성과 선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이 진화되었다는 것은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과의 작용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스템의 내적인 정합성과 양호한가에 대한 선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먼저 정합성에 대해 보기로 하자. 체제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 내적으로 “정합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시스템의 정합성은 행위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행위적 정합성이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구성요소들 사이의 작용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기능적 정합성은 전체적인 조화속에 긍정적인 결과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특정행위를, 후자는 이러한 행동이 효과를 얻도록 유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선별과정에 대해 보기로 하자. 선별과정은 ‘자연적 선별’과 ‘사회적 선별’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선별과정에서는 시스템의 외적인 요인과 정합성이, 사회적 선별과정에서는 시스템의 내적인 요인과 정합을 보장하는 것이

선별기준으로 된다. 그 이유를 보면 자연계는 행동의 조정이 특정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형성과 이에 따른 선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계는 사회가 만든 행동 규칙과 이것의 준수에 따른 선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적 선별과 사회적 선별은 이를 주관하는 주체와 선별의 기준 그리고 행태에서 다르다.

〈표 2〉 자연적 선별과 사회적 선별 비교

구분	사회적 선별	자연적 선별
주체	인간사회	자연환경
기준	인간사회의 규칙과 적합성	자연환경과의 적합성
행태	사전적 선별	사후적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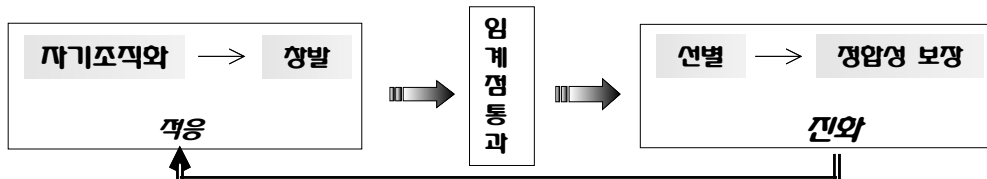
체제시스템에서 정합성이 제대로 보장되는가 하는 것은 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제도와 신념체계에 달려있다. 제도는 “사회적 행동 규칙의 집약체”로 새로운 질서를 구조화, 고착화한다. 일반적으로 신념체계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신념체계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요소”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참여의식을 높여준다. 인간의 행동은 신념체계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는 제도라는 틀에 의해 구속되거나 이를 타파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와 신념체계는 상호작용한다. 제도가 신념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제약한다면 신념체계는 제도의 사회적 선별과정을 규정한다.¹⁷⁾

제2절 체제시스템의 이행과정

체제시스템은 자기조직화와 창발과정을 통해 혼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강화피드백의 작용에 의해 임계점을 통과한다. 통과 이후에는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진화단계에 이르게 된다. 진화는 새로운 질서가 선별에 의해 고착화 된 상태이다. 이런 결과는 제도와 신념체계가 정합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체제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예컨대 기존 질서에 대한 행위자들의 불만을 들 수 있다. 행위자들의 이면에는 불만을 가지게 한 동기가 작용하는데 당국이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불만은 기하급수적으로

17)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형, 『북한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p. 53.

커진다. 행위자들의 불만은 자기조직화를 거쳐 강화피드백을 형성하는데 이로 인해 행위적 정합과 기능적 정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화되면 체제시스템이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어 붕괴하는데 이는 급변사태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체제시스템의 이행과정

체제시스템 이행과정을 보면 임계점을 통과하기 전과 후 체제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행태가 다르다.

먼저 기존 체제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임계점을 통과하기 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간구하여야 할 것은 임계점 근방에 이른다고 해도 기존 질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에 따른 결과가 강화피드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민주체제는 눈에 보이는 작은 소요사태속에 임계점을 통과하지만, 사회주의체제는 사소한 한 두 가지의 소요사태를 통해 단 기간에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장기간 대규모의 유행적인 충돌이 존재하지 않은 동독이나 루마니아 급변사태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독재국가들에서 폭압적인 정치가 강할수록 사회적 불만이 빙산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독재국가의 폭압정치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사소한 저항도 강력히 제압하는 반면, 사소한 행위가 급진적인 주민봉기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독재체제하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행태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봉기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을 노리는 등 체제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촉발요인이 등장하여 목표가 분명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면 주민들은 일거에 길거리로 뛰어나오는 등 잠재되었던 분노를 표면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희생도 기꺼이 감수한다.

임계점을 통과하였다고 해도 기존 체제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행위자 전반의 신념체계 변화에 의거하지 못하여 부분적인 행위적

혹은 기능적 정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화에 머물게 된다. 기존체제가 독재국가인 경우 임계점 통과이후 진화에서 또 다른 행태의 독재국가 잔재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과거 사회주의국가의 사례가 보여준다.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해 러시아는 체제시스템의 질적변화가 일어났지만 또 다른 독재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체제시스템의 혁신

1. 문제유형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문제는 드러나는 행태나 해결목적에 따라 발생형 문제와 잠재형 문제로, 시기성과 중요성에 따라 즉시처리를 요구하는 위급한 문제와 장기간 보류해도 되는 느슨한 문제로 구분이 가능하다.

발생형 문제가 타인이 다 아는 문제라면, 잠재형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전자는 원상회복, 후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발생형 문제에서는 과거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주된 과제여서 응급처치나 재방방지 등이 주요과제로 나선다면, 잠재형 문제에서는 기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 주된 과제여서 문제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이나 근본적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표 3〉 문제의 유형과 해결

구분	발생형 문제해결	잠재형 문제해결
문제의 성격	과거 혹은 현재형	미래형
해결 목표	원상태 회복 혹은 복귀	리스크 확대 차단 및 사전 방지
해결의 시기성	단기적 해결	중기적 해결

시기와 중요성에 따라 즉시처리를 요구하는 위급한 문제는 발생형 문제에 속하며 장기간 보류해도 되는 문제는 잠재형 문제로 볼 수 있다.

해결책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식을 문제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성과의 극대화 혹은 위험의 최소화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결책이 도출되면 이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득, 실현가능성과 타이밍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야 한다. 문제해결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성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의 완벽함보다 비용의 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체제시스템의 인위적 혁신

복잡계에서 시스템의 인위적인 혁신은 시스템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새로운 질서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¹⁸⁾ 경우를 막론하고 외부의 간섭이 없이 시스템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기조직화 과정과 시스템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스템 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이는 다시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진화한다.

체제시스템의 기존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직화와 진화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체제시스템 내 구성요소들 사이의 작용이 혼돈의 가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¹⁹⁾ 혼돈상황은 기존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섞여서 무질서해진 상황을 말한다. 혼돈상황이 새로운 질서를 가진 상황으로 되려면 이를 이루고 있는 복잡계에서 인위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혼돈상태라 해도 가장 자리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주변의 상황에 묻혀버리게 되어 시스템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혼돈의 가장자리란 기존질서를 지지하는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이 대립하는 소강상태를 말한다.²⁰⁾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와 같다.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다면 외부의 미세한 변화에도 쉽게 임계점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유입이 가능하도록 열린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요소를 잘게 쪼개어 구성요소들의 대칭성을 파괴함으로써 복잡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전체 시스템과 구성요소가 공진화 하도록 하고 행위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도 마련해야 한다.²¹⁾

둘째, 시스템내 구성요소들의 작용이 임계점 부근에서 일어나야 한다. 임계점

18)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형, 『북한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48-49.

19) 이하 윤영수 채승병,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 읽기: 복잡계 개론』(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p. 181~182.

20) 위의 책. p. 467.

21) 위의 책. pp 187~189.

부근에서는 기존 질서를 고집하는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세력이 팽팽히 맞서므로 이에 따른 효과가 크다. 지진연구자들은 지진의 파급효과가 임계점과의 거리에 따라 비례한다면서 임계점과 가까이 있는 경우,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임계점과 떨어져 있는 경우 소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종합해보면, 시스템 요소들이 혼돈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나 임계점과 거리가 먼 경우, 또한 임계점과 가깝다고 해도 시스템의 일부 요소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질적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시스템은 자체의 복원력에 의해 기존질서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계점을 통과한 이후에는 강화피드백이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시스템 변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내구력을 강화하는 방법과 외부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다. 내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입하여 시스템 변화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새로운 질서에 일탈하는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강한 처벌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변화를 고착시키기 위한 수단을 발굴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과거로 돌려세우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교체비용을 높이거나 특허를 내는 것을 비롯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다.²²⁾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거대한 시스템속에서 비선형적 관계들이 생겨나고 상식을 초월하는 복잡한 변화와 예측을 불허하는 격변의 모습이 생겨나므로 복잡계의 혼돈스런 상황과 이것의 변화과정을 비교하여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복잡계의 적용 가능성

1. 북한체제 특징과 적용의 문제점

복잡계는 독립성을 가진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이루어져 있어 이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단순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생겨난다.

복잡계는 ①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요소의 다양성, ② 비선형적인 작용, ③ 되먹임 고리의 형성, ④ 열린 시스템하에서의 작용, ⑤ 다른 복잡계로의 적용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²³⁾ 복잡계를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의 특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함께

22) 윤영수·채승병,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 읽기: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p. 180~190.

23) 위의 책, pp. 59~61.

선행연구 사례가 있는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는 ① 정교한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 일인독재하에 운영되는 단일 대중 정당에 의한 통치, ③ 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 및 물리적 테러체제 작동, ④ 모든 언론수단에 대한 독점, ⑤ 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운영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²⁴⁾ 맥코맥(G. McCormack, 1999: 46)은 스탈린 사후, 북한처럼 전체주의 지배모델이 딱 들어맞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였다.²⁵⁾ 이러한 점에서 북한사회는 구성요소들의 다양성보다 획일성이 강조되고 선행성이 보장되는 닫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복잡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북한사회와 유사하게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사회과학이론을 북한사회에서 적용한 사례는 적지 않다. 예컨대 푸코의 몸권력론을 북한주민 신체에 적용한 사례나 북한의 권력의 신체 통제나 규율전략을 푸코의 생명정치에서 논의한 사례를 들 수 있다.²⁶⁾ 김영희는 푸코가 묘사한 권력은 자유민주체제의 환경하에서 작동하는 권력이어서 북한사회에서 처럼 권력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푸코의 권력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① 북한사회에서 규율권력 작동의 보편성과 특수성, ② 통치집단의 의도적 사용사례, ③ 푸코의 권력개념이 시대적 및 체제적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차용한 선행연구이다.

2. 북한체제 적용 가능성

복잡계를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계가 갖고 있는 특징적 측면에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구성요소들의 다양성이다. 예컨대 시장참여자가 1990년대 이전의 농민이나 부양자들이었으나 이후에는 도시의 근로자들 뿐 아니라 공장, 기업소까지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 증축 및 분양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개인투자자와 국가기업과 결탁을 비롯해 사경제활동의 행태가 다양해지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비선형적인 작용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주민들의

24) 이교탁·김국산·조정아·박영자,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7.
 25)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연구자 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45.
 26) 김영희, “푸코의 몸권력과 북한사회 신체왜소 적용가능성” 『사회과학연구』, 제21권 2호(2013); 박영자, “북한의 생명정치” 『현대북한연구』, 제7권 3호(2005).

반발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09년 화폐개혁이 과거와는 달리 당국의 사과와 화폐개혁을 주도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의 처형을 통해 주민들을 달래야 했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열린 시스템의 지향이다. 북한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CD가 유통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휴대폰 사용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관책임자의 수표(사인)는 물론 담당보안원 수표까지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휴대폰인 경우도 약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쌀 1kg에 5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휴대폰 한 대를 구입하는 데 쌀 400kg 정도가 드는 셈이다.²⁷⁾ 이는 북한체제가 과거와 같이 닫힌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복잡계의 특징적 요소를 내포하는 방향으로 북한체제가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잡계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적지 않은 선행연구는 북한시장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면서 복잡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주제도 복잡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복잡계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구제목
김창욱	“북한경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KDI북한경제리뷰』, (2010년).
조정아김영운	『북한 시장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통일연구원, 2010.
이교덕·전현준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10.
박영자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10년).
배경화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경제협력관계의 재구축 방안: 복잡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 제177호(2013년 여름).
김국산·이석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9.
이석·김창욱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통일연구원, 2009.

27) 『데일리 NK』, 2014년 6월 3일.

과거 북한사회는 단순성이 강하게 지배한 사회였다. 이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하나의 이념에 따라 유일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요구해온 체제운영방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건설이란 슬로건이 국가의 헌법과 노동당의 당규약에서 삭제되고 종합시장 운영이 제도화 된 것을 비롯해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제공한 것은 1980년대 말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이다. 세계가 자유민주체제로 단일화됨에 따라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균열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복잡계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²⁸⁾ 세계적인 경제질서에 따라 계획경제가 시장관리형 경제를 지향함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생겨나고 비선형적인 되먹임 고리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3장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해

이장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며 이후의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고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의 선점적 역할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급변사태 초기 단계와 과도정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제1절 북한 급변사태의 의미와 특징

1. 선행연구에서 본 급변사태의 특징과 유형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하면서 “어떤 요인에 의해 북한 권력내부에 심각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대두되었다고 하더라도 붕괴에 이르기 전에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²⁹⁾ 북한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하려면 급변사태라 볼 수 있는 특징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사례에서 같이 소요사태나 긴급사

28)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형, 『북한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p. 74.

29)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p. 47.

태의 상황을 가지고 급변사태를 논의하는 착오를 범하게 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볼 수 있는 특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질적변화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급변사태는 발생의 속도가 짧은 대신 돌이킬 수 없는 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발생의 속도가 뜨다면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강구되어 질적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파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질적인 변화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급변사태로 볼 수 없다.³⁰⁾ 선행연구에서도 급변사태를 “속도와 심도에 있어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위기적 변화를 뜻한다고” 쓰고 있다.³¹⁾

둘째, 양적변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사태는 일련의 소요사태를 거쳐 비상사태라는 양적변화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체제에 따라 이러한 과정은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유민주체제는 이러한 과정이 노출되지만, 사회주의체제는 강력한 탄압과 언론이 당국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적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이 급변사태를 논의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북한당국이 사회적 저항에 대한 근본적인 타협을 거부한 채, 체제유지를 위한 관성적 권력에 매어달리는 경우, 저항의식이 응축되는데 이것이 급변사태를 발생하는 물리적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³²⁾ 여기서 응축과정은 곧 양적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조성되는 상황이다. 통치체제가 마비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가 주변국에 까지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는 급변상황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외부로부터의 긴급지원이 요구되는” 또는 “북한내부에서 급격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외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³³⁾ 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³⁴⁾

종합적으로 급변사태의 의미속에는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짧은

30) 유효열,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p. 20.

31)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정책연구』, 2014 봄호, p. 84.

32) 정병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실존철학적 접근” 『통일전략』, 12권2호(2012), p. 236.

33) 한관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전략연구』, 16권3호(2009), p. 66.

34) 제성호,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2호(1999), pp. 369~370.

시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거나(과정) 실제로 드러난 (결과)경우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 복원력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이를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경우이며 후자는 복원력이 상실된 경우이다.

이러한 점에서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대책을 보면 전자는 현안해결적 차원, 후자는 예방적 차원에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 급변사태의 의미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의미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사태를 정의함에 있어 발생의 원인적 측면과 경로적 측면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정권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큰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³⁵⁾이나 북한정권이 붕괴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³⁶⁾이라고 한 것은 원인적 측면에서 정의한 것과 같다. 그러나 급변사태를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북한체제가 해체 및 붕괴되는 상황³⁷⁾이라고 하면 경로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급변사태를 정의함에 있어 주변국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통치체제의 마비에 따른 붕괴직전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의 ‘개념계획 5029’에 따르면 급변사태를 여섯 가지로 들고 있는데 김정은의 유고,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전,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이다.³⁸⁾ 김정은의 유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통치능력이 마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쿠데타에 따른 내전 상황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급변사태가 정권 혹은 체제 및 국가붕괴의 차원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명백치 않다. 북한은 영토와 인구, 주권을 소유한 이래 국가체제로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북한, 김정은 정권하의 북한이라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정권붕괴로부터 시작해 국가붕괴에 이르기까지

35) 홍현익,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세종정책연구, 2013), 2007, p. 11.

36) 제성호, 『남북관계론』(파주: 집문당, 2010), p. 429.

37) 허남성,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 국회 위기관리포럼,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대응방안』(2009. 9), pp. 7~11.

38) 위의 책, p. 10.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³⁹⁾ 후술하겠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는 질적변화를 내포하고 있어 기존체제의 복좌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정권붕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급변사태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국가붕괴가 아니더라도 체제붕괴가 일어난 경우 급변사태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급변사태가 질적변화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체제붕괴가 아니더라도 변형된 형태의 체제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이념 속에 공산당의 영도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와 같은 나라의 경우 그 양상이 어떠한 급변사태라를 겪고 나서 오늘과 같은 정치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원인적 측면과 경로적 측면에서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설명 할 수 있다. 원인적 측면에서 보면, 정권붕괴와 무관하게 통치체제는 존속하고 있으나 핵심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통제능력이 마비된 상태, 다시 말해 주도세력이 체제나 국가붕괴를 목표로 한 행위에 대한 탄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용인 지어는 수용하는 대책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복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급변사태 발생을 경로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불완전마비에서 완전마비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급변사태 발생의 기준을 정권, 혹은 체제가 붕괴 된 것이 아닌,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유사하다. 조성렬은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상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고⁴⁰⁾ 이기동은 급변사태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북한의 정권 또는 체제 붕괴를 포함하여 급격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라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돌발사태 발생 이후 예상되는 전개양상”이라고 각각 설명한데서 찾을 수 있다.⁴¹⁾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네트(Bruce Bennett) 박사는 북한의 급변사태 상황에 대해 정권교체나 체제교체로는 부족하며 국가붕괴일 때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국가로의 통치기능이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북한 지역에 조성된 급변사태라 하면 정권의 통치체제가 마비된

39) 백승주, “북한급변사태 시 군사차원의 대응방향”, 박관용(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한울아카데미, 2008), pp. 75~76.

40) 조성렬,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2006. 11), p. 25.

41)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북한학보』 제34집2호(2009), pp. 45-46.

데로 부터 발생한 피해가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미치고 있으나 북한 자체로 해결이 어려워 외부세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거나(과정) 될 수 있는 상황(결과)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제2절 급변사태 발생과 경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질적변화가 일어나도록 양적변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반대가 적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변화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급변사태가 발생하겠는가, 다시 말해 복잡계에서 논의되는 임계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 김일성, 김정일 사망에서 본 국정공백의 한계

1994년 김일성 사망 시 외부세계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2008년부터 김정일의 와병설이 나오고⁴²⁾ 그로부터 3년 후인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였을 때 역시 급변사태에 대해 떠들었으나 김일성 사망 시와 유사하게 세습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체제의 현황과 진로에 대해 단선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을 해왔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내구력을 지님으로써 자체의 특유한 내적 동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⁴³⁾

복잡계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급사는 혼돈 된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혼란의 가장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조건 하나만으로 북한체제를 혼란의 가장자리로 몰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김정일의 암살에 따른 급변사태 발생을 제기하고 있다. 급사와 암살이 다르지만, 현재와 같이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암살이 현실화 되었다 해도,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평시에도 군집단과 민간인 집단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전시를 대비한 비상기구의 작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시 국방위원장 체제로,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시 최고사령관 체제로 즉시적으로 이전하여 체제

42) 2008년 9월 9일 당시 김정일이 북한 정권수립 60주년 기념행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AP통신은 미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이 뇌졸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처음 보도하였다.

43)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p. 48.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복잡계 시각에서 보면, 북한체제는 위기발생 시 전시기구들의 작동에 의해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첫째, 혼란이 임계점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차단한다. 둘째, 자기조직화에 따른 강화피드백이 형성된다고 해도 혼란이 임계점을 통과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전시 기구들이 왜 신속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이유의 하나로 70년이 되어오는 분단구조하에서 다져진 북한사회의 적대의식을 들 수 있다. 적지 않은 북한주민들은 북한지도자의 유고에 따른 혼란이 남한으로부터의 있을 수도 없는 ‘흡수통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이에 대한 공포심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통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스왓(swot) 분석에서 본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선행연구에서는 급변사태 발생의 개연성을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통해 고찰하면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촉진요인으로 경제난과 후계체제문제(통치능력 부족), 주민의식변화와 사회질서의 이완을 들고 있고 억제요인으로 주체사상을 통한 신념의 확대 재생산, 폐쇄적이고 철저한 사회통제, 생존보루로의 중국의 존재, 정치문화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급작스런 유고 시에는 권력투쟁이 공멸을 가져온다는 인식 때문에 지도층이 분열보다 협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국이 북한과 여전히 “순망치한”의 관계이므로 북한이 급변사태로 무정부상태에 놓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한다는 것, 당국의 사회통제가 잘 작동하고 있어 주민봉기나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적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⁴⁴⁾

스왓(swot) 분석법을 이용하면 체제시스템의 장점요인과 단점요인,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급변사태는 장점요인이 약화되고 단점요인이 부각되며 기회요인이 적어지고 위기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강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통합이 강한 것과 핵무장력 강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기반 한 체제수호의 자신감이다. 최근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붕괴와 사회통제체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기회

44)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3호(2008), pp. 8~22.

나 위기는 북한을 둘러싼 주변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회는 미중간의 대결과 한일간의 충돌이며 위기는 한중간 결속관계의 강화라 할 수 있다.

강점요인이 기회요인과 결합되면 단점이 약화될 수 있는 반면, 단점요인이 위기요인과 결합되면 장점이 약화될 수 있다. 북한체제는 강점요인이 위기요인에 의해 약화되고 단점요인이 기회요인에 의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 이유는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적 통합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물질생활 수준에 따른 사회양극화로 인해 부러움이나 시기, 질투의 감정적 갈등을 넘어 계층간의 갈등구조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주”라 불리는 ‘붉은 자본가’의 맹아가 속출하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생계에 따른 가족해체에 이어 ‘꽃제비’(방랑아)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또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도가 형식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혁명의 2세나 3세대들처럼 충성을 통한 운명개척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둘째, 핵무장력 강화를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적어지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유일한 보루임을 자처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처하고 세계자주화를 지향한다는 명분하에 핵 및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통해 체제내부의 불만을 강제할 수 있었고 주민통합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라 느낄 수 있는 근거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핵무장력의 강화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를 가져오고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주민들에게 핵보유에 따른 실효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계획경제 보조수단으로의 시장운영에 따른 후유증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문화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로(시장이나 인민유희시설 건설 등)를 열어놓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녹잡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통치방식이 지속되려면 통치자의 의도에 맞게 관료들도 민심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질적 빈곤으로 인해 관료들이 위법자들에게 기생하거나 결탁하여 살아가는 부정부패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미중간의 관계악화가 기회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미중관계는 동북아 역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정책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 일어나는 소수민족 분리운동 지지, 일본의 재무장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서해에서의 고강도 한미연합훈련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수교를 비롯해 일련의 우호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에 맞춰 핵무장력 축소를 진행하며 선경경제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 정책에서 전향적으로 후퇴하는 경우 가능하다.

다섯째, 한중간의 관계강화가 잠재적인 위기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제하고 일본의 재무장화를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데 이해관계가 크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단점과 위기요인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급변사태가 어느 시점에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지난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북한 및 안보전문가(학자 및 전직 관료) 135명(국내 49명, 미국 25명, 중국 12명, 일본 17명, 러시아 13명, 유럽 13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래"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정권의 유지기간이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48.3%로 단기간내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서 경제파탄 보다 기득권 세력내 권력투쟁이 주된 원인으로 될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높았다. 그러나 향후 3-5년간은 체제공고화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이 48.1%로 높았는데 중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붕괴가능성은 0%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복잡계의 시각에서 급변사태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3. 복잡계 시각에서 본 급변사태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체제는 종합시장의 공식적 운영으로 인해 구성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2009년 화폐개혁과 같이 비선형적인 정책결과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 20%에 근접하는 휴대폰 사용자의 존재로 인해 열린시스템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 사이의 원자화된 관계가 다르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북한사회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뢰만이 중시되었다. 개개의 주민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신뢰, 직속상관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신뢰는 중요치 않았다. 주민들의 이러한 태도는 당국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는 등 통치체제운영에 양호하게 작용하였다. 국가정책의 오류가 개별간부의 잘못으로 전이되고 정책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이 군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주민들 사이의 원자화된 환경하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정치범 관리소 운영과 같은 강제수

단의 작동, 정치적 효능감 부족⁴⁵⁾이나 신소청원제도(행정구제제도)의 운영과 같은 불만이 자체원인에 의해 약화될 수 있는 제도의 작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러한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반인민적 정책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적인 항거로 맞서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시장 상인들의 해당 관리소 관계자나 담당보안원(경찰)의 행패에 대한 집단적 항의를 들 수 있다.⁴⁶⁾ 또한 남한의 행정구제제도⁴⁷⁾와 유사한 북한의 신소청원제도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북한체제에서 신소청원제도는 주민들에게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소처리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개별적 간부들의 행위로 전가시킬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반강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⁴⁸⁾

김진은 저서 “2015년 김정은 급변 터질 것인가“에서 서울과 평양에는 권력의 보일러가 있는데 1993년 핵개발로 압력을 높아지자 김일성이 이듬해 심장마비로 죽었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로 압력이 높아지자 김정일도 이듬해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면서 김정은이 올해 자행한 장성택 처형을 비롯한 미숙한 리더십은 압력을 높여놓은 계기로 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⁹⁾ 이제껏 북한의 낮은 보일러가 주민불만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신소청원제도와 같은 높은 압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행정적 피해를 행정구제(신소청원)수단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이탈, 일부에서는 탈북민들과 유사하게 이탈행위로 대체하고 있다.⁵⁰⁾ 신소처리제도가 특정계층

45) 개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데 독재 국가들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처벌에 따른 두려움보다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대중시위나 봉기에 펼쳐 나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 최완규,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9권2호(2006), pp. 22~23.

46) 2006년 11월에는 회령시에서 장마당의 재건축과 통폐합을 반대하여, 2008년 3월과 8월에는 청진시에서는 장사할 수 있는 여성들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과 시장 단속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에 따른 집단적인 항거가 두 차례가 크게 일어났다.

47) 국가는 국민이 행정 운영상 맡겨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을 동원해 집행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국가는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되찾게 하거나 이익을 회복해준다. 다시말해 행정구제 제도는 행정 집행의 과정에 개인 혹은 집단의 권리 혹은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가능성 있거나 결과로 나타난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여주는 제도이다. 김병욱 “북한의 행정구제제도 기능약화와 주민통치의 영향” 『정책연구』, 제181호(2014), p. 1.

48) 위의 책,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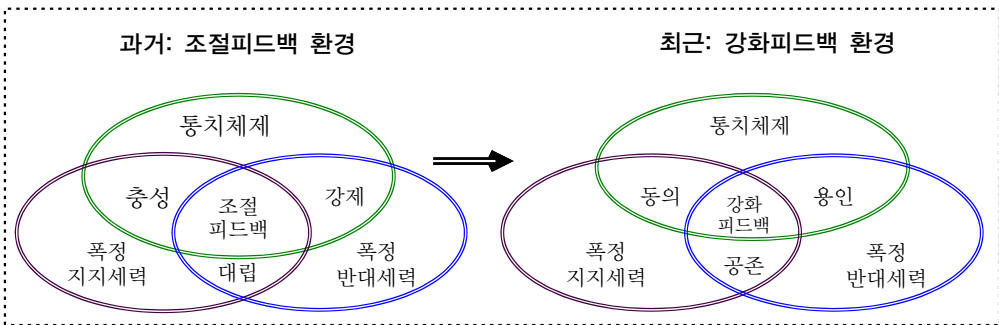
49) 김진, 『2015년 김정은 급변 터질 것인가』(서울: 늘품플러스, 2014).

50) 김병욱 “북한의 행정구제제도 기능약화와 주민통치의 영향” pp. 30~34.

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반정부적 집단행동 보다 불만수위를 잠재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고 행정구제 제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발생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원자화 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진전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다만 시장활동과 같은 경제영역에 국한되고 특정계층의 사람들의 참여에 의한 목적의식적인 자기조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자기조직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자기조직화적 양상을 불문하고 과거에 비해 강화피드백을 형성한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현재는 체제시스템 내 각이한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도, 연쇄적인 효과도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라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에서 보면 시간적 경과가 필요한 지체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조절피드백의 작용이 적어지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의 통치체제가 폭정반대세력에 대해 강제하고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체제시스템의 변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컸다.(조절 피드백의 작용) 최근에는 통치체제가 인권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대책을 의식하여 폭정반대세력의 행위에 대해 일부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사이에 공존관계가 형성되어 체제시스템의 변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강화피드백의 작용)



〈그림 3〉 북한통치체제와 피드백 작용의 변화

오늘날 북한사회는 주민들 사이의 원자화 된 관계가 자기조직화를 통해 강화피드백 관계로 이전하고 있어 급변사태가 발생하는데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발생의 조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4. 급변사태 발생의 조짐

북한은 노동당의 유일적 집권하에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로부터의 정책변화를 근거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짐을 판단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체제유지에서 안정 혹은 반대의 상황에 처한 경우 대외적 및 대내적 차원에서 핵심적 사안을 추진해나가는 양상이 다를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 사안이라고 하면 대외관계에서 자주노선 견지와 핵무력강화 여부이며 대내적으로는 경제개혁 방향과 통제기구의 작동양상이다. 체제가 안정되는 경우 대외적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기목소리를 내려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핵무장력의 강화를 추구한다. 대내적으로 관리가능 한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며 노동당의 통제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져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되면 체제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에 매어달리게 된다. 1990년대 김일성 사망 이후를 비롯한 일련의 위기 때마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국내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었기 때문인데 김정은 등장 이후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 김정은의 직접적인 정책실패가 드러날 경우, 대내적 문제로 인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친중정책에 매어달리게 되며 핵무장력의 축소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지향형 개혁개방을 시도하게 되고 노동당의 통제력이 마비된 것이 주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표 5〉 체제 안정 및 불안정 시 통치행태 비교

구분	체제 안정	체제 불안정
대외 관계	- 중국과 관계에서 자주노선 견지 - 미국과 대결을 위해 핵무장력 강화	- 친중노선 전환 - 핵무장력 축소로 전환
대내 관계	- 노동당의 통제력 유지 - 관리가능 한 개혁개방	- 노동당의 통제력 마비 - 중국식 개혁개방 지향

5. 급변사태 시 군의 역할

1) 과거 동구사회주의권에서 급변사태 시 군의 역할

급변사태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급변사태는 국가의 통제능력이 마비 될 정도의 양적축적 단계 즉,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비상사태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 질적변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급변사태 시 군의 역할변

화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거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급변사태 시 군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칠스 틸리(C. Tilly)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도 정부가 군을 장악하고 있다면 권력이행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군의 중립 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협조가 없이 반란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⁵¹⁾

선행연구에서는 체제전환기 군의 역할을 결정적 역할과 적극적인 중립적 역할, 소극적인 중립적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⁵²⁾ 소련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는 군이 폭동의 선두에 나섬으로써 체제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소련에서는 군 지도부내 일부가 주민봉기에 합세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루마니아에서는 주민봉기진압에 동원된 군대가 주민들과 합세하여 구체제를 전복시키는 역할을 했다. 불가리아에서는 군의 간접적인 역할을 통해 체제전환이 군부의 의도대로 되도록 압박하였다. 폴란드나 헝가리에서는 군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폭동을 지지하였다. 폴란드군은 1956년 포즈난 폭동이 후 체제위기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섰지만, 체제전환기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헝가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적으로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후 이를 준수했다. 체코슬로바키아나 동독에서는 군이 폭동진압에 소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폭동을 지지하였다. 급변사태 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체제전환을 저지시키려 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시위탄압에 군을 동원시킬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어도 당 지도부내에 있는 군부옹호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곤하였다. 결국 군을 동원한 시위군중 탄압은 시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군의 태도에 의해 형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북한군이 과거 사회주의권에 존재한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군대와 달리 북한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2) 북한 급변사태 시 군의 반응

일부에서는 급변사태 시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군의 일부세력이 김정은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 구성에서의 세대차이나 정권의 특혜를 받아온 주둔 지역간, 병종간 차이를 들고 있다.⁵³⁾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군 내부에서는 과거 통치체제하에서 쌓

51) C. Tilly, 진덕규 옮김, 『동원에서 혁명으로』,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5), p. 339.

52)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280.

53)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p. 27.

인 불만과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수호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급변사태 시 국정운영이 완전히 마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군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은 군 핵심관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노동당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 해도 북한군은 한국군과의 장기간 군사적 대치상태에 따른 적대의식으로 인해 정권이나 사회주의체제 붕괴에는 관심이 적어도 국가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림 4〉 급변사태에 따른 북한군의 변화

북한에서 비상사태에 준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은 급변사태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인 감시처벌에 국가보위부가 아닌 북한군 보위사령부를 내세웠다. 이러한 전례로 보아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치닫게 되는 경우 당국은 선대지도자들과 유사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당국은 반정부 세력의 준동에 의한 것이라면서 체제수호를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비상상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후의 사태는 군부 중심의 보수 혹은 개혁 세력이 과도정권을 운영하는 속에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동구사회주의권에서의 급변사태 시 군의 태도와 달리 북한군은 자기의 정치입장을 철저히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나 헝가리에서와 같이 군 지도부가 중립적 태도를 취하거나 소극적으로 동원됨으로써 폭동을 지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봉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급변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통치체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가 급변사태 발생의 초기 대량학살이나 검거 등을 강행하는데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봉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권력집단내 갈등이 발생하는데 주민봉기와 권력집단내의 갈등이 장기화 되는 등 내부적

모순으로 통치체제가 완전마비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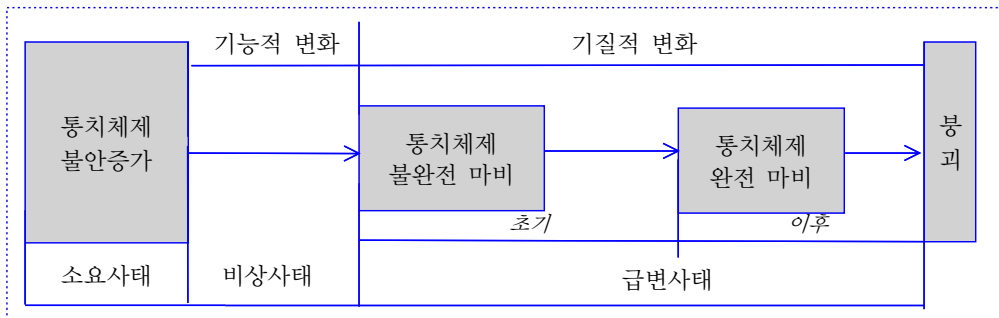
복잡계의 시각에서 보면 군의 이러한 활동은 아이러니 하게 국가붕괴가 일어나도록 강화피드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는 경우 북한사태에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므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6. 급변사태 발생경로와 단계

체제시스템의 변화에서 보면, 체제위기는 소요사태로부터 시작해 비상사태 단계를 거쳐 급변사태로 진전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붕괴에 이르게 된다.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겨 마비가 오면 초기에는 기능적 변화가 오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복귀 불가능한 기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기능적 변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하여 기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을 급변사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의 이라크나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민주화에서 보듯이 전민항거형태로 드러나진 않을 것이다. 1990년대의 루마니아 사태와 같이 내재된 원한이 특정계기가 조성되면 순식간의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치체제가 완전 혹은 불완전 마비되었는가에 따라 급변 초기단계와 이후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서 불안전 혹은 완전마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통치체제의 작동영역이나 반발성격, 강제수위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통치체제가 특정부분이나 지역 등 핵심영역에 한해서만 작동, ②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 ③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발악에 따른 극심한 피해 발생이다.



〈그림 5〉 체제위기의 진전과정에서 본 급변사태 구분

북한에서 급변사태의 발생경로에 대한 위의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통치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대량학살이나 이에 대처한 대량탈북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명이다.

비상사태가 급변사태에 이르게 되면 통치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대량학살이 일반주민에 앞서 관료집단에 대해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유가 이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90년대 대량탈북은 생계문제로 일반주민들속에서 발생하였지만, 최근의 탈북은 정적숙청에 따른 공포의식으로 간부나 핵심간부의 친인척들속에 속출하고 있다.

위의 구분에 따르면, 대량학살은 급변사태 발생의 초기(통치체제가 불완전하게 마비된 상황)에 발생하지만, 대량탈북이나 불법거래품목 거래 등은 급변사태가 발생한 이후(통치체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대량학살이 급변사태 초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집권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량탈북이 급변초기를 지나 발생하는 것은 급변사태 발생 초기에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 아닌 것만큼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기 때문이다.

제3절 급변사태 초기단계와 논의 중요성

1. 급변사태 초기단계 논의의 중요성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이후 대책에서는 초기단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세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초기단계에서 올바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국제화될 수 있다. 급변사태 초기에는 통치체제가 완전마비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득권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므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부 세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중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정규 무력을 전진 배치하였고 북한지역으로의 도강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월 백두산 부근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⁵⁴⁾ 올 4월에 진행된 일만국제관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54) 『조선일보』, 2014년 1월 13일.

면 북한붕괴에 의한 것이라는 응답이 80%이었는데 조기통일은 흡수통일에 의해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통일 이후 한국의 모습에 대해 한중동맹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것은 3%미만에 그친 반면, 한미동맹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응답은 60%나 되었다.⁵⁵⁾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급변사태 시 친중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유관국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군의 북한진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급변사태 초기단계는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 상태여서 한국정부의 선점적 역할이 가능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급변사태 시 한국의 대응방안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설득이나 UN개입을 통한 중국견제 등 외교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급변사태 초기 단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급변사태 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주객관적 환경에 따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초기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한국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급변사태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동경심을 단기간에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 수 있다. 급변사태 초기 북한의 주도세력이나 전반적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속에 서독의 흡수통일에 따른 동독주민의 처지를 자체논리에 따라 선전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도록 세뇌시켜 해왔다. 급변사태라는 사회적 혼란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경계의식이 적대의식으로 전이된다. 따라서 급변사태 초기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주민들이 처한 심적 및 물적 심리상황에 맞게 경계의식을 동경의식으로 전환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짧은 시간에 강도 높게 조성할 수 있다.

2. 급변사태 초기기간

동독에서는 1989년 11월 9일에 시작된 주민들의 대량탈출과 전국인 시위로 인해 6개월 만에 공산당 통치가 막을 내렸고 이후 6개월 만에 통일이 되었다. 결국 급변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 만에 국가붕괴가 이루어졌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독에서 급변사태는 공산당 통치의 종말로 이어졌다. 급변사태 초기단계가 6개월간 존속하였고 국가붕괴도 이와 유사한 기간을 소요되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 이후 초기단계가 지속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북한사회가 선군정치로 인해 군사동원체제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면 급변사태

55) 일민국제관계연구원, 『북한의 미래』, p. 15.

시 주도세력에 의한 체제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급변사태 기간에는 통치시스템이 불완전 혹은 완전 마비됨에 따라 공장, 기업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외부세력의 도움이 없이 진행되는 급변사태 초기라면 전시비축물자가 전반적으로 소모되는 기간과 유사할 것이다. 전시비축물자인 “5호물자”⁵⁶⁾의 비축량이 6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급변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역추적하면 급변초기 사태가 존재하는 기간은 1~2개월 미만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도 급변사태 초기 대량 난민 발생을 예방 및 통제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2개월을 초단기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 있다.⁵⁷⁾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한국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 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초기상황이다. 평소 북한지역에 대한 다양한 휴먼정보망을 구축해 급변사태의 조짐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4절 급변사태와 과도정권

체제시스템의 변화는 이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의 역할에 적지 않게 관계된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비상사태에 가까운 소요단계를 거치면서 군부 중심의 과도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수세력 혹은 개혁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군부 중심의 과도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어떠한 성향의 세력을 불문하고 북한의 기존 정치구도나 운영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3대에 걸쳐 사회주의를 지향해왔고 이로 인해 실패한 세습정권이며 기존질서가 복귀되기 어려운 상황하에 생겨난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급변사태가 국가붕괴로 이어지는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급변사태가 국가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급변사태 이후 등장한 과도정권은 과거보다 완화된 형태의 독재정권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독재정권의 붕괴가 다른 형태의 독재정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구사회주의권의 경험을 보더라도 공산체제 붕괴이후 정치행태는 기존정치체제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서방쪽에 가까운 정책을 실시하였던 국가일수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수립을 지향하였고 반대인

56) 김병욱·김영희 『탈북박사부부가 본 북한: 딜레마와 몸부림』(서울: 매봉통일출판, 2013), pp.134~138.

57) 손광주, “북한특징의 급변사태와 대량 탈북난민 예방·통제대책: 식량 긴급구호·사회안정화 방안”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난민 발생전망과 대책』(서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2013), p. 38.

경우 권위주의와 왜곡된 시장경제의 길을 선택하였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과도정권은 독재국가로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사태에 따른 국제화를 막고 한국정부의 선점적 역할을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정권이라 할 수 있다.

급변사태 시 등장한 과도정권의 주변국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과도정권은 특정 외부세력이 급변사태를 국가붕괴로 몰아가려하지 않는 한, 한국이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군부 중심의 보수세력이 장악하는 경우 북한에는 중국과 유사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며 북한식 점진적인 개혁개방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다 자율적인 새 정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량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될 것이다. 군부 중심의 개혁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공화국의 운영구도만 남게 되고 급진적인 개혁개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비 기득권 세력간의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과 관계에서 보면, 군부 중심의 보수세력은 안보적 이해관계로부터 중국과, 군부중심의 개혁세력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유형의 주도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든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고 사태를 안정화하는데서 중국에 일차적인 기대를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도세력은 성향에 불문하고 위기에 몰리지 않는 한, 중국에 종속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이 높으며 위기사태에 대한 불안으로 한국정부에 화해의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독자적으로 개입한다고 해도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는 국내상황을 들 수 있다. 예로 자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사태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마찰로 인해 전반적 국가위기로 번져질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북한의 과도정권이 진행하는 한국과의 협조를 용인 내지 수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망 시 중국은 신정권을 신속히 승인하고 지지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면서 개혁적인 과도정권이 들어서면 지체 없이 지지해야 하며 보수적인 과도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대화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다.⁵⁹⁾ 한국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시 과도정권과

58) 박형중·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태환·송영훈·장용석,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관련 시사점』, 통일연구원 2012, pp. 195~196.

59)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 (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임의 시각에 협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4장 급변사태 초기의 사회경제적 문제

급변사태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정상적인 과정임을 복잡계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제1절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문제란 해당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기준이나 사회질서 등에 비추어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을 이루는 말이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서 개인이나 가족, 특정한 공동체가 아닌 사회를 이루는 다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심리적 및 환경적 문제를 사회적 문제라 한다. 다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도 중요도나 시기성에서 뒤쳐지는 문제는 당시의 환경하에서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가 되려면⁶⁰⁾ 문제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며 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 어긋나야 한다. 또한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여야 하고 사회적 차원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여야 한다. 예컨대 명절이나 주말 등에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고운전이나 불법적인 다단계 활동 등 우리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사회적 문제는 해당 사회적 현상을 어떠한 차원에서 혹은 어떠한 영역에 포함시켜 논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해당 사안을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정치나 경제, 군사 등에서 고찰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라 하면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나 경제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적 문제와 유사하게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에서는 사회적

p. 254.

60) 박용순·문순영·임원선·임중호 공저, 『사회적문제론』, 주) 학지사, 2011, p. 25.

문제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방해하고 원활한 기능을 위협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본다. 갈등주의는 사회의 권력과 자원을 갖기 위해 경쟁하는 이익집단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두 경향을 비교해보면, 구조기능주의나 갈등주의가 갈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반면, 상호작용주의는 갈등을 발생하는 대상들 간의 작용에 주의를 돌린다.⁶¹⁾

제2절 복잡계의 선별기제 작동과 사회경제적 문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신념체계에 의해 규제된다. 체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급변사태는 구성요소를 이루는 인간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신념체계가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 체제시스템에서 복잡도가 증가하면 사회의 규칙성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선별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규칙성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선별되는 경향, 자연적 선별이 높아진다. 체제시스템에서 위기가 증가하면 주민들의 신념체계를 국가 혹은 공동체의 이익에 맞게 조정하는 특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신념체계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였을 경우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방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위기 시 전반주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원과 대처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거나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적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기는 심각한 정서적 및 행동적, 인지적 역기능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사회적 선별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복잡계의 시각에서 보면,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기존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발과 같은 것이어서 기존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나가는 과정에 주민이라는 행위자와 국가제도라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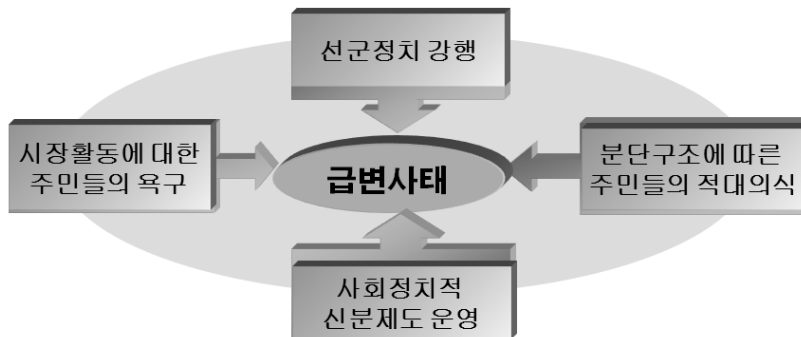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새로운 질서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다. 새로운 시도, 일탈행위는 다른 구성요소들의 반응을 유발하고 원래의 형태를 강화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사회경제적 문제는 초기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한해 현상적인 양상을 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잠재해 있던

61) 위의 책, pp. 35~54. 참조

본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데 이것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낡은 질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질서가 다시 생겨난다. 이를 복잡계에서는 진화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자연 및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 이전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기존질서가 추구해온 평시의 환경과 관련된다.

제3절 급변사태 초기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배경

2003년 종합시장의 등장에 따른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6〉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환경

첫째, 선군정치하의 사회적 환경이다. 선군정치하에서 군 집단은 핵무기에 운명을 걸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다. 급변사태 시 휴전선 일대에서 국부도발이나 핵무기에 의한 위기탈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경봉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군경제운영으로 인해 국가경제 구조에서 군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에 따른 전시동원체제 운영으로 전략물자가 전국의 민수생산업체들에까지 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급변사태 시 전략물자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대적 대립하의 분단구조 환경이다. 북한주민들은 통독으로 인한 동독주

민의 처지에 대한 당국의 선전, 장기간에 걸친 선전으로 인해 체제붕괴 시 한국으로의 흡수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급변사태 시 이러한 적대의식이 더욱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급변사태 시 한국 주도의 통일을 내세우거나 한국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북한주민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정치적 신분관계하의 환경이다. 북한체제는 사회정치적 신분관계(62)하에 운영되어 온 것으로 하여 사회적 집단별 및 계층별로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 집단과 민간인 집단의 갈등, 군과 민간인 집단을 막론하고 정치관료집단과 비정치관료집단의 갈등, 핵심계층과 비핵심계층간, 특히 적대계층을 위주로 한 비핵심계층과 안보(보안서, 보위부, 재판소, 검찰소)기관자들과 갈등이다. 또한 평양시와 기타 지역 주민, 추방지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들 수 있다. 이는 급변사태 시 폭행이나 원한복수 등 인신공격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전 주민이 상인화 된 환경이다. 북한주민들은 시장활동을 통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사경제활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 이는 급변사태 시 공공재산에 대한 절취 및 남용행위가 많을 것이라는 것과 북한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개혁개방을 내세우는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경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에서 급변사태 시 체제적 특징이 가미된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외부세력의 개입에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며 급변 초 시기에는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한국주도의 통일에는 거부감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급변사태 시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초기와 이후를 막론하고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사회주의 체제 일반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징 뿐 아니라 지난 70여년 존속되어온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사회경제적 문제는 대상에 따라 즉, 지리적 공간대상, 원한적 대상, 경제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2) 일반적으로 신분제도는 사람의 신분을 기준으로 국가 및 사회공동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북한의 사회정치적 신분제도는 봉건적 신분관계에 사회주의 제도로서의 계급관계가 가미된 것으로 정치적 신분을 가진 계층에게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김병욱김영희, “선군시대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신분제도 변화” 『정책연구』, 162호(2010). 참고

1. 지리적 공간과의 관계

급변사태 시 지리적 공간대상과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타 지역으로 주민들의 대거이동이다. 북한당국은 평양시나 도시의 인구집중을 차단하기 위해 자유거주를 제한하고 농촌이나 탄광, 광산지역 주민들인 경우 부모들의 대를 이어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도록 하였다.⁶³⁾ 또한 체제불만자 및 위법자들에 대한 이주 및 추방, 고등학교 졸업 후 혹은 군 제대 후 집단배치를 통해 강제로 주거시키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 후 고향 찾아가기, 장사 및 생활환경 좋은 지역 찾기 등에 따른 이유로 유동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남한지역으로 대량탈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탈북자가족이나 실향민 가족과 같이 가족의 재결합 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정권 시기 공직활동이나 안보기관 요원활동 시 발생한 문제에 따른 보복에서 벗어나려고 북한지역을 탈출하려 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이나 화학무기 생산 등 특수분야에 종사했던 과학자, 연구자들이 연구자료를 갖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사회보호시설에서 대량탈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다. 북한은 2004년부터 「노동단련형」을 제정하고 각, 시군에 노동단련대를 신설하고 운영해오고 있다.⁶⁴⁾ 노동단련형은 가혹한 노동을 통해 위법자들에 대한 형 집행을 강행한다. 또한 평양시 형제산구역 간리지구와 같은 주요지역에 설치된 집결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여행증이 없이 기차나 자동차 등 운송수단을 통해 혹은 걸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왔다. 급변사태 시 이러한 단위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됨에 따라 탈출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북한은 각 도와 주요 시, 군 행정지역에 3예방원(결핵환자)이나 간염예방원, 49호 병원(정신병환자) 등을 설치하고 전염병환자들을 격리시켜 치료하여 왔다.⁶⁵⁾ 지난 8월 세계 주요 8개국(G8: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63)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p. 250.

64) 「노동단련형」이 나오기 이전 만해도 6개월 이상의 노동을 통한 처벌수단(정치범 제외)은 교화형 뿐이었다. 교화형을 받는 경우 본인은 공민권 박탈, 노동당원 제명을 동반한 형벌을 받게 되어 가족은 물론 친인척도 연좌제의 기능으로 출세에 지장을 받는다. 「노동단련형」이 제정됨으로써 0.5-2년 정도의 형벌이 주어지는 범죄자(정치범 제외)는 공민권 박탈이나 출당(出黨)(노동당조직에서 제명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고 연좌제로 인한 가족, 친인척들의 정치적 피해가 적어지게 되었다. 김병욱·김영희, 『탈북박사부부가 본 북한: 딜레마와 몸부림』(서울: 도서출판 매봉, 2013), p. 4.

65) 위의 책, 248.

이 주도해 설립한 세계기금(Global Fund)은 2010년 6월부터 5년 동안 북한 내 결핵 예방과 치료, 퇴치를 위해 4천 8백만 달러를 배정한데 이어 내년부터 다시 3년간 결핵 퇴치를 위해 4천 3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과 의료체계가 붕괴돼 결핵 환자가 증가하였는데 2012년 현재 북한 내 결핵 발병자는 인구 10만 명 당 409명에 이르고 있다.⁶⁶⁾ 이러한 격리지역에서 환자들의 대량탈출이 발생할 것이다.

2. 원한대상과의 관계

급변사태 시 원한 관계로 인한 폭력행위, 특히 법치기관 및 당 관료, 내부고발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할 것이다.⁶⁷⁾ 우선 국가안전보위부나 보안성, 보위사령부를 비롯한 체제보위기관에서 감시와 숙청, 처형 등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핵심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 특히 적대계층이나 동요계층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하여 보복의 표적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중앙과 지방의 각 지방에 포진되어 있는 당조직이나 근로단체 조직의 핵심간부들과 그 연고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핵심관료 및 추종자들이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⁶⁸⁾ 북한군인 경우 병종 및 군부대 내에서, 정치군인 집단과 일반군인 집단, 보위사령부 집단과 일반군인 집단 사이에 발생할 것이다. 집단적 혹은 개별적 군인을 대상으로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2004년에 들어 북한당국이 종합시장을 제도화함에 따라 현재 시, 군지역별로 평균 1~2개씩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시장운영에는 장사군인 일반주민과 시장관리성원, 브로커의 세 부류 집단이 참여하고 있다.⁶⁹⁾ 이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생계차원에서 장사에 나선 일반주민집단이다. 시장관리소 산하 시장관리원과 이를 통제하는 구역, 군 인민위원회 상업과 관료들은 시장을 통제한다치고 이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약취하여 기생한다고 볼 수 있다. 브로커 집단은 장사군 사이의 혹은 장사군과 감독통제 집단사이를 연계해주며 폭리를 얻고 있다. 일반주민 집단이나 브로커 집단은 관료집단에 대해, 일반주민 집단은 브로커 집단에 대해 원망이 높으므로 급변사태 시 이들 사이의 물리적

66) 『미국의 소리방송』, 2014년 8월 13일.

67) 현성일,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 탈북난민 발생 가능성 평가”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난민 발생전망과 대책』(서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2013), pp. 16~18.

68) 위의 책, p. 18.

69)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 (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p. 249.

충돌이 발생한다.

3. 경제적 대상과의 관계

급변사태 시 경제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공적재산의 약탈이다. 급변사태 시 공장, 기업소의 생산설비와 자재, 현금, 협동농장의 축산물 등 공공재산에 대한 절도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급변사태 발생 초기에는 당국이 당경제나 군수경제 산하 공장, 기업소 설비들에 대한 군의 감시를 강화할 것이나 절도나 파괴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⁷⁰⁾

북한의 지방공장이나 운수업체, 가내협동조합에는 개인들이 공장명의를 내걸고 장사를 하기 위해 들여놓은 설비들이 적지 않는다. 급변사태 시 이러한 설비들은 투자자 개인의 재산으로 환원될 것이다. 또한 개인수공업자들은 국가기관에서 절도해온 설비와 자재를 구입하여 확대재생산에 적극 이용하려 할 것이다.⁷¹⁾ 박물관이나 절간, 역사유적지 등에 있는 국보급 골동품에 대한 파손 및 절도 발생한다. 은행이나 외화상점 등 돈 있는 대상에 대한 절도행위가 만연한다.

둘째, 공적경제활동에서의 일탈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적 경제활동에서 일탈 할 가능성이 크다. 급변사태 시 근로자들이 자의로 노동현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 운영이 중지되고 사회기반을 이루는 공적인프라 부문 종사자의 일탈로 전력, 철도, 운수 등이 마비될 것이다. 군 인력이 전력이나 철도부문에 투입되어 감독 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으나 전반 산업의 연쇄고리가 형성되지 않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경제와 공정경제 부문이 멎게 됨에 따라 계획경제운영은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셋째, 전략물자와 불법거래품 시장의 형성이다. 전략물자와 불법거래품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4호, 5호물자 등 전략물자들과 공정경제 산하의 불법거래품(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생산용 원료 및 자재, 마약, 귀금속)이 주변국으로 밀수되거나 이를 통한 중대형 범죄가 발생한다.

넷째, 북한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이다. 그간 북한에서는 2009년 화폐개혁을 비롯해 여러번 진행되었다. 구화폐와 교환비율이 낮고, 저금을 통해 돈을 찾기 어려워 주민들은 북한돈을 외화로 보관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급변사태 시 주민들이 모든 거래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은행을 이용하지

70) 위의 책. pp. 246-247.

71)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 (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p. 247.

않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운영이 마비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외화로만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물가상승, 이에 따른 민생난 발생이다. 북한사회는 공산품의 70~80%, 식료품과 알곡의 30~4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급변사태 시 국경이 차단되고 주변국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므로 수입물자가 적어진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나 부품 가운데 중국산이 적지 않은데 급변사태 시 북중경협이 침체 되므로 생산품이 적어진다. 물품 부족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민생난이 급격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제5장 시나리오 기법과 급변사태 초기 대책설계

제1절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각 장면이나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따위를 상세하게 적은 것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나 구체적인 과정을 표현하는 글이다. 이러한 표현방식을 시나리오기법이라는 개념하에 인문사회과학연구에서 쓰이고 있다.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으면서도 인간생활에 영향력이 줄 수 있는 사건이나 현상을 추려내어 제시하는 연구방법의 하나이다.⁷²⁾ 미래를 예측하는데서 고등수학의 방정식 풀이를 통해서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시나리오기법은 복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실행해볼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한 예측에 근거한 것이어서 로드맵과 달리 불확실성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래에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닥쳐올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시나리오는 알고자 하는 핵심이슈를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5단계로 작성한다.⁷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변화동인 가운데서 불확실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것을 찾아내고 이를 두 개로 압축하는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현가능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72) 최항섭 외, 『미래시나리오 방법론 연구』(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p. 39.

73) 유정식 지음, 『불확실한 미래의 생존전략: 시나리오 플래닝』(서울, 지형, 2009), pp. 68-69. 수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시나리오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⁷⁴⁾

〈표 6〉 시나리오 설계단계

단계	주제
1단계	핵심이슈 선정
2단계	의사결정요소 및 변화동인 도출
3단계	시나리오 도출
4단계	대응전략 수립
5단계	모니터링

제2절 북한의 급변사태 초기대책 설계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통일과 공존 중 어느 것을 선차로 내세우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공존보다 흡수통일을 강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존을 선택하여 북한의 과도정권을 지원하여 사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전자가 급속한 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점진적인 통일을 위한 기반축성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가능한데 이 경우, 중국의 개입에 빌미를 주어 또 다른 분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친중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 북한정권이 회생 이후 체제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⁷⁵⁾ 그러나 한민족이 자체로 급변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위의 <표 6>을 고려하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시나리오는 다섯 단계를 통해 설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핵심주제를 선정하는 것인데 본 주제에서는 두 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74) 위의 책, pp. 248~281.

75) 선행연구에서는 급변사태에 직면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즉각적인 흡수, 북한의 새 정부지원, 통일을 위한 기반축성의 세 가지로 보고 있으며 세 번째 방안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 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통권 제56호(2012), pp. 163~164.

변수를 도출하는 것인데, 불확실성과 영향력이 동시에 큰 변수를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제운영 특성에 따른 사회적 환경배경 요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것은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요인 가운데서 사회경제적 문제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상반되는 2×2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발생에 영향을 주는 대상과 문제의 성격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여 고찰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급변사태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최적의 전략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시 문제의 성격에 따른 한국과 북한에 나서는 대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나리오 판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려 한다.

제3절 주요변수와 시나리오

1. 주요변수와 사회경제적 문제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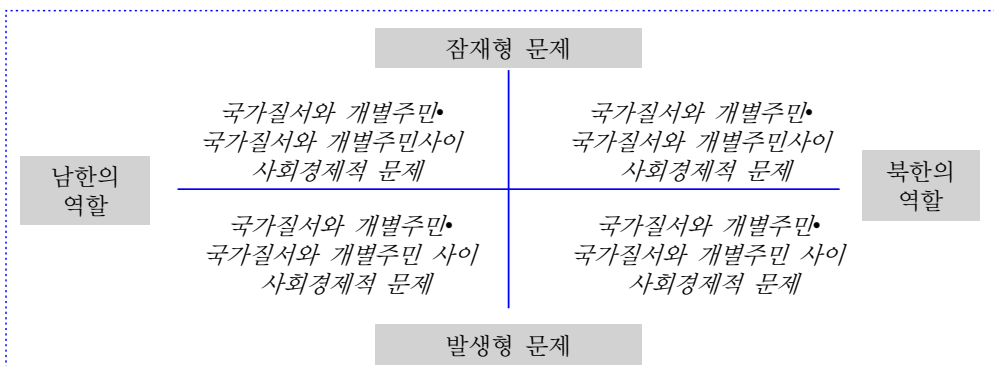
북한의 급변사태 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여러 변수들의 작용에 의한 것이지만,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질서와 개별주민, 개별주민 사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가시적인 문제와 현재로써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방치해두면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한 잠재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급변사태 시 등장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에 관여하는 대상과 문제의 유형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조합하여 아래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7〉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 행태

구분	발생형 문제	잠재형 문제
국가질서와 개별주민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생활 및 노동생활 일탈 - 북한지역 내 자유로운 이동 및 해외로 탈출 - 범죄적 및 병리적 격리 시설탈출 - 공공재산 절도 및 남용, 가내수공업자 재산증식 - 모든 거래에서 외화사용 선호, - 한반도 국보급 유물 도굴 및 해외유출 - 전략물자 및 불법거래품 밀수 및 범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로 대량탈출 및 한국입국 시도 - 무차별적인 한반도 국보급 유물 도굴 및 해외유출 - 전략물자 및 불법 거래품 대량적인 해외유출 및 범죄사용
개별주민 사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한관계에 따른 복수 - 생계형 절도 및 폭행, 각종 사기범죄 -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범죄 	계층 및 지역간 반목 질서와 극단적 충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발생형 문제가 주로 급변사태 발생의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라면, 잠재형 문제는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급변사태 시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지원과 함께 북한 자체의 대책도 필요한데 문제의 성격에 따른 변수를 조합하면 네 개의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다.



〈그림 7〉 급변사태 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시나리오

위의 시나리오에 각각 근거하여 급변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2. 사례: 급변 사태 발생 초기 물질생활안정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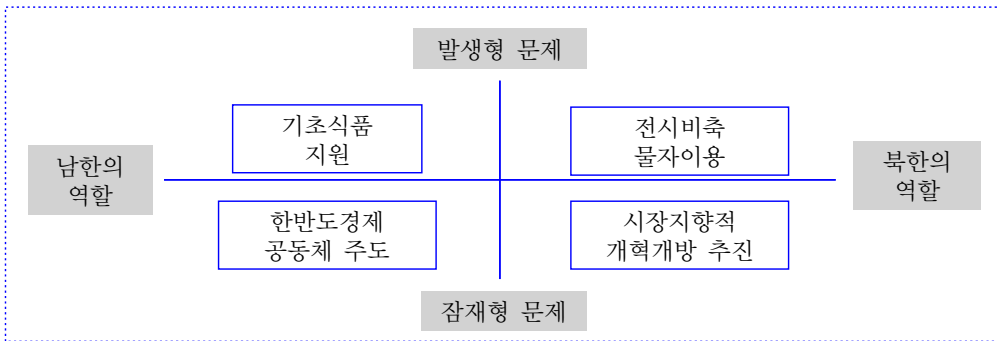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급변사태가 발생한 초기에는 당국이 통치체제가 완전한 마비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한다.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함께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과도정권의 역할 분담속에 문제의 유형별에 따른 대책,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남한이 급변사태 발생 초기에 북한의 과도정권과 연계를 강화해 하는 이유는 국군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능한 것과 관계된다. 급변사태 초기에 어떠한 이유로든 국군이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주변국들이 이를 묵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⁷⁶⁾ 국군이 군사력을 북한지역에 전개할 경우, 미군의 세력권이 한만국경지역으로 북상할 것을 우려한 중국군의 군사적 개입에 빌미를 주고 이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급변사태 발생 초기 주민들의 물질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한국과 북한의 과도정권이 분담할 수 있다. 식량이나 라면 등 기초식품 지원, 북한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산업망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지원, 시장운영의 자율성 보장, 사적소유권 인정 등 시장경제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이 한국정부의 과제라면, 전시비축 물자를 해체하거나 전시생산용 자재로 민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활동은 북한자체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운영구조를 보면, 북한은 내수주도형경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운영으로 인해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다. 북한의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은 잠재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의 기획과 지원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

북한의 군수경제를 민수화하고 시장경제 지향형 개혁개방 추진해 나가는 것 역시 잠재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자체의 노력에 의해 효과성이 높아진다.

76)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pp. 52~53.



〈그림 8〉 급변사태 초기 문제유형별 대책

제6장 급변사태 초기 사회경제적 문제의 대응방향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급변사태라 하면 짧은 기간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세습정권이나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 변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 기득권 세력은 최후발악을 하게 되므로 급변 초기 단계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평시에 세워 무차별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1절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하여 통일로 직결되기 어렵지만, 통일에 양호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잠계에서 말하는 시스템의 인위적 혁신이 일어나는 방향에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변사태 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에너지를 주입하고 강화피드백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첫째, 급변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에서 북한 과도정권과의 협조에 관심 두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과도정권이 중국과 공조를 해나가겠지만, 통독 전 동독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⁷⁷⁾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급변사태 시 보수 혹은 개혁적인

77) 정상돈·김진무·이강규, 『동독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 p. 133.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군부 중심의 과도정권이 출현한다. 군부 중심의 과도정권과 잘 협조하면 북한 내 저항세력의 활동을 약화시켜 불안정상태를 회복하는데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문제의 유형에 따른 분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는 과도정권 내에 한국정부의 개입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다. 평시에 북한의 고위엘리트들과 연계를 통해 과도정권과 대화할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⁷⁸⁾

둘째, 문제발생에 따른 유형별, 원인별 구체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만 문제발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가 통일준비의 일환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가는 천지재해와 같은 임의의 사태에 대비해 재난 방지대책을 세운다.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은 분단의 상황인 것으로 하여 세워지는 대비책의 일환이다. 한반도 역사에는 1945년 8월 15일(광복)일이나 1953년 7월 27일(휴전일)과 같이 한국인이 주권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급변사태 논의 그 자체에 대한 현재의 부정적 인식하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특정세력의 전유물로 되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급변사태 시 북한 과도정권과의 협력이 오해로 확산될 수 있다.

복잡계의 시각에서 보면, 첫째는 급변사태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가 기존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입장벽과 같은 것이라면, 둘째는 변화가 지속되도록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강화피드백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발생형 문제 해결 시나리오

1.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급변사태 발생초기 주민들이 노동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전반산업의 운영이 마비되며 식량가격이 치솟고 생필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다. 먹거리와 생필품부족에 따른 민생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78) 위의 책, p. 1

휴전선에서 먼 지역은 항로 및 육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적 분위기 조성에 적합한 적대계층 밀집지역이나 군수공업지대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빈곤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서는 일일지원도 가능한데 한국정부의 식품이나 생필품 지원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의 효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은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무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쌀인 경우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을 고려하면 2,400만 명이 1개월간 소비할 쌀은 약 34만 톤이다. 한국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은 약 100여 만 톤에 달하므로 급변사태 초기 공급할 식량은 충분할 것이다.⁷⁹⁾

지원을 주는 것과 함께 산업을 가동시켜 북한자체로 초보적인 수준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지방산업공장 가동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북한에는 현재 3,600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있는데 중앙공업에 비해 원료소비가 적고 지역주민에 필요한 소비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가동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서 중요하다.⁸⁰⁾ 이를 위해 장공장, 과자공장, 기름공장 등 기초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에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공장 가동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정부가 마셜펀드 형태로 북한에 주어 생산품은 시장에서 판매하게 하고 수익은 과도정권이 철도나 도로 등 기간산업의 재건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⁸¹⁾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지원목적은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고 지원용도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2. 북한 비축물자를 통한 생활안정

급변사태 시 영아 및 산모,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를 북한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동원총국 산하 전시물자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량이나 영양식품 및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북한당국을 압박해야 한다. 전시동원공장⁸²⁾들과 상업관리소, 의약품관리소 등에 비축되어 있는 4호물자를 주

79) 위의 책, p. 151.

80)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 (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p. 261.

81) 위의 책, p. 262.

82) 북한에서 병기제품을 비롯한 군수제품을 생산하는 민수공장인데 1990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피포위위식을 느끼면서 급속히 조직되었다. 가동되는 시기에 따라 평시 가동공장과 전시 가동공장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민수품 생산단위의 일부 설비를 이용하여 평시에도 병기제품을 생산하는 민수공장(병진공장)이며 후자는 전시에 군수생산에 진입할

민구제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호물자”는 전시에 군대와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소비품과 이러한 소비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이다.⁸³⁾ 예컨대 피복공장인 경우 특수가공용 천이나 고변수 재봉사(絲), 지퍼 등 피복가공에 필요한 중요 자재가, 식료공장인 경우 밀가루, 설탕 등 식품생산에 들어가는 필수 자재가 속한다. 제품상태의 “4호물자”에는 소금, 기름, 작업복, 신발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생산용 원자재 관리와 생산된 물자관리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생산용 원자재 관리는 식품공장, 피복공장, 의료공장 등 소비품 생산단위의 공장, 기업소 4호 지도원이 맡고 있다. 생산된 물자관리는 원자재 관리와 유사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내각의 성과 부 그리고 도, 시군 인민위원회에 이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부서인 4국(처)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대비 비축물자 공급은 주민들의 물질생활을 전반지역에 걸쳐 균형적으로 신속히 안착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1960년대 전국요새화에 따라 전시비축 창고가 전 지역에 일정 거리를 두고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⁸⁴⁾ 전시비축미는 “대략 45만 톤(전체 무장력 170만 명 3개월 분)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⁸⁵⁾

비축물자를 생활안정에 돌리는 것은 북한의 전시동원능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군수산업을 민수화하기 위한 과정과 연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방안을 예견해야 한다.

3. 산업부문 전력공급 대책

급변사태 시 북한의 산업부문에 전력을 공급하여 공장, 기업소를 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에 따른 민생난을 막고 주민유동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먼저 북한 자체로 비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전시동원공장들에는 전시를 대비한 지하변전소 형태의 발동발전기가 구비되어 있다.⁸⁶⁾ 디젤유만 보장해 주면 비상전력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다. 급변사태 발생으로 전반산업의 전력공급이 중지되었을 때는 디젤유만 공급해 주면 수력이나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전력생산지의 가동에 의거하지 않고도 신속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민수공장이다. 김병욱, 『현대전과 북한의 지역방위』(서울: 선인출판사, 2011), pp. 147~149.

83) 위의 책, pp. 113~134.

84)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p. 267.

85) 손광주, “북한특징의 급변사태와 대량 탈북난민 예방·통제대책: 식량 긴급구호·사회안정화 방안”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난민 발생전망과 대책』 p. 43.

86) 김병욱, 『현대전과 북한의 지역방위』, pp. 145~149.

생산을 개시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양허성 차관⁸⁷⁾형태로 전력공급용 디젤유를 공급해주는 것과 함께 평양화력발전소나 북창화력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해 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단위에 석탄을 공급해주는 순천지구와 개천지구 탄광들을 가동 하는데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탄광가동에서 제기되는 전력이나 부품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탄광근로자들에게 차별적인 예컨대 3배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식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 시 탄광이 가동하게 되면 화력발전소가 운영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 급변사태 이후 전력난이나 민생난이 풀리는 조짐을 보이게 되면 과도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주민운동이 적어질 수 있다. 과도정권은 주민들의 지지에 편승해 한국정부와의 우호적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으며 인권탄압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책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

4. 대량 학살 및 탈북 방지

급변사태 발생 초기에는 기득권세력에 의해 대량학살이 강행될 수 있다. 평시에 국제형사재판소 등과 연계하여 인권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이 인권박해에 따른 공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득권 세력의 최후발악에 따른 피해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와 같이 생계난에 따른 원인이 아니지만, 남한으로 이주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탈북민 친인척이나 실향민, 국군포로가족들의 이주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평시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의식을 가지 사람들과 북한국내에서 보다 돈벌이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호기심에 끌려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구 소련이나 기타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 시나 한국전쟁에서 포로교환시 발생하였던 사례와 같이 남이나 북이나 어느 지역도 선택하지 않고 제3국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거주지에 머무는 경우에 한해 특혜를 주어야 하고

87)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란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용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지칭해 도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부르기도 한다.

거주지를 벗어나 다시 귀향하더라도 생활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⁸⁸⁾ 북한의 특수 분야에 종사했던 과학자, 연구자들이나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광고하는 것을 비롯해 인센티브를 지불하여 해외로 탈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통일한국 국보보호 및 불법거래품목 차단

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에 있는 통일한국의 국보보호사업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역사유적지들에서는 골동품 분실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이에 바빠난 북한은 1998년 형법개정을 통해 역사도굴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데 대한 법조항까지 내왔다. 당시는 갑자기 배급이 끊기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범죄를 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급변사태 시에는 국가의 통제가 와해된 틈을 이용해 횡재를 목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에서 나오는 역사유적에 대한 국내반입 유인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유통되는 유물이 해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독은 통일되기 10년 전인 1980년 초에 동독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제정에 합의하였다. 문화재의 범위를 역사적,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소유 혹은 개인적 소유하에 있는 모든 문화재가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하였다.⁸⁹⁾ 북한지역에 있는 통일한국의 국보급 유물을 북한이 엄격히 보관하는 경우 그 대가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급변사태 시 당 및 군부가 소유하고 있던 마약 및 위조화폐 생산지들에서 설비나 부품, 원료나 자재 등이 사회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⁹⁰⁾ 평안북도 의령군이나 황해북도 평산군, 함흥시를 비롯해 당국이 운영하던 핵 및 화학무기 및 원료 생산지에서 이와 관련한 일체 물자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⁹¹⁾ 이를 위해서는 평시 유출시켰을 경우에 따른 국제적 형사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6. 격리시설 및 방역대책

급변사태 시 사회적으로 격리된 전염성 질환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2예방원(간염), 제3예방원(결핵), 제49호병원(정신병원) 등 사회적 격리대상 병

88) 이승·김갑식,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정책연구』, 2011, 가을호, p. 200.

89) 통일원, 『내독 관계 발전사』, 통일원, 1990, pp. 146~147.

90)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 (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p. 269.

91) 위의 책, 같은 쪽.

원들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연계가 끊긴 경우가 많다.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면 이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데 긴급구호 형태로 무상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염성 질환이나 환경오염 대책을 세워야 한다. 휴전선 일대에 방역위생지구를 설치하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일체 유형적 및 무형적 재화는 의무적으로 방역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위생방역 협정을 평시에 체결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지역의 낙후한 환경오염 환경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근본조치라 할 수 있다.

제3절 잠재형 문제의 해결 시나리오

1. 군사장비 보호 및 주민들간의 폭력방지 대책

급변사태 발생 초기단계를 지나서는 국가통치체제가 완전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민보안서나 농적위대들에 있는 무기를 회수하여 지역에 있는 군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시동원공장이나 군수동원총국 산하 창고들에서 절도한 전략물자를 통한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과도정권이 폭력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폐기 및 군에 이관하기 위한 책임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권 시기 사회적 신분관계에 따른 피해로 북한의 계층 및 지역간에는 원한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는데 이로 인한 반목질시,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갈등해결을 주민 체의 합의도출에 맡겼다가는 사태를 악화 시킬 수 있다. 외국의 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자들에 대한 주변국 해결 사례를 제공하여 가해자 처리와 피해자 보상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

2. 군수산업의 민수화

급변사태 시 군수경제를 민수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등장하면서 북한에서는 민수산업의 군수화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선군정치에 따른 전력증강, 지역자체방위체계 운영에 따른 지역방위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⁹²⁾

민수산업 군수화는 북한군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과 2경제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있다. 군부에 의한 민수산업의 군수화는 종전의 민수공장을 인수하는 형태와 닭공장, 열대메기공장 등과 같이 종전에 있던 민수공장을 개건 확장한 다음 인민무력부 산하 공장, 기업소와 합병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전국의 외화벌이 생산지들을 인민군에서 조정하고 군에 소속시켜 놓을 데 대한 지시를 비롯해 김정일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제2경제위원회에 의한 민수산업의 군수화는 전시동원공장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과거 북한은 민수제품과 병기제품을 평시에 동시에 생산하는 병진공장을 장려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병진공장 외에 평시에 민수제품만을 생산하지만 전시에 전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토대를 갖춘 전시동원공장을 전국에 신설하였다.

이러한 공장, 기업소의 생산설비와 자재를 민수품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군수경제를 민수화하는데 드는 자금을 증여형태로 제공하는 대책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전국 각지에 있는 전시동원공장들에 비축되어 있는 “5호물자”를 민생품 생산에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⁹³⁾ “5호물자”는 전시동원공장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명령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6개월분 전시예비물자이다. 여기에는 병기생산용 자재가 기본적으로 속한다. 예컨대 반탱크지뢰나 85mm 박격포탄 생산을 맡은 전시동원공장인 경우 “5호물자”에는 화약생산에 필요한 화학자재와 스프링 생산용 강재가 반드시 포함된다. 전시 변전소 폭격을 대비한 발동발전기용 원료는 전시동원공장의 “5호물자” 대상이다.

“5호물자” 관리는 제2경제위원회 상급부서로부터 도 인민위원회 6국의 “5호물자” 담당지도원, 전시동원공장 군수동원과 “5호물자” 관리원에 이르기까지 일원적인 사업체계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5호물자를 민생품에 돌리는 것은 전시동원력을 반감시키는 것으로 되고 위에서 제시한 군수경제의 민수화 역시 군비축소로 이어지므로 급변사태 발생 초기보다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한국사회 동경 분위기 조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한국과의 통일보다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⁹⁴⁾ 이는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92) 김병욱·김영희, 『탈북박사부부가 본 북한: 딜레마와 몸부림』, pp. 231~241.

93) 김병욱, 『현대전과 북한의 지역방위』, pp. 134~138.

94) 조정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민·양계민,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평양: 통일연구원, 2010), p. 151.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의 장래는 북한주민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주변국들로부터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도정권과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정부가 남북한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을 필요로 하며 남북이 합심하면 북한지역 경제를 짧은 기간에 추켜세울 수 있다는 것을 북한주민과 과도정권에 설득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새 정치하에서 합심하여 일떠서면 짧은 기간내에 북한지역을 남부럽지 않은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베트남을 비롯한 북한과 가까웠던 국가사례를 통해 해설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급변사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적대의식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과도정부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 과도정부에 대한 설득은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가동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에 북한의 계층별, 직업별, 지역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은밀한 활동이 필요하다. 남북한 각종 교류 시 만나게 되는 북한의 관료들과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 집단과 공동연구의 창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의 지역별 친한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당국은 지난기간 “전국이 평양시를 지원하자”는 구호아래 평양주민들에 대한 특혜를 집중해왔다. 또한 농촌지역에 비한 도시지역, 탄광, 광산지역에 비한 기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실행해왔다. 급변사태로 기존정치구도가 사라지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다를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한국에 우호적인 지역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친한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급변사태 초기 탈북민 역할

앞서 설명하였지만, 급변사태 초기 전반적 북한주민들에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적대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소하는데서 탈북민들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탈북민들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체제의 우월성을 생활을 통해 체득하였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북한주민들의 의식상태와 일반심리를 잘 알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투리로 전달할 수 있어 북한주민들이 이해하기 수월하다. 또한 북한지역에 혈연, 학연,

지연을 갖고 있어 인적네트워크도 풍부하다. 북한당국은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 주민들을 인간쓰레기니, 민족반역자니 등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눈에 비쳐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삶을 통해 인격자로의 달라진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지난기간 한국정부는 정착지원법을 비롯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탈북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여기서 제2하나원을 통한 탈북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육내용을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건전한 안보의식 고취와 북한을 바로 알리기 에 기여하며 통일 이후 북한 지역관리에서 책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더십 프로그램, 행정 실무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 리더양성에 필요한 일반적 내용과 탈북민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특수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탈북민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료자들에게 특급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이북 5도청이나 통일 대비 기관, 대북업무 부서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필요하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에는 정규적인 학사과정 이수자나 석·박사 학위수여자가 적지 않다. 이들을 중심으로 급변사태나 통일 시를 대비해 “내 고향 개발기획, 내 고향 투자자에 우리도 한 몫한다”는 소명의식하에 떠나온 고향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탈북민들이 출생 및 사회생활과 연고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적개발이나 경제적 개발 등 각종 개발대책을 준비할 수 있게 한국사회는 지원해야 한다. 향토애에 기초한 탈북민들의 활동은 대량탈북 사태를 막고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휴전선과 가까운 제2하나원 이용을 비롯해 물리적인 수용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주민들이 새 정치하에 자기고장을 잘 꾸려 살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탈북민들이 앞장서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4절 시나리오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 과제

북한의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과제수행이 필요하다.

1. 북한 급변사태 대책에 대한 인식개선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급변사태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논조와 유사하게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 이는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남한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도록 만들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더욱 경계하도록 만들었다면서 “북한이 붕괴되면 그 기회를 활용하여 통일하겠다는 한국을 북한이 협조 상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⁹⁵⁾ 이러한 인식을 가지도록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군사분야와 같은 특정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2008년 김정일의 와병설이 사실로 밝혀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2009년 하순 김정일의 급사에 따른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하는 대신, 핵무기 제거는 미군이 맡도록 합의하였다.⁹⁶⁾

지난시기에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려는 특정세력의 전략의 산물이었다면 오늘은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국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준비는 분단국인 경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자” 구호를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준비있게 맞이한다는 의미는 남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환경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전환적 기회로 만들려는데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2. 문제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 대책 강구

북한의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유형별 및 원인별 구분을 통해 구체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문제유형에 따른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 발생형 문제와 함께 잠재형 문제를 해결하여 체제붕괴가 국가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주도의 통일정부 수립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의 주되는 원인과 부차적 원인을 찾고 급변사태 발생 초기와 이후 해결해야 할 전략을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급변사태 시 주민들의 무질서한 유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지난정권 시기 거주이동의 자유

95) 박휘락,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분석”, p. 62.

96) 『조선일보』, 2009년 11월 2일.

가 부재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고 체제가 붕괴되는 속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충돌도 사회신분제도에 의한 것이므로 급변사태 발생 초 시기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3. 한국정부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현실주의 학자들은 원조에 대해 수혜국이 사회주의나 테러리즘을 지양하도록 하여 공여국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면서 인도적 차원이 아닌 냉전 외교의 정략이라고⁹⁷⁾, 더 나아가 원조 때문에 아프리카의 고통과 빈곤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조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재앙을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⁹⁸⁾ 이에 반해 자유개방주의자들은 “세계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국가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한다.⁹⁹⁾

북한에서 급변사태 시 어떠한 유형의 과도정권이 수립되든 분단 상황이어서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공여국들이 선정한 기업이나 지역, 대상에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수혜국에 요구하거나 일련의 경제, 정치 정책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통해 수혜국을 구속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¹⁰⁰⁾

급변사태 발생 초기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은 물고기를 스스로 잡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진행됨으로써 북한의 과도정권이나 주민들이 “원조의 덫”이나 “죽은 원조”의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지원이 북한의 시장경제화의 진전과 친한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에는 보조금, 연차관, 부채감면 등 현금지원이나 식량지원, 의료품 지원 등 물품지원이 있을 수 있다. 지원에 따른 효과가 북한의 군사력 축소,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북한지역 광물이나 특정지역 경제특구 조성, 특정산업의 진출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북한당국이 수용하는 결과로

97) 캐럴 랭커스터 지음, 유지훈 옮김,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서울, 시공사, 2010), pp. 15~18.

98) 담비사 모요, 지음, 김진경 옮김, 『죽은 원조』, p. 23.

99) 캐럴 랭커스터 지음, 유지훈 옮김,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p. 16.

100) 아프리카 나라들 경우 국가의 계획경제내 공무원 조직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약속하는 조건에서 선진국의 원조가 이루어졌다. 담비사 모요 지음, 김진경 옮김, 『죽은 원조』, p. 76.

나타나야 한다.

북한의 지방산업 공장 재건에 필요한 현금지원인 경우 미국의 마셜플랜¹⁰¹⁾ 지원 형태로 진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셜플랜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달리 유럽국가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유럽국가들이 다른 지원들도 있어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국가소득의 10%이하) 지원기간도 한정적이었으며(5년 미만), 국가가스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점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된 점, 지원된 현금이 물리적 기반에 주요하게 쓰인 점 등을 들 수 있다.¹⁰²⁾ 마셜플랜이 유럽에서와 유사한 북한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이유로는 북한이 한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¹⁰³⁾ 마셜플랜은 급변사태 발생 초기,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마비된 조건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아래로부터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위로는 개혁정부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한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북한지역 재생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¹⁰⁴⁾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경제개건계획을 제시하면서 대규모 경제지원 계획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판 마셜플랜”은 북한체제변화 유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⁵⁾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지원과정이나 사후과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101) 미국이 1948년~1951년 사이에 수행한 빈곤한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활동을 말한다. 당시 13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유럽국가들에 지원되었는데 효과성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인프라 건설부문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민간기업 육성부문에 쓰이었다.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면 기업들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에 상환하고 정부는 그 상환금으로 항구나 철도 등 기간산업을 재건하는데 이용하였다. 글렌 하버드·윌리엄 대건 지음, 박현준 감수 조혜연 옮김, 『원조의 덫: 빈곤퇴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 (서울, 사)한국물가정보; 2010), pp. 22~23.

102) 담비사 모요 지음, 김진경 옮김, 『죽은 원조』 (서울, 주)알마: 2012). pp. 73~74.

103) 한국정책금융공사,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플랜 A&B』 (서울, 보림에스피엔: 2014), p. 262.

104) 위의 책, p. 262.

105) 조성렬,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평화적 관리”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년 특별심포지움.

제7장 결론

북한의 급변사태 시 이에 따른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사회를 신속히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사태 초기 과도정권과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해결하는데서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국제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복잡계의 시각에서 보면, 아래의 두 가지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된다.

첫째, 급변사태가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며 이후 어떠한 진화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체제시스템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질서와 충돌하고 이로 인해 기존질서가 완패하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시스템이 새로운 질서에 의해 대체되어가는 과정이다. 체제시스템의 이러한 변화는 이를 이루는 요소들의 목적의식적인 자기조직화를 통해 강화피드백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북한체제는 종합시장의 공식적 운영으로 구성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2009년 화폐개혁과 같이 비선형적인 정책결과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 20%에 근접하는 휴대폰 사용자의 존재로 인해 열린시스템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 관계가 원자화 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진전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다만 시장활동과 같은 경제영역에 국한되고 특정계층의 참여에 의한 목적의식적인 자기조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자기조직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체제의 강점으로 지도자와 국민사이의 정치적 통합과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체제수호에 대한 자신감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양극화와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러한 강점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북한사회의 원자화가 새로운 양상으로 번져지고 있어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송배의 대상인 김일성의 존재로 사회의 원자화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였고 이는 당국의 통치에 양호하게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리더십 약화로 사회의 원자가 국가와 주민사이에도 나타나고 있어 주민 결속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북한의 급변사태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정치, 군사적 문제를 비롯한 특정분야의 문제보다 사회전반을 포괄하면서도 주민일상과 관계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대한 유형별 및 원인별 구별을 통해 이 부문 연구가 갖고 있는 일반적 경향인 거시적인 담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급변사태 시 한국정부의 독자적 역할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내지 지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급변사태 초기단계에 대한 고찰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통치체제가 불완전마비상태에 있는 초기단계에 대한 고찰이 없이 붕괴사태를 논의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수행해야 할 몫이 커지게 되고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 단계인 초기단계에서 한국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은 관심밖에 놓이게 된다. 또한 체제가 붕괴되기 전 상황과 붕괴된 상황의 차이, 나아가 급변사태 연구와 통일 대비연구, 체제통합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아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혼돈의 가장자리 형성과 임계점의 통과, 자기조직화와 강화피드백의 형성과정을 제시하였고 급변사태 발생의 초기단계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제기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계의 시스템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능하였다.

급변사태는 기존의 제도와 신념체계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급변사태 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방어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이 지속되어 심각한 정서적 및 행동적, 인지적 역기능을 일으킨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필연적이며 정상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계에서 논의되는 혼돈의 가장자리 발생과 임계점 통과 이후의 상황, 시스템의 인위적 혁신과정을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용하여 체제시스템의 변화로 분석할 수 있는 복잡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급변사태와 관련한 방향적 대책에 머물렀고 이를 해결하는데서 한국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후속연구과제로 맡겨둔다.

가까운 기간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거부할 경우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방관시 한다면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가 한반도의 또 다른 재앙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그 출발이 어떠한 부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준비는 발생 시 국제화 차단, 한반도 전반의 피해 최소화,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조성 등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통일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이에 대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재홍.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국가전략』, 통권 제47호(2009).
- 글렌 하버도·윌리엄 대건 지음. 박현준 감수 조혜연 옮김. 『월조의 덫: 빈곤퇴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 서울: 사)한국물가정보, 2010.
- 김병욱·김영희. “선군시대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신분제도 변화” 『정책연구』, 162호(2010).
- _____. 『탈북박사부부가 본 북한: 딜레마와 몸부림』. 서울: 매봉통일출판, 2013.
- 김병욱. “북한행정구제제도의 기능약화와 주민통치의 영향” 『정책연구』, 181호(2014).
- _____, 『현대전과 북한의 지역방위』, 서울: 선인출판사, 2011.
-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의 개연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3호(2008).
- 김영희. “푸코의 몸권력과 북한사회 신체왜소 적용가능성” 『사회과학연구』, 제21권2호(2013).
- 박영자, “북한의 생명정치” 『현대북한연구』, 제7권3호(2005).
- 김진. 『2015년 김정은 급변 터질 것인가』. 서울: 늘품플러스, 2014.
- 김진무. “북한체제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0권1호(2014).
- 김진환. “북한 급변사태가 현실이 되기 어려운 이유” 『디펜스21』 (2012).
- 김창욱. “북한경제 시장화 연구를 위한 복잡계적 분석틀의 재정립” 『KDI북한경제리뷰』, 2010년.
- 담비사 모요 지음, 김진경 옮김. 『죽은 원조』, 서울: 주)알마, 2012.
- 박관용.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박용순·문순영·임원선·임종호 공저. 『사회적문제론』, 주)학지사, 2011.
-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 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56호(2012).
- 박형중·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태환·송영훈·장용석.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관련 시사점』, 통일연구원 2012.
- 박희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 서울: 『통일정책연구』, 제23권1호(2014).
- _____.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분석”, 『국가전략』, 제16권4호(2010).
- 배경화.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복잡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3년 여름호.
- 백승주.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 차원 대비 방향.” 박관용 외. 『북한급변 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정책연구』, 2014년 봄호.
- C. Tilly, 진덕규 옮김. 『동원에서 혁명으로』,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5.
- 유정식 지음. 『불확실한 미래의 생존전략: 시나리오 플래닝』. 서울, 지형, 2009.
- 유효열.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 윤영수·채승병.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 읽기: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교덕·김국신·조정아·박영자,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형,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승현·김갑식.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정책연구』, 2011, 가을호.
-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북한학보』 제34집2호(2009).
- 이춘근·방상봉 저.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경제연구원(2011).
- 장형수·김석진·송정호.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제성호. 『남북관계론』, 파주: 집문당, 2010.
- 전경주.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과 대비』, 서울: 살림, 2012.
- 정병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실존철학적 접근” 『통일전략』, 12권2호(2012).
- 정상돈·김진무·이강규, 『동독 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3.
- 정재욱.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 『국방연

- 구』, 제55권4호(2012).
- 조성렬.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2006. 11).
- _____.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평화적 관리”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년 특별심포지움.
- 조정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민·양계민,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주용식. “포스트 김정일 북한에 대한 전망: 국가급변사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2호, 2009.
- 캐럴 랭커스터 지음, 유지훈 옮김.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서울, 시공사; 2010.
- 통일원. 『내독 관계 발전사』, 통일원, 1990.
-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연구자 시각·체제성격의 특수성과 보편성,”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최항섭 외. 『미래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한병진.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가전략』, 제18권1호(2012).
- 허남성.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성과와 대응방안』, 국회 위기관리포럼, 2009.
- 홍현익.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2013.
- 『데일리 NK』. 2014년 6월 3일.
- 『미국의 소리방송』. 2014년 8월 13일. 『조선일보』. 2009년 11월 2일.

고난의 행군시기 영유아기를 보낸 20대 초반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 연구

김선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제1장 서론	201
제2장 이론적 논의	202
제3장 연구 방법	217
제4장 연구 결과	224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261
부록 1. 연구참여자 동의서 양식	277
부록 2. 인터뷰 질문지 양식	278
참고 문헌	279

표 목차

<표 1> 연구 내용 (심층인터뷰 내용)	220
<표 2> 연구 참여자 현황	224
<표 3> 연구 참여자의 주요 특성 분석	226
<표 4> 개방코딩 결과(일반 탈북 청소년)	228
<표 5> 개방코딩 결과(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	251

그림 목차

<그림 1>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222
<그림 2> 탈북 청소년들의 경험 과정과 내용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일반사례)	259
<그림 3> 탈북 청소년들의 경험 과정과 내용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꽃제비 경험 사례)	260

요 약 문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은 20대 초반 탈북청소년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현재 삶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의 삶(고난의 행군시기 등)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통일주역이 될 수 있는 20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동시에 강점을 찾아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탈북청소년 15명이었으며 근거이론방법론에 의해서 심층인터뷰 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심층 인터뷰 필사본을 바탕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구술자료에서 개념을 확보하고 개념을 묶어 하위범주를 만들고 하위범주를 묶어 범주를 만들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15명 중 꽃제비 경험이 있는 탈북청소년 3명과 비경험 청소년 12명을 각각 구분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꽃제비 경험이 없는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적응과정과 관련하여 530개의 개념, 181개의 하위범주, 3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꽃제비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적응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128개의 개념, 61개의 하위범주,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극심한 배고픔 등의 생활고를 경험하였으며 식량난 및 생활고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어 가족기능이 상실되고 보호 체계가 무너진 가족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교육환경은 허울뿐인 무상 의무 환경으로 반은 학생·반은 노동자로 학교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북한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근근이 버둥거리며 버티는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보다는 견뎌내고 버텨낸 삶, 숨 쉬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는 삶,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삶, 세뇌교육에 의한 사유가 정지된 삶, 부모와 가족울타리의 빈약함 속에서 심신이 고단한 삶이라고 회고하였다. 또한,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다 잊고 싶은 과거라고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20대 초반 탈북청소년들의 탈북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참여자들의 탈북 동기는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권유 및 조력에 의한 탈북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자발적으로 탈북해서 남한에까지 오게 된 경우, 북한에서

부터 한국행을 생각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적 무난하게 탈북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목숨을 건 탈출이었고 이방 땅인 중국에서 표류하는 혹독한 삶을 경험하였으며,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의 꼬임 및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자도 6명으로 탈북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이들의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20대 초반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생활은 상당수가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대학생으로 생활하거나 현실적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움의 연속이고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탈북과 함께 꼬여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20대 초반 탈북청소년들의 자기성찰과 미래 설계는 무의미한 북한 생활 경험과 의미 있는 정신력과 내적 에너지가 교차하는 가운데 있다. 한국에서의 삶을 비교적 만족스럽게 인식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황적 선택 및 다른 대안이 없는 일방적 인생살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탈북 이후 분주한 삶에 대한 공허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노력 중, 극복 중, 도전 중, 학업 중, 고민 중, 탐색 중, 선택 중, 성장 중인 삶이며 목표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삶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성을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의식을 가지고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탈북청소년만이 가진 레질리언스와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지원, 가족적 차원의 상처회복과 가족관계성 증진을 위한 지원(가족치료 지원), 심리정서적인 외로움 극복을 위한 지원, 4) 성인기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결혼과 가정관형성을 위한 지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학업중심의 진로설계 이외에 다양한 진로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대안학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무연고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의 재정비 필요 등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약 26,5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전체의 28%를 차지하는 20대(7,133명)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로 이들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가는 통일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많은 집단이다. 이러한 기대가 많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남한 생활적응은 그리 쉽지 않다. 이들은 주거 불안정, 학업중단 및 진학포기, 취업 불안정, 사건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대 전체는 7,133명으로 단순히 세분하면 각 나이별로 700명 정도이며 20대 초반은 약3,600여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20대 초반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살아가는데 북한이탈 20대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전체(26,500여명) 중에서 대학 재학생은 약 1,500여명(사이버대학 포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20대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20대 모집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20대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20대 초반 북한이탈주민은 영유아기를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보낸 사람들로 절대적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매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신체적·심리적·교육적·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20대 초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며, 그 때 당시는 북한의 교육이 무너졌던 시기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의 아사 및 가족해체를 경험하여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부모와 충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감정표현의 어려움, 분노조절의 어려움, 상황판단 능력 부족,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 집단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을 갖고 있다.

20대 초반의 북한이탈주민은 인적 자본도 사회적 자본도 불충분한 상태로 살아

1) 2013년도 6월말 기준으로 10대가 3,351명, 20대가 7,113명, 30대가 3,809명, 50대가 1,228명, 60대가 1,065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임 (통일부 자료, 2013).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및 적응실태에 대해서 진행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한편,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대학의 특례입학과 학비지원 정도로 매우 미미하며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남은 거주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장려금(취업,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관련)은 이들이 학업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취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장려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 설계의 내용에 의거한다면 이 연령대는 대학재학자인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가 아닌 경우 정착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은 20대 초반 탈북청소년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현재의 삶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의 삶(고난의 행군시기 등)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통일주역이 될 수 있는 20대들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동시에 강점을 찾아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분석은 탈북청소년들과 관련된 교육지원 제도, 거주 정착지원 및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교육지원 제도 현황²⁾

1)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활동교육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5> (검색일 2014. 4)

이 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학력인정 절차가 이원화된 것은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북한에서의 수학기간만이 아니라 연령·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진학 지원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 진학이 가능한 사람은 만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자이다. 이 기간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이루어진다(국공립대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 50% 보조).

3) 학비지원

전문대학, 시설, 기관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학비가 지원된다. 학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은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다.

4) 공교육, 민간교육을 통한 교육지원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여 총 입국 인원 중 10대 청소년은 13%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그룹홈 등)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 지원하고 있다.

상기에 제시된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하나원 생활기간 동안 탈북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지원을 위하여 하나원 내에 ‘하나들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교육부와 여성부가 협력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학력을 확인하고 선행학습을 실시하며 하나원 퇴소 이후에 학교 편입학과 관련된 사전 준비를 위한 지원을 한다. 또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

내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세밀한 영역에서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멘토링 지원활동, 장학금지원, 통일시대 리더로 육성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 영어학습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제도는 하나원에서의 초기교육 지원, 지역사회 전입 이후 학교진학과정에 필요한 지원,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및 보충교육시설 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거주지 정착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거주지 정착지원 제도는 하나원 퇴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이다. 먼저 하나원 퇴소 후 각 사례별로 지역적응을 위한 전반적 도움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31개 지역에 분포된 ‘하나센터’와 100여개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다.

또한, 경찰서의 형사를 신변보호담당관, 지자체의 공무원을 거주지보호담당관, 전국의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상담사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별칭, 남북하나재단)’을 설치하여 전국 단위의 포괄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하고 있다. 이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는데, 전문상담사를 전국의 하나센터에 파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중심의 취업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민교류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에서는 전입초기 특례를 적용하여 6개월간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건강 취약성을 고려하여 의료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하나센터에서는 정착도우미라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초기 전입과정 및 정착 6개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잘 적응하도록 일상생활 및 초기정착 생활을 돕고 있다. 생활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지원하고 전세비로 사용될 수 있는 주거

지원금도 지급한다.

거주 정착지원제도는 탈북청소년들에게도 대부분 적용되며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다.

3. 취업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는 장려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증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및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등의 현금성 지원과 직업훈련 무상지원, 고용지원센터와 하나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도 축적하게 한다. 즉, 취업지원제도는 이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정착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지원제도 중 탈북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는 자격증 취득관련 장려금,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직종에 취업하였을 때 지원받는 취업 장려금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취업 등의 경제활동보다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므로 남한 정착 후 5년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제도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

제2절 고난의 행군시기 관련 선행연구 분석

북한은 1995-1997년을 고난의 행군시대, 19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로 명명하고 북한 주민들의 단합을 이끌고자 하였다. 북한에 있어 1990년대는 부족의 경제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였으며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변화가 컸으며 그 후 ‘유혼통치’가 시작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체제가 전반적으로 이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아사를 북한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식량배급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국민들에게 갑자기 삶의 바탕이자 생계유지 수단인 식량배급이 중단되면서 큰 아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주민들은 국가의 불안정한 식량배급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장마당이라는 생활공간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기억이 개인별로 상당히 상이한데, 이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풍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곡창지대는 군량미를 공급하느라 오히려 더 굶주리는 상황이었으며, 북한에서 오지라고 하는 양강도나 함경북도의 탄광지역은 비교적 양호하였다.

이기동(2011)은 고난의 행군 세대의 의식과 체제변화라는 주제로 북한의 새 세대, 특히 고난의 행군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기동의 연구는 북한사회를 떠받치는 주축세대로 성장한 이들의 공식적 가치지향과 괴리가 있는 세대의식 및 체제변화 추동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5년간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 체제변화 추동요인은 첫째, 정치의식 변화에 따른 공식적 가치지향과의 괴리감으로 당, 국가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나빠졌으며 북한당국의 대표적 공식적 가치지향인 집단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으면서 가족과의 사별이나 이별을 통해 인민을 위한 삶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에 더 큰 의의를 두게 되었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당의 가치에 따라 살다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배급주의 사고가 지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둘째, 체제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감소하였고 군사력 약화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리라는 생각을 기성세대들에 비해 덜 하며 생존을 위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증가하였다. 셋째, 생존공간으로 인식하였던 시장을 젊은이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장으로 인식하였고, 남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자본주의 문화는 문화적 코드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차문석(2005)은 ‘고난의 행군’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으며 북한 경제가 구조적 전환이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공장 및 기업소 등에서의 노동활동으로 공적 사적 삶들을 꾸려 나갔던 노동사회를 변화시켰으며 교환 가치 지향적인 인간들을 양산해 냈고 이는 배급제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공장이 제 기능을 정지함에 따라 노동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임혜정(2011)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함북출신의 40-50대 여성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 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었으며 친척과의 관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을 만큼 별도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정서적 관계가 중심적이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가죽주의’양상을 보였으며 친척들과의 관계도 끊거나 선택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북한 사회의 기존 계층구조가 일정 정도 재구성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강미정(2014)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험담에 나타난 트라우마를 분석하였다. 평범한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떤 기질이 버팀목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버팀목이 되었던 기질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는 도리어 외상을 기반으로 한 트라우마로 응어리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과거의 불편한 재현이 아니라 현실의 새로운 안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3절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관련 선행연구 분석

탈북청소년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매우 다양하므로 먼저 총론을 논의하고 이후, 본 연구와 관련된 대학생, 무연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1.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경향 분석

2000년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이 연구들은 사회·문화 적응, 심리·정서 적응과 정체성 관련 연구 및 학교생활과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시기이다 보니 학교 및 학업 적응(권나혜, 2006; 김미숙, 2004; 김유정, 2009; 박운숙, 2006; 박정희, 2007; 유가호 외, 2004; 이기영, 2000; 이수연, 2007; 이수정, 2005; 조영아 외, 2004)이었다. 북한이탈청소년은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탈북 후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생활로 인해 순조로운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이들 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후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가장 기대하며 학교에 다니면서 진학과 학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2009).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탈북과정에서 오는 학업 공백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부족, 남북한 교육체계 및 교육 내용의 상이성으로 인한 학력격차, 쓸모없게 된 북한의 학습내용, 상급과정 진학 시 진로지도의 문제, 말이나 또래 문화의 이질감, 학제의 차이로 인한 학력인정의 문제 및 학령과 학년의 차이로 인한 위축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길은배 외, 2003; 문성호, 2005; 박운숙 외, 2007; 윤여상,

2003; 이기영, 2002; 이수연, 2008; 이향규 외, 2011; 한만길, 2009).

특히, 탈북청소년이 하루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인지능력과 정서적 인격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학교이기에 학교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적응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은 대개 학교적응의 장애요인과 보호요인 분석(이기영, 2002; 이수연, 2008), 적응과정의 통합적인 고찰(장문강, 2008; 이향규 외, 2011) 및 적응실태파악(한만길 외, 2011)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생활과 학교적응 관련한 연구들 중 일부는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학교경험 부족, 학력결손이 남한사회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정병호, 2004), 공교육 적응이 어려워 휴학, 입시학원 등록, 대안학교 입학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시도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적 일탈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배임호 외, 2010; 정진웅, 2004).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와 특성의 일부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탈북청소년의 삶을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관점으로 나누어 남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삶의 주체로서의 이들의 선택과 적응 경험을 간과하였다(김경준 외, 2008; 박철옥 외 2009; 허은영 외, 2007). 더 나아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입학의 동기로 한국의 학력중시 풍토와 학연을 맺을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분석되었다(조영아 외, 2004). 생소한 사회에 이주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학진학 및 진로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고 제대로 진학 지도도 받지 못해 대학 입학 시 진로설정이 모호해졌다(이기영, 2002).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학업과 정보습득 시 능력의 한계, 인간관계의 어려움,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의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학업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해야하는 어려움, 미래와 취업에 대한 걱정 및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박정희, 2007; 이수연, 2008; 이혜경, 2003).

이상의 연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여러 부적응 문제를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들이 학교와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부적응 문제라고 보았으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문화적, 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거시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수정, 2005)도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관한 연구로 남한 사회 적응 실태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길은배 외, 2003; 이기영, 2002; 홍순혜 외, 2003), 문화심리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금명자 외, 2004; 정향진, 2005) 등이 있다. 김명선 등(2013)은 북한이탈청소년이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이유를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와 감정표현에 대한 차이로 보고하였다.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는 이들 청소년이 남한 문화를 동경하면서 문화에 편입하고자 노력하지만 번번이 문화적 충격과 이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남한 문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려고 하나 남한 문화가 자기들의 문화와 이질적이고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한의 개인주의적인 문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어색함으로 남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못 느끼고, 이방인으로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안혜영, 2000; 엄경남, 2001; 이소래, 1997; 한만길, 1999).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는 성역할에 관한 것으로 이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가족문제, 생활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길은배 외, 2003; 이향규, 2007).

또한 남북한 사람들의 가치체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 하에 자유, 경쟁, 사유재산, 자아실현, 사생활 보호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가 하면 북한은 공산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하에 평등, 협동, 공유, 집단이기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정진경 외, 2004). 교육면에서도 남한 교육이 자유롭고 개방적인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며 입시위주의 경쟁적 분위기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의 대중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다(김명선외, 2013). 임춘희(2009)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대학 생활 중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남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고독감, 동료의 부재, 음식습관차이, 남한사회에 대한 실망, 기후, 한국어 능력부족 등을 보고하였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각오를 다진 성인보다 대개의 탈북 청소년은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므로 문화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이 더 큼을 보고하고 있다(유가효 외, 2004).

세 번 째는 심리정서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겪게 되는 탈북 청소년의 외상 경험은 성인 탈북자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심하다. 이러한 충격은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박철옥 외, 2009), 심리 및 정서 적응(금명자 외 2004; 길은배 외, 2003; 김종국 2008;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기영(2002)은 탈북청소년의 부적응을 심리·정서적 부적응, 학업 부적응, 사회문화 부적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심리·정서적 부적응 요인으로는 신체적 왜소함에서 오는 위축감과 열등감, 탈북과정에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탈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꺼리는 데서 오는 예민함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 같은 반 동료보다 나이가 많은데서 오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감, 남한청소년 혹은 남한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학업 부적응 요인으로는 성적 부진,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사회문화 부적응 요인으로는 진학 및 진로설정에 대한 비구체성,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형태(2004)는 탈북청소년의 심리 적응 평가를 위해 위축, 우울, 불안, 사회적응 평가를 위해서는 비행과 공격성을 분석하였는데,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 사회적 영역 모두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생활적응으로 나누어 살펴 본 홍덕기(2001)는 학교생활적응에서는 교육제도와 학습에 있어서의 적응을, 사회생활적응에서는 문화생활과 대인관계, 언어 등에 있어서의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홍순혜 외(2003)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청소년과 상당히 이질적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탈북청소년이 오히려 남한의 일반청소년보다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한만길 외(2009)가 북한이탈 청소년 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보통수준 이상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 즉,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남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유사하므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개입이나 특별한 도움이 고려되지 않아도 됨을 시사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병호 외(2006)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어 일반학교에 편입한 후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남한이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길은배 외, 2003; 문성호, 2005)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남한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을 감추어야 하는데서 오는 긴장감과 함께 학교를 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진경 외, 2004).

2. 탈북대학생 적응 관련 선행연구 분석

탈북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학교적응, 사회·문화·심리 적응 및 정체성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로 김태동(2009)은 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하고 있는 탈북대학생 178명에 대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문화 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매개변수로서 가족기능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 기능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지 않고, 가족기능과 대학생활적응을 회귀 분석한 결과 가족기능은 분명히 탈북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의 매개변수로 사회지원망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유시은 외(2013)의 연구는 남한의 대학교 상황에서 남한대학생과 탈북대학생의 일반적인 중도탈락 요인과 탈북대학생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요인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재학 경험이 있는 탈북대학생 132명에 대해 설문조사와 중도탈락한 대학생 15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탈북대학생의 중도 탈락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남한입국에서 대학 중도탈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는데 고유 요인으로는 탈북기간, 남한 내 부모(수), 북한 최종학력, 북한 학업 집중도, 탈북 정체성, 탈북 친구 지지, 학교의 탈북자 지원, 가족생활비 송금 및 가족친척 탈북비용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성질환수준과 남한 내 부모(수)는 중도탈락수준에 정적 영향을, 전공만족도와 가족 및 친척 탈북비용 부담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문화·심리 적응에 관한 연구로 이채영 외(2014)는 재학 중인 탈북 대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가 우울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우울증상 수준은 유력 우울증상 수준보다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울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레질리언스는 탈북 대학생의 우울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는데, 자신의 내·외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레질리언스 자체가 우울증상의 경험 가능성을 낮추는 자원으로 기능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한편, 허성호 외(2013)는 탈북대학생의 복합외상후스트레스장애(C-PTSD)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살이나 대인관계, 갈등해결방법, 삶의 의미에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북한이나 제3국에 체류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부는 C-PTSD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였다. 윤지혜 외(2010)도 외상 이후 성장(PTG) 체험연구를 통해 마음의 상흔을 이들 스스로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등과 같은 치료적 접근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대학생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 유은정 외(2010)는 연구도구로 심층면담, 그림, 설문지 등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이들이 피하는 질문일 경우에는 이들을 잘 알고 있는 교사, 친구, 자서전, 그림 등의 간접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애사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학습자 정체성 유형(미래지향형, 현재 만족형, 과거 성찰형)이 어떠한지 가족의 영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이들은 과거,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희망을 꿈꾸며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함을 이들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정체성과 변화과정을 알아본 최대석 외(2010)는 탈북대학생들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항상 ‘탈북자’라는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탈북대학생이 탈북과정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남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 및 막연한 희망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소연(2010)은 내러티브탐구방법으로 탈북대학생 3명을 연구하였는데 탈북대학생의 커밍아웃을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속적 과정으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남한사회 편견에 맞서서 사회로 나오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시작’으로 의미부여를 하였다.

3. 무연고 탈북청소년 적응 관련 선행연구 분석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극소수로 신현옥 외(2011)는 국내에 정착한지 1년 이상 된 무연고탈북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무연고탈북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현황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를 더욱 더 발전시켜 최경자 외(2011)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실태와 학교적응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을 위한 기숙형 학교와 쉼터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명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이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 경비병의 검열로 몹시 긴장(26.1%)했고, 식량 부족이나 심한 추위 등으로 생명의 위협(21.7%)을 느꼈다. 그로 인하여 이들 중 36.4%가 중국 등지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었고, 무서워서 은둔 생활을 한 경우가 22.7%였다. 특히 육체적 성장이 왕성한 나이에 영양 섭취가 되지 않아 이들의 신체적 열악함은 심각한 수준인데 남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평균 신장이 160.5cm, 평균 몸무게 54.7kg으로 나타났다.

한명자(2012)는 남한에 입국한 지 3년 이상 된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의미를 근거이론을 적용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탈북과 남한 입국의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없어졌으나 남한 입국 후 다양한 사회연결망에 노출되기도 하고, 스스로 그 연결망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연결망을 만들었는데, 그 중 그룹홈을 중심으로 한 지지체계가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구성됨을 보여주었다.

김현아 외(2012)는 1년 동안 무연고 탈북청소년과 함께 그룹홈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무연고 탈북청소년과 그룹홈에 함께 거주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기술한 것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관계경험이 부족하여 그룹홈 종사자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였고 그룹홈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종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차 서로 친밀해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제4절 해외 사례 분석

해외문헌연구는 난민(이주)청소년과 가족 동반 혹은 단독 이주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 대상으로는 미국에 온 난민(캄보디아, 베트남, 수단 출신), 코소보 난민, 소말리아 난민, 호주로 온 이민자 및 난민(수단인, 소말리아,

미얀마, 아프칸 출신), 핀란드로 온 난민(소말리아, 에티오피아, 태국) 및 캐나다로 온 난민(아프칸 출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문헌 연구의 주제로는 독립변수로서 가난, 트라우마(전쟁, 기근), 가족해체경험 및 재결합 경험, 가족동반 이주 및 현재 가족과 동거 여부, 상실경험 및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는 트라우마, 탄력성, 극복경험, 자아정체성 등을 살펴보았다.

Halco'n et al(2004)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주한 소말리아인과 오로모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정도와 현재 이민자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들의 대응방법을 조사 및 기술하고 탄력성에 인류학적 요인(민족, 성별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트라우마·고문의 경험 정도와 정신적·심리적·신체적 문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고 이는 청소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Goodman(2004)는 어린 난민들이 어떻게 엄청난 트라우마와 어려움에 대응하는지와 그들의 건강 증진 및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로 수단 덩카족 남자 청소년 14명이 연구대상이었다. 연구결과 이들의 대응 전략은 첫째, 공동체성(Collectivity and the Communal Self)으로 언어적 표현을 할 때도 '나', '나의' 보다 '우리' 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은 다른 수단 난민들과 서로 격려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만 겪는 일이 아님을 상기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이런 연대가 미국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트라우마를 억누르려는 노력이다(Suppression and Distraction). 트라우마적 기억들을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고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해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였다. 셋째,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경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이 생존하게 된 것은 신의 뜻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 믿고 있으며 신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절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대상자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Hopelessness)에서 희망(Hope)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였다. 특별히 난민촌 생활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절망감이 만연했으며 실제 그들의 동료 중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 와중에 대상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적으로 품고 이야기했다. 미국에 와서도 교육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었다.

Tammy Bean et al.(2007)은 가족과의 동행 유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행동장애, 그리고 트라우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대상은 실험군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홀로 이민 온 12세에서 18세 사이의 920명의 이민자이며, 대조군은 이민자 집단과 비이민자 집단이었다. 연구결과 홀로 이민 온

청소년들이 더 많은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하고 더 심한 정신·심리적 장애를 호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Sourander(1998)은 가족 없이 홀로 이민 온 청소년들, 특히 심한 폭력 및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및 장애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민 전, 그리고 이민 과정 중 난민센터 생활에서 대상자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핀란드로 이민 온 핀란드 난민 캠프의 46명 청소년 이민자들이었으며 연구결과, 어린 나이의 대상자가 더 심한 행동장애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정서적 고충 및 문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정신·심리적 서비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홀로 된 어린이의 행동 장애는 PTSD, 불안감, 우울증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홀로 이민 온 청소년들의 경험은 공동체의 해체 및 붕괴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과 헬스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Wilmsen(2013)는 호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분리(Separation)와 재결합이 난민 개인의 행복 (well-being)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족이라는 요소가 이민자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트라우마와 가족 해체가 정서적 장애를 유발한다는 Rousseau(2001)의 연구 및 가족에 대한 염려가 우울증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Nickerson (2010)의 연구 등 기존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분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불면증, 악몽, 복통, 호흡곤란 등 각종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정신·신체간의 긴밀한 연결과 관련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결과 취업이 대상자들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이며, 단순히 이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족 부양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가족 해체 및 분리가 이민자들을 취업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는 가족에 대한 염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취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가족과의 분리가 단지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 및 재정적 부담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 분리’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Julia Huemer et al.(2013)는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한 개인 내면의 방어기제(억압 등)가 대상자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로 내면의 방어기제 외에

개인적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호주에 거주하는 15세에서 18세(평균 16.95세)의 아프리카 청소년 이민자들이다. 남자 35명, 여자 6명이며 가족없이 지내는 청소년이 대상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WAI(와인버거적응검사-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정서적 적응도를 평가하는 척도) 측정 결과 대상자들은 해당 나이대의 기준수치에 비해 높은 억압적 방어, 고통의 부인, 통제 수치를 보였으며, 화의 억압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값과 차이를 나타냈다. 억압적 통제 수치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또한 예상 외로 고통(Distress)과 우울증(Depression) 수치가 그 뒤를 이어 높게 측정되었다. 행복도와 자존감 또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둘째, YSR(청소년 자가보고서-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병증을 측정하는 척도) 수치는 해당 나이대의 기준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 측정된 병증들 중에서 신체적 호소와 불안감, 우울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높은 WAI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신병적 증상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과거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대상자들은 높은 불안감, 우울증 수치 및 낮은 행복도와 자존감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상자들의 탄력성이 진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으로는 대상자들의 낮은 YSR 수치는 억압적인 태도와 고통을 회피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지적인 억압과 회피가 정신적, 심리적 및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가 각종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수준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대상자들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설명이다. 즉 낮은 YSR 수치는 대상자들의 회복 및 탄력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천천히 트라우마 이전의 상태로 회복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들이 현재 이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안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각종 인터뷰 및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트라우마·고문의 경험 정도와 정신적·심리적·신체적 문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Halco'n et al, 2004), 홀로 이민 온 청소년들이 더 많은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하고 더 심한 정신·심리적 장애를 호소한다는 결과(Tammy Bean et al., 2007), 가족 없이 홀로 이민 온 청소년들 중 나이가 어릴수록 정서적 고충 및 문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의 대상자가 더 심한 행동장애를 보인다는 연구(Sourander,1998), Wilmsen(2013)의 호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분리(Separation)와 재결합이 난민 개인의 행복 (well-being)과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Julia Huemer et al.(2013)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경험한 개인 내면의 방어기제(억압 등)가 대상자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하고 탈북한 20대 탈북청소년들의 경험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참여자 선정

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는 북한에서 생활하던 시절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났거나 영유아기를 보낸 현재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로 한정하였다. 출생연도로는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이 약 15년 이상으로 성장기 및 학령기를 보냈으며, 남한에서 생활경험이 최소 2년 이상이어서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성찰적 인식이 있는 탈북청소년들로 연구참여자를 제한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과 모집

연구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Corbin and Strauss, 2008). 1차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민간기관들의 실무자들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탈북청소년들을 추천을 받았다. 추천된 탈북청소년들은 현재 그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과거 이용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민간기관의 실무자들에게 특정 조건(남한에서 잘 적응하는 탈북청소년 혹은 부적응 청소년 등)에 대해서 배제하고 그 기관을 이용하나 혹은 그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면 추천해 줄 것은 부탁하였다. 또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탈북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탈북청소년을 소개하면 적합한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특정지역이나 특정조건 대상자가 표집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로 현재 남한에서 다양한 생활경험 및 진로경험을 가진 자들로 선정하였다.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인터뷰 참여를 안내할 때도 1차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후 연구참여를 결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서면으로 된 연구 설명서와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하게 될 질문내용을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로부터 자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연구진행 과정, 연구 결과 활용 및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 제공, 필사를 위한 녹음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참여를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인터뷰 과정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동시에 인터뷰 도중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인터뷰가 시작되었어도 언제라도 중단(거부)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인터뷰 장소도 조용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자료수집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도구로 참여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와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 이전에 연구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질문지를 제시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도구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자 직접 현장(인터뷰)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립하는 것으로 양적 연구처럼 중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자가 가장 1차적인 연구 도구이며 자료수집 방법이 된다(김영천, 2006). 이러한 질적 연구의 특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지난 20년 동안 지역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을 경험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14년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 전반을 직접 돕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충분하며 관련된

정책자문, 연구 등을 통해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한 경험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각종 문헌 및 연구보고서에서 볼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1:1로 진행되었으며 약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참여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전 및 당일에 배포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뷰 전에 전화통화를 하여 본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재북(在北) 시절, 탈북과정, 남한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축적된 기본정보 및 삶의 맥락을 본 연구자가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인터뷰 진행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인터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삶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고난의 행군시기를 살아온 연구참여자들의 성장과정에서의 일상적인 경험 및 가족내에서의 경험들을 질문하였으며 이 과정을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의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의 의식주 및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질문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부모와 가족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가족관계 및 가족분위기, 자녀 부양을 위한 부모의 역할, 부모의 부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도 질문하였다.

둘째, 탈북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탈북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경로, 조력자, 동반자, 비용, 체류국가에서의 어려움과 생활환경 등)과 탈북과정에서의 경험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한입국이후에 남한에서의 생활경험 및 적응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초기정착과정 및 학업내용,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실태와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내용 (심층인터뷰 내용)

1) 북한에서의 삶	
<북한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 학교생활 및 또래 친구관계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이웃, 동네 분위기 상황) - 식생활 및 건강상태 및 의료경험	<인식> 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 이 시기를 견디게 한 요인 이 시기에 대한 성찰
<북한에서의 가정생활 경험> 부모 형제의 생존 및 해체경험 여부 가족의 기능(부도역할)이 정도 부모와 관계에 대한 기억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 현재의 관계는? - 가족문화 및 분위기	<인식> 가족에 대한 힘든 기억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 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
2) 탈북과정 및 경험	
- 탈북과정(시기, 동행자, 경로, 비용, 조력자, 어려움) - 제3국 체류기간 동안의 경험(중국) - 제3국(태국 등)에서의 경험	<인식>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 과정을 견디게 해준 요인 이 시기의 경험에 대한 성찰내용
3) 남한생활 및 적응 경험	
-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경험과 어려운 점 - 정착지원제도 및 기관 이용현황 - 사회적 관계망 및 대인관계 형성 경험 - 학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험 -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 (가족구성, 학업여부, 경제활동여부, 사회적 관계망)	<인식> 남한 청년들과 유사점과 차이점 자신의 강점과 약점 현재 모습에 대한 평가 현재 삶에 대한 만족정도 미래를 설계 및 장래 꿈

제3절 자료 분석방법

질적연구의 특성은 자료수집 뿐 아니라 자료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조되는데, 이는 양적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 분석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연구자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깊게 읽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추론해 가는 과정에서 핵심 주제와 숨겨진 이해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를 자료수집과 분석의 도구로 칭한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을 기록한 현장노트(Field note)와 녹음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인터뷰 이후 즉시 전사(transcription)하고 녹취파일, 전사한 녹취록, 현장

노트 등을 바탕으로 연구 질문에 따라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심층인터뷰 필사본을 바탕으로 정리할 때, 주요 질문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방법으로 Strauss and Corbin(1988)이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은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절차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납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행위가 형성되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개방코딩은 근거이론에 의한 자료 분석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필사본을 바탕으로 개방코딩을 하여 구술자료에서 개념을 확보하고 개념들을 묶어서 하위범주를 만들고 하위범주를 묶어서 범주를 만들어 분석한다.

축코딩은 개방코딩 이후의 코딩과정으로 개방코딩 과정에서 발견한 범주 중 중심현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A) 무엇이 이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가, (B) 이 현상에 반응하기 위해 행위자가 선택한 전략이나 행동은 무엇인가, (C) 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구체적)이고 중재적인(폭넓은 맥락) 조건은 무엇인가, (D) 이 전략들의 결과로 나타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과정은 정보의 범주들을 중심 현상 범주에 관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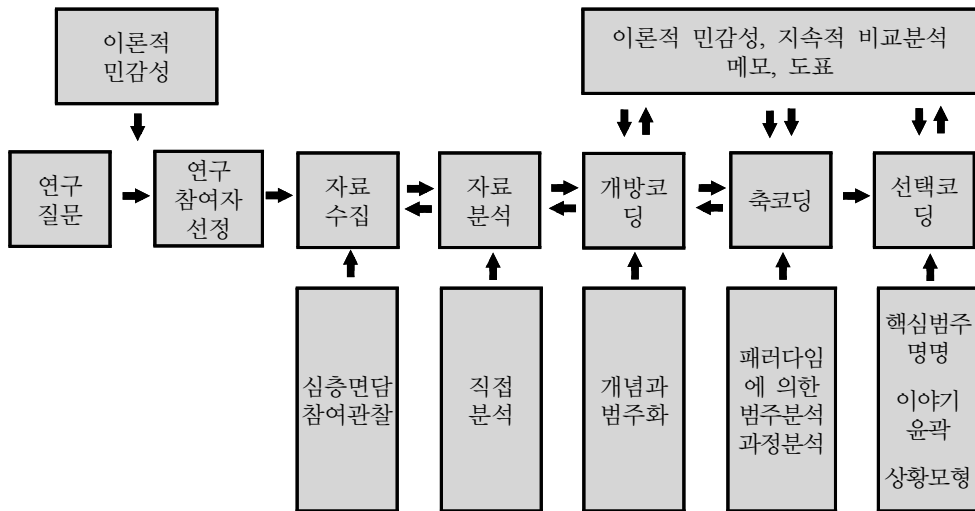
또한, 패러다임 모형은 이러한 축코딩의 내용을 행위 흐름의 과정에 따라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⁴⁾.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Strauss and Corbin(1988)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으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의 범주인 “인과적 조건”과 전략이 발생하는 특정 조건들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작용·상호작용에 밀접한 것으로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중심범주로 구성된 “현상”, 중심현

3)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John W. Creswell,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서울:학지사. p.282.

4) 앞의 책. p.284.

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협소하고 광범위한 조건들이라 할 수 있는 “중재적 조건” 및 중심현상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결과”를 단계별로 모형화한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정리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⁵⁾

제4절 질적 연구의 윤리적 엄격성

모든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이슈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질적 연구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친밀함 및 역동성이 강하면서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적연구와는 달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에서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이다(Punch, 1994; Dedorah, 1998; 유태균 역, 2001:73 재인용).

또한,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연구자의 가치개입이 일어나기 쉽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혹은 선행연구의 내용과 부합되는 즉, ‘끼워 맞추기 식’ 해석을 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다양한 왜곡

5) 이근희(2014:41)에서 재인용 - Cobin, J and Struss. A.,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3s SAGE Publication. 2008.

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자료수집 전단계, 자료수집단계, 자료분석단계에서 나타난다(서홍란, 2010). 자료수집 전단계에서의 문제는 사전고지 및 동의·낙취허용, 익명성과 비밀보장, 자료활용 허용 등에 관한 것이다.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자발적 철회의 허용, 면접으로 인해 정보제공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 자아의식을 형성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자료수집 후에도 정보제공자가 못다 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 연구자는 이미 면접목적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경청해 줌으로써 정보제공자가 ‘연구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낙취된 자료의 정확성 확인 등에 관한 것이다(김선화, 2011:8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를 준수 및 연구참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료수집 전단계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연구 및 연구과정에 대한 이해,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자 소개(연락처 포함), 연구개요, 연구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연구절차에 따른 면접횟수, 연구기간 등),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례, 연구참여자에게 부여되는 잠정적 위험과 그에 대한 지원방법, 연구참여의 자발성 및 연구참여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 내용(유태균 역, 2001)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단계 및 자료수집 후에도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 불편함 없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연구참여자가 연구참여 중지를 희망할 경우 연구참여 종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김선화, 2011:81). 그러나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인터뷰 과정 중에 연구참여 종결을 희망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자의 장기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연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듯 한 인식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궁극적으로 연구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험과 관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심층인터뷰 이후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활발하게 인터뷰에 임해주었다.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참여자 특성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이러한 조건을 갖춘 탈북청소년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연구참여자로서 참여하기를 동의한 탈북청소년 15명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현황⁶⁾

참여자	성별	고향	탈북 년도	입국 년도	재북 교육경험	남한 교육경험	현재직업 (학업 등)
1	남	평남	2000	2007	중학교 중퇴	일반고졸	대학생 3학년
2	남	양강도	2010	2011 (직행 ⁷⁾)	중학교 중퇴	일반고졸	대학생 1학년
3	남	양강도	2009	2010 (직행)	중학교 졸업	없음	대학생 2학년
4	남	함남	2010	2011 (직행)	무학	중졸검정고시 대안학교졸업	대학생 1학년
5	여	함북	2009	2010	소학교 중퇴	중졸검정고시 대안학교졸업	대학생 2학년
6	여	함북	2010	2010 (직행)	중학교중퇴	고졸검정고시 (대안학교)	대학생 2학년
7	여	함북	2009	2009 (직행)	소학교 중퇴	중졸검정고시 대안학교졸업	대학생 2학년
8	여	함북	2008	2009 (직행)	소학교 중퇴	대안학교 졸업	대학생 2학년
9	여	함북	2008	2009 (직행)	소학교 중퇴	중졸검정고시 대안학교졸업	대학생 2학년
10	여	함북	2011	2011 (직행)	중학교 졸업	없음	아르바이트
11	남	양강도	2010	2010 (직행)	무학	중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회사원
12	여	함북	2011	2011 (직행)	중학교졸업	없음	회사원
13	남	양강도	2011	2011 (직행)	무학	중졸검정고시 대안학교재학	대안학교 졸업반 취업예정
14	남	양강도	2011	2011 (직행)	무학	중졸검정고시 (대안학교)	회사원
15	여	함북	2009	2010	중학교중퇴	일반고졸 (그룹홈)	대학생 1학년

연구참여자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냈고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 태어났으며 여성이 8명 남성이 7명이었다. 대부분이 탈북이후 직행형태로 남한에 입국하였으며 1명은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였고 3명이 1년 정도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으며, 11명은 북한에서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바른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이 무학인 경우가 4명이었고 소학교 중퇴자 4명, 중학교 중퇴자 4명, 중학교 졸업자 3명이었다. 남한에서의 교육경험은 일반고등학교 졸업자가 3명이었고 남한학력이 없는 경우는 3명이었고 대부분이 중졸검정고시와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자였다. 일부의 경우 대안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취득하였다. 15명중 10명이 대학 재학 중이며 1명이 대안학교 재학 중(취업예정)이었고, 4명이 취업 중이었다.

2.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 분석

연구참여자 15명중 가족동반 탈북은 5명이고 나머지 10명은 단독 탈북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기숙형 대안학교 및 국립디딤돌 학교를 통해 남한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과 남한에서 가족이산을 경험하고 있는데, 현재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4명에 불과하였고 여전히 북한에만 가족이 있는 경우가 6명이며, 남한에 가족이 있으나 부모재혼 및 취업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도 4명이었다. 그리고 1명은 남한과 북한에 직계가족은 없으며 본인이 결혼을 하여 가족의 형태로 사는 경우가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겪었던 생활고로 인해서 연구참여자들의 가정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는데, 북한에서 심각한 가족불화 및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례가 6명이며, 북한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도 6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때 엄마와 함께 생활한 경우는 7명에 불과했고 엄마가 중국으로 떠난 경우 4명, 엄마가 가출한 경우 1명, 엄마가 없는 경우가 3명으로 주양육자일 수 있는 엄마가 부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15명중 3명은 부모가 이혼한 후 버려졌거나 눈치밥을 먹는 생활 속에서

-
- 6) 연구참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별 고향, 세부진공명, 출생연도는 표기하지 않았으며, <표 2>에서 연구참여자의 주요특성 분석에서 연령(출생년도)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7) 중국체류기간 없이 직행의 형태로 한국에 왔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태국을 통해서 남한에 입국과정이 길기 때문에 탈북년도와 입국년도가 다른 경우들이 있다.

집을 나왔거나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망으로 꽃제비가 되어 혹독한 꽃제비 생활을 하였다. 1명은 엄마가 중국으로 떠난 뒤 생활고로 인해 아빠와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탈북 이후 고아 및 꽃제비들이 생활하는 보육원(학원)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생활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나거나 영유아기를 보낸 연구참여자들 중 3명은 심각한 굶주림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12명은 굶주림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으며 제대로 학교생활도 할 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심각한 어려움이 없었던 3명의 경우도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가정환경이 불안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탈북의 동기는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권유 및 조력에 의한 탈북이 5명이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자발적으로 탈북하여 남한에까지 오게 된 경우가 6명이었으나 북한에서부터 한국행을 생각한 경우는 4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의 꼬임 및 인신매매를 경험한 사람도 6명으로 탈북과정에서 심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주요 특성 분석

항목	내용	빈도	특이사항
성별	여자	8명	
	남자	7명	
연령	1989년생 (25세)	1명	평균연령 21.6세
	1991년생 (23세)	4명	
	1992년생 (22세)	1명	
	1993년생 (21세)	6명	
	1994년생 (20세)	3명	
남한거주기간	6년 (2007년 입국)	1명	
	4년~5년 (2008년~2009년)	3명	
	3년~4년 (2010년~2011년)	11명	
중국체류 경험	장기 체류	1명	
	1년 이내 체류	3명	
	체류 경험 없음(직행)	11명	
재북 교육경험	무학	4명	
	소학교 중퇴	4명	
	중학교 중퇴	4명	
	중학교 졸업자	3명	
			대학재학중 1명 포함

항목	내용	빈도	특이사항
남한 교육경험	일반고등학교 졸업	3명	
	대안학교 졸업	8명	한겨레중고등학교 1명 포함
	검정고시	1명	짧은 대안학교 생활
	없음	3명	
현재 직업	대학교 재학중	10명	
	대안학교 재학 중	1명	졸업예정으로 취업예정
	취업 중	4명	2명-정규직/2명-비정규직
가족탈북여부	가족동반 탈북	5명	
	단독 탈북	10명	
현재 가족동거여부	동거	4명	
	비동거 (가족북한거주)	6명	
	비동거 (가족남한거주)	4명	엄마 재혼 등
	본인 결혼	1명	
부모의 이혼여부	이혼함	6명	별거 1명 포함
	이혼하지 않음	9명	
꽃제비 여부, 보육원생활경험	꽃제비 경험함	3명	
	보육원(학원)생활	1명	
	꽃제비 경험 없음	11명	
엄마의 중국 탈북여부	중국체류 안함	7명	모성결핍 경험자 8명
	중국체류 함	4명	
	엄마없음(꽃제비)	3명	
	엄마가출	1명	
고난의 행군시기 어려움 경험여부	있음	12명	
	없음	3명	
탈북동기	가족합의·권유	5명	남한 가족 초청 포함
	자발적 한국행	4명	
	자발적 중국행	6명	

제2절 개방코딩 : 근거자료의 범주화

근거이론 방법론에 의거하여 연구참여자의 심층 인터뷰 필사본을 바탕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구술자료에서 개념을 확보하고 각 개념을 묶어 하위범주를 만들고 하위범주를 묶어 범주를 만들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15명 중 꽃제비 경험이 있는 탈북청소년 3명과 비경험 청소년 12명으로 구분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1. 일반 사례에 대한 개방코딩(12사례)⁸⁾

꽃제비 경험이 없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의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 남한적응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530개의 개념, 181개의 하위범주, 3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4〉 개방코딩 결과(일반 탈북 청소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생존 엑소더스	목숨을 건 탈출	1-1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탈북 1-46 꽃제비 구호소에서 혹독한 겨울을 펜티만 입고 탈출했으나 잡혔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뇌물을 써서 풀려남 1-51 엄마는 자식을 탈북 시키고 아빠를 구하러 북한에 들어 감 4-20 돼지 한 마리를 훔쳐 팔고 중국 갈 여비를 마련함 5-15 불법 낙태수술로 생계를 유지하던 엄마는 환자가 죽은 후 체포되어 딸을 양육할 여력이 없어 탈북시킴 12-3 탈북과정이 인생에서 최고로 힘든 시기라고 기억함 12-4 탈북 당시에는 몰랐으나 돌아보니, 다시 가려면 못갈 정도로 소름이 돋는 끔찍한 기억임 12-11 탈북 하다가 잡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음
	배고픈 월경	1-12 온가족이 먹을 것을 구하러 국경근처에 갔다가 월경함 5-9 16세 때 엄마가 아침에 사다준 두부를 먹고 브로커를 따라 중국으로 탈북함
	정책실패로 인한 굶주림	2-11 끼니를 굶지 않고 살다가 화폐개혁 시기에는 굶었음 2-12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굶어 죽을 것 같다는 어머니의 판단으로 중국행을 선택해 한국으로 탈북함 4-18 금이나 보석을 캐서 팔려고 했으나, 도중에 화폐개혁이 일어나 거지가 됨
생존 엑소더스	생존방법 자체의 소멸	3-4 배급사회인 북한에서 배급이 중단된 고난의 행군시기는 생존방법이 상실된 시기 3-7 젓먹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도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보고 자랐음
	북한 트라우마	8-32 기억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겪었던 것들은 모조리 기억함

8) 개방코딩의 근거가 되는 각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자료를 각 개념마다 기록하는 것이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의거한 연구결과 기술방법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자료가 매우 많고 그에 따라 개념이 530개가 도출되어 개념을 모두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연구지원기관 및 연구심사자와 논의하여 각 개념들의 구술자료는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해를 돕고자 연구참여자 번호와 각 개념의 번호를 제시하였다(예를들면 사례1의 첫 번째 개념 : 1-1).

범주	하위범주	개념
극한의 생존	희망없는 하루살이의 삶	<p>1-15 꽃제비가 배설물에서 옥수수 알 주워 먹는 것을 목격함</p> <p>1-28 내일의 희망을 접고 하루하루를 단지 바둥바둥 거리며 버텨온 삶</p> <p>1-44 북한으로 송환되어 꽃제비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등으로 뿔뿔히 찢겨진 가족</p> <p>1-54 중국 쉼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형제들이 찢어졌고 이때 헤어진 누나랑은 7년 만에 재회함</p> <p>1-56 살길을 찾지 못한 엄마는 또 다른 중국 홀아비에게 시집을 감</p> <p>1-56 엄마와 또 헤어져 중국 고아 대상의 시설에 끼어들어 가게 됨</p> <p>5-58 교육에서도 꿈을 생각해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먹고살기 바빠서 꿈이 없는 삶을 살았음</p>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	<p>1-10 온가족이 장티프스, 열병에 걸렸지만 병든 몸을 이끌고 식량을 구하러 다님</p> <p>1-27 반에 4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음</p> <p>1-29 나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라는 비경험자의 말은 그저 말치레에 불과함</p> <p>1-30 토크쇼에 참석해서 꿈은 배가 안고프고 여유로워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함</p> <p>1-55 어머니는 자신을 학대하던 동거남이 암에 걸렸으나 장례까지 치러주고 나옴</p> <p>2-13 고난의 행군시기 직후에 태어난 동생은 젖도 못 먹고 영양부족으로 많이 아팠음</p> <p>1-4 고난의 행군시기 탄광부인 아버지가 밀려나서 굶었음</p> <p>1-8 못 먹어서 헛배가 나올 정도로 기아에 허덕임</p> <p>2-4 굶어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연하게 듣고 자람</p> <p>8-1 된장물만 먹으면서 감자 철이 올 때까지 버티며 살아옴</p>
극한의 생존	화전 민으로서의 고립생존	<p>4-16 떠나갔던 엄마가 다시 돌아와 가족이 재결합했지만, 살 곳이 없어 산골 깊은 곳에 가서 개간을 하여 생활함</p> <p>4-15 30호 정도 되는 동네주민들은 다 외지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유입된 경우임</p> <p>4-14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 좋았으나 두더지 같이 원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오지 생활에 실증을 느낌</p>
탈북 디아스포라	자기 땅에서의 유배	<p>1-14 같은 집에 살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의미하는 추방으로 동네에서 사라짐</p> <p>5-10 중국에 대한 호기심과 잘 살 것 같은 마음에 중국으로 떠남</p>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족의 이산	1-16 중국에 오자마자 가족이 이산되어 10년 만에 재회함 1-19 탈북 후 11살 때 3년 동안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고아원에서 살았음 5-17 엄마가 감옥에 간 후 달기병 환자인 오빠는 혼자서 방치된 생활을 함 8-2 새아빠랑 같이 탈북하다가 아빠만 성공하고 엄마랑 둘은 잡혀서 중국으로 간 이모부 집에서 더부살이를 함
	가족의 재이산	1-68 추억 속으로만 가족들이 모여살 때의 행복함을 떠올리면서 지금 온 가족이 흩어져 생활하는 것을 위로함 9-3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는 재혼을 하여 또다시 헤어짐
허울뿐인 국가	당성에 좌우되는 생존	1-18 당성이 좋은 아버지 덕에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어느 정도 배급을 받아 생활함 1-23 “학”이라는 입술이 휘어지는 병에 걸렸으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당원 아버지가 트럭으로 돼지를 잡아옴 2-3 지방대 물리학과 교수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 시공한 주택은 동네사람들에게 큰 부러움을 샀음 2-15 군관의 자녀가 아니라서 쫓겨남 15-23 아버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북한에서는 학력 보다는 당원여부가 더 중요함
	용도 폐기 후 추방	1-17 골수 당원인 아버지는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지만 당으로부터 버림받음
허울뿐인 국가	모두가 배고픈 공화국	4-19 친구들 집에 갔으나 손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 5-5 의사였던 엄마였지만, 직업에 무관한 배급에 의존한 삶 5-7 썩가루로 만든 떡 등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함 5-11 고된 생활고로 인해서 입하나 덜고자 딸을 먼저 탈북 시킴 5-27 굶지는 않았으나 늘 먹고사는 문제로 힘들었던 북한에서의 삶 7-6 고난의 행군시기에 아사자가 있었다는 풍문을 듣고 자람 12-7 고난의 행군시기에 돼지풀 같은 독초를 뜯어다 밥을 늘려 먹고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였음 12-13 남한을 본 후 북한에서의 삶을 회고하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시기였음 15-18 배고파서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풀죽을 먹고 산다는 풍문을 들음
	희망을 앗아간 고난의 행군시대	5-20 고난의 행군시기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가정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의료의 사각지대	7-8 전염성이 강한 옴과 홍역에 걸렸지만 대부분 그냥 그렇게 지나감
	선군정치	5-16 살기위해서 한 불법낙태 시술 사고로 엄마는 감옥생활을 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표류하는 삶	낮선 땅에서 떠돌	1-57 1개월 단위로 짐 보따리 지고 동생과 둘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희망함 1-58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4세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함 8-15 벌금대신 태국 수용소에서 한 달간 감옥생활을 해 체중이 12kg 늘어남 8-16 밥과 고기가 나온 태국 감옥에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만큼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감
	이방인으로서의 고단한 삶	1-59 동상 걸린 손을 치료하기 위해 담뱃불로 지짐 1-60 고된 3개월의 중노동으로 15kg이 빠졌던 중국 내에서의 삶 1-61 독감에 걸려 탈진한 상태에서 기숙사에서 쉬었으나, 한국인 고용주에게 해고를 당함 2-26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 했지만 중국에서 거의 굶다 시피하며 고생을 함
	이방인으로서의 불안	1-3 평생 받을 스트레스를 중국에서 다 받고 생활함 2-27 강제복송이 우려되는 중국에서의 삶이 가장 어려움
	희망부재	9-31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매일의 삶이 반복됨 9-32 너무나 힘든 일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버텨냄
체제 꼭두각시	반은 학생 반은 노동자	2-7 교과서 없이 공부하면서도 토끼가죽 벗기기 등의 외화 벌이를 하고 자람 2-14 군대로 인식되는 스키양성소를 들어가 교육대신 노동으로 생활함 2-22 감자 수확철에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집단노동에 시달림 2-23 학교에 가면 공부는 뒷전이고 학교농장, 교사들의 밭 등에서 농사일을 하고 자람 3-16 집단 노력동원에 징발되어 주말에도 쉬어보지 못함 3-17 자유가 없는 끔직한 조직생활을 하면서 자랐음 3-18 대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모든 걸 해야 해서 학교인지, 일터인지 혼동됨 12-6 학교도 못나오고 밭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았음 12-10 학교에서 농장일 등에 노력 동원되는 일이 제일 짜증남
	허울뿐인 무상교육	2- 8 말뿐인 무상교육으로 각종 비용을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음 4-12 아들을 생각해서 계모도 들이지 않았으나, 차리리 계모라도 들어서 공부라도 시켜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음 6-8 학교는 형식적으로 다녔고 할머니마저 장풍이 걸려 돌아가시자 삼촌 밑에서 더부살이를 함 7-1 중학교 문턱도 안 가봤으나 주변의 친구들도 동일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음 7-27 통일이 되면 교사가 되어 남북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쉬움 9-24 (중학교)의무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사회주의의 허구성 12-9 학교에 열심히 다녔으나 배운 것이 없음

범주	하위범주	개념
<p style="text-align: center;">체제 꼭두각시</p>	<p style="text-align: center;">세뇌 교육</p>	<p>2-5 중국에 오기 전까지는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 정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람</p> <p>2-6 그냥 잘못된 사회였구나를 느끼는 정도로 지난 세월이 억울하지는 않다고 생각함</p> <p>5-28 커가면서 북한체제의 허구를 알았으나 직감적으로 그것을 발설하면 안 된다고 알아서 조심했음</p> <p>5-29 남한에 와서 북한의 실체를 보았으나 처음에는 믿어 지지가 않았음</p> <p>5-30 북한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가난하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었음</p> <p>6-12 한국은 미국인들이 총 들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한국행을 두려워함</p> <p>6-25 북한에서는 탈북한 엄마로 인해 대학진학과 좋은 직장은 꿈도 못 꿈</p> <p>6-26 북한에서는 잘 먹든 굶어 죽든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함</p> <p>12-17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세상에 살면서 만족이 없었지만, 싫은 것도 없었음</p> <p>12-26 북한정권의 실체를 알아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정확한 실체를 생각하지는 못함</p> <p>12-33 북한에 있을 때도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음</p> <p>12-34 김일성 가족 일당주의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 북한의 추세라고 인식함</p> <p>15-21 체제 비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도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아예 안함</p> <p>15-22 북한 사람들은 굶어서 불쌍하다기 보다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삶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함</p> <p>15-29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의 뚜렷한 차이는 북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선전도구</p>	<p>2-9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땀별에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었음</p> <p>8-6 외부 선전용 보육원인 학원에 들어가 교육도 받고 배고픔도 해결함</p>
	<p style="text-align: center;">구조비판의식의 마비</p>	<p>3-19 사회, 구조나 체제를 탓하지 못하는 사회이다 보니 그렇게 시키는 개인을 탓하는 성향이 많게 살아왔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한계상황</p>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요법에 의지한 연명</p>
<p style="text-align: center;">구사일생</p>		<p>1-53 중국에서 김칫독을 묻는 구덩이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지냄</p> <p>6-15 매콩강가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다른 동료 탈북자는 빠져 죽었으나, 수영을 해서 빠져나와 살았음</p>
<p style="text-align: center;">지식노동자의 생존력 없음</p>		<p>1-25 고난의 행군시절 체면상 막일을 못하던 교육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들었음</p>

범주	하위범주	개념
한계상황		2-1 아버지가 교수였지만 엄마가 장마당 장사를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함 5-1 고난의 행군시기 부모가 교사, 의사, 인텔리 전문직 종사자였으나 배급에 의존한 삶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함 9-26 음악인인 아버지는 배급이 안 나와도 장마당에서 장사할 생각조차 안함
	최소한의 목숨을 연명케 하는 배급	5-18 엄마는 감옥에서 돌이 섞이고 곰팡이가 핀 옥수수가 루로 연명함 12-12 정책 산업인 광산노동자들과 일반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배급이 차별적인데 광산노동자들은 배급이 좋음 15-20 고난의 행군시대에는 배급에 의존해야 하는 도시생활이 힘들었음
	가장 비참한 농민의 삶	3-5 국가 땅에서 일해 곡식을 모두 국가에 바쳤으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민들이 가장 살기 어려웠음
	반역자의 가족	6-11 한국으로 떠난 엄마로 인해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옴 6-24 어른이 되면 친구들보다 더 잘 살겠다는 야망으로 다 좋은 척하면서 스트레스를 누르면서 살아옴 7-11 아버지가 중국을 간 이후 주변의 감시와 업신여기는 상황 속에서 살아감 7-22 탈북한 아버지로 인해 늘상 감시를 당하고 불안한 생활을 함 8-8 엄마가 탈북한 것이 발각되어 자신은 24시간 감시와 반역자의 자식으로 취급받음
위축	반통일 집단의 방해	1-32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킨배달이나 하고 살으라는 저주를 함 1-38 중국출신 조선족들은 탈북민이 한 일도 없는데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불평함
	정체성 은폐	1-33 무시와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해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숨김 1-40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킨 교수에게 실망하여 학교를 자퇴한 여학생이 있음 9-36 초창기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말 했으나 주변사람들이 이를 무서워하자 강원도에서 왔다고 함 9-38 북한출신임을 밝히라고 은근히 권유하는 교수에 반발함
	외로움에 의한 자기발전 포기	1-37 성적이 우수한 탈북 학생도 외로움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결혼을 함
	교우관계의 협소함	1-13 평남도 출신이라 남한에서도 친구가 적음 8-36 자기에서 필요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면서 지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의지 가지	가족의 보호	1-2 북한에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배고팠어도 덜 힘들었던 삶 1-5 6형제를 빗을 내서 먹여 살린 것은 부모의 능력임 1-9 고난의 행군시기에 사람들이 가족을 버렸지만,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챙김 1-11 자신의 고향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식을 끼고 살았음 1-45 가족이 흩어질 것을 예측한 아버지는 비닐봉지에 돈을 싸서 내장 속에 집어넣어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하심 3-31 공부하라고 자신을 챙겨주신 부모님 역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큼 5-22 북한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인식함 5-56 엄마,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 것이라고 생각함 6-13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가 생활하던 중 엄마가 보낸 탈북브로커를 통해 탈출을 함 6-16 물밑으로 의식을 잃고 가라앉는 순간 남한에 있는 엄마생각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옴 9-28 중국 거주 친척의 도움으로 고난의 행군은 무난히 넘겼으나, 친척의 도움이 끊기자 생활이 어려워짐
	모성 헌신	1-6 무임금 노동을 하는 가장인 아버지 대신 가정의 기둥이 된 어머니 1-21 어머니는 중국남자에게 팔려갔지만 살기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1-26 어머니는 자식이 6명이 아닌 딱 3명만 있었다면 이밥에 돼지고기 먹이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감이 많음 1-48 꽃제비 수용소 시절에 막막한 생활을 하던 중 막연히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기적처럼 10분 만에 찾아옴
	희생을 각오한 가족의 탈북권유	3-8 탈북한 고모들로 인해서 북한에서 앞길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경찰인 아버지가 탈북을 권유함
	가족울타리	6-49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함 7-10 중국에 돈 벌러 간 아버지와 5년 만에 한국에서 상봉함 8-41 지지기반인 엄마가 흔들려버리면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마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함 8-42 바다가 보이는 집을 사주는 것이 장래의 꿈으로 항상 집 없이 살아온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음 9-6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엄마와 같이 살 때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었음 9-10 북한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힘들게 살았어도 가족이 다 같이 밥 먹고 함께 지내던 좋은 기억만 생각남 9-7 먹을 게 없어서 농장 밭에 옥수수 주우러 다녔지만 엄마와 아빠, 가족 모두가 함께 있었던 그때가 행복했음 9-8 밤낮 주말 없이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족들끼리 제대

범주	하위범주	개념
의지가지		<p>로 얼굴도 못 보는 한국에서의 삶이 회의스러움</p> <p>9- 13 자식이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재혼한 엄마를 이해함</p> <p>9-14 엄마를 위해서 새아버지라고 부름</p> <p>9- 17 이혼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부모님은 나를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p> <p>9-21 내가 한국에 와서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됨</p>
	지지 체계	<p>1-22 기독교의 도움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꽃제비는 해보지 않음</p> <p>1-47 아버지가 중국에 갔을 때 기독교 도움을 받고 교인이 됨</p> <p>2-34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교사가 된 선생님이 멘토역할을 해줘 다양한 스포츠 분야를 경험함</p> <p>7-3 탈북계획을 미리부터 세우고 주변 정리를 함</p> <p>7-12 4년 뒤에 아버지가 보낸 적은 돈은 곧 탈북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함</p>
	가족지원을 받은 탈북	<p>12-1 먼저 탈북한 할머니와 삼촌을 믿고 살길이 없는 북한을 떠나옴</p> <p>12-2 미리 손 써 놓은 아빠 덕에 중국 국경을 무난히 건넌</p>
	조력자 도움	<p>5-43 쉼터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이 브로커 비용 2백만원을 지원해서 태국까지 도움을 줌</p> <p>15-7 노부부가 기독교인을 연결시켜주고 그 집에서 6개월간 보호를 받음</p>
미래에 대한 희망	부자의 꿈	1-7 북한에서는 배불리 먹을 꿈을 꾸고 부자가 되어 집안을 살릴 것을 상상함
	통일 전도사	<p>1-31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강사 등 외부활동을 함</p> <p>3-30 통일시대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한에서의 기술을 축적한 후 통일 후 북한에 들어가 북한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을 생각함</p>
가족 기능저하	가족 갈등	<p>1-52 중국에 자리를 잡은 큰 누나는 어머니를 아버지 버리고 혼자 살려고 나왔다고 학대함</p> <p>5-3 사춘기였던 오빠는 가정불화로 인해 아빠와 사이가 나빠짐</p> <p>5-4 13세 때 아버지 사망 후, 엄마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함</p> <p>7-16 일을 못하게 된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발생함</p>
	배고픔 앞에 무너진 가족	<p>4-3 장기간 장사를 나가면서 엄마가 숨겨놓은 쌀을 친척들에게 꺼내 달라고 부탁했으나 친척들이 모조리 가져가 굶주림</p> <p>4-13 엄마가 장사하는 곳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왔고 여쩔 수 없이 가족이 나눠서 살게 됨</p> <p>8-3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맘으로 큰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신발장에도 들여 놓지 않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함</p> <p>9-4 북에서는 아버지와 재혼한 새엄마(후엄마)로 인해 눈칫밥을 먹고 자라면서 친척집에서 일하면서 지냄</p> <p>9-9 엄마가 보내 준 돈은 이모가족의 생활비로 들어가 연필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북한에서의 삶</p>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족기능 저하	가족 간의 이해 부족	8-29 술만 먹으로 <너 하나만 보고 산다>는 엄마의 반복적인 말에 엄마가 이해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워져서 따로 살기로 결심함 8-30 엄마에 대한 애증의 마음을 정리하고 전달하려고 속에 있는 맘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씀
	쓰러진 가족 울타리	8-34 지붕이 아빠이고 벽돌이 엄마라고 은유하면서 자신을 비도 새고 기둥도 약해서 추운 집이라고 표현함 9-15 가족을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둥이 선 것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음 9-16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자신이 없음
	서먹한 가족	3-28 온가족이 탈북했으나, 중국에서 부모가 복송되어 수감된 후 조부모 손에서 자란 친구가 한국 와서 한참 만에 부모와 재결합했으나 생각보다 가정에 대한 애뜻함이 없는 것을 보았음 5-12 남한에 온지 3년 만에 엄마와 통화를 했고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함 6-3 할아버지 집과 아빠 집을 오가면서 늘 눈치를 보면 살아움 6-9 엄마가 보낸 돈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생활을 하고 외숙모가 쫓아내려함 6-10 외삼촌의 아이까지 키우며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양말 한 짝 제대로 사지 못한 삶이 억울해서 몰래 삼촌 집을 나옴 6-14 외삼촌은 어머니로부터의 송금이 끊길까봐 나의 탈북을 저지함 6-19 오랫동안 떨어져 산 세월만큼 어색한 모녀기간 8-31 새아버지와 싸우는 엄마사이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으나 아빠의 역할이 뭔지를,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새아빠에게 이야기 함 9-2 엄마가 중국 간 후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자매가 부모에게 나눠져 양육되어 한국에서 재결합하였으나 정이 깊지 않음 9- 33 5년 만에 엄마와 처음 통화할 때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과 거부감이 생김 15-12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할머니 집에서 10년을 살았던 관계로 엄마와는 각별한 애정이 없음 15-14 북에 둔 가족이 그림기는 하지만 애뜻한 감정은 없음
가족기능 저하	모성 경험의 결여	4-10 7세쯤 집을 나간 엄마는 학교 입학식조차 참석 안했고, 집에 엄마가 없다는 것이 제일 서러움 4-11 엄마가 자신들에게 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뀜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족기능 저하	부모 있는 고아	4-5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농장에 가서 흠쳐서 먹고 살아감 4-8 엄마가 없고 아빠의 혹독한 폭력으로 엄마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서러움이 컸던 어린 시절을 지냄 8-4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오갈 데가 없어서 엄마, 아빠가 죽었다고 속여 꽃제비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함 8-5 작은 신발을 신어 발톱이 빠지고 발뒤축이 얼어붙는 생활보다는 고아라고 속여 식생활이 보장되는 보육원을 선택함 15-13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도 동생이 태어나면서 사실상 부모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함
토대 구축	극복경험의 자원화	2-20 탈북과정에서 고통과 불안을 극복한 경험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함
	인적자본의 강화	1-36 대학교 특례입학을 사회적 기회로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을 마치고 싶어 함
	당당함	1-35 서울소재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신감이 되어 악덕 업주에게 정당한 요구를 함 1-67 자기가 새터민으로 노출되었을 때 남한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함 2-33 실제 나이 보다 2살 어린동생들과 학교를 다녔지만, 공부도 더 못했지만 기죽지 않았음 6-42 대학에 들어와 북한출신임을 밝히고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 함 8-39 자신의 사투리를 당당해 하면서 남북한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함 12-24 북한에서 왔다고 전혀 어색하지 않음 15-10 일부 남한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에도 불편해 하지 않음
	사회적 관계의 확대	6-41 대학교에 들어가 제일 친한 친구 2명을 만듦
	문화자원의 획득	6-43 학교선배와 동기들의 도움으로 대학의 문화와 수업에 익숙해짐
고립된 세계	우물 안 개구리	2-10 또래친구들은 남한, 중국 CD를 보고 외부세계를 알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투철한 당성으로 접해보지 못해 외부 실정을 모르고 살았음
	북한 원죄	1-64 북한에서의 삶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나라 탓이라고 생각함 1-65 내 죄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뿐임 1-66 새터민, 탈북자라는 사회적 라벨은 구별을 의미하므로 거부함 4-6 살기 힘들어서 학교도 안보내고 때리기만 하는 부모에게 우리를 왜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원망함 9-37 북한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

범주	하위범주	개념
고립된 세계	외부 세계와의 차단	1-20 노출이 위험해 3년 동안 3번 외출하고 커튼이 쳐진 내 부에서만 갇혀 지내듯이 생활해서 하지 무력중에 걸림 5-26 돈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살고 싶음
	믿을 수 있는 건 자신 뿐	4-9 바깥에서 얻어맞고 들어온 자신에게 무관심한 아빠를 보면서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위축됨
	물리적 소속감 집착	10-46 안전한 은신처 같은 자신만의 공간이 없었던 경험으로 인해 집에 대해 집착함
	가족부재로 인한 공허감	5-55 외로움이 많아져서 우울하고 한국에서의 삶은 붕 떠 있는 같다고 느낌
	혼자 감내함의 어려움	8-17 믿을 존재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음 8-33 웃을 일이 없음에도 항상 웃고 다니는 자기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감
	제한된 사회적 관계	12- 28 회사와 가족 이외에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지 않음 12- 29 한국에서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 사람도 없음
가족의 자원을 총동원한 살아남기	생계 체계 분담	2-21 중학교 시절 고철을 수집하고 암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유지를 도왔음 4-1 농사라는 부업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시기도 잘 견디었으나 자연재해로 농사가 망하면서 힘들게 생활함 4-2 배급이 아니라, <분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어 그때부터 엄마가 장사를 시작함 3-29 단순하고 체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북한과는 다르게 자유롭지만 책임이 요구되는 한국은 뭘 해도 고민이 되는 삶이라고 느낌
가족의 자원을 총동원한 살아남기	생존을 위한 이중 직업	2-20 대학교수인 아버지는 출근 전, 퇴근 후에 엄마를 도와 장사를 함 7-4 어머니가 장마당 장사로 술장사를 했고 축산을 병행했음 7-5 국가가 일방적으로 배급을 끊었으나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생존을 유지함 12-5 고난의 행군시기에 음식장사,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감
심리적 안정의 뒷내리기	수용성	2-32 북한 출신인 나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친구들을 이해함 4-7 혹독한 북한에서의 삶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아빠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해가 됨. 5-44 3년 만에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가 가슴 아플까봐 중국에서 힘든 경험을 이야기 하지 못함 5-46 대학진학 후 모든 사람들과 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으나 점차 생각이 바뀌면서 서너 명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됨

범주	하위범주	개념
심리적 안정의 닳내리기	수용성	<p>5-48 북한출신임이 자연스럽게 알려진 후 사투리를 써도 무방할 정도로 편안해짐</p> <p>5-49 수급비와 공공재단의 후원으로 월 85만원을 생활비로 쓰며 생활함</p> <p>6-18 어릴 때는 아빠에게 세뇌를 받아 엄마를 가족을 버린 나쁜 여자로 생각했으나 아버지의 폭력이 없었다면 가족이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엄마에 대한 원망을 버리게 됨</p> <p>6-35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았던 내가 남자친구의 작은 말에도 대성통곡을 함</p> <p>6-46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가가지 않아서 탈북민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그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함</p> <p>6-50 대학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거듭하는 남한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p>
	소속감	<p>1-63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허무함과 동시에 이것을 위해 고생한 10년의 세월이 아파서 주민번호를 달달 외움</p> <p>7-25 탈북한 친구 세 명이 동일한 남한의 대학교에 지원함</p> <p>8-21 마음의 위로와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대안학교를 자주 찾아감</p>
심리적 안정의 닳내리기	만족감	<p>6-47 요리실습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 10점을 제외하고 자신의 삶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높은 만족</p> <p>7-14 지금의 삶에 만족해서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힘든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음</p>
	자기 성장성	<p>7-18 남한에 정착한 후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찾기 시작함</p> <p>7-19 그리고 그 근원은 북한에서의 우울한 어린시절의 생애 경험이라고 생각</p> <p>7-33 낮은 자존감이 매사에 마음을 괴롭게 함</p> <p>7-34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나와 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미술치료를 받기로 함</p> <p>9-22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고 싶음</p> <p>15-15 북한에 있는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라는 생각을 자신의 이기성이라고 생각함</p> <p>15-34 자신의 삶을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평가하지만 삶의 불만족은 자신의 극단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함</p>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탈출	<p>7-23 중국 공안에게 체포될 당시의 공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어 그저 과거의 경험으로만 인식되어가고 있음</p>

범주	하위범주	개념
심리적 안정의 닳내리기	긍정성	7-29 남한에서의 생활을 남한 자체보다는 늘 북한과 비교하여 생각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음 7-30 대학특례 입학과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는 남한 생활에 만족함 7-32 남한에서 떨쳐 버리고 싶은 것은 비교의식 9-18 남한은 자신의 선택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헤치고 살아가야 하는 곳 12- 25 북한에서는 큰 좌절, 실패, 소외감이 없었으며 남한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못 느끼고 있음 15-33 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서 스스로 이겨냄
	자기개방성	8-20 대학교의 협동과제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이 미숙할 경우,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양가감정	머나먼 자유	1-62 1시간 10분이면 올 곳을 몇 년을 걸려 왔다는 사실에 씩씩함을 느낌
	막연한 불안	2-38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경제적 풍요 동경	1-70 북한에서의 고생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독신생활을 계획함
	모성 양가감정	6-31 요리사로 성공한 엄마를 자신의 경쟁상대로 삼고 무조건 잘 살아서 엄마를 무릎 꿇게 해야겠다고 생각함 6-32 엄마의 심부름도 수고비를 환산하여 받을 정도로 철저히 이해관계를 생각하지만 간혹 메모를 통해서 엄마에게 애정을 느낌
	부성 양가감정	7-17 가정폭력이 일상적인 북한에서의 삶은 어머니와 밀착해서 아버지와는 거리가 있었음 15-24 자신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음은 북한에서 아버지의 한자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함
풋대 세우기	자기자리 확보	1-34 실용 중국어 실력으로 남한 학생들을 위축시킴 2-30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일반학교로 갔고 축구로 인해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
	힘의 우월성 추구	2-18 아버지의 도움으로 싸움 연습을 하여 친구들을 제압함 2-19 축구부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일탈적 행동을 함
방임문화	음주 흡연의 허용적 문화	2-24 아무데서나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북한에서 일찍 술 담배를 배움
	양육방임	2-16 북한에서는 돈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 쓰는 문화가 아닌 상태에서 성장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본능적 향수	향수	2-2 자유롭게 뛰어놀던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2-35 남한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북한 친구들이 그리워 슬픈 노래가 나오면 막 울기도 함 2-36 친한 친구들이 있는 북한을 그리워함 2-37 압록강을 넘어가서 잠시 고향 집을 다녀오는 상상을 함 5-24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빼고는 가정불화 속에서도 엄마아빠랑 같이 살았던 북한에서의 삶이 최고였다고 생각함
	본능적 그리움으로서의 북한	12-35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사귀 친구들을 보고 싶다는 것 이외에는 북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음
인간에 대한 신뢰감 상실	조선족 반감	1-39 중국에서 탈북민의 인신매매를 주도하는 사람은 다 조선족들이라고 생각함 15-6 월경 후, 중국의 어느 집 문을 무작정 두드려 받아 달라고 했으나 별금 낼 것을 두려워한 조선족에게 쫓겨남
	인간성 말살	1-42 고난의 행군의 가장 큰 폐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인간성 말살이라고 생각함 1-42 북한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고 쥐약으로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을 봤음
	배신과 불신의 남한생활	1-43 같은 북한 사람의 밀고로 가족들이 북송되었고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함 1-49 남한에 와서 아버지께 돈을 보냈으나 이미 아버지는 굶어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음 10-40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신의 인생에 친구란 없다고 생각해서 친구들 연락처를 다 지워버림
	앞길을 가로막는 과거의 경험	5-31 남한에 온 후 외로움으로 인해 처음에는 결혼을 희망했으나 과거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과 탈북언니들이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5-32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결혼을 선택한 언니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가사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당일에 쪼들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함
	브로커 사탕발림	5-35 엄마에게 중국 돈 1,000원을 주고 중국에 가면 편하게 산다는 말을 믿고 보냈다고 함 10-1 남한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의 꼬임으로 중국으로 월경함
	인신매매 경험	5-36 함께 탈북한 언니는 며칠 뒤 다른 데로 팔려갔음 10-3 꼬여낸 사람이 한국으로 가면서 중국인에게 인질로 넘김
	경제적 착취	10-12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억지 빚을 갚음
	동병상련의 착취	10-21 하나원 동기 언니의 소개로 허술한 탈북민 예술단에 소개됨 10-22 같은 탈북민에게 또 다시 사기를 당하고 왜 또 나인 가하면서 대성통곡을 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특권층	기아의 피폭지대에서 비켜섬	3-1 고난의 행군시기였지만, 감자 농사가 잘 되는 곳에 살아서 비교적 안정되게 살았음 3-2 경찰인 아버지 덕에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음 3-3 고난의 행군시기를 말로만 듣고 직접 체험하지는 않음 7-2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비교적 굶지 않고 살았음 12-8 광산에서 일하는 아빠의 능력으로 고난의 행군시기에 중산층으로 살아 배고파 본 적이 없음 15-16 양봉을 하는 할머니 집에서 자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풍족하게 지냄 15-17 북한에 살면서도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음 15-19 장마당에서 음식점을 하던 엄마는 가전제품을 다 놓고 살 정도로 북한에서는 최상류층의 생활을 함
	엘리트 집단의 구성원	3-6 머리가 좋고 출신 성분이 좋아 제1중학교에 들어감 3-15 힘든 시기에 태어난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으나 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현실에 맞춰 생활함
안전지대	남한의 꿈이 현실로 다가옴	3-9 잘 사는 남한을 꿈에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먼저 간 고모의 도움으로 점점 현실적 생각을 가짐 4-17 폭행사건으로 단련대에 있을 때, 중국을 오간 형으로부터 한국에 같이 가자는 권유를 받음 4-22 중국에서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집도 주고 돈도 준다는 말에 한국행을 결심함
	현실만족	6-34 북한에서는 먹고 사는데 치중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남한에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김 10-15 꼬임에 빠져 오게 된 한국에서의 몇 년간의 삶은 죽을 만큼 힘들고 수치스럽지만 고달파도 감사한 시간 들임
	남한선망	5-8 남한으로 탈북한 자녀들이 보내 온 돈으로 부모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격함 7-9 12세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생성함 15-1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과 답답한 북한 상황으로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탈북을 꿈꿈 15-2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행을 생각했으나 꿈에 불과했었음 15-8 고향을 떠나 중국에서 미래 향방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처절하다고 생각함
	기회의 땅 한국	6-21 하나원 교육을 통해 한국은 일한만큼 보상이 있고 기회가 있는 땅이라 생각하여 엄마와 열심히 살아가게 됨

범주	하위범주	개념
안전지대	꿈 꿀 수 있는 땅	7-15 북한에서는 꿈이 없었으나, 지금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뀜 7-28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남한은 부담이 되는 동시에 시야가 넓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생김 12-15 남한 삶의 장점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먹고 살 수 있다는 점 15-9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잠시 하다가 결혼하는 북한에 비해 자신이 하려고 하면 일하는 것이 가능한 남한 사회에 대해서 만족해 함 15-35 현재는 영양사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꿈이 생기면 이를 꼭 성취할 생각을 함 15-36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만큼 불안함이 있는 한국에서의 삶이지만, 꿈이 생긴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김
	현실적 기대	10-38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에 온 것에 대한 후회는 없고 1~2년 후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함 10-39 막연히 전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이겨감 10-47 힘든 세월을 버틴 힘은 내가 잘하면 안 맞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임
	남한에서 삶과 정 비례되는 만족감	5-61 대학을 졸업하고 남한에서 산 세월이 많아질 미래는 지금보다는 더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함
미망에서 깨어남	김일성 부자의 민낯을 봄	3-10 교양사상을 받은 계층을 빼고 보통의 애들처럼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막연하게 남한을 동경했음 3-11 탈북 브로커가 김정일 저 새끼, 나쁜 새끼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음 3-12 남한에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몇 백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계 제1급 지도자라는 우상화 신념이 무너짐 3-13 국민은 굶어 죽음에도 호의호식하는 김정은 정권 6-29 김씨 일가가 뿌리째 없어져야지 통일이 된다고 생각함 7-13 국정원에서 북한의 실상을 듣고 충격을 받음
	돈에 무너진 국경선	15-3 17세였지만, 국경수비대가 돈을 받고 월경시켜주는 것을 알고 밤이 되자 무작정 뛰어넘어감 5-33 국경경비대가 돈을 받고 자신과 한 언니를 양팔에 끼고 강을 건네줌 5-34 탈북자들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감시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뒤로는 돈을 챙김
미망에서 깨어남	사회주의 체제 허구 인식	6-4 중국에서 2백만 원을 벌어서 온 엄마와 잠시 살았으나, 중국 맛을 본 엄마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또 헤어지게 됨 6-27 방탕한 생활을 하는 김정일 부자에게 남한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음 6-48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 7-7 빈부격차가 심해서 부모가 있는 꽃제비가 늘어남 8-9 탈북 경험자라는 비난, 반역자라는 비난에 나라에 대한 반발심이 극도에 달함 9-29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웃 아이가 죽어가는 것에 수수방관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국가 회의	8-10 열넷의 나이에 자궁검사를 받고 나라에 환멸감을 느낌
	허구적 보호장치	9-25 추상적인 행복만을 던져주어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함
극복의지	과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3-14 하늘같은 아버지가 남한 정착 후 점점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책임감을 느낌
	우월한 적응능력	3-22 남한적응을 위해서 대안학교보다 재수전문학원에 다니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서울 명문대 수시에 합격함 3-23 학원 다니면서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겠다고 다짐을 함 3-32 5년 동안 피운 담배를 남한 정착 후 끊어냄
	정신력으로 풀무질한 생존고통	4-25 정신력과 자제력은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을 평가함 5-52 북한과 중국에서의 경험이 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함
	자기 절제	6-39 적어도 엄마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술담배를 멀리하고 절제된 생활을 함
	학습 열망	5-40 도움을 요청한 단체의 남한행 권유를 처음엔 거절했으나 후에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남한행을 결정함 5-50 학교와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지 않음 6-20 공부도 못한 어머니가 자격증도 따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것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됨 6-44 한국말인데도 기초가 없어 수업시간에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한주동안 잠도 안자고 공부를 해 뒤쫓아 감 8-7 보육원(학원) 가기 전 옥수수를 판돈 1만원으로 간식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곱셈을 배움 8-38 학벌위주, 외모중심의 남한이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은 남한 12-16 회사를 다니면서 원격대학에서 대학공부를 함
	생활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싶음	5-57 지금 인생의 목표는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임
극복의지	동기부여	9-39 한국의 또래 친구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끈질긴 삶의 의지	6-17 인생에서 16세 이전까지는 눈칫밥 먹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이는 삶이었지만 자살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음 6-23 북한에서도 이웃들의 일을 돕고 먹을 것이랑 입을 것을 도움 받아 생활함 6-30 나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북한에서 굶던 생각을 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문화소외	문화 이질감	3-20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북한의 문화가 남아있어 명절 때 떡을 만들어 옆집에 돌릴 때 이를 어색해하는 남한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당황해 함 8-19 정해진 대로 생활하는 북한 방식에 익숙해서 다양한 것을 선택하는 창의적인 것을 어려워함 12-14 시간과 일을 대충하는 북한의 일과와 팍팍한 남한의 일과가 차이가 있고 길어서 힘들 12-19 심야에 돌아다니는 것이 습관이 들지 않아 늦게 다는 것을 무서워함
	긴장의 연속으로서의 남한에서의 삶	4-26 혼자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므로 남한에서의 삶은 신중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감
	문화충격	5-47 대학 입학 전 2박3일의 오리엔테이션을 지옥같은 경험으로 생각함 8-27 밤낮없이 공부만 하는 남한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음
	남한과의 거리감	5-59 남한 애들과는 유사점은 적고 차이점만 많다고 생각함 7-26 북한에서 자기 주도적 경험이 없어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음 7-31 남한생활에 만족하지만 소수자라는 인식과 일부 정치인들에게 악용된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음 8-22 대학에 입학한 후 남한사람과 북한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있다고 생각하게 됨 8-23 남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한발 앞으로 나가면 남한 사람들은 한발 뒤로 물러섬 9-23 스펙만 따지고 1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인이 이해되지 않음 9-40 스펙을 따지는 남한사회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부담스러움 9-41 완전히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남한생활
문화소외	문화 자원 결여	15-37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따라가야 하는 영어강의와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스트레스
	기회적 차원에서 무너진 학습경쟁력	5-45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배운 남한 아이들과 경쟁이 되지 않아 때때로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5-51 한국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공부, 문화, 사회 경험 등 모든 면에서 남한 애들에 비해 모자라다고 생각함
	선택지의 제한	8-24 대학 입학 한 학기 이후 대학을 그만두려했으나 대학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전공을 바꾸게 됨 8-25 대안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조언으로 미대를 들어갔으나 전혀 적응하기가 어려웠음
	남한실정 무지로 인한 피해	5-14 엄마에게 보낸 2백만 원을 브로커에게 사기 당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호모사케르의 삶	손쉬운 강간의 대상	5-37 중국에 도착한 후 어딘지 모른 곳에 가서 40대 되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함
	송환의 공포	8-11 엄마가 딸기암이라는 전화통화를 하고 목숨 한 번 더 걸겠다고 엄마가 보낸 사람을 따라 탈북을 하였으나 중국 경찰에게 잡힘
	보호받지 못하는 버려진 삶	3-21 쪽배로 악어강을 넘어 낯선 나라에 도착한 곳(태국)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권총으로 위협을 당함 8-12 중국경찰에게 잡혔으나, 잡혀가는 것보단 나올 것 같아 팔려감 8-14 태국 경찰이 귀찮아 해 잡아가지 않아서 방콕까지 가는데 힘든 과정을 경험함
	권리박탈	10-5 19세 차이가 나는 사장 조카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죽기로 저항함 10-6 탈북과정에서 자기를 꼬인 남자의 아이를 가짐 10-7 사장 조카에서 시집보내기 위해 저항하는 연구참여자를 강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시킴 10-9 15,000,000원에 한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나를 팔아서 한국에 가는 조건으로 아이를 지움
정체성 유예	정체성 은폐	3-24 초창기에는 서울 말씨를 쓰면서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기도 했으나, 점차 자신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당당히 말함 3-26 초창기에 자기를 개방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함
	남한사람 따라하기	3-25 대화가 깊어지면, 탈북민이라는 것이 티가 날만큼 차이를 느꼈고 그저 영혼없는 웃음으로 따라하면서 자신을 위장하기도 하였음 12-32 국정원에서 막연하게 기독교를 선택하고 의례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지냄 15-26 자신이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인식하고 남한 식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음
	정체성 도전	3-27 새터민이 다문화에 속한다는 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체성을 고민함
	북한 가리기 압박	1-41 북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 5-25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감춰야 하는 남한에서의 삶은 항상 긴장으로 일관됨
중국 환상	중국 동경	6-4 중국에서 2백만 원을 벌어서 온 엄마와 잠시 살았으나, 중국 맛을 본 엄마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또 헤어지게 됨 10-2 북한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휴대폰을 보고 중국이 황홀하고 신기한 세상이라고 생각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국 환상	배반의 땅 중국	5-38 중국에 와서 간혀 지내면서 탈북을 후회하고 그저 가족들이 보고 싶어 울면서 지냄 10-4 간혀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16개 방이 있는 집을 청소하면서 생활함 10-8 감금된 상태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까봐 쇠붙이를 문고리에 매달고 잠을 잠
	낮설고 물산은 중국에서의 제2의 탈출	5-39 중국으로 부부에게 팔려갔으나 처음 해보는 컴퓨터 독수리 타자를 쳐서 인터넷으로 탈북자 지원단체(새터민 쉼터)를 알게 되어 그들의 도움으로 남한으로 옴
	중국에서 극적인 탈출	5-42 간혀 지내 던 중 반팔차림으로 한 겨울 새벽에 12층 아파트를 한걸음에 달려 나와 007영화처럼 탈출함
퇴행	과거에 대한 회한	4-23 남한 정착 후 눈물이 많아짐 4-27 자신이 살아온 10대를 무의미한 시기로 인식함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대한 자신감 저하	5-53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으나, 생활하는 데서는 자신감이 떨어짐 5-54 어릴 때에 비해 생각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고 대학에 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짐
	자기 소외감	10-10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 의해서 인생행로가 결정됨 10-11 옥탑방에 사는 20살 이상이나 나이가 많은 조선족이 결혼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질색함 10-14 자신이 인생을 남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해석함 10-20 여권을 만들고자 관공서에 갔다가 아버지 뺀인 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자살충동	10-32 음주 후 기억상실 상태에서 자살하고자 찾길에 뛰어들
	패배론적 운명주의	10-28 새로운 남자의 지속적인 폭행을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함 10-36 연속되는 피해 경험을 다 자기가 현명하지 못함의 탓으로 돌림
	무력해진 삶	10-24 항상 바보처럼 사는 게 마음이 편함 10-25 남들이 시키는 대로 흔들리는 삶을 삶 10-26 외로움을 이기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내 인생에 사악한 사람들이 파고 들 10-29 폭행을 당했으나, 피해자 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항상 주저함 10-30 자신의 코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나지 못하고 생활함 10-45 고시원에 살면서도 힘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남한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실감함
	도피처	10-31 술을 한 번도 떼어 놓지 않고 중독수준의 술을 마심 10-33 알코올 중독이 된 인생살이
	피해의식	10-44 쉽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피해의식에 젖어 살아감

범주	하위범주	개념
퇴행	애정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가족애	15-28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내 가족을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함
폭력문화	일상화된 가정폭력	5-2 고난의 행군시기에 집이 어려워지자 아빠의 음주와 폭력으로 가정 불화가 심해짐 6-2 5채가 연달아 붙어있는 집에서 연달아 순차적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자람 7-20 부모님의 싸움과 아버지의 가정 폭력이 가장 힘들었음 15-25 부모의 싸움을 말리는 중재자 역할을 했으나, 싸움과 폭력이 지속되자 상관 안하기로 함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국가폭력	6-1 7세 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엄마는 북한돈 5천원을 안전원에게 빼앗긴 후, 가정불화가 심해지고 엄마는 중국으로 떠남
	폭력지향성	6-37 북한에서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함 6-38 한국의 벌금제도 때문에 싸우는 것을 자제하게 됨 8-26 북한 보육원에 있을 당시 부모 없는 애들은 저렇다는 말에 어른들과 싸웠고 한국에 와서도 친구들과 싸웠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일탈성	15-4 지속된 부모의 싸움에 분노에 차 무작정 가출함
아이 어른	일찍 철들	5-6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살림을 도맡아 함 5-23 엄마의 감옥 뒷바라지를 하고 가정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애늬은이라는 소리를 들었음
	소녀가장	6-6 어머니를 만나러 간 할머니는 10일 만에 중풍이 걸려 돌아왔고 할머니 간병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함 6-7 할머니가 하던 폐백 음식장사를 물려받아 자신이 생계를 맡아 꾸려감
	부모역할 준비	8-28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으로 나중에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각오를 갖게 됨
가족 그리움	북한잔류 가족에 대한 연민	9-5 그리던 한국 간 엄마에게 5년 만에 한국에 데려간다는 연락이 왔으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즐겁지 않았음 5-19 북한에 있는 엄마와 오빠를 생각하면 자기 혼자 잘 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픔
	부성에 대한 그리움	1-50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에는 무덤덤했으나 한국 입국 후 새록새록 아버지 생각이 남 2-17 교육에 열성적인 아버지는 영어수학 보충 수업을 해 주고 맞고 들어오는 아들을 위해 태권도를 가르침 2-31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채근했던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남한생활에서 새삼 느껴짐 7-21 탈북한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없는 무시를 당해서 폭력적인 아버지라도 같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음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족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5-21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안 들 지만, 섭섭하지 않고 지금은 떨어져 사니 엄마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될 것 같음 15-11 오히려 가족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함 15-27 부모님에 대한 은혜 같은 애뜻한 맘은 없지만 실제로 부양을 한 동생이 그리움
	모성에 대한 그리움	6-5 중국으로 다시 떠난 엄마를 안 놓치려고 온 동네를 찾아다님 9-1 중국에 돈 벌러 간 돌아오지 않은 엄마에 대한 기다림, 원망과 함께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힘들어 함 9-11 북에서 놀기 좋아하고 놀 때가 제일 멋있었던 엄마가 남한에서 닳치는 대로 일만하는 모습이 안쓰러움 9-12 기타 치면서 우는 엄마의 모습 보면서 엄마의 힘든 삶을 이해하게 됨 9-30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엄마없는 서러움을 몰래 우 는 것으로 해결함
자력으로 일어서기	자립의지	7-24 하나원 퇴소 후 학교로 바로 가지 않고 집에서 남한사 회 적응력을 키운 이후에 대안학교에 감 15-30 남에게 도움 받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면서 삶
	목표설정	6-36 남한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김
	자기우월감	6-40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남한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월적 생각이 듦
	자립의지를 꺾는 남의 조력	5-60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면 독이 될 수 있음 6-22 국가와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받아들 이는 친구들을 보면 짜증이 남 6-45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과보호가 오히려 애들의 독립심 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습관이 된 내핍생활	8-40 백만 원씩 용돈을 쓰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함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삶	12-22 집단생활이 강한 북한과 달리 남한의 개인적 자유가 좋음
	자기선택에 대한 책임	15-31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남한의 삶에 대해 자신이 선택 한 삶이라서 후회하지 않음 15-32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그룹홈에서 살았지만, 외로움 은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독립함
뿌리 없음	열성강박	9-19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조건 해 야 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옴
	성취 공허감	9-20 대안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들어갔지만 5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것처럼 허무함
	주변인화	9-34 아등바등 살아가는 남한이 싫고 다 같이 굶었던 북한 에서의 삶이 그리움 9-35 남한의 또래 청소년들의 개인주의를 좋아하면서도 적 응하지 못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혼란기	근거없는 삶	10-41 또래들의 보통 길이 아닌 자신의 생을 허공에다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함 10-49 자신을 인식도 없이 타력으로 뚱뚱 떠다는 삶이라 해석함
	형클어진 삶	10-42 자신에 대한 점수는 0점이고 영망이라고 생각함 10-43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꼬인 인생을 살고 있음
	막연한 삶	10-51 졸업 후 기반을 잡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잡은 후 학교 진학을 생각함
	판단 미숙	10-52 23세 나이에도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함
	인정에 끌림	10-13 억지 빚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탈북자가 운영하는 예술단에 들어감 10-16 경영난에 허덕이는 예술단 사장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줌 10-17 자신의 임대주택을 그 사람에게 주고 원룸을 거쳐 고시원에서 생활함 10-18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마음에 같이 엮임 10-19 임대주택을 뺀 6백만 원까지 모조리 다 사장에게 줌 10-23 자신을 이용하고자 도움을 준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갚고자 함 10-27 컴퓨터 학원에서 만난 탈북민의 도움으로 이혼은 하였으나 또 다시 그의 굴레에 빠짐
	원문화 고수	12-20 남한에서도 북한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아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짐 12-30 재북 시 사귀던 남자 친구와 같이 탈북했으나 남한 실정을 알게 되어 헤어짐
현실감각	남한 현실 인정	12-18 남한 드라마를 보고 환상을 가졌으나, 한국에 온 후 드라마가 현실과 다름을 인식함
	한계 상황에서 희망 찾기	10-48 알코올 중독 극복을 목표로 삼음 10-50 내 의지를 총동원하여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이후에 대학 진학 계획
	직업안정성 추구	12- 21 6개월 생계비를 받은 이후에 온 가족이 4대보험 가입회사에 취업함
	현실성	12-31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어렵다는 선배탈북자의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결정함
탄력성 발현	적응력 향상	12-23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는 말투 이외에는 직장생활에서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못함
	인적자본 축적	12-27 포토샵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배우면서 전문직으로 경력을 쌓아감
	문화적응	12-36 좋아도 겉으로 표현을 안하는 북한스타일이 남한에서는 좋지 못한 것을 알게 됨

범주	하위범주	개념
흔들리는 삶	생계유지곤란	10-34 의존하던 사람을 떠나 닥치는대로 일해서 생계를 꾸림 10-35 결혼할 의사 없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동거함 10-37 3년 된 한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
	보상차원에서 남성의지	8-35 가족의 정이 그리워 남자친구가 생기면 엄마 역할을 기대하면서 많은 의지를 함 8-37 동성친구들보다는 남성친구들과 더 잘 어울림
	무용지물이 된 북한의 경험과 기술	4-24 북한에서 땅 뜨질(땅개간)했던 경험들이 모든 것이 압도적인 한국에서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함

2. 꽃제비 사례에 대한 개방코딩(3사례)⁹⁾

꽃제비 경험이 있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적응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128개의 개념, 61개의 하위범주, 1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5〉 개방코딩 결과(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

범주	하위범주	개념
땅 끝에서 버려진 삶	아동기 때 경험한 혹독한 생존 법칙	11-1 8세 때 이미 세상의 혹독한 질서를 배움 13-2 탈북 브로커가 일하러 가지고 하여 탈북하게 됨. 그 이전에도 탈북하려 했으나 무서워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음 13-41 북한에서는 체력이 아니라 독함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로 생존함
	오로지 생존이 유일한 삶	11-3 500그램의 구리를 모아 5원에 팔고 짜배기 2개를 사먹음 11-12 중국에 있는 한국여성이 북한 세관에게 무언가를 전달 해주라는 심부름을 해주고 그 대가로 3~4일 정도 쓸 수 있는 돈 30원과 핸드폰을 받고 심양까지 데려다 줌 11-14 먹을 게 없어서 병살이를 하면서 연명함 11-15 마대 한 자루에 오원정도를 받고 쌀자루 80kg을 모으면 7원을 받아 신발을 사 신음 14-17 돈이 없어 배고픔을 무조건 먹고 도망치기, 맞기로 해결함

9) 개방코딩의 근거가 되는 각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자료를 각 개념마다 기록하는 것이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의거한 연구결과 기술방법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자료가 매우 많고 그에 따라 개념이 128개가 도출되어 개념을 모두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연구지원기관 및 연구심사자와 논의하여 각 개념들의 구술자료는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해를 돕고자 연구참여자 번호와 각 개념의 번호를 제시하였다(예를들면, 사례11의 첫 번째 개념 :11-1)

범주	하위범주	개념
땅 끝에서 버려진 삶	땅거지로서의 악착같은 생활	11-4 공공역 앞에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고, 꽃제비 그룹에 끼어들 13-1 열두세 살 때부터 중국을 넘나들며 구걸과 동냥으로 살아옴 14-20 부모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이 먹던 음식을 먹어가면서 까지 악착같이 살아남고자 함
	보호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로서의 삶	11-6 북한은 927 상무라는 조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꽃제비를 체포하여 구금하고 폭행함 13-40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꽃제비들을 정기적으로 잡아가 때리고 안 먹임
생존을 위한 유랑	동가식서가속하기	11-5 낮에는 소매치기를 하고 저녁에는 시장 자판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잠
	혹독한 생존경험에서 체득한 자기보호기술	11-13 중국에서 병어리 흥내를 내면서 중국인의 의심을 피함 11-27 북한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생존방식을 터득함
	가기는 쉬워도 정착할 수 없는 중국	13-3 북한과 중국을 몇 천 번 다녀왔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빈번히 오고감
	인신매매 탓에 걸림	11-16 중국인이 팔아넘긴 공사장에서 며칠 일하다가 보수도 받지 못하고 도망쳐 나옴 11-24 조선족 민박집 주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여 주인에게 천원을 주고 또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짐
체제 배제	주류집단 편입자체가 어려운 북한 탈출	11-7 집결소에서 피뢰침을 타고 도망쳐서 새로운 삶 모색을 위해 군대에 가려고 했음 11-8 북한에서 제일 우선시 하는 군사복무를 하면서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함 11-10 체제에서 거부당한 이후 8세부터 수백 번 강 건너 다녀온 중국으로 갈 계획을 세움
	북한에서 집계되지 않은 주민	13-27 북한에서 김일성을 모르고 살 정도로 철저하게 고립된 삶 13-28 북한의 국적이 없어서 국정원 조사에서 아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탈북자임을 확인 받음 14-8 북한과 중국에서는 거주지가 없는 등 떠 있는 존재로 살아감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북한	13-30 공기가 좋고 고향이기도 한 북한을 한번쯤 가고 싶음 14-43 북한은 단지 고향이라 궁금할 뿐 통일이 되더라도 다시 가서 살고 싶지 않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체제 배제	양육은 부재하고 관리에만 편중된 북한보육 체계	14-2 고아라서 보육원을 거쳐 중등학교에 있다가 도망쳐 나옴 14-3 보육원에서 빈약한 식사로 위가 망가졌음 14-4 육아원 시절 지원은 있었으나, 떼어 먹는 것이 많아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절임 야채정도를 먹고 자랐음 14-5 추위가 심한 북한에서 몸을 계속 구부리고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키가 작다고 생각함 14-6 외국 지원이 있는 중등학교(보육원)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 시장에서 밥이라도 빌어먹을 생각으로 도망쳐 나옴
	교화보다는 장애인 만드는 교화소	14-11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만 있어야 했던 2년간의 교화소 생활로 인해 운동부족과 영양실조가 생겨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 14-12 교화소에서 아침 저녁 종이컵 하나 분량의 콩과 옥수수 배급을 받아 살아감 14-13 교화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손을 잘라서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었음
	도둑 공화국	14-23 북한의 구리 밀수 조직에서 배달부로 일을 함
폭력으로 인한 무력감	폭력으로 일관된 삶의 의미 상실	11-9 충성심이 사라진 이후 맨 날 맞고 사는 의미없는 삶에 대해 회의가 생김
	일상화된 공포로 인한 무감각	13-4 북한에서의 두려움과 공포에 익숙해져서 탈북과정에서 조금의 공포도 느끼지 않음
	제복공포	13-7 탈북과정은 두렵지 않았으나, 한국 입국시 정부요원들이 양복을 입고 에워싸서 이송할 때는 무서움을 느낌
생존의 땅으로서의 남한	그럭저럭 살만한 땅으로서의 남한	13-9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 온 한국이지만, 남한 생활이 힘들지는 않음
	집과 밥이 있는 남한 동경	11-11 조선족 교회 여신도로부터 남한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경함
	소유에 대한 벽찬 감동	14-39 23년 만에 처음 자기 집이 생겨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했고 진짜 고맙다고 생각함 14-40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니 23년 만에 처음 생긴 자기 집이 걱정되어 믿을 만한 탈북 대학생에게 집 관리를 부탁함
	무한한 자유가 있는 남한	14-42 북한 빼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남한이 좋음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서 남한	14-48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남한에서의 삶이 행복함 14-49 어디를 가나 돈 내라는 경우만 없으면 남한생활에 100% 만족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처절한 생존전략	고립되어 지푸라기라도 잡기	11-17 공사장에서 도망쳐 중국말<세양웨이산-심양역>이라는 말 하나만 믿고 밤낮 20시간을 걸어서 심양역을 찾아감 11-18 십자가 목걸이를 잡고 한국에 보내달라고 평평 울면서 기도함
	무기 징역까지 감수한 탈북	14-15 계속 도강하다가 잡히면 평생 못나오는 무기징역형 감옥을 갈 수 있어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중국을 또 다시 감 14-16 부모가 없어 살기 위해서 탈북 하였으나 계속 도강중에 잡혀서 집결소와 교화소에 들어감
지지체계	천우신조로 만난 한국인의 도움	11-19 어렵게 다시 돌아온 심양역에서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을 삼일 만에 만남 11-20 심양역에서 한국 관광객에게 한국대사관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함 11-21 자신을 도와준 한국인과 나중에 수양부자관계를 맺음 11-22 수양부자관계를 맺은 한국인은 중국에서 대사관을 통한 한국입국은 어려울 것 같아 브로커를 찾아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줌
	노력하는 삶의 동력으로서 지지체계	14-10 주변의 도와주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노력하고 버티면서 살아옴 11-21 극적으로 구사일생의 도움을 받아 뭔가 희망이 생김
	사막한 땅에서 살아있는 인정	14-25 한국 오기 전에 김정일 화(장미꽃)를 재배하는 할머니 집에 의지해서 살았음 14-26 부모 없는 자신을 불쌍하다면서 양부모님처럼 돌봐줌 14-27 의탁한 집의 30대 딸이 교화소에서 생긴 병을 수발해 줘 다시 견게 됨
버리고 싶은 유산	한 맺힌 무학인생	11-31 삶도 서럽지만 문턱만 밟고 나온 학교에서 공부 못해 본 것이 더 서러움 13-5 태국소재 불법입국자 수용소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 면담 시 이름 석 자밖에 못 썼음
	망각하고 싶은 꽃제비의 기억	11-33 북한에서 함께 생활했던 꽃제비 출신들과 한국에서 리더가 되고 돌봐주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함 13-42 북한에서의 기억 때문에 꽃제비들은 남한에 와서 잘 만나지 않음
	탈북 트라우마	11-25 중국에서의 심각한 위기감과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을 오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걸림 11-26 심양에서의 18일간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잡혀가면 젓가락 고문을 당한다는 생각에 심각한 압박감을 느낌

범주	하위범주	개념
적응 혼란기	시간 구속의 압박	11-29 시간에 쪼들리는 서울에서의 삶이 버겁다고 느껴져 조용한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음
	폭발적 성격	11-25 탈북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우울증으로 초기 한 국생활에서 방어적이고 폭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
	제도적 삶의 순응	13-12 남한에 온 이후, 시키는 대로 살면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불만은 없음 13-16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아침 5시 일어나 대안학교에 감
	사회와 단절된 국립학교	13-13 국립디딤돌학교가 국정원과 같이 느껴짐 13-14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교사에 반발하여 밤중에 국립 학교를 찾기에 나옴 13-15 국립학교를 나와 한국에 온지 2년 만에 처음 지하철을 탐
	꽃제비 시절의 자유를 꿈꿈	13-31 제주도를 5번이나 갔으나 자유로운 여행이 아니라서 감흥을 못 느낌 13-33 꽃제비로서 힘들었지만, 단순히 생활한 북한생활보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남한생활이 더 머리를 쓰는 것이라고 힘들어 함 14-7 꽃제비 시절에 맘대로 하는 습관이 있어서 법대로 하는 남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음 14-21 꽃제비 시절 돌아다니는 습관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져 공부를 하지 못함
꽃제비 시절의 탈규범적 습관	14-28 꽃제비 출신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성향이 강해서 남한에서도 서로 잘 어울리지 않고 지냄 14-34 초기 한국생활은 잦은 싸움으로 벌금을 많이 냄	
가족의 재구성	모정 대역 찾기	13-34 고아원에서 어린 남자 아이를 데려가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음 14-46 자신처럼 부모 없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면서 살고 싶음
	만들고 싶지만 두려운 가족	13-35 가족을 만들고 싶지만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주저함
	살아야 되는 이유로서의 가족	11-30 탈북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음
남한진입 장벽	정신력마저 무력화 시킨 남한의 왜곡된 자본주의	11-32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체득한 생활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남한사회에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함
	문화자본 취약으로 인한 적응곤란	13-8 한국에서는 습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북한에 가면 재미있게 살 것 같다고 이야기함 13-10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이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남한 생활 13-36 남한 사람과 자신과의 차이점은 신체적인 차이와 용 모의 차이로만 인식함 14-36 차 접촉사고 조차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 실정이 낯설고 이상하다고 생각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가족유기	밥 한술과 바꾼 핏줄의 정	11-2 부모 이혼 후 친가에 맡겨졌으나 유복한 친가에서도 밥 한술 덜고자 집 밖으로 밀어냄
	가족기능 상실 로 인한 버려짐	11-34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가 동네 동냥집으로 키워줌 13-38 엄마는 네 살 때 총살당하고 아버지는 생사를 모르다 가 19살 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음 13-39 재혼한 아빠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오히려 자신을 버린 아빠가 고맙다는 역설적이고 자조적인 생각을 함 13-43 북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엄마가 죽고 어릴 때 아 빠 집을 나온 그 순간이었음 14-1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2세 때 육아원에 맡겨졌고 18 세 때 보육원을 나눔
	가장 근본적인 서러움으로서의 고아	14-14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부모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큰 힘들이었음
통합적 수용성	남한의 긍정적 문화수용	13-6 집 나온 후 7세부터 피기 시작한 담배를 남한 정착 후 조금 줄임 13-26 사회적 지위가 있는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울한 심리정서적인 부분이 좋아짐 14-9 꽃제비 시절 물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것이 습관 이 되어 정착 초기에는 폭력적이었으나 지금은 많은 것 을 참고 마음을 조절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중임
	남한사람 이해하기	13-32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남한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줌 11-28 남한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에게까지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삶에 대해서 평범하게 생각함
	꽃제비 낙인 벗기	14-18 어릴 때 장마당에서 훔쳐 먹었던 음식점 주인에게 어른이 되어 값을 치르니 마음이 편해짐 14-32 북한에서 자신과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은 다 노숙자 라고 생각하여 성씨를 바꾸려 함
	고통의 흔적 감추기	14-19 머리 속에 북한에서 생긴 상처가 너무 많아 한국에서 장발을 하고 다님
	자기정체성 찾기	14-31 부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에 의해서 지어진 성과 이름을 남한에서 살면서 바꾸려고 함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	굶주림 걱정 없는 미래 기대
가열찬 삶을 꿈꿈		13-20 밤마다 자신을 칭찬해 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으나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함 13-21 자신이 힘들게 사는 이유를 단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부단히 노력함

범주	하위범주	개념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	생의 의지	14-29 고난의 행군시기에 꽃제비였지만 살아낸 것에 대해서 신기해 함 14-30 고난의 행군시기에 꽃제비였으나 살아났고 두 다리가 얼어붙어 절단의 상황에서도 다시 걷는 것을 보면 살라는 운명이라고 느낌
긍정적 정서경험 결여	인간적 정에 대한 그리움	13-22 욕 하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알바보다는 월급은 조금이라도 인격적 대우를 하는 일자리 갖기를 희망함
	낯설은 미래와 행복	13-19 행복하다는 단어를 한 번도 써 본적이 없음 14-37 미래에 대한 계획도 배불러야 생각할 수 있는데 배부른 적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음
강함과 우월추구	유연성이 없어 부러지기 쉬운 강철	11-35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탈북자 누나에게 연정을 품었으나 주변의 반대와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함 11-36 자살 미수 사건 이후, 정신과 폐쇄 병동에 한 달간 강제 입원 당함 11-37 병원에서 자신을 그렇게 한 교사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됨
	자기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위약적 행동	13-11 대안학교에 왔으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면서 지냄 13-44 원래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와서 남한에서 닥치는 일들이 두렵지 않음
탐색과 도전	남한 생활 엿보기	13-23 자기 삶의 행로에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과 대학 진학에 대한 탐색수준에 머물러 있음
	사회적 관계의 양적확대	13-24 핸드폰에 남북한 사람 200명의 전화번호가 있을 정도로 여러 사람과 허물없이 지냄
	적응 초보자로서의 자신감	13-37 남한아이들도 북한에서 생활한다면 주눅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눅 들지 않음 14-35 남북한의 차이는 자유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 말고는 북한과 남한은 동일하다고 입국 초기에도 생각함 14-45 남한의 아이들과 자신과의 차이는 부모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다는 점이라고 생각함
	늦깎이의 성실	14-22 한글과 한자를 몰랐으나 한국생활 1년 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침 14-38 하나원에서 한글과 숫자를 처음 배움 14-47 회사 사장과 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음
자기 주도적 타협으로 이익 챙기기	14-33 탈북 브로커는 4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자신을 한국에 팔았다고 생각해서 250만원에 합의를 봄 14-41 미성년자라 담배를 구입할 수 없었으나, 경찰까지 불러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담배를 못 피우냐고 강력히 항변하여 담배를 구입하여 피우게 됨	

제3절 축코딩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나서 북한에서 혹독한 영유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여러 동기와 경로로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여 일정 시간의 남한 정착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20대 초중반의 탈북청소년들의 인생과정을 심층인터뷰 했다.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필사본을 개방코딩한 결과에 근거해 축코딩에 의해 구축한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축코딩의 내용을 행위 흐름의 과정에 따라 그림의 형태로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Strauss and Corbin(1988)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으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의 범주인 “인과적 조건”과 전략이 발생하는 특정 조건들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축코딩에 의한 패러다임 모형은 작용·상호작용에 밀접한 것으로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중심 범주로 구성된 “현상”, 중심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협소하고 광범위한 조건들이라 할 수 있는 “중재적 조건” 및 중심현상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결과”를 단계별로 모형화한 것이다.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축코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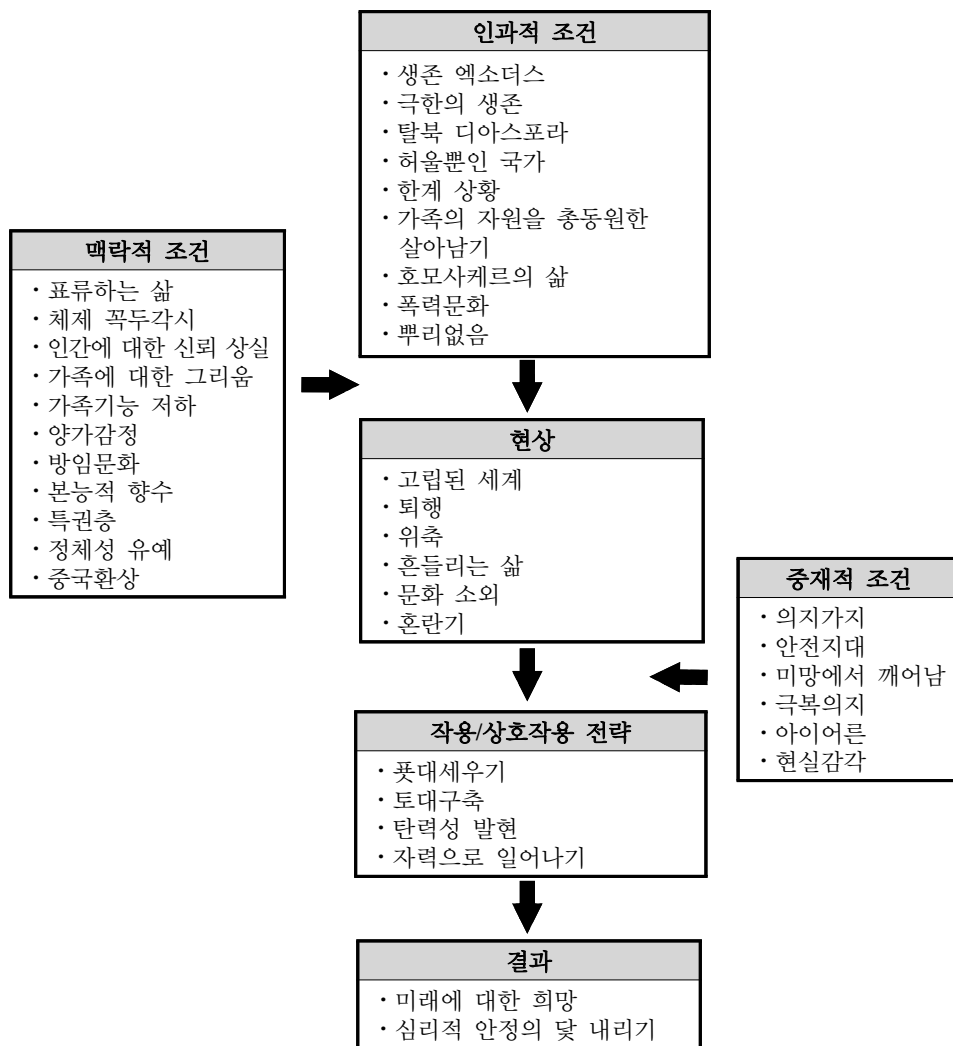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분석(일반 탈북청소년 사례)

12명의 탈북청소년들의 중심현상은 고립된 세계, 퇴행, 위축, 흔들리는 삶, 문화소외, 혼란 등 이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과적 조건으로 북한에서의 매우 불안정한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는 생존 엑소더스, 극한의 생존, 탈북 디아스포라, 허울뿐인 국가, 한계 상황, 가족의 자원을 총동원한 살아남기, 호모 사케르의 삶¹¹⁾, 폭력문화, 뿌리 없음과 같은 9개 범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과적 조건과 함께

10)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John W. Creswell.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서울:학지사. p.282. 2005.

11) 호모사케르의 삶은 종교 공동체 그리고 모든 정치 생활에서 배제된 삶이다. 호모사케르의 자기부족 의례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유효한 법률행위도 수행할 수 없다. 게다가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실존 전체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별거벗은 생명으로 축소되며, 따라서 끊임없이 도망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피난처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Giorgio Agamben, 박찬우 옮김, 2008: 345). - 최현실(201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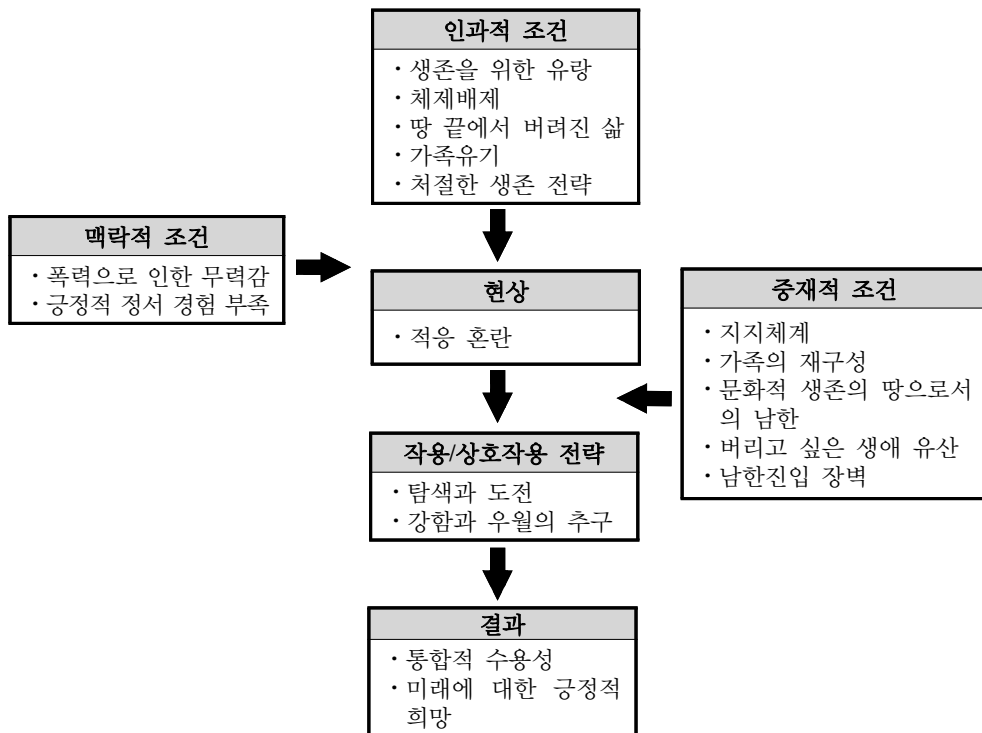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표류하는 삶, 체제 꼭두각시, 인간에 대한 신뢰 상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기능 저하, 양가감정, 방임문화, 본능적 향수, 특권층, 정체성 유예, 중국환상 등 11개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중재적 조건은 의지가치, 안전지대, 미망에서 깨어남, 극복의지, 아이 어른, 현실감각 등 6개의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풋대세우기, 토대구축, 탄력성 발현, 자력으로 일어나기 등 4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심리적 안정의 닛 내리기로 탈북청소년들의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의 생활 경험을 도식화 하였다.



〈그림 2〉 탈북 청소년들의 경험 과정과 내용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일반사례)

2.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분석(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 사례)

꽃제비 경험을 한 탈북청소년 3명의 중심현상은 적응혼란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과적 조건으로 북한에서의 매우 불안정한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유랑, 체제배제, 땅 끝에서 버려진 삶, 가족유기, 처절한 생존 전략 등 5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과적 조건과 함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폭력으로 인한 무력감, 긍정적 정서 경험 부족 등 2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중재적 조건은 지지체계, 가족의 재구성, 문화적 생존의 땅으로서의 남한, 버리고 싶은 생애 유산, 남한진입 장벽 등의 5개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탐색과 도전, 강함과 우월의 추구 등 2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통합적 수용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이라는 2개의 범주로 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들의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의 생활 경험을 도식화 하였다.



〈그림 3〉 탈북 청소년들의 경험 과정과 내용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꽃제비 경험 사례)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살아온 많은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특히, 그 시기에 출생하였거나 영유아기를 보낸 탈북청소년, 즉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유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시기라기 보다는 가족 등의 주양육자의 보호와 양육 속에서 전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가족을 포함한 성장시기의 주변 환경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북한에서 가장 힘들고 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양육환경 및 가정환경은 어느 일반적인 환경과는 많은 다른 특징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 15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탈북청소년들의 북한에서의 생활경험, 탈북과정,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북한에서 특별한 경험들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설계해 가는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질적연구 방법론 중 근거이론 방법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느 10대 탈북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들과 비교분석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들만의 고유한 경험과 인식을 담아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대 초반 탈북청소년들의 고난의 행군시기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1) 고난의 행군시기의 생활고

연구참여자들은 1994년과 1995년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난 경우가 3명, 2-4세인 경우가 11명, 6세인 경우가 1명으로 고난의 행군시기를 직접 경험한 청소년들이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계기로 심화된 식량난 때문에 배급 중심의 사회임에도 장마당을 통해 자력으로 살아야 했던 북한의 변화가 이들 청소년들의 삶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고난의 행군시기의 고달픈 삶을 비껴간 3명의 탈북청소년이다. 이들은 당 간부였던 아버지 덕에 배고픈 경험이 없었고 우수한 머리와 좋은

출신성분으로 인해 제1중학교를 마쳐 대학에 다니다 온 경우이다. 또 다른 2명의 사례는 광부인 아버지와 장마당에서 일한 어머니 덕에 굶주림에 대한 경험은 없었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배고픔의 고통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지만 매우 불안정하고 힘겨운 시기에 북한 사회에서 생활한 것만으로도 이때를 힘들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정은 가정불화 및 폭력으로 이어져서 불안한 양육환경에서 자랐으며 학교에서 강제노동 등에 동원되는 것은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생존을 위한 극한의 경험을 한 9명의 사례로 극심한 배고픔, 가족의 이산, 부모로부터 잘 양육 받지 못한 괴로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서러움 등을 가지고 있다.

배급사회에서 배급이 중단된 고난의 행군시기는 생존방법 자체가 소멸된 시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아사위기를 경험한 시기였다. 연구참여자들도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하였는데, 장마당 장사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부모의 노력도 있었지만 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로웠고 어린나이에 부모를 도와 장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산골 오지에서 산을 개간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경우도 있었다. 어린나이에 식량을 구하러 한 달 이상 집을 비운 부모를 마냥 기다리면서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경험도 하였다.

생활고가 만들어낸 가정불화가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여러 불안정적인 요인들이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가운데서 영유아기를 보낸 연구참여자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부모이혼을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 더욱 의식주가 어려워졌다. 이웃과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보호받을 곳을 찾았으나 갖은 노동과 집안일 등을 통해서 겨우겨우 삶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가족의 울타리에 갈급함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많았다.

세 번째 경우는 부모의 이혼,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재혼 등의 가정해체로 인해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버려진 존재처럼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꽃제비의 경우이다.

이들은 부모나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를 받아 본 경험이 없고 오히려 가족에게 버려진 아픔과 사회나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경험하였다. 하루하루 생존 문제에 직면해야 했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불법과 폭력으로 삶을 유지해 왔다. 동시에 꽃제비 집단 내부에서의 폭력과 상무라는 조직을 통해서 꽃제비를 체포 및 구금하는 국가

의 폭력을 당해야 했고 추위와 배고픔 등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없이 구타를 당하고 구금시설에 갇혀 지내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신체발달이 잘 되지 않아 키가 작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살면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만을 의지해 중국을 오가면서 생계유지를 해왔다. 탈북의 계기도 중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던 중 우연하게 접한 브로커 및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른 것으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나 탈북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탈북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고 중국에서 혹독한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해야 했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고 공격적이며 방어적인 성향이 한국 정착 초기 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2) 가족기능 상실과 보호 체계가 무너진 가족

(1) 식량난이 부른 가정해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식량난에서 비롯된 생활고가 북한의 많은 가정들을 해체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북한 사회에서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가정 내 폭력이 사회적인 풍토만이 아니라 생활고가 그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식량난과 생활고는 가정폭력을 조장하고 지속적인 부부 갈등을 유발해 부모가 이혼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혼 후 탈북하여 중국으로 떠난 여성(엄마)들도 많았다.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결국 연구참여자들의 성장발달에 매우 치명적인 상처와 어려움을 갖게 하였다. 1차적인 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붕괴되면서 장기간 유기 및 방임을 당한 자녀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생부에게도 버려지고 친척과 이웃에게 배척되는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리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폭력이 일상화된 가정 분위기 속에서 가족 간의 친밀감과 애정을 경험하기 어려웠고 부모의 부재, 특히 중국과 한국으로의 탈북에 따른 모성 부재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주었으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되는 양가 감정을 가지게 하였다.

(2) 무너진 가족 울타리(기능)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연구참여자들은 고난의 행군이 불러온 가정해체로 인해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였다.

배고픔으로 인해 가족체계가 무너져 일가친척들을 찾아 갔으나 돌봄을 거부당했고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낸 생계비조차 친척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여전히 배고픔을 경험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가족애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가족 및 친척들을 보면서 심한 배신감과 자신의 출생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도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었고 부모의 애정이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정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생활습관 및 인성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그저 직면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에서의 교육경험

(1) 허울뿐인 무상 의무교육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은 연구참여자 15명중 3명이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1명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들 중 4명은 무학이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을 받은 3명은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은 무학이었으며 8명은 소학교 및 중학교 중퇴상태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제 모습은 그것과 달랐다. 학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학생이 준비해야 하고 별도의 돈 등을 학교에 내야 하는, 실제로는 무상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가정이 해체되어 친척집 등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학업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생계를 위해서 부모와 장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워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준비물들을 챙기는 것도 불가능했다 결석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을 보내서 출석을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학교를 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 연구참여자인 탈북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학교와 학업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였다.

(2) 반은 노동자 반은 학생의 학교생활

한편,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한 경우도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종 학교일 및 학교 농사일, 농장 일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학교도 자급자족을 해야 하므로 수업보다는 고된 노동을 많이 해야 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자유가 통제되는 집단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이 갑갑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각종 단체 행사들도 고되고 힘든 경험이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된 학교였지만, 무학의 탈북청소년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것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있다.

4)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

고난의 행군시기를 살아온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다양한 성찰들을 하고 있었다.

첫째, 하루하루 근근이 버둥거리며 버티는 삶이라고 회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의 여파로 배고픔과 불안정한 삶의 여건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견뎌내고 버티 낸 삶으로 기억하였다.

둘째, 숨 쉬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회고하였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불안정은 심신의 괴로움뿐 아니라 사고 능력의 정지로 이어져 연구참여자들이 과거의 삶을 회상할 때 의미 있는 기억이 적어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없었던 삶이라고 회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이라고 회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식주 문제 해결도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 순간 삶이 어려웠고 모든 가능성이 제한된 사회였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며 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삶으로 회고하였다.

넷째, 세뇌교육에 의한 사유가 정지된 삶이라고 회고하였다. 철저한 세뇌교육과 제한된 정보로 인해서 사유가 정지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자신들의 삶이 어려운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생각도 못하였고 북한 현실에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개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삶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의 자세를 갖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회고하였다.

다섯째, 부모와 가족울타리의 빈약함 속에서 심신이 고단한 삶이라고 회고하였다.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특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외롭고 서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길지 않은 인생살이 속에서 북한에서 산 세월이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고 회고하였다.

여섯째,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되지만, 다 잊고 싶은 과거라고 회고하였다.

북한에서의 혹독한 생활경험이 마음 속에 깊게 자리해서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그 기억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잊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과거, 현재의 삶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 회고하였다.

2. 20대 초반 탈북청소년들의 탈북과정

연구참여자들의 탈북 동기는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권유 및 조력에 의한 탈북이 5명이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자발적으로 탈북하여 남한에까지 오게 된 경우가 6명이었으며 북한에서부터 한국행을 생각한 경우는 4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의 꼬임 및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자도 6명으로 탈북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 목숨을 건 탈출

탈북을 경험한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그 자체가 불법이고 발각이 되는 경우 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목숨을 건 탈출과 같은 탈북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브로커의 도움을 통해서 탈북하였으나 브로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어려움도 많이 경험하였다. 그것으로 인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생명의 위협과 극도의 불안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중국에서 메콩강을 건너 태국을 경유해 남한에 입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안에게 발각될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메콩강에서 배가 뒤집혀서 생명을 위협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탈북경험이 극도의 불안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에서 혹독하게 산 것과 비교할 때 무용담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2) 표류하는 이방인의 혹독한 중국에서의 삶

연구참여자 중 몇 명은 탈북과정 중 중국 체류 시기를 트라우마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다. 브로커 도움 없이 생존을 위해 탈북하였으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거처가 없어 가족이 흩어지고 인신매매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공안의 눈을 피해 몇 년을 간헐 지내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혹독함을 체험하였다. 또한, 중국말을 전혀 모르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도 했다. 브로커의 꼬임으로 탈북했으나 인신매매가 되어 건잡을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며 자기 삶의 주도성을 상실해 버리기도 했고 인신매매된 상태에서 기적처럼 빠져나와

한국에 온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다고 하였다.

3) 가족의 조력으로 비교적 무난한 탈북

일부의 탈북청소년들은 먼저 탈북한 가족 및 친척의 조력과 부모가 탈북을 사전에 준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탈북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중국에서부터 태국까지 이르는 긴 거리를 불안 속에서 이동해야 했고 메콩강에서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3. 20대 초반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생활과 적응 경험

1)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삶을 시작

연구참여자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탈북당시 학령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학이거나 학교를 중퇴한 경우가 12명으로 학업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남한에 입국했을 당시 이들은 학령기 청소년이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남한에서의 첫 출발은 교육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3명의 탈북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중 3명은 가족과 함께 탈북하거나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일반학교를 다녔다. 그 외 9명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남한사회에 대한 경험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안학교에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검정고시에 필요한 학습을 하였고 인가된 학교를 통해서 고등과정을 졸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의 경우는 짧은 대안학교 생활을 마치고 자력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안학교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집처럼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며 남한사회 전반을 학습하고 배워가는 경험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생의 삶

15명의 연구참여자 중 현재 대학생인 경우는 10명이다. 4명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명은 대안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모색하는 중이다.

탈북당시 학령기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안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학입학특례제도를 통해서 상당수

가 대학에 진학하였다. 탈북청소년들에게 대학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한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직접 경험하고 직면하는 현상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대학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북한에서와는 다른 긴장과 불안을 갖게 하는 곳으로 자신의 취약한 인적자본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게 되어 자신감을 잃는 곳이기도 하였다. 자신이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학벌과 스펙 중심의 남한사회를 적나라하게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전공 공부와 영어, 그룹과제, 창의적 활동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극복해 가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활을 통해서 접하게 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이 교수에 의해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고민도 하였다. 생계급여를 받고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많았고 대학 졸업 이후에 보다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3) 현실적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연구참여자들 중 4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2명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1,500,000원~1,800,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2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소 힘겹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중 한 명은 무난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보낸 탈북청소년이며 한 명은 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살아온 생활 경험과 무관하게 남한에서 현실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취약한 삶을 살았던 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삶에 대해서 치열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외로운 삶

연구참여 탈북청소년들이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는 4명에 불과하였다. 한국에 가족이 있어도 부모의 재혼 및 직장생활로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 아예 부모가 없는 경우까지 다양한 이유로 부모 없이 독거상태로 살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이 상당수이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에서부터 가족해체를 경험했고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에서의 삶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살아가

는데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안정은 가족으로부터 공급되는데, 대부분이 독거 상태로 있거나 학업을 위해서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남한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힘듦을 토로할 상대가 없으며 부모와 형제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5) 탈북과 함께 꼬여버린 인생

일부의 경우이지만 생존이 어려운 북한에서 중국을 동경하다가 브로커의 꼬임에 빠져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하고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견갑을 수 없이 꼬여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남한에 와서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타자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심신이 망가지고 알코올중독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다행인 것은 이 탈북청소년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4. 20대 초반 탈북청소년들의 자기성찰과 미래설계

1) 무의미한 북한 생활 경험하면서도 의미있는 정신력과 내적 에너지를 주는 경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살아온 시간이 무의미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에 북한에 살면서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생활경험이나 생활태도 및 방식들도 남한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크고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새롭게 배우고 익히면서 축적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의미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의 정신력과 내적인 에너지라고 하였다. 남한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업능력이나 사회문화적인 기술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력과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2) 본인 선택이 아닌, 상황적 선택 및 여타의 대안 없음에 따른 일방적 인생살이

연구참여자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시기가 학령기 청소년기였으므로 한국 정착이후 삶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 세운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나원의 교육은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게 하기 보다는 학습 및 학교진학을 위한 진로지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남한에서 주어진 절차와 내용대로 그저 따라 갔을 뿐이라고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 인생을 주도성이 없이 따라간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비교적 높은 만족감, 반면 분주하게 살아온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공허감

연구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3년~5년 정도 생활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문화적 차이, 북한에서의 상처, 거친 생존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았으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국에 입국하여 주어진 대로 대안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는 분주한 인생살이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안학교를 가지 않은 경우도 남한생활 적응과 인생살이를 위해 공부와 고된 근로활동을 하느라 쉽 없이 달려온 생활이라고 회고하였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는 만족감을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공허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회복되지 않은 심리적인 상처, 남한생활에서 지친 삶, 심리적 위축,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및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겠다.

4) 노력 중, 극복 중, 도전 중, 학업 중, 고민 중, 탐색 중, 선택 중, 성장 중인 삶

20대 초중반의 연구참여자들은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년기를 살고 있는바 현재도 성장하는 중이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남한생활이지만 노력중이고 여러 새로운 상황 속에 자신을 내던져서 도전중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학업중이다. 여러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남한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 중이며 많은 갈등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포기하기 않으려 노력하면서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5)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삶

북한에서는 미래를 생각조차 못해봤고 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한국에서의 삶은 자유가 있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막연하지만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갖고 성실하게 나아가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 꿈과 목표가 북한에서의 생활고와 연결된 형태의 꿈이 많았는데, 특히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들이 많았다. 한편, 대학 전공과 무관한 미래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공과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일하려는 꿈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

므로 통일한반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제2절 정책 제언

1. 강점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15명의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고난의 행군시기를 어렵게 견디어 낸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회복하는 탄력성(resilience)¹²⁾이 크고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hony & Gohler(1987)는 탄력성은 아동들이 스트레스와 외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루는 총체적인 개념이며 대처결과로써의 역량 및 적응과 유사하게 탄력성은 성장과 희망을 다룬다고 하였다.¹³⁾ 역경과 고난에 직면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역량을 유지하며, 부정적 생활사건 속에서도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내는 능력들을 일컫는 개념이 탄력성이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생의 위기와 극심한 스트레스 및 외상을 경험했으나 이를 잘 견디어 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탄력성은 가장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 정도가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매우 성숙한 수준으로 탄력성이 높다. 특히 북한에서 교육경험이나 가정환경 등이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력이 좋고 자기 표현력이 좋으며 남한에서 학업수행 정도가 비교적 우수한 것을 볼 때 더욱 강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한에서의 생활전반을 볼 때 불안정한 모습도 있으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하면서 회복과 성장이 진행 중인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탄력성이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간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남한청소년들에 비해 취약한 점들을 발견하여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지원책이었는데 이제는 탈북청소년들만이 가진 탄력성과 같은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12) 탄력성이라는 용어의 기본 개념은 늘어나 있거나 압출된 상태에서 되튀겨 오거나 복원되는 행위이며, 강점, 정신, 그리고 좋은 기분을 회복하려는 행위이다. 그리고 탄력성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 외상, 스트레스 그리고 위협의 다른 형태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눈에 띄게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양옥경·최소연·송인석·권지성·양후영·염태산 옮김. 『사회복지와 탄력성』, 나눔의집. p.47. 2004.

13) 양옥경·최소연·송인석·권지성·양후영·염태산 옮김. 『사회복지와 탄력성』, 나눔의집. p.57. 2004.

그것이 그들의 남한사회적응과 미래를 준비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대 초중반의 탈북청소년들이 응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며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강화하여 강점이 부각되고 강점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심리 정서적인 지원

1)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지원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인 외상을 심각하게 입었다. 이러한 상처들이 탄력성을 통해 얼마간 치유되기도 하지만, 내면세계에 깊게 묻혀있는 상처들이 아직 더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외상은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을 설계해 감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외상을 다루어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혹은 미술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으며 심리적인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안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지원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탈북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일부의 경우 지역의 하나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 특히, 20대 초중반의 고난의 행군시기를 심각하게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족적 차원의 상처회복과 가족관계성 증진을 위한 지원 : 가족치료 지원

고난의 행군시기의 생활고가 만들어낸 가정해체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서먹하고 어색하며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섭섭함이 있는,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가족관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처는 탈북청소년들에게도 있지만, 자녀를 두고 떠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원 모두에게도 상처가 컸다.

따라서 북한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이산을 경험하고 여러 역경을 경험한 이후에 재결합한 가족들을 위한 가족 상처 회복과 관계성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은 상대방이 경험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며,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분노,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직면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러한 직면의 과정을 돕는 가족치료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와 상담분야에서는 가족 상담과 가족치료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개개인의 문제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족 내의 문제해결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영역을 활용하여 탈북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가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심리정서적인 외로움 극복을 위한 지원

북한에서도, 탈북 후 한국에 와서도 연구참여자들에게 만들어진 가족 울타리가 매우 적다. 대부분 가족의 울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울타리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주변의 지인과 교회, 하나센터 및 대안학교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상담 등을 제공받고 있으나, 그것이 가족의 울타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많은 시간과 삶을 공유하면서 작고 소소한 것부터 크고 중요한 것까지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양 부모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링을 고민해 본다. 최근 탈북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관련분야에서 멘토링 활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금 대체로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은 학습 멘토링이 많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멘토링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멘토를 발굴해 제도적으로 잘 육성하고 훈련하여 역량을 갖춘 멘토들을 하나원에서부터 탈북청소년들과 결연시켜 남한 생활 초기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멘토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성인기를 위한 준비 필요 (결혼과 가정관 형성을 위한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매우 폭력적인 부부관계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경험하였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 본 경험이 적으며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이제 성인기에 접어드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결혼과 가정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및 상담이 필요하다.

3. 다양한 진로지원 방안 모색

지금까지 탈북청소년들의 남한 정착지원 방향은 대체로 교육적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여러 특수성을 고려한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 대학 특례입학 및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심의 교육적 지원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진로 마련을 위한 정착지원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특히 오랜 학업중단과 단체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들의 경우는 학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집단생활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문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형태의 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대안학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연구참여자 15명중 9명이 탈북청소년 전용 대안학교를 통해서 남한에서 삶을 시작하였다. 가족이 있든 무연고 청소년이든 대부분이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안학교는 집과 같은 역할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가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다. 많은 탈북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는 기초학습을 제공받고 학력을 확보하며 신체발달과 신체질환의 치료, 심리치료 및 정서안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및 진로결정 등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들 대부분이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학교만 내실이 있는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합의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전문화되고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의된 지침이 없어 각 기관별 편차가 크고 교사 및 지원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안정과 학업향상,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훈련,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을 위해서는 교과목별 교사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5. 무연고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의 재정비 필요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정착지원 체계가 보다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법적인 보호자로서 정착금 관리 및 주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은 그룹홈과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 당시에는 무연고였지만 일부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난 후 가족들이 합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꽃제비 경험 탈북청소년들과 같은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은 가족이 없는 상황이므로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가족과 같은 울타리를 경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그룹홈보다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그룹홈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같은 국립디딤돌학교가 대규모 기숙형학교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무연고탈북청소년들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대안학교 및 디딤돌학교에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꽃제비 경험 청소년들의 경우 더욱이 대규모 집단생활보다는 소규모 생활이 그들의 삶을 더욱 깊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제3절 함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청소년기 전체의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났거나 영유아기를 지내고 이후 북한의 경제적인 취약시기를 관통하면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한 탈북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속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 중인 탈북청소년들의 생애전반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 경험을 한 탈북청소년들의 취약점보다는 강점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연구로서 탈북청소년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한 후,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이해하고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20대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본 연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을 통해서 고난의 행군시기가 북한사회 가족 및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가족 및 가족관계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는 경우가 많은 바, 변화하고 있는 북한식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족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 중에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출생, 영유아기 성장과정을 경험한 20대 초반의 탈북청소년들의 북한-탈북과정-남한 생활 전반을 살펴본 연구였다.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연령층의 탈북청소년들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 혹은 유사점을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그 시기의 탈북청소년들의 삶 그 자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연령층의 탈북청소년 혹은 남한의 20대 청소년들과의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부록 1. 연구참여자 동의서 양식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제목 : 고난의 행군시기 영유아기를 보낸 20대 초반 탈북청소년의 남한 적응 연구
- 연구자 : 김선화(공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학 박사 :연락처-*** /이메일-***)

본 연구는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청년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탈북청년들의 북한에서의 생활, 남한에서의 생활 경험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남한 정착 그리고 향후의 인생설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와 진행되는 심층 면담은 약 1시간30분 ~ 2시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와 진행된 심층면담의 결과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많은 탈북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남한정착 및 통일이후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기 전이나 응답하는 중이라도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될 귀하의 신상에 관한 자료는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누설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결과물이 인쇄될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될 수 없도록 변경된 정보가 최소한 소개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한 북한의 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족 모두의 남한사회 정착 및 이후 통일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서 제공한 정보가 본인의 허락없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고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 기록이 지워지는 것과 연구결과물이 발행되더라도 신상정보가 변경되어 실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 : _____

날짜 : 2014년 ____월 ____일

부록 2. 인터뷰 질문지 양식

인터뷰 질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난의 행군시기의 <u>사회, 문화, 교육, 의료적 경험</u>이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생활 적응 및 미래설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고난의 행군시기의 <u>가족관계 및 가족 내에서의 생활 경험</u>이 남한생활 적응 및 미래설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 북한에서 삶 - 성장과정에서의 경험(고난의 행군시기 / 그 이후 시기)

<p><북한에서의 일상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및 또래 친구관계는?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 동네 분위기 상황들은? - 식생활 상태는? - 건강상태 및 의료경험은? 	<p><인식></p> <p>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 이 시기를 견디게 한 요인? 이 시기에 대한 성찰?</p>
<p><북한에서의 가정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형제의 생존 및 해체경험이 있었는지요? - 가족의 기능(역할)이 원활했는가? :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 현재의 관계는? -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 현재의 관계는? - 가족문화 및 분위기는? 	<p><인식></p> <p>가족에 대한 힘든 기억?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 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p>

2> 탈북과정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과정 : 탈북시기, 동행자, 경로, 비용, 누구의 도움, 탈북기간 - 제3국 체류기간동안의 경험(중국) - 제3국(태국 등)에서의 경험? 	<p><인식></p> <p>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 과정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이 시기의 경험에 대한 성찰내용은</p>
--	--

3> 남한생활 및 적응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경험과 어려운 점은? - 정착지원제도 및 기관 이용현황은? - 사회적 관계망 및 대인관계 형성 경험은? - 학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험은? -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 (가족구성, 학업여부, 경제활동여부, 사회적 지지기반 및 관계망에 대한 분석) 	<p><인식></p> <p>남한의 청년들과 나와 유사한 부분과 차이 점은? 나의 강점은? 나의 약점은?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만족정도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 장래의 꿈은?</p>
---	---

참고 문헌

- 강미정.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험담에 나타난 트라우마 분석”, 「문학치료연구」 (2014), p.30.
- 금명자·권해수·이희우.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제16집 2호(2004), p.295-308.
- 길은배·문성호.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 김경준·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김선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연구: 정착장려금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종국.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명선·이동훈.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0집1호(2013), p.39-64.
- 김현경. “남한거주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심리적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제14호(2013).
- 김형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문성호.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복지의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제7집1호(2005), p.5-17.
- 박윤숙·윤인진.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41집 1호(2007), p.124-155.
- 박정희. “새터민 대학입시생과 대학생의 생애사를 통한 대학생활 사전 적응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진우·옴김. 『호모사케르: 주권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박철옥·안현의.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상담학 연구」 제10집 4호(2009), p.1891-1905.
- 배임호·양영은. “미국 이주 초기 한인중학생들이 인식한 한국의 학교생활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개입적 관점에서”, 「학교사회복지」 제21호

(2010), p.143-183.

- 서홍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자료. 2010.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질적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안혜영.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국립보건원보」 제37집(2000),p.374-379.
- 양옥경·최소연·송인석·권지성·양후영·염태산 율김. 『사회복지와 탄력성』, 나눔의집 (2004), p.47-58.
-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유가효·방은령·한유진.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집 5호(2004), p.185-196.
- 유태균 율김. 『사회복지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나눔. 2008.
- 윤인진. 『북한이주민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아산재단연구 총서 제280집』, 집문당. 2009
-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2호(2003). p.343-364.
- 윤지혜·오영림.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성장(PTG) 체험연구: 탈북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제17집 12호(2010).
- 이근희. “동료지원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제36집 2호(2011).
-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3집 1호(2002), p.175-224.
- 이수연.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15집 1호(2008), p. 81-113.
- 이수정.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반차별 - 반억압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소래. “남한 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향규·이강주·김윤영·한만길·김성식. “탈북청소년의 교육중단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2011.
- 이혜경.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2003.
- 임혜정.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여성의 사회적 관계 변화: 40-50대 함북출신 탈북 여성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임춘희.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 제18집1호(2009), p.93-112.
- 장창호.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제5집(2001), p.203-235.
- 정병호. “북한기근의 인류학적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6집1호(2004), p.109-140.
- 정병호·정진경·이향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체계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정진웅.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열린교육연구」, 제12집2호(2006), p.182.
- 장문강.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제19집 (2008), p.195-234.
- 정진경·정병호·양계민.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제16집 2호(2004), p.209-239.
- 정향진). “탈북청소년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제11집1호(2005), p.81-111.
- 조영아·전우택. “북한출신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집1호(2004), p.167-186.
- 조흥식 외 옮김.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2005.
-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변화:축적 체제와 조정 기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북한연구」 제8지1호1(2005). p.39-79.
-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 14집2호(2010).
-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정착지원 방향 연구”, 「2010 북한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통일부(2010), p.449.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5> (검색일 2014. 4)
-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북녘에서 살다 온 16인의 생생한 교육 체험기”, 우리교육. 1999.
- 한만길·이향규·강구섭·김윤영.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교육지

- 원센터 2차년도 사업성과”, 한국교육개발원. 2011.
- 한만길.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09.
- 허은영·강혜영.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비교”, 『상담연구학』 제8집4호(2007), p.1485-1500.
- 홍덕기.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학교 및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홍순혜·박윤숙·원미순.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개인적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제52집2(2006), p.223-240.
-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연구”, 통일부. 2003.
- 조정아. “탈북 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제17집2호, 2014.
- 홍순혜·원미순·이윤선·방진희.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 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 홍현미라 외.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2008.

Andre Sourander, “Behavior Problems and Traumatic Events of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Child Abuse & Neglect* (1998) 22(7): 719-727.

Brooke Wilmsen, “Family separation and the impacts on refugee settlement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2013) 48(2): 241-262.

Cobin, J and Struss. A.,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3s SAGE Publication. 2008.

George M. Realmuto et al., “Adolescent Survivors of Massive Childhood Trauma in Cambodia: Life Events and Current Sympto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92) 5(4): 589-599.

Janice H. Goodman, “Coping With Trauma and Hardship Among Unaccompanied Refugee Youths From Sud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04) 14:1177-1196.

Julia Huemer et al.,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in African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Repression,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Child Psychiatry Hum Dev* (2013) 44: 39-50.

Linda L. Halcón et al., “Trauma and Coping in Somali and Oromo”,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4) 35: 17-25.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 Thousand Oaks. CA.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 Tammy Bean et al., "Comparing Psychological Distress, Traumatic Stress Reactions, and Experiences of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With Experiences of Adolescents Accompanied by Par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April 2007) 195(4): 288-297.

김정일-김정은 체제 대남정책의 새로운 이해: :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효진

(사)남북경제연구원

제1장 서론	291
제2장 이론적 논의	298
제3장 북한 대남정책의 이해	315
제4장 김정일-김정은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 탐구	326
제5장 김정일-김정은 대남정책의 비교: 체제형성과 승계의 기원과 차이	339
제6장 결론	359
참고 문헌	363

표 목차

<표 1> 북한 정권의 시기구분	297
<표 2> 과정과 결과에 따른 제도변화 유형	303
<표 3> 신제도주의 학자들의 제도 개념	303
<표 4> 개념적 인식틀	312
<표 5> 이론적 분석틀의 적용결과	313
<표 6>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변화	316
<표 7> 북한 조선 노동당 규약의 수정	317
<표 8> 김정일-김정은 등장과정 비교	344
<표 9>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13년 신경제관리개선체계 비교	347
<표 10> 북한의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	348
<표 11>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도발과 UN제재	356
<표 12> 1990년대 이후 UN의 대북제재	357
<표 13>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차별 항목	358

그림 목차

<그림 1> 제도-환경-행위자의 상관관계	309
<그림 2> 대남정책의 형성이 변화해온 구조	353

요 약 문

‘정치학의 역사는 비교의 역사다’는 말이 있다.¹⁾ 곧 비교를 통해 구조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명제다. 김정일-김정은 대남정책의 비교는 단지 비교를 위한 비교로 그치지 않는다. 항상 전제돼 오고 기대돼 왔던 오래된 질문이 있다. 북한은 변하는가, 지속되는가. 이 변화와 지속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으로 닫히고 강압적인 북한의 체제가 ‘변하길’ 염원하는 연구자들의 희망이 투영된 연구 질문이다.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품고 고민했던 주제는 바로 북한 체제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였다. 변화는 무슨 변화를 의미하는가. 체제의 변화, 이념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모두 내포된 단어이다. 지속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체제-이념-정책-인식을 포섭하며 개념화한다면 ‘제도’라고 명명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제도의 총체를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체제의 변화란 곧 북한의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정책은 북한 내부의 여타 다른 부문의 정책방향과 긴밀한 내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경제정책과 불가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내재적 특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북한의 통일정책과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남정책이 얼핏 북한의 통일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통일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수단일 뿐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북한의 통일정책이 북한방식의 통일 실현을 위한 지도이념이라면 대남정책은 보다 실제적이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 전술을 갖고 추진되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다.

따라서 30년 가까이 이어왔던 김정일 시대의 제도와 3년에 불과한 김정은 시대의 제도를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적실성(relevance)이 담보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두 정권이 추구했던(하는) 대남정책의 심화된 이해를 위해 우선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이 어떻게 ‘변화와 지속’을 유지해 왔는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볼 것이다(4장). 그리고 그 연장에서 공식 출범한지 3년 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어떤 ‘변화와 지속’을 선택할 것인지 가늠한다. 그 과정에서 추출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한다(5장). 이 변화와 지속의 관점이 양 시대 대남정책을 비교하는 구체적 인식의 틀이다.

1) 비교정치학자 H. Wiarda의 말.

그러니까 본 논문은 2012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잠시 외부의 시선으로 기대됐던 북한의 변화가능성, -순전히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젊음 등으로 기대된 개방의 기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전 정권과의 차별화가 없는 것인지 주목한다. 외견상 차이가 없음에 대한 원인분석이 아니라 그 차이가 없음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이란 인식론에 착안하여 개념의 인식틀을 제시한다. 제도가 무엇이나,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느냐, 제도적 시각의 장점과 한계가 무엇이나는 것은 또 하나의 거대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연구범위를 총칭하여 제도주의라고 한다. 또한 최근의 경향은 과거 행태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정적인 개념의 제도주의와 구별하여 신제도주의라는 용어로 공용된다. 여기에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본 논문이 취하는 입장은 역사적 제도주의이다. 특별히 역사적 제도주의를 관점의 준거로 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그것이 북한체제를 이해하는데 어떤 적실성이 있는지 논리적 준거틀을 제시한 후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갖는 차별성과 그 원인을 검토하여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이 전 시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예측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갖고 있는 ‘단절적 균형모형’과 ‘경로의존성’이란 개념이다. 이 둘의 개념적 통찰을 북한의 체제와 대남정책에 대입하여 북한의 경직성을 설명한다.(3장) 역사적 제도주의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에 의한 통찰은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이론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 두 가지 개념은 북한체제와 대남정책에 내재된 ‘경직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북한은 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새로운 설명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제기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자 해답을 찾아가는 준거이기도 하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북한의 대남정책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 인식의 뿌리는 북한의 통일관에 잇닿아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 그 실행 전략과 전술의 끝은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통일의 모습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나온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한의 남한관, 통일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오늘날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출범한지 만 3년이 채 안되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각각 30년을 이어왔던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공통점이 있는가.²⁾ 그 변화와 지속의 잠재력은 얼마나 되는가. 김정은 시대 대남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통일준비위원회를 가동시킬 만큼 통일대비에 정부차원의 공식적 적극적 준비를 대내외에 천명하는데 정권유지와 경제회생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정권의 대남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폭넓은 지적 작업을 시도한다. 그것은 김정은-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대남정책의 이해는 김일성 시대와의 연속성과 애초 북한정권이 지향했던 대남 통일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만한 인식론이나 분석틀이 있느냐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에 주목한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연속성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인식틀로 신제도주의(구체적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채용한다. 이는 역사적 사건보다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중시하고 사건 속에 숨긴 함의의 발견에 용이한 이론적 틀이다. 특별히 경로의존성이란 개념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공통점과 차별성을 포착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2) 김정일 시대의 기산에 대해서는 크게 (1)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 이후의 후계자 공식화 이후로 보는 시각, (2) 1991년 12월 군 최고사령관 추대 및 원수 칭호와 함께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오른 시점으로 보는 시각, (3) 김일성의 사망 이후, 3년3개월간 유혼통치를 거쳐 헌법 개정을 확정된 1998년 9월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나 본 논문에서는 (1) 주장을 따르되 김정일이 대남정책에 본격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한 1980년 후반부터를 주된 분석 기간으로 삼는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역사란 바로 시간적 맥락을 의미한다. 그간의 연구들이 ‘역사’와 ‘구조’에 천착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역사’와 ‘맥락’에 주목하여 사건과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중시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 특히 김정은 시대 대남정책의 제도적 현실적 특수성을 어떻게 설명할까의 질문에 지난 60년 동안 펼쳐온 북한의 대외정책, 통일정책의 이념적 일반론 속에서 어떤 일관성 아래 유지돼 왔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선을 빌려 복원해내는 길을 모색한다.³⁾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인식론의 기반으로 채택하여 김정일-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떤 차별성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별적인 대남정책의 내용이나 전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제도 내에서 형성되고 채택되는 대남정책의 성격이 3대 세습을 이어오면서 질적 차별성을 갖게 됐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북한의 체제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되리라 본다.

서구의 이론가들은 보통 국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크게 격퇴정책(rollback), 봉쇄정책(containment), 관여정책(engagement), 균형정책(balancing), 편승정책(bandwagoning)으로 분류한다.⁴⁾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런 범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적으로 균형정책과 편승정책은 남북관계에서는 적용

3) 바로 이런 문제의식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개념화된 것이 ‘경로의존성’인데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Hall, Peter A,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Hall, Peter A. & Rosemary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cience, Vol. 44, (1996); Skocpol, Theda, (ed.),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Lecours, Andre. “Theorizing Cultural Identiti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s a Challenge to the Culturalist.”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2 No.3 (2000), pp.499-522; Lieberman, Evans S. “Causal Inference i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A Specification of Periodization Strateg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34 No.9 (2001) pp.1011-1035; Rothstein, Bo. “Political Institutions: An Overview.” in Robert E. Goodin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33-166

4)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2); Litwak, Robert S., *Rogue States and U.S. Foreign Policy: Containment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0);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7) 특별히 Litwak은 앞의 책에서 미국이 규정한 ‘불량국가’(rogue state)에 대한 전략과 정책으로 격퇴정책(rollback), 종합적 봉쇄정책(comprehensive containment), 조건부 봉쇄정책(conditional containment) 등을 제시하고 있다. p.103~113

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며 봉쇄 및 관여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설명하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이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대남정책이 갖는 특수성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북한 대외관계 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그것이 정책에 환류되는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런 이해 아래 기존의 북한대남정책의 연구가 지닌 정책 내용 중심의 분석을 지양하고 대남정책의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여 그것이 향후 대남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이 갖는 차별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980년대 민족통일연구원이 출범한 후 본격적으로 북한연구가 진행되던 시점에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주된 연구주제였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독립변수로 등장하기 보다는 북한의 통일정책이라는 틀에서 북한의 대남관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⁵⁾

그 후 북한연구가 좀 더 정교해지고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북한을 앞서나가자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진다. 오히려 남한 사회를 교란 또는 남한 당국자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술적 의미로써 북한의 대남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립되는지, 누가 집행하는지에 대한 세부적 연구가 북한의 통일정책이란 연구주제를 대체하게 된다.⁶⁾

2000년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군사적 측면, 전술적 차원의 분석과 전망이 주를 이룬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한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북한의 대외정책과 전략적으로 큰 구분을 보이지 않게 되고 북한의 큰 틀에서의 대외정책은 대미 정책인 것인데 북한이 생각하는 남한은 미국의 하수인, 꼭두각시라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이 작용한 탓에 북한으로서도 대남정책의 성격이 대미정책의 후속조치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탓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학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인 냉전상황과 함께 대한민국 내에 반공을 국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전에 관한 정보로의

5) 민족통일연구원이 발간하는 다음과 같은 저작을 들 수 있다.

6) 김근식의 '김정은 시대의 선택적 병행 전략' 분석 등은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접근자체가 용이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1990년대 이전 학위논문들은 객관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을 연구하기 보다는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을 답습하는 경향이 강했다.

두 번째, 북한의 대남전략자료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광인수의 박사학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에⁷⁾ 그 부족한 중에서도 민간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더욱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자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1990년대 이전까지 학계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연구의 변두리에 서있었다.

이러한 경직된 흐름 속에서 1980년대 후반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학계에서 북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선행연구차원에서 크게 학위논문의 주제 및 종류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위논문들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현상들을 보이기 시작한다.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이전의 연구가들이 북한을 체제 경쟁자로서 상정하고 논문을 쓴 것과 달리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북한의 대남정책 노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김일성 사후 급속히 붕괴될 것까지 예상하며⁸⁾ 논문을 쓸 수 있는 학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마디로 1990년대 학위논문들은 ‘북한 붕괴론’과 체제우위에 인식들을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차원의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연구가 들어갔다.

이러한 경향들은 1998년 남한에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 노무현 정권까지 합쳐서 2000년대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북화해협력에 의한 대남전략연구의 다양성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대화가 상시화되면서 보다 순화된 평화전략으로의 북한 대남전략연구⁹⁾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으로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세운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에 대한 연구¹⁰⁾까지 넓고 다양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7) 광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4.

8) 전선기, “북한대남전략의 본질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1).

9) 안경모, “탈냉전기 북한의 한반도 평화전략 : 대미정책과 대남정책을 중심으로 (1988-20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김정두,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전술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강신학,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 김정일 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학계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연구는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면서 보다 심도있게 심화되어져 갔다.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2000년도에 발표된 정봉화의 논문¹¹⁾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전략과 현실적인 전술공작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중성을 구분하려 하였던 최세경의 논문¹²⁾과 북한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국가정체성과 국가 권력 정치를 규명함으로써 탈냉전기 대남전략을 분석하여 했던 박상수의 논문¹³⁾등이 그것이었다.

그중 가장 최근인 2013년도 발표된 광인수의 논문¹⁴⁾은 그간 북한의 대남전략에 관한 논문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대남전략의 이론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전략의 실천 단계에 있는 대남공작기구의 분석까지 연구의 다양성과 깊이까지 갖추고 있어 연구의 좋은 예를 보여주며 2000년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학계의 북한 대남전략연구가 1990년도를 기점으로 다양성과 깊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2000년도를 넘으면서 대남전략으로 박사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심도있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의 대남전략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의 변화인지 전술적 차원에서의 변화인지를 연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이론을 통한 과학적 검증보다는 단순한 정보의 분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전략 연구의 수준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경로의존성과 단절적 균형모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서 과연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변화 또는 유지되고 있으며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입체적으로 살피려는 의지이다.

11)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연구: 1948-1998”,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2)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3) 박상수, “탈 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체성의 정치와 권력정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4) 광인수, 앞의 책, (2013).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와 대상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1980년 10월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진행하고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다. 본 연구의 목적이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의 대남정책을 비교하는 것이기에 김정일의 시대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 받은 1980년 10월의 6차 당 대회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더라도 김정일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남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한 실질적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 될 것이나 본 논문은 엄격한 시기구분을 좇지 않고 대남정책이 북한 정권 초기부터 형성, 지속돼 온 역사적 궤적을 중시하여 김정일의 공식등장 시점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김정은 시대는 불과 3년여도 채 못 된다. 김정일의 30년과 최근 3년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비상식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 지도자의 전환이 가져올 차별성(또는 지속성)의 잠재력은 실로 엄청나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런 문제의식과 시도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대남정책의 비교, 평가인데 이를 위해 지난 30년 간 북한 대남정책의 결정배경이 된 변수들에 대한 질적 검토이다. 이제까지 대남정책의 내용과 패턴에 대한 연구¹⁵⁾ 및 김정은 대남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져 왔다.¹⁶⁾ 대부분의 연구는 대남정책의 양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남정책의 패턴이나 양태 자체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김정일-김정은의 대남정책을 결정짓는 변수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북한 대남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함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남정책의 개별적인 내용이나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30년과 3년을 관통하는 대남정책의 전략, 정책의 지향점 등에 본 논문이 제시하는 변인들이 어떤 작용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더 주목할 것이다.

15) 이윤식, 『북한의 대남전략 패턴과 대응방안』, 신진연구자 자료집, (서울: 통일부, 2011).

16)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3);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1호 (2013); 김연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경협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10월 (2013); 김일기,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글로벌정치연구』 5권 1호, (2012)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Literature Review)을 기초로 하되, 이론적 시각의 틀로써 그간 북한연구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접근’을 택한다. 특별히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관점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조망하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 불과 3년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은 앞으로의 대남정책이 前 시대(김정일)와 단절하여 독립적이고 차별적으로 펼쳐지기에는 단기간 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의미는 바로 이 점에 주목, 현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이 과거 정권의 그것과 질적 차별성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쏘 시기를 시계열로 이해하되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부터 기산하여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까지 약 30년과 그 후 김정은이 유일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2014년 8월까지로 한다.¹⁷⁾ 김정일 체제의 출범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¹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외교정책 이념으로 자주, 친선, 평화를 제시했던 제6차 당 대회 시기(1980년 10월)를 김정일 등장의 공식 기점으로 삼되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장에 오른 1993년 4월부터를 유의미한 시기적 구분으로 규정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념-제도-현실의 3가지 층위로 구분짓는다면 다음과 같은 시간적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표 1〉 북한 정권의 시기구분¹⁹⁾

구분	김일성 (46년: 1948~1994)	김정일 (17년: 1994~2011)	김정은 (3년: 2012~현재)
이념: 목적과 방향	0		
제도: 전략과 목표	1	2	4
현실: 효과와 반응		3	5

17) 그 해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18) 크게 (1)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의 후계자 공식화 이후로 보는 시각, (2) 1991년 12월 군 최고사령관 추대 및 원수 칭호와 함께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오른 시점으로 보는 시각, (3) 김일성의 사망 이후, 3년3개월간 유혼통치를 거쳐 헌법 개정을 확정된 1998년 9월로 보는 시각이 있다.

19) 필자의 자체 작성

0으로 표기된 것은 북한 대남정책의 이념(목적과 방향)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념형의 영역이다. 김일성 집권기 대남정책의 제도와 현실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하나의 단위로 표기했고 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경우 각각의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대남정책의 차별성과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²⁰⁾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기술한다. 2장은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다. 3장은 북한 대남정책의 이념과 목표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살펴본다. 4장은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을 분석한 후 5장에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구조적 현상적 차별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논의를 마무리하고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문제제기: 제도와 정책

본 장의 목적은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관점으로써 신제도주의(역사적 제도주의)²¹⁾를 이론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이것이 본 논문에서 지닌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런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본다.²²⁾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는 달리 제도의 개념을 훨씬 추상화, 포괄화하였다. 일종의 행위를 제약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도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규칙, 규범,

20) 이런 방법론은 콕스의 논의를 원용한 것이다. 콕스는 세계체제와 국내 체제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세력(Social forces), 국가형태(Forms of state), 세계질서(World orders)라는 활동수준(Spheres of activity)을 통해 상호 작동하는 ‘역사적 구조(historical structure)’를 형성하는 힘에 주목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면서 ‘물리력(Material Capability)’과 ‘이념(Ideas)’, ‘제도(Institution)’간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의해 ‘역사적 구조’가 구성되며 장기적으로 유지,변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Cox 1984).

21) 본 논문에서 표기되는 신제도주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역사적 제도주의를 지칭한다.

22)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서울: 다산출판사, 2003) p. 56.

절차 등도 제도로 간주하거나, 조직의 응집력, 조직간 관계의 성격처럼 추상화된 형식들도 제도로 개념화한다.

신제도주의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사항은 제도에 대한 포괄성과 추상성에 관한 개념문제, 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와 차별화되는 인식론적 문제, 일치성보다는 차이성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변수 문제, 그리고 신제도주의에서 가장 접근성이 쉬운 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문제이다.

신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거시적인 조직적 틀(organizational framework) 내지 개별 제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상위차원의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으로 이해하기에 제도와 정책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²³⁾ 제도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구조화하여 정치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제도의 산물이 곧 정책이라는 것이다.²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는 (1)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고 (2) 정치경제 행위자들에게 기회제공과 행위제약을 맡기에 그들의 전략을 결정하며 (3) 정치 행위자들 간 권력 배분에 영향을 미쳐 정책결과에 대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주도하고 (4) 행위자들이 그들의 이익이나 선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영향을 미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²⁵⁾

한편, 신제도주의 자체가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해하는데 과연 적실성(relevance)이 있는냐에 대해선 근본적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제도주의에 내재된 구조적이고 인식론적 한계가 북한의 대남정책을 분석하는데 타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인 것이다.²⁶⁾

게다가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신제도주의를 하나의 독립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구 제도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분석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들, 즉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유기적 총합으로 본다는 점²⁷⁾이 신제도주의가 북한 대남정

23)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24) 구현우, “발전국가의 산업화 정책변동에 관한 제도론적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25) 하연섭, “시차적 접근법과 신제도이론”, 『한국정책학회보』 제11집 2권(2002) p. 299~303.

26) 이는 순전히 제도주의 논쟁이 일원화된 제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으며 아우르는 이해의 포괄성이 넓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도주의 자체에 대한 담론 평가 자체는 지양한다.

27) Scott, W. R. *Institution and Organiz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1);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2003).

책을 분석, 이해하는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제도(정책)의 장기적 지속과 변화에 주목, 그 궤적을 추적하기에 지난 60여년에 걸친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떻게 변화 또는 지속돼 왔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제도주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에서 모든 현상을 개인의 행위와 속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에 반발, 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하여 제도가 개인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독립변수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제도는 조직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위를 수고하는 규범, 가치, 규칙, 실천과 관련됐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제도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행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rule)이자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기본 틀/framework인 동시에 오랜 시간 지속돼 온 관습이다. 그렇기에 제도는 제도 그 자체의 공식적 구성이나 정태적 모습을 뛰어넘어 정책 관련자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역동적 관계성이란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²⁹⁾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는 지난 60년 간 점철되어 온 남북의 접근과 갈등의 양상을 시기별, 정권별, 상황별로 나누어 분석하기 보다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신제도주의 인식론을 차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북한 권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전략에 의해 구현돼 왔다. 대남정책에 대한 남한의 대북정책 또한 동등한(equivalent) 기능과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이어져 왔다. 마치 정-반-합의 상호작용과도 같다. 그 결과가 오늘날 남북의 ‘현상’으로 결과지어온 것이다. 신제도주의의 틀을 적용, 이 점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인식이자 접근방법이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면 연대기적 나열이 아닌 신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인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 범위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제도적 또는 정책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기적인 분절적 단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인 연속성을 지닌 장기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요긴하다.³⁰⁾

28) 김윤권, “제도와 정책연구: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4집 1호(2005), p.299-400.

29) 장지호,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국적 적용”. 한국행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p.4.

30) 기본적으로 제도란 자주 변화하지 않는 속성 또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연구대상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김은미, “한국주택정책 변화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 7.

이를 위해 지난 60년 간 북한의 대남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이익과 전략, 남한의 대응과 담론 등을 추적해야 할 터인데 이를 북한의 대남정책의 이해라는 합목적적 목표를 위해 역사(history)와 맥락(context), 사실(fact) 및 의미(meaning)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¹⁾

다음 절에서 신제도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신제도주의의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를 각 절의 제목으로 삼아 신제도주의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2절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의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또는 결과)이 개인 간의 합리적 선택보다는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서 형성되었다고 간주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전략적 선택에 의한 선호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행위의 비의도성과 친숙해져 있는 정형화된 행위양식의 작용 측면에서 권력의 불평등성, 기존 제도의 일정한 제약성 등을 중시하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산물로서 제도를 이해한다.³²⁾

그래서 제도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전제한다. 과거 정치적·정책적 선택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그 후 형성되는 제도의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의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고찰해야 한다. 또한 어느 국가이건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제도들이 각기 독특한 역사적 경험들에서 비롯되므로 개별 주체들의 선호의 총합이 아닌 환경과 구조적 제한성을 지닌 역사적 특성과 맥락의 결과로서 제도 형성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형성은 이전 시기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선택, 정치 경제의 구조적 제한성, 권력의 불평등성, 행위 주체들의 전략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문화적 가치와 행위의 비의도적 결과들까지 고려하여 이해된다. 아울러 위기상황이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기존의 제도가 변화되어

31) Guinnane, Timothy, William A. Sundstrom, and Warren Whatley, *History Matters: Essays on Economics Growth, Technology, and Demographic Chang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2004)

32) Hall, Peter A. and Rosemary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Vol. 44 (1996), pp. 939~942.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³³⁾

결국 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인식은 일단 정치행위자의 목표, 전략, 선호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설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제도를 독립변수로서 설정한다. 이와 동시에 역사적 산물로서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긴 하지만, 제도 자체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전략, 갈등,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종속변수로도 상정한다. 상호 제약을 하고 영향을 주는 제도와 행위, 그의 귀결로서 정책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는 기존의 실증적 인과분석에서 행해지는 단일 원인론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성격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현실적 접근방법에 근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성들로 인해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을 설명하는 데 제도적 맥락을 중시한다. 정책결과는 정책과정에 대한 행위자들의 접근 가능성과 접근정도, 선호와 이익에 대한 정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제약하는 거시적인 구조에 궁극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며, 제도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정책연구는 역사적 조망과 거시 구조적 분석을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한다. 국가-사회의 관계, 국가-경제의 관계가 역사적 유산과 제도적 맥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역사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비교정책 연구야말로 정책연구를 기존의 기술적으로 몰역사적인 정책과학으로부터 탈피하게 한다.³⁴⁾

맥락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제도나 조직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제도가 결합된 총체로서의 조직과 제도, 그들의 복합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과 제도의 망(network)’라고 압축할 수 있는데 조직과 제도의 결합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패턴도 달라지고 그것이 정책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3)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1, No. 1 (1988), p. 72.

34) 하연섭, "비교정치경제론," 정용덕 외, (앞의 책), p. 30.

〈표 2〉 과정과 결과에 따른 제도변화 유형³⁵⁾

구분		변화의 결과	
		연속적	단절적
변화의 과정	점진적	적응을 통한 재생산	점진적 변화
	급진적	생존과 회귀	붕괴와 대체

〈표 3〉 신제도주의 학자들의 제도 개념³⁶⁾

학자	제도개념	사례
구제도주의	국기기관의 공식적, 법적 측면만을 기술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Pontusson	국가구조, 정치제도, 매개적 수준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구조: 민주적 정체와 시장경제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 헌법규정 -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특성: 자본과 노동의 조직화 정도, 국가구조의 특징, 정치권력의 성격 - 하위수준: 정부기관과 조직의 공식 및 비공식적 표준운영절차와 규칙, 관례
Katzenstein	지배연합과 정책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연합: 산업, 금융, 노동, 관료 및 정당 등 국가와 사회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의 집합 - 정책망: 지배연합이 특정 정책수행에 있어 사용하는 제도적 틀
Peter Hall	공식적 규칙, 순응 절차, 정체와 경제의 다양한 단위에서 개인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표준화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자본, 노동의 조직화 - 정치체계의 조직화 - 국제경제 내에서 국가의 구조적 위치 - 변수들의 상호관계 중시
March and Olsen	행위규칙, 관계, 공식적·비공식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정해 주는 것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규범과 가치체계임. - 적절한 행위규범은 규칙과 관례를 통해 제도화됨. - 개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

35) Streeck, Wolfgang & Kathleen Thelen.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In Wolfgang Streeck & Kathleen Thelen(eds.).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1-3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6) 김선명, "신제도주의 이론과 행정의 적응성: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7권 1호 (2007년 여름), p. 213.

학자	제도개념	사례
Jeffrey Hart	국가-사회의 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문의 조직화: 관료의 집중과 영향, 정책 실시를 위한 가용자원, 자원이용에 대한 결정, 기업과 노동관계에서 국가의 성공적 정책수립 방식과 능력 - 기업부문의 조직화: 기업단체의 세력, 기업단체의 의사표현 통로, 수평적 산업군의 존재여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분야의 역할 - 노동의 조직화: 노동집단의 세력, 노조원의 비율, 기업별 또는 산별노조의 존재, 정부 또는 사용자의 정책을 차단할 수 있는 노조의 힘 및 존재여부 -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 주요기업의 감독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Atkinson and Coleman	정책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응집력: 최종적 정책결정권한의 단일기관 집중여부 - 국가자율성: 관련부처가 특정산업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가치체계 소유여부 - 기업동원화정도: 노동의 수평적 분화가 명확하여 조직 간의 중첩과 구성원간의 비경쟁성 여부, 해당 산업전체를 대표하는 단일조직 유무, 국가와 직접적 연관을 맺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기업 존재
Ikenberry	정부제도, 국가내부에서 권력의 집중과 분산,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정의하는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제도: 갈등을 중재하는 행정적, 법적, 규제적 규정 - 집권과 분권: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능력과 자원에 초점.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관료제의 집권화와 응집성 정도, 관료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도구의 범위 - 규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개입의 수준과 정도, 행태를 어느 수준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 인가하는 신념체계

이와 같은 신제도주의의 제도 개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인간 행위를 제약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상대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광의의 규약, 절차 또는 정체(polity)와 경제의 다양한 단위에서 개인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표준화된 작용이라고 제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³⁷⁾ 즉, 행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 및 비공식적 규칙과 절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도를 정의한다.³⁸⁾

37) Hall, Peter A.,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19.

38) Steinmo, Sven., Thelen, Kathleen., and Longstreth, Frank,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2. 장점

역사적 제도주의의 역사 맥락적 접근은 정책의 일반성보다는 그 사회만이 갖고 있는 정책적 특수성의 배경과 원인, 맥락에 따른 제약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장점이 있다. 신제도주의의 맥락연구와 비교연구라는 접근방법 자체가 일반화보다는 특수성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제도주의 접근은 소수 사례의 특수한 성향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전제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비합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여서 행위의 설명은 불확정적이다. 다만 제도의 제약성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행위에 대한 설명이 포괄적이다. 행위에 대해 단편적, 일면적, 현시적, 단절적 접근을 하기 보다는 중층적·복합적·통시적·관계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복잡하고 현실적인 사회적 행위의 이해 정도를 높인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가 정책을 제도의 산물로서 인식한다. 정책은 한 개인의 개별적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간의 관계와 역사적 축적, 집단적 관계 유형과 규칙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제도는 장기간의 시간적 흐름에 의한 역사 맥락적 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개인보다는 집단들 또는 인간간의 관계망에 의해 형성된다. 정책은 그러한 제도의 산물이다.³⁹⁾

정책이 제도의 산물이라는 인식론은 행위가 제도적 관계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는 전제에서 기인한다.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제도에 의해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결정되고, 정치적 또는 경제적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위자간의 권력배분, 그리고 행위자들의 선택과 그들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구조화된다는 점에서 가능해진다.⁴⁰⁾

제도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가능력을 결정하며, 기회와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게 되고, 국가와 기업의 권력배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제도가 행위자의 능력, 전략, 권력, 이익을 규정하고 제한하므로 행위자의 선호는 자연발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정책이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는 정책 자체보다는 좀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39) Krasner, Stephen. D., "Approach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Vol. 16, No. 2 (1984), pp. 223-246.

40) Pontusson, Jonas, "From Comparative Public Policy to Political Economy: Putting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ir Place and Taking Interests Seriousl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8 (1995), pp. 118-120.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고찰하려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맥락의 공통점은 행위자 스스로의 선호체계로부터 행위가 유인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제약의 틀 안에서 행위가 결정된다는 인식론적 틀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맥락의 견지에서 행위자의 이해관계나 권력관계들이 국가-사회의 관계적 배열, 또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제약을 받고 행위의 제약이 따르게 되며, 그러한 제약된 행위의 결과로서 정책의 파생을 설명한다.

이처럼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또는 결과)이 개인 간의 합리적 선택보다는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서 형성되었다고 간주하기에 제도가 전략적 선택에 의한 선호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행위의 비의도성과 친숙해져 있는 정형화된 행위양식의 작용 측면에서 권력의 불평등성, 기존 제도의 일정한 제약성 등을 중시하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산물로서 제도를 이해한다.⁴¹⁾

그래서 제도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전제한다. 과거 정치적·정책적 선택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그 후 형성되는 제도의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의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고찰해야 한다. 또한 어느 국가이건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제도들이 각기 독특한 역사적 경험들에서 비롯되므로 개별 주체들의 선호의 총합이 아닌 환경과 구조적 제한성을 지닌 역사적 특성과 맥락의 결과로서 제도 형성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형성은 이전 시기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선택, 정치 경제의 구조적 제한성, 권력의 불평등성, 행위 주체들의 전략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문화적 가치와 행위의 비의도적 결과들까지 고려하여 이해되기에 위기상황이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기존의 제도가 변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⁴²⁾

제도 형성에 관한 역사제도주의의 인식은 일단 정치행위자의 목표, 전략, 선호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설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제도를 독립변수로서 설정한다. 이와 동시에 역사적 산물로서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긴 하지만, 제도 자체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전략, 갈등,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종속변수로도 상정한다. 이러한 복잡성들로 인해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을 설명하는 데 제도적 맥락을 중시한다. 정책결과는 정책과정에 대한 행위자들의

41) Hall, Peter A. and Rosemary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Vol. 44 (1996), pp. 939-942.

42)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1, No. 1 (1988), p. 72.

접근 가능성과 접근정도, 선호와 이익에 대한 정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제약하는 거시적인 구조에 궁극적으로 의존한다.

결국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정책연구는 역사적 조망과 거시 구조적 분석을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한다. 국가-사회의 관계, 국가-경제의 관계가 역사적 유산과 제도적 맥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역사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비교정책연구야말로 정책연구를 기존의 기술적으로 몰역사적인 정책과학으로부터 탈피하게 한다.⁴³⁾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 피동적 입장에서 서 있는데 경로의존은 그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쟁점 사항이다.

3. 주요 이론적 개념: 경로의존성과 단절된 균형모형

정책 현상에 대한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의 두드러진 장점은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과 국가 내에서 정책 패턴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체계 이론이나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 패턴이 변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지만 신제도주의에서는 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정책패턴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을 경로의존이라 한다.

경로의존(path dependency)이란 한 사건이나 현상이 특정의 어떤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경과해도 좀처럼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개념이다.⁴⁴⁾ 이것이 정부 차원에 적용되면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일단 한 경로에 들어서면 초기의 정책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다.⁴⁵⁾ 경로의존성은 제도와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지속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 즉 경로의존은 제도적 관계에 의해서 일정시기에 형성된 정책이 역으로 제도적 관계를 고착화하여 행위자의 기회, 권력, 이익, 선호를 제약함으로써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도 정책 선택을 제약한다.⁴⁶⁾

스웰(William H. Swell Jr.)은 스카치폴(Theoda Skocpol)의 비교역사 방법론의 한 계⁴⁷⁾를 극복하자는 대안으로 “여러 사건의 시간성(eventful temporality)”에 입각한

43) 하연섭, “비교정치경제론,” 정용덕 외, (앞의 책), p. 30.

44) David, Paul A.,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Economic History* Vol.75 No.2 (1985).

45) Krasner, S.D.,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Vol.16 No.2 (1984), p. 223-246.

46)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21, No.1 (1988), p.75.

47) Skocpol, Theda, *State and Social Change Revol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스카치폴은 프랑스, 러시아, 중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건(event)이란 “우연적 발생물(happening)의 하층 층위(sub-class)”로써 드물게 일어나지만 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⁴⁸⁾ 따라서 사건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인과성은 시간적으로 이질적(temporally heterogeneous)이며 같은 형태(uniform)는 아니라고 가정한다.”⁴⁹⁾ 그러니까 여러 사건의 시간성에 입각하여 “역사의 진행방향(the course of history)은 상당히 우연적 사건들의 연속(a succession of largely contingent events)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⁵⁰⁾

정책의 경로의존으로 인해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경로가 선택되어지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더 효율적이고 기능적일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배제된다. 즉 특정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기 때문에 최적의 적응이 항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환경변화와 제도변화 및 정책변화간의 괴리, 최적의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괴리, 제도의 비효율성, 정책의 의도치 않는 결과발생, 우연성 등의 측면이 해석될 수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개념은 결국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현상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역사적인 시간이 적용될 때 일정한 패턴과 방향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⁵¹⁾

크라즈너(Krasner)의 ‘단절된 균형 모형(model of punctuated equilibrium)’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제도가 전쟁이나 공항 등과 같은 외생적인 사건(exogenous events)에 의해 촉발된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s)’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한 이론모형이다.⁵²⁾ 여기서 “전환점

국에서 일어난 혁명의 구조적 전개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동시에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프러시아 개혁운동(1807~1814)의 비교연구를 통해 혁명의 성공조건을 밝혔으나 역사적 시간 경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소를 독립변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역사사회학 방법론은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축소하고 역사에서 행위자를 제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48) Swell Jr., William H.,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In *The Historic Turn in Human Science*, ed. Terrane J. McDonal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p. 245-280. Swell은 스카치폴의 연구방법이 자연과학의 실험처럼 혁명의 성공요인을 사례별 비교를 통해 추출해 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실험적 시간성(experimental temporality)”이라고 명명했다. 따라서 Swell의 방법론은 사건의 우연성을 강조하며 경로의존성을 지지한다.

49) Swell, 앞의 책, p. 262~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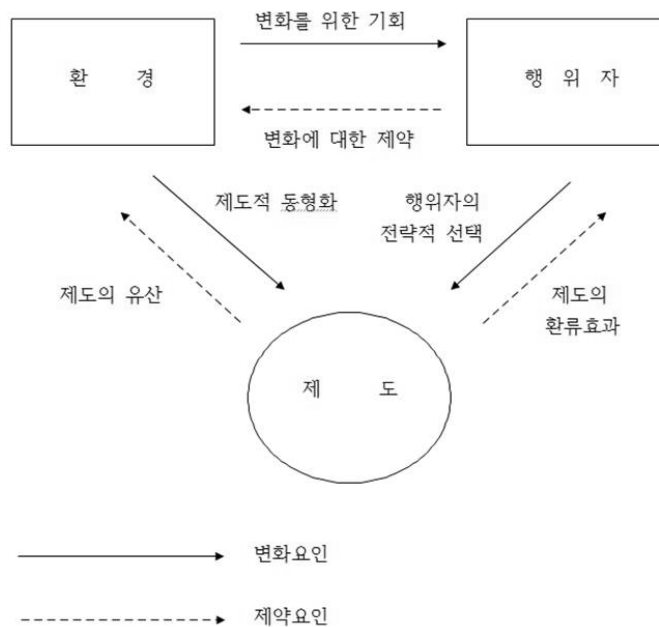
50) Swell, 앞의 책, p. 247.

51) 일반적으로 QWERTY 자판 타자가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이후에 더 우수한 상품이 등장했음에도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했다. David, Paul A.,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Economic History* Vol.75 No.2, (1985).

52) Krasner, S. “Sovereignty :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 (1988); Collier &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이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제도적 장치를 본질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로 내지 궤적에 놓기 때문이다.”⁵³⁾ 따라서 단절된 균형 모형의 논리에 의한다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전환의 순간과 제도가 지속되는 정체(stasis)의 시기는 명확하게 구분된다.⁵⁴⁾

이러한 단절된 균형 모형은 “긍정적·부정적 환류의 고리(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loops)”⁵⁵⁾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제도 이론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긍정적 환류가 경로의존성이라는 자기강화 과정을 만들었다면, 부정적 환류는 단절된 균형이라는 급격한 제도변화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존 제도의 권위나 가치를 약화시키는 정치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대안적인 이념이 확산된 경우, 이러한 부정적 환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제도와 환경, 행위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제도-환경-행위자의 상관관계⁵⁶⁾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53) Pierson, P. & Skocpol, 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in Katznelson and Helen V. Nilner (eds),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New York: Norton & Co.2002)

54) Telen, K. & Steinmo, 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even Steinmo, Kathleen Thelen & Fran Congstretth (eds). *Structuring Politics*, Cambridge Univ. Press (1992).

55) Pierson, P. & Skocpol 앞의 책.

4. 한계

역사적 제도주의는 분석의 논리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방법으로서 비교연구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구조주의와도 비슷한 측면들이 있지만, 인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결정케 하는 다양한 수준들의 제도적 기준들에 초점을 두는 측면에서 구조주의보다는 유연하며 구체적이기도 하다. 또한 제도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로서 제도의 범주가 자본주의 체제처럼 국가-사회의 광의적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매우 미시적인 조직 규약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주의가 제도 및 정책의 일반화보다는 역사와 맥락에 따른 특수성을 더 주목하고 있어서, 분석의 논리적 인과론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 이야기 서술(story telling)이라는 비판이 따른다.⁵⁷⁾ 이러한 역사 맥락 연구는 그 진행과정이 스토리텔링화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⁵⁸⁾

이론적 특징으로 설명한 Krasner의 단절된 균형 모형 역시 제도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단절된 균형 모형은 점진적인(gradual) 제도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도변화는 많은 경우 점진적이며,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비선형 과정(nonlinear processes)”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 요인뿐만 아니라 현상의 토대가 되는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절된 균형 모형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델이 제도변화에 있어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s)’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무엇이 이러한 결정적 전환점을 재촉하는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 등과 같은 외적 요인 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⁵⁹⁾

이와 같이 행위자가 변화에 대해 내생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외생적인 충격만 강조한다면, 제도변화는 “행위가 없는(no agency)” “숙명의 산물(product of fate)”에 그칠 뿐이지만, 이러한 논리는 구조적 요인에 매몰된 “결정론

56) 구현우,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국정관리연구」 제7권 2호 (2012년 12월), p. 97.

57) 객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교연구가 차용된다.

58) 스토리텔링화란 역사적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서술식 진술 경향을 말한다.

59) Lieberman, Evans S. “Causal Inference i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A Specification of Periodization Strateg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34 No.9 (2001) pp.1011-1035.

(determinism)”에 빠지기 쉽다는 맹점이 있다.⁶⁰⁾

결국 Krasner의 단절된 균형 모형에서처럼 제도가 단순히 외적 변화를 반영하는 실체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제도는 Krasner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제도변화에 대한 연구는 외부로부터 발현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로 국한된다.⁶¹⁾ 따라서 Krasner의 ‘단절된 균형 모형’도 제도변화에 관한 이론모형이 설명해야 할 “언제, 그리고 어디서 제도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⁶²⁾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지속성 내지 경로의존성을 강조한 결과 제도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는 지속성과 변화가능성이라는 양면적 속성을 가진 사회적 실체이다. 최근에는 역사적 제도주의자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로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함으로써 제도와 정치 사이의 상호영향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3절 소결: 논문의 틀과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

본 연구는 이미 밝힌대로 북한의 대남정책이라는 큰 주제를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히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김정일-김정은의 대남정책을 조망하여 리뷰하려는 것이 방법론상 특징이다. 많은 북한 연구가 문헌연구(Review of Literature)를 토대로 진행됐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신제도주의 관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논리적 틀이 제시돼야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구성과 서술이 신제도주의의 기본 입장인 중범위 이론의 범주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겠다. 대남정책이란 주제 자체가 북한의 대외정책 전부를 아우르는 주제가 아닌데다 시간적으로도 북한의 성립과 오늘날까지 전 시대에 걸친 대남정책의 기원과 변화를 담는 것이 아니기에 연구 주제와 방법은 태생적으로 중범위(middle-range)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이론

60) Mahoney, J. & Snyder, R. “Rethinking agency and structure in the study of regime chang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New Brunswick, 1999).

61)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15.

62) Clemens, J. & Cook, J. M. 1999, “Politics and institutionalism: Explaining durabil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p.442.

적 틀로써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역사적 맥락과 경로의존성이라는 신제도주의의 특징만 갖고는 양 시대의 대남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 논문의 분석틀의 논리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논문은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준거를 차용하여 비교변수를 추출할 것이다.⁶³⁾ 많은 북한연구자들이 외교정책결정이론을 원용하여 북한의 국내요인과 남북관계 요인, 국제체제 요인 등 3가지 변인을 대남정책의 분석 기준으로 활용한다.⁶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 과정이나 행태가 개별국가들의 외교정책처럼 북한이 처한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편적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⁶⁵⁾

본 연구는 위 3가지 변인 중 북한 국내요인을 리더십과 핵이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여 김정일-김정은 시대 대남정책을 비교하는 척도로 삼고자 한다. 여타 다른 요인인 남북관계 요인은 그대로 쓰되 국제 체제요인을 대외관계 요인으로 변형하고자 한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처한 대외관계가 국제 체제요인이라는 상위개념으로 높이기에는 지정학적인 대외관계의 특수성에 크게 묶이기 때문에 굳이 국제 체제요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남북관계처럼 대외관계라고 표현하여 개념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제외한 주변국과의 관계적 요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교를 위한 개념의 인식론적 분석 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개념적 인식틀⁶⁶⁾

주제: 대남정책		인식: 역사적 맥락	
	비교 변수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관점: 경로의존성	(1) 리더십	A	A'
	(2) 핵	B	B'
	(3) 남북관계	C	C'
	(4) 대외관계	D	D'

토대: 중범위 이론

63)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London: Frances Pinter, 1980), 강태훈, 『일본외교정책의 이해』(서울: 오름, 2000); 하영선·김영호·김명섭, 『한국의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하영선·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서울: 을유문화사, 2007); 댈러리 허드슨 지음, 신유희 등 옮김, 『외교정책론』(서울: 을유문화사, 2009).

64) 이기중,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1997), p.182-192;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18.

65) 오경섭,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의 특징,” 『세종정책연구』 근간 예정 (2014).

66) 필자가 자체 작성

위 표에서 나타난 A,B,C,D를 정의하고 A', B', C', D'로 변했는지, 그 과정과 속성은 어떠한지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각 변인들 간의 경로의존성을 감안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런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외교정책이기에 대남정책 또한 같은 양상일 것이다.⁶⁷⁾ 곧 변수 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하나의 대남정책을 구성할 것이기에 개별 변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통해 대남정책의 결정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겠다.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질적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5장에서 정리하게 된다. 본 틀에 맞춰 다음과 같이 핵심 키워드를 대입할 수 있다.

〈표 5〉 이론적 분석틀의 적용결과⁶⁸⁾

주제: 대남정책		인식: 역사적 맥락	
관점: 경로의존성	비교 변수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1) 리더십	선군	선당
	(2) 핵	추구	보유
	(3) 남북관계	강경~유화	강경
	(4) 대외관계	다자주의	고립주의
토대: 증범위 이론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서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비교, 고찰하여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의 특징과 방향을 예측하고 우리 정부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모든 제도와 기구, 정치 엘리트층을 승계했기에 당장에 김정일의 대남정책과 뚜렷한 변별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 가지 차이, 곧 김정은이라는 인물됨의 차이(이는 리더십이란 개념으로 환원된다.), 핵 추구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가가 됐다는 점은 대남전략의 인식과 대남정책의 방향을 뒤바꿀 결정(독립)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67) 김용호, “북한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71.

68) 필자가 자체 작성.

바로 이 점에 주목, 대남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을 탐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하는 점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파생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점이다.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로가 의존하게 되는 변수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발생한다. 즉 변화에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야 그것이 경로의존적인지 경로탈피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숙제는 바로 이 점에 놓여 있다.

대남정책을 제도의 구현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대남정책을 발현하는 장치인지, 그것이 제도로서 어떤 성격이 갖는지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제도를 구조로 이해할 것인지 정책의 ‘모음’으로 볼 것인지라는 인식론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신제도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인 동시에 현상에 대한 인식의 설명력을 높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에 아이러니가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북한의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념’이다. 즉, 북한체제를 지배하는 지도 이념이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설명하는 매개변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설명변수가 지도자의 ‘의지’인데 이 지도자의 ‘의지’는 ‘이념’에 경로의존적임을 밝힐 것이다. 이는 경로의 절대성과 경로의 상대성이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데 경로의 상대성이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결정지어지는 경로라는 개념임에 반해 경로의 절대성은 경로 그 자체가 갖고있는 고유의 성격과 정향으로 인해 결정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자는 해석한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가 갖고 있는 ‘의지’와 그 의지가 반영된 더 큰 담론으로써의 ‘이념’은 경로 절대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역할이 조금 다른데 경로 절대성의 요인으로써 이념의 역할은 그 경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념의 경로 상대성 역할은 절대적으로 지워진 경로의 상대적 깊이(내기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라는 점이다.

신제도주의가 말하는 경로가 의존되는 변수는 크게 보아 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같은 외생적 요인과 더불어 이념과 정통성 확보 같은 내부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이념이 북한 체제와 그 체제로부터 야기되는 대남정책이 갖고 있는 경로의존성의 매개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중요한 발견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로’라고 특정하여 그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제도와 정책의 흐름을 경로라고 할 것인가? 경로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일까? 제도와 정책의 일정한 흐름을 경로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경로의

현상이 곧 경로 그 자체는 아니다. 경로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 현상을 지탱하는 힘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생존’이다. 경로 자체가 갖고 있는 생존력이야 말로 마땅한 설명변수이다. 이는 북한 체제 자체의 생존력이라고 확대할 수 있는데 경로란 그 자체의 생존력이 있어 발생 시점부터 일정한 방향과 연속성을 갖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자기궤도를 지나가는 고유의 정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러한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결국 북한 체제의 생존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그런 관점을 견지하며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대남정책이 잉태되는 제도와 이념적 현상이 애초에 어떤 차별성을 갖고 출발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3장 북한 대남정책의 이해

제1절 북한 대남전략의 이념과 목표

북한 대남정책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이 인식한 남북 분단관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남북 분단에 대한 김일성의 인식이 곧 북한의 인식이며 이 문제는 해방 이후 60년 동안 이어져온 대남정치 공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 분단의 원인과 책임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 굴종하는 ‘남조선 괴뢰도당’에 있으며 ‘미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가 참패했지만 여전히 침략야욕을 추구하면서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⁹⁾ 미제는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분단을 고착화, 영구화하고 있다는 것이 남북분단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바로 이런 인식아래 남조선의 해방을 목표로 전개되는 일련의 정책집합(set)인 것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통일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1차 자료이다. 우선 1961년 9월에 있었던 제4차 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69) 민병천, “북한의 통일 목표와 전략”,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 1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적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그리고 5차 당 대회(1970년 11월)와 6차 당 대회(1980년 10월)⁷⁰⁾, 3차 당 대표자회(2010년 9월)⁷¹⁾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을 가했다.

- (1) 5차 당 대회: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적 혁명과업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 (2) 6차 당 대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 (3) 3차 당 대표자회: ㉠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
㉡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그간의 당 규약 변화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된다.

〈표 6〉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변화⁷²⁾

북한 노동당 규약 주요 내용 변화

당 최고지도기관 회의	당 지도이념	최종 목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1946년)	-	독립국가 건설
북조선노동당 2차 대회(1948년)	-	독립국가 건설
조선노동당 3차 대회(1956년)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 등
조선노동당 4차 대회(1961년)	마르크스-레닌주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
조선노동당 5차 대회(1970년)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
조선노동당 6차 대회(1980년)	김일성 주체사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
조선노동당 3차 대표자회(2010년)	김일성 주체사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공산주의 사회건설 식제)

70) 김정일은 6차 당 회의를 계기로 후계자로서 지위를 굳힌다.

71) 김정일은 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등장한다.

72) 2010년 9월 30일 동아일보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삭제를 두고 북한이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⁷³⁾에서 있었으나 이는 일부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북한의 적화야욕에는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⁷⁴⁾

당 규약을 통해 드러나는 북한의 통일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역량구축 단계로 사회주의 완성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이 북한에서의 목표가 된다. ‘민족해방’은 ‘미제’로부터이고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남한에서의 공산혁명을 뜻한다고 봐야할 것이다.⁷⁵⁾ 이 1단계 목표가 이뤄진 후 노동당의 최종 목표인 주체 사상화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공산 통일로 진행한다라는 단계적 통일론이다. 결국 ‘선혁명, 후통일’의 노선인 것이다. 결국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의 기지가 되어 남한의 혁명역량을 증대한 후 혁명을 수행하는, 곧 북한의 ‘민주혁명 역량’과 남한의 ‘혁명 역량’이 고조되는 시기에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⁷⁶⁾

〈표 7〉 북한 조선 노동당 규약의 수정⁷⁷⁾

조선노동당 규약의 수정	
1980년 10월 10일 제6차대회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당 규약 서문 중)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수정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당 규약 서문 중)

73) 주로 언론에서 이런 과도한 해석을 시도했다.(MBC 뉴스투데이 2010년 9월 30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0/nwtoday/article/2708040_13098.html)

74)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헌법에서 ‘공산주의’란 단어를 모두 지웠다’며 30년 만의 당 규약을 고치면서 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뷰스앤뉴스 2010년 9월 30일)

75) 민병천, 『민족통일론』(서울: 고려원, 1985) p.177-178.

76) 민병천, “북한의 통일 목표와 전략”, 신정현 (편), 앞의 책 p.39. 사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의 내란모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이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77) 월간조선 2011년 2월 호

김정은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한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의 규약 변경 내용도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미 80년 6차 당 대회에서 명기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는 북한지역만이 아닌 전한반도를 주체사상으로 통일시키겠다는 표현의 다름 아니다.⁷⁸⁾ 이는 진작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대체⁷⁹⁾시키면서 수령독재를 정당화한 시기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명문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대체한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이란 다름 아닌 주체사상으로 일원화 통일된 현상을 지목하는 것이며 바로 이 지점이 다다른 곳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건설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1961년)로 표현하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2010년)로 명기하나 의미는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이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술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정책의 사상적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에 기초한 대남정책의 큰 줄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주체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유일 주체사상이고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주체사상이란 “공산주의적 인간이 가져야 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근로인민 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⁸⁰⁾ 주체사상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조국의 평화적 통일) 과제를 지도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⁸¹⁾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란 다름 아닌 북한식 체제의 남한에로의 확대이며 이는 결국 유일 흡수론이라고 압축할 수 있겠다.⁸²⁾ 그리고 그 정당성은 정권의 정통성과 연관되는데 남한이 비주체적이고 미국 지원에 의한 친일적 세력에 의해 수립된 것에 반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주체적인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정권이라는 인식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강점 상태이고 ‘매판 자본가’들이 인민을 억압하고 있기에 혁명을 통해 ‘인민해방’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⁸³⁾ 바로

78) 이는 김일성 우상화가 극에 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79) 1970년 5차 당 대회

80) 김일성,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p.20.

81) 정대화,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 김남식 (편), 『북한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학, 1989), p.194.

82) 민병천, “북한의 통일 목표와 전략”, 신정현 (편), 앞의 책, p.43 따라서 북한 흡수전략의 성격은 공세성, 적극성, 침략성의 성질을 띤다.

83) 유석렬, 『남북한 관계론』(서울: 정음사, 1987) p.54.

이 ‘해방 통일(투쟁)론’이 북한 통일 사상의 두 번째 특징이 된다.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전국적 범위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1970년 5차 당 대회)이란 이 점을 명기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고 남한의 혁명은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이며⁸⁴⁾ 그 방식은 친공정권을 세워 북한정권과의 합작(연방)통일을 이루는 단계별 혁명이란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의 각계 각층에 친북인사(노동자, 종교인, 학생, 지식인 등 다양한 계층)를 규합,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⁸⁵⁾

이는 북한이 남한 통일의 ‘기지’가 돼야한다는 앞서 논의한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인데 이른바 ‘3대 혁명역량’으로 이어진다.⁸⁶⁾ 이 ‘3대 혁명역량강화’노선은 조선 혁명 달성을 위한 김일성의 정식 교시인 것이다. 북한은 이 세 가지 혁명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남한에서의 혁명과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다.⁸⁷⁾ 이 세 가지 혁명 역량 중 두 번째 남한의 혁명 역량은 곧 통일전선 전략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남한 내 각계 각층의 인민들을 통일 전선에 묶어 두는 작업의 수행을 의미한다. 통일 전선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제’로부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 혁명을 위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 해방

84) 이는 ‘선 혁명, 후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강성운,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남조선 혁명론”, 『북한학연구』제14호 (1984) p.31~45.; 한겨레 사회연구소 엮음, 『분단에서 통일로』, (서울: 일꾼, 1988) p.70.

85) 유석렬, 앞의 책, p.54.

86)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민주 혁명(정치, 경제, 군사) 역량, 남한의 혁명(지하당 구축, 통일전선형성) 역량, 국제 혁명(반미, 반한 통일 전선) 역량을 일컫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내부) 혁명역량.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은 ‘북한 혁명역량’을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역량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분단된 특수여건에서 그들 주도하에 적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혁명의 ‘결정적 역량’을 조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한데 기인한 것이다. 북한은 ‘북한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동원태세의 강화와 대남적개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전쟁물자 조달과 중공업우선 정책에 비중을 두어왔다. 둘째, 남조선 혁명역량. 이는 혁명의 주력군(노동자, 농민, 노동계급 黨) 강화 및 통일전선의 형성,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위 ‘민주주의 운동 지원’, 반혁명역량 와해공작(남한의 對北대응역량 약화) 등으로 요약된다. 대표적 사례로는 끊임없는 對南도발, 정치모략 심리전 활동을 통한 容共(용공)의식화 공작, 간첩에 의한 對南 교란활동과 지하당 구축 공작,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작전술과 통일전선전략 시도 등이 있다. 셋째, 국제혁명역량(反美, 反韓, 통일전선). 이는 對南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에서 측면지원세력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러시아, 중국 등 舊공산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9403&C_CC=AZ 정리. 2014. 8. 31.)

87) 따라서 혁명 역량론은 적화 통일 역량론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민병천, “북한의 통일 목표와 전략”, 신정현 (편), 앞의 책, p.50.

을 위한 인민 민주 혁명 노선이다. 즉, 통일전선이라는 이름에는 인민 해방이라는 대내적 의미와 민족 해방이라는 대외적 의미를 중첩적, 이중적으로 갖게 된다.⁸⁸⁾

정리하자면 북한의 대남 통일관은 3대 혁명 역량론에 기초한 통일전선 노선과 흡수해방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⁸⁹⁾ 김일성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남한에서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했을 때(공산당 영도 아래 반미·연공세력이 집권했을 때)를 의미하고, 비평화적 통일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무력 통일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의 조국통일론은 혁명이 곧 통일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⁹⁰⁾ 결국 북한의 주체 혁명 이론이란 3대 혁명역량 강화론의 정당화 논리인 셈이다. 북조선 혁명기지 강화는 사회주의 건설론이고 남조선 혁명 역량은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며 국제 혁명역량은 제국주의론이기 때문이다.⁹¹⁾

제2절 북한 대남정책의 지속과 변화

북한의 대남정책은 어떤 큰 틀에서 변화와 지속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로 이어오면서 대남정책의 기초와 목표에 변화는 없는 것일까?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의 대남정책의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본 절에서는 지난 60년을 이어온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이와 일관성을 특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인식틀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북한 대남정책의 전반적인 이해(전략과 목표)를 기반으로 그것이 구체화되는 동인과 원인에 대한 고찰을 주된 내용이 될 터이다.

북한의 대남정책관을 분석해 온 그간 남한의 보수적 입장은 북한의 통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우선, 북한에 민주 혁명기지를 구축한 후, ‘미제’에 대한 투쟁을 가속화하고 남한의 반정부 투쟁을 지원하는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 ‘조선혁

88) 민병천, “북한의 통일 목표와 전략”, 신정현 (편), 앞의 책, p.52.

89)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여기서 김일성은 조국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를 구분, 설명하고 있는데 김일성의 조국통일론은 ‘조선혁명론’으로 설명된다. “북반부에서 혁명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따라 혁명을 계속 앞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남조선 혁명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 조선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공산주의를 향해 나가도록 하여야”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90) 김갑철, “김일성 주체사상의 본질과 북한의 통일 정책”,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 220.

91) 김갑철, “김일성 주체사상의 본질과 북한의 통일 정책”, 신정현 (편), 앞의 책, p. 221.

명'을 완수한다는 3단계론이다.⁹²⁾ 이런 고전적인 인식은 유효한 것인가. 언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본 철학은 변하지 않은 채 외관상의 변형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실상 북한은 한반도 분단 이후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기초하여 남조선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 의해 대남전략전술을 운용해 왔으며,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해 왔다.

북한의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한이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과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해야하며,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회의 대표가 유일대표단으로 참석해야한다는 대목을 명기해야한다고 하였다.⁹³⁾

북한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정일에 의하여도 지속되었다. 북한 김정일은 1997년 8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의 문건을 발표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 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3대 기둥, 3대 현장으로 지위를 뚜렷이 정식화"했다고⁹⁴⁾ 대남통일 방안을 언급하였다. 김정일은 이어 1998년 4월 정형화된 틀로서 대남통일정책과 관련해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이 총비서 취임 후 첫 번째로 발표된 대남통일정책과 관련된 문건으로 향후 대남통일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제시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북한의 대남 인식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 생존과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흡수 통일에 대한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중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다한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98년 권력을 공식 승계한 김정일은 체제위기의 현실을 감안하여 계급문제 해결보다 민족성을 부각하면서 민족주의가 체제의 중요한 이념적 좌표임을

92) 김영환 저, 이원웅 역, 『남북한 비교정치론』 (서울: 문맥사, 1988), p.319.

93)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6), p. 395.

94) 노동신문 1997년 8월 16일.

강조하고 대남 강경일변도의 공세 대신 민족주의 기치 아래 대남 유화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편승하여 대남 적대정책에서 전환하여 대남관계개선에 유연성을 보이면서 실리추구의 전술적 변화를 나타내었다. 북한의 유화정책으로의 태도 변화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채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제1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여 통일문제에 민족공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2년 10월 제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어 북미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자 북한은 핵 위기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아닌 미국과 전조선 민족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반미·반전을 위한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남북한은 남북합의로 발표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 체육, 인도 등 분야별로 수십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금강산·개성 관광 등 경제협력이 증대되는가 하면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민족공조와는 달리 대남 불신과 선전적인 태도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적 도발도 서슴치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을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단순히 재결합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남한 내부의 매판세력이라는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을 분쇄하고 그들에 의해 강요된 분단된 조국을 다시 통일된 조국으로 만드는 문제로 파악한다. 한편 북한은 자신만이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성을 소유하며, 남한의 역대 정권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통성이 결여된 허약한 정권으로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붕괴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다.⁹⁵⁾

북한의 대남 인식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정치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왜곡,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정치교육과정에서 인민대중에게 남한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과대 포장하여 주입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남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남한을 해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내놓고 있는 대남통일정책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으로, 겉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을 발표시켜놓고 속으로는

95) 최완규,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정책,"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1991, p.5.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⁹⁶⁾ 북한의 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에도 여전히 당의 당연목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수행”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한반도 척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⁹⁷⁾

북한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 방안을 실현해나갈 것을 민족과 세계 앞에 선언한 통일 강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선언’이라 하면서 남한에서보다 오히려 6.15 북남공동선언을 강조하고 있다.⁹⁸⁾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연방제를 내세우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들 통일방안의 기본적 전제는 사회주의연방제에서 거의 변함이 없다.

북한의 이러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정은 세습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대남환경의 변화, 그리고 주민의식의 변화 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사회화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재사회화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제3절 소결

전략·전술이란 사회주의혁명과 관련된 혁명적 개념으로서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공산당 세력의 제반 책략체계를 가리키는 실천적 행동지침을 말한다. 즉 공산당 세력의 행동법칙인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이란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실현’을 위해 남한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2단계 혁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1단계로 남조선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인민정권(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어 2단계로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혁명(사회주의 혁명) 즉 전조선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 규정에 따른 대남전략의 요제는 첫째, 한국, 미국, 일본을 혁명대상으로 하고, 둘째,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형성되는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

96) 김재철, “군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5집 제3호.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10) p.160.

97) 문순보. “남북군사실무회담의 분석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11년 3월호, p.13~14.

98) 노동신문 2004년 12월 4일; 2005년 5월 8일.

의 반혁명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을 전략적 기본방향으로 하며, 셋째, 결국은 폭력혁명을 통하여 남한을 공산화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전략 개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남전술은 소위 남조선혁명단계에 있어서 혁명 주력군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슬로건의 배합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즉, 대남혁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조선로동당 규약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 조선로동당 규약을 근거로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사회 실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대남 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북한의 분단관과 통일관에서 잉태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혁명관과 전략을 고찰해 볼 때 북한의 궁극적 대남 통일 전략이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쏠한반도화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사상은 통일전선 노선과 민족해방론에 기초한 흡수론적 남한 해방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간적 당면 목표는 북한의 역량 증강과 남한 해방 혁명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주장과 구호는 북한식 공산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여시킨다는 목적의식 아래 제시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배타적 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의 강령에서 혁명에 의한 남한에 대한 통일 실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북한의 정책구사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개된다는 현실적 인식 아래 일정한 대화와 타협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민족통일전선론의 하위개념으로 남북한의 자주적 총선거로 대표되는 좌우익 합작의 제안과 좌절, 그 대안으로 북한 내 민주기지 강화와 이를 위한 남북조선노동당 간 통합, 전쟁을 통한 통일 추진으로 이어져 왔다. 전후 북한은 대남 평화공세 및 그 반동으로써 남조선 혁명과 3대혁명역량 강화를 추구했다. 1970년대 들어서도 북한은 국제적 평화공존의 기류에 편승, 남북대화를 추진했다. 이 시기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남북한 사이에 최초로 합의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은 대남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대남 적대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남 강경 일변도의 공세 대신 민족주의 기치 아래 대남 유화노선을 적극 구사하게 되었고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을 유포시키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적 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 초청 그리고 각 분야의 민간급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남정책의 다변화를 나타내었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전개하고 있는 이같은 남북관계 개선 현상을 북한의 대남전략 의 본질적 변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주체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정권목표(적화통일)가 달성될 때까지는 통일전선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남전략의 불변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이 4차례에 걸쳐 수정 내지 개정되었지만, “당의 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로 표현되는 공산화통일이며 최종목적이 전한반도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일관되게 대남적화전략을 견지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강경노선과 유화노선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민족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내세워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저의를 살펴보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통일전선전략 목표 달성 차원이며, 북한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한의 경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다분한데다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이 아닌 전체 조선민족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반미·반전을 위한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남한 사회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데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의 기본목적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끼리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한미공조체제를 약화시켜 미국 측 외세 반대를 함께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역설하고 있는 민족공조는 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민족공조를 대남 공산화혁명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남한 사회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민족 중심의 민족공조 공세로 인하여 대북 경계의식과 안보의식이 희석화되고 또한 친북친공 의식과 연북연공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진보적 지식인과 친북좌익세력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 우익세력은 반통일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한미공조체제의 약화를 피하고 있으며, 통일지상주의와 감상적 민족주의가 점증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을 옹호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민족공조 공세로서의 통일전선전술은 북한의 입장으로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대남 전략전술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4장 김정일-김정은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 탐구

제1절 김정일 체제의 지배이념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은 1998년 헌법개정을 시발점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기본 통치전략은 선군정치이며 이를 사회주의 체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통치형태는 그대로인데 주체사상 위에 선군정치가 덧대어 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고 당 주도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당의 국가 우위현상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이고 독점적인 통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 지도층이다. 북한 헌법 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로동당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⁹⁹⁾ 북한의 통치주체는 당과 수령이다. 당과 수령이 인민대중을 통합, 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영도해 간다는 의미이다. 북한 헌법에는 당이 인민대중을 영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령이 중심에 있는 수령 영도체제인 것이다.¹⁰⁰⁾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취임은 선군정치의 공식화이기도 하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주석이 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었다. 그 후 1990년 확대, 개편됐다가 1992년 개정헌법에서 독립된 국가기관이 되었고, 주석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것도 분리했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법적 지위와 권한이 확대, ‘국가주권의 최고군

99) 독점적 당 지위는 당이 다른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킨다. 장의관,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이해」 (통일교육원, 2008), p. 35.

100) 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나갈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김일성 수령을 계승한 사람은 김정일 한 사람이다.

사지도기관'에 더하여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당국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당이 제시한 노선과 방침을 관철할 때 당이 강화되는 것이라는 논리구조다. 당의 연군체계를 세우는 것이 인민군대에 놓인 군사·정치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담보라고 주장한다.¹⁰¹⁾

제도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는 군사위원회가 있고 당 조직으로 인민군 각급 단위 안에 당 조직을 두어 조선인민군당위원회란 것이 조직돼 있다.¹⁰²⁾ 형식상으로 볼 때는 국방위원회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과 노선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 관할로 들어오고 군부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도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과 평화 등 일체 무력에 적용되는 전시대비같은 중요 국방관련 문제만 다룬다.¹⁰³⁾ 그 외의 일반적인 국방경제 건설이나 사단창설 등은 국방위원회의 소관이다. 더구나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이 김정일이 겸직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¹⁰⁴⁾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지하다시피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이다.¹⁰⁵⁾ 북한원전에서 드러나는 선군정치 노선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명확하다.¹⁰⁶⁾

101) 정영태,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형성과 군대변화」 연구총서 07-09 (통일연구원, 2007), p. 17.

102) 노동당 규약 7장은 “조선인민군안의 당 조직”으로 조선인민군당위원회를 조직하게 돼 있다. 당 중앙위원회의 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의 군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체 무장력을 강화하고 군수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 무력을 통솔한다.”라고 돼 있다.

103) 고흥석, “북한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 전망,”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북한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 p. 231.

104) 당군정 체제의 변화도 수령제의 본질은 유지한 채 그 작동 시스템의 부분적 변화로 보고 있다.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한국정치학회, 2002), p. 362-363.

105)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창조적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직접 간여하여 선군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담보와 국가기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오현철, 「선군과 민족의 운명」,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 139.

106) ‘우리 당의 령도는 선군령도이고 우리당의 정치는 선군정치’라는 것을 1999년 초에 김정일이 내외에 천명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 후 2월 8일 인민군 지휘관들과의 자리에서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만능의 보검입니다”라고 선언했다고 한다. 평양출판사,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4」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22.; 또한 김정일은 2001년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같이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라며 선군정치로선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같은 책) 이러한 선군정치를 북한에서는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

북한의 선군영도를 담보하고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로 대표되는 군사력이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선언 이후 세 번의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¹⁰⁷⁾ 북한은 2007년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 가 핵 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민족적 경사”라 하였고, “선군조선의 10대 사변”을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핵보유국 경사”를 꼽으면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⁸⁾ 북한은 선군이 구호만이 아닌 든든한 핵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결국 선군정치는 북한식의 위기극복 방식이었으나, 선군사상이 라는 외피까지 씌워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북한에서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참으로 자랑찬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고 있다.¹⁰⁹⁾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 “김정일 동지의 탄생기념일 중앙보고대회”에서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식 국가영도체계를 확립했다”고 하였다.¹¹⁰⁾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영도체계 확립을 김정일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치켜세운 것이다.

이 같이 선군정치 방식에 의한, 선군영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북한의 모든 면을 이끌고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북한은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기 시작했는데, 선군 사상 일색화란 용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2004년 1월 19일 자로동신문 사설에서다.¹¹¹⁾ 북한에서는 선군정치의 이념적 기반인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원리를 반영하여 정립된 사상’이라 하고 있다.

제2절 대남정책의 경로의존성: 김정일 체제 vs. 김정은 정권

언제부터 김정일이 주도적으로 대남정책을 지휘했다고 기산하느냐에 따라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정의와 내용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김일성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통의 기반이 있기에 김정일 시대의 실질적

수하 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 하고 있다. (오현철, 앞의 책, P.119)

107)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08) 「로동신문」, 2007년 1월 6일자.

109) 「로동신문」, 2009년 2월 20일자.

110) 「로동신문」, 2009년 2월 16일자.

111)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성격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정치 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기산점 채택은 그리 유의미하지 않다. 본 장은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80년대 이후부터의 대남정책을 김정일 시대의 대남정책이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한다.¹¹²⁾

김정일의 대남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대남정책의 변함없는 이데올로기로 변함없이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김정일식으로 가미한 그 ‘무엇’이 있는가.¹¹³⁾

북한이 핵을 갖기 위해 1960년대부터 면밀한 시도를 해 온 것은 안보와 경제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나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크게 노력하기 보다는 선 핵 포기를 일관되게 주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미국과의 대등한 대화파트너 지위였는데 이를 위해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 능력을 부인하면서도 간접적으로는 핵 능력을 암시하는 모호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함으로 1990년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군사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었다.¹¹⁴⁾

1990년 구 소련의 해체는 북한이 그간 보여줬던 사회주의권에서의 자주노선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적대관계라는 대외관계의 근본 틀을 수정해야 하는 외생변수가 됐다.¹¹⁵⁾ 이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선택은 외부세계와의 관계개선 노력으로 나타났다.¹¹⁶⁾ 남한과는 UN동시가입을 수용(1991년)하고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1992)시키는 등 대남적화 전략의 기본 노선에 유연성을 부여한 인상을 주고 일본과의 적극적 대화노력 등 과거의 경직된 태도와는 사뭇 다른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112) 김정일이 38세가 되던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후 1991년 12월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면서 원수 칭호를 받기까지 10년은 김일성의 영도 아래 일정 자율성을 갖고 대남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113)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벗어나 김일성의 이념체제로 성립된 것은 1960년대부터인데 1970년 5차 당 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채택됨으로 공식화됐다. 그러나 이미 1969년 주체사상은 김일성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정리되어 1970년 당 대회를 거쳐 1972년 2월 사회주의 헌법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로 확인된다. 그리고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지도이념에서 삭제되고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이념으로 천명했다.

114) 노경수, “북한 외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85), p.418-427.

115) 노경수, “북한 외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양성철·강성학 (공편), 앞의 책, p.417.

116) 이규열, “90년대 북한의 대중·소 정책”, 『국방논총』, 제11호, 가을호 (1990), p.14-25; 김계동,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가능성과 한계”, 『국방논총』, 제19호, 가을호 (1992), p.32-57.

남한에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햇볕정책’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에 대한 포기를 의미했다. 북한과의 경제, 문화,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동시에 관계를 진전시키는 정책으로 4가지 신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쉬운 일부터 먼저 다룬다. 둘째,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접근. 셋째, NGO의 적극적 활용. 넷째,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¹¹⁷⁾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정세 변화는 대남전략과 전술의 큰 변수이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안보전략은 권력 강화와 내부의 인민 통합으로 이어 지지만 대남 강경전략으로 이어진다. 북한 내부의 정세변화를 막기 위한 정권의 몸부림은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한 일심단결과 집단주의의 강화로 나타났다. 대남 강경 전략은 북한 체제를 수호하고 주민의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북한은 정치·사회 제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취하고 있다. 경제난이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남한의 대북 적대정책, 미국의 경제봉쇄정책 때문이라는 논리에는 변함이 없다.

1. 김정일 정권의 대남 강경노선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총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남북한 관계는 급랭상태로 변화였다. 그동안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에서 활동하던 공무원들을 전원 철수케 하였고, 개성공단의 남측 상주 인원도 대폭 감축하여 공단존속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북한의 이렇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243회에 걸쳐 대남 비방을 하였으며, 2390회 대통령을 거명했다고 로동·민주조선·조선중앙통신을 분석한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다.¹¹⁸⁾

북한은 2009년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 적 무장력은 이미 선포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월 30일에는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성명 을 통해 북한은 “북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반하여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것이다.¹¹⁹⁾

117) 문정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2년: 이상과 현실”, 『평화논총』, 제4권 1집,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9), p.40~60.

118) 「중앙일보」, 2009년 2월 14일자, 3면.

또한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이 다시 꺼낸 카드는 장거리 로켓이다. 북한은 2009년 2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발사문제로 말하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라 하면서, “그 무슨 〈대응타격〉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을 털끝만치 라도 건드린다면 도발자들은 물론 그 아성까지 초토화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¹²⁰⁾ 3월 5일에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부’를 문제 삼으면서, 이번처럼 도발적이고 위협한 성격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기는 처음이라 하였다. 성명은 “군사훈련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벌리는 대규모 전쟁불장난으로서 미국과 괴뢰들이 각종 핵무기들을 남조선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핵전쟁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 막는 것은 미국이라 하고 있다. 또한 “군사연습기간에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 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선포한다”하여 북한영공을 지나는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남한이 ‘전쟁연습’을 통해 동맹관계와 힘을 과시하는 것은 ‘대결과 침략적 정체’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3월 9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가 “우리의 혁명무력은 호전광들이 감히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였다. 여기에서 합동군사훈련은 “핵 전쟁연습, 침략전쟁연습”이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미동맹에 대하여 초강경 발언을 쏟아 내었다. 종전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가 보도문을 내놓은 것이다.

2.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 승계된 대남정책의 노선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퇴임이 예정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는 현상유지 정책을 취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쥌 수도 없었고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최고 존엄 모독 중단, 북핵 불간섭,

119)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 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과 지금까지 상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0조에는 “남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 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6 월에는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 전환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 한바 있다.

120) 「로동신문」, 2009년 2월 27일자.

5.24 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남 비난과 위협을 강화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1월 9일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 간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이고,¹²¹⁾ 박근혜 정권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6.15 정신으로 전환할지 주목한다고 언급했다.¹²²⁾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겨냥해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박근혜의 선거공약이 빈말인가 어떤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¹²³⁾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4월 초까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남북한 간 위기조성전술을 구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제3차 핵실험(2월 12일)을 진행했고,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4월초까지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과 위기를 극대화했다.

김정은 정권은 최고사령부·조평통·외무성 등을 앞세워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선언(3월 5일, 8일), 청와대 타격과 서울 불바다 위협(3월 8일), 핵공격 협박(3월 21일, 4월 4일), 군사적 행동 시사(3월 26일), 남북 군통신 단절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통신연락소 북측 인원 활동 중지(3월 27일),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에서 화력타격 계획 비준(3월 29일), 전쟁 분위기 조성(3월 30일),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 재가동 조치(4월 2일), 평양주재외국공관과 유엔기구 철수 권고(4월 5일·7일·9일)등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¹²⁴⁾

김정은 정권은 제3차 핵실험 직후부터 4월 초까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훈련 중단을 내세우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위기 수준을 끌어올렸다. 김정은 정권은 정전 협정 백지화, 청와대 타격과 서울 불바다 위협, 핵공격 협박, 평양주재 외국공관과 유엔기구 철수 권고 등 연일 전쟁일보 직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조성했다. 3월 30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서는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 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위기를 극대화했다.¹²⁵⁾

이처럼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서 체제 방어적 대응을 유지했다. 한국정부가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정책을 비판하면 최고 존엄

121) “대결상태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 『로동신문』 2013년 1월 9일.

122) “우리민족끼리가 유일한 출로,” 『조선신보』 2013년 1월 28일.

123) “좀 두고보자,” 『조선신보』 2013년 1월 9일.

124) 최고사령부·조평통·외무성 성명,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기사.

125)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p. 185.

모독으로 규정해서 한국정부를 거칠게 비난했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 안정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 존엄 모독에 더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남북관계의 어떤 현안보다도 중요하게 취급했다. 최고 존엄 모독이 발생하면, 대남정책을 대화노선에서 강경노선으로 급선회 했다.¹²⁶⁾

3. 강경한 대남정책의 속내: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공통분모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대남 긴장조성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한계 상황을 극복하려는 전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전환, 대북전단의 영향, 경제문제로 인한 사상통제, 미 행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경과 남북관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0.4선언 이행의 의지가 없다고 하여 왔다. 북한은 김정일이 2008년 9월 5일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주었다는 담화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남북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의 시금석’이라 하면서,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¹²⁷⁾

북한의 지도부 및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계속해서 이 선언의 불이행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들의 정 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을 들여다 보면 과연 이 두 선언을 존중한다고 했다면, 과거와 같이 대남 유화정책을 펼쳤을 것인가? 그동안 대남교류 확대에 따라 주민들이 환상을 가지게 됨에 따라 체제안보를 해친다고 생각해 왔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 강화하여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대남환상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후나 최근(2014년 11월)의 상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민간단체들이 대형 풍선을 통하여 북쪽의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지역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10월 28일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고 군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 될 경우 “단호한 실천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였고, 로동신문에서 이에 대해 경고 하였다.¹²⁸⁾ 북한의 언론

126) 김연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경협정책: 구조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0월호, p. 38.

127) 「로동신문」, 2008년 10월 12일자.

매체는 당국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보도는 절대하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빠라살포” 보도는 이를 규탄하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혁명 수뇌부를 악랄하게 비난” “반공화국빠라살포행위” 등의 내용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빠라”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아보려고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비판의 정도를 높이면서 군사적 위협의 수준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인민군 복장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텔레비전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내외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라는 명분하에 주민동원을 통한 주민통제 및 결속 강화로 체제안정화를 기하는 데 활용되는 면이 강하다.¹²⁹⁾

북한 내부체제의 이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내부 시장화 진행에 다른 동요문제와 남북교류에서 나타난 체제 부담감 등이 포함된 것인데 북한 당국이 실제 시장을 축소하고 단속을 강화하려 해도 주민들이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약한 처방으로는 다잡기 힘들고 여기에 하급 관리들 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에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원만히 실현해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¹³⁰⁾, 문제는 중앙에서 공급 할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부족이 시장화와 주민들의 이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 계속적인 중앙집권적인 통일지도가 어렵다. 중앙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상당부분을 지방이나 단위별 지역경제체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체제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자극적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한에 떠넘기면

128) 2008년 10월 3일 로동신문에서는 남한의 “북남 군사적 합의위반행위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살포한 빠라들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존엄 높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더 악랄하게 헐뜯고 비난”하고,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어 보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처사”라고 하였다. 이것이 계속될 경우 ‘개성관광문제, 분계선 통행문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남측인원 채류문제’ 등이 어려워 질것 이라며 경고 하였다.

129) 정영태, “북한의 대남군사적 위협 배경과 우리의 대응,” 『online Series』, 09-07, (통일연구원, 2009), p. 2.

130) 『로동신문』, 2009년 2월 11일자.

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형성하여 그동안의 교류협력에 의하여 이완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다잡으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김정은-정권의 김정일 체제 유산: 경로의존적 지배체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처음 퍼진 시기는 2008년 8월이다. 정권수립 6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 후 후계체제를 확립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군부를 측근의 강경세력으로 교체했다. 로동당 총비서이고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개인이 북한체제 운영의 주체였다. 그러므로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기도 하지만 인민대중 통합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그가 통치행태로 택한 방법의 하나는 현지 지도였다. 그러나 2008년 정권수립 60주년 9.9절 경축행사에 나타나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돌았다. 당시 건강이상설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극구 부인했다. 건강이상설이 나오면서부터 관심을 모은 것은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단행된 북한 군부 인사에 대한 움직임은 김정일 친권체제 강화와 후계 체제에 대비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¹³¹⁾

제3기 김정일 체제라 일컬어지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2009년 3월 8일에 치러졌다. 대의원에 군부 인사들이 대거 당선 되었고, 신진 군 장성들도 진출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시작된 ‘김정일 와병’으로 인한 외부 세계의 ‘김정일 정권 불안정론’을 불식시키는 노력으로 국내에서는 분석했으며 “김정일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이 ‘일심단결’해 있다는 점을 내외에 과시하려한 점”을 특징으로 들었다.¹³²⁾ 이 4월 9일에는 제 12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여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국방위 원회위원을 보강하고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그 면면을 로동신문에 보도를 하였다.

당시 김정일의 최측근인 장성택 로동당 행정부장이 새로 국방위원이 된 것은, 김정일을 통치력 강화와 국방위원회가 향후 승계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체제공고화를 위한 위로부터의 권력강화는 7.1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촉발된 시장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는 중앙계

131)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춘 인민군 차수가 인민무력부장으로 등장한 것이나 당 작전부장인 오극렬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동한 것이나 강경파로 알려진 려영호를 총참모장에 전격 임명한 것 등이 ‘충성체제강화’ 의도로 해석됐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인민군대의 기강확립 차원으로도 보여졌다.

132) 전현준,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online Series」, 09-23, (통일연구원, 2009). p. 2.

획 경제의 한계를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장화를 촉발시켰다. 이를 막기 위해 단행한 2005년 식량배급제의 부활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역경제의 자력생산을 감당해야하는 건 오로지 주민 몫이 됐다. 김정일 시대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가 서서히 몰락하는 길을 걷는다.

이 조치는 기능마비에 있는 공장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개별기업들이 무슨 수를 쓰든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버렸다. 당국의 공급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확산은 생산현장이탈 현상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게 현물로 주던 노동보수를 화폐로 전환함으로써 화폐경제의 요소가 도입되었고, 개인과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가동의 일부를 할애하였다. 그러나 자체 생산 품 보다는 중국 상품의 판매와 유통이 지배하였고, 불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이 확산되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시장이 확대되어 계획경제를 압도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여 시장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식량배급제 부활 선언, 판매자의 연령 제한, 시장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통제 등을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위당국자나 군부, 기업담당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부정부패와 뇌물 공여가 일상화되고 있고, 허가나 임대 등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부를 획득하고 있다. 관료적 권한을 남용하여 관료들이 각종 공모와 흥정을 통해 이득을 획득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국가보안기구 간부들은 권한을 통해 시장 행위자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과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노물을 수수하고 이권을 차지했다.¹³³⁾ 또한 북한 사회에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남한과의 경험과 인도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식량과 비료의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물품과 장비 그리고 자재 등을 지원 받아왔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는 남한의 관광객과 일반 주민들의 접촉이 차단되었지만, 개성공업지구에는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남한기업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이 자본주의 문화유업을 경계하고 있지만, 접촉의 증대와 중국 상인들의 왕래로 인한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어렵다.¹³⁴⁾ 북한 주민들이 영화나 드라마 등 남한

133)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8), p. 382.

134)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한국 CD와 플레이어, TV 등이 들어오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CD가 들어와 한국의 드라마, 방송, 노래를 듣는 사람이 많아졌고 국경지방에서 남한의 CD를 보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연구총서 07-03, (통일연구원, 2007). p. 38.

문화를 접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인데, 비공식적인 소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라 인민들이 남한에 대하여 환상을 갖게 됨에 따라 체제안보를 해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이완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훼손, 주민들의 일탈행위 일상화, 간부들의 부정부패, 남한에 대한 적개심의 완화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사회 통제기제이다. 중요한 것은 내부결속을 강화시키는 인민통합을 위한 사상강화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꾸준히 강조해온 것이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은 북한의 헌법에도 있는 문구이지만, 공동사설에서 다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상황을 다시 한번 다잡자는 의지였다. 개인보다는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일심단결 사상을 통해 체제결속과 경제건설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 첨단과학시대가 도래하였어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천리마 대고조’가 북한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자력갱생에 참다운 길이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를 언급해 왔었다. 그러나 대외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력갱생에 대한 촉구였다. 당시 몇 년간 북한의 경제기조의 원칙은 인민경제의 개건과 개선을 통한 실리주의를 확보 것이었고, 이를 위해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면을 보여왔다. 그들의 주장하는 강성대국건설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정일 체제나 김정은 정권이나 생존과 지배방식에 있어서 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제4절 소결

북한의 권력체계는 형식상으로 당이 영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었다. 당의 정치국 서열의 상위에 있는 인물이 국방위원회와 군부의 수뇌부에 있는 중첩된 구조로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모든 실권은 1인을 집중돼 있다. 그 최고점은 당 총비서이며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고, 인민대중의 수령이다. 그러므로 결국 북한의 권력체계의 정점에 있는 김정일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당·정·군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가를 이끌었던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고수했다.¹³⁵⁾ 우선 김일성·김정일의 통치과정에서 형성된 대남전략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대남전략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에서 사용된 대남전략의 고유한 특징이다. 조선로동당규약은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대남정책의 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은 당면 목적에서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유지했다.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일전선노선과 대남정책 관련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남한에서 통일전선노선에 입각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견지하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의해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대남전략의 목표를 규정한 당 규약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대남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다. 조선로동당규약은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대남정책의 내용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은 당면목적에서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유지했다.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일전선노선과 대남정책 관련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남한에서 통일전선노선에 입각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견지하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의해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대남전략의 목표를 규정한 당 규약 조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당과 군에서 대남전략을 담당하는 기구와 조직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의 통일전선부와 작전부, 군의 정찰총국 등 대남전략을 담당하는 핵심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김정은 정권은 대남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군사도발과 유화 조치를 병행해서 구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단거리·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제3차 핵실험, 한반도 전쟁분위기 조성(2013년 3월~4월 초) 등의 군사적 수단과 이산가족상봉 행사 합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 비군사적 수단을 병행해서 사용했다. 적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김정일 체제와 비교하여 방향전환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행태적으로는 전무한 것이다.

이러한 대남정책이 강경하고 호전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 원인은 북한 체제

135)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2010. 9. 28).

이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도자의 의지도 체제의 이념아래 귀속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의지가 진정 변했다고 할 만큼 커다란 전기가 있다면 그 징후는 바로 지도이념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제5장 김정일-김정은 대남정책의 비교: 체제형성과 승계의 기원과 차이

제1절 문제제기: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램이자 북한연구자들이 면밀히 관찰하는 핵심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변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북한자체의 변화는 북한 대남관과 대남목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정일-김정은 시대 대남정책의 비교는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고민의 과정인 셈이다.

북한체제 변신의 척도로 사유재산의 회복, 경제활동에서 이윤의 인정, 시장제도의 도입 등 3가지가 제시되기도 했다.¹³⁶⁾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분명 이에 해당하는 징후들이 농후해졌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사유재산과 이윤의 인정(이 둘은 사실상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부분적 시장의 도입은 뚜렷하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대남정책,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 대외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단서가 될 수 있느냐이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변수가 또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변인을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는 사실상 북한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환경을 인식하고 대응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판단력이야말로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는 리더십의 요체라 아니할 수 없다. 어쩌면 변화의 리더십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리더십은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와 외교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그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¹³⁷⁾

136)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85), p. 19; 양성철은 공산당선언의 문구를 인용하여 그 후 70년 간의 공산주의 정치경제실험 결과 사유재산, 이윤, 시장의 철폐로 인해 인간이 비인간화했음을 분석, 이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37) 예컨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홍수)로 급격한 경제쇠퇴를 경험하며 최초로 외국의 원조기관에 도움을 청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리더십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대남정책의 딜레마는 여기에 놓여있다. 북한은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체제 변화의 조짐도 상존하는 형국이다.¹³⁸⁾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시대에 비취 대략 3년 정도 경과한 김정은 시대의 대남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념-제도-현실]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각 차원의 현실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질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 여부는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시될 것이다.

첫째, 북한의 통일관은 변했는가? (이념 차원)

둘째, 대남정책의 추진주체는 변했는가? (제도 차원)

셋째, 대남정책의 추진방식은 변했는가? (현실 차원)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성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남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이념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추진주체가 제도적으로 변했는가를 관찰하는 동시에 대남정책의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제2절 김정일-김정은 대남정책의 상황과 조건의 비교

출범한지 3년 되는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무엇이 어떻게 다른걸까? 그 질적 차이가 연유된 배경과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어디일까? 앞서 2장에서 논의한 인식틀을 대입하여 북한의 대남정책이 이념적으로 경로의 의존성향을 띄며 유지돼온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영역과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열은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적 조건을 잉태하게 된다.

1. 남북문제의 국제화 수준의 차이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됐던 1980년 이후 2011년 12월 사망시까지의 근 30년 세월은 남북관계가 점점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김일성의 지배 아래 있던 1994년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일 체제가 공식

변화는 신중한 정책결정의 결과라고 봐야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한 리더십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존 페퍼 지음, 정세채 역, 앞의 책, p.85.

138)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꾸준히 발사하고 있는 점은 그 행위의 속내를 떠나 분명, 군사적 긴장관계를 풀지 않겠다는 의연임을 부인할 수 없다.

등장한 1998년부터도 남과 북의 이슈는 서로를 향한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기였다. 1991년 노태우 정부와 맺은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그야말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진일보였다.

물론,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이 한반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북한 정권은 외교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당시 남한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그야말로 남북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후견국가의 적극적 개입없이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그 가치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¹³⁹⁾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를 계기로 더 이상 남북문제가 남북한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교류와 협력이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아닌 현실 국제정치 공간에서 ‘핵’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북한 문제의 국제화로 이어진다. 그 때부터 ‘통미봉남’같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의 문제가 남북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핵심 변수가 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음에 반해 김정은 체제는 이미 그 시작과 함께 ‘국제화된 북한’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배태됐음은 인식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체제는 30년 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한 내부의 대남목표와 이슈를 남한을 향해 표출할 수 있었다. 즉, 고려해야할 변수가 남한 자체였던 상황이다. 그러던 것이 핵 문제를 기점으로 점점 국제화하여 남한 변수 외 미국과 중국, 기타 관계국 간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국제변수가 덧입혀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의미다. 김정은 체제에서의 남북관계는 이미 국제화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이해하는 자기네 대남정책의 인식 수준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는 대남정책의 반향에 대해 주변국의 반응과 피드백(환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대남정책이라는 인식 자체가 대남정책에 대한 철학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직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2013년 봄, 남한을 향한 강경한 언술은¹⁴⁰⁾ 단지 남한 사회를 넘어 미국과 주변

139) 정규섭,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와 평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8.

140) 2013년 초반부터 시작된 조성된 북한의 공격적인 발언은 3월 8일부터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날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엮는 파괴행

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꿈에 주둔한 B-2 전폭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목표물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최초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¹⁴¹⁾ 이제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반도 이남에만 효력을 미치는 정책효과 범위를 넘어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어떤 반향이 일어날지를 사전에 검토, 반영시키게 될 것이다. 대남정책의 국제화야 말로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다.

2. 체제내부의 권력안정화 과정의 차이

아래의 표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의 유일 지도자가 되는 경력을 밟아왔는지를 간략히 보여주는 연표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은 31세가 되던 해(1973년)에 들어서 ‘사실상 후계자’로 인정받는다. 그 후 20여년이 흘러서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당시 49세)과 공화국 원수 칭호(당시 50세)를 받게 된다. 그렇고 나서도 1,2년이 더 지나 50세를 넘어서야 국방위원장에 오르게 된다. 김일성이 사망(1994년)한 지 3년이 흐른 1997년 9월에 이르러서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받는다. 이것에는 무슨 함의가 있을까?

김정일 본인이 30대에 노동당에 입당해 끊임없는 내부 투쟁과 훈련을 겪으며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표피적 이해를 넘어 이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김정일 본인이 총비서로 등장할 시기에는 이미 노동당 내부의 권력을 둘러싼 내적 메커니즘, 인력 구성, 권력관계도 등 모든 것을 껴차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도자

위”라고 규정하면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라면서 공세를 강화하였다. 이후 3월 26일에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고 밝히며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4월 11일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하여 “무자비한 보복성전의 화살표는 이미 미국 본토와 태평양 상의 미군기지를 비롯해 미제침략군이 등지를 틀고 있는 모든 거점들에 그어져 있다”면서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게 돼 있고 발사되면 원수들의 아성이 온통 불바다가 될 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미국과 괴뢰 전쟁광신자들이 우리를 오판하고 요행수를 바란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밝히며 “전쟁은 이제 시간문제이며 남은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며 강력한 논평으로 위협을 가해왔다.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연합뉴스 2013년 3월 8일;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1호 전투태세 진입”’, 뉴시스 2013년 3월 26일; ‘北조평통 “단추만 누르면 발사, 전쟁은 시간문제”’, 뉴시스 2013년 4월 11일;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판문점 연락채널 단절”’, 연합뉴스 2013년 3월 8일;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1호 전투태세 진입”’, 뉴시스 2013년 3월 26일; ‘北조평통 “단추만 누르면 발사, 전쟁은 시간문제”’, 뉴시스 2013년 4월 11일.

141) ‘한국에 온 스텔스 폭격기 B-2’, 서울경제 2013년 3월 28일.

의 반열에 오른 후에 권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인사실험 및 정치적 시도를 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일찍이 노동당 안에서 성장한 김정일의 선택은 ‘선군’을 통한 군부의지 지 확보였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2003년 3월 당 노선의 변경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된다. 경제가 선군정책에 종속됨은 물론이다. 군대의 존재가 정치, 사회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그 고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¹⁴²⁾ 이러한 선군정치를 택한 배경은 김정일 본인이 당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사전적(prior)’으로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당 체계에 대한 내적 지배를 바탕으로 선군이라는 외피를 씌워 당-군-정을 지배하는 유일지배 체제였던 것이다.

반면, 김정은의 등장은 2008년 김정일이 쓰러졌던 이후 공식적으로 급하게 가시화된다. 김정일이 경험했던 긴 시간의 안정적 성장 발판이 전무한 형편이었다. 2009년은 여러모로 중요한 해였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1월)된 이후 중요한 정치적 행보가 그 해에 다 이루어진다. 김정은은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당에서 잔뼈가 굵은 후 ‘선군정치’의 이념으로 군 통솔을 잡았던 본인과 달리 서른 살의 김정은은 군을 통제할 정치력이나 배경이 김정일만큼 공고하지 못했다. 1년 8개월이 흐른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대장’칭호와 함께 후계자로 공식화된다.¹⁴³⁾

그 과정은 김정일이 군 뿐 아니라 당의 중심임을 재천명(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한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그 후 불과 1년 3개월 만에 김정일은 사망한다. 2011년 12월 말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꼭 20년 전 당시 49세에 접했던 그 자리에 불과 29세의 젊은 나이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20년의 차이를 둔 2012년 7월 ‘원수’ 칭호를 받는다.¹⁴⁴⁾ (김정일은 50세가 되던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에 올랐다.)

이런 김정은으로서는 김정일이 쌓아왔던 오랜 시간의 정치적인 인사 검증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북한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지배자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는 속내를 찾을 수 있다. 군과 당의 잦은 인사교체를 통한 정치적 실험은

142) Suh, Dae Sook, Military-first politics of Kim Jong Il, 『Asian Perspective』, Vol. 26, No. 3,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p. 145~167.

143) ‘北김정은에 ‘대장’ 칭호…후계공식화’ 뉴시스, 2010년 9월 28일.

144) ‘김정은 ‘원수’ 칭호, 북한군 역대 6번째’ 뉴시스, 2012년 7월 18일.

그 방증이다. 2013년 12월에 속전속결로 있었던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처형은 적나라한 예이다.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실세 3인방을 동시에 내려보낸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안정기에 들어섰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군부 인사의 잦은 강등과 복귀, 당 인사교체는 여전히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정권만큼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인 동시에 당분간 이와 같은 정치적 실험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런 내적 불안정이 대남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려가 과거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이다. 김정일-김정은의 등장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시대를 의미하는 30년의 세월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독재국가의 독재자라고 하여도 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8〉 김정일-김정은 등장과정 비교¹⁴⁵⁾

김정일의 등장 과정		김정은의 등장 과정	
1973년 9월	사실상 후계자로 인정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2차 핵 실험 2009년 11월 화폐 개혁	
1974년 2월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	2009년 1월	후계자 내정 발표
1980년 10월	서열 4위 (6차 당대회)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헌법개정 ¹⁴⁶⁾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당 규약 개정
1981년 10월	서열 2위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9/28) : ‘대장’ 칭호 후계자 공식화
1990년 5월	국방위 제1부위원장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 추대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 칭호	2012년 2월 29일 북-미 합의	
1993년 4월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대회)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의(4.11) : 당 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4.13) : 국방위 제1위원장 ‘핵보유국’ 명시(헌법)

145) 필자가 자체 정리.

김정일의 등장 과정		김정은의 등장 과정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노동3호) 발사	
1997년 10월	노동당 총 비서	2012년 6월 28일 경제개선 조치발표	
1998년 9월	국방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2012년 7월 17일	김정은 공화국 '원수' 칭호
1998년 9월 8일 김일성 헌법 채택 국가 주석직 삭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대표 (김일성의 헌법적 지위 부여-서문)		2013년 4월 영변의 SME 흑연감속로 재가동 선언	

3. 북한 경제상황의 차이

북한의 남한보다 경제력이 뒤처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로 알려진다.¹⁴⁷⁾ 게다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¹⁴⁸⁾이 실패로 끝나면서 북한의 경제는 급하락한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된 자연재해 등 ‘고난의 행군’기간 동안 북한 경제는 피폐일로를 걷게 된다. 김정일의 대남정책이 전환점을 맞을 수 밖에 없는 대내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경제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악화의 경로를 밟아왔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했던 3차 7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한 후에는 3년간(1994~1996)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심각한 산업구조 불균형, 의·식·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를 경제개발의 전략적 방침으로 제시, 추진하였으나 완충기 설정을 통해 경제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소해보겠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결국 1997년에는 새로운 경제정

1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조항 신설. 이에 따라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최고령도자로서 국가 전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특사권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문화

147)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정액은 1976년 772달러로 같은해 남한의 명목 GDP 807달러에 추월 당하게 된다. 김천구 ‘2013년 북한 GDP추청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통일경제』, 2014 1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11), p.57.

148) 1987년 4월 21~23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 2차 회의에서 확정·발표된 87~93년까지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계획으로 78년부터 실시된 2차 7개년 경제계획이 84년에 만료됐으나 자립경제정책의 한계와 군사비 부담, 2번의 유가 파동과 수출상품 가격하락 등의 제반 요인으로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고 80년대 초 이후 경제침체에 시달리게 되자, 85~86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87년 4월 확정·발표됐다.

책을 제시하지 않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철저한 관철을 재천명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하고 만다. 이때부터 제2경제로 일컬어지는 시장 현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바로 이 시장화 현상이 북한체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역설의 논리를 제공한다고 한다.¹⁴⁹⁾ 김정일 체제는 배급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피폐해지는 동안 주민들의 생존방식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난 시장화 현상에 놓여있었다. 경제가 추락하는 경로에 놓인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민들의 의식화, 사상화를 강조하는 미시적 차원의 대응책을 병행해야 했다. 이는 시장화 현상을 음성화하고 그 현상을 지체하게 만드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통제받는 주민들의 미시적인 인내를 통해 음성화된 시장현상이 양성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체제생존을 위해서도 절실했을 뿐 아니라 1인 독재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반면, 김정은 체제는 이런 만성화된 경제현상을 안고 출발했다. 배급경제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실패했고, 2000년대 남한의 좌파 정권으로부터 받은 물질적 지원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화 현상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선택지는 더 이상 미시적 차원의 사상화 의식화를 반복, 재생산 강조하는 체제 통제 방식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에 김정은 정권은 보다 거시적이고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복원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 선택을 택해야 했다. 즉, 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한 거시적 처방을 선호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인민)경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빈번하게 들려온다. 평양 등 주요도시에 주택건설이나 사회기반 시설 건설이 활발해지고 휴대전화도 25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들어서는 농업 작황도 전년 대비 5~6% 좋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한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25%달하기에 농업이 체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편이다.¹⁵⁰⁾ 더구나 김정은 정권은 시장폐쇄를 목적으로 한 전면통제는 하지않고 일정하게 단속과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을 허용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는 북한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장마당에 활동, 시장활동을 일정하게 보장해줘야 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마당에 대한

149)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150) 반면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완화 정책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시장화 개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각 시도 지방 단위에 경제개발특구의 계획을 발표하고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 시도를 하는 등(관광육성을 위한 마식령 스키장 건설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내부 소비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2013년 6월 28일 발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한국에서는 ‘6.28방침’으로 알려져 있다)은 김정은 권력 승계 후 당-국가 체계를 제도적으로 재정비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일명 7.1조치)와 내용적으로 유사하며 오히려 7.1조치에 비해 소극적이고 점진적인 측면이 있는 바 적극적 개혁 처방의 사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위락시설, 공원,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김정은이 정책적 브랜드로 제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통치 경력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고 업적도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가시적으로 인민친화적인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뭔가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하는 전시성 사업이기에 비생산적인 투자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전체적인 회복이나 인민생활 향상에는 마이너스 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표 9〉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13년 신경제관리개선체계 비교¹⁵¹⁾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13년 신경제관리개선체계 비교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신경제관리개선체계	7·1 조치에 비해 달라진 내용
원자재 및 생산재 시장	국가 주도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 개설.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원자재 및 생산재 거래의 기업 자율성 보장	국가의 통제를 없애고, 완전한 시장거래 인정
생산물 가격 책정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국가 감독하에 자율적 책정 허용	기업의 가격 책정 권한 전면 허용	가격 결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없애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전면 인정
생산제품 결정권	국가가 정한 생산품목 안에서 부분적 자율성 인정	공장 스스로가 생산제품 결정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의 업종 전환 허용
노동력 및 임금 자율 결정권	기업에 근로자 고용 및 해고 권한 없음. 인센티브 허용	기업의 근로자 고용 및 해고 권한 허용. 인센티브는 물론 기본임금 결정권 부여	노동시장 유연성 전면 보장. 능력에 따른 임금 차별화 보장
무역 거래	외화 계좌 허용 안함	외화 계좌 허용	기업의 자율적 해외 무역거래 허용한다는 의미

151) 동아일보 2013년 10월 1일.

반면 2009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에서 이뤄진 마지막 화폐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의미가 있다. 향후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金正은의 화폐개혁은 김정일의 화폐 개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표를 통해 최근 10년 간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두 건을 비교하고 북한에서 있었던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표 10〉 북한의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¹⁵²⁾

시 기	근 거	내 용
1947.12	인민위원회법령 제3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시대 발행·통용되던 화폐중 보조화폐를 제외한 전화폐를 1:1 비율로 교환 ○ 1949.5 이후 새 보조화폐 발행, 1949.8.15 이후 「조선중앙은행」 발행 화폐만 통용
1959.2	내각 결정 11호 ※노동신문보도(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 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구축 및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목적 ○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
1979.4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노동신문보도(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의 제한 없이 1:1 비율로 교환 ○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보유화폐를 은행에 입금 시킨 후 필요한 만큼 새돈을 지불받음.
1992.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노동신문 보도(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 목적 ○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중앙은행권 발행 및 유통 ○ 신·구권 교환 비율은 1:1
2009.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신보 보도(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복원 의도 - 민간 유통 화폐 회수하여 국가의 발권능력 회복, 재정확충 및 시장화 현상 차단 목적 ○ 종합시장 폐쇄, 농민시장으로 강제전환 ○ 외화사용 금지 ○ 신·구권 교환 비율은 1:100(저금소 저축은 1:10) - 가구당 10만원 상환교환 → 후에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1959년에 있었던 화폐개혁만이 신·구권 교환비율이 1:100으로 이는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조치하기 위한 자구책일뿐 여타 화폐개혁에서 화폐의 교환 비율을 변경한 것은 2009년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20여 년간 진척된 시장화 현상을 묵과할 수 없기에 그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중앙집권적 계획

152)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자료 취합 자체 정리.

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보수적 경제정책의 시도로 보이지만 이마저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만다. 아무튼 2009년 11월은 김정은이 2010년 9월 ‘대장’ 칭호와 함께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은 후 1년 만에 김정일의 후광 아래 발표된 화폐개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요약하자면 김정일 체제에서는 파탄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인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개인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인내심을 강조하여 버틸 수 밖에 없었던 반면, 김정은 체제는 이런 방식을 버리고 비록 실패할 지언정 과감하고 거시적인 처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이다.¹⁵³⁾ 경제정책에 대한 이런 선호의 차이가 대남정책에 미칠 영향 또한 독립변인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4. 내부 통제변수의 차이

김정일의 지배아래 있던 당시의 북한 체제는 통제변수가 간단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유통됐던 시기도 아니고 탈북자가 지금처럼 있었던 기간도 아니다. 상대적으로 과거 방식대로의 주민통제가 용이했던 시절이다. 위로부터의 일관되고 수직적인 통제와 통치가 용이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체제수호의 위협요소 또한 클 수 없었다. 반면, 현재의 김정은 체제는 안팎으로 위기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통제변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의 수가 240만대라는 보도도 있었다.¹⁵⁴⁾ 탈북자수는 2만 8천명 까지 늘어났다. 평양의 통치력이 국경의 변방에까지 일관되게 미친다는 보장도 없다. 체제수호를 위한 ‘전선’이 김정일 시대와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그만큼 불안정 요인이 많아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과거 보다 호전적이고 강경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내외 환경을 물려받은 셈이다. 무엇보다 체제안정과 안정적인 통치력 유지가 절실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당과 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위 2 항에서 언급한 김정은 정권의 잦은 인사교체와 정치적 실험이 맞물린 지점이기도 하다. 과거보다 체제 수호의 필요성과 안정성이 높아진 조건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사평가를 유지할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군과 당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충성도나 능력은 단기적인 검증을 통해서 수시로 바꾸어 체제 자체의 내구력을 높이는 동시에 넓어진 체제 수호의 ‘전선’을 관리

153) 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년 봄호 (2014) p.16.

154) ‘北휴대폰이용자수 인구 10%로 증가…3G 일부 이용가능’, 뉴시스 2014년 9월 30일.

해야 하는 절박함이 깊어졌다. 그 ‘전선’의 차이가 대남정책의 성격과 방향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5. 후견 그룹의 유무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정치적 후견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¹⁵⁵⁾ 김정은의 후견그룹은 김정일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무엇보다 자신이 만들어간 그룹(김정일)과 물려받은 그룹(김정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서른 살 청년에 노동당에 입당, 조직지도부에서 당 생활을 시작한 김정일은 당시 김일성의 형제그룹과 내부 권력쟁투를 벌여야 했다. 그 고단한 싸움의 결과 후계자로 낙점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본인 스스로 인물을 검증하고 경험하며 자신만의 지지그룹을 노동당 내부에 깊숙이 심어놓을 수 있었다. 선군정치로 군부를 정식으로 아우를 때 당 내부에서의 절대적 충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노선이었다. 그만큼 당 내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인력과 신뢰를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다.

반면, 김정은은 김정일 만큼 자신의 힘으로 이룬 인맥도 핵심인력도 부재한 채 위로부터 주어진 후견그룹을 물려받아야 했다. 그 차이는 김정일의 후견그룹은 김정일 본인이 시간을 들여 검증하고 자신의 시험을 통과한 인사들로 당과 군을 채울 수 있었던 것에 반해 김정은은 물려받은 후견그룹이기에 그들과 김정은 자신 사이의 개인적 검증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위 2항에서 설명한 핵심 보직인사의 잦은 교체는 바로 이런 검증이 현실 정치 공간에서 실시간을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이 오랜 시간을 거쳐 노동당 내부 깊숙이에서 직접 주요 인사들을 겪으며 자신만의 결사체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김정일 시대 당과 군의 보직간부들의 인사교체가 매우 더뎠던 점에 반해, 김정은은 자신이 후계자이자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인사들을 각종 핵심 보직에 임명하고 그 활동 결과를 바로바로 그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후견그룹을 급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인정된다.¹⁵⁶⁾ 그러한 방식이 대남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후술하기로 한다.

155) 이수석,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평화학연구』, 제13권 4호, (서울: 한국평화학연구학회, 2012), p. 183~190; 최진욱, “김정은 후계체제와 선군 통치방식의 변화: 정책적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한국행정학회, 2011), p10-12; 한기범,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력 구도의 특징평가”, 『2012 학술회의 자료집 : 김정은 체제 권력 구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서울: 국가전략안보연구소, 2012), p.6~15.

156) 한기범, 앞의 책, p.12.

6. 동북아시아 지정학: 중국의 위상 변화

오늘날 중국의 위상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운다. 과거 등소평 시절의 중국의 국가전략은 ‘도광양회’였다.¹⁵⁷⁾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전략은 ‘유소작위’이다.¹⁵⁸⁾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후견국이자 혈맹이다. 중국에게 한국전쟁은 ‘항미원조전쟁’이 공식 명칭이란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유효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중국부담론, 즉 전략적 부담이란 논의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오래전부터 북-중관계는 ‘순망치한’이란 논리로 설명될 만큼 중국의 원로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존재가치는 결코 빛을 바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의 위상변화가 대북영향력,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에 미칠 영향력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정일 시대 중국은 ‘도광양회’에 갇혀 있던 시절의 중국이었다. 일찍이 중소분쟁 사이에서 주체노선을 걷기 시작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구 소련)와의 등거리 외교로 자율적 영역을 지키다가 1990년 한중수교로 된서리를 맞는다. 그 결과 북중관계가 한 때 소원해지는 시기도 있었으나 중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난처한 입장을 변호해주는 유일한 국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한반도 핵 불용이라는 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해의 궤를 같이 함에도 북핵 압박에 관한 미중의 인식차는 크다. 남한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임에 반해 북한은 역으로 중국을 국제관계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입장이다.

김정일 시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이며 미국과 일본이 남한을 지지하는 모양새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에서 갖는 고유의 영향력이나 지위가 한-미-일로 대표되는 대공산권 방어형 자유주의 체제에 독자적 영향을 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은 이 상황 가운데 독립적이고 고유의 강경한 대남정책 전술도 가능했다. 버마 랑군 폭발 사건, KAL기 격추 사건 등 희대의 강경한 테러전술도 북한의 독자적 결정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 부터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김정일 체제는 서서히 부상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목격하며 그 유효기간을 다했다.

반면, 김정은 정권에서 중국은 이미 그 자체로 G2의 하나이다. 아시아 회귀정책 (pivot to Asia, Rebalancing Asia)으로 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157) 숨어서 힘을 키운다는 뜻.

158) 필요할 땐 힘을 쓴다는 뜻.

영토문제로 중국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대변한다. 해양국가로 국가 정체성을 탈바꿈 시키고 있는 중국의 위상은 김정일 시대에 발견되는 중국이 더 이상 아니다. 김정은 체제는 바로 이러한 이미 부상한 중국, 북한과 피를 공유한 세대가 아닌 5세대 지도자라는 시진핑의 중국을 곁에 두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관이나 중국의 대북한관이 과거와 동일할리 없다.¹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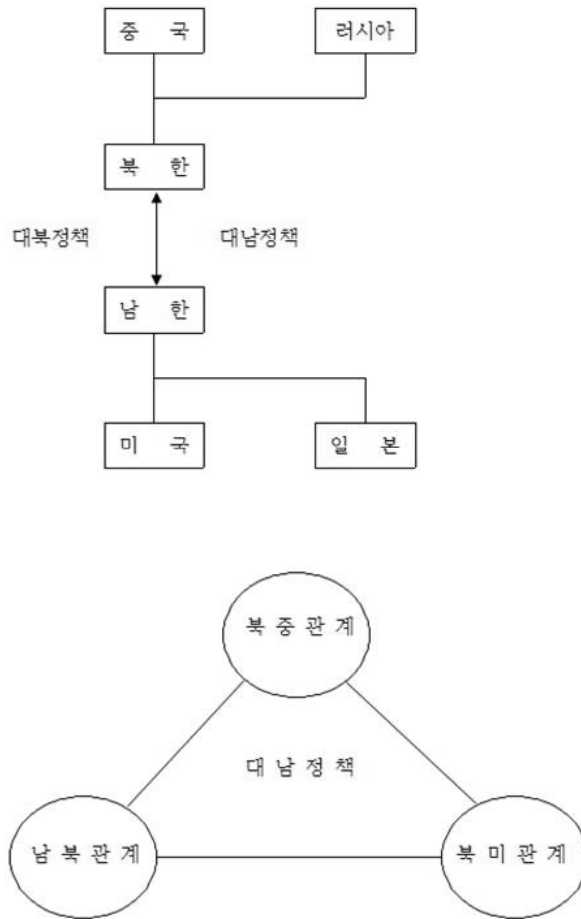
북한이 중국에게는 여전히 전략적 자산이자 완충지(buffer zone)의 역할로 남아 있다 해도 달라진 중국의 위상은 그 자체가 북한의 정책에 독립변수로 작용한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한 수세적 중국이 아니라 때와 기회만 맞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개입할 공세적 중국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새롭게 관계정립을 고수해 나갈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구체적 양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7. 대남정책 형성의 틀(framework)

위에서 언급한 6항의 동북아 지정학의 변화와 1항의 남북문제의 국제화는 결국 북한이 지향하고 형성하는 대남정책의 틀의 변화를 야기한다. 그 틀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틀을 보여준다.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이 곧 대남정책이 잉태되는 대립각이다.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한의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남과 북의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이 단선적(linear) 구조로 맞붙는다.

159) 장용석,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통일과 평화』, 제4집 1호,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2), p. 78.



〈그림 2〉 대남정책의 형성이 변화해온 구조¹⁶⁰⁾

반면, 두 번째 그림은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이 만들어지는 인식틀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더 이상 남한만을 향하여 기획되지 않거니와 대남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중층적이고 여러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임을 보여준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북·중관계와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감안한 3차 방정식의 산물이다. 물론 그 결과적 양태 속에서 북중-북미-남북관계 요소를 균등하게 찾아내기란 요원하거나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대남정책을 지휘하거나 입안하는 핵심인사들의 인식에서 과거와 같은 단선논리로 대남정책을 고려할 것이라는 추측은 현실정치를 무시한 순진한 접근이다.

160) 필자가 자체 작성.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한만을 향한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주요 행위자를 염두에 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은 체제에서의 대남정책은 북한의 대중정책, 대미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대중-대미 정책의 방향이나 노림수를 가늠해 봐야 한다. 셋째,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정책의 위상이 북한 대외 정책의 큰 그림이나 입장을 정리하는 선도정책(pilot-policy)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물론,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이 3가지 점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현재 김정은 체제와 앞으로의 북한 정권 내부에서 차지하는 이 3가지 고려 사항은 그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정책행위의 차이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견해 보는 것 또한 김정일-김정은 대남정책의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8. 의제의 다양화

과거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은 정치-군사적 대결 중심의 고층위 정치(high-politics)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군사적 대남 강경책은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 말, 김정은 정권 들어선 이후에는 이러한 군사, 정치 중심의 의제에서 인권이나 자유, 복지, 세계화 등 여타 영역(low-politics)이 주요한 대북 의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고층위 정치와 저층위 정치가 맞물린 혼합형 정치(Hybrid-politics)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권문제의 경우 미국 등 서방국가가 일관되게 북한의 열악한 인권개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아직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UN차원에서의 권고안 등 인권을 중심의제로 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최근의 경향이 새로운 대북 압박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¹⁶¹⁾ 이런 상황변화는 북한의 대남정책 뿐 아니라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북한이 취할 대남정책의 전략과 목표는 다변화되고 다각화하여

161) 2014년 11월 13일 열린 제4차 사이오 인권포럼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 로버트 킹은 최근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 세 사람을 석방한 것은 미국의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근본적 이유로 북한 인권보고서 채택에 따른 인권압박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속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2014년 11월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유엔, 북한 인권상황 ICC회부 책임자 처벌 권고’, 연합뉴스 2014년 11월 19일.

대남정책이 대남전술의 하나로 구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의미는 대남정책이 과거 이념적 목표점을 지향하지 않고 남한사회에 퍼진 부정적 북한관을 희석시키거나 북한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인식, 정향을 확산시킬 의도의 전술적 목표를 가진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의제의 다양화라는 개념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의 범위와 전략, 전술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9. 핵과 미사일 역량의 차이

북한 핵개발의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로 올라간다. 당시 김일성은 구 소련으로부터 비밀리에 ‘핵 에너지 평화 이용협력 협정’(1956년)을 이끌어 내어 북한의 핵 물리학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0년 북한과 러시아의 과학연구 협력이 중단되는 30년 동안 대략 250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구 소련의 핵 연구소(드브나 핵 과학기지)를 거쳐갔다. 1965년에는 영변에 구 소련의 도움으로 IRT-2000이라는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 사실 핵 무기 기술은 1950년대에 이미 모든 원리가 밝혀진 구 기술이다. 다만 핵 물질인 우라늄 광석만 갖고 있다면 핵 무기의 실질적 개발은 어렵지 않은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김일성이 추구한 북한의 핵무장은 김정일 시대에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핵의 역사는 북한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국제화하는 시초였으며 그 결과 북핵 협상은 국제협상으로 격상된다. 6자회담은 그 증거이기도 하다.

핵 개발과 동시에 핵 무기의 운반체 역할을 할 미사일(그것이 로켓이라 하여도)의 개발 역시 핵 개발과 궤를 같이하는데 다음 표와 같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꾸준히 일관되게 개발해 왔으며 국제사회는 UN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가해왔으나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실효가 크게 가지적으론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다. 김정일은 한 때 두 번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김정일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포기된 적이 없다.¹⁶²⁾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2012년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어떤 시기적 유예도 두지 않고 서둘러 완성을 하려는 김정일의 조급함을 분석할 수도 있다. 김정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올려놓은 핵 실험과 미사일 성능실험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정일의 핵 집착이 전 시대와 비교해서 크면 크지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정은 시대는 이제 사실상(de facto) 핵 무기를

162) 2001년 미사일 시험 동결 2003년까지로 연장(김정일-EU대표 회담) 2002년 미사일 시험 동결 2003년 이후로 연장(김정일-고이즈미 회담).

보유한 북한이라는 점이 김정일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꼽아야겠다. 핵을 추구하던 시기에서 핵을 보유한 시대는 안보의식이나 주변국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반영된 북한의 대남정책의 양상이 무엇일지 분석하는 작업은 핵 변수가 이제 독립변수이자 상수로 자리잡은 북한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하겠다.

〈표 11〉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도발과 UN제재¹⁶³⁾

체제	원인행위	도발 날짜	UN제재일	UN제재
김일성 체제	NPT 탈퇴 위협	1993년 3월 12일	1993년 5월 11일	825호
	노동 1호(화성7호) (1,300km 급)	1993년 5월 29일	이 13년의 기간이 미사일과 핵을 동시에 집중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정일 체제	대포동 1호-실패 (2,000km 급) 광명성이라고 주장	1998년 8월 31일		
	은하 1호 (대포동 2호) (15,000km 급)	2006년 7월 5일	2006년 7월 15일	1695호
	1차 핵 실험 (1 kt 이하)	2006년 10월 9일	2006년 10월 14일	1718호
	은하 2호 (개량 대포동 2호 추진체 로켓-실패)	2009년 4월 5일	ICBM급 미사일 추진체의 개발은 10년 여의 노력 끝에 2012년 12월 최종 성공한다.	
	2차 핵 실험 (2~4 kt)	2009년 5월 25일	2009년 6월 12일	1874호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실패	2012년 4월 13일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
김정은 체제	은하3호 2호기 광명성 3호-성공	2012년 12월 12일	2013년 1월 22일	2087호
	3차 핵 실험 (6~7 kt)	2013년 2월 12일	2013년 3월 8일	2094호
	2013년 3월 31일		경제-핵 병진노선 채택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2013년 4월 2일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	

163) 필자가 조사 자체 정리.

〈표 12〉 1990년대 이후 UN의 대북제재¹⁶⁴⁾

UN제재일	UN제재	주요 내용
1993년 5월 11일	825호	북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첫 결의
2006년 7월 15일	1695호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
2006년 10월 14일	1718호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
2009년 6월 12일	1874호	북 핵실험을 규탄하고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2013년 1월 22일	2087호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안보리 만장일치)
2013년 3월 8일	2094호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 제재 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했고, 금융 제재, 화물 검색, 선박·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catch-all 시행 촉구 등) 분야에서 제재 조치의 실질적인 강화조치 채택

10. 이념의 입체화

김정일 시대 북한을 지배한 지도이념은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선군정치였다. 이는 김일성이 내세운 주체사상(우리식 사회주의)의 군부 적용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정일 체제 아래 선군정치의 영향력은 북한 권부를 지배하고 권력을 다스리는 기초개념이었다. 이는 철저히 탑-다운 형태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김정일이 체계화하여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철학으로 강제한 것이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일로 부터 물려받은 선군정치 외에 아래로부터(bottom-up)의 체제(정권)지지형 이데올로기도 개발됐다. ‘수령결사옹위사상’은 그 대표적인 이념이다.¹⁶⁵⁾ 김정일 정권은 위로부터 강제할 수 있는 ‘선군정치’하나로 권좌를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면, 정권의 안정성이 취약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위로부터의 안정화 논리에 덧붙여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 시대와는 다른 조건과 맥락에 놓여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64) 필자가 조사 자체 정리.

165)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전진하자(사설)’, 노동신문 2012년 4월 23일; ‘北, 연일 ‘수령결사옹위’ 를 모델 띄우기’, 연합뉴스 2013년 12월 21일.

제3절 평가

북한 체제 내부의 변화는 대외관계, 특히 대남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날 북한의 대남인식, 그것이 구체화된 대남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평가의 정당성은 남한의 인식에 있는 것일까. 북한의 행동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측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인가. 앞 절에서 논의한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차별성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3〉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차별 항목¹⁶⁶⁾

구분	주요 항목	김정일 체제	김정은 정권
1	남북문제의 국제화 수준	낮음 → 높음	높음
2	체제의 권력안정화 과정	장기(핵심보직 인사의 안정성 유지)	단기(짚은 인사교체를 통한 안정화 모색)
3	북한내부의 경제상황	악화되는 경로(미시적+거시적 대응)	악화된 상태(거시적 구조적 혁신 선호)
4	체제 관리의 통제변수	적음	많음(탈북자 증가, 휴대폰 사용자 증가)
5	후견그룹의 질	오랜 검증을 통한 직접 형성	간접 형성(정치적 유산)
6	동북아 지정학: 중국의 위상	‘도광양희(韜光養晦)’의 중국	‘유소작위(有所作為)’의 중국
7	대남정책 형성의 틀	(미·일의 후견)남 ↔ 북(중·러의 후견)	남·북 ↔ 북·중 ↔ 북·미
8	대남정책 의제의 층위	High-politics	High politics + low politics → Hybrid
9	군사력: 핵과 미사일 역량	추구(낮음)	보유(높음)
10	체제유지 이념의 입체화	Top-down(선군정치)	Top-down + bottom up(수령결사옹위 사상)

10개의 영역은 사실 공통 카테고리는 없다. 북한 내부의 문제, 대외환경의 특징, 경제 사정, 권력 내부의 한계, 군사적 특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요는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을 견인하는 일관된 원칙과 방향이 존재하는지, 그 기원은 무엇인지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출발이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도출된 경로의존성과 단절적 균형모형이다. 김정은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전 시대와의 다른 상황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남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나 기존 방식을 이탈한 접근이 모색되지 않는 것은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념’의 무게 때문이다. 체제의 운영과 정책의 집행이 기존의 경로를 이탈하지 못하게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166) 필자가 자체 작성.

주체사상이며 선군정치라고 단언할 수 있다. 지도자의 개인적 의지나 리더십의 차이도 이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절에서 살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역별로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념’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대어 답을 찾아보자면 단절적 균형모형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크래즈너(Krasner)의 단절적 균형모형(Model of punctuated equilibrium)은 ‘결정적 전환점’에 이를 정도의 외생적 사건이 없이는 기존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제도의 속성을 풀이해주고 있다. 김정일의 죽음도 북한의 3대 세습의 과정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존 북한의 경로를 이탈하게 할만큼 충격이 있는 외생변수가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일 지배자의 독재국가에서 지도자의 세습은 체제 내에 내재화된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전 시대의 정책이나 제도를 답습하게 되는 경로의존성은 그대로 존속, 유지된다. 앞 절의 10개 항에 이르는 차이도 실은 이 제도 내에서 일어나는 내재변인에 불과한 것이지만 단절적 균형모형이 예상하는 외생변수가 못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주목할 만한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집행의 제도적 실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것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김정은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정권 안정화, 경제회생, 국제적 고립탈피 등)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 그것이 기존의 경로를 이탈하게 될 동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들은 바로 이런 변화의 조짐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새로운 통찰과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3년이 되어간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북한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가능성을 두고 한동안 낙관적 전망이 비등했었다. 스위스 유학경험이 있는 김정은의 경력을 두고 생긴 들뜬 기대감이었다. 그런데 왜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나 바뀌지 않았을까? 본 논문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왜 달라지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지속’현상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에

연구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질문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 점이 바로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이 주목한 인식의 틀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특히, 경로의존성과 단절적 균형모형이란 것에 주목했다. 북한체제가 흘러온 역사적 시간 속에서 형성된 체제의 기초, 이념, 제도, 현실이 무엇을 매개로 경로의존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현재의 북한 체제를 이해할 새로운 개념적 시도를 제시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었다. 특별히 그것이 북한의 대남정책에는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살피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북한이 대남정책에 있어 경로의존적 성향을 밝혀주는 매개요인으로 북한의 공식화된 지배 ‘이념’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도자의 ‘의지’도 공식적인 체제 이념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 중에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단절적 균형모형이 대단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데 이에 따르면 체제 외적인 충격이나 사건(전쟁 같은 군사적 긴장, 공황같은 경제적 위기 등)으로 기존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 이르지 않고는 기존의 체제경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사실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체제로서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체제의 경로를 이탈하는 모험을 택하는 대신 세습을 통한 권력의 안정화, 공고화를 도모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남정책 또한 과거의 것과 별반 차별성을 둘 수 없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는 설명력이다.

앞 장의 논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대남정책이 김정일 체제의 대남정책과 차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을 열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런 차이에 기반하여 김정은의 대남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전시대와 질적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핵 보유에서 비롯되는 차이점. 둘째 리더십의 차이이다.

과거 60년 동안은 북한이 핵 무기를 추구하던 시절이었다. 대남 정책 또한 핵 추구라는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de facto*) 군사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정책적 옵션은 과거보다 월등히 넓어지고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핵 무기의 위협이 과거 핵 공갈(*blackmail*) 수준에서 실제적 핵 위협으로 발전했음을 반영한다.

1972년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한 이후 20여 년 동안 막후에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을 지휘해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충분한 조직 학습과 정책훈

련을 받은 경력이 전무한데다 어릴적 해외 유학 경험으로 북한 체제 내부의 속 깊은 경험이 빈약할 수 밖에 없다. 노회한 당, 군 원로들을 장악하기 위한 철권통치의 필요성, 잦은 인사를 통한 자기 존재감의 과시, 특별히 고모부인 장성택의 갑작스럽고 잔인한 숙청 등 전 시대와 달리 정치적 불안감이 가중된 인상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숙청을 통한 정권의 조기 안정을 이뤘다는 반사이익도 거둔 측면이 있다. 이런 안정적이지 못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대응 방식은 리더십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대남정책 자체에 대한 북한 내부의 소요와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 북한 정권을 세운 김일성시대 대남정책의 목표가 가시적 대남적화 통일, 곧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수단적이고 전술적 의미가 컸다면 정권유지조차 버거운 김정은 시대의 대남정책은 그 자체가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의 의미를 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김정은의 북한으로서는 채택할 수 있는 정책옵션이 그리 많지 않다. 대남정책이 전술적 의미를 상실한 이상 뭔가 큰 뗏가를 기대하지 않고는 유연한 노선변경을 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통찰해 낸 경로의존성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내재된 경직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념 틀이다. 반면, 단절적 균형모형은 대남정책을 생산해 내는 북한체제가 갖는 경직성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이 된다.

그 결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한 개념 두 가지가 북한 체제와 그 체제가 빚어내는 대남정책의 성질을 설명해 내는 개념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새롭게 제시되지 못한다. 다만, 북한의 대남정책이 과거의 틀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줄 따름이다. 이는 정책현실에서의 지속은 변함이 없는 반면, 인식의 차원에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작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한 단면인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남북에 요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남한이) ‘더 유연하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나설 때’라는 적극적 관점¹⁶⁷⁾과 신뢰할만한 북한의 선조치를 기다려야한다는 보수적 수동적 입장이다. 5.24조치의 해제신중론은 후자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상대가 있는 게임일수록 상호 의존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

167) 김용현, ‘전문가 대담, 박대통령의 815경축사 의미와 평가’, 중앙선데이 2014년 8월 17일.

이며 대부분 그 상대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의 북한은 세 가지 위협에 노출돼 있다. 첫째, 아직도 진행 중인 지배권력의 안정, 둘째, 경제회복, 셋째, 국제적 고립의 탈피.

이 세 가지 과제 앞에 대남정책이 들어설 여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 대남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더욱 강경하고 공격적이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으로서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진단한대로 체제 경로를 이탈할만한 외생변수를 만들어주는 적극적 대북 정책을 취할지, 현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대북 입장을 지향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강신학,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 김정일 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강성운,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남조선 혁명론”, 『북한학연구』제14호 (1984) p.31-45
- 강태훈, 『일본외교정책의 이해』(서울: 오름, 2000).
- 고유환, “북한의 대남정치와 대남정책의 상관성 분석”, 『통일경제』 1997년 1월호 (1997).
- 고홍석, “북한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북한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
- 곽인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4.
- 구현우, “발전국가의 산업화 정책변동에 관한 제도론적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박사학위 논문(2010).
- 구현우,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국정관리연구」 제7권 2호 (2012년 12월).
- 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4년 봄호 (2014) p.16.
- 김갑철, “김일성 주체사상의 본질과 북한의 통일 정책”,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 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220.
- 김경두,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전술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계동,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가능성과 한계”, 『국방논총』 제19호 가을호 (1992) p.32~57.
-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9권 1호 (2013).
- 김선명, “신제도주의 이론과 행정에의 적응성: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논총』 제17권 1호 (2007년 여름) p. 213.
- 김연수,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안정성”, 『신아세아』 19권 4호 (2012), p.81-112
- 김연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경협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2013).

김용호, “북한외교정책의 결정요인,”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서울: 서울프레스, 1995) p.71.

김윤권, “제도와 정책연구: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4집 1호(2005), p.299~400.

김은미, “한국주택정책 변화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7.

김일기,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글로벌정치연구』 5권1호 (2012).

김재철, “군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5집 3호.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10).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김종욱,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8).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국방연구』 57권 1호 (2014) p.27-59.

김창희, “제2장 북한의 정세변화와 대남 강경전략”, 『통일전략』 9권 1호 (2009) p. 41-76.

김천구, “2013년 북한 GDP추청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통일경제』, 2014 1호 (2011) p.57.

길영환, 이원웅 역, 『남북한 비교정치론』 (서울: 문맥사, 1988) p.319.

노경수, “북한 외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85) p.418~427.

문순보. “남북군사실무회담의 분석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11년 3월호.

문정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2년: 이상과 현실”, 『평화논총』, 제4권 1집,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9).

민병천, 『민족통일론』(서울: 고려원, 1985) p.177-178, “북한의 통일 목표와 전략”,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15.

박상수, “탈 냉전기 북한의 대남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 정체성의 정치와 권력정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상혁, “북한 대남전략의 차원별 중심(重心) 식별과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 제29권 3호 (2013).
- 박선동,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민족공조론 :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시
민윤리학회회보』 21권 2호 (2008).
- 박영자,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종문,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변화전망”, 『경찰연구논집』 10호 (2012) p.37-65.
- 박형중,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KDI북한경제리뷰』 12권 3호 (2010) p.22-35.
- 밸러리 허드슨 지음, 신윅희 등 옮김, 『외교정책론』(서울: 을유문화사, 2009).
- 문정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2년: 이상과 현실”, 『평화논총』 제4권 1집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9) p.40-60.
- Suh, Dae Sook, Military-first politics of Kim Jong Il, 『Asian Perspective』, Vol.26,
No.3 (2002) p. 145-167.
- 손병선, “북한 세습체제의 구축과 대남통일정책”, 『한국동북아논총』 60호, (2011)
p.27-43.
- 안경모, “탈냉전기 북한의 한반도 평화전략 : 대미정책과 대남정책을 중심으로
(1988-20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
스, 1985) p.19.
- 엄종식, “김정은체제의 대남정책과 신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군사발전연구』 6권
(2012).
- 오경섭,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의 특징,” 『세종정책연구』 근간 예정 (2014).
-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 1948~2008” 『국제지역연구』, 17권 2호 (2008).
- 유찬열,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 평가”, 『비교민주주의연구』 9권 1호 (2013)
p.69-96.
- 이규열, “90년대 북한의 대중·소 정책”, 『국방논총』 제11호 가을호 (1990) p.14-25.
- 이기중,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37집 2호 (1997)
p.182-192.
- 이성봉,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8권 1호 (2004)
p.155-171.
- 이수석,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평화학연구』, 13권 4호
(2012) p.183-190.
- 이윤식, “탈냉전기 북한 대미전략 변화의 다차원적 요인분석”, 고려대학교 정치외

- 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북한의 대남전략 패턴과 대응방안』, 신진연구자 자료집, (서울: 통일부, 2011).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이정철, “김일성의 남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역사비평』 97호 (2011) p.46-79.
- 장용석,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통일과 평화』 제4집 1호, (2012), p. 78.
- 장지호,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국적 적용”, 『한국행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p.4
- 전미영,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통일문제연구』 17권 1호 (2005).
- 전선기, “북한대남전략의 본질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전현준, “북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online Series』, 09-23, (통일연구원, 2009).
- 정규섭,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13권 1호 (2010),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와 평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8.
- 정대화,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 김남식 (편), 『북한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학, 1989) p.194.
- 정봉화, 『대결에서 공존으로』 (서울: 한울, 2000), “북한의 대남정책연구: 1948-1998”,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북한의 대남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18.
- 정성장, “북한의 통일 및 대남정책 목표와 변화연구”, 『고황정치학회보』 제2집 (1999).
- 정영철, “김정일 시대의 대남 인식과 통일정책”, 『북한연구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회』 (2012).
- 정영태,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형성과 군대변화」 연구총서 07-09 (통일연구원, 2007).
- 제성호,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한국보훈논총』 11권 2호 (2012).
- 존 페퍼 지음, 정세채 역 『남한북한』 (서울: 모색, 2005), p.85.
- 주성돈, “원자력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역사적 제도와 행위자를 중심으로”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최대석, 윤성식, “북한의 초기 대남정책 변천과정연구” 『사회과학연구』 10권 2호 (2004).
- 최세경,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최완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요인과 방향 연구, 1994~1998: 북한 국내정치와 대남정책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안보학술논집』 (1998).
- 최진욱, “김정은 후계체제와 선군 통치방식의 변화: 정책적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p10-12.
- 한겨레 사회연구소 엮음, 『분단에서 통일로』, (서울: 일꾼, 1988) p.70.
- 한관수,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북한학보』 38권 2호 (2013) p.6-43.
- 한기범,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력 구도의 특징평가”, 『2012 학술회의 자료집 : 김정은 체제 권력 구도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2012) p.6-15.
- 하연섭, “시차적 접근법과 신제도이론”, 『한국정책학회보』11집 2권 (2002) p.299-303, 『제도분석:이론과 쟁점』(서울: 다산출판사, 2003).
- 하영선·김영호·김명섭,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하영선·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서울: 을유문화사, 2007).
- 홍성후,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67호 (2013).

2. 북한 문헌

- 김일성,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p.20.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3. 신문기사

- 노동신문 2012년 4월 23일.
 뉴시스 2010년 9월 28일.
 뉴시스 2012년 7월 18일.

뉴시스 2013년 3월 26일.
뉴시스 2013년 4월 11일.
뉴시스 2014년 9월 30일.
뷰스앤뉴스 2010년 9월 30일.
서울경제 2013년 3월 28일.
연합뉴스 2013년 3월 8일.
연합뉴스 2013년 12월 21일.
연합뉴스 2014년 11월 19일.
중앙선데이 2014년 8월 17일.
MBC 뉴스투데이 2010년 9월 30일.

3. 해외 문헌

- Braudel, Fernand, *Capitalism and Material Life 1400-1800*, (Harper 1973); *On History* (Univ. of Chicago Press 1980); *A History of Civilization* (1993).
- Clemens, J. & Cook, J. M., "Politics and institutionalism: Explaining durabil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99).
- Cox, Robert, W.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B.J.Walker ed., *Culture, Ideology and World Order* (Westview Press, 1984).
- David, Paul A.,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Economic History* Vol.75 No.2, (1985).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2).
- Grieco, Joseph M ,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 Elgar Pub, 1993).
- Guinnane, Timothy, William A. Sundstrom, and Warren Whatley, *History Matters: Essays on Economics Growth, Technology, and Demographic Change*. (Standford, California: Standford Univ. Press, 2004).
- Haggard, Stephan ,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E. Elgar, 1995).
- Hall, Peter A ,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atain*

- and F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Hall, Peter A. & Rosemary C. 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cience, Vol. 44, (1996).
-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London: Frances Pinter, 1980).
- Krasner, S.D.,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Vol.16 No.2 (1984), p. 223-246.
-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21, No.1 (1988), p.75.
- Lecours, Andre. "Theorizing Cultural Identiti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s a Challenge to the Culturalist."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2 No.3 (2000), pp.499-522.
- Lieberman, Evans S. "Causal Inference i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A Specification of Periodization Strateg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34 No.9 (2001) pp.1011-1035.
- Litwak, Robert S., *Rogue States and U.S. Foreign Policy: Containment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0).
- Mahoney, J. & Snyder, R. "Rethinking agency and structure in the study of regime chang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New Brunswick, 1999).
- Pierson, P. & Skocpol. T.,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in Katznelson and Helen V. Milner (eds),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New York: Norton & Co.2002).
- Pontusson, Jonas, "From Comparative Public Policy to Political Economy: Putting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ir Place and Taking Interests Seriousl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8 (1995) pp.118~120.
- Rothstein, Bo. "Political Institutions: An Overview." in Robert E. Goodin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33-166.
- Scott, W. R. *Institution and Organiz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1)
- Skocpol, Theda, *State and Social Change Revol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 Skocpol, Theda, (ed.),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Steinmo, Sven., Thelen, Kathleen., and Longstreth, Frank,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Streeck, Wolfgang & Kathleen Thelen.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In Wolfgang Streeck & Kathleen Thelen(eds.).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1-3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tone Sweet, Alec,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urope*, (Oxford Univ., 2001).
- Swell Jr., William H.,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In *The Historic Turn in Human Science*, ed. Terrane J. McDonal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pp. 245-280.
-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7).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 집단치료놀이를 중심으로

이현주

IMChilds심리상담연구소

제1장 서론	378
제2장 이론적 배경	380
제3장 연구방법	393
제4장 연구결과	422
참고 문헌	435

표 목차

<표 1> 집단치료놀이와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원리	392
<표 2> 조사대상기관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태	393
<표 3> 탈북청소년 출신지별 재학 현황과 중도탈락률	394
<표 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396
<표 5> 조사대상기관 탈북청소년 현황	397
<표 6>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전체 구조	409
<표 7>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회기 실시내용	410
<표 8>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2회기 실시내용	411
<표 9>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3회기 실시내용	412
<표 10>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4회기 실시내용	413
<표 11>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5회기 실시내용	414
<표 12>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6회기 실시내용	415
<표 1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7회기 실시내용	416
<표 14>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8회기 실시내용	417
<표 15>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9회기 실시내용	418
<표 16>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0회기 실시내용	419
<표 17>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1회기 실시내용	420
<표 18>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2회기 실시내용	421
<표 19> A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422
<표 20> B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423
<표 21> C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424
<표 22> D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424
<표 23> A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425
<표 24> B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426
<표 25> C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427
<표 26> D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428
<표 2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N=4, Mean)	429
<표 2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적응 사전-사후 변화량 비교	430

그림 목차

<그림 1> 애착이론과 치료놀이	384
<그림 2> 대상관계이론과 치료놀이	385
<그림 3> 자아심리이론과 치료놀이	386
<그림 4>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 모형	402

요 약 문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평가이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산, 해체 경험을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면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남한에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단치료놀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치료놀이는 1967년 미국 시카고의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안되었으며 성인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및 교육방법이다. 치료놀이는 박탈되고 방임된 아동, 애정 결핍된 아동, 그리고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동들에 대하여 비언어적(nonverbal)치료나 전언어적(preverbal)치료로 단기간 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개입방법임이 입증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특성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탈북청소년 교육공부방을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된 교육·보호시설은 방과후공부방 20개 기관과 대안학교 8개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650명중 원부모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방과후공부방이 84명(25%), 대안학교가 41명(13%)이었으며 대한학교 청소년 중 25명은 무연고였다. 조사대상 650명 중 525명(80%)의 청소년은 결손가정이었으며, 양친과 연락은 모두 가능한 525명(80%)중에도 상당수는 부모가 이혼상태였다. 그러므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의 양육환경은 남한의 저소득층 아동과 유사하거나 다른 일가친척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 특성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적절한 양육 부재로 인한 폭력성(외현화)과 둘째, 심리적 위축(내재화)과 셋째, 언어와 사회성 부족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집단치료놀이의 사전, 사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응 변화량이 통제집

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p=.001$)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집단차료를 높이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위축행동 감소,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관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조사한바 전체 28개의 기관 중 한곳을 제외한 27곳에서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거나 운영중이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외부기관 연계, 자원봉사, 후원사업, 유급전문상담사 연결, 내부강사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프로그램 형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음악치료, 독서치료 등 이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첫째,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둘째,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명목상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셋째, 각 기관 운영자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제언은 첫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탈북청소년공부방 기관 관계자들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원은 가정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와의 갈등문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세대들과 자녀세대들은 심리적·정서적 교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탈북청소년들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305명(47%)의 청소년들이 제3국출신이었는데 대부분은 한글을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한국어로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드물지 않았다. 탈북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언어의 미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성 부족은 탈북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공격성, 심리적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들에게 더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다문화청소년들처럼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못하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넷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물질적 지원은 탈북청소년이나 성인 모두에게 그 효과와 지속 여부에 있어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응 지원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며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통일 이후 남북통합을 고려하여 남북화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작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해당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의 결과가 이후의 다른 행동까지 지속되므로 한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활용과 그 평가이다. 2014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약 26,483명¹⁾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청소년(20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미만 정도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탈북청소년의 입국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최근 추세는 중국내 탈북여성의 증가로 인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청소년)의 증가이다. 또한 북한과 제3국에서의 가족해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중국내 불안정한 생활을 피해 단독 입국하는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²⁾

청소년 연령층의 남한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이 문제화되면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연구(이기영, 2001; 홍덕기, 2001; 민성길, 2002; 김형태, 2004),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이기영, 2002; 길은배, 문성호, 2003; 홍순혜, 박윤숙, 원미순, 2003)이 있으며 문화심리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정향진, 2005), 학업 및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박선경, 1998; 엄경남, 2001; 이기영, 2001; 박모란, 2002), 탈북청소년의 학업 및 교육에 관한 연구(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오기성, 2010)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은 크게 심리적 적응과 가족관계, 학교 적응,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에는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공격성, 우울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자녀와의 관계, 남한에서의 부모와의 적응 속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습, 또래 및 교사관계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³⁾

‘입국 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보면, 조사대상 탈북 초등학생의 43%, 중·고등학생의 35%가 심각한 심리적 곤란을 경험

1)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검색일:2014.6.3.).

2) 신호숙,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정책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3.6.10.).

3) 김명선·이동훈,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0권 1호, 2013, pp. 39-64.

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령층에서 정서적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또는 자해 위험성, 또는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문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사회지원체제 구축 및 실행이 매우 시급하다.⁴⁾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산, 해체 경험을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면서 남한에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탈북과정과 중국 체류기간 중에 얻게 된 심리적 외상, 남한의 경쟁적 교육체제 속에서 받는 압력, 갑작스런 자본주의 사회와 대중문화 매체에의 노출에 따른 문화적 결핍과 열등감, 청소년기 남한 또래문화와 외모중심주의의 문화적 압력 등 이들이 동시에 감당해 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은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박운숙, 2007; 정진웅, 2004).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탈북청소년에게 남한의 학교교육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남한의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회복하게 지원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탈북청소년들에게 가정과 부모는 심리적 적응요인으로서 중요하나 실제로 탈북가정의 경우 부모도 자녀 못지않게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부모세대는 북한에서 출생 후 성장하여 고난의 행군과 식량난을 경험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부모세대들이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실현하여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치료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당면과제는 이들이 남한의 정상적인 시민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당면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이후 남북통합과정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이들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 양계민·황순택,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19권 2호, 2008, pp. 333-358.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단치료놀이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치료놀이는 1967년 미국 시카고의 Jernberg박사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성인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및 교육방법이다. 1967년 미국 시카고에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심리적 서비스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된 그는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모델’을 창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 대학생들, 전문치료사들을 모아 훈련시킨 후 이들을 각 가정으로 보내어 아동들과 상호작용하게 하였고 이후 사례보고를 통하여 새로운 접근의 효과를 입증 받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각지에 설립된 치료놀이 연구소에서는 치료와 교육 분야에 치료놀이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아동중심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므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장중심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탈북청소년 공부방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재미있고 쉽고 간단하면서 응용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탈북청소년과 심리적 적응

탈북청소년은 좁은 의미로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탈북청소년은 ‘부모 중의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도 포함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위의 법률이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탈북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적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00년대 이전의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크게 늘어났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배급제가 전면 중단되었고, 아사자가 속출하자 생존을 위해 탈북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였다. 먼저 입국한 이들에 의해 탈북 루트가 만들어지면서,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오는 형태가 생겨났다. 또한 탈북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면서 점차 학령기의 청소년들도 입국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탈북청소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입국자와 청소년 입국자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비율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⁵⁾ 한편, 재학 현황을 보면 정규 학교에는 초등학교 1,204명, 중학교 351명, 고등학교 437명, 총 199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대안교육시설(전일제)에는 21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약 10% 가량의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논의하기 앞서 '적응'이란 생물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적응의 개념을 확대하여 주체적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패턴이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도 포함시키고 있다.⁶⁾

인간이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변이를 관용하고 그에 반영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적응이라 할 수 있으며(김경동, 1995), 심리학적 개념과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적응은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개별인간의 투쟁이며 사회학적으로는 다양한 사회환경으로부터의 기대와 욕구 등에 인간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윤여상, 1994).

윤인진(2000)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심리적 욕구와 사회환경 간에 조화를 이루어

5)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입국현황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577	1,483	2,169	1,905	1,135	418	307	7,994
여	575	1,746	5,170	5,985	3,114	935	849	18,374
합계	1,152	3,229	7,339	7,890	4,249	1,353	1,156	26,368

출처 : 통일부, 2014. 2월.

- 6) 길은배·문성호,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p. 15.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사회적응이라 말하였으며,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제적 적응이란 남한 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을 획득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심리적 적응이란 남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장혜경과 김경란(2000)은 사회적응의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정서적 측면, 가족관계 및 역할체계, 가족외적 관계 및 역할체계, 가족외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와의 관계 및 교류 정도로 세분화하면서 사회화와 통합의 의미를 지닌 사회적응이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환경과 사회구조에 정상적으로 편입되어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양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즉, 남한 사회의 제반 사회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심리적으로도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기영, 2001).

따라서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강봉규, 1992), 또한 부적응이란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당면 문제를 환경이나 조건과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요구나 규범에 비추어 용납되기 힘든 행동을 부적응 행동이라 할 수 있다(송준호, 1993; 김병성, 1991).

부적응 행동이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은 시간과 공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초월하여 규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로써, 완전한 적응이나 불완전한 적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두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조은숙, 1990).

부적응 행동은 대개 한가지 원인에 의한 것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만을 중시하기 쉬우나 현상적 원인은 하나의 원인이 될 뿐,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성격, 태도, 흥미, 지능 등의 심리적 요인과 성장환경, 사회구조 등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조건들이 포함되는 생물학적 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김명곤, 정영운, 1991).

부적응 행동의 유형은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 될 수 있는데, 아동에게서 일어나는 부적응 행동의 유형은 크게 사회적 문제행동, 정서적 혹은 성격적 문제행동, 학업적 문제행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신금주, 1995).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문제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을 하지 않는 심리·정서적 상태를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라고 정의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활용은 탈북청소년의 문제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2절 집단치료놀이 이론

1. 집단치료놀이의 제이론

집단놀이치료는 집단치료와 놀이치료라는 두가지 치료양식을 가지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다루기 위한 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정의한다(O'Connor, 1997). 치료놀이는 단기간 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강렬한 개입방법임이 입증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특히 박탈되고 방임된 아동, 애정 결핍된 아동, 그리고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동들에 대하여 비언어적(nonverbal)치료나 전언어적(preverbal)치료의 활용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⁷⁾

위축결손 적응저하를 돕는 프로그램인 치료놀이는 다양한 연령층, 문화적 배경,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광범위한 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치료놀이는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전 단계, 즉 언어사용 이전의 상호작용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치료방법이다.

치료놀이는 부모- 자녀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간발달을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자아심리학이론, 대상관계이론, 애착이론에 기초하여 관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게 된다. 성격발달의 과정은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초기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서 성숙 되는 것이다. 즉, 인간행동과 발달에 있어서 1차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향한 욕구이며 이것을 충족시키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놀이이다.

7) Evangeline Munns(ed), 성영혜·송주미 공역, 『애착증진 치료놀이』 (서울:도서출판나눔의집), 2006,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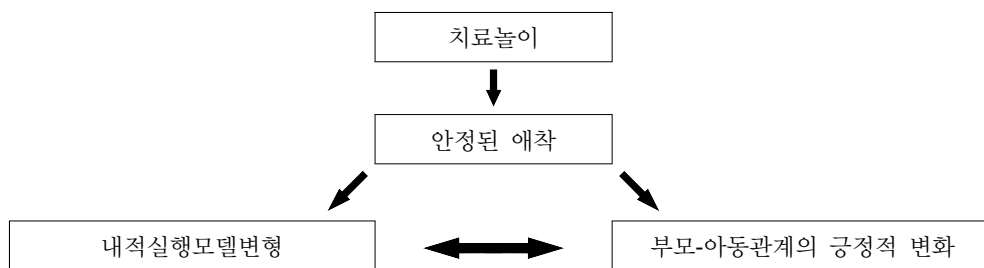
초기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여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등, 부적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접촉과 구체적이고 잘 계획된 놀이를 통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관계를 재형성 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놀이는 건강한 부모- 자녀관계의 양상을 재발견하는 것으로 성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치료자와 아동이 놀이감이 되어 재미있는 방법으로 노는 것이다. 또한 치료놀이는 아동의 내면세계를 통찰하고 ‘지금-여기’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중요시 한다. 치료놀이와 관련된 이론은 다음 같다.

1) 애착이론과 치료놀이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은 장기적 인간 관계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영아가 정상적인 감정,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주 보호자(primary caregiver)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착 이론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생겨난 부랑아와 고아들이 많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UN에서는 심리분석가이자 심리치료사인 존 보울비에게 이 문제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울비는 애착 이론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만들었다. 매리 애인스워스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애착이론의 기본 개념을 강화하며 "안전 기지"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아기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착 패턴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다.⁸⁾ 애인스워스가 분류한 세 가지 애착 패턴에는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 불안정-회피(insecure-avoidant) 애착, 불안정-양가(또는 불안정-저항, insecure-ambivalent) 애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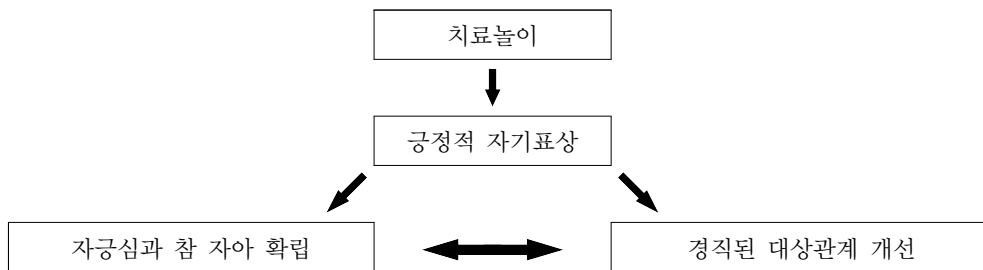


〈그림 1〉 애착이론과 치료놀이

8)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 759.

2) 대상관계이론과 치료놀이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대상관계 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의 자아형성과 그 발달과정에 있어 ‘관계’의 개념에 기초를 둔다. 이 이론은 유아가 자기를 돌보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또 표상화 하는가에 따라 정서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림 2〉 대상관계이론과 치료놀이

3) 자아심리이론(self theory)과 치료놀이

도널드 위니컷(Donald W. Winnicott)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과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 자기발달 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위니컷은 직접적인 임상관찰과 수많은 치료경험을 통하여 ‘자기이론(self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아를 태어나면서 대상과 상호작용 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초기 유아의 정서발달 분석과 함께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라는 함축성 있는 용어를 만들어 유아의 대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위니컷은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과 달리 대상관계 이론가중 가장 독창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실험으로 평가받는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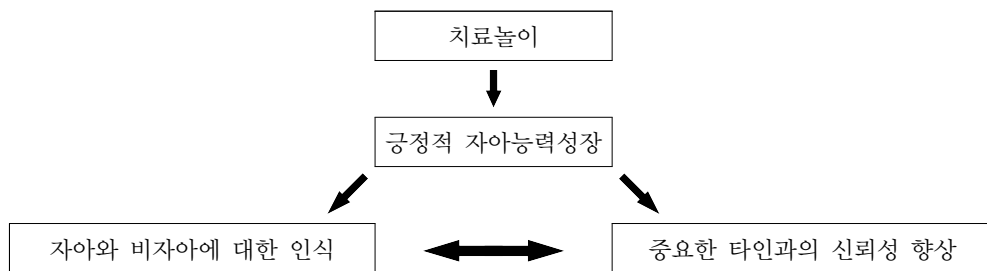
위니컷은 초기 유아의 정서발달 분석과 함께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유아의 관계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와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유아의 자아 형성에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었다.

위니컷은 헌신적인 어머니의 돌봄으로 유아가 성장하고 독립하게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한다. 또한 위니컷은 놀이가 유아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이를 통해 유아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임상사례를 통하여 유아기의정서발달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따라서 놀이의 제공은 유아를 치료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니컷은 멜라닌 클라인의 놀이에 대한 견해를 부분적인 의미에서 옳지만 그것이 놀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멜라닌 클라인은 놀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측면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삶이기에 놀이가 가진 그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서 놀이는 치료의 수단으로 보는 크레인과는 달리, 놀이 자체가 바로 치료인 것이다. 놀이 그 자체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심리치료를 곧 놀이로 보고 있다.⁹⁾

심리치료에서 놀이는 치료이며, 성장이다. 유아는 놀이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그 놀이 과정을 통해 치료되어진다. 놀이의 영역은 치료의 영역이다. 치료와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은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놀 때, 놀이가 겹쳐지는 부분이다. 심리치료는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놀이해야하며, 치료자는 먼저 놀 수 있어야 한다. 놀 때에 놀이는 자가치료의 능력이 있으며, 잘 노는 유아는 건강한 유아가 된다.¹⁰⁾ 위니컷의 정서발달 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이 의존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시점에서 출발한다.¹¹⁾ 그는 의존을 절대 의존기와 상대 의존기 및 독립의 단계로 보았으나, 유아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모성적 돌봄이 없는 곳에는 유아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즉 유아가 질적으로 홀로 존재 할 수 없고 유아의 실제적인 무능이 유아로 하여금 축진적 환경 또는 모성적 돌봄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¹²⁾



〈그림 3〉 자아심리이론과 치료놀이

- 9) Donald W. Winnicott. *Playing: A Theological Statement. Playing and Reality*, 53-54.
 10) Donald W. Winnicott. *Playing: Creative Activity and the Search for the Self. Playing and Reality*, 41-46.
 11) 도날드 위니컷. 이 재훈 옮김 『어린이 심리치료』. 서울 :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1-19.
 12) 서은주, 『위니컷의 놀이이론을 통해 본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 집단치료놀이의 요소

치료놀이는 아동의 강한 자아, 자신감을 형성하는 필수요건은 재미와 장난기 어린 공감능력을 가진 양육자의 존재이다. 자신을 위로하고 보살핌 수 있는 능력은 위로 받고 보살핌을 받았던 초기 경험에 달려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아동은 유능한 자아상을 확립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 희망적이다. 치료놀이의 관계놀이 활동은 생활 연령보다 현재의 정서적 수준에 맞춰 진행되며, 퇴행적인 욕구를 중요시 한다. 라는 기본가정을 지니고 있다(Jernberg, A & Booth, P. 1998).

집단치료놀이는 성인주도의 구조화된 놀이 집단이다. 치료놀이 집단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고 유쾌한 놀이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협동적인 게임과 양육적인 게임을 통하여 집단치료놀이는 아동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능력과 신뢰를 증가하여 발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치료놀이의 4가지 규칙은 상처주지않기, 다 함께 하기, 재미있게 지내기, 성인이 책임지기이다. 성인이 집단에서 구조, 도전, 개입, 양육과 즐거움의 경험을 하도록 틀을 마련해 준다. 즐겁고, 양육적이며,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종종 인지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치료놀이의 규칙은 재미가 있어야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치료놀이의 원리로는 구조(Structuring), 개입(engaging), 양육(nurturing), 도전(challenging)의 4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그 외에 즐거움(playfulness)이 추가되어 치료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줄 끝 재미있어야 한다. 4차원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치료놀이는 구조, 개입, 도전, 양육이 활동의 기초가 되며, 즐거움이 추가되어 때 치료놀이 세션마다 활동의 요소가 된다.¹³⁾

1) 구조(Structure)

부모는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등, 아이들의 시·공간을 구조화시키기 위한 규칙을 만든다. 이로 인해 아이의 세계는 부모에 의해 시간과 공간에 따라 구조화 되고 결과에 대한 예측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획득하게 된다. 구조는 아동의 세계가 부모에 의해 시간과 공간에 따라 구조화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은 결과에 대한 예측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모델로 하는 치료놀이는 회기에서 치료자가 활동내용을 계획하고, 주도하도록 한다. 구조화의 요소는 내적 조절

13) 성영혜, 치료놀이 I, (서울:형설출판사), 2000.

능력이 부족한 충동적 아동들 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아동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2) 도전(Challenge)

도전은 유능함과 자기 확신에 대한 느낌을 길러준다. 도전의 첫 단계는 그 아동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실패를 경험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는 것이 도전활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전활동을 시키는 것은 유능함과 자기확신에 대한 느낌을 길러준다. 도전활동은 재미있어야 하고 아이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이와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도전활동을 다룰 때 도전을 배우고, 수용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촉진된다.

3) 개입 (Engagement)

개입은 삶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은 즐길 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개입을 통하여 아동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집중적인 관심을 아동에게 보이고 아동이 새로운 경험들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자기 자신 이외의 세계와 접촉을 하고 탐색하고 타인과 차별화하며 호기심을 갖고 사회에 적응하게 한다. 개입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 되고, 몸의 경계에 대해 배우고, 자기들이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매우 위축되고, 고집이 센 아이들 또는 자폐아와 같이 높은 보호막을 치고 있는 회피적 아동들에게 많이 사용된다.

4) 양육(Nurture)

양육은 모든 아기들에게는 필수사항이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표현한다. 이것을 통해 아기는 스스로 가치있고 사랑스럽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배우고, 아이는 양육활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긴장의 이완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 퇴행적인 양육 활동들은 아이의 충족되지 못한 어린시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포근함과 정서적 충족감을 경험하게 한다. 양육, 부모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표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스스로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거의 양육 받지 못한 공격적이고 과잉행동을 하는 아동 또는 어린시절이 없었던 나이에 비해 조숙한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결핍된 돌봄의 포근함과 정서적충족감을 경험케 하여야 한다.

5) 즐거움(playfulness)

치료놀이의 매 세션은 아동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3. 집단치료놀이의 특성

치료놀이의 시작과 끝은 의례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활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점검(check up)과 음식 먹여주기(feeding)이다. 전형적인 양육행위를 통하여 신중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점검(check up)은 안녕 인사를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모든 아동들에게 잠깐이나마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며, 그가 이곳에 온 것이 기쁘며, 재미있게 놀 준비를 시켜준다.

점검(check up)은 종종 집단 안에서 아동의 상태를 더 잘 알아차리게 해주며 강력한 양육의 수단이 된다. 음식 먹여주기(feeding), 엄마는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아기의 의존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나타낸다. 의존성과 믿음은 서로 관련이 있다. 어떠한 의존성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 음식 먹여주기(feeding)에 있어서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 완전하게 돌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 아이는 아이의 역할에 의해서 완벽하게 돌봐질 것이다. 아동은 다른 사람의 돌봄 속에서 완벽하게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행위이다. 친밀감과 퇴행성, 재미, 솔직함, 의존성 또는 관대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성인에게 간식나누기는 갈등을 드러내게 하는 장이 될 것이다. 회기에 걸쳐 점검(check up)과 음식 먹여주기(feeding)가 반복될 때 조건 없는 돌봄과 거부하는 상황까지도 돌봐진다는 치료놀이의 고유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치료놀이 활동은 흥미롭고 놀라운 것이어야만 하고 경험적이고 반복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이 두 행위의 반복으로 인해 안정성과 믿음을 키울 수 있다(Rubin, P. & Tregay, J, 1989).

촉각은 가장 사회적인 감각이다. 일반적으로 혼자 행해질 수 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과 달리 촉각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접촉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기술의 시각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접촉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 문화일수록 공격적인 행동이 적음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부모들은 프랑스의 부모들보다 아동과 덜 놀고, 덜 이야기하고, 덜 접촉하였는데 미국아동들은 프랑스 아동들보다 또래집단

을 더 괴롭히고 공격적이었다. 접촉이 있는 문화에서는 성인의 공격성이 낮은 반면 접촉이 제한된 문화에서는 성인의 공격성이 높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다. Jourard와 Rubin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남아보다는 여아와 더 많은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신체접촉을 부모와 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후의 성차가 이러한 초기의 접촉차이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접촉이 박탈된 동물이 더 공격적 이므로 남아에게서 주목되는 더 공격적인 행동이 부모로부터 접촉을 덜 받은 것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Field, T, 2003).

치료놀이는 신체적 접촉을 중시하며, 친밀하고, 개별적이고 집중적이면서도 재미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치료방법이다. 치료놀이는 건강한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재형성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는다. 부적절했던 신체적 접촉에 노출된 아동은 긍정적인 신체접촉에 노출될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해 접촉이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Munns, E,(ed), 2000).

1) 접촉을 사용하기

치료놀이는 항상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이로우는 접촉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보호자가 사랑을 담아 아동을 어루만질 경우 아동의 자아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 한다’고 하였다. 접촉은 인간의 경험에 있어 기초가 되고 아동은 접촉을 통해서 아동이 휴식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아동과 안정된 애착을 키울 수 있다.

2) 성인이 책임지기

치료놀이는 치료자가 아동을 따르기 보다는 성인이 전적으로 자신있게 놀이활동을 주도한다. 치료놀이 세션을 어른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적절히 규정된 한계나 범위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관계성을 발전시키기

치료놀이는 인간행동에 1차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관계를 향한 욕구라고 가정한다. 치료놀이는 부모를 치료세션에 참여시킴으로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욕구를 알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재의 문제와 새롭고 긍정적으로 아이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4) 퇴행욕구를 만족시키기

아동의 퇴행하는 욕구에 반응을 해주는 것은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필수 단계이다. 위니컷에 따르면 치료과정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언어적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실패한 환경의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 초기 발달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퇴행하려는 경향은 아동이 가진 자기 치유를 위한 능력의 일부라고 설명하였다.

5) 긍정적 시각을 갖기

치료놀이에서는 즐겁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아동이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한다. 각각의 아동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을 발견해 주고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따라서 아동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며 자신의 자아상과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태도도 변화시키게 된다.

6) 놀이를 이용하기

여기에서의 놀이의 의미는 장난감이라는 매개물이 아니라 부모가 영아와 함께 하는 초기단계의 놀이를 뜻한다. 즉, 부모가 영아와 함께 즐기는 관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금-여기 의 신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놀이이다. 이러한 놀이는 영아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도록 한다.

7) 감정이입(공감)을 발전시키기

치료놀이에서는 부모나 중요한 타인이 영아의 감정뿐 아니라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알맞게 대응하도록 돕는다. 어머니와 영아 간에 이루어지는 감정의 조율은 영아에게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입적 능력을 갖게 한다.

치료놀이의 주요목적은 건강한 애착, 자아존중감,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다. 치료놀이는 어떤 해석도 하지 않고 별난 행동은 무시된다. 클라이언트의 머무르는 문제의 치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모두가 가진 내면의 치유와 성장의 잠재력의 기초가 되는 확신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한다 (Munns, E,(ed), 2000).

치료놀이의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계는 아동의 연령과 병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 단계는 소개단계(Introduction Phase)로 치료자가 먼저 아동에게 다가가고 치료놀이에 대해 적극적이며 재미있게 소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단계(Exploration Phase)로 아동과 치료자가 적극적

으로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잠정적 수용단계(Tentative Acceptance Phase)이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치료놀이의 특별함에 놀라고 거짓으로 수용하는 단계로서 시험과 염려가 내재 되어있다. 네 번째는 부정적 반응단계(Negative Reaction Phase)이다. 아동이 친밀하고자하는 노력에 저항을 하는 단계이다. 아동이 치료자의 확고한 인내와 희망에 맞부딪히면서 그 강도는 감소하고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부정적 반응 단계는 치료의 성과를 거두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다섯 번째는 성장과 신뢰의 단계(Growing and Trusting Phase)이다. 이 기간동안 아동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재미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자심에 대한 확신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는 종결(Termination)의 단계로 종결의 준비단계와 종결을 알리는 단계, 종결파티로 구성되며 아동의 강점과 정체성에 대해 미래 지향적 재확인을 하는 단계이다(Jernberg, A &Booth, P. 1998). 집단치료 놀이와 아동중심놀이치료원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집단치료놀이와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원리

집단치료놀이의 원리	Axline (1969)의 8가지 비지시적 아동중심놀이치료의 원리
<p>치료놀이 집단의 리더는 아동이 집단에서 자신이 허용·수용되고 있으며, 양육을 받고 있다는 아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집단에서 행동을 통해 나타나며, ‘가족’의 느낌이 치료놀이 집단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다.</p> <p>① 지금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옆에서 네가 대처해 가는 것을 도울 것이다.</p> <p>②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나는 네가 나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활동들을 통해 네게 전해주며, 네가 집단에 어울리게 함으로써 너를 보여 줄 것이다.</p> <p>③ 너는 나의 눈 속에서 중요하며 나는 네가 만들고 말하고 하는 어떤 것의 진가를 발견함으로써 그리고 네게 귀를 기울이고, 네가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너를 보여줄 것이다.</p> <p>④ 네가 보살핌이 필요할 때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그것을 알고 그 곳에 있을 것이다.</p>	<p>① 치료사는 아동과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좋은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p> <p>② 치료사는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p> <p>③ 치료사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p> <p>④ 치료사는 아동이 표현하는 감정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 감정을 아동에게 반영하여 줌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p> <p>⑤ 치료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아동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존중한다.</p> <p>⑥ 치료사는 아동의 행동이나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지시하지 않는다.</p> <p>⑦ 치료사는 재촉하지 않는다. 치료사는 치료가 점진적인 과정임을 인식한다.</p> <p>⑧ 치료사는 치료를 아동의 현실세계와 연결시키고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이 현실적 관계에서 책임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제한을 가할 수 있다.</p>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

1.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환경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 환경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탈북청소년 교육공부방을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된 교육·보호시설은 방과후공부방 20기관과 대안학교 8개 기관이다.¹⁴⁾

조사대상기관 중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청소년은 337명이었으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은 313명으로 전체 청소년은 650명이었다.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청소년들 중 제3국출신은 198명(59%)이었으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중 제3국출신은 107명(34%)으로 전체 청소년들 중 305명(47%)의 청소년들이 제3국출신이었다. 또한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탈북청소년은 원부모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84명(25%)이었으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313명 중 원부모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41명(13%)였다.¹⁵⁾ 대한학교 청소년 중 25명은 무연고였다.

또한, 조사대상기관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28개 기관 중 한곳을 제외한 27개 기관에서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거나 운영 중이었다.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외부기관 연계방식, 자원봉사, 후원사업, 유급전문상담사 연결, 내부강사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프로그램 형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음악치료, 독서치료 등 이었다.

〈표 2〉 조사대상기관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태

프로그램 운영방식	외부기관연계	내부강사	후원사업	무급 (자원봉사)	유급	계
방과후공부방	4	2	2	5	8	21
대안학교	3	1	1	5	2	12
프로그램 형태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 음악치료	독서치료	기타	계
방과후공부방	9	4	7	1	1	22
대안학교	7	4	-	-	-	11

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공모심사를 통해 2014년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는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5) 조사 방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협조를 받아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일시는 2014. 10. 6. 부터 2014. 10. 15.까지이다.

조사대상기관에서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들 프로그램이 해당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첫째,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이다.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부에 해당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나 내부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명목상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셋째, 각 기관 운영자의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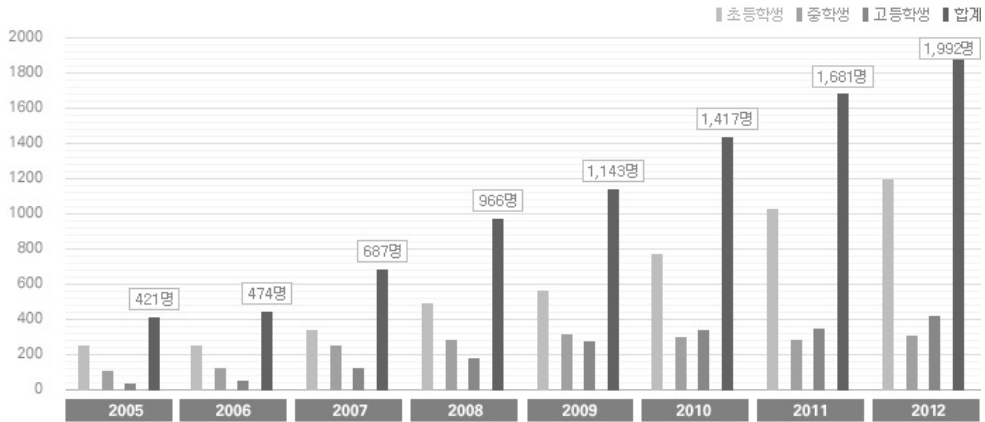
〈표 3〉 탈북청소년 출신지별 재학 현황과 중도탈락률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현황 (2014. 4)	1,128	684	371	283	2,466
	2,183				

구분	재학생수			합계
	초	중	고	
북한출생	534명(47.4%)	313명(45.8%)	357명(96.2%)	1,204명(55.1%)
중국 등 제3국 출생	594명(52.6%)	371명(54.2%)	14명(3.8%)	979명(44.9%)
계	1,128명(100%)	684명(100%)	371명(100%)	2,183명(100%)

구분 \ 연도	2011학교 중도탈락률	2012학교 중도탈락률	2013학교 중도탈락률	2014학교 중도탈락률
초(%)	2.5	2.6	3.1	0.6
중(%)	4.4	3.8	7.4	3.1
고(%)	10.1	4.8	1.6	7.5
계(%)	4.7	3.3	3.5	2.5

연도별 학생수 변화 추이



출처 : 교육부 2014. 4월.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을 보면 교육부는 2009년 8월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교육대책을 수립, 이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교육정책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개별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교육시설,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등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학업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문적인 심리 진단 및 치료 사업은 미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비교문화체험’,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인식개선 자료’ 등 프로그램 내에 사례연구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교육부 산하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대표적이다.

통일부는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 이후 거주지 학교 편입 시 학비지원과 학력·자격 인정, 민간교육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을 통해 거주지에서의 학교 생활적응 및 교육지원과 관련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각부처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또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들 중 공모심사를 통한 교육시설 선정 후 계약체결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북청소

년 교육 보호시설이 지원되고 있다. 교육·보호시설의 형태는 대안교육시설, 방과 후공부방, 그룹홈이며 지원내용은 시설 운영비 지원(최대 2년)이며 시설 운영 관리·감독을 통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이었다.¹⁶⁾

이외에도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Group home)이 현재 서울 6개, 경기 4개, 경북 1개, 전북 1개, 강원 1개 등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 탈북 청소년 들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대안가정 등 공동생활시설 운영 지원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 서는 멘토링 교육, 심리상담, 현장학습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병행 실시되고 있었다.

〈표 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정부 부처 (전담기관)	지원 내용	세부 내용
통 일 부 (북한이탈주 민지원재단)	하나원 운영 : 초·중·고·대학 교육(삼죽초), 하나둘학교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 영 하나센터 운영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학력 인정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지원	- 중·고·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생활비보조 장학금 지급 - 민간교육시설운영지원: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 방,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 학업역량 지원: 영어회상교육, 학습지 지원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 - 진로진학 지도: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 - 통합교육 역량 강화: 경진대회, 예비대학 운영 - 민간교육시설 실무자 연수 -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 종합상담센터·취업지원센터 운영: 교육·진학·취업 상담
교 육 부 (탈북청년 교육지원 특임센터)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 원특임센터운영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사 파 견 및 협력학교 지원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대학기관(학교)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학력심의위원회운영 일반학교 편·입학 및 교육 비 지원	-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재개발과 교육 지원 - 예비학교 운영 지원과 컨설팅 - 교재 개발: 통일대비 표준교재, 기초학력 향상 보충 교재 - 진로지도 및 역량강화: 진로상담매뉴얼 개발, 진로 상담지원단 운영, HOPE 프로그램 운영 -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 - 상호이해교육 자료와 영상 개발 - 탈북학생 실태분석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
여 성 가 족 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운영 하나원 통합문화캠프 교 육지원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비 보호) 교육지원	- 하나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비교문화체험프로그램 -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탈북청소년 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보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 등 진행 -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이주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 운영

1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홈페이지 <http://www.koreahana.or.kr/eGovHanaEdu32.do>, 검색일 2014. 9. 1.

2.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특성

1) 적절한 양육 부재로 인한 폭력성(외현화)

탈북청소년공부방의 다수의 청소년은 탈북여성이 단독으로 자녀만을 동반하고 탈북 한 경우 이거나 탈북이후 제 3국에서 출생한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는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이별하는 등 아동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탈북여성들로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을 공부방에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남한에 자녀를 돌보아줄 다른 친척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었다.

〈표 5〉 조사대상기관 탈북청소년 현황

	조사대상기관	전체인원	제3국출신	원부모와 동거
방과후공부방	20	337명	198(59%)명	84(25%)명
대안학교	8	313명	107(34%)명	41(13%)명
전체	28	650명	305(47%)명	125(19%)명

청소년의 부친이 북한에 생존하는 경우, 부친과 사별한 경우, 부친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아동들은 부친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훈육과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빈곤과 양육의 부재는 남한의 공부방 아동들에게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43.5-50.1%라는 거의 과반수가 구조적 결손가정으로, 빈곤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김영모 외, 1990).

이러한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인지적, 사회적 발달장애를 보이거나, 주의가 산만하고 인내심이 결여된 충동적 아동이 되기 쉽다(성영혜, 1984). 이렇듯, 빈곤아동은 다른 계층의 아동보다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 결과로, 거부의 감정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정서적 통제가 약하며 파괴적 행동이나 정서적 불안정을 일으키기도 한다(Love, 1976).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감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부모의 불안정한 직업과 장기간 노동으로 인하여 아동의 방치 시간이 더욱 연장되며, 부모의 심신장애나 질병,

적절한 양육기술 부족, 문화적 박탈 및 저학력 등으로 충분한 교육이 부족하기 쉽고, 사회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지지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여 사회성 결여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부정적 정서상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및 소외감을 갖기 쉽고, 사회성의 결여는 학습상의 문제와 더불어 싸움, 비행과 같은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권효정, 2001; 강지현, 2003).

본 연구에서 조사된 탈북청소년공부방에 있는 탈북청소년 337명 중 원부모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84명(25%)이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313명 중 원부모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41명(13%)였다. 조사대상 650명 중 부모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25명(19%)이었다. 525명(80%)의 청소년은 결손가정이었으며, 양친과 연락은 모두 가능한 경우에도 이들 중 상당수는 이혼상태에 있었다.¹⁷⁾ 따라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의 양육환경은 남한의 저소득층 아동과 유사하거나 다른 일가친척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의 감정적인 행동이나 거친 행동들은 절절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자신을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다툼이 잦고 거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2) 심리적 위축(내재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은 항상 가정이 경제적인 긴장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인성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백정재, 1996).

빈곤아동들은 항상 경제적인 긴장상태 놓여 있으므로, 심리적 불안상태가 인성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지속적인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계속되는 빈곤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빈곤아동의 학업실패와 반사회적 행동, 장래의 실업이나 하위직업 가능성을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는 부적절한 가정환경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Garmezy, 1991;

17) 2009년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학생의 83%가 결손가정이며 양친이 부양은 하고 있지만 이 중의 50%는 이혼상태라고 발표된 바 있다.

Dubow & Ippolito, 1994).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학습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동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위축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신혜영(1994)은 위축 행동의 범주를 크게 소극적 위축 행동과 거부적 위축행동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특성에서 소극적 위축 행동은 부정적 자아지각, 불안, 부끄러움, 무관심, 냉담, 소심함, 과민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거부적 위축 행동의 특성은 지나친 자기중심성, 난폭, 공격적인 행동이나 언어, 혐오감을 주는 신체, 외모, 방해 충동적 행동, 거짓말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Rubin(1982)의 위축 행동의 특성을 아동의 놀이 행동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동의 놀이 행동 중 방관자적 행동, 비관여 행동, 그리고 혼자놀이를 합한 빈도로써 아동기 추기에 발생하는 위축 행동을 규명하였다.

배주경·오경자(1991)는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일상생활 중 실패와 욕구 좌절이 누적되어 불행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발전시키고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켜 차후에 정서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홍준표(1994)는 이러한 불안·위축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진과 강화를 통하여 위축된 아동이 친구들과 바람직한 사회적 접촉을 가질 때 정적강화를 하는 방법과 사회적 접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놀이도구와 활동을 통하여 다른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빈도를 증가시켜 주어야 하며, 또한 불안·위축 행동 아동의 행동에 따라 학급 전체를 보상하는 집단강화를 통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아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좀 더 성장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같은 또래의 집합체인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 행동을 겪게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고립, 등교거부 행동 등을 보인다. 정서적, 성격적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에는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언어장애, 자기비하와 자기과시적 행동, 비사회적 행동 등이 해당된다. 학업과 관련된 행동문제는 일반적으로 또래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로써, 여기에는 특별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학습부진아가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으면서도 학습동기의 부족이나 잘못된 학습습관, 신체적 장애, 정서적 불안,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있어서의 성취도가 낮은 학습 부진아가 있다.

특히, 학교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이탈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공상이나 불안한 생각 등으로 소속집단이나 가정,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동과 자신의 개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언어와 사회성 부족

조사대상기관 중 방과후공부방에 있는 청소년들 198명(59%)과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중 107명(34%)은 제3국 출신으로 전체 청소년들 중 305명(47%)의 청소년들이 제3국출신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글을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어로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간혹 있었다. 탈북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언어의 미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성 부족은 탈북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공격성, 심리적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더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다문화청소년들처럼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와 제3국 체류기간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국하게 되며, 남한사회 편입 후에는 내·외적인 부적응 요인들로 인해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이 보다 더 가중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비보호아동의 경우 언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방의 프로그램에 더욱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예측 할 수 있었다. 언어 소통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하며 심리적 부적응을 심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과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 중, 부모의 성격과 지적수준, 가치관과 정서상태는 곧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현과 양육 상태를 결정지우며, 부모의 요구경향과 가정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여러 환경에서의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소혜, 1995). 그러므로 빈곤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언어발달도 부모와 아동사이의 상호작용 부족과 잘못된 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 공부방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언어문제도 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학습 성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이들의 집중시간이 일반적으로 짧다는 것인데 이는 학습과 지적 훈련에 대한 경험이 드물고 그 필요성

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적인 남한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학습과 관련해 많은 동기와 자극을 제공하지만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남한가정에서와 같은 돌봄의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탈북청소년공부방 교사들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잡무로 인하여 개개인의 아동들에게 학습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어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부적응 행동인 폭력성, 심리적 위축을 언어 문제가 더욱 심화시키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언어 문제는 이들의 외부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이는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가중될 수 있었다. 문제행동의 대부분은 폭력성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사회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학습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동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상태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의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으로써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오히려 내면적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원천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태도로 인하여 소심하고 억압감을 갖고 있으며, 도전감이나 모험심이 적으며 타인에 대한의식과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조수영, 1992 :Reasoner,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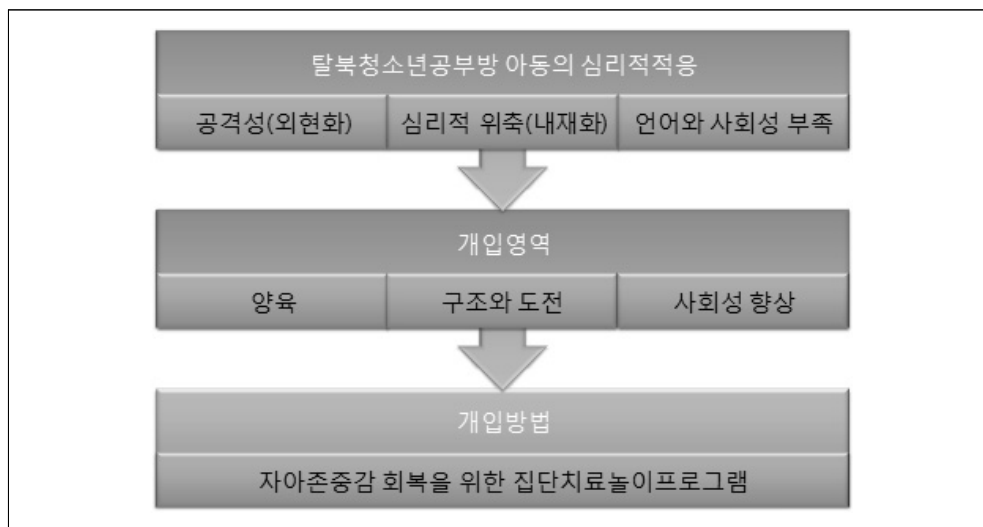
Erikson(1963)은 아동기는 자신의 정체감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게 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실제적으로 성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타인의 ‘성의있고 일관된 인정’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에게 의미있는 타인들 중 부모는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주변 인물이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Roger(1951)는 자아가 형성되면서 유아들은 타인 특히,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수용되며, 인정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욕망을 발전시킨다. 이것을 그는 긍정적 배려라고 불렀다. 이 긍정적 배려의 욕구가 어머니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자아를 실현하고 높이려는 어린이의 경향은 방해받게 된다. 반면에 주요 타인이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고, 가치를 수용할 때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보며, 타인으로부터 받는 태도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주로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자기개념의 형성 프로그램, 혹은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가치명료 프로그램과 자기주장 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공격성 감소, 위축행동 감소,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양육, 구조, 도전, 사회성 향상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돕는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제2절 연구설계

본 연구의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돕는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으로 공격성 감소, 위축행동 감소,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양육, 구조, 도전, 사회성 향상을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의 모형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 모형

제3절 연구가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하여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할 것이다.
- 연구가설 2.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하여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위축이 감소할 것이다.
- 연구가설 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입을 통하여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사회적문제가 감소할 것이다.

제4절 연구참여자 표집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두 곳의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화를 위해 두 곳의 공부방은 모두 탈북자가 교장과 교감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공부방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내에 있으며 1년 이상 운영 중 인 곳으로 하였다.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수의 아동이 있는 곳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각 각 4명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부방 교사의 면담내용을 기초로 실험집단 대상의 가족력과 아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 아동 : 여 14세

A아동은 2녀 중 첫째이다. 모(42세)가 탈북할 때 당시 8세였던 A아동과 A아동의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친부는 북한에 있으며 생사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아동의 모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남한에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남한에서 계부와 사이에서 A아동의 동생을 출산했으나 계부와 다시 헤어진 상태였다.

A아동은 매사에 의욕이 강하고 권위에 도전적이며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공부방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요구하며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적인데 자신의 욕구와 성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가정환경과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또한 여동생과도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여동생의

성향도 A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때가 많았다. 의욕이 충만하여 다양한 운동과 예체능에 도전해 보지만 의욕만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의 경험이 많고 위축되어 있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고 신체적인 핸디캡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교에서 성적도 하위권이며 한글쓰기에 어려움을 보였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핸드폰으로 예능오락 방송을 보았다.

2) B 아동 : 남 14세

B아동은 2남 중 첫째이다. B와 남동생은 탈북 한 엄마가 중국에서 살 때 중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중국에 있을 때 B의 부모는 항상 일하러 나가고 남동생과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한쪽말 하는 아이들과도 별로 대화가 없고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남한에 온지 6개월이 되었는데 한국말은 거의 할 줄 몰랐다.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공부방 학습프로그램에도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 안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며 지내는 것으로 보였다. 언어소통과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으나 공부방에서는 아동들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로 보였다.

3) C아동 : 남 13세

C아동은 외동이다. C아동의 부모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C아동을 출산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C는 2013년 한국에 왔는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다고 하지만 중국어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1년 전 남한에 온 후로는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C아동의 부모는 남한에 와서 맞벌이를 하느라 C아동을 돌볼 수 없어서 몇 달 전 공부방에 들어오게 되었다. C아동의 성향은 내성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편이었다.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참다가 어느 순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는데 주위 아동과 싸움이 되어버린다. 공부방 교사는 C아동이 잘 울기 때문에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울증이라기 보다는 대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누르고 있다가 표출하는 방법으로 보였다.

4) D아동 : 남 11세

D아동은 1남 1녀 중 둘째이다. D의 어머니는 북한이탈여성으로 중국에서 D의 아버지와 사이에서 D아동과 D아동의 누나를 낳았다. 5년 전 D아동이 6세 때 모 혼자 남한에 먼저 왔고 2년 후 나머지 3명의 가족도 남한에 오게 되었다. D는 같은 공부방 형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남학생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센 편이었다.

교사에 의하면 D의 아버지는 알콜 문제와 폭력성이 심각하다고 하였다. D의 폭력성도 심각한데 공부방 교사는 ‘아빠에게 수시로 엄청 맞아서 그렇다’고 하였다. 맞고 때리는 환경이 익숙해져 있어 보였다. 자신과 친한 친구는 보호해주지만 자신과 친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늘 말보다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다. D아동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데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관심과 애정의 의사표현을 주로 주먹으로 하는 편이었다.

남한에 온지 2년이 되었고 남한의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으나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자신의 이름을 제외한 한글을 읽고 쓰기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공부방에 있는 2살 위의 누나를 잘 따르고 누나에게 헌신적이었다.

제5절 변수 및 측정도구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K-CBCL로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이 있는 공부방에서 진행되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8주간에 걸쳐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주2회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집단치료놀이는 크게 초기, 중기, 종결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 목적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진행은 본 연구자가 주 교사로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보조교사는 본 프로그램에 투입되기 전 주 교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사전 계획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매 회기를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주 교사와 와 보조교사 1명이 프로그램 종결 후 비디오를 통해 아동관찰 기록부를 이용하여 각 행동들을 체크하였다. 행동관찰은 각 회기 30분 녹화 분을 20초 관찰 10초 체크를 반복하였다. 또한 행동체크로 기록되기 어려운 관찰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녹화된 집단 내 상호작용과정을 요약, 분석, 평가 기록하였다.

1. 아동행동관찰분석

아동의 문제 행동은 어떤 목적(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문제 행동의 목적을 알아내고 증재를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한다. 1차적으로 평정 척도, 면담 질문지, 혹은 직접적 행동 관찰의 방법을 통해 문제행동 진단을 하여 문제행동의 원인 및 강화요인을 알아낸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강화요인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

을 때에는 문제행동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2차적 진단을 하게 된다. 아동이 있는 환경에 들어가 직접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관찰자는 특정 행동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환경(예: 아동의 교실, 학교 운동장 등) 내에서 아동의 행동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난 후 관찰을 한다.

관찰자가 아동이 있는 환경에 직접 들어가 관찰을 통해 평가를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과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 내 특정 상황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을 알아낼 수 있다. 직접적 행동 관찰 방법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은 “시간분산표집법”과 “A-B-C(선행자극-행동-후속결과)분석”을 언급할 수 있다.

시간분산표집법은 관찰자가 미리 선정한 일정한 시간구간 내 발생한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 중 나타난 행동의 규칙적 유형을 알아내고자 할 때 쓰인다.

모든 아동은 울기도 하고 다른 아동과 싸우기도 하며, 때때로 잘 빠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판단되지는 않는다.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는 이러한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울기 혹은 타인을 때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갖게 한다거나, 또래와 잘 어울려 지내는 사회성 기술 혹은 적응행동을 일반아동들에 비하여 적게 보이는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 실시내용을 녹화하여 임의로 10분의 정하고 특정 아동이 특정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횟수를 세어서 기록하였다.

2.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CBCL을 우리나라에서 오경자(1997)등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행동평가도구이다. CBCL은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의 심리장애 진단에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다. 이것은 현재 30여 개국에서 번역,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K-CBCL의 특징은 첫째, 다수의 임상진단의 자료를 요인분석하여 경험적 방법으로 구성된 임상척도를 사용하여 행동평가 자료를 요약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광범위한 정상집단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기준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아동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다. 셋째, 정서 행동문제의 평가와 동시에 사회능력척도를 제작하여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표준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서행동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의 적응능력의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넷째, 경험에 기초한 다축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부모에 의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장면에서 다른 관련인들이 아동을 평가한 자료도 함께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K-CBCL은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의 사회성을 평가하는 사회성 척도, 교과목 수행정도, 학업수행상의 문제 여부 등을 평가하는 학업수행 척도의 2개 척도와 총 사회능력 점수 등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문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 모두 10개의 하위척도와 4~11세에만 적용되는 특수척도인 성문제 척도,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불안정,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 등 모두 13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K-CBCL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제6절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

집단치료놀이는 비정상적인 정서적 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것이다. 방관적이거나 말이 없는 아동, 과잉행동을 하거나 공격적 또는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아동, 겁먹거나 수줍어하는 아동, 강박적이거나 경직된 아동에게 필요하다. 결손가정이나 부모가 둘 다 일을 하는 가정 출신의 아동이 많고 성취와 수행에 대한 가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현대 사회의 아동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들 자체로 존중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치료놀이는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활동위주이다. 아동이 무엇을 말하는가뿐만 아니라, 아동이 무엇을 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 개입, 양육, 도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아동들은 이 경험을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타인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한다. 집단치료놀이는 외적인 규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내적인 자기 조절과 적절한 관계욕구를 증진한다. 문제들을 은폐하는 대신에 표면화되는 것이 허락되고, 그 결과 집단치료자와 집단구성원들이 아동이 좋은 경험을 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집단치료놀이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호감을 산다. 집단치료놀이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들에게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동의 삶에 즐거움과 충족감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학습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동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다. 또한, 절절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 자신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감정적이라 친구들과 다툼이 잦고 거친 행동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이들의 원만한 대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은 아동의 강한 자아, 자신감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필수요건은 재미와 장난기 어린 공감능력을 가진 양육자의 존재이다. 자신을 위로하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은 위로 받고 보살핌을 받았던 초기 경험에 달려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아동은 유능한 자아상을 확립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 희망적이다. 치료놀이의 관계놀이 활동은 생활 연령보다 현재의 정서적 수준에 맞춰 진행되며, 퇴행적인 욕구를 중요시 한다. 라는 기본가정을 지니고 있다(Jernberg, A & Booth, P. 1998).

또한 성인주도의 구조화된 놀이프로그램이다. 치료놀이 집단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고 유쾌한 놀이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협동적인 게임과 양육적인 게임을 통하여 집단치료놀이는 아동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능력과 신뢰를 증가하여 발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치료놀이의 4가지 규칙은 상처주지않기, 다 함께 하기, 재미있게 지내기, 성인이 책임지기이다. 성인이 집단에서 구조, 도전, 개입, 양육과 즐거움의 경험을 하도록 틀을 마련해 준다. 즐겁고, 양육적이며,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종종 인지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ubin(1996)은 노숙자 거처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놀이 프로그램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된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족에게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가족간의 관계형성이 향상되고 공격성이 감소하였다(Munns, 2000). 국내연구에서도 유한규(2002)가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이 가출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행동 등 문제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또한 홍정애(2004)는 집단치료놀이가 피 학대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의 전체 구성

탈북청소년공부방 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탈북청소년공부방 아동의 심리적 특성은 첫째, 적절한 양육 부재로 외현화된 폭력성, 둘째, 심리적 위축, 셋째, 언어와 사회성 부족이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집단치료놀이의 양육, 구조, 도전을 통하여 공격성 감소, 위축행동 감소, 사회성 향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은 사전평가과정, 집단치료놀이 과정, 사후평가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집단치료놀이는 크게 초기, 중기, 종결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 목적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진행은 본 연구자가 주 교사로 보조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보조교사는 본 프로그램에 투입되기 전 주 교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사전 계획을 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매 회기를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주 교사와 보조교사 1명이 프로그램 종결 후 비디오를 통해 아동관찰 기록부를 이용하여 각 행동들을 체크하였다. 행동관찰은 각 회기 30분 녹화 분을 20초 관찰 10초 체크를 반복하였다. 또한 행동체크로 기록되기 어려운 관찰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녹화된 집단 내 상호작용과정을 요약, 분석, 평가 기록하였다.

〈표 6〉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전체 구조

회기	구성	목표	내용 ¹⁸⁾
1	첫만남	아동 특성파악, 라포형성	사전검사, 규칙정하기(아프게 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2	프로그램 초기	구조화하여 게임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며 즐겁게 게임에 빠져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불썰매, 뜨거운감자, 솜공볼기, 김밥말이, 로션놀이 등등.
3			
4			
5	프로그램 중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감정을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다.	신문지찢기, 신문지공 던지기, 펫트병볼링, 손벽치기, 꼬리자르기 등등.
6			
7			
8	프로그램 후기	친구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공감한다.	발로션놀이, 기차놀이, 풍선치기, 안마해주기, 작아지는배, 등등
9			
10			
11	마무리하기	즐거웠던 놀이 기억들을 떠올리며 나와 친구 선생님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한다.	다과회, 평가회, 소감문 작성하기
12			

18) 프로그램 초기, 중기, 후기의 내용은 연구대상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다양한 놀이의 구성은 다음을 참조. 성영혜·윤미원·이주연, 「집단 치료놀이 실제」 (서울:한국치료놀이연구소), 1995.

2.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의 실시 내용과 활동목표

1) 프로그램 실시 1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주교사 : 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라포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7〉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주2회/12회기) 및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다양한 약수를 시도해 보며, 마지막에는 팀의 특별한 약수를 만들어 함께 해 본다.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실시한다.	
3	당신은 누구십니까 (개입)	“당신은 누구십니까?”“나는***” “그이름 아름답구나” 인형을 옆으로 돌리면서 노래한다	인형
4	숨공불기 (도전)	동그렇게 원으로 엮드려서 숨공을 상대방에게 불어 보낸다	숨공
5	뜨거운감자 (구조)	뜨거운 감자는 빠르게 차가운 감자는 느리게 입으로 말하며 인형을 옆사람 에게 전달한다	인형
6	이불찢매 (양육)	한사람씩 이불위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힘을 합쳐 이불을 끌어 준다.	이불
7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2) 프로그램 실시 2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라포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8〉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2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손타쌓기 (구조, 도전)	다 함께 손타 쌓기를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빠르게, 느리게 쌓는다.	
3	김밥말기 (양육)	한사람씩 이불에 엎드리게하고 김밥말이 노래와 함께 김밥말기 놀이를 한다.	이불
4	이불썰매 (양육)	한사람씩 이불위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힘을 합쳐 이불을 끌어 준다.	이불
5	신문지 찢기 (구조, 도전)	교사의 지시대로 신문지를 찢는다. 빠르게, 늦게, 매우 빠르게 양손으로 신문지를 찢는다.	신문지
6	신문지 공던지기 (도전)	자신이 찢어놓은 신문지를 뭉쳐서 공으로 만든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문지를 지시한 곳으로 던진다.	스카치 테이프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교사가 지시한 횟수에 맞게 먹여 준다.	감자칩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악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3) 프로그램 실시 3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라포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9〉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3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손뼉쌓기 (구조, 도전)	다 함께 손뼉 쌓기를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빠르게, 느리게 쌓는다.	
3	김밥말기 (양육)	한사람씩 이불에 엎드리게하고 김밥말이 노래와 함께 김밥말기 놀이를 한다.	이불
4	이불찢매 (양육)	한사람씩 이불위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힘을 합쳐 이불을 끌어 준다.	이불
5	김밥말기 (양육)	한사람씩 이불에 엎드리게하고 김밥말이 노래와 함께 김밥말기 놀이를 한다.	이불
6	이불찢매 (양육)	한사람씩 이불위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힘을 합쳐 이불을 끌어 준다.	이불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교사가 지시한 횟수에 맞게 먹여 준다.	감자칩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악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4) 프로그램 실시 4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하며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0〉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4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김밥말기 (양육)	한사람씩 이불에 엎드리게하고 김밥말이 노래와 함께 김밥말기 놀이를 한다.	이불
4	이불썰매 (양육)	한사람씩 이불위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힘을 합쳐 이불을 끌어 준다.	이불
5	숨공불기 (도전)	원으로 모여서 엎드려서 숨공을 상대방에게 불어보낸다	숨공
6	남대문 놀이 (구조, 양육)	‘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스카치테이프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5) 프로그램 실시 5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하며 긍정적인 자기인식하기, 도전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1〉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5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로션놀이 (양육)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로션을 듬뿍짜서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서로 한 손씩 이용하여 로션을 손등까지 골고루 바른다.	로션, 물티슈
4	요람태워주기 (양육)	한사람씩 큰 담요에 눕힌다.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흔들어준다. 자장가가 끝나면 서서히 내려 놓는다.	담요
5	신문지 찢기 (양육,도전)	얼음. 땀에 맞추어 신문지를 찢는다. 뭉쳐서 공으로 만든다.	신문지
6	페트병 쓰러뜨리기 (도전)	순서를 정하여 페트병을 쓰러뜨린다. 다함께 모여서 페트병을 다시 세워준다.	페트병, 신문지 공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6) 프로그램 실시 6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하며 긍정적인 자기인식하기, 도전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2〉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6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로션놀이 (양육)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로션을 듬뿍짜서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서로 한 손씩 이용하여 로션을 손등까지 골고루 바른다.	로션, 물티슈
4	신문지 찢기 (양육,도전)	얼음. 땀에 맞추어 신문지를 찢는다. 뭉쳐서 공으로 만든다.	신문지
5	패트병 쓰러뜨리기 (도전)	순서를 정하여 패트병을 쓰러뜨린다. 다함께 모여서 패트병을 다시 세워준다.	패트병, 신문지 공
6	동대문을 열어라(양육)	‘동동동대문을 열어라’ 노래에 맞추어 게임을 진행한다.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7) 프로그램 실시 7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 긍정적인 자기인식하기, 도전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7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로션놀이 (양육)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로션을 듬뿍짜서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두명씩 짝을 지어 로션을 바른 손끝으로 얼굴을 살짝 터치한다.	로션, 물티슈
4	풍선치기 (구조)	원으로 앉은후 상대에게 풍선을 보낸다	풍선
5	풍선치기 떨어뜨리지 않기 (구조)	원으로 둘러 일어서서 모두 손을 잡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풍선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연속으로 쳐올린다. 손과 발과 머리등으로 풍선 치기	풍선
6	동대문을 열어라 (양육)	교사와 아동 한명이 동대문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기차기 되어 동대문을 지난다. ‘문을 닫는다’에 걸린 아동이 다음번 술래가 된다.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 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8) 프로그램 실시 8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 긍정적인 자기인식하기, 도전하기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4〉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8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로션놀이 (양육)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로션을 듬뿍짜서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두명씩 짝을 지어 로션을 바른 손끝으로 얼굴을 살짝 터치한다.	로션, 물티슈
4	발 로션 (양육)	양말을 벗고 발에 로션을 바른다. 두명씩 마주 앉아서 발을 높이 들었다가 낮추었다가 노래를 부르며 활동한다.	로션, 물티슈
5	작아지는배 (구조)	뽁뽁이 비닐을 두장 준비한다. 두팀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작아지는배 게임을 한다.	뽁뽁이 비닐
6	동대문을 열어라 (양육)	교사와 아동 한명이 동대문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기차기 되어 동대문을 지난다. ‘문을 닫는다’에 걸린 아동이 다음번 술래가 된다.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 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9) 프로그램 실시 9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 긍정적인 자기인식하기, 도전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5〉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9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로션놀이 (양육)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로션을 듬뿍짜서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두명씩 짝을 지어 로션을 바른 손끝으로 얼굴을 살짝 터치한다.	로션, 물티슈
4	작아지는배 (구조)	뽁뽁이 비닐을 두장 준비한다. 두팀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작아지는배 게임을 한다.	뽁뽁이 비닐
5	동대문을 열어라 (양육)	교사와 아동 한명이 동대문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기차기 되어 동대문을 지난다. ‘문을 닫는다’에 걸린 아동이 다음번 술래가 된다.	
6	꼬리잡기 (도전)	4명씩 두팀을 만든다. 각팀의 ‘머리’와 ‘꼬리’를 정하고 풍선 또는 끈을 달아 잡기놀이를 한다.	끈, 풍선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 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10) 프로그램 실시 10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 긍정적인 자기인식하기, 도전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6〉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0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로션놀이 (양육)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로션을 듬뿍짜서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두명씩 짝을 지어 로션을 바른 손끝으로 얼굴을 살짝 터친다.	로션, 물티슈
4	풍선치기 (구조)	원으로 앉은후 상대에게 풍선을 보낸다	풍선
5	풍선치기 떨어뜨리지 않기 (구조)	원으로 둘러 일어서서 모두 손을 잡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풍선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연속으로 쳐올린다. 손과 발과 머리등으로 풍선 치기	풍선
6	뜨거운감자 (구조)	뜨거운 감자는 빠르게 차가운 감자는 느리게 입으로 말하며 인형을 옆사람 에게 전달한다	인형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 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11) 프로그램 실시 11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기, 구조화, 긍정적인 자기인식하기, 도전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7〉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1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로션놀이 (양육)	동그랗게 둘러 앉는다. 로션을 듬뿍짜서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두명씩 짝을 지어 로션을 바른 손끝으로 얼굴을 살짝 터치한다.	로션, 물티슈
4	작아지는배 (구조)	뽁뽁이 비닐을 두장 준비한다. 두팀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작아지는배 게임을 한다.	뽁뽁이 비닐
5	숨공불기 (도전)	원으로 모여서 엮드려서 숨공을 상대방에게 불어보낸다	숨공
6	남대문 놀이 (구조, 양육)	‘동동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스카치 테이프
7	간식 나눠먹기 (양육)	준비된 과자를 교사의 인도에 따라 짝친구에게 먹여준다.	과자
8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12) 프로그램 실시 12회기

- ♣ 장소 : K공부방(서울)
- ♣ 집단활동 진행자 : 주교사, 보조교사1명
- ♣ 대상아동 : K공부방 아동
- ♣ 활동목표 : 집단놀이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 아쉬웠던 마음 등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본다.

〈표 18〉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12회기 실시내용

구성	활동명	활동내용	준비물
1	인사나누기 체크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서로에 대한 인사, 규칙(상처주지 않기, 다 함께 하기, 즐겁게 하기)에 대한 소개/ 상처 돌보기	이름표 로션
2	약수하기 (개입)	3가지 약수를 하면서 인사말 나누기, ‘잘지냈지?’, ‘반가워’, ‘사랑해’.	
3	소감 나누기	탁자 앉는다. 준비된 간식을 나누며 그동안 재미 있었던 일, 아쉬웠던 일일 나눈다.	간식, 음료
4	편지쓰기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쓴다.	종이, 펜
5	헤어짐 인사나누기	특별한 약수를 한 후 다함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연구 결과

1. 아동 행동 관찰 분석결과

1) A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표 19〉 A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기표현(긍)	0	0	0	0	0	1	2	0	0	1	2	3
협동(도움)행동	2	1	1	2	3	2	3	4	4	2	1	2
제안·규칙수용	4	3	5	4	3	4	3	5	4	3	2	3
공격행동	2	0	1	0	1	2	0	1	0	0	0	0
이탈행동	0	1	0	1	0	0	0	1	1	0	0	0
위축행동	4	3	3	4	2	3	2	1	3	2	1	1
방해·규칙위반	0	0	1	0	2	0	0	1	0	1	1	0
관심끌기	4	3	4	4	3	3	3	4	2	3	3	2
자기표현(부)	4	4	3	4	4	5	3	4	5	3	2	1

회기가 시작되자 A아동은 공부방 교사와 있었던 다툼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며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공부방에 행사가 많아서 교회가는 시간과 겹칠 때 A는 교회를 가겠다고 울고 소리를 지르며 떼를 부렸다고 한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데 굳은 결의가 보였다.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이야기 할 때는 우울해 보였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꿈에 대한 자신의 열의를 감추지 않았다. 교회가는 문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공부방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공부방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기가 죽어 있었는데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교회예배를 통해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느껴졌다.

회기 초기부터 집단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부방의 언니답게 동생들을 챙겼다. 진행하는 교사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이탈행동, 공격행동, 방해·규칙위반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자기표현(긍정)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자기표현(부정)은 더디게 줄어들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모든 활동에 열의가 높아서 관심끌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2) B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표 20〉 B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기표현(긍)	0	0	0	0	0	0	0	0	0	0	0	0
협동(도움)행동	0	0	1	1	2	2	3	2	3	3	2	3
제안·규칙수용	0	1	2	3	2	3	3	3	2	3	3	3
공격행동	0	0	2	1	1	1	0	0	0	1	0	0
이탈행동	1	1	0	0	1	0	0	0	0	1	0	0
위축행동	1	0	3	2	3	4	3	2	1	1	0	0
방해·규칙위반	1	2	2	1	1	2	0	1	1	0	1	0
관심끌기	0	0	0	0	1	1	2	1	1	0	1	0
자기표현(부)	0	0	0	0	0	0	1	0	0	0	1	0

언어소통이 어려운 B는 평소에 공부방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첫 회기에 방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던 B를 끌어내어서 억지로 참여시켰다. B는 불쾌해하며 잠시 있다가 하기 싫다고 하며 나가 버렸다. 그러나 첫 회기를 재미있게 참여하고 간식도 맛있게 먹은 B의 동생이 두 번째 회기에 B를 데리고 왔다.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쪽말을 하는 아이들이 매 프로그램마다 함께 참여했다. 본 집단프로그램이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몸으로 활동하는 비언어적인 프로그램이어서 함께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참여가 가능한 것이 다행이었다.

회기가 지날수록 B의 얼굴이 밝아졌다.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말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눈에 띄었다. 위축되어있는 B는 회기중에 관심끌기, 자기표현(긍), 자기표현(부)를 거의하지 않았다. 위축행동이 나타났다가 감소하고 있고 협동(도움)행동과 제안·규칙수용행동이 회기 중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3) C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표 21〉 C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기표현(긍)	1	0	0	0	1	0	2	1	1	2	2	3
협동(도움)행동	0	0	1	0	1	1	2	1	3	2	2	2
제안·규칙수용	2	3	3	3	2	3	3	4	3	1	2	1
공격행동	3	3	2	3	2	5	4	3	2	1	1	0
이탈행동	3	2	3	4	3	2	2	1	1	0	0	0
위축행동	0	0	0	1	1	2	1	1	1	2	1	1
방해·규칙위반	1	2	1	0	0	1	0	1	0	1	0	0
관심끌기	3	3	4	2	1	2	2	1	2	2	2	3
자기표현(부)	0	0	0	0	1	0	0	0	1	0	0	0

공부방에 온지 얼마되지 않은 C는 언어소통에 문제와 부모로부터 처음 떨어져서 겪는 외로움 때문에 공부방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C는 프로그램에 재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참여해 갔다. 긍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횟수와 협동(도움)행동이 늘어가고 있고, 관심 끌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면서 이탈행동과 공격행동이 많이 감소하였다.

4) D 아동의 행동 관찰 분석결과

〈표 22〉 D 아동의 회기별 행동관찰 분석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기표현(긍)	0	0	2	3	3	2	3	4	3	3	2	2
협동(도움)행동	0	0	2	1	0	0	0	1	2	2	2	2
제안·규칙수용	0	0	3	3	4	2	2	1	2	1	1	1
공격행동	1	0	2	3	4	5	4	5	4	4	3	2
이탈행동	1	0	2	2	3	4	3	3	3	2	2	0
위축행동	0	0	0	0	0	0	0	0	0	0	0	0
방해·규칙위반	1	0	2	1	4	3	4	3	3	2	2	0
관심끌기	1	0	3	3	2	3	4	3	3	3	3	3
자기표현(부)	1	0	0	0	0	0	0	0	0	1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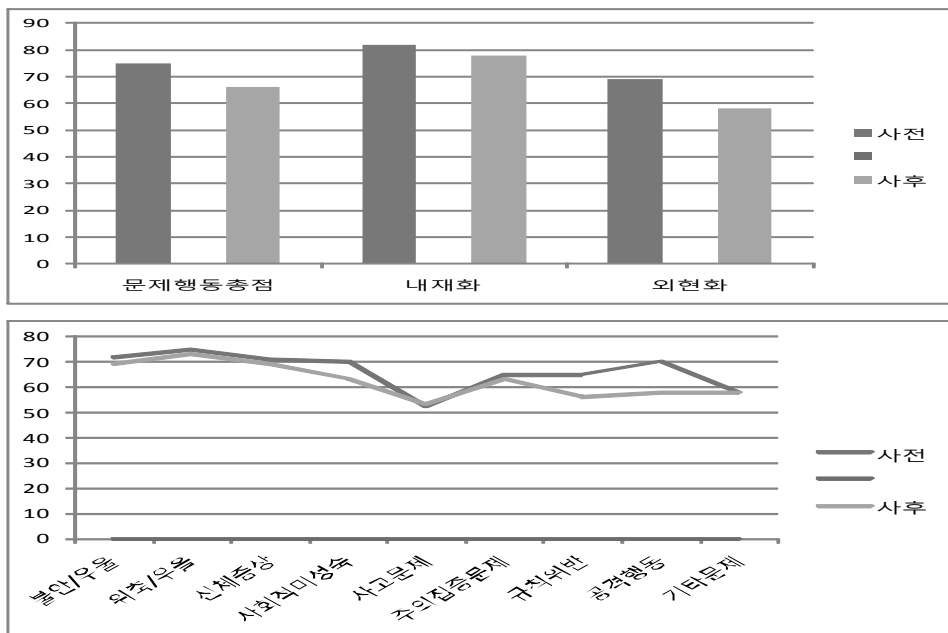
D는 평소에 공격성이 강하여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아동이라고 공부방교사에 의해 지목되어 있었다. 한국말이 잘되지 않아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것이었다. 첫 회기에 참여하기 ‘같이 놀기 싫으니 나가겠다’고 했다. ‘지금 나가면 다음번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 나가버렸다. 프로그램의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재미없고 귀찮게만 느껴지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다음회기에 나타나서 참여하겠다고 했다. 약속대로 2회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3회기부터 참여하도록 허락했다.

3회기에는 교사의 말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교사와 친해지자 규칙을 어기는 등 폭력적인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 때 바로 프로그램을 멈추고 D를 바라보면 모든 아이의 시선이 그리로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즐겁게 진행되던 게임이 중단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그러한 행동이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회기가 지날수록 D에게 다시 나타났던 공격행동, 이탈행동, 방해·규칙위반이 줄어들었다. 관심 끌기, 자기표현(공정)과 협동(도움)행동이 서서히 늘어났다.

2. K-CBCL 검사 결과

1) A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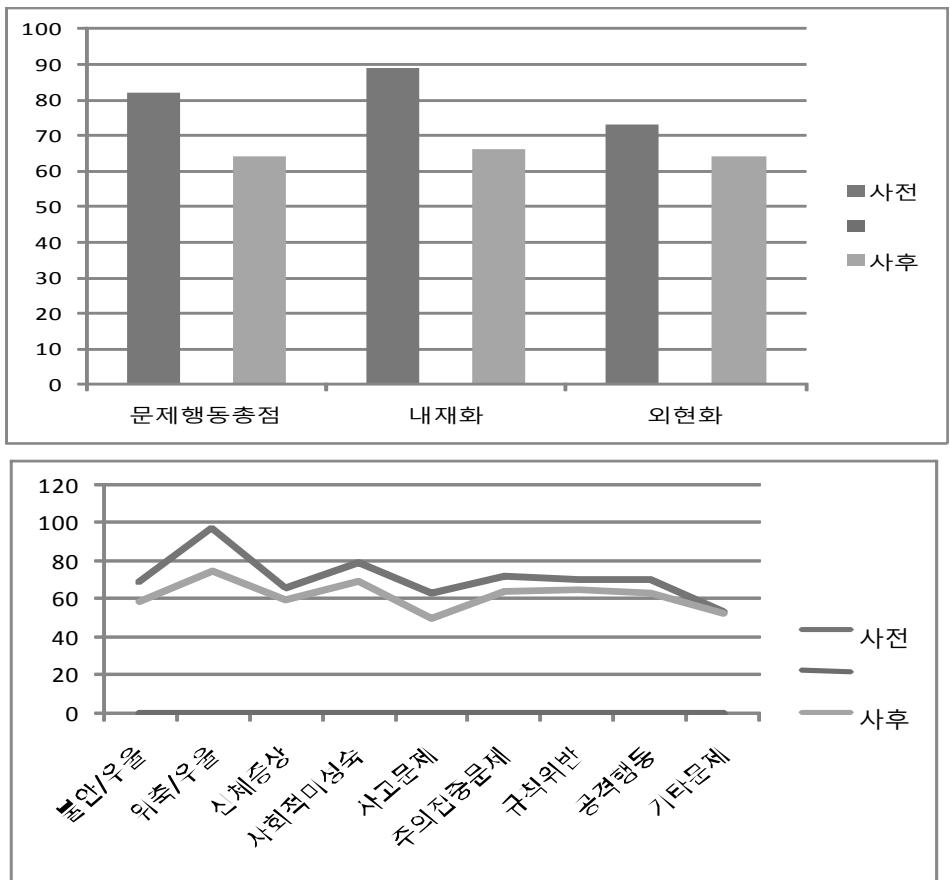
〈표 23〉 A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에서 A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75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82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9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A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78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58으로 정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공격행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위축/우울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신체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B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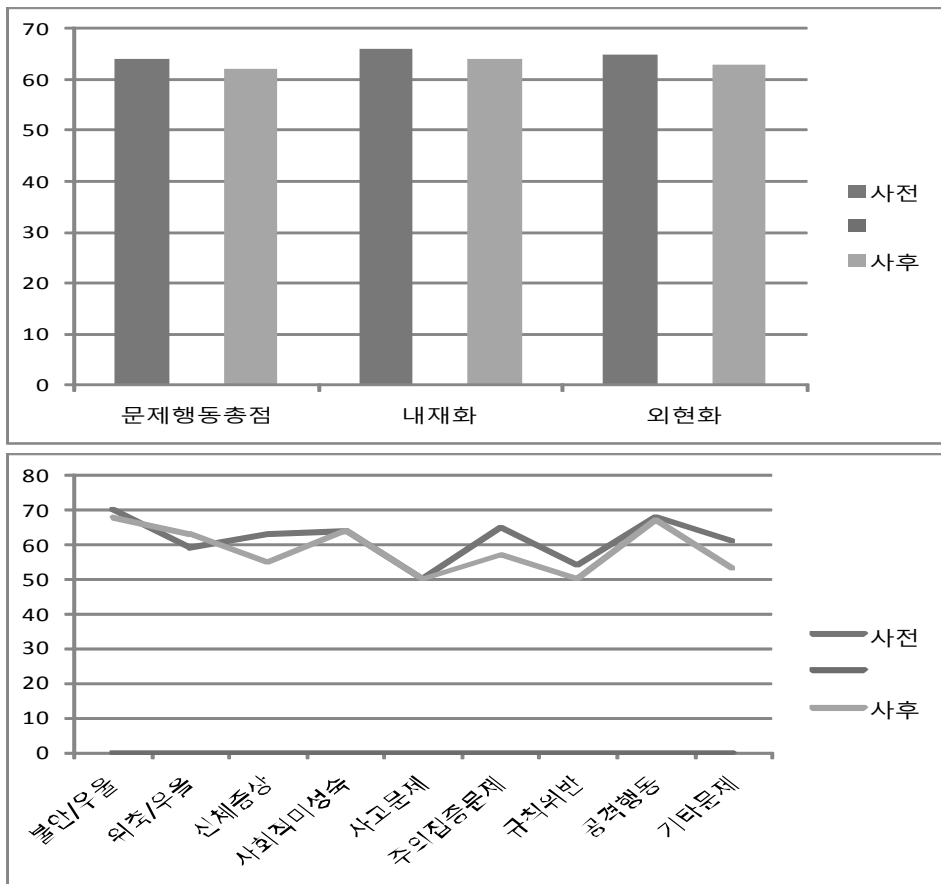
<표 24> B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에서 B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82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89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73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B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신체증상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규칙위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3) C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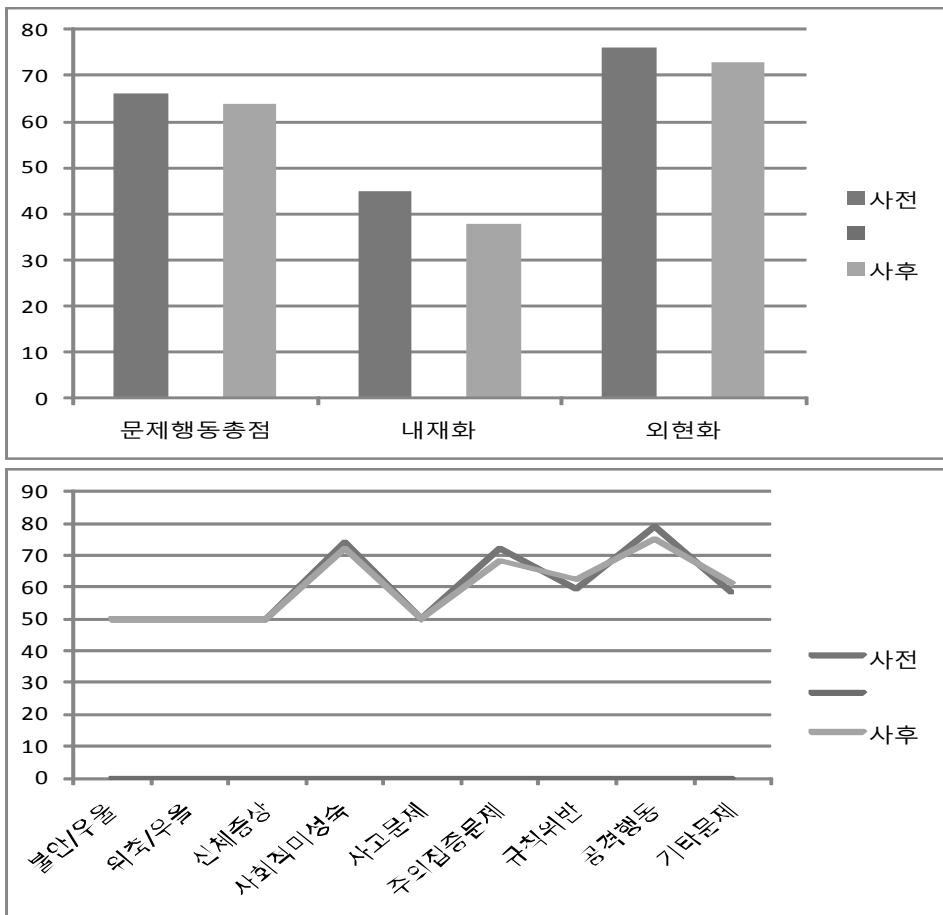
〈표 25〉 C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에서 C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5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C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2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63으로 임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없었으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불안/우울, 공격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4) D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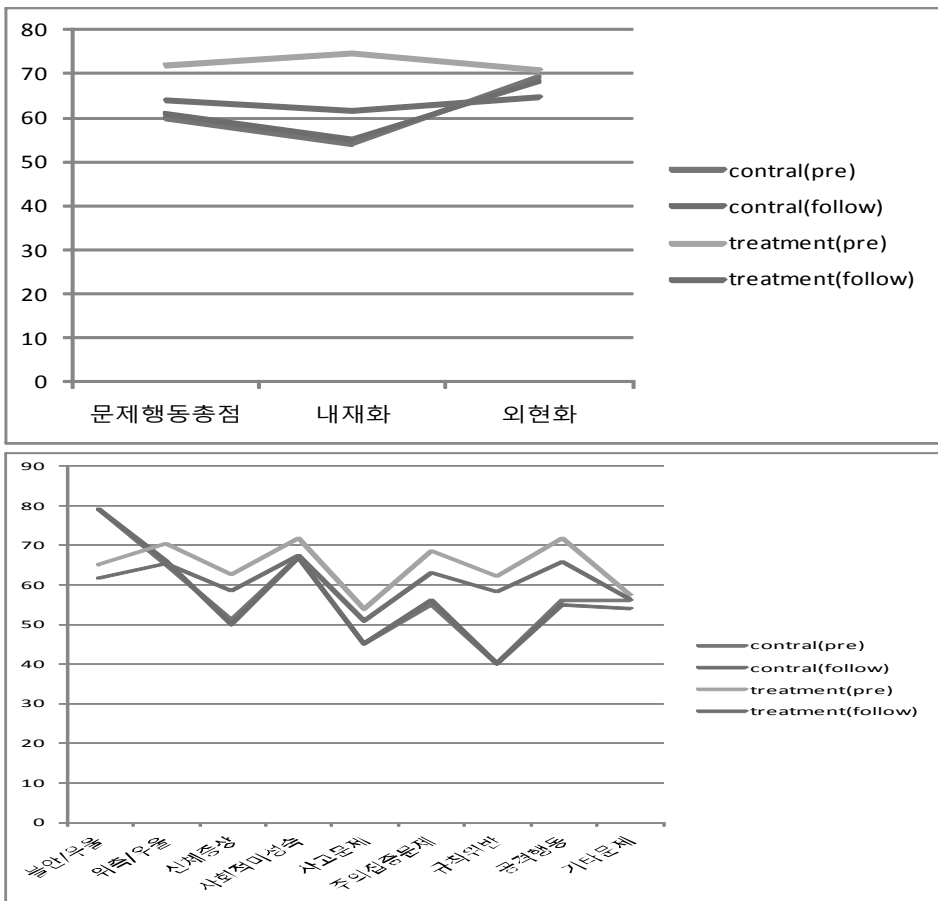
〈표 26〉 D 아동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검사에서 D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6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45으로 정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76으로 임상범위였다. 사후검사에서 C아동의 문제행동 총점은 T점수=64으로 임상범위이며, 내재화 척도는 T점수=38으로 정상범위이며, 외현화 척도는 T점수=73으로 임상범위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이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없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사회적미성숙, 공격행동이었으며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증후군은 주의 집중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K-CBCL 사전사후 평균점수 변화검사 결과

<표 2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K-CBCL 사전사후 검사 결과(N=4, Mean)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집단치료놀이의 사전, 사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8>과 같다. 먼저 사전-사후 변화량을 보면,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수위는 64.78, 순위합은 2,332였고 통제집단의 평균수위는 57.11, 순위합은 2,056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수위는 60.72, 순위합은 2,081이었고 통제집단의 평균수위는 56.89, 순위합은 2,04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심리적응 변화량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p=.001$)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표 2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적응 사전-사후 변화량 비교

구분	특성	N	평균	합계	표준편차	t값	평균차이
사전검사	실험집단	4	64.77778	2,332	10.24865	0.000645	7.666667
	통제집단	4	57.11111	2,056	11.32829		
사후검사	실험집단	4	60.72222	2,081	7.905192	0.031389	3.833333
	통제집단	4	56.88889	2,048	11.51838		

*** $p < .001$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제언

1. 연구의 의의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치료놀이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위축행동 감소,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가진 큰 의의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요인은 다음의 세가지로 볼 수 있었다. 첫째, 적절한 양육의 부족으로 외현화 된 폭력성이었다. 조사된 탈북청소년공부방에 있는 탈북청소년 337명 중 원부모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84명(25%)이며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313명 중 원부모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41명(13%)였다. 조사대상 650명 중 부모가 모두 연락이 가능하거나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25명(19%)이다. 525명(80%)의 청소년은 결손 가정이며, 양친이 부양은 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혼상태에 있었다. 북한이탈 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와 제3국 체류기간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국하게 되며, 남한사회 편입 후에는 내·외적인 부적응 요인들로 인해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이 보다 더 가중될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서툴고 감정적이라 친구들과 다툼이 잦고 거친 행동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심리적 위축이 나타나고 있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학습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동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에 대해 많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위축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학습성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이들의 집중시간이 일반적으로 짧다는 것인데 이는 학습과 지적 훈련에 대한 경험이 드물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적인 남한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학습과 관련해 많은 동기와 자극을 제공하지만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들은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한가정에서와 같은 돌봄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학업적 성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위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 언어와 사회성 부족이었다.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어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부적응 행동과 언어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언어 문제는 이들의 사회성 향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 활용된 K-CBCL 검사결과 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치료 놀이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치료놀이는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간발달을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자아심리학이론, 대상관계이론, 애착이론에 기초하여 관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게 된다. 성격발달의 과정은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초기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성숙 되는 것이다. 즉, 인간행동과 발달에 있어서 1차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향한 욕구이며 이것을 충족시키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 치료놀이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여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등, 부적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접촉과 구체적이고 잘 계획된 놀이를 통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관계를 재형성 시켜주는 것이다.

둘째, 집단치료놀이는 성인주도의 구조화된 놀이 집단이므로 집단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고 유쾌한 놀이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협동적인 게임과 양육적인 게임을 통하여 집단치료놀이는 아동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을 양육하는 능력과 신뢰를 증가하여 발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치료놀이의 4가지 규칙은 상처주지않기, 다 함께 하기, 재미있게 지내기, 성인이 책임지기이다. 성인이 집단에서 구조, 도전, 개입, 양육과 즐거움의 경험을 하도록 틀을 마련해 준다. 즐겁고, 양육적이며,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종종 인지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치료놀이의 규칙은 재미가 있어야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치료놀이의 원리로는 구조(Structuring), 개입(engaging), 양육(nurturing), 도전(challenging)의 4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그 외에 즐거움(playfulness)이 추가되어 치료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줄 끝 재미있어야 한다.

셋째, 치료놀이는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전 단계, 즉 언어사용 이전의 상호작용 방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치료방법이기 때문이다. 치료놀이는 단기간 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강렬한 개입방법임이 입증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특히 박탈되고 방임된 아동, 애정 결핍된 아동, 그리고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동들에 대하여 비언어적(nonverbal)치료나 전언어적(preverbal)치료의 활용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집단놀이치료는 집단치료와 놀이치료라는 두가지 치료양식을 가지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공부방아동을 위해 활용 가능한 복합적인 접근법 임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위축행동 감소,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연구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음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의 동일성을 확보하였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차후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심리적 적응을 충분히

지원하기에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종료 후 추후 검증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 또한 후속 연구에 넘기게 됨을 밝힌다.

본 연구를 마치며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탈북청소년공부방 기관 관계자들의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적응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와의 갈등문제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세대들은 자녀세대들과 심리적·정서적 교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탈북청소년들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원은 가정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305명(47%)의 청소년들이 제3국출신이었는데 대부분은 한글을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한국어로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드물지 않았다. 탈북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언어의 미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성 부족은 탈북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공격성, 심리적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들 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신변보호 등의 이유로 다문화청소년들처럼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못하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넷째,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물질적 지원은 탈북청소년이나 성인 모두에게 그 효과와 지속 여부에 있어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응 지원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며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통일 이후 남북통합을 고려하여 남북화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작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해당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 관련 시설에 적절한 심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이해가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의 결과가 이후의 다른 행동까지 지속되므로 한 인간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행동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국문자료

- 강지현. 집단치료놀이가 가정폭력 아동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강희석.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심리척도 핸드북 2』. 서울: 학지사. 2011.
- 금명자·권해수·이희우.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004.
- 김희진. “탈북여성의 정신건강과 부부적응을 위한 TSL 가족프로그램 개입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길은배·문성호.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2003.
- 김경준·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연구Ⅲ: 정규학교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연구보고 08-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실태 분석연구(연구보고 RR:2004-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 김연철. “탈북자들이 말하는 탈북주민 정착지원법 탈북자 교육. 이 땅의 주인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통일한국』. 156. 1996.
- 김연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2009.
- 김연희.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영향의 경로구조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1). 2010.
- 김영우.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청소년의 생애사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윤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3). 2008.
- 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국내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치안

- 정책연구』. 24(2). 2010.
- 김지현.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현아·방기연. “그룹홈 종사자의 무연고 탈북청소년과의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3). 2012.
- 나달숙.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 2008.
- 노영환. “대학 내의 새터민 대학생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기숙사를 활용한 그룹 홈(Group Home)과 또래 협력학습(Peer Tutoring)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도날드 위니컷. 이 재훈 옮김 『어린이 심리치료』.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0.
- 마석훈.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남한 사회의 편견”.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 박윤숙·윤인진.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한국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2007.
- 박일권. “탈북 청소년 적응과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정서. “정치사회화이론에 근거한 탈북자 시민성 연구와 시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2). 2012.
- 박정순. “사회적지지가탈북청소년의적응유연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6(1). 2008.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한국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007.
- 서은주. “위니컷의 놀이이론을 통해 본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성영혜. 치료놀이(I). 서울 : 형성출판사. 2000.
- 성영혜. 치료놀이(II). 서울 : 형성출판사. 2001.
- 성영혜. 치료놀이(III). 서울 : 형성출판사. 2002.
- 양계민·정진경.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사람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05.
- 엄태완.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상에서의 일탈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2010.

-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2002.
- 이수연.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2008.
- 이수정. “북한인에 대한 남녀의 편견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1999.
- 이수정.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과 대책: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통일학연구원 봄 학술대회: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의 대안과 전략」. 2009.
- 이정우a. “탈북청소년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13(2). 2006.
- 이정우b. “탈북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사회과 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45(1). 2006.
- 이현주·박현선.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지원 멘토링 참여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4). 2009.
- 전명남·김현아. 『또래 협력학습(peer tutoring)을 통한 북한이탈 대학생의 학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연구(2004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논문집)』. 서울:통일부.
- 정진경·정병호·양계민. “탈북청소년의 한국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42. 2004.
- 정향진.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2005.
- 조영아·전우택. “북한출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6(1). 2004.
- 최경자. “새터민 학생의 학업 적응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최경자·곽종문·채경희·박찬수.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와 무연고 탈북청소년의학교적응실태(연구보고 NKR-2011-0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 한만길 외.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한국교육개발원. 2011.
- 한만길·김현주·김창환·오기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홍덕기.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2. 영문자료

- Evangeline Munns(ed). *Theraplay (Innovations in attachment-enhancing play therapy)*. 2000.
- Jernberg, A. M. & Booth, B.. *Theraplay: Helping Parents and Children Build Better Relationship through accachment-Based Play. 2nded.* SanFrancioco:Jossey-Bass. 1990.
- Jernberg, A. M.. *Attachment Enhancing for Adopted Children. In P. V Grabe(ed.), Adoption Resource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1990.
- KevinJ. O'Connor. *Play Therapy:Theory and Practice.* NewYork:Wiley. 1997.
- love, H. D. *Parental attitude toward exceptional children* MASS:Charles C. Thomas. Pub Springfield. 1976.
- Rubin. p. & Tregay. A.. *Play with Term: Theaplay Groups in the Classroom.*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89.
- Rubin. p. *Understaanding Homeless Mothers: The Dynamics if Adjusting to a Long-Term Shel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llinois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hicago. 1996.
- Whittaker, J. K.. *Children: Group car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 C: NASW Press. 1985.

3. 인터넷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http://www.koreahana.or.kr/eGovHanaEdu32.do>.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http://www.rainbowyouth.or.kr/>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hub/main.do>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인력 실태분석 및 통합 방안

이혜경
(사)새 삶 대표

제1장 서론	445
제2장 북한의 보건의료인력(보건일군)에 대한 분석	452
제3장 김정은시기 북한 보건의료와 보건일군 역할의 변화	463
제4장 남북 보건의료의 통합방안 모색	514
제5장 결론	540
참고 문헌	545

표 목차

<표 1-1-1> 연구에 참여한 재북 보건의료인 명단	450
<표 2-1-1> 북한의 의학대학들과 소재지	453
<표 2-1-2> 북한의 의학전문학교들과 지명	454
<표 2-1-3> 의사와 준의의 역할차이점	456
<표 2-1-4> 약제사와 조제사의 역할차이점	456
<표 2-2-1> 의사 천명당 의사수	457
<표 2-2-2> 각 의·약학대학의 양성배출현황: 주간학부(1960~2000년대)	458
<표 2-2-3> 국가별 1000명당 간호사 수	459
<표 2-2-4> 평양시 병원들의 침상 수와 의료인력 수	460
<표 2-2-5> 각 병원들의 인력분포현황(추산)	460
<표 2-2-6> 청진 도의대병원 의료인력 분포현황(2011년 현재)	461
<표 3-1-1> 의료기관별 규모	485
<표 3-2-1> 무상치료제의 기원과 전개	489
<표 3-2-2> 예방의학 사업의 내용	490
<표 3-2-3> 북한의 쌀 가격 동향	491
<표 3-3-1> 2011년 남북한의 인구학/보건	493
<표 3-3-2> 치료행위의 시장가격화 (2013년 당시)	505
<표 3-3-3> 수입의존 치료약품 종류	507
<표 3-3-4> 공급 UN 약품들의 시장가격 매매가(남포, 청진)	509
<표 4-1-1> 남북한 의학대학의 학과목비교	515
<표 4-2-1> 의학대학의 학부, 교육기간, 자격유형	518
<표 4-2-2> 각 대학별 졸업생수와 학생총수(추산)	520
<표 4-2-3> 약학대학의 학부와 자격유형	521
<표 4-2-4> 남북한 약학대학 학과목 비교	522
<표 4-2-5> (고등)의학전문학교의 학과와 교육기간, 자격유형	524
<표 4-3-1> 재교육대학의 강좌들	528
<표 4-3-2> 보건의료 인력의 급수시험	531
<표 4-3-3> 의(약)사 급수별 급여기준	534
<표 4-4-1> 탈북의료인 개업 남한 보건의료현장	535
<표 4-4-2> 남북한 전문가들의 통합시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견	536
<표 4-4-3> 자격고시 시행의 유무여부	539

그림 목차

<그림 2-1-1> 북한보건의료인력 정의	452
<그림 2-1-2> 남한보건의료인력 정의	452
<그림 3-1-1> 북한의 下 → 上식 4차진료체계	463
<그림 3-1-2> 북한의 보건행정조직도	465
<그림 3-1-3> 의학과학원 행정도	467
<그림 3-1-4> 위생방역소 조직구성도	471
<그림 3-1-5> 북한의 병원들	473
<그림 3-1-6> 북한 군 의무체계	479
<그림 3-1-7> 북한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도	482
<그림 3-1-8> 시(구역),군 병원 행정구성도	484
<그림 3-1-9> 북한의 의약품 공급 체계	487
<그림 3-3-1> 북한의 보건환경의 주민건강불균형	495
<그림 3-3-2> 북한의 시장 쌀값과 달러환율(2009.8~2013.7)	500
<그림 3-3-3> 의사 월급명세표	503
<그림 4-2-1> 의학대학 졸업증	520
<그림 4-3-1> 의(약제)사 월급(보수)기준	534

요 약 문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 어느덧 6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서로 다른 이념전쟁으로 일관되어왔으며 남북 간의 경제규모는 국민소득(GNI)기준으로 90년 12배에서 지금은 43배까지 벌어졌다.

남북 간의 국민소득의 격차는 기대수명의 차이로 이어져 1993년 2.3세에서 현재는 12.2세로 10년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북과 남의 기나긴 시간동안 보건의료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북한을 대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관리사업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B형간염, 빈혈, 결핵 등의 환자가 많으며 남한에 비하여 유병율의 최대 4배까지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지수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분단의 시간에 따른 정치, 경제 뿐 아니라 건강지표인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 간의 격차의 심각성은 통일한국을 지향하는데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본다면 북한은 해방 후 ‘무상치료제’의 슬로건아래 노동자, 사무원, 농민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의 무상의료서비스를 전달하기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 개의 의학대학도 없는 의료빈국에서 13개의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을 건립하여 한 해 평균 수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여 현재는 인구 만 명당 의사 수 33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은 ‘예방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등과 같은 제도들을 반영하여 무상의료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데 힘쓴다.

그러한 ‘무상치료제’의 번성기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들이닥친 ‘고난의 행군’에 의한 식량난과 동시에 의료 난으로 마비 및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보건의료부문의 이러한 여파로 주민들 속에는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아사와 전염병사가 만연하는 해방 전의 의료빈국 모습을 재현하였다.

의료빈국 현상은 북한전지역을 시장화로 내몰았고, 의료용품과 약품 역시 시장을 통한 구입만이 가능한 내용상의 유상치료제가 내면화되었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체제수호의 ‘무상치료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건의료인들에게 각종 세부담을 부가하면서 생활고를 지속하게 하였다. 이로 인한 환자들을 통한 해결사가 바로 최근에 북한에 출현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새로운 의사-환자관계이다. 이와같은 현상들이 바로 남북 간의 주민수명차를 10여년으로 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북한의 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출은 심한 생약과 비약에 점철되어 있다. 의학교육은 6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을 노동과 동원에 바쳐지고 학업의 질적 수준보다 양적배출에만 고집한다.

북한의 보건의료인력배출의 양적확대 일면만을 고집한 대량배출은 금후 남한과의 통일을 대비할 때 그 격차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바이다.

이러한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동인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들을 고찰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남북간 통일 통합시를 대비할 때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그러나 국내의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파악과 이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화된 연구가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다. 더우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연대순의 자세한 연구와 고찰들에서 남한식대로의 이해와 추론이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 북한의 현실적인 보건의료계가 내비쳐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내부의 현실화된 보건의료계와 인력들, 그 역할수행에 대한 재조명에 역점을 둘 것이며 그를 위한 세부적인 인력들의 교육과 관리(임용과 현장 충원 등의 실태분석)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와 그 인력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인식의 자료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또한 남북한의 보건의료인력들의 통합방안을 고민함에 있어서 그 격차해소에서 이질감만 의식하여 부정적인면만 고집하고 통일이나 통합이 실현불가의 문제로 어렵게 해석하는 국내의 그릇된 관점과 자세들에 대하여 남북간의 동질감을 주지하여 해결가능의 근접을 찾는 올바른 견해와 방법론의 인식 주입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하여 통일통합시의 긍정적인 통일통합모델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디자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제어: 무상치료제, 예방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 고난의 행군, 대량 배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순간일 것이라는 휴전은 반세기이상을 지속하여 국토양단과 민족분단의 역사도 어언 60여년의 시간을 경과하였다. 북과 남 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는 판이한 두 현실로 치달았다.

북한은 수령독재와 평균주의를 주창하며 전대미문의 3대세습을 완성하여, 김일성민족주의 고수의 악의국가로 전락되어 국민을 人災와 天災의 복합적인 재난의 희생물로 만들었다. 이러한 북한에 상반되게 세계경제력 10위권 내의 위력과 존엄을 누비며 무성하게 발전하는 남한이 한반도의 명암으로 갈리어졌다.

북한에서 보건의료는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인민대중의 건강을 돌보는 혁명사업으로 내세운다. 이로부터 북한은 일찍이 해방 후부터 보건의료부문에 ‘무상치료제’를 시도하고 추진하면서 이를 체제수호와 주민결속의 도구로 삼아왔다.

실제로 북한이 구상하고 내세웠던 무상치료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인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돌보는 진정으로 ‘고마운 제도’였었다.

북한은 이런 목표를 위하여 해방 후 단 한 개의 대학도 없는 의료빈국에서 평양의 전과 함흥의전을 모체로 하여 평양의학대학과 함흥의학대학을 내온데 이어 전국 각지에 10여개의 의학대학을 신설건립하고 ‘우수한 보건정책’ 관철의 모타(Moter)인 보건의료 인력양성에 정진한다.

하여 북한은 단시일 내에 인구 만 명당 의사 수 33명이라는 아시아평균 13명¹⁾을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속한 기일 내에 대량배출 된 의료인력으로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지방구석구석까지, 간부에서 노동자, 농민계층에 관계없는 무상 보건의료서비스전달과 보급에 주력한다.

북한이 무상치료제의 구성내용으로 제시한 ‘의사담당구역제(Section doctor system)²⁾’와 ‘예방의학³⁾’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전달시스템으로

1) OECD/WHO,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2012.

2) “의사담당구역제라는 것은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여 예방치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에 늘 나가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 사업을 합니다.”, 『조선대백과사전』, 간략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1142.

3) 병나기 전에 미리 막는 의학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보건사업을 순전히 약만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예방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

그 우월성을 더하여 준다. 뿐만아니라 ‘의사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면서 그들 속에 환자를 내 몸과 내 삶과 같이 여기는 혼연일체를 내면화시킨 ‘정성운동’은 북한이 보건의료인력에게 유일하게 내세우고 견지한 보건정책의 일환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1990년 중반이후 ‘고난의 행군’시기를 경험하며 이는 식량난, 경제난, 의료난의 복합 난재(難災)에 직면하게 된다.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은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주민들의 건강 역시 매우 열악한 현실을 출현시켰다.

이 시기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상은 주민들의 건강실태에서 보여주었는바 어린이의 건강실태를 본다면, 영아사망율은 식량난이 본격화되기 전인 1994년에 영아 천명당 14명에서 2001년에 2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의 결핵증가율은 WHO에 의하면 매년 4만명인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⁴⁾.

이와같은 반영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인구는 2천490만 명으로, 인구수에서 세계 202개국 가운데 49위를 기록한다. 그 중 男 11,638천명, 女 11,978명이다. ‘국가건강계정(National Health Account)’에 나타난 1인당 GDP를 보면 북한은 아시아 최 저개발국 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낮은 국가인 “네팔”과 비슷하다는 보고자료⁵⁾가 있다.

또한 북한의 최우선 관리 질환인 결핵발생율은 1990년 경제위기동안 인구 10만명당 344명에 사망률은 23명으로 남한보다 약 4배 높다.(남한 각97명, 5.4명). 사망률이 2007년(인구 10만명당 25명)보다 약간 감소지만 전문적 결핵관리체계미흡으로 신규발생환자 중 3.9%, 재 치료환자 중 23%가 다재내성(多才耐性) 결핵(Multi-drug Resiston TB)으로 악화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⁶⁾.

북한의 현실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영아사망율·아동영양실조·장애인비율 잦은 평균수명·실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남북한의 격차를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통합을 지향할 때 정치·군사·외교의 외적통일단계와 더불어 사회경제 문화적 통합완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문화적 통합문제의 일부분인

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곧 이것이 사회주의 의학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 521.

4) <http://blog.naver.com/sksmsdld/220020242268>

5) <http://mobacler.blog.me/70178413416>

6) 황나미, “경제위기이후 북한주민 건강수준과 질병부담”, (2012), p.134.

보건의료분야의 통일통합문제도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고민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남북한 통합방안고민에서 보건의료의 하나 됨의 지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동인과 그 역할의 인력문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건일군의 양성에 대한 인력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통합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보건의료부문의 알파(alpa)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의 알파문제 역시 남한과의 동질성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보건의료인력의 교육을 대동소이하다고 분석한 박형우⁷⁾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독인들은 동독인을 ‘게으르다’고 ‘오시(Ossi)’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을 ‘거만하다’고 ‘베시(Wessi)’라고 하면서 상호간의 불신을 일삼은 것을 통일이후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러한 통독의 진통과정들을 교훈삼아 우리도 상호간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며 상호간의 갭(gap)을 좁히고 이해와 인식의 면을 넓혀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같은 맥락으로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비하의식에서 동질의식을 유인하고 가능성을 찾아내는 등 쉬운 것부터 먼저, 가능성있는 것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다르고 복잡한 것들에 대하여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이고 인내있는 통합모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에서의 차이점들을 분석하고 그 극복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남한에 없는 교육형식(주간, 통신, 특설)과 자격제도, 급수시험제도 등을 통한 보건일군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다양한 보완수단과 방법들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에 서로 다른 보건의료시스템과 그에 투영되어 있는 보건일군들의 역할영역과 사회적 지위 등 분석들의 조화로운 통합방안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급변사태 시 통일통합시를 대비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원동력(原動力)인 북한의 보건일군들을 재조명하고 그 문제점과 극복방안들을 모색하는 본 연구가 금후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고 하나 됨의 화합의 우리 국민과 국가가 풀어야 할 제반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서 보다 내실화된 독보적인⁸⁾ 사료적 가치가 되기를 바란다.

7) 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 및 의사자격 인정문제」,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3호』, (2004), p. 247.

8) 북한 보건일군 출신으로 북한식 사고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겠다.

제2절 연구방법

1. 기존연구의 검토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선행연구로는 최영인의 「정성운동이 북한의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2004)과 박형우의 “북한의 의학교육 및 의사고시자격 인정문제(2006),와 박재형 외의 『북한의 의학교육』, (서울대학교, 2005)가 있으며 이해경의 「북한의 보건의료의 파행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1990년대 후반기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9)와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에 대한 연구-체제전위양성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3) 등이 있다.

먼저 최영인의 박사학위논문 「정성운동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⁹⁾의 기사 중 보건일군들의 의료행위의 미담을 분석한 연구로서, 주로 보건일군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전달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동당 기관지로서 특정한 성격이 강한 『로동신문』의 긍정적 역할만의 기술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선전 선동적 특성만을 드러내는데 무게중심을 두었다. 소재는 정성운동으로 표출되었던 보건일군들의 의료행위의 심화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정성운동이 보건일군들에 대한 사상운동이며 당국이 보건의료의 부족을 은폐·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의 정확한 지적도 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로서 박재형 외의 『북한의 의학교육』(2005)이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일시대 북한에서 실시한 의학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의학교육제도, 의학대학 의학부 교육과정, 교육내용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의학교육을 다룬 박재형 외(2005)와 이양구(1991)는 보건의료 전문지식 위주의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소재로 하여 북한의 의학대학에서 진행되는 의학교육과 학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의료 전문지식의 교육현장과 인력양성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 이해경의 「북한의 보건일군양성정책에 대한 연구 -체제전위양성을 중심으로-」 (2013)은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의 보건일군의 양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로서 가장 최근의 북한보건의료를 진단하고 살펴보고자 현실적 접근을 중시한 연구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새롭게 등장한 보건일군들의 행위위주인 정성운동의

9) 북한 당보의 이름이므로 두음법칙과는 무관하게 이하 고유명사 그대로 표기한다.

변성된 새로운 의사-환자관계를 고찰하는데 한계가 지배한다.

또한 「북한의 보건의료의 파행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1990년대 후반기를 중심으로-」(2009)는 1990년대 후반기에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전염병사태’와 그 당시 보건일군들의 ‘고난의 행군’ 여파 속에 견디어내야 했던 보건의료 행위의 문제들에 대한 내부의 현실반영 맥락과 기준을 중시한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원전자료이다. 북한의 1차 자료인 승창호의 『북한 보건의료 연구』¹⁰⁾와 홍순원의 『조선보건사』¹¹⁾ 등이 있다. 승창호의 연구는 북한의 김일성교시와 당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북한의 실태 파악에 기여하였다.

홍순원의 『조선보건사』(평양, 1981)는 북한원전자료로서 일제시기부터 보건의료의 역사를 기술하고 시기적인 문제들을 다룬 보건의료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과 인식제고에 도움을 준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이 전후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의료기술을 수입한 과정 등이 기술되어 있어 북한의 초기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의 원전 자료들은 대부분이 체제선전이나 선동사업에 초점을 맞춘 정치성 위주의 자료들로서 현실과 이론 사이에는 괴리감이 존재한다. 이는 내재적 접근 방법론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원전자료들은 당대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도출해 내기 위한 자료로서의 나름 의미가 있다.

상술된 기존의 연구자료를 취합해보면 90년대 후반기를 반영한 북한의 새로운 시장화현상에 대한 보건일군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미온적이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부족점과 미숙의 수정과 보완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과 한계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 서론, 2장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과 정의, 유형분석 등을 하였으며 북한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일군의 범주 내에서 그 양성기관들을 통한 양성과 배출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 3장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즉 주민건강 돌봄 시스템과 보건일군의 직능 등 보건의료의 숲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으로 무상치료제의 발단과 그를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행정기관과 조직들을 고찰하였다.

다음 4장에서는 북한의 보건일군들의 역할변화들을 고찰하였다. 보건일군들 속

10) 승창호, 『북한 보건의료 연구』, (평양: 청년세대, 1989).

1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에서 초기 ‘정성운동’이 내면화되어 ‘의사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자로 되어야 한다.’는 의사-환자 간에 조성된 끈끈한 혼연일체(渾然一體)관계가 지속적인 경제난여파로 생계위주지향으로 변질(정성운동의 변성)되어가고 있는 과정과 그 원인과 현상들을 고찰 분석하였다.

북한의 보건의료의 무상치료제 유지를 위하여 대내외적인 공급마비상태에서도 체제수호와 주민결속의 사회주의 보건의료를 주창하며 보건일군들에게 과도한 사부담으로 희생을 전담케 하는 당국의 사회주의체제 고집의 과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러한 과욕이 표면상으로는 자본주의 반대를 구호들었지만 오히려 탈사회주의화를 부추겼다는 현실적 자료들을 탈북민 보건일군출신들과 일반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첨부하여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위하여 16인의 재북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가한 의료인들을 아래<표 1-1-1>연구에 참여한 재북 시 보건의료인 명단에 소개하였다.

<표 1-1-1> 연구에 참여한 재북 보건의료인 명단

No	이름	기호	남여별	연령대	출신학교	재북시 근무지	졸업연도	탈북연도
1	김○○	K1	여	80	평양의학대학	평양임상병원/ ○군병원	1960	2001
2	최○○	C1	여	70	"	중앙의약품상사 /위생방역소	1962	2005
3	최○○	C2	여	60	"	청진○구역병원	1978	2009
4	김○○	K2	여	20	"	무	2006	2006
5	석○○	S1	남	40	"	군부대	1988	1995
6	최○○	C3	남	40	청진의학대학	철도위생방역소	2002	2013
7	최○○	C4	남	40	"	함북○군병원	2004	1997
8	하○○	H1	남	40	"	청진 도병원	2003	2012
9	김○○	K3	여	40	"	함북의학연구소	1988	2002
10	현○○	H2	여	50	김일성종합대학	청진의사재교육대학	1977	2003
11	정○○	J1	남	40	함흥의학대학	함흥진료소	1997	2003
12	현○○	H3	남	40	혜산의학대학	혜산시병원	2004	2012
13	최○○	C5	남	40	"	혜산2예방원	2005	2013
14	권○○	K4	여	30	"	혜산3예방원	2006	2012
15	박○○	B1	남	50	함흥약학대학	함흥약학대학	1990	2012
16	이○○	L1	여	40	"	함북○군병원	1989	2002

<표 1-1-1>연구에 참여한 재북 시 보건의료인 명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들의 졸업연도와 출신학교들이 다양하다. 다양한 그룹을 선택하여 1960년대부터 현재 2000년대까지의 북한의 보건의료상황과 의학대학과 약학대학 등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C3, C4, H1, H3, K5 등을 통하여 가장 최근(2011~13년)의 북한 보건의료상황과 의료교육현장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북한의 유상치료제의 내실화된 현 보건의료상황을 현실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3년 말까지 평양시 거주하였던 이○○의 증언(p. 505.) 등을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다음 5장에서는 북한과 남한사이의 상이한 의학교육의 교과목배분을 비롯한 공부정적인 현실들을 짚어보고 북한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들을 고민하고 통합방안의 모색들을 도출하기 위한데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위하여 재북시 의·약학대학이수자들을 196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근 40년간의 불특정다수의 졸업자들과 재북 시 보건의료부문 종사경험자 10 여명들을 대상으로 고찰하기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급부상한 비공식적 의료시장화의 확산과 활성화에 대한 요해와 분석들을 다각적으로 중첩되면서도 검토를 거듭하여 보다 현실위주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거주하였던 북한주민으로서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경험하였던 대상들을 30명에 대한 면접으로 보다 최근의 현황을 표출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심화하면서 금후의 전망적인 미래지향적인 구성들을 계획해나가는데서 자료적가치가 되고자 시도하였다.

하여 본 연구가 북한 보건의료부문 생태계-기관, 인력, 시스템 등-의 가장 현실성에 근접한 자료(병원을 비롯한 치료예방기관 등)적 가치에 의미를 많이 두고자 노력한 연구로 국내의 북한보건의료계의 기여적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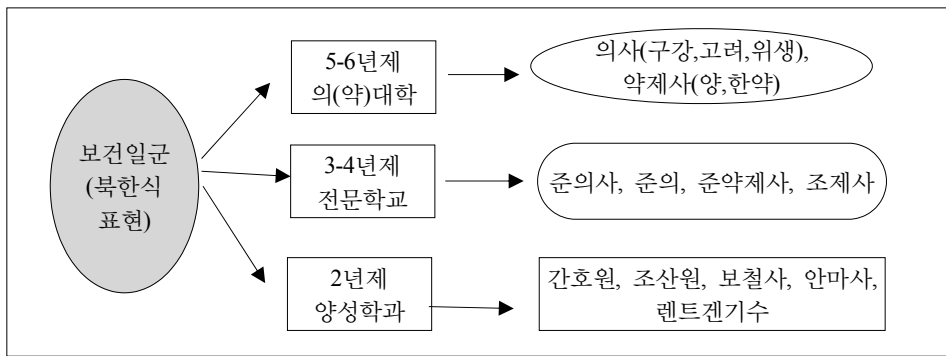
연구의 한계는 철저한 폐쇄와 봉합이 위주인 북한상황 속에서 여러자료 적인 통계들을 접할 수 없었으며 탈북의료인 면접도 대략적인 유추과정(졸업자, 근무상황 등)을 도출할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data)를 취득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자료제공에서 연구의 제한과 실점(失點)이 지배한다.

제2장 북한의 보건의료인력(보건일군)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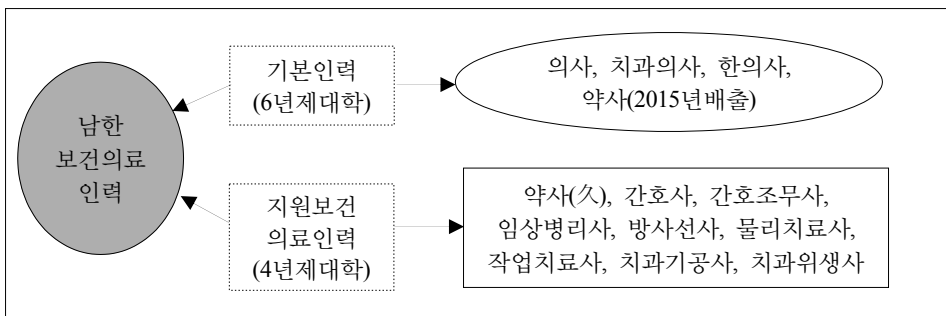
제1절 보건일군(보건의료인력) 정의와 유형구분

북한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종사자를 보건의료 인력이라고 표현하는 남한과 다르게 “보건일군”¹²⁾이라고 칭한다.

북한에서 보건일군은 보건의료부문(병원, 진료소, 구급소, 위생방역소 등)에서 종사하는 인력을 통털어 포괄하는 용어로 익숙하다. 이러한 보건일군은 상등보건일군, 중등보건일군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다음 노동자가 (하등?보건일군)이다. 여기에는 간호원과 보철사, 렌트겐기수 등들이 속한다. 아래에 각 유형의 보건일군들의 유형과 구분을 보고자 한다.



〈그림 2-1-1〉 북한보건의료인력 정의



〈그림 2-1-2〉 남한보건의료인력 정의

12) 남한식 표현인 보건일군표기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통용되는 고유어로 ‘보건일군’을 고집한다.

1. 상급보건의료인

상급보건의료인군은 보건의료부문의 대학교육 즉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을 이수한 의사와 약제사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보건의료계의 주요 인력들이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 수행한다.

북한은 해방후 단 한 개의 의학대학도 없는 의료빈국이였다. 그런 상황에서 ‘무상치료제’ 야심은 실현 불가였다. 무상치료제의 실행하자면 우선 이를 담당수행할 보건의료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평양의전을 평양의학대학으로 개편한데 이어 함흥의전도 함흥의학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전국각지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13개의 의·약학대학을 신설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대대적인 상급보건의료인 양성사업을 복합적으로 진척시켜나갔다. 아래<표 2-1-1>에 북한의 의학대학¹³⁾들을 최근의 개칭학교명과 함께 소개하였다.

<표 2-1-1> 북한의 의학대학들과 소재지

No	대학명	개칭명(2000이후)	현재 소재지
1	평양의학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시 중구역 경립동
2	함흥의학대학	정성의학대학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동
3	청진의학대학	경성의학대학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동
4	해주의학대학	장수산대학	해주시 승마동
5	신민주주의학대학	광제의학대학	신의주시 평화동 ¹⁴⁾
6	강계의학대학	인풍의학대학	강계시 석현동
7	원산의학대학	송도원의학대학	원산시 평화동
8	사리원의학대학	강건의학대학	사리원시 운하동
9	혜산의학대학	가림천의학대학	혜산시 혜명동
10	평성의학대학	봉화의학대학	평성시 문화동
11	개성의학대학	안영애대학	개성시 보선동
12	군의대학	김형직군의대학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
13	함흥약학대학	고려약학대학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동

<표 2-1-1> 북한의 의학대학들과 소재지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은 빠른시일내에 13개의 대학의 신설확장을 진행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보건의료인 양성의 중요성¹⁵⁾¹⁶⁾ 언급에 의해 보건의료인양성에서 양적확대사업이 강조되고 추진되었다.

13) <표1-1>참조

14) 원산시의 평화동과 동일지명.

북한의 보건일군 외에 무상치료제서비스 실현을 위한 단기일내의 보건일군 대량배출목적의 중등보건일군을 양성하는 의학전문학교가 존재한다.

2. 중등보건일군

중등보건일군은 보건의료계의 중등교육인 전문학교와 고등전문학교 등을 이수한 준의, 준의사와 준약제사, 조제사 등 들이 속한다. 의학전문학교는 각도마다 1개 이상씩 있으며 여기서는 중등 보건일군들-준 의사, 준의, 준 약제사, 조제사, 보철사, 안마사, 간호원, 조산원들이 양성¹⁷⁾된다. 각도의 의학전문학교들을 <표 2-1-2>에 탈북민들의 진술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표 2-1-2> 북한의 의학전문학교들과 지명

	대 학 명 별	대학별 거주 소재지
1	평양외과대학	평양시 대동강구역 복수동
2	사리원 장수약학대학	사리원시 원주동
3	평성의학전문학교	평성시 문화동
4	함남 의학전문학교	함흥시 성천강구역
5	경성의학전문학교	함경북도 경성군 읍
6	신의주의학전문학교	신의주시 평화동 ¹⁸⁾
7	남포의학전문학교	남포시 와우도구역
8	원산의학전문학교	원산시 평화동
9	사리원의학전문학교	사리원시 은하동
10	강계의학전문학교	강계시 연풍동
11	해산의학전문학교	해산시 해명동
12	해주의학전문학교	해주시 광하동
13	개성의학전문학교	개성시 보선동

15)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일성저작집』 33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 p. 440.

16)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려면 의사, 약제사, 간호원 등 보건일군들이 많아야 합니다. …보건성에서는 지금 있는 의학대학과 의학전문학교 그리고 간호원 학교들에서 의사, 약제사, 간호원을 많이 양성하는 한편 단기강습소들을 설치하여 보건일군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여야 하겠습니까. 특히 여성보건일군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p. 23.

17)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보건일군 양성사업에서 해방된 새 조선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우선 중등보건일군들을 대량적으로 키워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었으며 점차 상급보건일군들을 키워낼 의학대학들을 많이 내오고 그 양성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였다.” 승창호, 앞의 책, p. 44.

<표 2-1-2>에서의 13개의 의학전문학교들은 198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¹⁹⁾제 졸업생들의 입학기에 맞추어 4년제에서 3년제로 이행되며 대신 명칭은 ‘고등의학전문학교’에서 ‘의학전문학교’로 이행된다. 이 시기에 모란봉의학전문학교가 평양 외과대학으로, 사리원동약전문학교가 사리원장수약학대학으로 개칭되면서 이들 교육기간은 4년~5년으로 된다. 각 도마다 1개 이상의 의학전문학교들은 변신하여 청진의학전문학교는 의사단과대학으로도 되어 의학대학 통신학부와 특설학부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교육기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3. 보건일군별 등급과 역할별 고찰

상급보건일군으로는 상술한대로 대학졸업생들이 주로 속한다. 상·중등 보건일군의 차이점은 대학졸업의 유무관계이다. 중등보건일군은 6년의 대학졸업생들에 비하여 교육연한이 적은 3년제 전문교육을 받았다는데로 부터의 직능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예하면, 의사와 준의차이는 우선 환자진료에 있어서 수술장 출입에 제한된다. 또한 진단서발급에서도 준의는 3일씩 2회인 6일밖에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최고 개별명의로 15일까지도, 의사협의회와 원내협의를 통하여 21일에서 한 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내협의를 거쳐 상급의료기관에 파송되면 한달까지의 진단서를 발급가능하다. 그 이상이 필요로 할 시(노동능력불가 판정)에 사회보장수속이 가능함으로 해당부서로 이관된다. 다음으로 약제사와 조제사와의 차이이다. 약제사는 약물의 조제(粗製)와 제제(製劑)에 제한이 없으나 조제사는 조제만을 할 수 있다는 차이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표들을 탈북의료인들의 증언²⁰⁾을 통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18) 원산시의 평화동과 동일지명.

19) 북한은 김일성의 『10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에 의해 1974년부터 2년간의 7세반 시범교육을 시험실시한데 이어 11년제 의무교육-1년전 유치원교육, 초4년 고중등교육 6년을 실시한다. 이 과정이 종결된 1985년부터 북한의 대학교육과 전문교육의 커리큘럼과 학과과정 내용들을 개편하는데 이에 의해 전문과정4년에서 3년 의대도 7년에서 6년으로 교육기간이 감소된다.

20) <표1-1>참조

〈표 2-1-3〉 의사와 준의의 역할차이점

항목		의사	준의	비고
진단서발급	3일분	○	○	병원규모에 준함 (3차병원급들에서전혀불가)
	6일분	○	○	상동
	21일	○	×	의사협의회
독·극·마약처방(복한식표현) (마·향정제-한국식)		○	×	
상급병원 의뢰		○	○	
수술집도		○	×	

〈표 2-1-4〉 약제사와 조제사의 역할차이점

항목		약제사(藥劑師)	조제사(調劑師)
약물粗製		○	○
약물製劑 (주사약)	피하근주제	○	○
	정맥주사제제	○	×

<표 2-1-3> 의사와 준의의 역할차이점과 <표 2-1-4> 약제사와 조제사의 역할차이점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등보건일군과 중등보건일군들은 교육연한이나 이수학교의 차이로 인한 현격한 역할 직능상 차이가 지배한다. 이러한 차이기준이 하급보건일군인 노동자(간호원, 조산원, 보철사, 안마사 등)에게도 작용한다.

4. 노동자

일명 하급보건일군이기도 하다. 이들은 보건일군 양성소를 이수한 대상으로서 주로 보철사, 간호원, 조산원, 렌트겐 기수 등 들이 속한다. 이들은 초기에 보건간부 양성소의 6개월 교육기간 이수가 기본이었는데 1985년(11년제 의무교육 졸업생시행)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교육기간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 커리큘럼 등과 교육 강령 등이 교정되어 집행되었다.

노동자인 간호원은 원칙적으로 청진(聽診)은 물론 정맥주사(靜脈注射)와 봉합(縫合) 등의 치료기술수기에서 제한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흔히 정맥주사와 봉합 등은 간호원이나 조산원들의 기본수기이기도 하다.

제2절 인력양성과 배출현황분석

1. 보건일군(인력)양성 현황분석

보건일군(인력)양성의 양성과 현황분석은 그들의 임용과 배치현황을 분석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북한에서 보건일군 양성기관을 통하여 양성된 보건일군들 다시 말하여 의(약)학대학과 전문학교를 통한 의학교육 이수자들의 임용과 배치는 개인의 자율성은 전혀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개입만이, 즉 국가가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임용과 배치는 보건성 내에 ‘인사과’ 또는 ‘인적 자원부’가 존재하지 않아 과학기술국에서 중앙 관리한다. 즉 자율적보다 국가개입의 임용이다. “인민보건 위원회(도, 군, 리)와 보건국(도, 군)과 전염병 예방과에서 기술적, 행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²¹⁾는 자료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일 뿐이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일군은 약 30만명²²⁾으로 추정된다. OECD/WHO보고서(2012)에 따르면 북한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3.3(2003년)명으로 OECD 평균 3.1명보다 높으며 아시아 22개국의 평균 1.3명보다 높은 수준²³⁾이다. 이에 근거한 자료를 아래의 <표 2-2-1>에서 보기로 하면,

<표 2-2-1> 의사 천명당 의사수

No	인구 천명당 의사수	OECD평균(명)
1	북한	3.3명(2003)
2	호주	3.0(2009)
3	뉴질랜드	2.6(2010)
4	남한	2.0(2011)
5	일본	2.2(2010)
6	아시아 평균	1.3

<표 2-2-1> 의사 천 명당 의사 수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의사 수는 2003년 자료에 의하면 현재에 아시아 평균수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이러한 WHO,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상급보건일군으로 근무하였던 보건일군들의 증언을 취합하여 실제 북한의 보건일

21) 중기 인적자원 개발계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건복지부, 2008-2010), p. 11.

22) 박상민,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2012), p.13.

23) OECD/WHO,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2012.

군 양성과 배출의 현황들을 살펴보고 <표 2-2-2>에 정리하였다.

각 의학대학과 약학대학들의 양성배출현황²⁴⁾ 분석을 <표 2-2-2>에서 나타내었다.

<표 2-2-2> 각 의·약학대학의 양성배출현황: 주간학부(1960~2000년대)

No	대학명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	평양의학대학	295	300	350~400	700(06)
2	청진(경성)의학대학		350	250	250
3	함흥(정성)의학대학	260 ²⁵⁾		400	
4	혜산(가림천)의학대학			120	120
5	신의주(광제)의학대학		200(특)		
6	함흥(고려)약학대학		230	220	
7	사리원장수약단			250	

<표 2-2-2>에 제시된대로 각 의·약학대학의 양성배출현황: 주간학부(1960~2000년대)을 통해서 평양 의학대학과 함흥 의학대학, 청진 의학대학, 신의주 의학대학, 함흥 의학대학졸업생들과의 면담구성원의 실제 졸업생 숫자를 추산해 본다면 한 해 평균 5,000(각 대학 평균 $350 \times 13 \approx 4,600$)여명 가량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통신, 특설학부 등의 시스템들을 고려한다면, 한 해에 5,000명 이상의 보건일군이 배출되어 의료서비스 제공²⁶⁾에 근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함흥의학대학 제6회 졸업식 진행”, 『인민보건』²⁷⁾자료도 이를 잘 입증해준다. 이렇게 배출된 보건일군들은 한 해에 약 1만명 이상씩 배출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무상치료제’실시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한다.

<표 2-1-2>를 통하여 중등보건일군 양성기지도 의·약학대학과 같이 각 도에 1개 이상씩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기서도 역시 한 해 평균 200여명이 배출됨

24) <표1-1>참조.

25) 『인민보건』, (평양 조선의학사,1958.9), p. 81.

26) 통상 탈북의학대학졸업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간=통신+특설+...의 비율이었다는 전언이다. 즉 한해 평균 1만 여명의 의·약사들이 배출됨이다-연구자 주

27) “의학부에서 213명과 약학부에서 35명의 의사, 약제사들을 졸업시키면서 김배준 평양의학대학 학장의 보고가 있었다...1958. 8 전원회의 결정과 금년 5.4당중앙위원회 결정 정신에 철저히 입각하여 예방의학적 방향에서 보건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에, 본 대학이 1946년도에 창설된 이래 오늘까지 12주년을 맞으며 오늘까지 5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며 또 다시 5년간의 학업을 마친 78명의 여성을 포함한 225명을 각급 보건기관에 진출시킨다고 하였다.” “함흥의학대학 제6회 졸업식 진행”, 『인민보건』, (평양:조선의학사, 1958.9), p. 81.

이 유추된다.

이렇게 북한은 중등보건일군들에 대한 양성과 배출에도 힘을 넣었으며, 상·중등 보건일군의 양성에 비례하여 노동자들인 간호원 계열의 인력양성도 소홀히 하지 않아 OECD국가들의 1,000명당 간호원 평균수치를 추월한다. 이들의 양성과 배출을 담당하는 보건간부양성소 역시 각 도에 1개 이상씩 존재하고 운영된다.

보건일군의 노동자인력에 속하는 간호인력수는 4.1(03년도)명으로 아시아 평균수 2.8명을 상회한다. 아래에 인구 1000명당 간호원수의 현황을 WHO자료²⁸⁾에 근거하여 <표 2-2-3>에 살펴보았다.

<표 2-2-3> 국가별 1000명당 간호사 수

	국가별	1000명당 간호사 수(명)
1	북한	4.1(03년)
2	호주,일본	10.1(10)
3	뉴질랜드	10.0(10)
4	한국	4.7(11)
5	아시아 평균	2.8

<표 2-2-3> 국가별 1,000명당 간호사 수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간호사 수는 아시아 평균 2.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이는 간호사 양성에서도 OECD국들의 대열에서 못지않다는 반증이다. 다만, 이들은 한국의 간호사들의 교육기간에 훨씬 못 미치는 2년, 또는 6개월 기간이라는 것이다.

2. 배출현황 및 현장 내 인력분포

위의 <표 2-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본 졸업생들이 밀집된 평양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해산의학대학의 배출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양성배출현황에서는 기본적으로 200~300명 계선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양의학대학의 학생배출현황이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배가로 증가한다. 이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인원으로서 그 전의 300여명계선을 유지할 것으로 유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의료인력들의 현장분포 현황을 <표 2-2-4> 평양시 병원들의 침상수와 의료인력 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를 통하여 평양시의 주요 병원들의 침상수와 의료인력들의 구성상황을 알 수 있다.

28) OECD/WHO,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2012.

〈표 2-2-4〉 평양시 병원들의 침상 수와 의료인력 수

No	병원별	인구수	침상수	종사자수	의료인력수	
					상등보건일군	중등보건일군
1	강남군인민병원	8만여명	150병상	100명	60명	40명
2	대동강구역병원	30만명	450병상	294명	130명	70여명
3	대성구역병원	12만명	150병상	160명	90여명	40여명
4	락랑구역병원	19만명	200병상	250명	130여명	90여명
5	만경대구역병원	13만 5천명	260병상	243명	120명	90명
6	중구역병원	13만명	200병상	250명		
7	대안군인민병원		300병상	300명	120명	

출처: “북한구역(군)병원급 병원현대화사업의 경험을 통한 지원메뉴얼”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2008), p.33.

시 병원 규모와 군 급 병원규모가 유사한 경우도 있어요. 시(구역),군 병원 규모는 인구수에 따라 제정되는데 대체로 인구 4만 5천~5만 경우 군병원의 침대 수는 150~200병상이고, 대체로 시(구역),군 병원의 침상은 200병상으로 보건의료인수는 의사로부터 간호원 도합 150명 정도이고 경리후방직원이 30여명정도이죠(C2증언, 2014.09).

아래 <표 2-2-5>에 각 병원들의 보건일군 수를 인구수와 침대병상수에 한한 추산수를 재복의사 출신²⁹⁾들의 현장 증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2-2-5〉 각 병원들의 인력분포현황(추산)

No	병원별	인구수	침상수	종사자수	그 중	
					상등	중등
1	청진 도 의대병원	70만?	1000	600	200	180
2	청진 도 산원		200	120	60	40
	청진 도 구역병원	8만		130	45	50
3	함북 도 군병원	4~5만	200	150	70	50
4	함북 도 지구병원	0.7만	50	30	12	12
5	혜산 도 3예방원		100	80	50	10
6	혜산 도 2예방원		20	15	10	3
7	혜산시 제1병원	18만	300	250	150	60
8	황해도 의대병원	40만	1000	500	200	200

29) <표1-1>참조.

<표 2-2-5>각 병원들의 인력분포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거주민수에 따라 병상수가 결정되고 병상 수는 곧 의료인력 수의 총원수를 결정하는 지표로서 거의 균등한 비율과 지수에 의하여 배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5>에서 예외적으로 해산 제2예방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道간염병동인데 침상수가 작음에 비하여 상등보건일군수가 우세하다. 이는 의사들의 진단 만·급·만성환자들 관리·이 필요하고 실제 진료는 산하기관인 간염병동에서 진행되는바 적은 보건일군수임에도 병원의 급수가 높기도 하다고 한다는 증언이다.

우리병원은 여타병원과 달리 의사진영이 많아요. 한 것은 우리병원이 진료보다 진단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죠. 급·만성간염환자들에 대한 우리병원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만 간염병(2예방원)동에 입원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보장 수속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하등 보건일군은 적어요(C4증언, 2014.08).

<표 2-2-6>청진 도 의대병원 의료인력 분포현황(2011년 현재)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표적인 청진 도 의대병원의 의료인력의 분포도를 통하여 북한의 보건일군의 배분도를 가늠할 수 있다. 대체로 상급보건일군 : 중·하등보건일군들이 1: 0.6~0.7의 분포율을 시사하는 지표이다. 여기서 대학병원이므로 대부분의 상등보건일군이 분포하여 있고, 중등보건일군들인 준의들은 주로 간호원의 직능을 담당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단위의 리병원들에서의 인력 분포도와 역(易)기능이기도 하다.

청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함북 도의학대학병원의 인력 분포도를 근무경험의 탈북의료인 증언³⁰⁾을 통하여 아래에 정리하여보았다.

<표 2-2-6> 청진 도의대병원 의료인력 분포현황(2011년 현재)

과별	부속별	인원수		과별	과부속별	인원수	
		상등	중하			상등	중하
접수과		4	5	외과	일반외과	10	7
검진과		4	3		정형외과	10	7
치료예방과		7	2		복부외과	10	7
후방과			100이상		외상외과	10	7
구급소생과		6	5		수술 및 마취과	10	7

30) H1증언, (2014.08).

과별	부속별	인원수		과별	과부속별	인원수	
		상등	중하			상등	중하
내과	소화기내과	6	6		성형미용외과	7	5
	간담도내과	4	5	물리치료과		7	5
	호흡기내과	8	6	고려과		5	3
	순환기내과	8	6	노인과		3	2
	콩팥내과	8	6	구강과		10	6
	물질대사	6	5	진료과		7	3
	종양과	11	7	실험검사과		5	4
약국	신약(조,제제)	20	5	기능진단과		6	4
	고려약(조,제)	10		기타과			

병원들의 일반 치료과들에서의 분포도와 같은 맥락으로 약국의 분포도도 기준에 따르느냐 약국 조제실(調劑室)에는 준약제사와 조제사들이 배분되어 근무한다. 이들의 근무형태는 조제사와 약제사는 조제실근무할 수 있으나 제제실(製劑室)에는 조제사의 정주용제제실은 근무불가(不可)이다. 정맥주사용 주사제제는 제제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약과에서도 고려약 조제실에서 조제사와 준약제사가 근무할 수 있어도, 이들이 고려약제제실근무에는 제한된다. 이처럼 약국에서의 약제사와 조제사의 직능도 의사와 준의사, 준의처럼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표<2-1-3>, <2-1-4>참조)

이외에 병원규모에 따라 진료과³¹⁾가 따로 설치되어 운영된다. 진료과는 간부들만 진료하는 북한특유의 진료특권서비스제도 시스템이기도 하다. 북한 보건의료의 대외선전선동에는 은폐된 일종의 당권, 국권을 특권시하는 지표로도 된다.

이 진료과 대상들은 중앙과 도, 군(구역)에 따라 그 계급이 차이하기도 하나 엄밀히 간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평주민은 죽어가도 쓰지 못하는 고가(高價)약들을 이들은 자기도 아니고 자기 먼 친척을 위해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는 특진수혜로 다 같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주의의 본질과 성격에 심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산업지역 병원은 큰 규모의 산업기업소 종업원들에게 의료위생방역사업, 모성유아보호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산업치료의 예방기관이다. 산업병원은 외래와 입원실을 가지고 종업원들에게 전문과 적 진료를 할 뿐 아니라 기업소

31) 진료과는 80년대에 새로 도입되었는바 병원들에서는 일명 간부과로 통용된다.

내에 진료소, 구급소를 설치 운영하며, 탁아소, 직장요양소들을 지도한다.

산업진료소는 적은 규모의 산업기업소들에 설치되며, 기본과(내·외·소아·산과)와 4개정도의 외래과가 가능하며 약간의 입원침대수를 갖춘 수준도 있다. 구급소는 각 공장들에 갖추어지는데 일차적 의료행위(지혈, 응급조치)를 하여 병원에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무상치료제 제도의 보건일군들은 김일성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사회주의 제도의 전초선을 지키는 전위로서의 역할수행을 감당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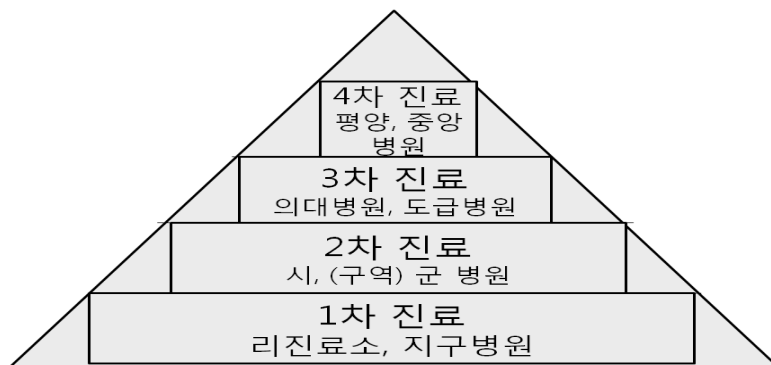
제3장 김정은시기 북한 보건의료와 보건일군 역할의 변화

제1절 북한의 보건의료 행정조직

1. 4차 진료체계

북한의 의료전달시스템은 4차 전달시스템으로 조직화되어있다. 1차 진료기관(주민지대-리, 진료소단위)으로부터 위로 올리 전달되는 중앙기관까지의 호송체계와 진료기관이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아래 <그림 3-1-1> 북한의 4차 진료체계에 아래로부터의 중앙까지의 환자호송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3-1-1> 북한의 下 →上식 4차진료체계

4차 진료체계의 1차 진료기관으로는 주로 리 진료소와 공장, 기업소 구급소 등이며 이들은 2차 진료기관인 리, 읍, 구병원 등을 거쳐 군병원 등으로 호송된다. 2차 진료기관은 3차 진료기관인 도 병원, 의대병원들에 파송된다. 파송된 환자들은 다시 4차 의료기관인 중앙기관(평양 제 1, 2병원, 적십자병원, 임상병원, 김만유병원 등)으로 파송된다.

<그림 3-2-1> 북한의 4차진료체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시스템에 의하여 파송된 환자들은 해당의사의 교환병력서와 의사의뢰서를 지참하여 호송되는데 교환병력서와 의사의뢰서의 파송이유는 ① 확진을위해, ② 보조의료기구의 필요를 위해, ③ 고가약 처방을 위해, ④ 진단서발급을 위해, ⑤ 수술치료를 위해 등 들이다. 상기문항 중 한 개 이상의 문항이 부합되어야 상급의료기관으로의 파송³²⁾이 가능하다.

2. 보건행정조직 및 기구

지방보건조직은 각 도와 직할시의 행정위원회 내에 보건 국이 있고 보건 국아래 각 시,(구역),군 행정위원회들에 보건과로 하부말단까지 행정조직이 꾸려져 있다.

도 및 직할시의 보건행정조직은 5명 정도의 부위원장이 각각 노동, 교육, 보건담당 부위원장 산하에 13개국 중의 하나로 보건 국이 소속되어 있다. 보건국장아래 의료담당 부국장과 약무담당부국장이 있다.

도(직할시) 보건행정기관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정부 및 상급보건행정기관의 지방행정위원회에서 결정, 지시 및 명령된 보건사업을 지방실정에 맞게 체계화시키고 산하보건기관이 이를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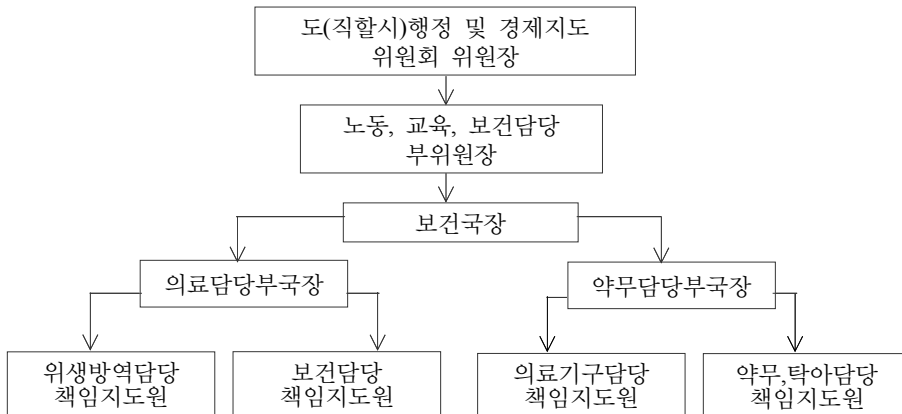
둘째, 시(구역)및 군행정위원회 내 보건과와 직속기관들의 활동을 지도 및 검열한다.

셋째, 도(직할시)위생방역소를 이용하여 위생 및 방역사업을 시행한다.

아래에 변중화 외,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연구: 북한실태를 중심으로>를 기초로 <그림3-1-1>북한의 보건행정조직도³³⁾를 보여주었다.

32) K1증언(2011.09)

33) 변중화 외,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연구: 북한실태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1999), p. 17.



〈그림 3-1-2〉 북한의 보건행정조직도

시(구역),군 행정위원회 보건과는 하부 보건행정조직으로서 구역, 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에 소속되어 산하 보건기관들의 사업들을 지도 통제한다. 군보건과에는 탁아담당지도원도 포함된다.

북한의 보건의료행정기관들로는 중앙과 각 도에 있는 병원들과 의학과학원, 법의감정원, 위생방역소, 수혈소 등이다. 여기서도 병원들이 중앙과 각 도에 있는 의학대학병원들 시(구역), 군 병원들과 인민군 병원, 보위부병원, 안전성병원, 철도 병원들과 특수병원(전염병 예방원) 등이 있다.

북한의 보건행정조직의 기초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의사담당구역제이며, 정무원의 집행조직 가운데 하나인 보건부에 의해서 국가전반적인 지도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도 단위에는 보건국, 군단위에는 보건과가 있어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부는 국가전체의 보건의료에 관한 최고기관으로서 국민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즉 의료봉사, 제약, 위생, 방역 등의 사업을 집행하고 감독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생활 및 노동조건 개선 사업을 지도하며, 보건부문의 예산을 수립·집행하고, 모자 보건사업, 각종 보건 의료자원관리 및 보건일군의 자질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보건조직은 당과 정부의 상급 보건기관 및 지방행정위원회의 보건 사업에 관한 결정·지시·명령을 지방실정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산하 보건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지도 통제기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산하기구와 기관으로서 법의감정원과 의학과학원, 수혈소, 위생방역소와 각 병원 등들이 존재한다.

1) 법의감정원

법의감정원은 치료예방기관들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병원에서나 환자의 사인(死因)에 대한 애매모호함에 대한 부검이나 다른 판정수단을 통하여 정확판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법의의사들이 상주한다. 법의의사는 주로 의학대학의 병태생리 해부생리 전공의사가 될 수 있다. 이는 진단에 의한 사인이 빚나갔을 경우 그 병리해부학적 감정을 통해 재판관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보장자, 일시적 로동능력 상실자 판정에도 법의감정원의사의 적격자 판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의감정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1조에 “법의감정원은 사망의 원인을 탐구·분석함으로써 치료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기관 또는 개인의 요구에 의한 법의 감정을 실시함으로써 치료사업과 의사인력 개개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기관 또는 개인의 요구에 의한 법의 감정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밝혀져 있다.

사인규명의 범위에는 치료기관에서의 확진 전에 사망한 자, 입원 24시간 내에 사망한 자, 대부분이 법의감정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병원에서 사망발생시 그 원인이 의료사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치료불능인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법의 감정원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한 내에서 치료기관의 사망자에 대한 병리해부를 실시한다. 둘째, 원인 불명의 사망자, 피해자, 자체가해자 및 정신병자 등에 대한 법의 감정을 실시한다. 셋째, 보건일군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행정사건에 대한 법의감정을 실시한다. 넷째, 치료기관에서 병리해부에 의거한 사인탐구, 검토회의 조직 및 그의 지도검열을 진행한다. 다섯째, 각종 외상, 로동 능력상실, 불법유산, 치료 상의 미실행위, 치료 상의 과오 등에 관한 법의감정재료의 연구 및 그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여섯째, 법의감정에 관한 학술적 연구로 규정되어 있다.

의학적 행위의 남용, 자격없는 사람이 행한 의료행위 또는 의학적 실수에 의한 판례는 뒤에 일어날 의학적 분쟁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의학적 관례를 실행할 경찰업무가 필요하다. 재판소의 부속기관으로 모든 의학적 업무를 실행할 행정부서가 필요했다...의학적 지식안 뿐아니라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지식을 건져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의료행위에 지침을 하달해야만 했다.³⁴⁾의 지적과 같이 의료행위의 법적감시와 법적 판결 등의 필요

34) Matiheu Geraud, loc. Cit. p.65.

성이 이미 오래전에 언급되었다.

법의감정원은 원장 및 법의감정의가 있는데 법의감정의는 의사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중앙 및 도 법의감정원의 화학기술자는 약제사 또는 분석화학을 전공자여도 되며 조수는 중등보건일군 자격을 소지한 자여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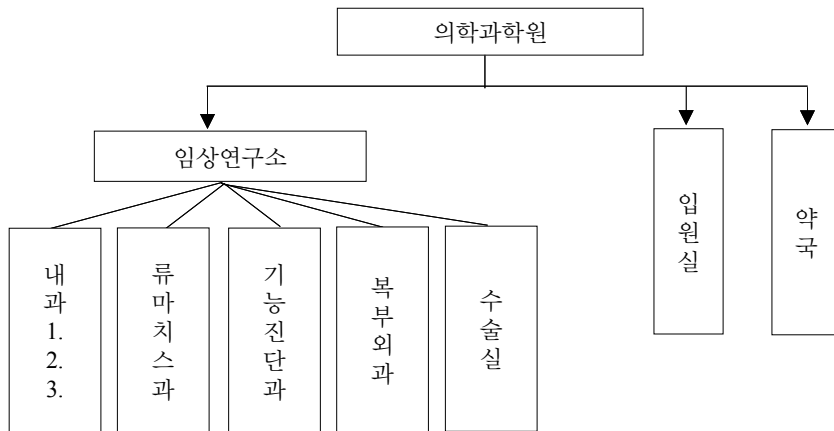
중앙법의감정원장은 해당 도 인민위원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법의감정원의 시설로는 시험실, 해부실, 심문실이 있고 시, 구역, 군의 경우는 해부실까지만 있어도 된다.

법의감정원의 부서들로는 노동능력 감정과와 검열과(병원검열-주로 진단서)와 부검과 등이 있다. 부검과에는 임상 의사와 법의사가 상주한다.

중앙법의감정원아래 산하기구로 도 법의감정원이 있고 시(구역)군 법의감정원이 있다. 군 단위 법의감정원은 군 규모에 따라 비상설기구로 의사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2) 의학과학원

북한에 의학과학원은 11개의 각 도에 연구소 형태로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앙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내분비연구소, 의학생물학 연구소, 의학과학통보연구소, 약학연구소, 위생연구소, 소화영양연구소 고려의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3〉 의학과학원 행정도

〈그림 3-1-3〉 의학과학원 행정도는 함경북도에 있는 청진 도의학과학원의 행정도³⁵⁾를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임상 연구소 안에 내과 1(위궤양전문)과, 2(대장염전문)과, 3(궤장염전문)과 까지 있고, 류마치스내과와 기능 진단과, 복부외과와 수술

장, 약국으로서 주로 내과 외과연구가 전문이다. 이 밖에 고려의학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함경남도 의학과학원은 골(骨)전문으로 그 부속 교정기구공장까지 구비되어 있다. 북한의 전 지역에서 수족(手足)관련 교정기구환자들에게 유일한 교정기구 착용이 기관이다.

1994년 4월 ‘전국 자연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북한의 자연과학의 모든 ‘과학원’을 국가과학원으로 통합할 것을 결정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의학과학원은 의학과학연구원으로 개칭되면서 국가과학원에 편입되었다. 이에 의해 1994년 5월 기존의 ‘고려의학과학원’이 ‘고려의학종합병원’으로 되었고, 보건성 산하 병원으로 하향시켰다.

3) 수혈소

남한의 어느 책에서 북한에는 매혈은 아닐거야, 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다. 인지하는 바와 같이 매혈은 아닐 것이라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매혈과 다름없다.

중앙과 각 도에 수혈소가 있는데 군급 아랫단위의 수혈소는 존재하지 않고 도급 수혈소가 고작이다. 따라서 매개 도(道)에 1개씩 존재한다.

여기에는 해마다 상급기간으로부터 혈액 확보량과 보유량을 보장하라고 독촉된다. 그러면 길거리 선전이나 기관 단위선동을 통해 자원성에 의해 채혈작업을 통하여 자급량을 보장한다.

헌혈(憲血)인 것이 아니라 매혈(賣血)이나 다름없다. 국가에서 수혈하고 나면 국정가격의 혈액량에 의한 값이 개인에게 지급되는데, 2002년 7.1 경제조치 전 가격으로 피(血) 100그램 당 100원이었다.

북한에서 수혈은 매혈이나 다름없다. 나는 보건일군으로 혈형이 O형이고보니 병원에 중환자만 생겼다 하면 나를 바라보았다. 하여 응급실의 환자들은 거의나 내피를 , 아니 우리지역의 최종중환자들은 거의 다 수혈받은셈이다. 처음에는 되게 걱정 많이 되었는데 오히려 미공급시기에는 수혈이 꽤 째째한 수입이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혈액값이 정액(100g당 한 달월급액수)으로 수급되고 개인들에게서는 고맙다고 거의 고가로 야매가격의 댓가를 지불받았으니 때론 돼지다리 한 견지 또는 기름 한병 쌀 한말 등 개인의 여유도에 따라 그 댓가는 한계가 없었기 때문이다(L1 증언, 2014.08).

35) C2증언(2011.06)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도시에 처녀들은 수혈소에 찾아가 피를 뽑고 그 비용을 받아 유행하는 패션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원되는 유엔약품 항목인 화장품도 금전적으로 계산되어 피 200g을 채혈해야만 화장품세트 1세트가 해당되므로 대부분 200g을 요구한다는 전언도 있다.

최근에는 수혈하면 기존의 가격으로 환산해주던 국정가격대신에 UN물품으로 대체해주고 보니 도시의 처녀들은 UN용 한국 화장품세트 구입을 위해 수혈하는 경우가 많죠. 그 한 세트를 공급받자면 혈액 200g이 한 세트라고 200g을 수혈하더라도요, (해산거주주민증언, 2014.09)

이와같이 북한의 수혈소는 일단유사시의 비축물자 혈액보유량을 위해서도, 응급시기의 혈액을 위해서도 도급 단위들에서 보관 관리하는 수혈소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수혈과, 채혈과, 실험실, 건조 혈장과와 검진과 후방부 등 부서가 있다. 또한 수혈소에서는 텍스트란생산과 다른 혈액관련 약품들도 생산된다.

4) 위생방역소

북한은 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1854.5.4) 『위생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에서 위생방역사업부문의 당면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래 1956. 8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위의 결정을 채택·하달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방역기관으로서 중앙위생방역소에서 道市(구역)郡위생방역소에 이르기까지 조직체계를 세웠다.

북한의 위생방역사업은 그 실시를 위하여 위생방역소 대외검역기관 및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위생방역기관의 업무로는 위생계몽 교양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위생시설을 신설개조하여 관리 운영하여 급성전염병과 기생충의 예방 및 유해곤충과 동물을 박멸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예방접종사업과 방역사업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특히 최근 년간 세계적 범위에서 콜레라가 유행되고 남조선의 넓은 지역에 이것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위생방역진을 펴고 위생방역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콜레라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냈다...특히 3~4월 9~10월 위생월간에 공장, 기업소, 농촌의 로동위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³⁶⁾

36) 『조선중앙연감』,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1971), p. 281.

언급은 북한이 위생방역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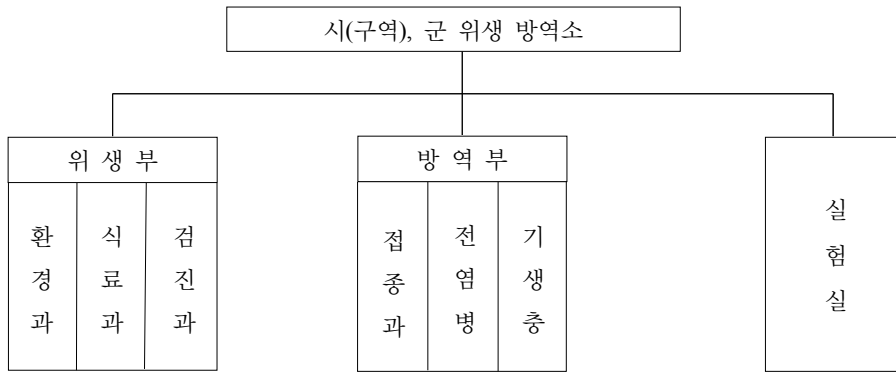
위생방역소에서는 또한 대기 토양, 수원의 오염 및 실태들을 기업소, 기관단체, 개인의 위생에 관한 국가결정, 정령, 규정준수에 대한 검열 및 전염성, 직업성질환, 식중독 및 기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실시에 대한 위생검열을 실시한다.

위생방역소의 구체적인 과업은 다음과 같다.

- 해방지구 대상기관의 위생상태에 대한 체계적 위생학적 연구조사사업과 대상 지역기관, 기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한다.
- 해당지구 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무 환경조건에 관한 연구를 한다.
- 직업성질환, 직업성중독의 발생원인에 대한 해명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주민지구 계획과 생산기업소 및 공공문화기관의 설계, 건설 및 준공, 조업개시 등의 경우에 예방위생검열사업을 진행한다.
- 신제품의 생산판매 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연료, 반제품을 생산에 도입할 시 위생검열사업을 실시한다.
- 생산기업소공공기관협동단체, 개인의 위생규정준수에 대한 검열사업을 진행한다.
- 식료품의 생산, 공급, 판매, 보관에 대한 위생검열과 식중독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전염병과 기생충병 등을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한 방역사업을 추진한다.
- 대의 검역사업을 추진한다.
- 위생선전계몽 교양사업과 위생일군 양성에 대한 방법을 지도한다.
- 위생방역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보건일군의 자질향상 대책을 강구한다.
- 위생방역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서의 수립과 이의집행을 주관한다.
- 위생방역사업에서 이룩한 경험의 일반화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위생방역소의 하층 말단조직은 군 위생방역소인데 이는 군안의 위생환경상태를 책임지고 관리 통제한다. 도소재지와 시, 군소재지들의 위생방역소에는 주로 의학 대학 위생학부 졸업생들이 배치된다.

아래 <그림 3-1-4> 위생방역소 조직구성도를 통해 위생방역소(군급)의 구성부서 들을 탈북의료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3-1-4〉 위생방역소 조직구성도

〈그림 3-1-4〉 위생방역소 조직 구성도는 함경북도 위생방역소의 조직구조를 반영한다. 도 위생방역소의 규모는 일반 군(郡)위생방역소 규모에 생산실과 경리과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군위생방역소의 구성과들로는 위생과, 방역과, 식료과, 접종과, 기생충과와 실험실이 있다. 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과 산업위생 등을 관할하며 방역과에서는 전염병 역학사업 등을 담당하는데 1990년대 들어와 급증한 전염병으로 하여 제일 부하(負荷)가 많이 걸리는 과³⁷⁾이기도 하다.

식료과는 주로 식료업소들에 종업원 입직을 위해서는 위생방역소의 위생검열 합격증이 있는 자 만이 식료업종 종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업소들의 음식과 위생, 영양상태에 대한 검열통제를 주관하며 접종과에서는 주로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지역 내 현황들을 통제 관리하기도 한다.

전염병과에서는 주로 전염병역학들을 담당하는데 스시로 유발되는 전염병들에 대한 비상역학시스템 등을 관할한다. 1990년대 후반기에 북한 전역에 쓰나미로 퍼졌던 콜레라를 비롯한 각종 티푸스 등의 전염병 확산 시에 위생방역소의 ‘위생통과증’을 발급받은 자들만이 여행할 수 있어 그 권한이 대단했죠. 90년대 중반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사태 시 여행증 세도보다 위생통과증 세도가 더 거셌지요(C1증언, 2014.08)

37) 전염병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방역과는 매 개인들의 역학증명서를 발급하여주고 크고 작은 역학조사와 관리를 전담하는 과로서 많은 역할담당과이기도 하였다.

다음 접종과는 군(郡)안의 예방접종을 총괄한다. 출생 후 신생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범 포괄적인 예방접종들을 지휘·통제·감독한다. 예방접종은 상급의료기관으로부터 하부 말단 의료기관(군 위생방역소는 산하 병원과 리 진료소, 탁아유치원과 학교들, 공장기업소)까지 예방약(와썹)들의 배정공급과 소요상황들을 요해하고 그 접종정형들을 장악·통제한다. 전염병환자들의 과다출현도 위생방역소 접종과의 연대적 책임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위생방역소는 사회와 주민의 보건사업의 구성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예방의학’ 방침수행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

다음 보건행정기관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지방 아랫단위까지 세부화 된 병원기관과 조직들이다.

각 병원들에서 보건성의 지도하에 보건사업을 진행하는바 중앙병원들은 보건성에, 도급병원들은 도 보건국(道 인민위원회 보건국)에, 시, 군급 병원들은 군 보건과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므로 이들은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 집행되고 아래서 위로 올리 취합되는 중앙집권적 규율이 지배한다.

5) 각 병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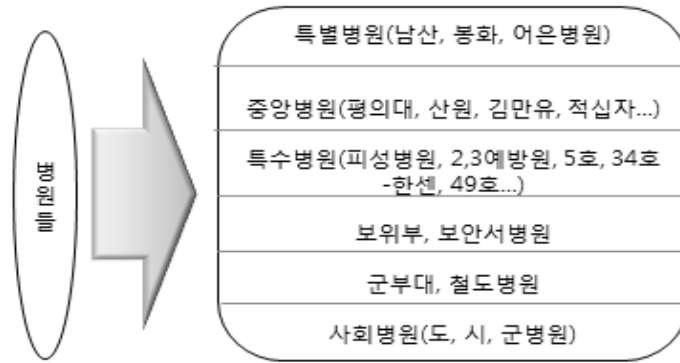
북한의 병원은 크게 내각 산하병원과 군부병원, 인민보안성병원 국가보위부병원, 철도성병원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먼저 김부자 특권들만의 특진위주 특별병원들이 존재하는데 남산병원, 봉화진료소, 어은병원 등들이다.

다음으로 중앙병원으로 평양 제 1,2병원, 임상병원, 적십자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등이다.

다음으로 북한특유의 권력위주를 반영한 국가보위부병원, 군부대병원, 철도병원 국가보안부병원들과 일반 사회병원들이 존재한다. 일반사회병원으로는 각 도의 도 의대병원과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병원들의 분류를 아래의 <그림 3-1-5>에서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특수병원들이다. 특수병원은 주로 전염병을 취급하는데, 간염, 결핵들을 취급하는 2:3예방원, 정신병환자들의 49호 예방원, 그리고 한센병과 피부성병원의 특수과 병류의 특수병원이 존재한다.

아래의 <그림 3-1-5>에서 북한의 병원들은 북한의 중앙에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는 사회병원과 군부병원, 일반병원들의 유형들을 탈북자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여 구분하여 작성하여 보았다.



〈그림 3-1-5〉 북한의 병원들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온 나라에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조밀하게 배치되고 의료일군들의 대부대가 꾸려졌다. 우리나라는 의사수와 병원침대 수, 의료봉사수준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의 대열에 들어섰다...무엇보다 도마다 의학대학병원, 군마다 군 인민병원, 리, 동마다 진료소 또는 병원이 있지만 이해에 새로 건설된 공장, 기업소마다에도 산업병원과 진료소...이밖에 큰 규모의 전문병원들과 종합병원들도 꾸렸다. 큰 병원들을 종합병원으로 꾸리고 리 진료소들을 병원 화하여 산원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공업지구 인민들과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이해에 더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³⁸⁾

북한에서의 존재하는 중앙병원으로부터 시, 군, 구역병원에 이르는 하부병원들과 군부대병원들과 보위부, 보안서병원들의 특별병원과 특수병원들인 전염병원들까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특별병원(봉화병원, 남산병원, 어은병원)

국가요직간부들을 위한 병원이다. 중앙당 직속병원으로 형식적으로 보건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봉화병원, 남산병원, 어은병원이 있다.

봉화병원은 처음 봉화진료소이다가 봉화병원으로 승격됐다고 한다. 북한에서 최고위급들의 해당 병원이며 그 위치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이다. 진료대상은 김일성 주치 팀, 내각부장, 위원장 급, 중앙당 부장급에서 비서 급까지 정치위원 급, 김일성 측근(비서실, 서기실, 등)이다. 진료과목은 최신시설비들로 갖추어져있고 최고가

38) 『조선중앙연감』, (평양: 의학과학출판사,1979), p.314.

의약품들의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한 북한 보건의료의 최고급 특진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고위탈북자 고영환은 이렇게 진술했다.

정무원 부장(장관)과 당중앙위원회 부장들의 직계가족을 치료하는 병원이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위치한 봉화진료소이다. 봉화진료소는 일반과와 특별과로 나뉘어진다. 부장급은 일반과이고 당, 정치국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정무원 부총리이상은 특별과 대상이다. 또 이 병원에는 <1호 병동>이 따로 있는데 그곳은 김 부자와 그의 친척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다. 봉화 진료소는 호위총국에서 나와 24시간 경비를 서는데 치료대상자는 발급받은 진료카드를 병원 정문 통과 시 경비병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 등급의 병원이 평양시 보통강구역 문수동 평양산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남산진료소이다. 정무원 부부장(차관)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인민군 중장, 해외파견 대사급의 직계가족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평양주재 외교관들도 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물론 이 병원에서 진료카드를 제시해야 한다.(중략)그 다음 등급의 병원으로 김만유 병원과 평양 제1병원 등이 있다. 이 병원에도 진료과가 따로 있는데 당중앙위원회 성원들과 각 위원회 차장, 과장 등의 가족들이 치료받을 수 있고 상좌이상 대좌들을 치료하는 간부 진료소도 있다. 그리고 일반노동자와 농민들은 대체로 공장 진료소나 리 및 동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총 10등급이상으로 분류하는 이것이 북한사회의 계급상이다.³⁹⁾

대표적인 특별병원인 남산병원은 ‘정부병원’이라고 하며 위치는 평양시 대동강구역이고 진료대상은 내각 부부장급, 중앙당 과장 이상부터 중앙당 부부장급 중앙당 요원(평양의학대학병원 2진료과⁴⁰⁾ 대상 이상 특수대상)까지이다.

어은병원은 군부대의 최요직 장령들이 진료받는 병원이며, 위치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고 진료대상은 사단장급이상이다. 진료과목은 군부의 최고위급들이니 ‘선군정치’이후 더더욱 그 권한과 위상이 승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중앙병원

중앙급병원은 모두 22개정도이며 내각 산하 병원은 17개이다. 여기서 3개 특수 병원은 형식적으로만 보건국에서 관리하지만 중앙당 직속병원으로 되어있다. 또

39) 고영환, 『평양25시』, (서울: 고려원, 1992), pp.81-82.

40) 진료과시스템은 1980년대에 새롭게 생겼는데 이는 보건의료법률화되어 있어 북한에서 간부들만의 특진을 정당화하는 법률로서 하위병원들인 시,군병원들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병원들에서의 고가약들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한 이하 산하병원이 6개 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평양산원, 적십자병원, 구강병예방원, 김만유병원, 평양 제 1, 2병원 등이 있다.

여기서 평양산원은 전국의 여성들의 어머니 병원이라 형식상 일컫는데 실제적으로는 모성특별병원이나 다름없다. 6만 평방미터의 건평에 355명의 의사와 400여명의 간호원이 근무하는 병원⁴¹⁾규모이다. 간부급의 여성들의 전용병원이며 일반적으로는 김정일의 특별배려를 강조할 때에 많이 활용된다. 예하면 다(多)태자의 진(議診) 임신부를 비롯한 특별케이스환자들에 대한 최고의 배려가 확산되는 곳으로 체제선전용으로 전시(展示)성에 무게가 실린다.

多胎子の진자임이 상부에 보고(심중을 기함)되면 중앙까지 보고되어 헬리콥터가 출동해요. 평양산원까지 급송된 환자는 그때부터 귀빈대접을 받는거죠. 저의 군에서도 90년대 초에 그렇게 직송되어 근 1년 만에 4쌍둥이를 출산하고 왔는데요... 그 전에 군당의 조치로 새 집을 지어주고 보금자리가 마련된 후에야 산모의 퇴원이 용이하죠...후에도 지속적인 특혜와 관리가 되었어요(K1증언,2014.09).

상기의 증언처럼 북한에서 다태자 의진자에 한하여서는 체제선전용으로 막대한 자금투자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이런 역할수행의 평양산원은 김정일시대에 북한 여성들에게 지대한 역할을 놀았다.

또한 중앙에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임상병원, 고려종합병원, 건설자병원, 운수부 중앙병원, 방직병원 등도 있으며 평양산원, 형가리병원, 등의 보건부 직속 중앙병원들이 있다.

다음 평양의학대학병원은 4차병원으로서 하부말단의 리, 진료소로부터 시(구역),군병원과 도 병원(1, 2, 3차 진료)을 거쳐 확진, 불치 등을 해결 못하였을 때 4차 진료기관까지 이송된다. 4차 의료기관은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비교의료제도론』에 따르면 약 2600명 정도라고 한다. 주로 불치, 희귀병, 난치병환자들이 집결되기도 한다. 때문에 이 기관 연구진들의 연구대상들이 결집된다.

내가 살던 지역에는 눈이 크고 머리도 큰 올챙이형제가 3명이나 되는 집안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들은 소아시기에는 인근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성장해오다가 20세의 성장기가 되어 어느날 평양 의대병원에 실험용으로 수술 다녀왔는데 완치 못하고 그들 부모에 의하면 뇌물만 가득 쓰고 고생만하고 아무런 차도 없이 퇴원하

41) 정동규, 『분단을 뛰어넘어』, p. 102.

였다는거예요(K1 증언).

다음 김만유병원은 1980년대 중반, 일본상공인 김만유가 선물한 병원으로 연건평 10만 평방미터에 1300여 병상, 신경내과, 뇌신경외과 등의 30여개의 전문과를 갖춘 병원으로 평양산원 신설 후에 가장 최근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지어진 병원으로 비교적 최신식설비와 장비들이 구비된 병원이며 역시 간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병원 중의 하나이다.

평양 구강병원 역시 1980년대 이후에 신설된 병원으로 평양시내와 전국의 치과 대상 환자들의 질병들을 전담하는 병원이다.

이 밖에 적십자, 1·2병원 들은 오랜 임상경험과 연구업적들을 가진 원로의 전문가들이 자리잡은 보건의료활동의 거점이기도 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3) 특수병원(전염병원)

북한의 특수병원으로는 2·3예방원, 5호병원(전염), 피성병원, 34호(한센)병원, 49호병원 등 전염병원들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숫자상기호의 암칭들은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요소라는 의미에서 상부로부터 공문지시되어 정착되어온 시스템이다.

대표적으로는 2·3예방원이다. 이는 간염, 결핵병명을 암칭하는바 이런 예방원은 지방의 하부말단인 구역, 군단위에서부터 2·3병동들이 관리운영된다.

이런 병동들은 전염력을 의식하여 주민밀집지역과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바 3예방 병동들은 몇 정보의 토지까지 포함하여 급, 만성환자들의 노동요법까지 대동하는 곳으로서 만성환자들은 일생을(가족과 떨어져) 보내기도 하여진다.

또한 5호 병원은 90년대 후반기로부터 급증한 콜레라, 파라티푸스 등의 수인성(水因性)급성전염병환자들의 격리치료를 위해 생긴 병원이다.

다음으로 34호병원이다. 34호는 한센병(Hansen's disease)을 의미하는바 이미 60년대부터 확산되어 함경남도 정평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이다.

또한 예방원으로 49호예방원이 있는데 정신병질환자들을 49호로 규정하였으며 그 병원을 49호예방원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대체로 유병률은 인구 1/1000으로 0.001%로 집계되고 있다.

정신질환병원은 각도마다 1개씩 있고 매 군(郡)의 지구별로도 존재한다. 49호병원에서 환자들은 10년이상 수용된다. 북한의 정신질환환자는 2만 2천명⁴²⁾으로,

42)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용』, (아주남북한의료연구소, 2001.8), p.37.

이 지표는 위의 유병률 0.001%라는 보건부문의 통계숫자⁴³⁾와도 맞먹는다.

이 병원 역시 말단 군단위부터 주민결집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둔 지역에 음침(陰沈)한 곳에 위치하여 음성적으로 관리된다.

특수병원들의 시스템으로 각 병원들에도 전염병과들은 특수과 형태로 존재한다.

(4) 군부대 병원

북한의 군(軍)부를 위해 존재하며 군 의무지원체계는 민간의료서비스체계와는 달리 전투력 보존과 손실의 최소화와 기동성을 중시하여 의무지원의 근접성 원칙이 강조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자관리를 위한 환자후송체계가 중시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그 국가의 기본체계와 무관하다.

군의무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강조된다.

첫째, 일차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회주의 의료가 전반적으로 일차 진료를 중시하나 군의무지원상 서비스제공의 근접성원칙이 그리고 전투력 보전이 중시되므로 일차 진료의 확충이 효과적인 의무지원체계의 필수조건이 된다.

둘째, 의무지원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최초 환자발생으로부터 진료종료까지 각급제대에서 기능에 알맞은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면서 적절한 후송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의무지원의 연속성 보장은 무절제하고 불필요한 환자후송을 감소시킴으로서 고가의 시설과 장비가 그것을 보다 필요로 하는 장병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셋째, 신속한 의무지원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와 복무의욕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환자후송은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 또한 저하시킨다. 따라서 각급 제대의 임무와 기능에 부합되는 의료지원을 행함으로써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북한은 인민군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5대 방침으로 간고한 혁명정신,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수, 강철같은 규율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투력강화를 위한 5대방침은 예상되는 전면전쟁, 국지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편제상 통합군체계를 유지하여 총참모장 예하에 후방총국과 각종 전투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후방총국은 군의 전투병과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곳으로서 여기에는 군의국이 있으며 기타 조직으로 건설국, 도로관리국, 연료관리국, 차량관리국, 수송국 등이 있다.

군의국은 육해공 3군에 대한 통합의무지원을 수행하는 중앙병원과 후방병원의

43) 병원들에서의 월별, 분기별 통계숫자에 의한 유추숫자- 연구자 주.

운영 외에는 군진의학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기획기능만을 담당하며, 실제 집행기능은 각 전투사령부 및 군단의 의무부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투력에 대한 직접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군단의 야전병원, 사단의 사단 군의소, 연대의 연대군의소 및 대대의 대대위생소에서 이루어지며, 중대에는 위생지도원이 있어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해군과 공군은 평양특별시에 각기 해군 중앙병원과 공군중앙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복무시기 위생병출신인 장○○의 증언을 아래에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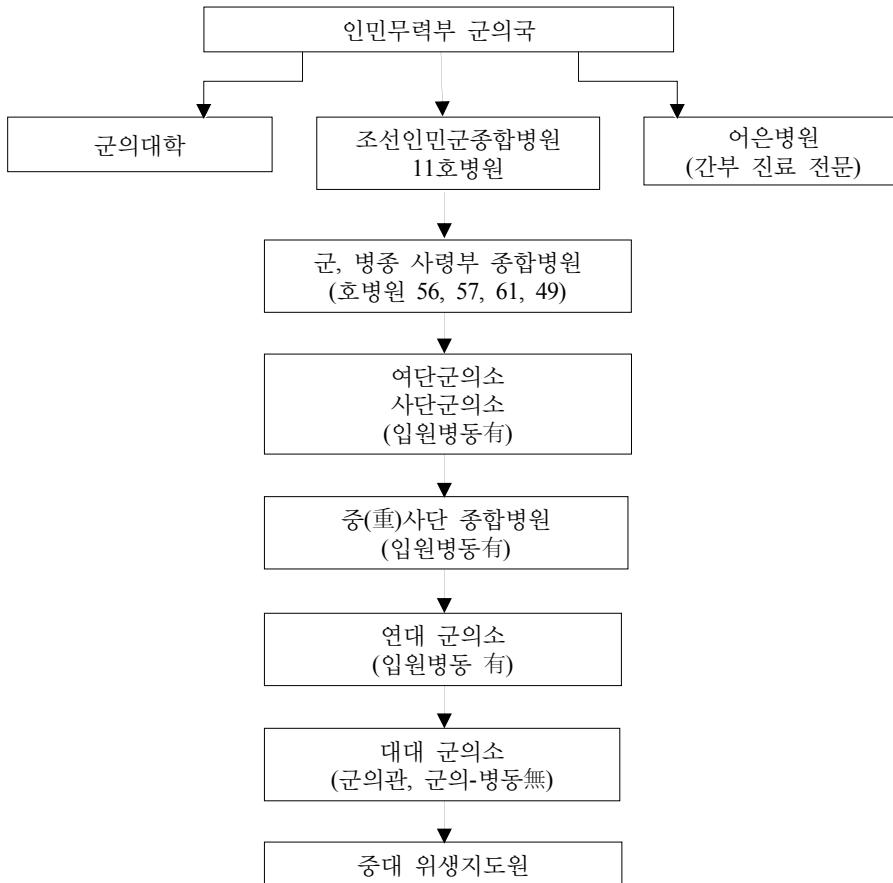
대대위생소는 5~10명의 환자를 수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대 및 사단 군의소에서의 치료를 위한 예비치료를 제공한다. 대대위생소에서의 수용기간은 7일로 한정되었으며 이 기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상급부대로 후송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대군의소는 25~30명의 환자를 수용하며 간단한 중기수술이나 응급의학치료를 제공하며 연대군의소의 수용기간은 15일이다.

사단 군의소는 X-RAY촬영장비도 갖추고 맹장수술 및 소규모 수술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용능력 및 수용기간은 300여명과 30일정도이다. 각 의무부대의 기능을 살펴볼 때 사단 군의소는 비록 정원의 명칭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동의 과병원수준의 기능을 수행한다.

1개 군단은 각기 700명 이상의 수용능력을 지니는 2개의 야전병원에 의해 지원받고 있으며(총 9개 군단이므로 18개? 야전병원) 이들 각 병원은 장기입원을 요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은 평안북도에 위치한 인민군 중앙병원이나 4개의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어 전문치료를 제공받는데 이들 각 병원의 수용능력은 1000병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각급 부대에서 상급시설에서 이송에는 주로 위생차량 및 열차가 이용되나 연대 급 이하에서는 민간차량도 광범하게 이용되는 등 민·군 합동체계가 편성되어 있다.⁴⁴⁾

아래에 <그림 2-11> 북한 군 의무체계를 북한군위생병군무경험의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44) 장○○ 군위생병출신(탈북 2010.10.)



〈그림 3-1-6〉 북한 군 의무체계

북한군 의무지원체계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⁵⁾

첫째, 북한 군 의무지원체계는 사단 군의소에 간단한 수술능력을 갖추고, 남한의 군 의무지원체계에 비해 의무지원의 근접성 원칙과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군의 전투력 보전을 위한 조치라 보여진다.

둘째, 환자의 질병 특성에 알맞은 의료시설로의 인입을 강조함으로써 합리적인 후송체계를 중시하고, 의무지원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군 의무지원체계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셋째, 북한 의료체계가 고려의학과 신(양)의학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은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도 및 군 단위까지 모든

45)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용』, (아주남북한의료연구소, 2001.8), p.48.

병원 및 진료소에 고려의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학부 학생들도 재학기간 중 고려 의학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학에 대한 중시는 군진 의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군대에서 다발하는 질환이 염좌, 탈구, 골절 등의 정형외과 질환임을 감안할 때, 침 등의 고려의학 기술이 널리 이용되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인민부력부 산하에서 11호 병원, 군의대학병원, 어은병원, 수도방어사령부병원이 있다. 제 11호병원은 군인들을 위한 종합병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5)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병원

국가보위부병원은 남한의 국가정보원급이다. 국가보위부병원 역시 도급까지 병원이 존재하며 사회병원과 구별되는 것은 의료진의 기술과 실무보다도 북한특유의 특권층들인 까닭에 고급시설과 고가의약품들의 풍요인 것이 차이점이다.

다음 보안성병원은 남한의 경찰청병원에 해당한다. 1960년대 말에 처음 ‘내무성’에서 ‘사회안정성’(사회안전부)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대 들어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보안성병원으로 개명되었다. 매개 도에는 보안국병원이 도 소재지와 중앙에 보안부병원이 존재하는데 중앙병원은 평양시 서성구역 련못동에 위치하고 있다. 병상은 1000병상 된다는 전언⁴⁶⁾이다. 도와 중앙병원규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안부병원장의 군사계급은 중장(two star)이다.

매개 도에는 보안국병원이 도 소재지에, 중앙에 보안부병원이 존재하는데 평양시 서성구역 련못동에 위치하여 병상은 1000여병상이 되요. 도와 중앙의 사회병원규모와 유사하죠, 병원장은 군사계급 중장(two star)이며 그 아래에 도 8개의 보안국병원이 있는데 民처럼 상급파송시스템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곽○○증언-해주시 보안원 출신, 2014.09.)

북한에서 군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시 되는 부서가 바로 철도부문에다. 하기에 이들은 모든 공급과 관리에서도 군대와 유사한 대우와 관리가 상응한다. 역시 병원도철도성병원이 존재한다.

46) 탈북자증언-재북시 보안부병원입원 경력.

(6) 철도성병원

평양에 철도성병원이 있고 매 도마다 철도국병원이 있다.

철도국아래 분국으로 관리국이 있는데 관리국은 도에 지구별로 무어진 민(民)의 군(軍)보다는 큰 규모이며, 그 아래 지구병원들이 있다. 20병상규모이고 민의 종합 진료소 규모로 꾸려진(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 과들이 모두 있음) 병원이 존재한다.

철도병원은 북한이 철도를 군대와 같은 규률로 장악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민과 구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도를 의료에서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철도에 종사하는 로동자, 사무원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철도가족으로 구별되어 무임승차와 철도성 산하의 모든 수혜가 공급된다. 그러나 보위, 보안부계열의 특별권보다는 급이 조금 미약한 상이점이 있다.

(7) 일반 사회병원

가) 도(都)의학대학 병원, 특수병원

도 의학대학병원은 각 도마다 위치하여 평양시와 개성 시, 각도에 11개의 의대병원을 갖추고 있다. 의대병원들에는 11개의 과로 내과-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알레르기, 등의 과들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피부, 이비인후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강과는 보철, 의치 등으로 구분 진료하며 약무부원장과 경리부원장이 있다

평양의학대학(平壤醫學大學, Pyongyang Medical College), 함흥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원산의학대학, 헤산의학대학, 강계의학대학, 평성의학대학, 사리원의학대학, 등의 11개의학대학병원 등이 있다. 의학대학은 임상강좌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치료활동과 학술연구사업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병원의 설립여부는 보건성에 의해 결정되고 보건성예산으로 운영된다. 병원의 내부규정은 대학병원장이 제정하고 교수 및 학술연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의학대학장과 대학병원장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협조체계이며 각 과장, 기타의사는 병원장아래 통솔된다.

청진의학대학의 병원현황⁴⁷⁾을 보면:

가) 침상 수 : 1,200개인데 겨울철(11월에서4월)에는 800개로 가동한다고 한다.

나) 병원현황: 원장 1명, 부원장 5명(내과기술부원장, 외과기술부원장, 동의과기술부원장, 약무기술부원장, 경리부원장)

47) 승창호, 『북한보건의료연구』, (평양: 청년세대, 1989), p. 162.

다) 총 인력: 800명(의사 약250명, 기타 5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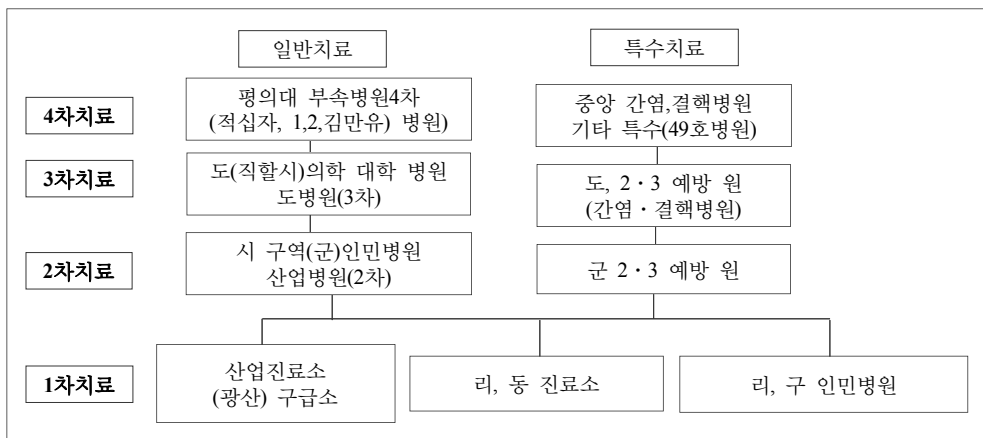
라) 진료과목

- o 내과 기술부원장 밑에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비뇨기내과, 신경내과, 내분비내과, 알레르기과, 소아과, 일반내과, 간부과(1과, 2과), 치료예방과, 실험과(1과, 2과),동위원소과, 방사선과, 접수과, 외국인과가 있다.
- o 외과부원장 밑에 정형외과, 외상, 사지, 복부, 흉부, 비뇨기, 신경외과, 소생과, 마취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과, 부인과, 수혈과, 병리해부과, 구강과가 있다.
- o 약무기술부원장 밑에 약국조제과와 동의조제과, 약품공급생산과가 있다.

마) 경리부원장 밑에는 경리과 관리과, 재정부기과, 차량과, 공급과, 약1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바) 준의사가 약 100명정도 배치되어 간호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의사는 20~30명 정도 배치되어있고, 구강의사는 약 20명, 간호원은 각과에 약 3~4명, 영양사는 위생학부 졸업생 1명정도, 행정요원은 약 100명이 근무한다.

사) 청진의대병원 각과별 하루 평균 의뢰환자 진료수는 약 30~50명 정도이며 접수과에서 의사에 의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동의진료가 필요할시 소견소를 붙여 동의사에게 의뢰하면 협의진단 후 치료가 시작된다.



〈그림 3-1-7〉 북한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도

도(직할시)의대병원은 하급단위의 환자들의 최고진료기관으로서 주로 희귀병,

난치병, 악성질환, 진단미상 등의 환자들이 올라와 연구대상과 유능의료진의 특수 진료를 위한 목적에 이바지된다.

<그림 3-1-7>에서와 같이 북한은 남한과 달리 치료전달시스템이 상급전달식으로 되어있어 하부말단 1차 치료기관인 리, 종합진료소로부터 군병원을 거쳐, 도병원으로, 도병원에서 파송장을 떼 가지고 4차 치료기관인 중앙병원으로 이송되게 되는 밑으로부터의 환자후송시스템이 정연하게 규정화 되어있다.

북한의 병원의 행정관리 단위별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보건부 직속 중앙병원
- ② 특별시, 각 도의 의대병원(각 도내 도 인민병원)
- ③ 시,(구역) 군에 인민병원 1개씩(시에는 규모에 따라 1개 이상-보건일군 50명 정도)
- ④ 주요공장 및 3급이상 기업소에 병원 1개(보건일군 10명이상)
- ⑤ 기타 로동자 구에 인민병원, 지구병원 또는 종합진료소(보건일군 20명)
- ⑥ 3급이나 기업소에 진료소, 구급소 1개
- ⑦ 탄광, 광산, 갯에 구급소 1개(준의,간호원 상주)
- ⑧ 각 도에 예방원(2호, 3호, 49호 등)
- ⑨ 각 타아소, 유치원, 학교에 준의사, 준의 (중등일군이상)파견(상근, 비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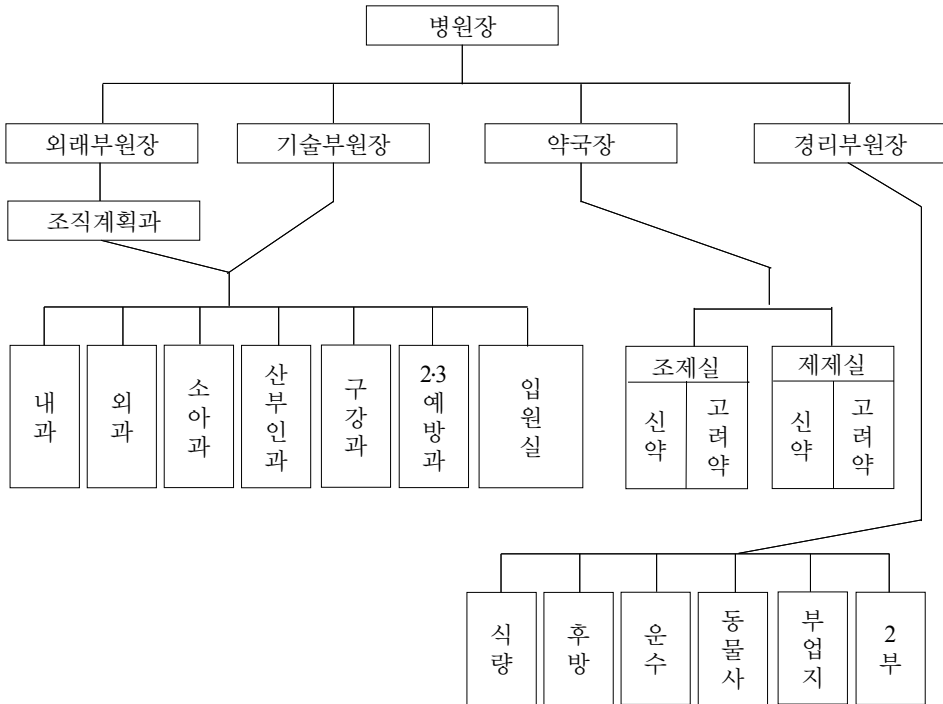
ㄴ) 일반병원(시(구역), 군 인민병원)

임상의학은 지식이 대상자체를 새롭게 구성해 진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를 다시한번 정립하고, 나아가 기존의 의학체계에서 훈련받은 의사들에게는 새로운 의학적 시각을 제공하며, 새롭게 수업을 받고 있는 후보생들에게는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를 좀 더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다...즉 실제적인 의료기술과 환자를 침대 밑에서 관찰하는 자세가 자신의 변신을 바라는 의학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⁴⁸⁾

북한의 일반병원 규모와 시스템을 보면 병원장 산하에 기술부원장과 외래부원장 경리부원장이 있다. 일반병원은 기본과와 입원실을 갖춘 구역, 군, 지구병원과 종합진료소들로 존재하는데 기술부원장은 주로 환자들의 의료기술적인 측면을 총괄한다.

48) 미셸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p.129.

아래에 북한병원의 행정구성도를 탈북의료인들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림 3-1-8>을 통하여 병원 내외부의 행정구조와 지휘시스템을 알 수 있다.



<그림 3-1-8> 시(구역),군 병원 행정구성도

입원실환자담당이 주를 이루며 병원 내 환자기술협의진의 최고책임을 진다. 또한 병원 내 의료진의 기술학습도 주관한다. 기술부원장은 병원규모에 따라 내과과장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외래부원장은 주로 행정전반⁴⁹⁾을 관할하며 이 외 경리부원장이 있는데 병원성원들과 환자들의 후방사업들을 총괄한다.

다음 약국을 책임진 약국장이 있다. 약국은 크게 조제실과 주사제제실로 나뉘는데 조제실은 신약과 고려약조제실로 나뉘고 제제실은 주로 신약은 주사약제제실이고 고려약 역시 주사제제도 있고 다른 탕약제제도 있다. 다음 병원약국규모에 따라 합성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합성실을 갖추고 새로운 약들을 합성하기도 한다.

약국장아래 20여명의 조제사와 약제사들이 각각 조제실, 주사제제실, 고려약조제실, 고려약 제제실, 합성실 등에 근무하는 약국의 부서들이 있고, 경리부원장이

49) 병원 내외부 사업의 조직, 계획, 인사 등 행정업무의 총괄 담당한다.

래 식당과 경리과, 동물실⁵⁰⁾, 운수, 부업지⁵¹⁾ 2부⁵²⁾등 부서들이 있다.

㉔) 종합 진료소

농촌지역의 거주지 담당제 형태에 의한 진료가 보편적이므로 특급기업소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담당제 형태에 의한 1차 진료기관이 2차 진료기관의 규모를 지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관의 규모는 그가 위치하는 소재지에 따라 각이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표 3-1-1〉 의료기관별 규모

종류	소재지	의사수	전 문 의	병상수	주요장비
도의학대학 병원	도 인민위. 소재지	약 200명	전 과	800~ 1,000	기본진단 및 치료용 전장비 (신장투석기)
郡 민병원	군 소재지	약5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실험실,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결핵과, 1,2예방과, 구강과, 고려과 (계14개과)	100~ 150	엠브런스, X-선,현미경
理인민병원	리 소재지	10명 이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과, 1,2예방과 (계7과)	5~20	규모 클 때 X-선현미경
진료소	산업장, 농장 등	1~2명	없음	1~2	청진기, 혈압기 등

※ 1개 또는 약 20개 군으로, 군은 약 10개리로, 리는 인구 약 1,500~5,000명임
출처: 『비교의료제도론』(2008), p.32.

이로부터 의학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시골에 어떻게 의사를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시하여 북한은 진료소 소장이하 보건일군들을 진료소에 고루 분포하여 지방구석구석의 의료서비스전달체계가 갖추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 인민병원 또는 종합 진료소라고도 하는데 인구 1000명~1500명의 리(동) 단위에 설치된다. 역시 병원장(진료소장) 아래 보통 일반과가 있고, 의사, 준의 간호원의

50) 1990년대 말부터 당은 ‘풀과 고기를 바꿀때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그 시행을 강요하였는 바 때 기관마다 염소기르기 열풍이 불었다. 병원역시 예외가 아니며 과제가 할당 됨. 때문에 여기서는 염소사육과 가토(加土)실험용 토끼사육이 진행된다.

51) 부업지는 병원 의료진이 관리하는 약초재배 외에 농작물 농사로 원내 환자들 부식물공급 기지도 관리한다. 이런 부업지들을 관리 담당하는 인력조이다.

52) 기차운행에는 단 한역(1구간)간에도 반드시 여행증이 있어야하는바 여행증 취급하는 부서임.

의료인력이 10여명정도 근무하는 치료기관이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리 진료소를 병원화 할데 대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진료소단위가 의사 한 명과 간호원 1~2명이 근무하던 기존에서 벗어나 각 과를 구성하고 1990년대에는 ‘무치리(無齒理)퇴치운동’에 따르는 보철과 신설⁵³⁾과 해산실을 갖추어놓고 100% 입원해산방조할 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로 증설비치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형식에 그쳤기에 비치용이라고도 표현해요. 조상들은 대대로 따스한 아랫목에서 해산방조를 받으며 출산하는 것이 최고소원이었다고 온돌방, 수세식 화장실 형식을 갖춘 ‘해산실’을 병원마다 갖추고 이용할데 대한 지시로 아랫 단위들에 내려 먹여 하는 수 없이 차려놓게 하고 해산실의 실시를 독려하였는바 그 시기 캠페인에 불과하였지 현재는 가동여건 때문에 가동도 잘 안되죠. 다만 서비스의 질 제고에 관심을 보이고자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겠죠(K1증언, 2014.09).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의 양적확대로 인해 진료소단위들까지의 전문 의료인력 배치와 그 진료가 용이하였고 응급진료혜택이 없어 사망하던 종래의 뒤떨어진 골방의사권세로 인한 진료수혜미비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책에 주력하였다.

다음 보건의료전달서비스의 중요부서이며 기관인 의약품공급소가 중앙으로부터 郡급에 이르는 하부말단까지 정연하게 체계화되어 있다.

(8) 의약품 공급소

북한의 약품공급체계는 중앙약품상사에서 각 도 약품공급소로 1차 조달된다. 여기서 다시 시, 군, 의약품공급소로, 또 각 병원, 리 진료소로 릴레이식으로 공급된다. 일명 위에서 아래에 내리 공급하는 북한식 “대안의 사업체계”라고도 한다. 이 시스템에 의해 공급과정이 감독·관리·통제된다.

각 제약공장들에서 생산된 제제약품들과 북한이 우방국으로 맺어진 소련 등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각종 수입약품들은 중앙(평양 보건상사)에 집결돼 통일적인 의약품배정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 아랫단위인 중앙 급 보건기관들과 각 도급, 약품공급소들에 공급되어진다. 중앙약품상사는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위치하며 직원은 150명정도⁵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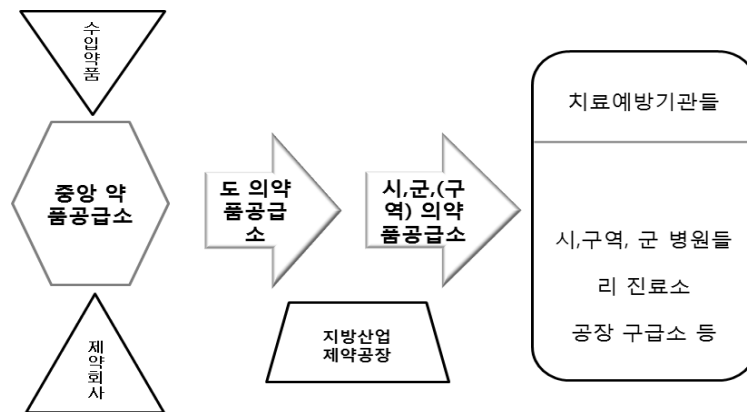
53) 80년대 들어 각 의학전문학교와 보건간부양성소들에 보철사 양성의 보철과가 신설되었다.

54) C1증언(2014.08).

각 도 약품공급소들은 도급의 치료예방기관들(도병원, 도위생방역소 등)과 아랫단위인 각 시, 군(구역)의 약품공급소들에는 위에서 아래로 공급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된다.

도 의약품공급소의 부서들을 보면 운송과⁵⁵⁾, 약품공급과(분할, 공급, 배정 등 담당), 설비과(각 병원단위 보건기관들의 의료 기계설비, 고정재산 등 담당관리), 고려약과(각 하부기관들의 고려약 원료생산의 종합 및 보관관리와 산하의 제약공장들에 공급, 또한 원료에 의한 완제품 약품담당 등), 제제(製劑)과, 기획과, 검정과(약품검정), 노동과(인사관리) 등의 부서가 관리 운영되고 있다.

각 시군에 있는 약품공급소가 있으나 치료약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병원에 공급하고 일부는 약국 매대에서 일반 약들인 해열제, 소화제, 가정상비약, 보약 류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 3-1-9> 북한의 의약품 공급 체계를 탈북민증언⁵⁶⁾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림 3-1-9> 북한의 의약품 공급 체계

그러나 이 시스템은 1990년대까지는 순기능이었으나 외국반입의 중단과 국내약품생산의 중단으로 인한 약품사정의 악화로 판매시스템은 종료되었다.

이 시기부터 약품자원 고갈로 도저히 계획대로 의약품을 내리공급 할 능력이 소실되면서 의약품매대는 판매를 완전히 중지하고 오직 치료예방기관들에만 약품

55) 위에서 받아오고 내리공급 하는 수송을 담당이나 실제적으로는 상부에서 공급받아오는 것만을 주로 담당한다.

56) C1, B1, L1증언(2014.08).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최근에는 2005년 들어 평양에 정성제약회사가 설립되고 스위스 합병 제약회사⁵⁷⁾가 들어서는 등 북한은 위기출구의 부단한 변화⁵⁸⁾를 모색한다.

각 치료예방기관들은 시, 군(구역) 약품공급소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는다. 병원규모에 따라 중앙상사로부터 직접받기도 하도 도 약품공급소로부터 공급받는 병원들, 군(구역)약품공급소를 통한 공급 등 다양한 루트의 공급방식들이 국내 치료예방기관들에 약품조달을 담당한다.

제2절 보건의료실태

1. 무상치료제와 전개과정

북한의 보건의료는 해방 후부터 시종일관하게 무상치료제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그 성장과 완성을 위한데 주력하여왔다.

북한의 보건의료는 무상치료제를 전제로 하고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고려 의학을 구성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로부터의 의료전달시스템은 지역별, 행정별로 단계화되고 상명하달식의 중앙집권화 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일관화 되고 있다.

아래의 <표 3-2-1>에 무상치료제의 기원과 형성과정들을 사회적 배경과 함께 연구자가 고찰하여 살펴보았다.

57) 지난 2004년 9월 스위스기업과 공동으로 ‘평성제약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북한. 2006년 처음으로 ‘모란봉약국’이 들어선 이후 현재 9개의 약국이 운영 중이다. 올해 8월부터는 24시간 영업하는 대동문약국체인점이 들어섰다는데... [www.http://news.tvchosun.com/](http://news.tvchosun.com/)

58) 북한은 남북한 합작기업인 평양 정성수액공장 설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모색을 시도한다. 이 공장 준공식을 갖고 연간 5백만 병의 기초 수액제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 공장은 남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기아대책,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정성제약연구소가 협력해 200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공사를 벌인 끝에 완성됐다.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30616

〈표 3-2-1〉 무상치료제의 기원과 전개

구분	연대별	시기구분	사회-경제	정치-사회계	무상치료제 도입의 수순
태 동 기	1945- 1956	해방전 후	47,48 1개년계획 (2차) 6.25전쟁 전후복구건설 반제반봉건민주 주의혁명	창당, 건국, 건군, 당1,2,3차대 회	1946.3 사회주의보건법 1946.12 ‘무상치료제실시할데 대하여’발표 1952.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52.10‘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 할데 대하여’,1956.3차당대회 언급
성 장 기	1957- 1970	5개년 계획 1차7개 년계획	천리마대고조운동 사회주의기초건 설,공업화(경제,국 방,병진노선)	당4,5차대 회	1957.보건제도수립언급 1960. 2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 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채택 이 시기에 ‘정성운동’발기 확산
성 숙 · 완 비 기	1971- 1985	6개년 계획 2차7개 년계획	3대혁명소조운동 사회주의완전승리 추구	사상,기술, 문화의 3대혁명. 6차당대회	1972.‘사회주의헌법’서 무상치 료제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 1980.4 ‘인민보건법’채택
마 비 기	1990- 현재	3차7개 년계획	3대혁명붉은기쟁 취운동	동구권 붕괴. 김일성 사후	식량난, 경제난, 의료난 무상치료제의 마비, 붕괴

〈표 3-2-1〉에 무상치료제의 기원과 형성과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은 부단하
고도 진지하게 ‘무상치료제’도입과 실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태동기와 성
장기, 성숙기를 거쳐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우방국이며
착실한 수혈원천 역할을 해왔던 동구권의 붕괴와 비례하여 수혈은 중단되었고
또 연이은 자연재해의 여파로 쇠약기, 마비기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 무상치료제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사담당구역제는 북한의 지역들을
구분(section)화하여 지역거주별, 직장별 분임제로 할당되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돌보는 제도이다. 아래의 〈표 3-2-2〉 예방의학 사업의 내용에서 북한에서
진행하는 예방의학의 내용⁵⁹⁾들을 살펴보았다.

59) 이해경,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48.

〈표 3-2-2〉 예방의학 사업의 내용

예방사업	사업내용
위생선전 및 환경위생	담당기관기업소 월 2회 정상화. 담당인민반 주 1회 정상/월 4회. 봄, 가을 위생월간 환경미화사업.
예방접종	생후 1주일 BCG접종부터 PDT 등 소아예방접종, 담당주민 책임실시. 탁아, 유치원, 학교들에 책임실시 담당구역주민 전염병예방접종실시.
전염병역학	담당구역들의 위생초소를 통한 역학사업-유열자 장악 he지역 여행자 통제단속 등
건강검진	건강검진 연 1회 이상-담당구역 전 주민

<표 3-2-2> 예방사업의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보건일군들은 의사담당구역을 통한 전 주민에 대한 예방의학사업을 주기적으로 부단히 진행한다.

이 제도에 의하여 의사들은 늘 주민들 속에 들어가 이들의 건강상태를 관찰관리하게 되는데 이는 ‘체제수호’와 ‘주민결속’의 일거양득(一舉兩得) 효과도 추구하고 있는 이점이 있어 당국은 이를 적극 추천하고 강요한다.

또한 무상치료제의 핵심은 예방의학제이다. 이는 주로 예방접종과 전염병예방을 위시하여 주민들의 위생선전과 위생관리감독을 통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직능들을 담당수행하기 위한 보건일군들의 각 현장에서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보건의료계의 무상치료제는 태동하여 성숙기를 거쳐 부단한 성장과정에 1980년 4월 5일 “인민보건법”이 채택되어 더욱 공고화 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겹치는 악재들에 의한 의료난까지 가세한다. 이는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지 같은 작동기구들이 원활 할 때라야만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속되는 경제난은 무상치료제 시스템이 더 효력을 못보고 유명무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실례로 02년도 7.1조치 이후의 보건의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2. ‘7.1조치’이후 무상치료제

<표 3-2-1>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보건의료는 해방 후부터 순탄하게 무상치료제의 수순을 밟으며 발전하고 성숙 성장해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난, 식량난의 여파로 의료난의 위기를 경험한다.

식량난과 경제난은 보건일군들의 의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주민들

의 복지와 생명분야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어린이 영양실조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영아사망률과 정상 발육부전 등 많은 질병들을 수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수질오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하고, 이러한 현상은 사망자 수가 급증하여 인구수의 감소를 재현하였다.

1998년 만성영양장애가 있는 아동의 비율이 60%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00년 이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영양불량 상황이 크게 감소되어 마치 영양지원사업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불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04년 조사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⁶⁰⁾

아래의 <표 3-2-3> 쌀가격 동향-탈북자 증언 등-에서 7.1조치이후 북한의 쌀 가격의 변화를 통한 북한의 열악한 현실⁶¹⁾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표 3-2-3> 북한의 쌀 가격 동향

연도별	월 급여(6급의사평균)	쌀 가격	미달러 환산
2003	2,000	700	02년이전 230/1\$
2010	2,000	1,500	
2012	2,000	5,000	2000/1\$
2013	2,000	7,000	3,000/1\$

<표 3-2-3> 쌀가격 동향에서 보는바와 같이 7.1조치의 02년도로부터 시장의 쌀가격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13년도에는 03년도의 10배나 뛰어 오른다. 기아(飢餓)와 병사(病死)로 사망환자가 늘고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로 골칫거리로 되었고, 병원들에서의 사망환자들에 대한 사인규명이 문제 시 되기도 하였다.

우리병원에서는 사망환자가 생기면 정규행사로 월 1회이상씩 ‘사인(死因)토론회’를 하였는데 식량난 98년?인가 회의 때 담당의사가 사인을 ‘기아사’라고 붙였다가 오히려 ‘염중경고’를 받은적이 있어요. 원장과 비서는 어디 사회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병명? 동무 의사 맞아? 라는 공격에 -열흘간 낱알구경 하나도 못해 사망한

60) 이연숙·윤지현·심재은·장수경, 『2006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사업비 지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통일 후 어린이 영양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7.11.30)

61) 데일리 링크 <http://www.dailyink.com/korean/dailyink.php> 참고와 의사증언으로 작성.

게 기아사외에 또 어떤 진단이 있습니까- 60세 노인에게 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불일 진단이 없어서?? 참 대책이 없구만. 하면서 이 의사는 그 벌칙으로 무보수노동 3개월로 병원번호에서 분토생산노동자로 일하였죠(K1증언).

90년대 후반기 들어 예고없이 들이닥친 의료난은 병원식당폐문부터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그에 비례하여 약품공급의 감소와 중단과 위생용품의 공급단절, 전기와 난방공급 등 의료부분의 동시다발적 곤두박질 마비는? 기아사에 전염병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K3증언).

이런 현상은 병원식당의 식량공급에도 영향이 미쳐 병원환자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폐문(閉門)사태를 빚는 병원폐문위기는 식량난에 전력난까지 겹쳐 더 가세되었다. 병원환자호실의 조명은 물론 모든 전기로 인한 설비가동과 소독시스템 등이 마비되어 병원이 더는 필요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화 되어버렸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북한당국의 보건의료는 여전히 ‘무상치료제’슬로건을 주장하였다. 보건일군들은 생계난으로 가정과 개인의 생활고 걱정대신 환자진료에 몰두하라고 강요되었는바 이에 대한 순기능의 보장에는 역부족이었다.

제3절 김정은시기 무상치료제와 보건일군의 역할

1. 북한인구와 보건일군

1) 북한인구

최근 북한(인구: 23,756,000명, GNI 5억 6천 6백만 달러)⁶²⁾은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지 국가이다. 전체 인구 80% 가량이 20% 정도 되는 저지대 평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구 60%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북한은 행정구역상 10개의 도(都)와 206개의 시(市) 또는 ‘군(郡)’로 구분되어 있다. 시는 행정 구역상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은 여러 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

62) 자료 출처: 보건성 DPRK Annual Report of the State of Health 2007 보건성 Pyongyang.

〈표 3-3-1〉 2011년 남북한의 인구학/보건

구분	지표(2011)	단위	남한	북한
1	인구	백만명	48.7	24.5
2	1인당 GDP	\$PPP	28,000	1,900
3	노령인구	65세이상 고령자인구\$	11.4	9.1
4	평균연령	세	37.3	33.5
5	출산율	출산/1,000	8.6	14.5
6	의사	인구1000명당	1.6	3.3
7	GDP에서 보건비중	%	6.5	3.5
8	1인당 보건비지출	\$PPP	1,820	67
9	영아사망율	1,000명당출산당/사망	4.2	27.1
10	일반적인 사망율	사망/1,000	6.3	9.1
11	기대수명	세	79.1	68.9

자료 출처: CIA World Factbook 2011, WHO Gloval infobase

주*1인당 GDP에 보건비중을 곱한다.

<표 3-3-1> 2011년 남북한의 인구학/보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북한의 보건, 인구 학대비에서 현저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인구 통계 특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통하여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3명으로 남한보다 거의 2배에 이룸을 알 수 있다.

북한(DPRK)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또 여름에는 홍수와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1990년대는 북한에게 지극히 어려운 시기였다. 오랜 경제적 파트너이자 교역 파트너였던, 소련과 중국과의 경제 및 교역관계가 붕괴되고, 그위기에 대응한 교역국을 찾지 못하면서 5년 기간 동안 북한의 국가 경제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다.

북한 경제가 몰락하며 식량난과 경제난, 의료난의 또 다른 이유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자연 재해(홍수, 태풍 및 가뭄)때문이다. 이러한 자연 재해 현상으로 북한의 농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는 지역 사회에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주었고, 보건시스템의 공공 부문 재정에도 재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15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 24.5%를 차지하며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2) 보건의료실태

2006년, UNICEF에서는 북한의 여성 및 아동의 현황이 최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업데이트된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⁶³⁾ 1998년과 2004년 사이 중앙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에서 실시한 4가지 영양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유사한 범위, 설계 및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은 체력 저하, 성장 장애 및 체중 미달과 같은 세 가지 지표에 따르면, 영양실조 현상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의 1/3이 고질적인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이다.

2004 국가 영양실태 평가는 북한의 북동쪽 산간 지방의 경우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하며 또한 북한 여성의 34.7%가 빈혈로 고생⁶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기존의 예방의학시스템은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다. 우선 의사담당구역제(Section doktor system)에 의한 예방접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여러 가지 백신의 부족 및 절품으로 중단되게 된다.

1995년부터 정상화되던 예방백신공급마저 고갈되고보니 유행성뇌막염(T.B.M). 환자들이 하나 둘 내원하였어요, 더럭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95. 12월이 예정일인데 BCG접종을 못하면 내 애기도 역시? 하는 생각이 들어 산부인과에 갔더니 비상용으로 보관하겠다네요...그나마 내가 병원성원이었기에 출산 후 일주일내에 접종이 가능하였는데 그 당시 출산하는 신생아들은 BCG접종을 못하였죠(L1증언, 2014.08).

1995년부터 생애주기 최초접종약인 BCG예방약의 절품으로 그 시기 출생한 신생아들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간신히 1997년부터 시작?된 UN약품지원으로 예방접종이 순기능에 들어서게 되었다. UN약품의 공급으로 DPT를 비롯한 소아마비예방약⁶⁵⁾ 등의 접종들이 다시 재개되었다.

최근에는 면역예방주사 서비스가 향상되어 대부분의 항원에 대해 80%이상의 서비스율을 보인다.⁶⁶⁾ 여러 가지 새로운 백신이 국가 프로그램에 도입되었고, 신생아 파상풍 및 홍역 박멸에 관한 인증은 현행 국가 계획 주기 말에 제안될 예정이

63)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CEFPyongyang 2006

64) DPRK National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CBS ICN February 2005 (quoted in UNICEFReport on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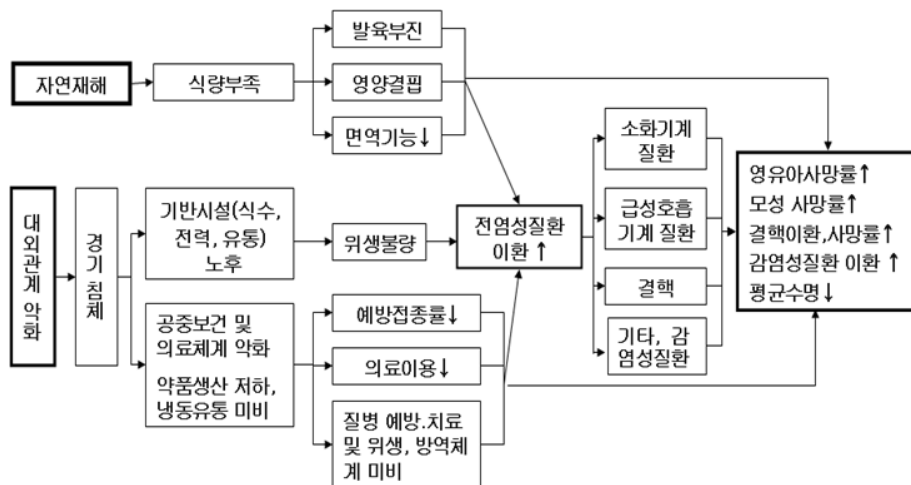
65) 이화여자대학교,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통한 북한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 p. 101.

66) 보건성 Mid Term Immunisation Strategic Plan DPR of Korea (2007- 2011) 보건성 2006.

다.67)는 보고도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모성사망률(MMR)이 두 배로 증가했지만 최근 분석에 따르면, 모성사망률(MMR)은 1998년 신생아 10만 명당 105명에서 2003년에는 신생아 10만 명당 97명으로 감소한 사실을 나타내는 타당성 있는 증거들이 있다.68)는 자료들도 있다.

아래의 <그림 3-3-1>을 향나미, 2014 보건복지포럼 발췌자료를 근거로 고찰하였다.



<그림 3-3-1> 북한의 보건환경의 주민건강불균형

UNFPA 2003년 보고자료에 의하면 산모들이 필수 산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1)전체 출산의 28%를 차지하는 ‘리’수준 병원의 필수 장비 및 기술 부족 (2)출산 관련 위험 증상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 기술 부족 (3)혹독한 겨울의 경우 상급 의료 기관에 환자를 보내기 위한 이동 수단의 어려움 및 (4)군·단위 병원의 기술 및 수술 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고 지적이 있다.

2007년 보건성에서는 업데이트된 "보건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f the State of Health)"69)을 발행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보건 상태 경향에

67) 보건성 Mid Term Immunisation Strategic Plan DPR of Korea (2007- 2011) 보건성 2006.
 68) UNFPA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third UNFPA Country program in DPRK UNFPA 2003.
 69) 보건성 DPRK Annual Report of the State of Health 2007 보건성 Pyongyang.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남성의 출생시 기대 수명은 64.7세이고 여성은 72.6세임

농부의 흡연율은 54.8%이고 노동자의 흡연율은 58%임

2005년 평양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과다 복용률은 20.9%임

심혈관계 질병 원인의 사망률 증가

높은 피임률 및 모유 수유율(69% 및 95%).

DPT3 면역 주사율(82%)은 높지만 2007년 기준 3000건의 홍역 발생

말라리아 발병 사례 감소(2001년의 300,000건에서 2006년에 9,353건)

높은 결핵 발병률(인구 100,000명 당 218명)

보고서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북한의 흡연율과 알콜 복용이 건강지수에 많이 영향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예방접종율은 82%로 양호한 성적임을 통해 접종시스템은 비교적 순기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개발국의 아이콘인 결핵발병율과 치사율이 문제의식이 된다는 시사이다.

또한 07년 기준 3천명의 홍역발생현황자료는 북한의 전염병잠재와 발생율은 의연히 잠재하여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임을 시사하는바이다.

이처럼 북한 보건의료의 주요슬로건이던 무상치료제는 거의 그 실체를 상실하여 유명무실이 반복된다. 이에 따라 그를 담당하는 보건일군들의 역할수행에도 변화가 유도되며 결국에는 보건일군들의 슬로건이었던 정성운동⁷⁰⁾의 변성은 가속화된다.

2. 정성운동의 변성(새로운 의사-환자관계)

1) 초기 무상치료제 동인역할의 보건일군

북한은 해방 후 1947년 1차 1개년계획을 거쳐 1948년 2차 1개년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재차 1950년 6.25를 경험한다. 1953년 7월 전후시기는 1954-56년까지 전개된다. 이 시기에 북한의 무상치료제의 기본 틀을 이루는 각종 주요법령이 제정되는바

70) “1960년대 북한에서는 전신 70%에 3도 화상의 방하수 소년을 기적적으로 살려낸소행 ...이 1961년 2월 청년동맹 기관지인 <민주청년>에 실려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같은 해 5월 7일에 열린 2.8비남론공장 준공식에서 김일성은 방하수 소년을 주석단 우에 안아 올리고 소년의 손을 높이 치켜 올리면서 그를 소생시킨 의료집단에게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기적’이라고 치하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소행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운동을 벌릴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정성운동은 자신의 뼈와 살, 피를 뽑아 환자를 소생시키는 보건일군들의 치료행위 뿐이 아닌 무상치료제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하게 요구하였어요.”이혜경의 위의 논문, p. 42.

뒤이어 1961년 6월 7일 전국보건부문 일군 열성자회에서 누구나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집단이 곧 공산주의 집단이라고 강조⁷¹⁾한다. 이때로부터 보건부문의 공산주의집단운동인 ‘정성운동’이 발기되고 전개되었다.

북한 전역에서는 보건일군들 속에서의 정성운동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었으며 “환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친혈육의 정으로!” 라는 공산주의 운동의 기수가 되는 운동이 심화되었다.

하여 보건일군들 속에서 수혈을 비롯한 피부이식술, 뼈 이식술 등에 서슴없이 자기의 한 몸-자신 뿐 아니라 자기가죽도-을 바치는 아름다운 기풍이 속속 출현하여 온 나라와 국민이 하나의 혼연일체(渾然一體)를 이루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비록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의 두 기둥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봉건사상개조를 통한 주민결속의 의도가 스민 운동이었지만, 현실은 그 의도의 배가로 뚜렷이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은 무상치료제에 종사하는 보건일군들의 미담들에 인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으로 늘 흥분되었으며 그 때마다 당국은 충성심고양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그 미담들 역시 경제적 궁핍과 빈곤 여하에서의 생활력과 당위성은 지속력을 잃게 된다.

2) 식량난과 의료난

사회주의의 호황기를 누리던 중 북한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악화일로가 개시되었는바, 여기에는 대내외적 변수들이 작용하였다. 그 외적변수로는 동구권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인한 수교관계의 중단이었고 내적인 변수로는 북한의 자연재해 등 천재(天災)와 인재(人災)의 산물이었다.

국가적인 정상공급에 의하여 비교적 원활하던 무상치료시스템의 마비 및 붕괴로 인해 보건기자재들과 의약품들의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어 보건일군들의 식량배급과 월급 중단사태를 가져온다. 북한의 유일한 사회주의 보건일군의 아이콘이던 정성운동의 순수한 의도는 심히 손상되어 변성되어가며 북한의 보건의료계는 위기국면에 이르게 된다.

71) “우리는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보건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산주의의 붉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축약)더욱이 한 두 품의 월급이나 밥벌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부르주아적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조차 나올 수 없습니다.” 김일성,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48.

(1) 식량공급중단사태

1990년대 초부터 간헐적이었던 식량배급 미공급은 1994년 김일성사망을 기점으로 50%~70%가 감축되어 2~5/15일분을 배급이 주어진다. 그 여파로 병원식당도 예외가 아니며 거의 문을 닫게 되며 위기를 견디다 못해 폐문하게 된다. 병원식당의 폐문과 동시에 보건일군들은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위협임에도 사회주의 보루인 보건부문을 지켜야 하므로 출근을 보장하여야 하였다.

그래도 병원에는 식량을 공급하였죠. 우리 의사들은 숙직(宿直)근무 시에 유일하게 하는 검식(檢食)당번을 기다리기도 하였는데 그마저도 없어지더라구요 병원식당도 문을 닫게 된거죠(K1증언, 2014.09).

(2) 의료난, 에너지난과 전염병사태

마이네스경제의 지속으로 공장, 기업소의 가동중단은 제약회사들의 생산마비를 동반하였고, 의료기자재의 생산 공급 역시 감소세 후 중단되었다. 보건의료부문의 국내제약기지들의 생산마비는 약품공급의 중단을 가져왔고, 에너지난, 식수난 등 복합적인 난재들을 창출하였다. 전력난에 의한 식수부족과 급수시설의 부실운용으로 인한 수인성전염병의 폭발⁷²⁾ 등의 보건의료계의 요소마다에 난재가 속출하였다.

1994. 10월에 함흥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콜렐라 전염병 폭발, 그 뒤로 다음해인 95년부터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의 줄지어 산발(散發)하였는데요. 전국각지에서 예고없이 중단된 식량배급으로 기아사가 속출하고 폭발적인 수인성전염병사태와 식량난과 의료난에 의한 병원들의 폐문사태가 생기고 사회는 아비규환상태였죠(L1증언, 2014.09).

전기가 안와서 때로는 주사기소독도 집에서 해올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적도 있어요...심지어는 체온계와 주사기도 없어서 장마당에서 본인용으로 구입하여 지참하고 주사시간에 응급실에 가기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자면 우선 주사를 장마당에서 사가야 하고 음식을 자체로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난방용 뿔감과 심지어는 촛불(조명용)까지 준비해가지고 가야해요.

72) 「중앙일보」, 이해경시론, 2014.9.29 A29.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본인부담이죠. 오직 병원건물과 의사만이 필요할 뿐인데요. 그래서 입원하는거죠(박○거주주민 증언).

병원에 체온계도 없었어요. 혈압계도 다 떨어져나가고 하나가 간신이 있었는데 이과에서 저 과로 중환자들의 혈압체크하고자 하여도 의사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죠. 전염병이 폭발하여 전염병상황도 일제때를 방불케 하였고요... 말라리아전염병은 휴가군인들에서 간헐적으로 원인모를 고열자가 생겨 확진이 어려웠는데, 나중에 위생방역소를 통한 균검사에 의해 확진하는 등 온갖 전염병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K1증, 2014. 09).

예측불허의 전염병환자와 심혈관계의 주요 질병 등의 환자들의 발병율은 진화가 어려웠고, 그를 감당해낼 의약품과 소비품들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위기에 위기를 거듭한다.

황장엽은 1997년이 끝날 무렵 기아에 의한 사망자수가 약 250만 명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의료난에 의해 전염병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였는바 이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에 의한 의료체계의 마비 등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사태였다.

3) 7.1 경제조치 이후 보건일군

(1) 지속적인 식량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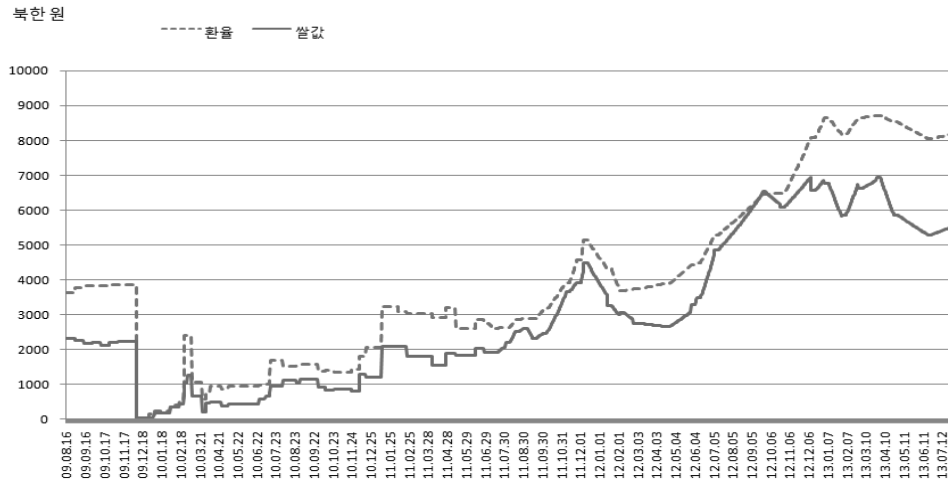
유일하게 북한이 정치에 도입하였던 식량배급제도는 이미 90년대 초중반기에 느슨하다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국가의존적인 생계유지는 대 기아사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속수무책에 정신을 차린 주민들의 계몽과 각성이 바로 기생력에서 자생력으로 환원되었는바 이는 곧 시장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시장은 곧 국가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시장으로부터 정부와 국가의 모든 활동들이 확산되어 가는 거점으로 정착되어 갔다.

북한의 2011, 2012년의 물가폭등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김정은 권력승계와 관련된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통화증발을 통해 충족시켰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민들의 소득탈취현상이 일명 택스(inflation tax)와도 같은 세금징수였다.

6급의사 한 달 월급이 2,400원이었어요. 2009년 화폐교환이후이니 쌀값이 천정

부지로 뛰어올라 천원에서 2천원 11년도에는 4천원까지 올랐죠. 월급으로 쌀 1K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거죠. 또다시 90년대 후반기의 아비규환상태가 재 진입한 거죠. 가는 곳마다에서 자살하고 난리가 아니었죠(C3증언, 2014.09)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의 효자종목인 북한시장의 2009년도 8월부터 2013. 7월까지의 쌀 값과 달러환율⁷³⁾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3-2>과 같다.



<그림 3-3-2> 북한의 시장 쌀값과 달러환율(2009.8~2013.7)

북한당국은 통화증발이라는 수단에 의지하여 주민들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는 곧 강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생활현장은 곧 주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협하였는바, 이 시기의 북한어린이의 지역별 영양실태를 살펴본데 의하면 2002년도에 만성영양장애는 남포시가 23.2%인데 비해 양강도는 46.7%로 두 배나 많았고 급성영양장애도 평양시는 3.7%인데 반해 함경남도가 12%에 달했다. 저체중의 경우도 남포시가 14.7%인데 반해 양강도는 26.5%로 차이가 컸다는 보고⁷⁴⁾가 있다.

73) 이영훈, “거스를 수 없는 시장화 진전, 북한판 ‘도이모이’ 필요하다”(『민족화해』, 2013.9), p.19.

74) 이화여대, 『지속적인 협력과 북한보건 의료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2008. p. 218.

(2) 당국의 무상치료제 고수지침

당국은 보건의료계의 위기를 의식하고 그 대응으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바 우선 그런 난국임에도 보건일군들의 정상출퇴근을 강요하며 부족한 약품은 산에 풍부한 약초채취와 재배로 충당할 것이며, 신의(양)치료대신에 고려(한)치료를 대신할 것을 강요한다. 북한의 보건일군들은 그 위기대응책에 의하여 전부 산에 약초캐는 산지기가 되었으며 양한방 의사들은 침, 뜸, 부항 통이 필수품이 되었다.

의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격리시키고 의약품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면 치료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치료약과 의료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역학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북한의 의사들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사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적인 일도 병행한다. 부족한 약품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기 위하여 약초를 캐고 사소한 의료용품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봉대제조를 위해 병원 텃밭에 직접 목화를 재배하는 등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약품 절약을 위해 도관, 직달법, 방사선 직접 투시법 등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다. 75)

남한의 세브란스병원 인요한의사의 북한 방북소감의 전술과 같이 북한의 보건일군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회주의 지키는 보건의료전사로서의 투혼을 아끼지 않는다. 지속되는 당국의 강요는 보건일군들 속에서 또다른 출구를 산생하는데 이는 자연발생적이며 현실지향주의로 곧 그 생활력과 보급 력이 급파(急派)되기도 하였는바, 바로 보건일군들의 땀가성 진료였다.

결국에는 보건일군들의 땀가성 진료와 북한 시장의 진출확산은 거의 균형적으로 비례하며 무게중심을 갖추어 나갔다. 즉 당국의 사회주의지속강조는 북한현실이 탈사회주의화 되어가는 데 기여한다.

북한의 보건의료의 비공식적 시장화의 확산은 결과적으로는 정성운동 변성의 새로운 의사-환자 관계가 수립하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난 하에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나가게 된다.

75) 인요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남북 의료협력재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2008), p. 5.

3. 도전적 의료시장의 유인요인

1) 무상치료제의 위기대응-고려의학 강조

북한의 지속되는 식량난 경제난에서 출발한 의료난으로부터 보건의료부문의 기존의 순기능을 회복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었다. 제약회사들의 가동중지와 전력난이 가세하여 생산중지를 중복하여 우선 의약품의 생산공급이 중지되었다. 이로부터 환자들이 병원을 來院하여도 빈손으로 불평불만을 일삼았다. 이에 대한 체제불만의 위기의식의 출구전략으로 고려의학의 제창을 내세웠다.

북한의 한의학은 1958년부터 의과학학원의 산하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동의학관을 설치하였으며 1974년에는 동의학 약초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한의학-동의학-고려의학 개발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의약품부족의 의료현실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지키자면 무상치료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국은 환자치료에서 고려(한)의치료 70% 도입⁷⁶⁾하여 고려의학과 양(신)의학을 배합 하여 치료의 공백을 대처할 데 대하여 지시하고 그 보급과 총화사업으로 통제⁷⁷⁾를 심화시켜 보건의료의 원상복귀를 꾀하였다. 이로부터 북한의 보건의료의 위기대응은 고려의학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고려의학을 증시하면서 양의학과 병행, 통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효과성, 의료기술과 의약품의 질적, 양적 부족 현실의 탈피, 주체의학 확립, 동의학의 보편적 접근성이 사회주의 보건의료원칙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점 등의 주목에서부터 이 시기에 보건일군들에게 고려치료법의 전수보급을 진행하였는바 그 보급은 강의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신(양)의사들에 대한 고려의학강습은 분기에 1일(日)간, 한해에 4회이상 진행하였다는 증언들이다.

90년대 중후반 들어 연초에 일주일 또는 열흘씩 군에서 조직하는 고려의학과 군진의학강습에 동원되었어요. 부족한 의약품사정임에도 고려치료를 배합하여 환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고수해야 한다고 침, 땀, 부황을 배합하는 치료의 70%를 고려치료로 할 데 대한 강조와 통제가 진행되었어요. 해마다 진행되는 6.24총화 때에도 병력서조사는 순수 고려치료 정형만을 검열하고 총화하였죠(K1 증언, 2014. 09).

76) 부족한 의약품조건하에서도 침,땀, 부황치료로 환자치료를 담당하라는 공문지시가 하달되고 이에 대한 통제로 총화사업 강화하였다. 탈북의사증언.

77) 년(年)에 1회이상 6.25교시총화로 보건일군들은 상급군당위원회에서 검열총화로 통제-여기서 고려의학치료 70% 도입을 기본으로-한다.

강습에서 고려(한)의학의 침, 뜸 요법을 배우고 신약처방대신 침, 뜸 부항 치료 등을 도입하여 부족한 약품을 고려약으로 대처하는 등 양의사가 한의(韓醫)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진료의 전문성보다도 서비스 효율성문제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게 하였다.

북한은 의료난 위기의 출구전략으로 대응책으로 대체의학과 고려약품의 재배채취의 활성화를 내세웠다. 북한이 강요한 위기의 대응책의 고려약품 재배와 채취는 생계난 타개에 약초의무과제가 가미되어 보건일군들에게 또다른 2중고를 들씌웠다.

보건일군들은 식량난에 더하여 가정의 생계난 뿐아니라 약초과제의 할당량을 강요당하여야 하는 난관까지 가중되었다.

2) 보건일군 세부담

보건일군들의 2중고,3중고로 된 세부담의 지표로 될 수 있는 월급명세서를 구성하여 보건일군들의 실제적인 생활들을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이런 의도하에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상급보건일군 6급의사의 월급명세서를 통한 의사의 생활비를 <그림 3-3-3>의사 월급명세표에 고찰⁷⁸⁾하여 보았다.

7.1경제조치 이전	7.1경제조치 이후
1999년 8월 최○의 월급내역	2012년 12월 최○의 월급내역
월급여액 110.10	월급여액 2,400
사회보험비 1.10 인체보험비 8.00(300원/3년) 실 지불액 101.00	사회보험비 24.00 인체보험비 500.00(2만/3년) 실 지불액 1,876.00
공제내역 ○○모 사망부조 10.00 ○○ 결혼부조 10.00 백두산밀영건설 지원 10.00 분쇄기 제작지원 20.00 고려약 도색류 10.00 군당 휘발유 10.00 보건과장 면회 15.00 검열대 식사대접 10.00 공제 계 95.00 잔액 6.00	공제내역 ○○모 사망부조 100.00 ○○ 결혼부조 100.00 사적건설 지원 200.00 과 부조 200.00 군당 휘발유 500.00 과 휘발유 500.00 기타 500.00 공제 계 2,000.00 잔액 -124.00

<그림 3-3-3> 의사 월급명세표

78) 탈북의료인들 증언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그림 3-3-3> 의사 월급명세표에 고찰하였듯이 일반 의사들의 월급상황으로는 도저히 생계유지가 불가능함이다. 위 그림에서 명시되었듯이 여러 가지 사부담들로 공적부담이 합법화되는 것은 이미 학습되어 보건일군 누구를 물론하고 응당함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급에 대해서는 월급날에 그 액수에 집착하기보다 병원(院)의 빚을 탕감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의례히 상부에서 내려먹이는 부가과제 수거용 이니까요...때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죠. 그럴 땐 다음 달로 조월되어 계산되죠... 결국 월급으로 생활 계획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죠(H1증언, 2014.08).

월급바라고 근무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출근해야 한다더라 하고 출근하고 월급은 그저 병원에서 징수당하는 액수 갚는 수단이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심지어는 맹비도 거기서 공제하면 더 거뜬하죠. 월급으로 생계 운영하는 사람 단 일인도 없어요(C3증언, 2014.08).

그럼에도 당국은 여러 가지 부연과제를 하달한다. 보건일군들은 그에 대한 강요를 수용하여야 한다. 감당해내기엔 역부족인 과제할당량에 대처하여 원만하려면 환자들이 소득원천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렇게 하여 보건일군들은 당국의 조치에 의한 공사(公私)의 출구전략으로 비공식 시장화 즉 민간의료시장화가 출현하고 활성화 되며 정착되어 지속되게 된다.

4. 당국조치의 도전 (公私의 출구전략)

북한의 보건일군들의 지속적인 경제난타개를 위한 위기탈출-과도한 사부담과 사회주의 보건의료 지속강조 등-로 새로운 환자-의사관계가 출현하였다.

당국은 보건의료계의 위기상황하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의 ‘사회주의 전사’로서의 사명과 역할강화에 의해 정상출근과 약초재배 및 채취 등을 통한 무상치료제 선전고수를 강요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일군들은 당국조치에 또다른 자생력을 창출하였는바 보건의료의 유료화지향이었다.

아래의 <표 3-3-3>에 당시 보건의료행위의 시장화 현상⁷⁹⁾을 살펴보았다.

79) 탈북의사들 증언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표 3-3-2〉 치료행위의 시장가격화 (2013년 당시)

지 표	가격(북한: 원)	달러(\$)
진단서(3일분)	1,500~3,000	0.5~0.8
사회보장수속	60,000(眞환)~600,000(僞환)	17~200
총수염	50,000~100,000	15~30
제왕절개수술	55,000~120,000	16~32
정상해산	40,000~50,000	13~15
초음파 촬영	1,500-3,000(담배 한 갑 상당)	0.5~0.8
X-ray	1,500-3,000	0.5~0.8
소파술, 중기중절술	6,000~8,000	1.5~3.0
위절제술	550,000~120,000	16~32

<표 3-3-3>에서와 같이 치료예방기관들에서의 의사들의 합법적 치료행위는 지표별로 가격화(음성에서 양성화)되어 만연화 되었다. 위의 <표3-6>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음파의사는 비록 도와 시급병원들에만 존재하지만, 이들은 하루 담배 수(數)갑⁸⁰⁾을 거뜬히 해결하는 셈이다. 10여갑 가격대로 환산하면 의사월급 한 달분을 훨씬 웃도는 폭리이다.

진단서 3일분에 1,500원? 그렇게 떼기도 힘들어요. 글고 병원이라고 하면 문에 발 들여놓는 순간부터 모두 돈이 있어야 해요. 예하면 입원하고자 하여도, 수술하고자 해도, 또 치료약 받고자 해도 돈을 보이지 않게 꽂아 넣어주어야 모든 게 성립이 돼요. 난 조카가 적십자병원 의사라서 입원만 10여명 시켰는데요. 일반적으로 입원만 하는데도 작아서 1만원(20\$정도?)이 필요해요. 일종의 숨겨진 치료비인 셈이죠 (이○○: 평양시 선교구역거주주민 증언-2013.10월 탈북, 2014.09).

90년대 후반기부터 병원에 가자면, 또 입원하자면 모든 걸(약, 쌀, 물, 전기 난방 등) 지참해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보니 오히려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면 의사들이 알아서 집에 찾아오거든요. 그럼 집에서 주사도 맞고, 진단서가 필요하면 진단서도 요구하고, 대신 값을 지불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약초로도 해결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환자구하는 방법을 강구했죠(함흥시 회상구역 거주주민, 2011. 11. 탈북, 2014. 09)

80) 담배1곽: 1,500원×2=3,000으로 의사월급 2,300원임을 감안할 때 환자 2명에게만 받은 뇌물이 한 달 월급인 셈이다(H3증언, 2014.08).

90년도 중반부터 골방의사들이 속속 생기었죠. 나는 그때 연로보장 받고 집에서 휴식하는데 너무 환자들이 찾아와 오히려 병원보다 우리집이 줄서서 기다리는 풍경이었죠. 병원가면 약초캐러 가고 공석이고, 아무리 길게 기다려도 약도 없고 실력도 없는 새내기들이 맘에 안 드는 진료를 하니 아는 의사인 내게 찾아와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게 더 효과 적이라는거죠. 대신 저는 그들이 올망졸망 가지고 오는 뇌물보따리로 하여 백미밥생활을 하였죠(K1 증언, 2014.09)

환자들에게서 담배뇌물은 일반화되어있었죠. 담배 없는 환자에게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불가함으로 거부하죠. 나중에는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챙겨가지고 오더라구요...그러면 아무 일 없는 듯이 진행하는거죠,, 담배는 일반적으로 통행증이나 같은거죠... 초음파나 X-rey 의사들 상황도 마찬가지지요...월급은 없는데 정상치료는 보장하라는 것은 장사도 못하는데 결국은 환자들 주머니 털어내는 방법인데... 알아서 취하라는 거 아니겠어요??(H1 증언, 2014.08)

이렇게 받아낸 뇌물-담배는 다시 시장으로 나가 돈으로 환수된다. 결국은 돈을 가져오려면 일종의 유상을 노골화하는 현상이라 역으로 담배를 받는 행위는 인사차림에 불과하다고 공공연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유엔지원용품들이 병원에 공급되면 UN용품 수혜도 <표 3-3-3>의 가격에 부합되는 수술과 산과진료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하면, 정상해산 가격대를 지불하면 UN용 분유와 애기 기저귀 등의 공급대상이 되므로 그 가격이 다 나온다고 선호한다는 전언이다.

이와같이 보건의료계의 자연발생적이고 자발적인 음성적 유상진료(유상약구입 포함)가 출현하였고, 이는 확산되어 활성화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결국 보건의료계 전반에는 무상치료의 간판을 걸고 내적인 유상치료가 거의 일반 상식화되는 현실이 날로 노골화되고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이다.

제3절 향후 보건의료계의 전망 유추

1. 의존적 북한보건의료의 변천과정

북한의 보건의료는 6.25전쟁 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의 수교관계를 돈독히 하여왔다. 소련의 원조를 비롯한 체코, 루마니아, 알바니아, 헝가리 등들의 병원들이 건립되고 의료시설까지 보충되게 된다. 아직까지 평양에 기존의 루마니아 병원

등이 존재하는 것이 주요 실태이다. 전후시기에서 70~80년대까지 북한은 지속적인 동구권의 수혈속에 보건의료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여왔다.

아래의 당시 평양의료인의 증언을 통해 대표적인 수입에 의한 의약품의 종류들을 <표 3-3-3>에 정리해 보았다.

〈표 3-3-3〉 수입의존 치료약품 종류

No	약명	국가별	용도별
1	prednisolon	소련	부신피질호르몬제
2	Vitamin K3	소련	지혈제
3	Mannitol	헝가리, 일본	간복수용 이뇨제
4	furosemid	소련, 일본	이뇨제
5	kokarboxilase	소련, 루마니아, 영국	뇌 부활제(V-BIP.)
6	Hephallon	헝가리,	간보호제
7	Allantoin	루마니아, 헝가리	위경련용 진정제
8	Butamid	소련, 헝가리	당뇨병용 내복 인슐린제
9	dexametazon	소련	부신피질호르몬제
10	prednisollon	소련	부신피질호르몬제
11	Adona	헝가리	지혈제
12	Atriphos	소련	심근세포부활제(토끼심장)
13	Fentanil	소련	전신마취제
14	live 50	소련	간보호제

북한에 충실한 수혈국들의 지속적인 유지관계도 80년대부터 느슨해지다가 중단되었다. 아마도 동유럽권의 붕괴요인일 것이다.

북한에 전후에 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한 루마니아 병원(비뇨기전문)이 건립되어 시설, 기구 의료진까지 전부 루마니아제로 운영되었고 이는 평양의학대학시절 비뇨기과의 주요 실습기관이기도 하였죠. 이 병원은 후에 60년대 후반에 철수하여 평남도 중앙병원으로 개칭되었다가 평양 제2병원으로 되었죠. 또한 체코병원이 있었는데 이는 함흥에 위치하였고 후에 전상자병원이 되었다고 해요, 다음 헝가리병원이 있었는데 이 병원은 군대병원으로 되었다는 전언을 들은바 있어요.

60~70년대까지는 거의나 다다 싶이 외국제 의약품들이 공급되었죠... 강심제와

해열제, 심지어는 소독약류 들까지도 거의다였죠...80년대 후반 들어 공급약들이 적어지다가 나중에는 절품이 되더라구요,, 동시에 의료사무용품들도 부족해져서 초기에는 처방전을 묶어서 중앙창고에 3년 보관하는데 그 보관기일을 못 채우고 다시 출고 받아 이면지로 사용했지요, 깔따(병력서)는 더 활용 못하다보니까 환자들보고 가정집에서 병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종이 두어 장 씩은 지참해가지고 와야 한다는 주입을 시키고 종이 없는 환자들에 대하여서는 진료도 거절하였어요. 그러다보니 초진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종이 두어장과 심지어는 풀까지 지참품목으로 되었지요(K1증언, 2014.09).

북한은 외국의 수혈원천의 단절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90년대 초반부터 겪은 수회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의 무상치료제는 그 성격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 의료난의 3대재난에 이어 국내생산의 마비와 국외수혈의 마비 등은 북한전역을 기아상태로 몰아넣었다. 결과 90년대 중-후반에 걸쳐 수백만의 아사자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의료난에 의한 전염병사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드디어 90년대 후반기에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UN의 협력 구조가 개시되어 드디어 기아선상의 구원이 개시된다.

2. 비공식적 의료시장의 국영화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지원의 손길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2005년 들어 평양에 정성제약회사가 설립되고 스위스 합영 제약회사⁸¹⁾가 들어서는 등 북한은 위기출구의 부단한 변화⁸²⁾를 모색한다. 인민보건법 제 10조 1항에서 의약품도 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불균등이 잠재한다.

비공식적 의료시장의 만연화는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한 수입약품과 제조약품들

81) 지난 2004년 9월 스위스기업과 공동으로 ‘평성제약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북한. 2006년 처음으로 ‘모란봉약국’이 들어선 이후 현재 9개의 약국이 운영중이다. 올해 8월부터는 24시간 영업하는 대동문약국체인점이 들어섰다는데...
[www.http://news.tvchosun.com/](http://news.tvchosun.com/)

82) 북한은 남북한 합작기업인 평양 정성수액공장 설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모색을 시도한다. 이 공장 준공식을 갖고 연간 5백만 병의 기초 수액제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 공장은 남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기아대책,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정성제약연구소가 협력해 200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공사를 벌인 끝에 완성됐다.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3 0616

이 그 부족을 충당하였는바 제조약품에서의 가짜 약의 출현도 간과할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구입하는 의약품에는 가짜(자체 제조약품 등)가 많으므로 건강권에도 부정적 영향도 지배적⁸³⁾이다. 이러한 불균등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무상치료가 사실상 와해된 상화에서 북한 내 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⁸⁴⁾해나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006년부터인가, 북한은 80년대 말부터 약품고갈로 잠시 문을 닫았던 약국(병원 외 약국)제도를 다시 부활되었어요. 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약품시장으로 야매가격의 등장을 공식화된 셈이죠. 일반병원들에서의 약품을 비롯한 의료품들의 시장가격화가 고착되고 결국에는 시장상인들의 야매가격선상을 국가가 인정하는 꼴이 된거죠. 다만 개인상인들의 약품은 신뢰도 때문에 국영약국의 약품의 구입을 선호하고 매매가도 더 오르는거죠. 국가는 이런식으로 의약품의 상행위가 장려하고 장착하고 활성화하여 개인들이 챙기는 부를 장악하게 된거죠(H1증언, 2014.08).

아래의 <표 3-3-4> 공급 UN 약품들의 시장가격 매매가(남포-청진)에는 북한의 전역에서 국규화된 의약품의 야매가격의 매매가를 제시하였다. 표는 재북 당시의 보건일군들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3-3-4> 공급 UN 약품들의 시장가격 매매가(남포, 청진)

No	약품명	단위/규격	용도	가 격(원)
1	Ringer	0.85%/500ml	수액제	1,200(中)~1,800(국산)
2	Glucose	5%/500ml	수액제	1,200~1,500
3	Glucose	20%/20ml-1A	수액제	800/1A
4	Penisilin	100만/순천	Antibioditic	1,600
		100만/평양, 신의주		1,200
5	Streptomycinin	A	Antibioditic	600
6	Anticonseptive (피임)	30T	Wooman	600(中제)-1,500(UN제)
7	Loop	T(type)	Wooman	150(中)0-2500(UN)
8	Cohotrimoxasol	Tab.	Antibioditic	600

83) 이해경,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파행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39.

84) 김수암, 통일보건의료연구의 미래, (남북하나재단설립 4주년 학술대회, 2014), p.67.

No	약품명	단위/규격	용도	가 격(원)
9	영신환	20T/150T	Digestive	300/500
10	Revomicetin	1Tab.	Antibioditic	70
11	정통편(중국)	Tab.	Fever	20
12	Ampicilin	Tab.	Antibioditic	50
13	Mebendazol	30T/갑.	Anthelmintic	150
14	도프약(이소+리팜핀+EB+PA)	T/1Bax	T.B.제	600
15	Isonizid(INAH)	50T/갑.	T.B.제	750

<표 3-3-4> 공급 UN 약품들의 시장가격 매매가(남포, 청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포와 청진의 약값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표에 제시된 가격들은 고스란히 당국이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국영 약국의 약가(藥價)와 동일하다는 점이 또한 주목되는 점이다. 동시에 결핵약의 지원품이 양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따라서 결핵약가(價)가 가장 저렴함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약품의 매매가는 거의 유사하거나 같아요. 제가 시내에서 사적인 일로 지방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친척이 두통이 심하여 장마당에서 구입한 정통편이라기에 얼마인가 하였더니 우리 청진시와 같더라고요(청진 수남거주 주민증언, 2014.09).

저는 남포시의 약값과 청진시의 약값이 꼭 같은데 놀랐어요. 쌀값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값은 1전 차이도 안 나고 동일한데 놀랐어요(남포거주주민증언, 2014.08).

진료비용은 각이해요. 담배한갑~ 현찰까지 행위별로 또 입원날짜에 대해서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발생적이라고 봐요. 의사들 생활비는 턱없이 모자라지, 식량배급은 없지, 뭐해서 먹고살고 근무까지?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거죠(H1증언, 2014.09)

이와 같이 약품매매가는 전국적인 동일가(同一價)가 된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상행위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의약품 동일가(同一價)의 일반화와 정착은 시장이나 자택에서 의약품의 상행위를 근절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걸고 통제를 지속하였으

나 그에 의한 수용이나 거부에 앞서 개인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절취(截取)의 의미로 국가가 취득하게 된 것이다. 결국은 북한당국이 약품상행위의 통제를 일삼다가 자기들이 취한 것으로 하여 주목하고 수용하는 현실위주를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전술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비공식적, 2차시장의 국영화현상의 원인은 첫째로, 기존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약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회주의 지향의 당국의 과욕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의 민간의료시장에 의하여 새로운 의사-환자관계의 출현은 바로 자연발생적이었지만 내실화된 현실위주의 필수불가결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국가부담 충족의 원천을 행위자(의사)의 수혜자(환자)에게서 찾았다는 것이다. 즉, 당국은 자본주의를 배격하면서 탈사회주의화를 부추긴 셈이다. 이러한 당국의 모든 조치와 대책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화를 가속화하고 현실화하였다.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현실 조건하에서 의사가 치료행위를 지속하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가는 과제와 사부담을 주어 해결을 꾀했지만 집행행위자들은 그 출구를 환자에게서 찾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민간시장가격이 국영화되어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약국價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가(價)를 국가가 인정한다는 시사이다.

90년대 후반기에 가장 지대한 역할자였던 장마당은 식량난 뿐만아니라 의료 난에서도 효자종목이었다. 수술시 마취약이 없어도 장마당에는 없는 약이 없었다. 마취약도 수술 후 항생제구입 역시 장마당이였다.

병원 측에서는 제제약도 장마당에 내다놓고 수입을 강요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제를 위해 전기를 쓰고, 제제원료를 상급기관에서 받고 하는 등이 모두 그 댓가를 지불해야기때문에 병원당국이 시장가의 회수를 요구하였죠. 오히려 승낙 받은 매매 행위이니 당당하였죠(L1증언, 2014.09).

2004년도에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는데 난산이라고 의사가 겁을 주었어요. 마취약도 없대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마취약을 구입하여 수술을 받았죠. 병원 공급약으로 3일간은 항생제를 맞았어요...결국 내가 장마당에서 구입한 마취제로 마취가 약하다고 나는 침대에 손과 발이 묶이워져 고향을 지르며 어려운 1시간 반 동안의 제왕절개술 끝에 난산하게 되었어요. 다음 완치될 때까지는 전부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여 맞았어요(혜산거주주민증언, 2014.09).

현재는 국영약국의 출현으로 개인 약장사들이 위축되었죠. 왜냐하면 개인 약장사들의 약보다 동일가의 국영약국의 약을 더 선호하니까 거기로 쏠리거든요. 개인은 위축되고 반면에 국가가 자리잡는거죠(청진거주주민, 13년 탈북, 2014.09)

북한의 비공식 민간의료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표 3-3-4>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약품의 약값이 남포-청진시장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 약값은 새로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의 가격과도 동일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적 실례를 통하여 비공식의료시장이 국영 화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당국의 국영시장 화하여 개인들이 매매행위로 채워가는 이득을 국가가 취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가 UN을 비롯한 남한지원약품들에 대한 댓가를 경제적 부로 교환하여 부가가치를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교육강령집행의 상업화현상이 노골 화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교육에서 특이한 것은 봄과 가을에 농촌지원 명목의 노동교육이 교육강령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북한당국이 이 100여일이라는 기간도 상업적 목적으로 환원하였다는 것이다. 예하면 농촌이나 동약 관리소에 동원되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기존의 노력동원방식을 실리추구의 과제물을 할당하여 수거(收去)한다. 예하면, 의학대학생들에게 약초동원날짜를 주고 날짜 당 약초 과제를 부가한다는 것이다. 학생은 그 기간 동안에 과제수행을 위하여 장사를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물만 갖다 바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탈북의료인의 증언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기존처럼 대학교에서도 학급이 집체적으로 어느 농장이나 동약관리소에 약초채취나 재배에 동원 안 돼요. 그냥 과제를 받고 자기 집에 가서 그 과제물을 기한 내에 구입해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농촌(약초)동원기간을 대처해요. 일종의 외화벌이 방학인 셈이죠. 돈 없는 집 애들은 자기들이 장사거리를 만들어 해가지고 구입하지 않으면 산에 가서 약초를 캐거나 재배하여 학교등고 일까지 만들어 내놓아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는 모든 교육이나 시간들이 돈으로 계산되는 셈인 거죠(K5증언, 2014.09).

이는 국가가 개인들의 私費를 일일이 챙겨 하나라도 더 국가가 장악취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결국에는 국가가 탈(脫)사회주의화를 선도하여 주도함으로 풀이된다.

3. 보건의료(무상치료제)의 변성이 주는 시사점

전술한 북한의 보건의료의 복합적인 현상들을 통하여 북한이 시도하였던 ‘무상치료제’는 대내외의 시스템의 붕괴와 마비로 경제난 등에서는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물론 시스템과 보건일군의 직능과 역할 등을 고찰할 때 보건의료에서의 ‘무상’으로의 치료와 복지에 이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 당위성은 익히 ‘찬양’할만 하오나 모든 복합난재 하의 현존 상태에서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화려한 무늬’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1) 의약품의 시장출현으로 인한 진료유지

북한은 보건의료에 미친 악조건과 기아와 빈곤 등에도 불과하고 기존의 순화적인 순기능 하에서의 보건일군들의 직능과 역할을 고집하고 강요한다. 의료약품과 기자재의 미공급의 상황에서 환자들의 유병율은 시장의 의약품 출현으로 해결한다. 시장단속은 이제 더는 통제불능이 되었으며 유일한 해결사가 되었다.

2) 새로운 의사-환자관계로 생계사슬 형성

그럼에도 보건의료계에서는 무상치료제를 견지하라고 통제한다. 의료인력들의 생활고 해결이 없는 외형상의 병원운영과 환자진료 일면만을 강요하고 통제함으로부터 그 수호자로부터 출구를 모색한다. 그 출구모색으로 새로운 의사-환자관계의 생계사슬이 출현하고 형성된다.

이러한 출구모색으로하여 의사들은 외형상의 보건의료계를 고수하는 표면상을 유지하며 내용상으로는 생계위주의 내실화를 추구한다. 현 상황들은 북한당국은 자신들이 반대하고 부정한 자본주의를 자연발생적으로 발산(發産)시켜 탈 사회주의를 가속화시킨 셈이다.

3) ‘민간을 벤치마킹’하는 국가

따라서 북한사회나 현상들의 자본주의화, 즉 탈사회주의화는 이미 위기대응의 북한당국이 코너로 몰아간 결과이며 이는 당국이 자처하고 유인하고 지향한 자본주의 이행의 자발적인 이행루트(root)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추이는 금후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지향의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4. 향후 보건의료계의 전망유추

민간의 시장 경제의 장점을 수용한 국가가 택한 자본주의 경제제향이야말로

향후 보건의료의 전망이라고 유추하게 된다.

예측불허의 엄청난 난재 하에서도 북한은 이제 견딜능력을 가졌고, 그 기본 매력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찾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야말로 복합적인 악재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인 것이다.

민간이 스스로 찾고 활용한 장마당에 의한 수지(收支)발란스가 바로 수요와 공급의 자본주의 균형(均衡)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당국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지속해야 한다고 통제와 강요를 거듭하였지만 그 해결은 장마당을 통하여 거뜰히 해결하였다. 국가도 그 매력을 뒤늦게야 인식하고 바로 도입하였다. 민간이 정한 물가를 그대로 가감(加減)없이 도입하였다.

현존하는 북한의 교육계나 보건의료계 등의 전반적 분야에서 비록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추이이지만 전망적으로는 일반화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다.

왜냐하면 전반적 부문을 포괄하고 주선하는 그 매개체가 다름아닌 통화(通貨)에 의해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 통화재원이 바로 장마당에서 재생산되는바이다. 결론적으로 통화의 재생산의 재활용이 바로 북한사회와 경제를 되돌려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Method)이며 수단이기 때문이다.

제4장 남북 보건의료의 통합방안 모색

제1절 남한의 보건의료인력교육

먼저 남한의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을 살펴보면 남한의 보건의료인력 교육기관으로는 의학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 약학대학, 보건대학 등이다. 여기서 의학대학은 41개개이고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이 10여개, 약학대학은 19개다.

학교마다 커리큘럼과 교과목은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교과목과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다⁸⁵⁾.

아래 <표 4-1-1> 의학대학교과목의 수강과목들에 청진 의학대학의 1996학년도 의학대학 교육교과목과 객관화를 위해 2009학년도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교육교과목들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학제는 남과 북 모두 6년제였다. 아래 <표 4-1-1>는 탈북의사들의 증언과 탈북의사의 학업성적증명서(2000)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커리큘럼(2007)을 토대로 아래의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85) 이해경의 위의 글, pp. 145~146.

〈표 4-1-1〉 남북한 의학대학의 학과목비교

	북한	남한	비고
1	김일성주의로자	×	환자-의사-사회
2	김일성주의화기본	×	지역사회의학
3	김일성혁명활동	×	의학의 새지평
4	김정일혁명활동	×	의공학
5	김정숙혁명활동	×	직업환경의학
6	주체철학	×	의학연구
7	주체정치경제학	×	중환자관리
8	조국통일 및 남조선문제	×	임상특과
9	미일제국주의 침략사	×	
10	론리학	×	
11	심리학	×	
12	체육	×	△
13	제 1외국어		자율
14	제 2외국어		자율
15	한문	×	종양학
16	수학		혈액학
17	물리학		핵의학
18	화학	×	△
19	프로그램작성법	×	
20	생물학		마치통증의학
21	전자의료기구학	○	영상의학
22	해부학	해부학	○
23	조직학	조직학	○
24	생리학	생리학	○
25	생화학	생화학	○
26	미생물학	미생물학	○
27	병태생리학	병태생리학	○
28	기생충학	기생충학	○
29	병리해부학	병리해부학	○
30	약리학	약리학	○
31	유전의학	의학유전학	○
32	내과진단학	호흡기-소화기-비뇨기	○
33	외과진단학	흉부/성형/신경	○

	북한	남한	비고
34	방사선학	방사선종양학	○
35	계량진단학	진단검사의학	○
36	위생학	예방의학	○
37	고려의학	×	종합임상의학
38	정신과학	정신과학	○
39	신경과학	신경과학	○
40	내과학	내과학	○
41	외과학	외과학	○
42	산부인과학	산부인과학	○
43	소아과학	소아과학	○
44	전염병학	전염병학	○
45	간염/결핵	간염/결핵	○
46	피부/이비과	피부/이비과	○
47	광천물리치료학	×	△
48	침구학	×	
49	보건경영학	×	△지역사회의학?
50	군사학	×	

남한의 경우 북한의 정치사상과목 12과목 중에 매치되는 과목이 하나도 없었고, 단, 순수 의학 지식이나, 의술 행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을 제외할 경우 교양과목의 일부(환자-의사-사회, 의학의 새 지평, 지역사회의학, 의공학, 직업 환경의학 등)가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환자-의사-사회 과목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강이 계속되므로 전공과목보다 중요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김일성 노작이나 혁명활동 과목수강과 비교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통하여 남한의 의학교육에서도 인성교육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남한에만 개설된 의학교과목으로는 종양학, 마취 통증학, 가정의학과 과목들이 있는 반면 북한에서 특별히 개설된 교과목이 있다.

이는 고려의학, 침구학 등 6개 과목이다. 이는 남한에서는 양·한방이 교육시스템에서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북한은 양한(洋韓)방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의 병치료에 다각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한다. 이 부분이 엄격히 구분된 남한의 의사계를 분리시키는 대목이다.

다음 병리 해부학 과목을 비롯한 인접과목들은 과목명의 차이이고 선택영역의

차이일 뿐이라고 유추된다.

이를 통하여 남한의 의학교육이 북한의 의학교육에서 미취급과목의 윤리과목들이 두 김부자우상화 과목 만에 치중되어 중시됨이 큰 차이이다. 이러한 과목편중사태가 금후 통일한국지향에서의 문제의식을 시사하는바가 크다.

제2절 북한의 보건일군양성

1. 의·약학대학의 자격유형

1) 의사

북한의 의과계열대학은 크게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으로 구분되는데 13개의 의·약학대학이 존재한다. 각도에 1개씩 의학대학이 있는바 평양에 평양의학대학과 평양외과대학 2개가 존재하며 함흥에 1개의 의학대학과 약학대학 등 2개의 의·약학대학이 2개가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사리원에 사리원의학대학과 장수약학단과대학이 2개가 존재한다. 다음 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역시 각 도에 1개 이상이 존재하여 보건일군교육을 담당 수행한다. 학생은 일반적으로 한 학년에 200~300여명씩이며 학교 전반학생은 평균 1000여명가량 된다⁸⁶⁾.

북한의학대학의 학부와 교육기간을 살펴보면 80년대 중반부터 6.6개월~7년(제대군인)에서 6개월 감축되어 6년으로 되었다. 이는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이미 고등교육을 다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들에게 고등수학을 비롯한 수물계통을 취급하는 1학년 일반과목의 감축이 필요하였으므로 파악된다.

결과 이때부터 의학대학 과정은 6년으로, 이 과정안 졸업자들은 6년과정을 이수한다. 고찰한 바에 의하면 현재도 6년 기간은 변함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추리로 유추하면 2012년 9월 발표한 12년제 의무교육의 시행으로 13년부터의 교과정이 수정 집행된다면 그로부터의 배출된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에 한하여(12년 후에) 각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조종진행될 것이라고 유추된다.

북한의 의학대학의 학제와 취득자격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1>와 같다⁸⁷⁾.

86) 이해경 위의 글 p.69.

87) 위의 글, p.72.

〈표 4-2-1〉 의학대학의 학부, 교육기간, 자격유형

학부별		취득자격	교육기간
의 학 부	기초학부	진급	3년
	임상의학부	임상의사	기초포함6년
	고려의학부	고려의사	상동
	구강의학부	구강의사	5.6년
	위생의학부	위생의사	상동
약 학 부	신(양)약학부	약제사(新)	상동
	고려(한)약학부	고려약제사	상동

<표 4-2-1>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한의 의학대학과는 달리 의학대학의 학부들이 임상의학부, 고려의학부, 구강학부, 위생학부등의 구성이 집합된 종합대학(university)형태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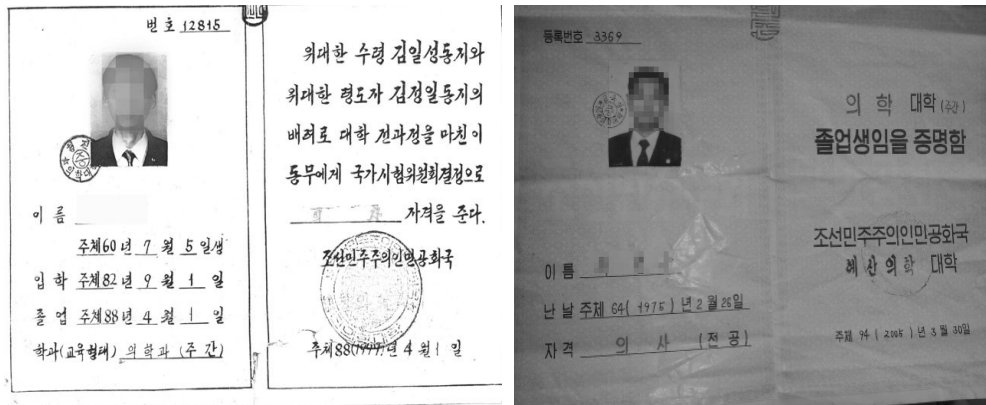
의학대학들은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의학대학은 6.6년에서 6년으로 교육기간이 감축되었다. 의외로 평양의학대학은 6.6년까지 수학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잦은 행사관계로 교육요강 집행의 미비시를 대비해 7학년까지 있다는 증언도 있다.

2000년 4월 입학하여 06년 10월 졸업하였는바 이는 학년마다 달라요 평양은 매해마다 정치행사들이 수회 진행되고, 이럴 때면 미진된 수업요강을 집행하느라고 교육기간이 연장되곤하죠. 하여 우리대학은 7학년까지 있어요...⁸⁸⁾

청진의학대학의 졸업증을 통하여 입학기간과 졸업연월일을 보면 5년 6월이 수학기간이었음의 증명이다. 이는 이시기부터 북한은 9월 입학제에서 4월 1일 입학제로 이전되었던 시기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5.6년으로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아래 <그림4-2-1>에 청진의학대학(93-99)과 헤산의학대학(99-05) 의학대학 졸업증을 살펴보고 수업연한과 졸업증기재 현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88) 06년도 평양의학대학 졸업자 증언.



〈그림 4-2-1〉 의학대학 졸업증

또한 청진의학대학 졸업증과 동시에 입학하여 졸업한 혜산의대의 졸업증을 통하여 의학교육 대학기간이 6년으로 확정된다. 또한 졸업증을 통하여 북한이 졸업증에 문구에서의 정치성이 많이 생략과 은폐가 있음이 확인된다. 예하면 상기 <그림 4-2-1> 의학대학 자격증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등의 정치성위주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생략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평양의학대학의 취업 전 교육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2008년 자료⁸⁹⁾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교직원 및 학생: 이 대학은 5년 6개월 과정으로 각 학년 학생 수는 대략 600명 정도이고, 전체 학생 수는 4,500명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 입학인원이 1,000명에서 점차 줄어들었다. 남녀 학생 구성비는 동일하다. 10개의 교수단에서 근무하는 교원 수는 700명에 이른다. 이들을 또한 커리큘럼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저자들이기도 하다.

각 의학대학별 학생 배출현황을 살펴본다면 대학마다 배출수량에서 상이하였다. 청진의학대학은 年양성배출이 200여명인데 혜산의대는 100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런가 하면 2004년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탈북의사⁹⁰⁾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의학대학의 학제는 6.6년이었으며 학생수는 임상학부 10개학급으로 30명이어 한 학년에 7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의학대학 중에서 학부와 학과가 가장 많고 그에 따라 많은 학생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들의 주민인구수

89) 중기 인적자원 개발계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건복지부, 2008-2010), p. 17.

90) 김○○, 2000-06년 평양의학대학 임상학부 주간 졸업-한개 학년 재학생이 700여명으로 전 교생은 5000여명인 것으로 증언: 임상의학부, 구강, 위생, 고려, 약학, 기초, 체육의학부 등 7개학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를 고려한 교육국의 收支발란수에 의한 계획지표에 의거함이다.

각 대학을 졸업한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해 작성된 본 <표 4-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진, 혜산(위생학부, 약학부가 없음⁹¹⁾), 평양의학대학들의 졸업생배출수는 각이하였으나 매 대학의 학년 수는 일정하다고 한다. 이는 학생선발과 양성사업들이 중앙교육부와 보건부의 의료인력균형 발란수를 고려한 의학교육 지침에 준수됨을 시사한다.

<표 4-2-2> 각 대학별 졸업생수와 학생총수(추산)

대학명	입학연도, 월 졸업연도, 월	학년 학생 수	그 중		대학 총학생 수
			남	여	
청진의학대학	82.9 88.4	350	1~1.5	1	1500명(6.6)
	95.9 03.3	210	1~1.5	1	1000명(6.6)
	96.9 02.3	230	1~1.5	1	상동(6.6)
	90.9 97.8	400	1	1	2000명(6.6)
함흥의학대학	98.4 04.3	110	1~1.5	1	500여명(6.0)
	00.4 06.3	120	1~1.5	1	상동(6.0)
	99.04 05.03	110	1~1.5	1	상동(6.0)
	55.9 60.9	300	3	2	(5.0)
평양의학대학	58.9 63.8	260	1	2(위생 학부)	(5.0)
	00.4 06.10	700	5	2	5000명(6.6)

본 <표 4-2-2>를 통하여 대표적으로 청진의학대학의 학생수를 통하여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이전보다 학생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본데 의하면 임상의학부가 8개학급에서 6개학급으로, 대신에 고려의학부가 한 개학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난을 의식한 고려의학의 제창의미를 부각시키는 반증이다.

91) 혜산의대, 혜산의학대학 졸업생들 증언(<표1-1> 참조)

<표 4-2-2>를 통하여 주간대학생들과 비례하여 배출되는 통신과정과 특설학부생들의 숫자를 환산⁹²⁾하여 매해마다의 보건의료인 배출숫자를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출된 북한의 보건일군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OECD/WHO보고서(2012)⁹³⁾에 따르면 북한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3(2011년)명으로 OECD 평균 3.1명보다 높으며 아시아 22개국의 평균 1.3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2) 약제사

북한의 약제사양성과 배출현황을 살펴보았다. 약제사는 각 대학들에 있는 약학과들에서와 함흥고려약학대학 사리원장수약학대학에서 양성되어 충원된다.

약제사들의 자격유형과 교육기간들을 탈북약제사⁹⁴⁾들의 증언을 취합하여 작성한바 아래의 <표 4-2-3>와 같다.

<표 4-2-3> 약학대학의 학부와 자격유형

	대학별	학부별	취득자격	기간	
1	함흥고려 약학대학	약학부	약제학과	약제사	(6년)5년
			고려학과	고려약제사	
		의료기구학부		의료기구공학기사	
		합성학부	합성학과	합성공학기사	
			생물약품합성학과	생물약품공학기사	
		항생공학과	항생공학기사		
2	각 도 의학대학 약학부	약학부(신)		약제사	(6.0)5년 6개월
		고려약학부		고려약제사	
3	사리원 장수약학대학		고려약제사	4년	

<표 4-2-3>에서 보는바와 같이 남한의 약학대학의 단일학과에 비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함흥고려약학대학은 3개학부 6개의 학과로 세분화되었으며 한해의 졸업생수는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⁹⁵⁾되었다. 그에 따르는 자격유형도 다양하다. 즉 약학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각 병원에만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공장과 화학공장들에 공학기사로도 충원된다. 약제사와 고려약제사는 병원단위들에 충원

92) 추산해본데 의하면 매해 평균 $300 \times 13 \approx 10,000$ 명의 졸업생이 배출됨을 유추되는데, 주간=통신+특설 입을 감안해보면 한해 평균 2만명의 상등보건일군이 배출됨을 알 수 있다.

93) OECD/WHO,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2012.

94) B1, L1 등 약제사-함흥약학대학, 청의대 약학부, 장수약대 졸업-들의 증언.

95) B1증언.

가능하며 합성공학기사 등의 기사자격자들은 각 제약화학공장들에 기사로 배치·충원되어 활약하게 된다.

약학대학에서 취급하는 교과목들을 보면 다음<표 4-2-4> 함흥약학대학의 교과목들과 같다.

〈표 4-2-4〉 남북한 약학대학 교과목 비교

No	북한과목	유무	남한과목	No	북한과목	유무	남한과목
1	김일성노작		채플, 교양과목 1,2,3학년	23	생물약품화학	△	
2	김정일노작			24	생화학	○	생화학
3	현행당정책			25	신약학	○	약전
4	철학			26	신약학실습	△	위생약학
5	정치경제학			27	신약화학	○	
6	외국어	×		28	동약학	○	생약학
7	라틴어	×		29	동약학실습	△	
8	체육	×		30	동약화학	△	
9	수학	×		31	약용식물학	○	약용식물학
10	일반화학		32	약용식물학실습	○	약용식물학실습	
11	물리학	○	약품물리	33	약제학	○	약제학
12	분석화학	○	분석화학	34	약제학실습	○	약제학실습
13	분석화학실습	○	분석화학실습	35	조제학	○	조제학
14	유기화학	○	유기화학	36	조제실습	○	조제실습
15	해부학및실습	○	해부학및실습	37	제제학	○	제제학
16	약리학	○	약물학	38	제제실습	○	약국실습
17	약리학실습	○	약물학실습	39	약무경영학	○	약품관리학
18	정성분석	○	정성분석	40	독성학	○	독성학
19	정량분석	○	정량분석	41	미생물학	○	미생물학
20	계기분석	○	계기분석	42	병리학	○	해부학
21	합성화학	○	유기화학약품화학	43	항생소약품	○	향장품학
22	전기전자제도	△		44	군사학	×	
	졸업논문	○	졸업논문	45	약무설계	△	약사법규

<표 4-2-4> 남북한 약학대학 교과목 대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약대(6→5.5년)커리큘럼의 교과목과 남한의 6년제커리큘럼의 교과목대비하여보았다. 남한

의 4년제약대에서 6년제(2+4) 약대커리큘럼의 4학년에 주로 실무실습들이었다. 학과목비교로 보았을 때 전공과목들에서의 상이점은 동약학부분이 조금 생약학으로 한학기만 취급될 뿐이지 상이한 차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함이었다.

전술된 자료들을 취합해볼 때 의사양성의 의학대학 진학을 분석에 의하면 모든 약재조건하에서도 의학대학진학에 대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관심도와 지향은 여전히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현실이다. 의사양성의 의과대학 주간학부만이 가능한 남한과 달리 북한에는 대학과정에 특설학부(속성교육-3~4년제)와 통신학부(현장교육-6년과정:1년에 40일 공부하는제도) 등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중등보건일군 양성의 준의제도가 존재하는 점이 새롭다.

2. 중등보건일군의 자격유형과 배출

중등보건일군의 양성기지인 의학전문학교이다. 의학전문학교는 각 도에 1개 이상이 존재한다. 아래의 <표 4-2-4>에 북한의 중등보건일군들의 교육기관들의 지명과 기간들을 살펴보았다.

의학전문학교에는 간호학과와 양성학과가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보건간부양성소도 존재한다. 의외로 평양과 사리원에는 4~5년제의 단과대학유형이 존재한다. 또한 각 도마다 보건간부학교와 간호원학교들이 1개 이상이 존재하여 보건일군들의 양성을 도모한다. 의학전문학교의 학제는 초기에 3년이었던가 그 후에 4년(준의사/준약제사)이 다시 1985년도⁹⁶⁾부터 3년제(준의/조제사)로 된다.

85년부터라고 생각돼요. 경성의학전문학교가 그 전에는 경성고등의학전문학교였는데 4년제에서 3년제로 바뀌면서 학교명에서 ‘고등’자가 삭제되어 명명되더라고요. 또한 학제개편과 함께 양성소에서 취급되던 학과들이 대거 인입되어 간호원반을 비롯한 조산원과, 보철과, 안마과 등 들의 2년제 양성과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원래는 청진시에 있는 보건간부양성소에서 다루어지던 학제들이었다고 해요.

매 학교의 졸업생배출은 함경북도의 경성의학대학이 200여명으로 의학대학의 졸업생수와 유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학과는 의학대학의 학과유형과 유사하다. 그 학과들을 살펴보면 <표 4-2-5>와 같다.

96) 1975년부터 북한의 전반적 11년제(학교전 1년교육)의무교육(5년제고등중학이 6년제로) 개시되었다. 이때의 입학생들이 85년에 졸업하는바 그 해부터 전문학교와 대학들의 학제개편이 진행되었다. 대학1학년에 취급하던 고등수학, 물리과목(이미 고등중학교 6학년에 취급)들의 단축?되어 한해가 감소하게 됨. 이는 전문학교 4년제-3년제로의 이행으로 됨.

〈표 4-2-5〉 (고등)의학전문학교의 학과와 교육기간, 자격유형

전문학과(4년)3년				양성과(2년)				
임상학과	고려학과	구강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조산원과	보철과	안마과	렌트겐과
(4년) 3년	(4년) 3년	(4년) 3년	(4년) 3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임상준의(사)	고려준의(사)	구강준의(사)	(준약제사) 조제사	간호원	조산원	보철사	안마사	렌트겐기수

2000년 이후의 탈북의료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전히 의료부문 대학과 전문학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식량난 전과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적인 선호도를 가진다는 증언들이다. 이는 악조건하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발란스가 보장된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제3절 통합방안 모색

북한의 보건일군들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 비교적 정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이 되면 필히 재교육시스템을 수학해야 된다. 뿐 만아니라 3년 격으로 의(약)사 급수시험을 치루는 실력고양후속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후속교육시스템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자질향상과 과학기술취득을 위해 부단히 학습해야 한다.

통일 통합후의 남북 간의 격차가 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평준화에 대한 모색에서 이러한 사후관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남북 간의 보건의료인력 통합에서 나서는 문제

1) 동질성 회복

남북한의 보건의료부문의 통일·통합을 고려하여 나서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진다. 그것은 첫째로, 보건의료의 학문적언어가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용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의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에서 시작된 원조가 독일(Germany)⁹⁷⁾이라

97) 의학의 원조는 독일이다. 북한의 의학교육은 소련의 의학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전수하였다. 그런데 소련의 의학교육시스템을 독일에서 전수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는 점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세부적으로 병명들과 약명들이 동어⁹⁸⁾로 통용된다는 사정이 동질점을 포괄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의 교육을 고찰할 때 박형우는 남북한의 의학교육이 대동소이함의 표현을 적용하였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봐요. 분단초기에 남한의대 교수들이 북행하여 최초의 평양의과대학의 교육진영의 초석이 되어 북한에 투영되었듯이 또한 정전전후의 북한의사들이 해외에서의 과학토론회도 많이 가졌다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을 추월하여 세계와도 어깨 나란히 과학기술의 실력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즉 통일대비에서도 남북한의 갭은 극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며 조금만 노력하면 함께 해나가는데 우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요(H1증언, 2014.09)

둘째로, 세계보건의료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라는 하나의 작동기구에 의한 감시와 관리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하나로 통솔되는 보건의료의 통합관리의 순화기능이 동질성에 비롯되는 점이다.

2) 극복해야 할 문제점

(1) 설비와 기구장치의 미비

북한의 보건의료현황을 남한과 대비하여볼 때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단적으로는 의료장비와 기구들의 구비상황이다. 재북 의료인들을 통한 남북통합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 취합에 의하면 보건의료에서 A, B, C로 가정한다면 남북한간에 보건의료에서 A, B, C는 같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A', B', C'에서 북한은 소외된다는 소감이다.

북한에서 제가 X-ray 의사로 있을 때 그 기계는 60년대 체코제로서 아주 오래된 장비였으며, 때문에 고장이 잦고 잦은 정전사고에 의해 기계가 많이 마모되어 다루기가 참 까다로웠죠. 남한의 버리는 의료기기와 장비들이라도 북한에 있다면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꺼라고 생각되요.(H3증언, 2014.09)

2년간의 의사국가고시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남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신비성으

의학교육이 전혀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98) 북한에서는 비록 라틴어를 의학공용어로 배우지만 남한의 영어지향의 (스펠링이 같음)가 없고 단지 발음기호상 미소한 차이가 무시될 정도이다.

로 감히 엄두를 못내었는데 알고보니 원리는 같은데 어떤 환경하에서 어떤 기구들을 활용하여 의료활동을 하는가가 문제인듯해요. 예하면 A,B,C는 같은데 A'B'C'에 문외한이라는 것입니다. 1년차가 다르고 2년차가 다르다는걸 인지하게 됩니다. 통일, 통합시 만약 남한의 시스템이 장착가정시 북한의 보건일군들은 적어도 6월(月)이상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C3증언, 2014.09).

전술한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미비점인 설비장비와 기구의 미비에 대한 보완이다. 한국에서의 구(久)의사들과 현대신(新)의사들과의 차이점은 기계를 다룰줄 알고 모르는 차이라는 것이다.

역으로 기존의 문진(文診), 타진(打診), 청진(聽診) 등에 익숙된 의사들, 즉 북한의 의사들은 기구장치들에는 문외한이므로 통일이후의 진료행위에서는 소외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기구장비들의 보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존 의사인력들에게는 문외한이다.

역으로 남한에서도 머리와 마음으로 진료하던 구의사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 바로 북한현상이다. 기계와 디지털화된 현대의학의 지평을 열어가는 앞서가는 기구나 설비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통합시 보건의료에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장비와 기구장치의 보완작업이다. 이 사업을 선행할 때 남북한 보건의료의 원만한 순기능의 발전상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의 선행을 위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교류와 협력에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0번을 북한에 다녀 온 한 재미교포는 처음에는 북한에 약품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최근에는 미국에서 폐기된 의료기기나 기계설비(현미경에서 CT기 등)들을 수리하여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작동원리들을 전수하여 준다고 하였다.

(2) 교육의 생략과 비약문제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은 상술된 자료에서 읽었듯이 짧은 기간 내에 대량배출의 현저한 성과지향에 경주하여 OECD국가들 조사에서 인구 만 명당 의사 수(33명)에서 평균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저한 성과에는 음성적인 의학교육의 생략과 비약이 녹아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남북한 의대 과목수 비교에서 보았듯이 전공 선택과목들을 비롯한 일부 과목들의 부재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일단은 보여지는 미비와 또한 무시된 과목 등의 무시

(無知)가 미소하게나마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중시하는 사상과목들에 대한 비중 24%에 의한 여타과목들의 무시에 의한 부족과 부실이다. 따라서 남한의대생들과 견주는 의학지식의 탐독에 대하여 미흡함이나 부실함이 드러난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을 고려할시 분명한 그들에 대한 보수교육의 절실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인식과 이해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긍정을 극대화하고 부족점을 간소화해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북한의 재교육시스템을 재활용하여 계승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기존시스템 활용의 의(약)사 재교육대학

1) 재교육대학

1980년대 중반 들어 전국의 보건일군들에게 재교육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바, 처음엔 상급(3급 이상)보건일군들은 평양의사재교육대학에서 진행하였으며 4급부터는 관할 도(道)의 재교육대학에서 재교육 받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재교육(on-the-job training)은 현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의 지속학습으로 그들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재교육대학이 운영된 이유는 기존의 보건일군들에 대한 보수교육보다 현대적인 외국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의 도입과 공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며 아래의 문헌의 인용⁹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100만 인텔리 대군을 재교육할데 대한 김일성의 언급직후부터 이 제도가 강조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3개월의 기간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재교육 시스템은 6개월로 확대되었다.

처음 정규교육이수과정은 대학졸업 5년 이상 된 상급보건일군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교육을 강요하였어요. 재교육대학은 처음 평양에만 있었는데 이 시기에 각 도들에 평양의사재교육대학 분교가 신설되어 운영되어 3급 이상 의사들은 평양의사

99) 현직보건일군에 대한 재교육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의학과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조건에서 현직보건일군들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일 수 없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치료예방사업을 잘 해나갈 수 없습니다. 보건부문에서는 현직보건일군에 대한 재교육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들을 의사재교육대학에 보내여 공부시키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93.

재교육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4급부터는 각 도들에 있는 재교육대학들에 교육받게 하였죠. 기간은 3개월, 6개월 기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래 의사재교육대학에서 3개월 코스로 입학통지서가 와서 교육받다가 도저히 3개월로는 안 된다고 다시 6개월로 연장하여 진행하였어요 (C2증언, 2014.08).

함경북도 의사재교육대학은 1980년대 말엽에 청진 보건간부학교 건물에서 처음 시작되었죠. 위치는 청진시 포항구역 남양동에 있으며, 대학의 교직원은 40명 정도이다. 학부보다 강좌들로 구성되었는데, 외과강좌, 내과강좌, 외국어강좌, 구강강좌, 사회강좌로 구성되었다. 매 강좌에 각 과목담임교원 5명이상이 근무하고 경리과에 10명 정도가 근무해요 (H2증언, 2014.08).

전술된바와 같이 기존에 장착된 북한의 의료인력의 사후관리 시스템(재교육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함이 통일과정에서의 전략이라고 본다. WHO의 이에 대한 보고 자료¹⁰⁰⁾가 이를 입증하여 준다.

의사재교육대학의 시작초기에는 현직 보건일군, 의(약제)사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영입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재교육대학의 기능보다 특설교육과 통신교육이 더 우세하여 이바지하였다. 대학행정을 보면 대학장아래 교무부 지도원이 초급당비서 겸직하기도 한다. 아래에 당시 재교육대학 교원직의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표 4-3-1>재교육대학의 강좌들을 작성하였다.

<표 4-3-1> 재교육대학의 강좌들

함경북도 재교육대학의 강좌들 (1989년 당시)	학부장
	초급당
	내과강좌
	외과강좌
	구강강좌
	사회강좌
외국어강좌	

100) 여러 국제기구들이 북한 의료인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WHO는 매 2년마다 135명씩 국제단체에서 2주에서 2년간 교육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 재교육센터는 평양의대 안에 위치해 있지만 대학이 아닌 보건성의 지휘를 받는다. 독립병원과 국립병원의 전문의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강사진이다. 재교육과정이 끝나면 시험을 보고 우수한 의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지정된다. 중기 인적자원개발계획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2008- 2010), p. 20.

위의 <표 4-3-1>함경북도 청진의사 재교육대학의 구성과 교육 형태들을 H2의 증언에 의해서 살펴보았다.

의사재교육시스템이 전개되고 활성화 되면서 거둔 성과들에 대한 『조선중앙연감』의 언급과 같이 초기에 재교육시스템은 연한이 오랜 의(약)사들 속에서 많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대학은 도안의 의학대학을 졸업한 현직 의료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의학대학 특설교육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통신교육기지로 되었어요.. 30여명의 교원들이 결국에는 의학대학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의 특설교육, 통신교육을 담당하죠. 매 강좌들에 5명 정도의 교원들이 학생들에 대한 의대과정의 교과목교육을 담당한다. 통신학부생들도 재교육대학에서 교육받기도 하는데, 단 이곳에서 교육받는 통신학부생들은 준의 이상의 중등보건 일군으로서 3년간의 커리큘럼을 소화해 내야 해요. 대학의 학생들은 대략 500~600명 정도인데 훗날 보건간부학교 시스템을 부가하여 예하면 간호원과, 조산원과, 보철사, 안마사 등의 학과들을 포함해요(H2증언, 2014.09).

“국가 재교육센터는 평양의학대학 내에 위치해 있지만, 대학이 아닌 보건성의 지휘를 받으며, 독립병원과 국립병원의 전문의들이 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강사진”¹⁰¹⁾이다. 재교육 과정이 끝나면 시험을 보고 우수한 의사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지정된다. 이러한 재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내세우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권장사항¹⁰²⁾들과 아래와 같은 언급도 포함한다. 남한의 재교육권장사항의 요구를 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바로 북한 보건의료교육실정이다. (축약)우선순위 활동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WHO도 전자도서관에 들어 갈 자료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¹⁰³⁾

1990년에 청진의사재교육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탈북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101) 최신 치료방식을 업데이트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제도적인 교육메커니즘이 전문기술의 발전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전담교육의 새로운 정보를 전파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102) ①국제협력력을 강화하되,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②기존의 가정의 보충교육의 질을 검토할 것-커리큘럼이 실무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 ③가정외에 대해 능력 중심의 보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④최신 정기간행물과 임상지침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와 군병원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할 것을 내재한다. 중기인적개발계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08-2010), p. 21.

103) 위와 같은 글, p. 35.

병리해부학, 병태생리학 등 과목들과 군진의학과목이 새로 첨부되었다고 하였다. 군진의학은 북한이 1990년대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는 과목이었는데 주로 전시를 대비하는 군의 프로그램을 다룬다. 특이한 것은 일단 유사시 핵무기, 생물 무기시 해제법 등 과목이 강조되어 취급된다.

재교육대학에서 수강하는 교과목들로는 전공에 따라 다른데 내과전공이었으므로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와 그 시기에 새로 생긴 과목인 알레르기과가 있었고, 강의는 의학대학의 급수 높은 교수, 박사들이 강의를 대학병원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위주로 하면서 진행했죠. 다음 기능 진단과와 광천물리학(렌트겐, 심전도 등)이 있었고 고려학과목에 비중을 많이 두었지요. 다음 최근 세계적인 과학기술 현대 추세들에 대한 소식들과 해설들을 동반하여 의학대학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위주로 하였고, 다음 외국어 1, 2 전공에 따라 강의 받았어요(K1증언, 2014.09).

전술자료는 90년도 초까지 정상적이었던 재교육제도였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 의사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의사재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는 편이지만 누구도 거기에 응하려는 반응도가 저조하다는 전언들¹⁰⁴⁾이다. 따라서 재교육을 경험 못한 최근 탈북의사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하기에 재교육대학 건물도 타건물로 바뀌는 등 의사재교육의 실체는 축소되는 추세라고 한다는 증언들이다.

2) 급수시험시스템

북한의 보건일군 관리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급수시험이 없는 남한과 달리 3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급수시험을 통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자질향상과 기술제고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부단히 자질향상을 요구한다.

보건일군의 급수시험은 의(약)학대학을 졸업한 자, 즉 의사(임상 의사, 고려 의사, 구강 의사, 위생 의사)와 약제사(양약제사, 고려약제사, 합성기사, 의료기구 공학기사 총괄), 그리고 의학대학 교원, 연구사들이다.

아래의 <표 4-3-2>에 탈북의료인들의 증언에 의한 표를 작성하였다. 표에서는 상등보건일군의 급수시험제도 현황으로 시험이 3년 격으로 이루어지고 최저 6급에서 1급까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중등보건일군과 간호원 등 노동자들에게는 보건 의료인력의 급수시험에서 보는 것처럼 의학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의 급수는

104) C3증언.

6급이다. 6급의사는 매 3년마다 급수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한 등급 상승하거나 현상을 유지(시험점수가 낙후하거나 미응시일 경우)한다.

급수시험에서 4급까지는 시험 성적만으로 승급이 가능하지만, 3급부터는 의학 과학기술의 학위논문 제출과 같은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와 상응한 치료에 방실적(實跡)이 따라야 한다. 최근 탈북한 의료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급수시험제도가 아주 이완되었다는 전언이다. 탈북의료인들의 증언에 의해 <표 4-3-2> 보건 의료 인력의 급수시험을 제시하였다.

<표 4-3-2> 보건의료 인력의 급수시험

자격유형별	대학졸업 후 6급(3년)	5급 (3년)	4급 (3년)	3급 (3년)	2급 (3년)	1급 (3년)
의학대학교원, 연구사						1급
					2급	
			4급	3급		
		5급				
의사, 약제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준의사, 조제사	X					
간호원, 양성인력						

의(약제)사의 급수는 6급→5급→4급까지는 비교적 원활하나 3급부터는 무척 까다롭죠. 우선 3급이 되려면 의학잡지를 통한 소논문 기고가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한 연구업적이 안 받침되어야 하며 매 급수별로 시험문제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3급부터는 고도의 자질과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충족시켜야 해요. 3급의(약제)사는 구역, 郡급의 병원들에 10명 미만이 존재하며. 리, 지구병원들에는 극히 희박함은 당연하죠(C2증언, 2014.09).

3급 이상부터 자질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해당분야의 학회 출현건수, 소 논문

등을 대학심의에서 인정받은 건수, 원서번역 등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환자진료 및 치료 교육 및 연구업적이 뒷받침되어야 해요(K1증언, 2014.09).

의학대학 교원급수는 조 교원, 교원, 상급교원(3급교원), 2급, 교원 1급으로 구분되고 연구사의 급수는 연구조사, 연구사, 상급연구사, 2급 연구사, 1급 연구사로 되며, 의학계에서 3급부터는 동등한 급수와 자격을 인정한다는 전언이다.

급수시험은 상등보건일군들인 의사, 약제사들만이 응시자격이 있어요. 또한 의(약)학대학 교원들과 연구사들이 급수시험 응시 대상이 되죠.. 이 급수시험에 의해 상등보건일군들의 급여가 구분되어 책정되는데 급수시험 점수가 낮은 자(者)는 하급(下級)강등 되기보다 대부분 유지되죠. 결격사유가 있어도 대체로 유지되고, 시험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급(進級)시험보다 유지시험을 선택하기도해요(J1증언, 2014.09).

북한은 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상급교원, 교원 및 조교원 등으로 직급이 나뉘며 전공과 관련된 환자만 진료한다.¹⁰⁵⁾ 급수시험의 시험과목으로는 주로 김부자노작, 외국어, 전공분야 기초의학과목, 전공분야의 인접과목이다. 외국어는 1980년대 말부터 2가지(1,2 외국어-영어, 노어, 일본어, 불어 등)중 택일 선택하여 치른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외국어 과목은 4급까지는 필답시험만 보며, 3급부터는 구술시험도 동반하는데 해당 도 대학병원 또는 각 도 의학대학들에의 시험위원회에서 시험결과를 평가받는다.

전공분야시험은 기초의학과목(신경내과 전공이라면 기초과목은 중추신경계 해부학...), 전공분야의 인접과목(예: 신경내과전공-인접은 정신의학), 전공과목(해당 분야에서는 3급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者), 혹은 학위논문 초안을 완성한 자에게만이 해당된다.)이다.

또한 의학대학 교육내용뿐 아니라 최근 과학기술 추세와 동향도 반영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병원에서는 매주 화요일을 ‘기술학습’날로 정하여 약 2시간 동안의 기술학습의 시간을 갖는다.¹⁰⁶⁾

105) 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 및 의사자격 인정문제」,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3호, p. 249.

106) 의학과학 잡지나 새로 나온 의약품의 임상경험 등과 같은 전문기술습득과 잡지들에 기재된 최근세계적인 의학추세들도 학습한다. 이런 학습은 각 병원 기술부원장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1990년대 말 경에는 새로 받은 유엔약품에 대한 사용법 등도 강의하는 시간을 가

이 시간에 습득한 정보와 학습내용이 시험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시험에서 시험 채점기준은 10점 만점에 6점을 넘겨야 한다. 최근에는 5점제가 등장하면서 3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990년대 후반기 들어 이러한 급수시험제도 역시 시험관들의 뇌물 전으로 통하기도 하였다는 전언¹⁰⁷⁾이 있다. 증언에 의해 아래 <그림 4-3-1> 의(약제)사 월급(보수)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4-3-1> 의(약제)사 월급(보수)기준

의사, 약제사 월급여 기준			
급수 (6급부터 5,4,3,2급순으로 ↑)	근속연한 (5년격)	위험수당금 (X-ray, 수술 등)	김일성연봉금 (간호원 경우)

<그림 3-4>에서 보는바와 같이 의(약제)사의 월급은 급수와 근속연한에 위험수당금이 가산된 금액이 의사 인건비인바, 위험수당금의 종목으로는 간염, 결핵 등 전염병 담당 진료시 지급되는 인건 비이다. 렌트겐 기수의 경우 방사선 위험수당이 위험수당금으로 반영되므로 임금이 높은 편이다. 렌트겐 기수의 월급은 10년 정도의 근속한 의사월급을 상회(上廻)한다. 수술장 의사 역시 10년 이상의 수(秀)간호원 일 경우에는 위험수당금이 높아 일반의사 월급을 상회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1건당의 수당이 제공되며, 소아과는 신생아나 소아치료 건수에 한하여 수당-위험수당금-이 지급된다. 근속연한은 5년 간격으로 상승한다.

연구사 및 교원 급수제도는 이와는 다르다. 의학대학의 교원 및 연구사 급수제도는 5단계이다. 의학대학 교원은 “교원 급수시험”, 의학부문 연구사는 “연구사 급수 시험”에 응시한다. 의학대학 연구사의 급수는 연구조사, 연구사, 상급연구사, 2급 연구사, 1급 연구사로 나뉜다. 의학계에서 3급부터는 동등한 급수와 자격이 인정된다. 증언에 의해 아래 <표 4-3-3> 의(약)사 급수별 급여기준을 제시하였다.

졌다. 매주 화요일은 화요기술학습의 날이다. 수요일은 수요강연회-여기는 상급보건일군(대학졸업생)들만 참가가능하다. 토요일은 토요일 학습인데 이날은 정치학습으로 상-중등보건일군들만 참가함으로 로동자(간호원 등)들은 제외된다. L1증언.

107) 뇌물로는 담배나 술 등을 비롯한 음주류와 기호품들이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기 들어 더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라는 증언이다.

〈표 4-3-3〉 의(약)사 급수별 급여기준

	급수별	7.1조치이전	7.1조치 이후
1	6급	100~110원	1,800~2,000원
2	5급	110~130원	2,100~2,300
3	4급	130~150원	2,300~2,500
4	3급	150~200원	2,700~3,000
5	2급(대학교원)	200~300원	3,500~4,000
6	1급(대학교원)	300~500원	4,500~5,000

<표 4-3-3>에서와 같이 의(약)사들은 이 급수는 월급에 주요소이다. 6급 의사(의대학 갓 졸업생) 초봉은 7.1경제조치 이전 105원~110원이었는데, 7.1 이후는 초봉 1,800원~2,000원(6급), 5급은 2,100~2,300원, 4급은 2,300~2,500원순으로 급수와 연한에 따라 상승한다. 거의 일률적으로 220여배 상승한 셈이다. 의사들은 이에 따라 임금 상승과 직급 향상을 위하여 더 높은 승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중등보건일군들은 급수시험이 없으며 근속연한에 의한 임금이 지급된다. 즉, 중등보건일군들과 간호원, 조산원, 보철사, 안마사는 승급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등보건일군에게는 통신대학과 특설대학을 통하여 중등자격에서 상등자격으로 자격 승급을 적극 권장한다.

여기서 중등보건일군의 급여는 의사 6급 월급의 하한선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속연한이 오래되었거나 위험수당금이 높은 간호원이나 준의들이 오히려 그 하한선을 능가하기도 한다.

3) 기타 학습제도 시스템 고수

북한에서 상급보건일군을 비롯한 보건일군들의 자질향상 학습시간은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2시간이상의 화요기술학습, 저녁시간의 수요 간부강연회, 토요학습 등 자질향상을 위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여기서 수요 간부강연회와 토요학습은 정치학습위주이다. 이러한 정치 기술학습 시간들을 올게 잘 활용하여 의사들의 자격고시의 실력고양시간으로 활용함도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의사를 비롯한 보건일군들은 학습시간이 많아요. 물론 지금은 조금 느슨하지만 화요일부터 수요 강연회, 토요학습 등 썩하면 학습시간이죠. 이런 자체기술 향상시간들에 대한 기존의 제도화를 정상화하고 운영한다면 북한의료인들에 대한 실력고양사업은 그리 힘들지 않다고 보는데요(C2증언, 2014.09).

부단한 학습과정을 단계와 순차를 정하여 진행한다면 남북간의 의료인력들의 갭은 점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간의 의료인력간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한 문제의식을 아래에 하게 된다.

제4절 통합 시 북한 보건일군

1. 남한의 탈북민 및 보건일군들의 의료활동 현황

남한에서 초기에는 의사고시자격이 부정 시 되었었다. 일부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에 한해서만이 고시자격이 주어졌다.(석영○ 등)

〈표 4-4-1〉 탈북의료인 개업 남한 보건의료현장

No	의료기관명	거주지	원장 및 부원장	출신학교명
1	묘향산한의원	경기도 성남시	박수○	청진의학대학
2	묘향산한의원	경기도 이천시	박태○	청진의학대학
3	묘향산한의원	경기도 광주시	박세○	상지대학 한의학부
4	미소안 한의원	일산시 고양	한봉○	상지대학 한의학부
5	민들레 한의원	서초구 논현동	이충○	평양의학대학
6	100년 한의원	서울시 종로구	석영○	평양의학대학
7	100년 한의원	경기도 고양시	정철○	상지대학교
8	친 한의원	서울시 신당동	박지○	혜산의학대학
9	신경락 한의원	고양시 일산	김지○	청진의학대학
10	천수한의원	서울시 구의동	주혜○	상지대학교
11	기존정리, 개업준비 중		주광○	상지대학교
12	확인미상	확인미상	이은○	평성의학대학
13	성모병원 치과	강남구 논현동	김은○	평양의학대학
14	모나리자 치과	송파구 잠실동	이송○	평양의학대학
15	대전치과	대전시 유성구	장선○	서울의대치대

그러다가 200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정보완에 의하여 북한의료인들에 대한 의사자격고시 시험자격이 승인되었다. 그 법률의 혜택으로 인하여 현재 수십 명의 한의사들과 양의사와 약제사들이 남한사회에 배출되어 현재 개업과 의료활동 중에 있다. 탈북의료인 주도의 의료기관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4-4-1> 탈북의료인 개업의 남한 보건의료현장과 같다.

한의사들은 개업실적으로 의료현황의 현황이 용이하였으나 임상 의들의 자격고시 합격후의 인턴의사들의 의료현장들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대략적으로 북한의 의대를 졸업 후 남한의대과정을 이수한 3인(채○, 이○, 김○)의 의사들을 비롯한 십 여명의 임상 의사들이 현장에서 인턴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남북한의 통합시를 대비할 때 문제점으로 기계장치와 설비의 미비에 의한 의료활동 미숙을 꼽았다.

아래의 <표 4-4-2>에 남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통일시 보건의료인력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았다. 남한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졌으나 반대로 남한에서 의료현황 중의 보건의료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되는 평가와 결론들이 상호간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진다. 남한과 북한의 대학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한 북한의료인의 평가에 의하면 교육도 남한이라고 하여 신비하게 생각하고 겁냈던데 에 비하여 북한과도 너무나도 유사하였다고 하였으며 보건의료활동 역시 의원을 3년간 경영해 본데 의하면 나름대로 꽤 해낼만하고 북한사람이라고 하여 터부시되고 부정시 되는 것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임상 의사근무의 인턴의사도 역시 남북 간 의료인에 대한 겹에 대한 지나친 의식은 과장된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표 4-4-2> 남북한 전문가들의 통합시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견

남한전문가 의견	북한전문가 의견
<p>통일이 되면 북한 의사들은 무조건 인정해준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들의 교육수준과 낙후한 진료의 질문제가 결코 통일한국에서 인정되고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p> <p>그러나 북한의 의사담당구역제시스템을 비롯해 한의학과 양의학의 병합 등과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통일 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고려대 박○훈교수)</p>	<p>통일이 되면 오히려 북한 의사들의 실력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학교육도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자신으로서의 결코 북한의대교육이 남한에 비해 못하진 않다고 생각된다.</p> <p>왜냐하면 그들은 기계와 설비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경력과 실무능력에 의한 진단과 치료의 노하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의사들은 기술학습과 재교육시스템 등 여러가지로 학습기회와 통제기구가 많이 작동하므로 부단한 자기발전과 상승을 위한데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통신교육과 특설교육생들의 분별이 문제시 될 뿐이다.</p> <p>(K3: 청진의학대학 동의학부졸업, 충남대학교 한의학부 졸업후 의사고시 합격 후 현재 선정락한의원서 근무)</p>
<p>의료는 인력, 의약품, 시설의 세가지 조건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단순히</p>	<p>통일이 되면 임상 의사들의 수기와 의료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아진다. 현재 나는 인턴과정을 ○○병원 부원장격으로 진료활동하는데 북한의 방법 그대로? 전</p>

남한전문가 의견	북한전문가 의견
<p>의약품과 의료물자만 북한지역에 보내준다고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문제 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남한의 의료 지원물품과 약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훈련된 남한의료인들이 필요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E-헤지던트 수련교육과 의사들의 보수교육에도 북한과 통일관련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연세대 전·택교수)</p>	<p>혀 문제가 안된다. 단, 의료기기와 장비들에 대한 숙지가 처음에 좀 생소하고 어려웠을 뿐 금방 숙지가 되고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5진법(問診, 視診, 觸診, 打診, 聽診)에 의한 방법을 대부분 적용하니 환자들이 더 친숙해하고 선호도가 높은듯하다. 대신 수가제에는 못 미치는 단점이 있다. (C2: 평양의학대학 졸업, 남한에서 의사고시합격, 현재 인턴근무)</p>
<p>북한의사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경험이 많고 실력이 인정할만한 수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새로운 기계에 대한 적응력도 신속하고, 다만 통합시 급수를 어떻게 살리고 유지할 것인가 고민할 문제이다. 의과대학 졸업생들에서 통신과 특설 학부 졸업생들을 인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만약에 인정한다면 어느계선에서 어디까지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각 학회에서는 전문의 심사과정제도를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김○주교수)</p>	<p>통일이 되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남한에 와서 북한의사들이 끄떡없이 한의원들을 개업하고 경영하며 유지하는 모습들은 북한사람들이라고 결코 낮거나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은 잘못된 오판이라는 걸 증명한다. 기계장비와 설비 등에 대한 숙지와 그에 대한 습득의 선행기간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보건의료인 통합은 쉽게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진다. (S1: 평양의학대학 동의학부 졸업 남한에서 의사고시 합격 후 현재 100년 한의원 운영 중)</p> <p>통일이 된 후의 보건의료계와 보건일군 통합을 생각할 때 다소의 어려움이 존재할테지만 전혀문제 시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학대학의 북과 남의 교재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숫자와 화학기호 등이 기본인 약학언어에서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다만 학습과 시험 방법이 다른, 시스템의 차이가 어려움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적응이 되면 해소 될 문제라고 본다. 교육에서 오히려 북한교육보다 실습부분이 더 미비하다고 본다. 또한 약학부문에서는 동일성분으로 출발한 제약회사들 마다의 다른 상호명의 여러가지 약품들이다. 이는 남한의 약사들도 부단한 학습을 통하여 숙지한다. 통일 후 북한의 약제사들(동일성분의 각이한 약품)도 이런 부단한 노력의 숙지를 수반한다면 다소의 어려움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L1: 함흥약학대학 졸업, 남한에서 삼육대학 약학과 졸업 후 현재 약사고시준비 중)</p>

2. 남북간 보건의료 통합 시 문제점 고민

통일통합시를 고려할 때 북한의 보건일군들의 질적 문제 등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료활동에 대한 정지(Stop)의 방식으로 대안하여 그들의 의료활동을 제한한다면 보건의료의 공백을 가져오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점진적인 보건일군들의 질적 고양 시나리오를 디자인 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이를 위하여 순차성과 단계성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학졸업 10년 이상, 5년이상, 1년이상 등의 졸업연한에 따르는, 또한 주간, 통신, 특설 등 교육형식별 부류 등 각 부류별의 구분을 지정하고 그들의 실무와 능력 등을 고려한 재교육 시스템을 디자인 하여야 한다.

남한의 보건의료를 경험하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계나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한의 의료인력들의 진료방식과 사람이라는 생체에 대한 오감으로부터 진단-시진(視診), 문진(問診), 타진(打診), 청진(聽診), 촉진(觸診)-법에 익숙된 북한식 진료방식에는 엄연한 장단점이 수반된다고 봐요.

북한의 진료방식에 의하면 우선은 환자가 의사앞에 등장할 때 의사는 그의 얼굴표정부터 살피고 대충 어느 부위의 불편이 있을꺼라는 감각부터 가지지요. 그러나 기계장비에 의존적인 남한의사들은 기계의 수치에만 충실하지 환자관찰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사들의 임상수준이 되려 남한의사들에 못지않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의사들은 재교육과 급수시험 등 늘 실력고양에 학습되는데, 남한의사들은 일단은 교수직을 따고나면 그만이라고 봐요. 이런 면에서 남북한의사들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요(C2증언, 2014.09).

상술한 증언을 통하여 남북한의 장단점이 다소나마 존재하는 바이다. 5진(診)법을 중시하였던 구(久)진단법에 적응된 북한식 진료방식과 기계나 설비장비에 적응된 남한식 진료방식의 차이가 바로 남북한의 보건의료의 보건일꾼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다. 이는 바로 통일대비를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통신학부와 특설학부 졸업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 것은 이들은 지식부실대신에 오랜 실무와 현실속의 기술연마와 경험으로 책상머리의 이론 쟁이들에 못지않는 의학지식의 유경험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류별과 급수연한별에 따르는 구분지표에 의한 국가고시 자격유무의 판별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급수별 구분도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급수별 지표жат대를 둔다면 그 역시 급수 순위별의 차이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 4-4-3> 자격고시 시행의 인력구분에 자격고시의 유무여부를 고찰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표 4-4-3〉 자격고시 시행의 유무여부

대학졸업연한별	교육형식별			자격고시 유무
	주간	통신	특설	
10년, 그 이상	6개월이상 재교육	2년간의 재교육 시험유무-면접검토		재교육 시행후 고시자격
5년차	6月 재교육			
1년차	유무여부 긍정검토			
졸업예정자	有	6月 재교육		有

<표 4-4-3> 자격고시 시행의 인력구분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부류별로의 국가고시 유무여부의 디자인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고시의 시행시점이다. 국가고시는 원칙적으로 치루는 것으로 하되 북한에 기존에 없는 시스템을 영입하는 것으로서 대학졸업증이 자격증인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하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점진적인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짜여진데 기초한 순차적인 고시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급진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고시시스템은 오히려 부정반응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전망지향적인 이 제도의 당위성을 충분히 유인한 기초위에서 그에 대한 원활한 도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첫째로 국가고시의 시행은 통일•통합시 금후로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로부터 도입한다는 것이다.

다음 둘째로, 국가고시의 대상을 점차적으로 가능대상자들을 확대하여 전망적으로 전 보건일군들에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 셋째로 주간교육이 아닌 속성교육(통신, 특설교육)의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의 보강사업에 대한 모색이다. 이들의 부실교육과 미흡함의 보완과 동시에 이들의 국가고시 자격여부에 대한 유무의 검토이다.

넷째로 속성교육의 지속성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통합 후에 더는 속성교육에 의한 보건일군의 대량배출에 대한 지양검토가 절실하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속성교육을 통하여 대량 배출된 기존의 보건일군들의 실무 자질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로, 남북한내의 의사인력에 대한 윤리성문제에 대한 보완과 숙성이 필요하다. 과도한 계산논리에 인색하게 적용된 남한 의료진들에 대한 脫자본주의화에도 관심을 두며 정성의료에서 급속도로 변성된 북한 의료진들의 실리추구 진료와

의 균형(balance)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 론

연구를 통하여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베시’와 ‘오시’론을 상기하게 된다. 반목과 질시, 갈등과 분쟁으로 지난 60여 년간을 허비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좀 더 타협적이고 화해, 협력적인 단계의 발상전환으로 승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대북의료지원을 지속해왔지만 베시적인 관점에서의 오시를 먹여살리는 차원의 지원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 비공식적 의료시장을 확산시켜 권력비리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부채질하였다는 논리에 더 무게가 실린다. 때문에 보건의료의 순수한 지향에는 거리가 멀어지는 서민에게는 무상치료가 ‘사치’로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북한에 대한 좀 더 이해와 인식의 면을 넓히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 좀 더 자기화(Selfration)하려는 노력으로 통일통합에 임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싶다.

통일과정에서의 의료협력을 급변사태시의 남한화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로부터의 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인력 실태분석 및 통합방안은 ① 북한의 의학교육, 인력양성에서 견지하고 있는 교육에서 문제점 ② 통일대비시 북한의 보건일군들의 자격과 처우문제 ③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우리의 자세와 모색 등으로 요약한다.

제1절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의 교육형식에서의 문제점

무엇보다 우선 남북 간의 동질점부터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의학교육이 6년제라는 학제의 공통점이 우점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긍정요소들은 유리한 바탕이 된다. 이런 유리점에 기초하여 극복과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의학교육에서의 부실과 극복점들을 보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제를 고찰해보면 앞서의 상술된 자료들을 취합하여 정리하여 보게 된다.

먼저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북한의학교교육의 속성교육 지양이다. 북한이 의료인력의 대량배출을 목적으로 교육형식에서 양적확대에 포커스를 맞추어 결과지향의 속도와 양에만 매달려 과잉남발(過剩濫發)되고 있는 통신, 특설, 시스템의 속성교육지양이 필요하다.

북한이 속성교육의 우점으로 주장하는 통신, 특설학부 학생들의 장점으로 되는 ‘질낮은’ 현실속의 실무가들이라는 면에서의 책상 물림생들 보다 현실체험의 우위점들은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이론상의 체계 있는 지식의 결여에 덤터기로 엮어진 ‘도끼목수’식 실무가 지향은 보건의료의 ‘돌파리의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속도지향에 대처한 유관상의 땀때기형식-대량배출-의 속성교육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심히 추락시키는 지표로도 되어 양질의 균형이 파괴됨이 간파되는 바이다. 이를 보완해나가는 속성교육의 지양을 적극적인 대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인력교육에서의 내용상에 있어서 정치사상화교육의 지양이다. 북한식 사회주의고수를 위해 강조한 3부자 김.의 사상학습의 24% 과목배분은 금후 통일지향에 있어서 무용지물이다. 다만 24%과목배분에 대하여 유익한 의학과과학기술 심화과목 교체로 수정보완과 검토를 진행하여 부실(不實)교육과 부재(不在)과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출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육문제에서 탈사회주의화의 비공식적 의료시장의 활성화로 생계지향의 이지러진 보건일군들에 대한 도덕성문제에 대한 윤리교육이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우선 생계난 탈피와 상부의 세부담 과잉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통일시의 사회주의 고수의 지침들은 생략 또는 삭제될 것임으로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유추와 판단이다.

제2절 통일대비 시 북한의 보건일군의 자격문제

통일대비시 북한의 보건일군의 자격과 처우문제에서 북한의 재교육제도와 급수 시험제도의 긍정적 검토, 그리고 부단한 학습제도의 긍정적 검토이다.

우선 재교육제도에 대한 부활과 활성화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북한에 현존하는 재교육제도를 통하여 의사들의 실력고양과 자격향상방법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의·약사들에 대한 재교육의 학습내용으로 세계적 현대 과학기술자료들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빠뜨리고 제외되었던 부실부분들과 부재과목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의 교과목들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경제난으로 침체되

고 거의 무시된 재교육제도를 새롭게 부활시키고 활성화해나가야 는 방법이 북한 보건의료상향의 더없는 채널이다.

보건일군들의 후속관리시스템인 재교육제도를 긍정 검토하여 구(久)의사들에 대한 실무와 자질향상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무엇이든지 북한이 현존하는 기존의 시스템들을 몰인정하기 보다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에 대한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급적이면 부담을 줄이고 효율의 극대화지향이 시너지효과창출의 지름길이다.

다음으로 모든 상급보건일군들에게 있는 3년간격의 급수시험제도의 활용이다. 북한에서 남한에 없는 시스템인 급수시험제도가 있으나 남한에는 대학 졸업 후의 의·약사 고시제도가 있는 상반되는 시스템의 존재이다. 남한식의 의사고시제도 도입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변수이다.

남한의 자격고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 시 북한의 현존하는 보건일군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인정하여주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는 원칙을 견지하되 새롭게 배출되는 의학대학 졸업생들에 대하여서 남한식의 의·약사고시제도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직의 보건일군들을 자격이 안 된다고 무작정 업무를 중단시키고 국가고시의 합격, 비(非)합격자들을 분리하는 형식은 보건의료계 공백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 문제의식을 동반한다.

때문에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향은 통일한국의 이전(befor)과 이후(after)를 정하고 전후의 고시제도에 대한 도입의 고민(<표 4-3-4>참조, p.539.)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예하면 기존 의사들에 대하여서는 북한의 의사급수제도를 통하여 일정부분을 인정하여 주고 단계적으로 (시험기간 3년간 격기간) 소정의 시험과목들을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북한에서 보건일군들 속에 정상화되고 습관화된 2시간 학습제도-화요기술학습제도와 수요강연회와 토요학습 등 부단한 학습시간 등들도 자질향상의 좋은 기회로 부활시켜 기존의 학습제도의 효율성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우리의 자세

다음으로 통일과정을 대비하여 보건의료협력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가 전망지향적인 중장기적인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지원으로서는 소모적인 의약품지원 보다 기구, 설비, 장치 등 북한의 보건의료의 취약부분 보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사업이다. 이는 의약품지원의 일회성이나 소모성에 그쳐버리는 단점을 보완하고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전망지향적 사업으로도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북한의 보건의료의 취약점의 차이점으로 호소한 탈북의료인들의 증언들이 있었듯이 현존하는 남북한 의료인력들의 자질상 차이가 임상지식보다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계, 설비, 장치들의 몰이해와 무경험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자격의사들이 남한에서의 문제점으로 호소한 대목은 고시준비하면서 감내하였던 기본적으로 A, B, C,의 파생된 A', B', C'의 몰인식이었다. 이는 그 근원이 하나에서 온 것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그로부터 파행된 기계, 기구, 설비 장치로 인한 A', B', C'등 의 몰이해가 난점이라는 반응이다.

이러한 북한의 장비나 설비의 부재로부터 출발한 무지와 몰이해의 극복을 위한 준비단계로도 설비와 장비의 지원과 협력은 북한에 미리 예비차원의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기구 설비들의 대북지원과 설치 등은 급변사태시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통일과정임이 분명하다.

이로부터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에서 의료기자재와 장비설비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소모적인 의약품지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통일통합시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효할 것이며 이는 또한 비정치적 분야이므로 의미와 효율성과 확산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독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되어 최종적 통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사실 독일에서는 동서독 간 기본조약체결 전에도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한 정보교환과 의약품거래가 있었고 74년 4월 보건협정이 체결되면서 양측은 전염병, 중독성 약품 오남용, 장애인 재활과 관련정보교환 등 의료지원이 가능-을 하였듯이 남북 간에도 교류와 협력의 의료설비와 장비지원을 부단히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영역의 지식과 지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부화하여 그를 토대로 더 발전된 정책과 지원활동을 위한 학술적 토대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과남의 의·약사들을 위주로 하는 의학과과학기술의 학술토론회와 학술교환회 등도 검토해나가야 할 대목이다. 뿐만아니라 남과 북의 의·약학과학 교과목의 구성과 편찬의 협의체제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독시기 서독은 동독의 행정시스템의 고려없이 서독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는 경향으로 우여곡절을 적지 않게 겪었다. 더욱이 주민간의 갈등도 표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더 첨언한다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통일 상대에게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식(Transplant), 삽입(Trasfomation)하려는 현상의 통일은 ‘독점’의 불만과 불평 등을 호소할 뿐이다. 상대방의 틀림이 아닌 다른 점을 잘 이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타협하여 손실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해나가는 방향의 모색만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 간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해나가는 방향으로의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이고 진화적인 통일모델을 디자인하는데서 본 연구가 기여하길 고대한다.

참고 문헌

1. 북한문헌

- 『김일성저작집』, 제7,15,20,33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87).
 『김정일선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조선대백과사전』, 간략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조선중앙연감』,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1971, 79).
 『인민보건』, (평양: 조선의학사,1958.9).
 승창호, 『북한 보건의료 연구』, (평양: 청년세대, 1989).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 남한문헌

- 고영환, 『평양25시』, (서울: 고려원, 1992).
 김석주, “통일보건의료의 연구와 흐름”, (서울, 2014).
 김수암, “통일보건의료 연구의 미래”, (서울, 2014).
 정동규, 『분단을 뛰어넘어』, (서울, 1992).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용』, (아주남북한의료연구소, 2001, 8).
 미셀푸코,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2006).
 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 및 의사자격 인정문제」,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3호』.
 박상민,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2012).
 변중화 외, 「남북한 보건의료 비교연구: 북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국토통일원, 1999).
 이혜경, 『북한의 ‘보건일군’ 양성정책 연구 -체제수호 전위양성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혜경, 『북한의 무상치료제의 변화 -민간의료시장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연숙·윤지현·심재은·장수경, 『2006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사업비 지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통일 후 어린이 영양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7.11.30.).

이영훈, “거스를 수 없는 시장화 진전, 북한판 ‘도이모이’ 필요하다”(민족화해, 2013.9).

인요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남북 의료협력재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2008).

이화여대, 『지속적인 협력과 북한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전우택, 『북한의료를 통하여 본 북한 이해,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서울, 2007).

전우택, “한반도 통일과 보건의료의 역할”(서울, 2014).

황나미, “경제위기이후 북한주민 건강수준과 질병부담”, (2012).

황나미, “통일보건의료 연구의 흐름”, (서울, 2014).

중기 인적자원 개발계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건복지부, 2008-2010).

3. 외국문헌

Mid Term Immunisation Strategic Plan DPR of Korea (2007- 2011) 보건성 2006.

OECD/WHO,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2012.

OECD/WHO,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2012.

DPRK Annual Report of the State of Health 2007 보건성 Pyongyang.

DPRK National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CBS ICN February 2005 (quoted in UNICEFReport on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CEFPyongyang 2006.

UNFPA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third UNFPA Country program in DPRK UNFPA 2003.

4. 기타 인터넷자료 및 신문기사

<http://blog.naver.com/sksmsdld/220020242268>

<http://mobacle.blog.me/70178413416>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30616

<http://news.tvchosun.com/>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 대상자의 글에 대한 국어학적 문체 분석을 중심으로

임현열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제1장 서론	553
제2장 분석 대상 자료와 분석 방법	562
제3장 분석 대상 자료의 국어학적 문체 특성	569
제4장 글쓰기 교육에서의 고려 사항	602
제5장 결론	609
참고 문헌	611

표 목차

<표 1> 현재 남한 생활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2003:173)	555
<표 2> 북한 이탈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백영옥, 유조안, 2011:130)	557
<표 3> 분석 대상 글의 ‘일련번호-제목-편 수’ 정보	563
<표 4> 자립적인 형식에 대한 구분과 품사 태깅	566
<표 5> 의존적인 형식에 대한 구분과 품사 태깅	567
<표 6> 기호에 대한 구분과 품사 태깅	568
<표 7> 수집된 글의 주제별 분류	570
<표 8> 글과 문장의 길이	571
<표 9> 글과 문장의 길이 순위별 정보	572
<표 10> 태그별 빈도와 비율	574
<표 11> 연결 어미 사용빈도와 유형 빈도, 어미 사용의 다양성, ‘-고’의 점유율	576
<표 12> 선어말 어미 사용빈도와 유형 빈도, 어미 사용의 다양성, ‘-았(었)’의 점유율 ..	578
<표 13> 종결 어미 사용빈도와 유형 빈도, 어미 사용의 다양성, 비격식체 혼용률	579
<표 14> 명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81
<표 15> 대명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83
<표 16> 동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85
<표 17> 형용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86
<표 18> 보조용언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87
<표 19> 관형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89
<표 20> 일반 부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90
<표 21> 접속 부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592
<표 22> 학생별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593
<표 23> 글에서 단문과 복문의 구성	595
<표 24> 글에서 단문과 복문의 비율	596
<표 25> w101의 복문 복잡도 산출 예시	597
<표 26> 학생별 복문의 복잡도	599
<표 27> 학생별 복문의 절 구성적 특징	601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북한 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센터 홈페이지)	558
<그림 2> 연구의 과정	561
<그림 3> 분석의 과정	564

요 약 문

이 연구는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해 살피고자 했다. 주로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특성 가운데 일부를 글쓰기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글쓰기 자료는 통일부 하나원에 소재한 하나둘 학교 재학생의 문집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간한 문집 자료에는 23명의 학생이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 20명의 학생 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글은 수업 시간에 작성된 글로서 아직 남한 사회를 겪지 않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글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자료 분석은 국어학적 관점의 문체 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자연어 처리를 위해 자료에 대해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품사 태깅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를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품사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를 중심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의 문체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은 분석 대상의 층위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형태소 층위에서는 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을 보였다. 어휘 층위에서는 체언, 용언, 수식언별로 사용상의 특징을 보였다. 문장 층위에서는 문장의 복잡도와 내포절의 유형 등에 대해 살폈다.

연결 어미의 사용에서는 연결 어미 사용의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고’와 같이 특정 연결 어미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성이 있었다. 선어말 어미의 사용에서도 ‘-았/-었-’에 대한 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종결 어미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용된 종결 어미의 유형이 많지 않았는데, 격식체와 비격식체 종결 어미가 분별 없이 혼용되는 면이 눈에 띄었다.

어휘적으로는 각 품사별로 어휘 사용의 다양성이 비교적 낮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생의 글에서는 특정 몇 개의 단어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문체 점도 드러났다. 가령, 명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 사용 다양성 지수가 최고 76.09에서 최저 37.84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도 54.54에 그쳤다. 어떤 학생의 글에서는 두 개의 명사를 전체 명사의 35% 비율로 사용하기도 했다.

문장의 차원에서는 단문과 복문의 사용 비율, 복문의 통사적 복잡도, 복문의

절 구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단문에 비해 복문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복문의 통사적 복잡도는 학생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 1.59에서 최고 3.57까지로 평균 2.15의 복잡도를 보였다. 또한, 문장의 복잡도 편차를 함께 살려 복잡한 문장 사용의 집중도를 살폈다.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참고로 이후의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글쓰기 교육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한 이탈 학생들에 대한 글쓰기 교육이 지금까지는 남북한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 면이 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이탈 학생들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글쓰기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글쓰기 주제의 다양화, 글과 문장의 길이에 대한 고려, 어미의 다양한 사용, 격식체와 비격식체 종결 어미의 통일된 사용 등을 비롯하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에서 평균보다 낮은 사용 다양성 지수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어휘 사용 다양성을 높일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남한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가 교실 현장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의 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텐데,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향후 IT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배경, 필요성

1. 연구 목적과 배경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북한 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①북한 이탈 학생이 작성한 글을 분석하여, ②글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특성을 추출하고, ③그러한 특성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④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글쓰기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²⁾

2) 연구의 배경

글쓰기 교육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가령, 교육 대상자의 글쓰기 능력 수준을 고려한다면, 연령과 학력 등을 비롯하여 과거 글쓰기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재승(2005)에서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대별하여 글쓰기 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있으며, 박미영(2013)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을 조명하고 있다. 더욱이, 김소양(2011)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육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다. 이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글쓰기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대상자들이 글쓰기를 배우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직업과 전공 등의 요소에 따라 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김은정(2012)에서는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김혜경(2014)에서는 취업 목적의 글쓰기 교육을 다루고 있다. 또한, 김지혜(2014)에서는 대학 내에서도 전공과 계열 별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글쓰기 교육의 목적에 따라 글쓰기

-
- 1) 글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 내용과 함께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교육 내용은 주로 언어학적, 문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교육 방식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 2) 이후의 기술에서 상세히 소개하겠지만, 이 연구에서의 글쓰기 자료 분석은 주로 국어학적 관점에서의 문체 분석을 의미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준다.

교육 대상자들의 선호에 따라 어떤 유형의 글을 어떻게 쓰도록 교육할 것인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희영(2013)에서는 유형별 글쓰기 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안미애, 지현배, 김영철(2014)에서는 웹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글쓰기 교육이 교육 대상자의 선호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세계화된 시기에 글쓰기 대상자들이 모국어로 글을 쓰는지, 외국어로 글을 쓰는지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글쓰기 교육 내용과 방식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 서혁(2007)에서는 동일한 한국어 다루는 교육이라도 교육의 대상자가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에 따라 구분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국어교육,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국어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위 분야인 글쓰기 교육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유효하다.

북한 이탈 학생들이 글쓰기 교육을 받는 교실 현장을 살펴보면 위의 여러 가지 변인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연령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의 학력은 매우 다양하며, 학력이 비슷하더라도 과거에 글쓰기 교육을 받은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또한, 글쓰기 교실에서 요구되는, 즉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목적도 다양하다. 북한 이탈 학생에 대한 글쓰기 교실은 대부분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학생과 기업에서 직업 활동을 하려는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학습 보고서나 학술 에세이를 작성하는 수업이 더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관한 수업이 더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의 북한 이탈 학생들은 자신의 모국어가 한국어인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센터의 탈북 청소년 교육 현황의 소개를 보면³⁾,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 이탈 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탈북 청소년 범주에 포함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설에서는 이들이 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⁴⁾ 설사, 이들이 다른 교실로 배정된다 하더라도

3)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www.hub4u.or.kr/>)

4) 자료 수집 과정에서 겪은 일이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통일부 하나원에 소재한 하나돌학교에서 자료 수집을 하였는데, 자료 수집하는 동안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고, 언어의 종류를 알 수 없지만 동남아시아권의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다. 학생들 가운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본을 들고 다니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 다만, 이러한 학생들의 수와 비율에 대한 구체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특별히 고려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글쓰기 교육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생들에 따른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는 없다.⁵⁾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북한 이탈 청소년의 문체적 특성을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 연구는 그러한 목록을 작성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1) 교육 대상자의 관점

북한 이탈 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편입된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2003)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사회적응 생활 실태 조사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망라되어 있다.

〈표 1〉 현재 남한 생활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2003:173)

항목	빈도(명)	%
경제적 문제	145	18.3
취업 문제, 직장 생활 문제	98	12.4
친구, 형제, 친척이 없는 외로움	93	11.7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	91	11.5
언어 문제	65	8.2
문화적 차이(사고방식, 생활 습관의 차이)	45	5.7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34	4.3
북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27	3.4
대인 관계	21	2.6

적인 정보는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접근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5) 물론,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관한 전체 예산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큰 예산 지출은 부담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일 것으로 본다.

항목	빈도(명)	%
건강 문제	19	2.4
자녀의 장래 문제	13	1.6
결혼 문제	10	1.3
기타	132	16.6
전체	793	100.0

* 강조 효과를 위해 언어 문제 항목에 하이라이트 처리하였다.

위의 <표 1>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 취업 및 직장 생활의 문제, 지인이 없는 외로움의 문제, 남한 사람들의 편견 등과 함께 언어의 차이를 남한 생활을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는 문화적 차이,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대인 관계, 건강 문제, 자녀의 장래 문제, 결혼 문제 등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된 내용이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문제가 다섯 번째로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언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항목 상위에 속한 내용들도 실상은 언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나 취업 및 직장 생활 문제, 남한 사람들의 편견 등은 언어 문제가 원인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청소년들에게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 언어적 측면에서 적응 훈련을 할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생활 영역 가운데서도 특히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⁶⁾ 백영옥, 유조안(2011)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특히 주요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각각에 대한 응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6) 권수현(2005)에 의하면 북한 이탈 청소년이 학업 수행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은 13.7%에 달하는데 이는 남한 청소년의 중도 탈락 비율에 비하면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이다.

〈표 2〉 북한 이탈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백영옥, 유조안, 2011:130)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합계
수업 내용 이해	빈도	2	22	53	23	1.9	103
	(%)	(1.9)	(21.4)	(51.5)	(22.3)	(2.9)	(100)
글쓰기	빈도	3	19	37	36	8	103
	(%)	(2.9)	(18.4)	(35.9)	(35)	(7.8)	(100)
발표 및 토론	빈도	3	19	29	35	17	103
	(%)	(2.9)	(18.4)	(28.2)	(34)	(16.5)	(100)
영어	빈도	1	2	23	40	37	103
	(%)	(1)	(1.9)	(22.3)	(38.8)	(35.9)	(100)

* 강조 효과를 위해 글쓰기 항목에 하이라이트 처리하였다.

위의 <표 2>에 따르면, 북한 이탈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겪게 되는 학업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으로는 수업 내용 이해, 글쓰기, 발표 및 토론, 영어 등의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이상의 네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영어를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것은 학생 개인의 영어 능력 차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교육이 영어에 대한 비중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표 및 토론을 어려워하는 것 역시 남북한의 교육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도 발표 및 토론에 관한 수업이 비교적 최근에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에서는 이러한 수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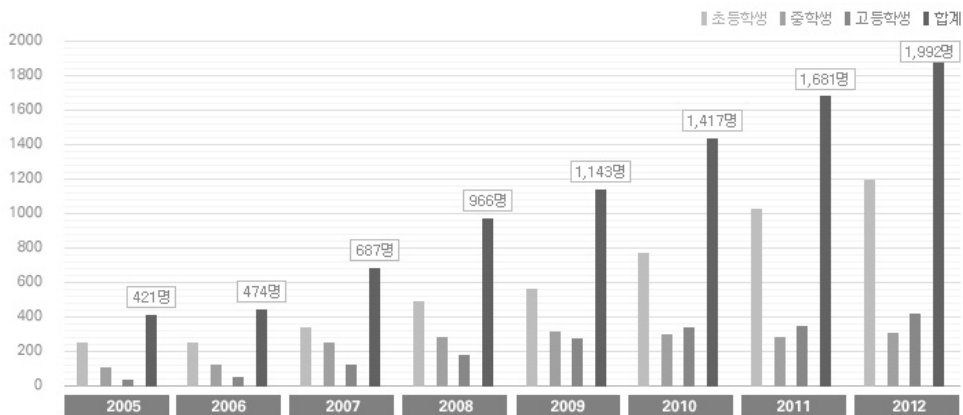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공히 학습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글쓰기 영역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점은 결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실 현장과 교사의 관점

더욱이 주목할 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들에 대한 글쓰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글쓰기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교실 내 교육 대상자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글쓰기 교육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기존

의 글쓰기 교육이 비교적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교실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교재를 집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은 데 비해, 이들의 특수한 글쓰기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센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그 수가 커리큘럼을 다양화할 정도로 많은 수준은 아니다.⁷⁾



〈그림 1〉 연도별 북한 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센터 홈페이지)

그렇다면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글쓰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에서 맞춤형 커리큘럼이나 교재가 개발되기 어렵다면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교육 문제에 다른 논의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글쓰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현장의 교사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7) 본문의 <그림 1>에서와 같이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 이탈 학생의 수는 1,392명이다. 그 가운데 초등학생이 1,204명을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351명과 437명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의 한 학년 학생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다.

목록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을 분석하고, 이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성들을 추출하여 목록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제목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육이며, 이를 위해 국어학적 관점의 문체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국어학적 관점의 문체 분석이 문체론 연구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어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우선, 문체 분석의 유형과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문체 분석은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문체 분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문체 연구의 방법론(박영순, 1994:16~20)

- ㄱ. 언어학적 방법
- ㄴ. 심리학적 방법
- ㄷ. 사회학적 방법
- ㄹ. 수사학적 방법

그 중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방법은 주로 언어학적 방법론으로서, 연구 대상이 한국어이기 때문에 국어학적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또한, 국어학적 문체 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은 층위 구조를 형성한다.

(2) 국어학적 문체 분석(박영순, 1994:17)

- ㄱ. 음운: 평음-경음, 모음 조화, 전후설, 음절 강세, 억양, 어조 등등
- ㄴ. 형태소: 조사, 접사, 파생, 합성, 품사, 반복 등등⁸⁾

- ㉔. 단어⁹⁾: 동의어, 유의어, 다의어, 반의어, 관용어 및 어휘 선택 등등
- ㉕. 문장: 서법, 능-피동, 주-사동, 긍-부정, 시제, 경어법, 접속, 탈락, 축약, 도치 등등¹⁰⁾
- ㉖. 담화: 문체를 단락 또는 담화 차원에서 화-청자, 상황 맥락이 문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등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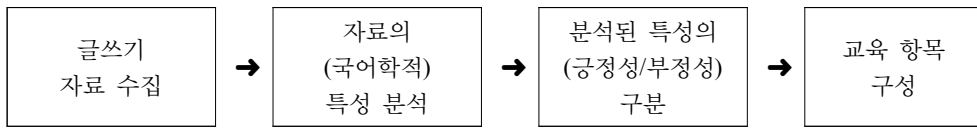
문체론 연구의 어떤 연구들, 예를 들면 조성문(2010)과 같은 연구에서는 음운 층위에 대한 고찰이 있기도 하지만, 음운 층위에 대한 문체 연구는 주로 시와 같은 운율이 있는 운문 문학 텍스트를 다룰 때 의미가 있을 뿐, 이 연구에서 다루는 글의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형태소, 어휘, 문장 차원에서 문체 분석을 시도한다. 이들 가운데 형태소 층위에서는 어미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고, 어휘 층위에서는 품사별 사용 양상에 주목한다. 또한, 문장 층위에서는 문장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일종의 임상적 연구로서, 관심 대상이 되는 실제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교육 내용 구성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략의 흐름은 <그림 2>와 같다.¹²⁾

-
- 8) 박영순(1994)에서는 품사를 형태소 층위로 분류했지만, 한국어의 품사 논의에서는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어휘 층위에 해당하므로 ‘㉔. 단어’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여기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미 역시 형태소 층위에서 응당 다루어야 할 항목이다.
 - 9) 경우에 따라 ‘단어’와 ‘어휘’라는 표현이 구분 없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단어’는 개별적 특성을 강조한 용어임에 반해, ‘어휘’는 전체 내에서의 관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이 연구에서는 ‘어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단어’ 대신 ‘어휘’로 층위 구분을 할 것이다.
 - 10) 박영순(1994)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문장의 유형이 단문인가 복문인가에 대한 구분도 이 층위에서 다루질 수 있는 항목이다.
 - 11) 박영순(1994)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담화 층위에서는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로서 담화 표지 역시 중요한 항목으로 다룰 수 있는 항목이다.
 - 12)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항에서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그림 2〉 연구의 과정

위의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실제 북한 이탈 청소년이 작성한 글을 수집하여, 이들 글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글에 대한 분석은 형태소, 어휘, 문장 차원에서 실시할 것이며, 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엑셀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¹³⁾

컴퓨터 분석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검토하여 각 글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을 정리할 것이다. 이 자료는 전체 자료의 평균값과 개별 자료의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과 달리 개별 글에서 특별히 나타내는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체 자료의 평균뿐만 아니라 개별 자료의 값도 중요하다.¹⁴⁾

각 글에서 추출한 글의 특성은 각 특성이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정을 거치게 된다. 긍정적인 특성은 좀 더 활용해야 할 요소로 소개하고, 부정적인 특성은 사용을 줄여야 할 요소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판정하는 데에는 현재까지 연구자들 사이에 특별히 동의를 이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의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관련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본다.

이상에서 소개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점을 언급한 후, 제4장에서는 교육 항목을 범주별로 제시한다.

13)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분석하기 어려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점검하기도 하였다. 필요한 사항은 이후의 서술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14) 이 연구에서 교육 내용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전체적인 경향과 특별히 다른 문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된 것이다.

제2장 분석 대상 자료와 분석 방법

제1절 분석 자료, 방법

1. 분석 자료 개관

이 연구에서는 통일부 하나원에 설치된 하나들 학교의 협조를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일부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서 가장 먼저 경유하게 되는 곳이다. 이 기관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연령의 학생들을 특별히 하나들 학교라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

하나들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남한의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국어과 수업도 포함된다. 국어과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루어진다. 그 가운데 글쓰기 과정이 들어있으며, 하나들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퇴소 시기에는 학생들이 쓴 글을 모아 문집을 발간한다. 이 문집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의 협조로 하나들 학교에서 발간한 문집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보안상의 이유로 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들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에서 허가한 장소에서만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¹⁵⁾

본 연구에서는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문집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문집에는 모두 23명의 학생이 작성한 글이 실려 있었다. 이 중 2명의 학생은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고¹⁶⁾, 1명의 학생은 제출된 글의 파일이 깨져 있어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¹⁷⁾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총 20명의 학생이 작성한 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5) 이런 이유로 자료 수집 당시 미처 점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밝혀둔다.

16) 이는 하나들 학교의 담당 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하나들 학교를 방문하여 글을 분석할 때 분석 대상 글이 어떤 학생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글을 작성한 학생이 출생하고 성장한 곳이 북한인지, 중국인지에 대한 내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7) 자료 분석 당시 제한된 시간에 자료를 점검해야 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실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의 전체적인 논의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20명의 학생이 작성한 글은 학생마다 제출한 글의 수가 달랐다. 한 편을 작성한 학생도 있었고, 최대 세 편까지 작성한 학생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편의 글을 작성한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한 편을 작성한 학생과 세 편을 작성한 학생들을 포함했을 때 평균적으로 학생당 대략 두 편의 글을 제출하였다.

20명 학생의 글의 제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각 학생의 글은 문집에 실려 있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아닌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학생의 글과 파일 손상에 의해 누락된 글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지만, 이후의 기술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표 3〉 분석 대상 글의 ‘일련번호-제목-편 수’ 정보

번호	제목	편 수
w101	고향/ 도시락/ 전화	3
w102	고향/ 강낭밥 한 공기/ 전화	3
w103	8월의 일기	1
w104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둘 학교에서	2
w105	(분석 대상 글 아님)	0
w106	(분석 대상 글 아님)	0
w107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엄마와 동생/ 귀염둥이 나의 동생/ 옛 추억	3
w108	가장 즐겁던 일/ 그때 그 정신으로 살자	2
w109	도시락/ 내 고향/ 전화	3
w110	저의 고향은/ 보고 싶은 선생님/ 잊지 못할 슬픔	3
w111	그리운 사람들/ OO의 백살구꽃 ¹⁸⁾	2
w112	(분석 대상 글 아님)	0
w113	고향/ 존경하는 선생님/ 꿈속에서의 행복	3
w114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2
w115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고향	2
w116	보고 싶은 엄마/ 보고 싶은 큰엄마	2
w117	아빠와 언니를 미워했던 이유	1
w118	전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가집	2
w119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족의 행복	2
w120	보고 싶은 사람/ 내 고향	2
w121	전화/ 내 고향	2
w122	내 고향/ 저를 제일 사랑하는 아빠께	2
w123	고향/ 체육 선생님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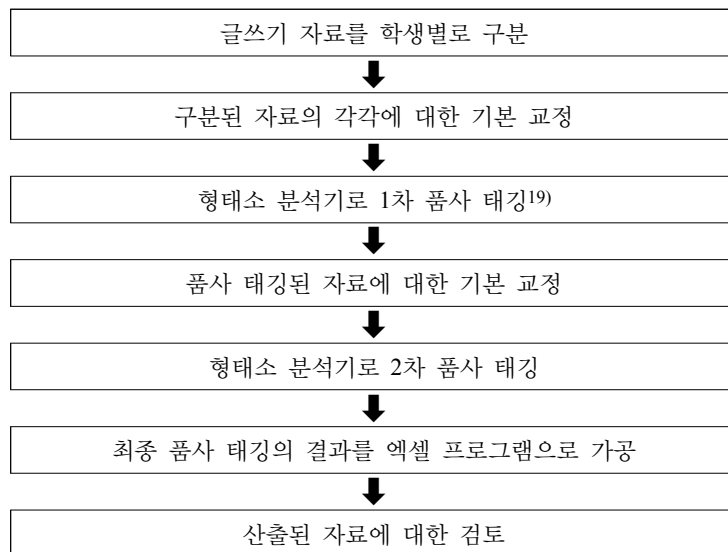
18) 하나둘 학교에서는 보안 문제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OO 표시를 하였다. 생략된 부분은 북한의 한 지명이다.

수집된 글이 어떤 수업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문집에 소개된 글의 제목과 글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일종의 자기서사문을 작성하는 글쓰기 수업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일부 서간문이 포함된 것은 형식상에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목으로는 ‘고향’, ‘전화’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좋아하는 무엇’, ‘보고 싶은 누구’ 등에 대한 것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러한 것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글 작성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 방법

1) 분석의 각 단계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형태소 차원, 어휘 차원, 문장 차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형태소와 어휘 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문장 차원의 분석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분석의 과정

19) 품사라는 개념은 본래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비자립적 형태의 형식 형태소는 품사 분류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소에 대해 태깅하는 작업을 품사 태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품사 태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하나들 학교의 문집 자료를 글을 작성한 학생별로 구분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학생별로 나타나는 문체적 특성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⁰⁾

학생별로 구분한 파일의 내용은 각각에 대한 기본 교정 단계를 거쳤다. 여기서의 기본 교정이란 오탃자를 교정하고, 남한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철자법이나 띄어쓰기를 교정한 것이다.²¹⁾

더불어, 이 단계에서는 줄임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본말 형태로 수정하였다. 이는 형태소 분석기에서 좀 더 정확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한 보완 작업이었다. 예를 들면, ‘난’, ‘널’, ‘우린’ 등을 ‘나는’, ‘너를’, ‘우리는’ 등과 같이 교정하였다. 이는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을 ‘대명사+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명사 ‘난’, ‘널’, 그리고 동사의 관형사형 ‘우린’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²²⁾

교정된 자료는 형태소 분석기로 품사 태깅 작업을 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란 분석 대상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 형식을 형태소별로 구분하고, 각 형태소의 문법적 특성을 자동 명세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형태소 분석기는 그 쓰임이 유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와 개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하여 공개 배포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분석 소프트웨어로 활용하기로 하였다.²³⁾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로 1차 태깅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분석이 다른 경우 어떤 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진해’의 경우 고유 명사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진하’와 ‘-여’가 결합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의 프로그램 처리 수준으로

20) 이 단계의 처리에서 HWP 형식으로 제공 받은 파일을 TXT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이는 다음 단계의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프로그램이 TXT 형식의 파일만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교정 과정에서 오탃자를 비롯한 표기법과 띄어쓰기가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어문 규정의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았다. 이는 문집 제작 과정에서 교사의 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하나원의 성인 교육 담당자와의 비공식적 면담에서 “하나원에서 작성한 글은 교사가 부분적으로 교정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만, 이는 주로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에 관련된 내용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을 함께 들었기 때문이다.

22) 이러한 방식의 처리는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태소 분석을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의 한계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23)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가 여타의 다른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 대단히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유일하게 공공 기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지능형 분석기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인된 프로그램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분석 툴로 활용하였다.

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개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자료는 다시 한 번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로 2차 품사 태깅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결과로 얻어진 태깅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가 된다.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2) 품사 태깅 방식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형태소 분석 후 각 형태소에 대해 자동으로 품사 태깅을 한다. 그러나 1차 품사 태깅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수작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수작업을 거친 자료는 2차 품사 태깅을 한다. 그리고 2차 품사 태깅 후의 결과를 글쓰기 특성 분석에 활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품사 태깅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고자 한다. 품사 태깅에서는 대분류로 7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과 같은 자립적인 형식 4가지 범주에 대해 소개한다. 주로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자립적인 형식에 대한 구분과 품사 태깅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체언	명사 NN	일반명사 NNG 고유명사 NNP 의존명사 NNB
	대명사 NP	
	수사 NR	
용언	동사 VV	
	형용사 VA	
	보조용언 VX	
	지정사 VC	긍정지정사 VCP 부정지정사 VCN
수식언	관형사 MM	
	부사 MA	일반부사 MAG 접속부사 MAJ
독립언	감탄사 IC	

체언은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수사로 구성된다. 명사는 NN으로 태깅될 수 있으나, 명사의 세부적인 성격에 따라 일반 명사를 NNG, 고유 명사를 NNP, 의존 명사를 NNB로 표기한다. 그리고 대명사는 NP로 표기하고, 수사는 NR로 표기한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주를 이룬다. 동사는 VV, 형용사는 VA로 표기한다. 그런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별도로

VX로 태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통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로 처리되는 ‘이다’의 경우는 여기서는 긍정 지정사로 분류하여 VCP로 태깅한다.²⁴⁾ 이에 대응될 만한 ‘아니다’의 경우는 부정 지정사로 분류하여 VCN으로 태깅한다.²⁵⁾

수식언은 관형사와 부사로 구성된다. 관형사는 MM으로 태깅한다. 부사는 MA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성격에 따라 일반 부사를 MAG, 접속 부사를 MAJ로 표기한다. 주로 접속 부사가 아닌 모든 부사를 일반 부사로 구분한 세부 구분이다.

독립언으로는 감탄사가 분류되며 분류 기호는 IC인데, 이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에서는 실제로 그 쓰임이 그리 많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관계언과 의존 형태로 구분된 범주가 있다. 이 범주에 속한 것들은 자립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문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기 의미를 분명히 가지는 경우이다. 이는 <표 5>와 같다.

<표 5> 의존적인 형식에 대한 구분과 품사 태깅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관계언	격조사 JK	주격조사 JKS 보격조사 JKC 관형격조사 JKG 목적격조사 JKO 부사격조사 JKB 호격조사 JKV 인용격조사 JKQ
	보조사 JX	
	접속조사 JC	
의존형태	어미 E	선어말어미 EP 종결어미 EF 연결어미 EC 명사형전성어미 ETN 관형형전성어미 ETM
	접두사 XP	체인접두사 XPN
	접미사 XS	명사파생접미사 XSN 동사파생접미사 XSV 형용사파생접미사 XSA (부사파생접미사 XSB)
	어기 XR	

24) ‘이다’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를 하지는 않고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에서 설정하고 있는 ‘긍정 지정사’를 따르기로 한다. ‘이다’에 대한 논의의 대강은 유목상(2007:96-97) 참조할 수 있다.

25) ‘아니다’의 경우도 학교 문법에서는 별도의 품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형용사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관계언에는 조사류가 포함된다. 조사류에 대한 품사 설정 논의는 국어학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주로 조사의 자립성 유무 및 품사 기술의 편의성 등과 관련하여 이를 단어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다만, 여기서는 조사에 관한 이러한 서로 다른 견해들과 관계없이 조사의 세부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태깅되었다는 것을 밝혀둔다.²⁶⁾

소분류로는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접속 조사로 구분된다. 격조사는 다시 주격 조사 JKS, 보격 조사 JKC, 관형격 조사 JKG, 목적격 조사 JKO, 부사격 조사 JKB, 호격 조사 JKV, 인용격 조사 JKQ로 구분하여 태깅된다. 보조사는 세분류 없이 그 자체로 JX로 표기되고, 접속조사도 역시 그 자체가 JC로 표기된다.

의존 형태로 분류된 것은 어미와 접사, 그리고 어기이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 EP, 종결 어미 EF, 연결 어미 EC, 명사형 전성어미 ETN, 관형사형 전성어미 ETM으로 표기된다.

접사류는 접두사 XP와 접미사 XS로 구분되는데, 접두사는 체언 접두사라는 세분류로 XPN을 설정하고 있다.²⁷⁾ 접미사는 명사 파생 접미사 XSA, 동사 파생 접미사 XSV, 형용사 파생 접미사 XSA로 구분하여 표기된다.

형태소 분석기는 텍스트에 사용된 모든 형태소와 기타 요소들에 대해서까지 구분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문장 부호, 숫자, 외국어 등에 대해 다음의 <표 6>과 같이 기호라는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표 6〉 기호에 대한 구분과 품사 태깅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SF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SP
	따옴표, 괄호표, 줄표	SS
	줄임표	SE
	붙임표(물결, 숨김, 빠짐)	SO
	외국어	SL
	한자	SH
	기타기호(논리수학기호, 화폐기호 등)	SW
	명사추정범주	NF
	용언추정범주	NV
	숫자	SN
	분석불능범주	NA

26) 조사의 정의, 특징, 종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주행(2011:99~129)을 참고할 수 있다.

27) 이 분류는 체언 접두사만을 별도로 하여 XPN이라는 세분류를 제시하고 있지만 타당한 세분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접두사는 체언에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와 같은 용언류에도 결합하기도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접두사 관련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이상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위에서 소개된 태깅 가운데 명사 추정 범주와 용언 추정 범주의 경우는 1차 태깅 이후 수작업으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형태소가 실제로 어떤 형태소에 속하는지 분명히 하여 태깅을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명사 추정 범주인 NF와 용언 추정 범주의 NV는 실제로는 남아 있지 않다. 또한 분석 불능 범주도 검토 과정에서 해당되는 품사로 적절히 태깅이 되었다. 다만, 문맥으로도 그것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일부에 대해서는 NA로 남겨두었으나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특별히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NA의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연구의 큰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장 분석 대상 자료의 국어학적 문체 특성

이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과정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점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²⁸⁾ 우선 전반적으로 이 자료들이 나타내는 주제와 분량상의 특성을 언급하고, 이어서 형태소 층위, 어휘 층위, 문장 층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제1절 전반적 분석

여기서는 주제, 글과 문장의 길이, 태그별 빈도와 비율 등 기본적인 분석 결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일부는 분석 결과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제3장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어질 제4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1. 글의 주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글은 수필 형식의 자기서사문이다. 각 글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특정한 지침을 주고 그 안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의 제목과 내용을 참고하여 글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의 주제는 주로 ‘가족’, ‘고향’, ‘자신’, ‘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우선 수집된 글의 주제별 분류를 <표 7>과 같이 보일 수 있다.

28)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의점도 일부 언급하기는 하겠지만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표 7〉 수집된 글의 주제별 분류

주제	해당 글의 제목	편 수
가족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엄마와 동생(w107), 도시락(w109), 그리운 사람들(w111), 우리 할머니(w114),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w115), 보고 싶은 엄마(w116), 아빠와 언니를 미워했던 이유(w117), <u>전화(w118)</u> , 가장 가슴 아픈 일(w119), 보고 싶은 사람(w120), <u>도시락(w101)</u> , <u>강낭밥 한 공기(w102)</u> , 귀염둥이 나의 동생(w107), 우리 어머니(w114), 보고 싶은 큰엄마(w116), 가족의 행복(w119), 저를 제일 사랑하는 아빠께(w122), <u>전화(w101)</u> , <u>전화(w102)</u> , 잊지 못할 슬픔(w110), <u>꿈속에서의 행복(w113)</u> ²⁹⁾	21
고향	고향(w101), 고향(w102), 저의 고향은(w110), 고향(w113), 내 고향(w122), 고향(w123), 내 고향(w109), OO의 백살구꽃(w111), 고향(w115), 내 고향(w120), 내 고향(w121)	11
자신	8월의 일기(w103), 내가 좋아하는 음식(w104), 가장 즐겁던 일(w108), 전화(w121), 그때 그 정신으로 살자(w108),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가집(w118), 옛 추억(w107), 전화(w109)	8
학교	하나둘 학교에서(w104), 보고 싶은 선생님(w110), 존경하는 선생님(w113), 체육 선생님께(w123)	4

전체 가운데 가족을 주제로 한 글은 21편으로 가장 많았다. 가령,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엄마와 동생(w107), 우리 할머니(w114), 아빠와 엄마를 미워했던 이유(w117) 등은 가족을 직접적인 소재로 하여 쓴 글이다. 또한, 도시락(w101), 강낭밥 한 공기(w102), 전화(w109) 등은 특정 소재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지만 그 내용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을 담아낸 글이었다. 이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 가족과 헤어지게 된 당시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고향을 주제로 한 글이 11편, 자기 자신의 감상에 대한 글이 8편, 그리고 학교 또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글이 4편이 등장했다. 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글이 많은 것 역시 북한을 떠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독감을 해결하고자 한 의도가 이런 글을 통해 표출되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북한 이탈 초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주제가 좀 더 다양화된다면 글쓰기 연습에 좀 더 활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교육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 제목에 직접 가족에 대한 표현이 없었지만 해당 소재를 통해 가족에 대해 작성한 글을 밑줄로 표시해 두었다.

2. 글과 문장의 길이

다음으로 각 학생별 글과 문장의 길이에 대한 정보이다. 문장 수는 한 학생의 글에서 사용된 문장의 개수를 나타내고, 어절 수는 어절의 개수를 나타낸다. 글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는 주로 어절 수와 관련이 있으며, 각 문장의 길이는 어절 수를 문장 수로 나눈 문장당 어절 수가 관련이 있다.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글과 문장의 길이

파일명	문장 수	어절 수	문장당 어절 수
w101	42	359	8.55
w102	60	603	10.05
w103	13	128	9.85
w104	36	453	12.58
w107	89	903	10.15
w108	40	347	8.68
w109	31	244	7.87
w110	41	399	9.73
w111	40	494	12.35
w113	30	310	10.33
w114	47	399	8.49
w115	24	377	15.71
w116	38	312	8.21
w117	23	170	7.39
w118	26	208	8
w119	23	277	12.04
w120	14	103	7.36
w121	53	518	9.77
w122	32	248	7.75
w123	35	343	9.8
합계	737	7195	9.76

위의 자료를 통해 학생별로 작성한 글의 길이와 문장의 평균적인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만, 위의 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주의할 부분은 각 학생마다 작성한 글의 편 수가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대부분의 학생들이 2편을 작성하여 제출한 데 반해, w103과 w117은 1편을 제출하였고, w101, w102, w107, w109,

w110, w113 등은 3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편 수가 글의 길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w103, w117의 경우는 글을 1편을 제출했지만 글의 길이가 가장 짧았던 것은 w120이다. 또한 w101, w109, w113의 경우는 3편을 제출했지만 글의 길이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³⁰⁾

이상의 자료를 순위별로 재구성하면 한 교실 내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관련 정보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표 9>는 글과 문장의 길이를 상대 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표 9> 글과 문장의 길이 순위별 정보

파일명	글이 긴 순위 (A)	문장이 긴 순위 (B)	(A)-(B)
w101	9	13	-4
w102	2	7	-5
w103	19	8	11
w104	5	2	3
w107	1	6	-5
w108	10	12	-2
w109	16	17	-1
w110	6	11	-5
w111	4	3	1
w113	13	5	8
w114	6	14	-8
w115	8	1	7
w116	12	15	-3
w117	18	19	-1
w118	17	16	1
w119	14	4	10
w120	20	20	0
w121	3	10	-7
w122	15	18	-3
w123	11	9	2

30) 이러한 변인 통제에 어려움은 조사 대상 자료 수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 관련 연구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국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북한 관련 연구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에서 글 전체의 길이가 긴 데 반해 문장의 길이가 짧은 경우나, 글 전체의 길이가 짧은 데 비해 문장의 길이가 긴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비대칭이 학생 개인의 문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가령, 짧은 글을 쓸 때에는 짧고 간결한 문장들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긴 글을 쓸 때에는 조금 길고 자세한 문장들을 사용하여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자료 분석을 통해 w103, w113의 경우는 글의 길이는 짧은 데 반해 문장의 길이는 긴 편이다.³¹⁾ 이러한 글은 짧은 글 특유의 리듬감을 살리기 어렵다. 반면, w114의 경우는 글의 길이가 긴 데 반해 문장의 길이가 짧은 편이다.³²⁾ 이러한 글은 긴 글에서 구사할 수 있는 길고 자세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긴 글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태그별 빈도와 비율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을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품사 태깅 자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품사란 보통 자립성을 가진 단어의 부류를 명명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단지 자립성을 가진 단어뿐만 아니라 자립성을 가지지 못한 일부 형식 형태소도 태깅 자료에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그 가운데서 자립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여기서는 각 태그별로 어느 정도의 사용 빈도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한 편의 글 내에서 태그별로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학생별로 각 태그가 몇 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태그는 전체 글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비율은 '(해당 태그 사용 횟수/전체 태그 사용 횟수)*100'으로 하였고, 소수점은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가공하였다. 음영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학생의 글쓰기에 붙인 일련번호이다.

31) w103의 글은 전체 20명 가운데 19번째로 길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짧은 글이라는 의미이다. 반면, 문장의 길이를 보면 8번째로 길며, 이는 곧 문장의 길이가 중간 이상으로 길다는 의미이다. w113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 w114의 글은 전체 20명 가운데 6번째로 길지만, 문장의 길이를 보면 14번째로 긴 데 그치고 있다. 이는 글 전체의 길이는 긴 데 반해, 문장의 길이가 짧은 예이다.

〈표 10〉 태그별 빈도와 비율

	w101		w102		w103		w104	
태그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NNP	19	5.26	16	2.64	4	3.1	20	4.32
NNG	125	34.63	208	34.38	48	37.21	163	35.21
NNB	8	2.22	18	2.98	6	4.65	11	2.38
NP	28	7.76	32	5.29	1	0.78	22	4.75
NR	0	0	2	0.33	0	0	1	0.22
VV	70	19.39	150	24.79	41	31.78	140	30.24
VA	45	12.47	53	8.76	12	9.3	35	7.56
VX	19	5.26	45	7.44	3	2.33	22	4.75
MM	10	2.77	18	2.98	0	0	9	1.94
MAG	30	8.31	50	8.26	8	6.2	29	6.26
MAJ	7	1.94	13	2.15	6	4.65	11	2.38
	w107		w108		w109		w110	
태그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NNP	24	2.61	7	2	8	3.19	19	4.65
NNG	310	33.66	94	26.86	90	35.86	142	34.72
NNB	49	5.32	25	7.14	8	3.19	17	4.16
NP	62	6.73	31	8.86	21	8.37	49	11.98
NR	3	0.33	2	0.57	0	0	0	0
VV	222	24.1	87	24.86	61	24.3	91	22.25
VA	55	5.97	40	11.43	19	7.57	34	8.31
VX	70	7.6	22	6.29	19	7.57	22	5.38
MM	19	2.06	0	0	0	0	0	0
MAG	86	9.34	32	9.14	17	6.77	24	5.87
MAJ	21	2.28	10	2.86	8	3.19	11	2.69
	w111		w113		w114		w115	
태그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NNP	15	2.96	4	1.25	7	1.74	5	1.31
NNG	150	29.64	123	38.56	130	32.26	141	36.81
NNB	20	3.95	8	2.51	16	3.97	22	5.74
NP	22	4.35	16	5.02	60	14.89	18	4.7
NR	0	0	3	0.94	5	1.24	0	0
VV	135	26.68	82	25.71	76	18.86	86	22.45
VA	51	10.08	26	8.15	25	6.2	42	10.97
VX	32	6.32	22	6.9	30	7.44	19	4.96
MM	13	2.57	9	2.82	6	1.49	16	4.18
MAG	58	11.46	24	7.52	39	9.68	31	8.09
MAJ	10	1.98	2	0.63	9	2.23	3	0.78
	w116		w117		w118		w119	

태그	w101		w102		w103		w104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NNP	85	26.9	2	1.16	5	2.37	1	0.36
NNG	13	4.11	57	33.14	68	32.23	81	28.83
NNB	39	12.34	11	6.4	9	4.27	14	4.98
NP	1	0.32	13	7.56	27	12.8	15	5.34
NR	79	25	0	0	0	0	1	0.36
VV	30	9.49	45	26.16	40	18.96	65	23.13
VA	19	6.01	11	6.4	21	9.95	40	14.23
VX	1	0.32	12	6.98	9	4.27	22	7.83
MM	25	7.91	7	4.07	7	3.32	3	1.07
MAG	14	4.43	12	6.98	12	5.69	34	12.1
MAJ	7	1.94	2	1.16	13	6.16	5	1.78
태그	w120		w121		w122		w123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NNP	3	2.83	12	2.26	5	1.95	13	3.71
NNG	37	34.91	168	31.64	87	33.98	133	38
NNB	2	1.89	13	2.45	11	4.3	14	4
NP	10	9.43	53	9.98	26	10.16	27	7.71
NR	0	0	0	0	1	0.39	2	0.57
VV	25	23.58	106	19.96	68	26.56	76	21.71
VA	12	11.32	49	9.23	9	3.52	27	7.71
VX	6	5.66	46	8.66	20	7.81	19	5.43
MM	0	0	17	3.2	4	1.56	6	1.71
MAG	9	8.49	51	9.6	17	6.64	21	6
MAJ	2	1.89	16	3.01	8	3.13	12	3.43

현재로서는 이 자료만으로 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만, 이후의 분석을 위해 자료의 대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표 10>을 제시하였다.

제2절 형태소 층위의 분석

형태소 분석에서는 주로 어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³³⁾ 어미의 사용은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의 사용에 관심을 두었다.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의 사용은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서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33) 엄밀한 의미에서는 형태소 층위가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지 만, 여기서의 형태소란 ‘비자립 형식 형태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사용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연결 어미는 담화의 진행 유형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글쓰기 자료의 문체 특성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소 층위 분석에서는 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의 특성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1. 연결 어미의 사용 양상

우선 학생의 글에 사용된 연결 어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연결 어미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를 살피고, 연결 어미의 사용 다양성 지수³⁴⁾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연결 어미 ‘-고’의 점유율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³⁵⁾ 아래의 <표 11>을 보자. 이를 통해 각 학생이 연결 어미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는지 등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결 어미 ‘-고’의 점유율³⁶⁾을 별도로 살펴보는 이유는 모든 학생의 글에서 연결 어미 ‘-고’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 연결 어미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어미 사용의 다양성, ‘-고’의 점유율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고’의 점유율
w101	62	23	37.1	17.74
w102	162	37	22.84	28.4
w103	27	8	29.63	33.33
w104	115	28	24.35	16.52
w107	196	40	20.41	27.04
w108	66	23	34.85	22.73
w109	49	18	36.73	22.45
w110	72	22	30.56	31.94
w111	135	28	20.74	25.19
w113	80	23	28.75	27.5
w114	73	28	38.36	15.07

34) 어휘의 사용 다양성 지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여기서는 사용 빈도 대비 유형 빈도를 고려한 ‘(연결 어미 유형 빈도/전체 연결 어미 사용 빈도)*100’을 공식으로 활용하였다.

35) 다만, 여기서 연결 어미 ‘-고’는 쓰임이 다양한데, 현재의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로는 연결 어미 ‘-고’의 세부 의미를 변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어미 ‘-고’가 주로 앞뒤 절을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원형적인 의미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36) ‘-고’ 점유율 산출 공식은 ‘(-고) 사용 빈도/전체 연결 어미 사용 빈도*100’이다.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고’의 점유율
w115	86	27	31.4	16.28
w116	54	17	31.48	31.48
w117	39	16	41.03	25.64
w118	37	20	54.05	21.62
w119	71	19	26.76	22.54
w120	19	11	57.89	21.05
w121	110	27	24.55	26.36
w122	53	17	32.08	26.42
w123	72	24	33.33	19.44

연결 어미의 기능을 고려할 때 글쓰기에서 연결 어미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은 글의 다양성이나 차별화된 구체적 서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결 어미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학생은 w120, w118, w117, w114, w1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w107, w102, w111의 경우는 연결 어미의 사용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w107, w102, w111과 같은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연결 어미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을 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³⁷⁾

그러나 자신의 문체적 특성으로 인해 어미 사용 다양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연결 어미 ‘-고’의 점유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결 어미 사용 다양성이 낮은 w107, w102, w111 세 학생의 경우 모두 연결 어미 ‘-고’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연결 어미를 다양하게 사용하라는 지시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연결 어미 ‘-고’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면 다른 연결 어미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2. 선어말 어미의 사용 양상

다음으로 선어말 어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놓여 시제나 상, 또는 대우 표현에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도 선어말 어미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를 살펴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 ‘-았(었)-’

37) 이러한 방식으로 어휘 사용 다양성 지수를 산출했을 때에는 글이 긴 경우에 다양성 지수가 낮게 나오고, 글이 짧은 경우에 다양성 지수가 높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각 학생의 글에서 최초 300어절 또는 최초 400어절 등의 단위까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최근에 발견된 문제로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 점유율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12>를 살펴보자.

<표 12> 선어말 어미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어미 사용의 다양성, ‘-았(었)-’의 점유율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았(었)-’의 점유율
w101	34	4	11.76	88.24
w102	31	5	16.13	64.52
w103	11	3	27.27	90.91
w104	44	4	9.09	63.64
w107	69	5	7.25	95.65
w108	37	5	13.51	83.78
w109	22	3	13.64	86.36
w110	35	4	11.43	71.43
w111	43	3	6.98	95.35
w113	26	4	15.38	69.23
w114	44	4	9.09	77.27
w115	31	5	16.13	70.97
w116	44	4	9.09	75
w117	17	2	11.76	100
w118	29	2	6.9	100
w119	27	5	18.52	59.26
w120	20	6	30	60
w121	58	6	10.34	84.48
w122	37	6	16.22	67.57
w123	30	4	13.33	83.33

선어말 어미의 사용을 보면 비교적 제한된 선어말 어미의 사용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가령, 과거 시제나 완료의 의미를 더하는 ‘-았(었)-’의 사용이 가장 많고, 그 외에 ‘-겠-’과 ‘-(으)시-’가 나타난다. 선어말 어미의 사용은 그 자체로서 긍정적인 요인인가, 부정적인 요인인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루는 내용이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인가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을 분석한 결과에서 ‘-았(었)-’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작성한 글이 주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일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의 심리 상태의 일면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삶의 이야기의 시점이 과거를 향해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선어말 어미의 사용은 단지 언어적인 측면을 넘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할 필요를 일깨워주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³⁸⁾

3.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

끝으로 종결 어미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의 제일 뒤에서 한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종결 어미는 청자 대우법의 화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종결 어미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를 살펴보고, 이 값을 토대로 종결 어미 사용의 다양성을 측정해 보기로 한다. 또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격식체 종결 어미와 비격식체 종결 어미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³⁹⁾, 여기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혼용률⁴⁰⁾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3>이 그 내용이다.

<표 13> 종결 어미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어미 사용의 다양성, 비격식체 혼용률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비격식체 혼용률
w101	34	4	11.76	88.24
w102	31	5	16.13	64.52
w103	11	3	27.27	90.91
w104	44	4	9.09	63.64
w107	69	5	7.25	95.65
w108	37	5	13.51	83.78
w109	22	3	13.64	86.36

38) 실제로, 정성미(2014) 등에서는 글쓰기를 수단으로 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문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이러한 결과들이 교육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39) 현대 국어에서 ‘하세요’, ‘해요’, ‘해’ 등이 둘 간의 친근한 느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비격식체 어미이다.

40) 격식체와 비격식체 혼용률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비격식체 종결 어미의 수/전체 종결 어미의 수)*100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비격식체 혼용률
w110	35	4	11.43	71.43
w111	43	3	6.98	95.35
w113	26	4	15.38	69.23
w114	44	4	9.09	77.27
w115	31	5	16.13	70.97
w116	44	4	9.09	75
w117	17	2	11.76	100
w118	29	2	6.9	100
w119	27	5	18.52	59.26
w120	20	6	30	60
w121	58	6	10.34	84.48
w122	37	6	16.22	67.57
w123	30	4	13.33	83.33

<표 13>을 보면, 앞서 살폈던 연결 어미(<표 11>), 선어말 어미(<표 12>)와 비교해 볼 때 종결 어미는 사용 다양성 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오고 있다. 이는 종결 어미가 다른 어미들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유형이 사용된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글을 쓸 때에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과 같은 문장 유형의 변화가 많지 않다면 종결 어미의 유형은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

그런데 분석 대상 글을 보면 어떤 글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혼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가령, w102, w104, w113, w119, w120의 경우는 비격식체 혼용률이 59.26~69.2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글 내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유사하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글쓰기 교육에서 종결 어미의 유형을 격식체 또는 비격식체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w117, w118의 경우는 글 전체적으로 비격식체 종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방식의 글쓰기가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41) 사실 이는 의미가 적은 정보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 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앞선 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와 기술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시할 뿐이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격식체와 비격식체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어휘 층위의 분석

여기서는 주로 어휘 층위에서 글쓰기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각 품사의 사용에서 특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국어 문법 기술의 관례에 따라 체언류, 용언류, 수식언류를 구분하여 어휘 사용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체언류의 사용 양상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따위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르는 말이다. 본 조사에서는 명사를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로 구분하여 태깅을 하였고, 대명사와 수사를 별도로 태깅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다. w101, w103, w109, w110, w111, w115, w117, w118, w120, w121 등의 경우는 수사의 사용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비교적 많이 쓰인 예에 속하는 w107과 w114의 사례에서도 각각 3회와 5회만이 나타났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사를 제외한 명사와 대명사를 중심으로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명사의 경우

명사는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반적인 명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 14>는 학생의 글에서 나타나는 명사의 전체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리고 이들 수치를 활용하여 산출한 사용 다양성 지수이다.

<표 14> 명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171	106	61.99
w102	269	141	52.42
w103	64	44	68.75
w104	212	127	59.91
w107	410	171	41.71
w108	129	78	60.47
w109	112	62	55.36
w110	191	118	61.78
w111	195	110	56.41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13	148	83	56.08
w114	166	78	46.99
w115	185	105	56.76
w116	111	42	37.84
w117	79	47	59.49
w118	90	38	42.22
w119	116	55	47.41
w120	46	35	76.09
w121	216	87	40.28
w122	107	58	54.21
w123	165	90	54.55

명사의 경우 단순히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만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4>의 결과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어휘 사용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큰 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휘 사용 다양성 지수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w120의 경우 가장 낮은 w116에 비해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는 w120이 글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이 2배 정도 더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w121, w116의 경우는 사용된 명사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다양성 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반복된 어휘가 자주 등장함에 따라 글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되는 어휘를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휘 다양성 지수를 올릴 수 있게 해야 할까? 일차적으로는 동일 학습자 집단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 이탈 청소년 집단의 경우 대략 54 내지 55%까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대명사의 경우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를 의미한다.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의문 대명사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도 우선 <표 15>를 통해 대명사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리고 이를

통해 사용 다양성 지수를 산출해 보기로 한다.

〈표 15〉 대명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28	4	14.29
w102	32	12	37.5
w103	1	1	100
w104	22	7	31.82
w107	62	8	12.9
w108	31	8	25.81
w109	21	3	14.29
w110	49	7	14.29
w111	22	3	13.64
w113	16	6	37.5
w114	60	7	11.67
w115	18	8	44.44
w116	39	6	15.38
w117	13	3	23.08
w118	27	2	7.41
w119	15	5	33.33
w120	10	5	50
w121	53	4	7.55
w122	26	4	15.38
w123	27	4	14.81

한 편의 글에서 대명사가 얼마나 더 많이 쓰였는지는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다만, 북한 이탈 청소년의 대명사 사용에서는 w107에서 62회, w114에서 60회 사용된 반면, w103에서 1회, w120에서 10회, w117에서 13회 나타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의 표현이 간결해지는 면이 있지만, 대명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매해지거나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명사 사용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인칭 대명사 이외의 지시 대명사나 의문 대명사의 사용이 매우 적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w103, w117,

w122 등에서는 지시 대명사의 사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문 대명사의 경우 w102, w107, w110, w114, w115, w117, w120, w122에서만 몇 차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추가로, 인칭 대명사의 사용에도 특성이 나타난다. 주로, ‘저’, ‘나’, ‘저희’, ‘우리’ 등과 같은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뿐 다른 대명사의 사용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보면 w107에서 ‘너’라는 대명사가 3회 사용되고, w108에서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7회 사용되었을 뿐 그 외의 모든 인칭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이다. 문체론적으로 봤을 때 1인칭 대명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표현 양식의 단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을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에 대입해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처지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2. 용언류의 사용 양상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동사, 형용사 등의 단어들이 주로 용언으로 분류된다. 용언은 통사론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구분되는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구분하여 태깅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동사와 형용사의 사용 양상을 각각 살펴보고, 보조용언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동사의 경우

우선 각 학생의 글에서 나타난 동사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사용 다양성 지수를 제시하면 <표 16>과 같다.⁴²⁾

42) 동사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를 산출하는 데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동사 분석에 있어 과도한 분석이 진행된 점이 문제가 되었다. 가령, ‘일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하-’라는 동사로 간주하지만, 형태소 분석기의 분석에서는 명사 어근 ‘일’과 용언화 접미사 ‘-하다’가 붙은 것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XSV, 즉 동사 파생 접미사로 분류된 형태소의 개수를 동사의 개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사의 개수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동사의 사용 빈도는 보정이 되지만 유형 빈도는 보정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6〉 동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56	38	67.86
w102	128	58	45.31
w103	35	15	42.86
w104	125	64	51.2
w107	199	96	48.24
w108	85	62	72.94
w109	56	29	51.79
w110	80	42	52.5
w111	129	69	53.49
w113	72	52	72.22
w114	66	41	62.12
w115	71	40	56.34
w116	76	27	35.53
w117	37	25	67.57
w118	33	23	69.7
w119	57	30	52.63
w120	21	16	76.19
w121	90	46	51.11
w122	64	41	64.06
w123	71	47	66.2

동사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성 지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다양성 지수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35.53%부터 가장 높은 76.19%까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w121, w103의 경우는 사용된 동사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다양성 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반복된 어휘가 자주 등장함에 따라 글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되는 어휘를 다른 어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어휘 다양성 지수는 일차적으로 동일 학습자 집단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 이탈 청소년 집단의 경우 대략 58%까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형용사의 경우

각 학생의 글에서 나타난 형용사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사용 다양성 지수를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⁴³⁾

<표 17> 형용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39	18	46.15
w102	44	22	50
w103	12	8	66.67
w104	26	16	61.54
w107	49	18	36.73
w108	34	12	35.29
w109	17	10	58.82
w110	31	12	38.71
w111	45	18	40
w113	20	14	70
w114	22	12	54.55
w115	39	18	46.15
w116	29	11	37.93
w117	10	6	60
w118	20	11	55
w119	25	15	60
w120	10	6	60
w121	40	20	50
w122	8	8	100
w123	26	14	53.85

형용사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성 지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다양성 지수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35.29%부터 가장 높은 100%와 70%까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w108, w107의 경우는 사용된 형용사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다양

43) 형용사 분석도 앞선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도 XSA로 태깅된 형용사 파생 접미사의 수만큼 형용사의 수를 더해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가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였다.

성 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반복된 어휘가 자주 등장함에 따라 글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되는 어휘를 다른 어휘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여기서도 일차적으로는 동일 학습자 집단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 이탈 청소년 집단의 경우 대략 54%까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용언이 본래의 자기 의미를 일부 상실하고,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된 동사와 형용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⁴⁴⁾ 우선 각 학생의 글에서 나타난 보조동사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사용 다양성 지수를 제시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보조용언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19	9	47.37
w102	45	14	31.11
w103	3	1	33.33
w104	22	9	40.91
w107	70	18	25.71
w108	22	11	50
w109	19	8	42.11
w110	22	9	40.91
w111	32	10	31.25
w113	22	10	45.45
w114	30	8	26.67
w115	19	10	52.63
w116	19	8	42.11

44) 국어학적으로는 의존 명사 뒤에 ‘-하다’가 붙어 보조용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체하다’, ‘척하다’, ‘뚫하다’ 등이 그런 예인데, 지능형 형태소에서는 이를 보조용언으로 태깅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보조용언의 기능과 이들 보조용언과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으므로 이들 보조용언이 분석 자료에서 보조용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17	12	10	83.33
w118	9	6	66.67
w119	22	9	40.91
w120	6	4	66.67
w121	46	11	23.91
w122	20	10	50
w123	19	12	63.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용언을 말한다. 따라서 본용언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술어의 의미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단순히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비해 ‘먹어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적절한 보조용언의 사용은 글의 표현을 풍성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소이다.

학생 글을 분석한 <표18>에 의하면 w107, w121, w102 등의 글에서 보조용언이 많이 사용되었다. 사용 빈도가 각각 70회, 46회, 45회에 달했다. 반면, w103, w120, w118 등에서는 보조용언의 사용이 각각 3회, 6회, 9회에 그쳤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w107, w121, w102 등은 정밀한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며, 글에서 그것을 표현해 내는 학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w103, w120, w118 등은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볼 수 있다.⁴⁵⁾

보조용언 사용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w117, w120, w118 등은 매우 높게 나타난 데 반해, w121, w107, w114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용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경우와 가장 낮은 경우는 수치상으로 무려 4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45)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문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보조용언이 사용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부정 표현을 위한 보조용언 ‘못하다’라든지 희망의 표현 ‘싶다’ 등의 사용을 정밀한 표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이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된 보조용언은 학생들의 글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수식언류의 사용 양상

한국어에서 문장의 주성분이 되는 체언류와 용언류 이외에 수식언류의 분류를 설정할 수 있다. 수식언이란 용어 그대로 어떤 다른 말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말을 하는 말로서,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류에 속한다. 여기서도 앞선 서술 방식과 같이 관형사와 부사의 사용 양상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형사의 경우

관형사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말로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우선 각 학생의 글에서 나타난 관형사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사용 다양성 지수를 제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관형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10	7	70
w102	18	10	55.56
w103	0	0	0
w104	9	6	66.67
w107	19	7	36.84
w108	3	1	33.33
w109	3	2	66.67
w110	5	4	80
w111	13	5	38.46
w113	9	6	66.67
w114	6	5	83.33
w115	16	6	37.5
w116	1	1	100
w117	7	4	57.14
w118	7	4	57.14
w119	3	3	100
w120	0	0	0
w121	17	4	23.53
w122	4	3	75
w123	6	4	66.67

관형사는 한국어 품사 가운데 해당되는 단어의 수가 가장 적은 품사이다. 그런 이유로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에서도 관형사의 등장은 많지 않았다. w103, w120의 경우는 관형사의 사용이 전혀 없었고, 가장 많은 종류의 관형사를 사용한 w102의 경우도 10종류의 관형사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관형사의 사용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나타내는 특별한 양상을 언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저 참고 자료로서 관형사의 사용 실태를 <표 19>와 같이 제시한다.

2) 부사의 사용 양상

부사는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히 하는 품사로서 그 자체가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 불변어에 속한다. 부사는 크게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눌 수 있으나, 부사의 분류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의 태깅 기준을 준용하여 일반 부사와 접속 부사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부사 사용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⁴⁶⁾

(1) 일반 부사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에서 일반 부사는 접속 부사 이외의 부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선, 일반 부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일반 부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30	18	60
w102	50	30	60
w103	8	5	62.5
w104	29	23	79.31
w107	86	46	53.49
w108	32	25	78.13
w109	17	12	70.59
w110	24	18	75

46)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부사와 접속 부사의 구분은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의 분류와 같은 것이다. 물론, 접속 부사는 영어의 접속사의 개념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데, 한국어의 접속 부사(또는 문장 부사)는 단지 문장의 접속에 관련되는 것을 넘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의미 영역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다.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11	58	33	56.9
w113	24	16	66.67
w114	39	30	76.92
w115	31	19	61.29
w116	25	17	68
w117	12	9	75
w118	12	7	58.33
w119	34	18	52.94
w120	9	7	77.78
w121	51	28	54.9
w122	17	17	100
w123	21	16	76.19

일반 부사의 경우 다른 품사들에 비해 어휘의 사용 다양성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피수식어에 따라 사용이 결정되는 부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피수식어인 동사나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사의 종류가 제한된다.

전체 학생 가운데 가장 낮은 다양성 지수를 보인 학생은 w119였고, 가장 높은 다양성 지수를 보인 것은 w122였다. 이 둘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w119의 경우 사용된 부사어를 대략 두 번 정도 반복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 데 반해 w122는 모든 부사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w119, w107, w121에서 다양성 지수가 낮게 나왔으며, w122, w104, w108에서 다양성 지수가 높게 나왔다. 모든 학생들의 부사 사용 다양성 지수는 평균 68.2%를 나타냈다.

다만, 일반 부사의 사용은 그 자체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 정보만으로는 논의점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전체 품사 사용 비율에서 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부사 사용 양상의 특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 문장 부사라고 하기도 하며, 주로 문장과 문장을 일반 부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접속 부사의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지수

파일명	사용 빈도	유형 빈도	사용 다양성
w101	7	4	57.14
w102	13	7	53.85
w103	6	2	33.33
w104	11	5	45.45
w107	21	8	38.1
w108	10	5	50
w109	8	4	50
w110	11	3	27.27
w111	10	5	50
w113	2	2	100
w114	9	6	66.67
w115	3	2	66.67
w116	14	3	21.43
w117	2	2	100
w118	13	6	46.15
w119	5	3	60
w120	2	2	100
w121	16	7	43.75
w122	8	4	50
w123	12	5	41.67

접속 부사도 그 종류가 많지 않은 품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글쓰기 자료에서 사용된 접속 부사의 수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w107, w121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사용 빈도는 각각 21회, 16회에 그쳤다. w113, w117, w120에서 적게 사용했는데, 사용 빈도는 2회이다. 유형 빈도의 측면에서도 w107에서 8종류, w121, w102 등에서 7종류가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 간의 전환 관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화 구조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각 학생의 글에서 어떤 접속 부사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 이탈 학생의 글쓰기 자료에 등장하고 있는 접속 부사를 살펴보면 의미 기능에 따라 추가, 전환,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한 각 학생별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은 <표 22>와 같다.⁴⁷⁾

<표 22> 학생별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파일명	추가	전환	인과	기타
w101	2	4	1	
w102	5	4	4	
w103	6			
w104	1	3	7	
w107	5	10	5	1(양보)
w108	4	5	1	
w109	4	1	2	1(가정)
w110	6	2	3	
w111	6	2	1	1(가정)
w113	1	1		
w114	3	2	1	1(가정)
w115	2	2		
w116		11	3	
w117	1	1		
w118	6	3	3	1(양보)
w119	1	3	1	
w120	2			
w121	6	7	3	
w122	1	6	1	
w123	1	6	5	

<표 22>와 같이 접속 부사가 사용되는 양상 정보를 통해 담화 진행 양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가령, w103의 경우는 접속 부사의 사용이 모두 ‘추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담화 진행이 주로 병렬적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w116의 경우는 전체 접속 부사 가운데 ‘전환’과 관련된 접속 부사의 사용이 11회에 이르고 있으며, 이 경우는 담화 진행이 대조된 내용의 연속적 배열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w107의 경우는 ‘전환’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추가’와 ‘인과’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양보’ 관련 접속

47) ‘추가’, ‘전환’, ‘인과’ 이외에도 ‘가정’, ‘양보’ 등에 관련된 접속 부사의 사용이 있었으나 출현이 빈번하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기타’ 항목에서 묶어서 제시하기로 한다.

부사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니 전반적으로 담화 진행 양상이 다채로운 구성의 글을 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 22>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접속 부사를 자주 사용하는 학생 가운데 접속 부사 사용 유형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w103, w116이 대표적인 학생이다. 이들 학생은 접속 부사의 사용이 많은 데 반해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그 유형은 편중되어 있다. 이런 학생의 경우 접속 부사의 표현 자체를 다양화할 필요도 있겠거니와, 이들이 작성하는 글의 담화 진행 양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복된 담화 진행 양상은 독자에게 지루함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 부사의 지나친 사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논의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대체로 많은 글쓰기 전문가들이 접속 부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때때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가독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4절 문장 층위의 분석

북한 이탈 청소년 글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문장 층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장 층위에서는 우선 글별로 단문과 복문의 구성을 살펴보고, 복문의 절 구조를 분석하여 문장의 복잡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단문과 복문의 구성

하나의 서술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며, 둘 이상의 단문이 하나의 문장을 이룬 문장을 복문이라고 한다. 복문은 두 개의 단문이 대등하게 연결된 경우도 있지만, 주로 한 문장 안에 다른 문장에 포함되는 내포문 형식인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는 분석 대상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문장 층위의 분석에 앞서 단문과 복문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23〉 글에서 단문과 복문의 구성

파일명	문장 수	어절 수	문장당 어절수	문장 종류	
				단문	복문
w101	42	359	8.55	7	35
w102	60	603	10.05	6	54
w103	13	128	9.85	0	13
w104	36	453	12.58	5	31
w107	89	903	10.15	12	77
w108	40	347	8.68	3	37
w109	31	244	7.87	6	25
w110	41	399	9.73	5	36
w111	40	494	12.35	0	40
w113	30	310	10.33	7	23
w114	47	399	8.49	7	40
w115	24	377	15.71	1	23
w116	38	312	8.21	5	33
w117	23	170	7.39	5	18
w118	26	208	8	7	19
w119	23	277	12.04	2	21
w120	14	103	7.36	1	13
w121	53	518	9.77	11	42
w122	32	248	7.75	6	26
w123	35	343	9.8	6	29
합계	737	7195	9.76	102	635

〈표 23〉을 통해 학생들의 글은 주로 복문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w107, w121의 경우는 전체 가운데 단문이 각각 12개, 11개 정도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w103, w111의 경우는 단문의 사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w115, w120의 경우에는 단문이 겨우 1개 정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문이 몇 개 있는지, 복문이 몇 개 있는지를 단순히 제시해서는 단문과 복문의 구성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상의 내용을 단문과 복문의 비율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24〉은 분석 대상 자료별 단문과 복문의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⁴⁸⁾

48) 복문의 비율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복문의 수/전체 문장의 수)*100

〈표 24〉 글에서 단문과 복문의 비율

파일명	문장 종류		복문의 비율
	단문	복문	
w101	7	35	83.33
w102	6	54	90
w103	0	13	100
w104	5	31	86.11
w107	12	77	86.52
w108	3	37	92.5
w109	6	25	80.65
w110	5	36	87.8
w111	0	40	100
w113	7	23	76.67
w114	7	40	85.11
w115	1	23	95.83
w116	5	33	86.84
w117	5	18	78.26
w118	7	19	73.08
w119	2	21	91.3
w120	1	13	92.86
w121	11	42	79.25
w122	6	26	81.25
w123	6	29	82.86

전체적으로 복문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w103, w111의 경우는 100% 복문이 사용되었다. 반면, 복문의 사용 비율이 다소 낮은 경우는 w118, w113, w117의 경우였는데, 각각 73.08%, 76.67%, 78.2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의 차이가 문장의 수나 어절의 수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 복문의 복잡도

앞선 단문과 복문 구성에 관한 분석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여기서는 개별 학생들의 글에 쓰인 복문의 복잡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문은 유형에 따라 대등절로 연결된 문장과 내포절로 포함된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등절이란 둘 이상의 단문 구조가 한 문장 내에서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포절은 대등절과 어떤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마치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포절의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내포절의 유형(고영근, 남기심, 1985:372~383)

- ㄱ. 명사절로 안김: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화하여 이루어진 것
- ㄴ. 서술절로 안김: 서술절은 한 문장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
- ㄷ. 관형절로 안김: 관형절은 문장의 종결형에 ‘-(고 하)는’이 붙거나 관형절이 될 문장의 서술어가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는 것
- ㄹ. 부사절로 안김: 부사절은 문장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⁴⁹⁾
- ㅁ. 인용절로 안김: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조사 ‘-라고, -고’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

1) 복문의 복잡도

이상의 구분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복문 분석에서 6가지 유형으로 절 구조를 살펴보았다. 절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복문은 내포절의 개수에 따라 복잡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단문인 경우와 대등절의 경우를 제외한 내포절이 포함된 문장에서 내포절의 개수 값을 참고로 하여 문장의 복잡도를 산출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문장 안에, 예를 들면, w101의 글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표 24>는 w101의 복문 복잡도 산출 예시이다. 절 개수 값은 하나의 복문에서 내포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절의 개수를 나타내며, 복문의 복잡도 값은 글에서 나타난 내포절의 총 개수를 복문의 총 개수로 나눈 수치이다. 각각에 대한 구분 기호는 대등절(대), 명사절(명), 서술절(서), 관형절(관), 부사절(부), 인용절(인)로 하기로 한다. 또한 단문이어서 절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의 경우는 (무)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 25> w101의 복문 복잡도 산출 예시

문장	어절 수	문장 종류	분석	절 개수 값
1	5	단	무	X
2	6	복	대	X
3	4	복	대	X
4	5	단	무	X

49) 다만, 부사절의 경우 많은 연결 어미 가운데 어디까지를 부사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국어학계에서도 논란이 많다. 여기서는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모든 절 구조를 부사절로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

문장	어절 수	문장 종류	분석	절 개수 값
5	12	복	관/대/관	2
6	8	복	부	1
7	4	단	무	X
8	7	복	부	1
9	10	복	부/부	2
10	13	복	부/부/관	3
11	20	복	부/대/관/부/대/인	4
12	5	단	무	X
13	9	복	대	X
14	7	복	명/관	2
15	6	복	관	1
16	8	복	대/관	1
17	5	복	관	1
18	8	복	부/부/관	3
19	5	복	관	1
20	13	복	관/대/부	2
21	5	복	부	1
22	12	복	관/부	2
23	30	복	관/관/부/부/부/관/부	7
24	11	복	부/관/대	2
25	5	복	관	1
26	4	단	무	X
27	5	복	명	1
28	9	복	관/명	2
29	8	복	관	1
30	15	복	명/부/대/명/대	3
31	9	복	관/명/명/관	4
32	8	복	부	1
33	6	단	무	X
34	10	복	부/관/부/관	4
35	8	복	인/대	1
36	5	복	관	1
37	4	단	무	X
38	5	복	부/관	2

문장	어절 수	문장 종류	분석	절 개수 값
39	13	복	관/관	2
40	8	복	부	1
41	12	복	명/관/부/인	4
42	7	복	관/대	1
복문의 복잡도 값				2.03

위의 <표 25>에서는 복문의 복잡도 값이 2.03으로 나왔는데, 이는 전체 사용한 복문이 대략 2개의 내포절을 포함하는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복잡도가 낮을수록 문장의 구조가 단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26>은 w101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의 글에 대한 복문 복잡도 측정 결과이다. 그리고 문장별 편차는 각 학생의 글에서 사용된 문장의 복잡도 지수가 문장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피기 위한 지표이다. 문장별 편차가 큰 것은 복잡한 문장과 단순한 문장의 사용이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며, 문장별 편차가 작은 것은 주로 복잡한 문장 또는 단순한 문장 위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6> 학생별 복문의 복잡도

파일명	복잡도	문장별 편차
w101	2.03	1.38
w102	2.24	1.16
w103	1.92	0.86
w104	3.1	1.49
w107	2.1	1.2
w108	1.97	0.93
w109	1.71	0.86
w110	1.97	1.1
w111	2.82	1.52
w113	2.5	1.6
w114	1.75	0.84
w115	3.57	1.75
w116	1.7	0.68
w117	1.59	0.62
w118	1.67	0.84
w119	2.79	1.18

파일명	복잡도	문장별 편차
w120	1.85	0.9
w121	2.05	0.97
w122	1.83	0.89
w123	1.93	1.47

위의 표를 보면, 주로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①복잡도와 문장별 편차가 모두 높은 유형, ②복잡도와 편차가 모두 낮은 유형, ③복잡도가 높지만 편차가 작은 유형, ④복잡도가 낮지만 편차가 큰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①에 해당하는 예로 w115가 있다. 이 경우는 복잡도와 문장별 편차가 모두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복잡한 문장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문장 또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글의 경우 복잡한 문장과 단순한 문장이 교차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독자에게 생동감 있는 필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②에 해당하는 예는 w117이 있다. 복잡도와 문장별 편차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단순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판정할 수 있다. 단순한 문장만을 사용하는 경우 문장 각각의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다소 단조롭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예상되기도 한다.

③은 복잡도는 크지만 편차가 작은 경우로서 w119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복잡한 문장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글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④는 복잡도는 낮지만 편차가 큰 경우로 w123과 같은 학생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복잡도는 전체 집단 가운데 12번째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문장별 편차는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w123의 경우 복잡한 문장과 단순한 문장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위에서 제시한 수치만으로 어떤 유형이 타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글에서 사용되는 문장의 유형은 다양할수록 매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②, ③의 유형을 지양하고, ①, ④의 유형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글쓰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복문의 구성적 특성

여기서는 복문의 구성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복문의 구성상 특징은 복문을 구성하는 절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복문의 구성에서 절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학생의 문체적 특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표 27>을 보자.

〈표 27〉 학생별 복문의 절 구성적 특징

파일명	관형절	대등절	명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w101	29	13	8	25	0	3
w102	53	29	4	56	4	3
w103	10	9	0	13	2	0
w104	29	18	6	43	14	4
w107	48	36	1	58	32	11
w108	29	8	0	33	9	0
w109	7	8	1	17	12	4
w110	31	9	1	25	10	2
w111	29	25	1	61	11	5
w113	16	12	1	29	8	1
w114	16	5	4	32	5	13
w115	27	12	10	34	8	3
w116	22	8	4	19	0	10
w117	10	7	1	11	3	2
w118	6	7	2	15	3	4
w119	22	8	1	28	3	0
w120	9	3	0	11	2	2
w121	32	15	5	43	5	3
w122	17	8	1	23	1	0
w123	13	10	0	34	3	2
평균	22.75	12.5	2.55	30.5	6.74	3.6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복문의 사용에 있어서 대체로 부사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관형절, 서술절 등의 순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부사절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 있다. w111, w114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는 부사절의 등장 횟수 자체도 많지만 전체 절 사용 가운데 부사절의 비율이 높은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인용절과 명사절의 사용에 주목할 수 있다. 인용절은 전체적으로 사용 횟수 평균이 3.6회에 그칠 정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w103, w108, w119, w122의 경우는 인용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w107, w114, w116의 경우는 인용절이 10회 이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명사절의 사용도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w103, w108, w120, w123의 경우

는 명사절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분석 대상 글에서 평균적으로 2.55회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w101, w115에서는 명사절이 각각 8회와 10회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학생들의 문장이 이처럼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제4장 글쓰기 교육에서의 고려 사항

지금까지 북한 이탈 청소년이 작성한 글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정해진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다. 우선, 어미를 중심으로 한 형태소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품사별 단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 어휘 층위에서 글을 분석하였으며, 문장의 복잡도를 고려한 문장 층위에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교육 항목 제시는 앞서 제시한 분석의 층위별 기술에 근거하겠지만, 각각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조한 바 있지만, 아래에서 기술할 내용들은 북한 이탈 학생이 작성한 글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피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성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를 항목화하여 향후 북한 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실의 교사가 참고할 수 있게 하려 하는 의도이다. 따라서 이 자체가 체계적인 교수과정이거나 새로운 교수법일 수는 없다.

제1절 전반적 내용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은 ‘다양한 글쓰기 주제 제시’의 측면과 ‘글과 문장의 길이에 대한 고려’의 측면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양한 글쓰기 주제 제시

북한 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는 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는 도구적 관점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심정적 치유를 이룰 수도 있다.⁵⁰⁾ 즉, 글쓰기 교육을 통해 학업 수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구직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실용적 관점에서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북한 이탈 학생들이 남한 사회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받은 정서적 충격을 극복하고, 이후 적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글쓰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글쓰기 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제 제시는 다소 제한적이며 그로 인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령, 앞서 <표 7>에서 살폈듯이 이들의 글은 ‘가족’, ‘고향’, ‘자신’, ‘학교’ 등으로 수렴되는 정도의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⁵²⁾ 이런 주제들은 보통 자신이 북한에서 지내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는 과거의 아픔에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향후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에 비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⁵³⁾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학생에게 주어지는 주제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해당하는 것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00년 후의 나의 모습’, ‘내가 하고 싶은 일’ 등의 주제들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앞선 분석에서는 선어말 어미 사용에서 북한 이탈 학생들이 과거의 일이나 완료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았-, -었-’의 사용이 유난히 많았다. 물론, 이러한 형태소가 한국어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것은 글쓰기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⁵⁴⁾ 특히, 이와 대비되는 미래

50) 이봉희(2014)에서는 글쓰기의 치유적 기능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51) 정성미(2014)에서는 이와 관련한 포괄적 관점의 인문치료이며, 글쓰기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과 유사한 면이 있다.

52) 전체 44편 가운데 가족에 관한 글 21편, 고향에 관한 글 11편, 자신에 대한 글 8편, 학교에 대한 글 4편. 구체적 사항은 <표 7> 참조.

53) 경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남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4) 앞서 제시한 <표 12>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의 의지, 계획뿐만 아니라 추측의 의미 등을 나타내는 ‘-겠-’의 사용이 현저히 적었던 것은 주제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재차 확인해 주는 자료로 생각된다.

2. 글과 문장의 길이에 대한 고려

글의 길이와 문장의 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글의 길이는 글의 수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긴 글이라고 좋은 글일 수 없고, 짧은 글이라고 수준이 낮은 글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앞선 분석 과정을 통해 글과 문장의 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글의 길이와 문장의 길이의 조합을 생각하면 대략 네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긴 문장으로 작성된 긴 글, 짧은 문장으로 작성된 짧은 글, 긴 문장으로 된 짧은 글, 짧은 문장으로 된 긴 글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긴 글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긴 글에서는 호흡이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 오히려 긴 글이 지나치게 짧은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면 독해에 방해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표 9>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w114와 같이 글의 길이가 긴 데 반해 문장이 짧은 학생에게는 연관성이 높은 문장들을 중심으로 이어서 쓰는 방법을 권유하는 방법이 있다.

반대로 짧은 글은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다. 이런 글에서는 한두 개의 긴 문장으로 글을 구성하기보다는 짧은 문장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표 9>의 w103, w113의 경우는 글의 길이가 짧은 데 반해 문장의 길이가 길어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 몇 문장에 글 전반의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하는 부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글이 가질 수 있는 리듬감을 살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긴 문장을 분할하여 짧게 짧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도해도 좋을 것이다.

제2절 다양한 어미의 사용

두 번째는 다양한 어미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어미는 연결 어미와 관련된 것을 먼저 살펴본 후,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결 어미 관련

앞서 형태소 층위의 분석에서 연결 어미,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폈다. 그 가운데 연결 어미의 사용에서 특징적인 면이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으로 제한된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 일부는 더욱 제한적으로 연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가령, 북한 이탈 학생 글에서는 나오는 평균 연결 어미의 유형은 22.8개에 불과하다.⁵⁵⁾ 그런데 w103의 경우는 한 글에서 모두 8개의 연결 어미만을 사용하고 있다.⁵⁶⁾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학생의 경우 문장 자체가 주로 단문 위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서의 리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학생의 글에서 연결 어미 ‘-고’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연결 어미 ‘-고’의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용한 연결 어미 가운데 ‘-고’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글 전반적으로 ‘~고, ~고’와 같은 방식으로 지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히 ‘-고’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고’의 사용을 신경 써서 줄여보라고 하는 등의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 특성은 각각이 독립적인 변인이라기보다는 연계되는 변인이다. 글 전반적으로 연결 어미의 사용 다양성이 높은 학생들의 글에서는 전체 연결 어미 사용 횟수 가운데 ‘-고’의 점유율이 낮았고, 어미의 사용 다양성이 낮은 학생들의 글에서는 전체 연결 어미 사용 횟수 가운데 ‘-고’의 점유율이 높았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w101, w114, w117, w118, w120 등과 같이 연결 어미 사용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들의 ‘-고’의 점유율이 20.85인데 반해, w102, w107, w111과 같이 연결 어미 사용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들의 ‘-고’의 점유율은 평균 26.88이다.

2. 선어말 어미 관련

선어말 어미의 사용상 특성을 살펴보면 선어말 어미 가운데 ‘-았/-었-’의 사용에

55) 이현정, 최영룡(2013)에서는 한국어교육용 연결어미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용 필수 연결어미 목록으로 5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22.8가지 연결어미 사용을 했다는 것은 사용 다양성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56) 구체적인 수치는 <표 11> 참조.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⁵⁷⁾ 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았/-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언어적 측면에 주목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았/-었-’이 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거나 완료의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어미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루는 내용이 주로 과거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언어 표현에서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글쓰기 과정에서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 결과로 선어말 어미 ‘-았/-었-’이 많아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야 할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쓰게 하고 이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 암시가 되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종결 어미 관련

종결 어미 사용 면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일관된 사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분석 대상이 된 북한 이탈 학생의 글에서는 한 글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분별없이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⁵⁸⁾

한국어에서 종결 어미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작용한다. 종결 어미는 크게 격식체 종결 어미와 비격식체 종결 어미로 나뉜다. 글에서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과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것 둘 가운데 하나 더 나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 편의 글에서는 격식체 또는 비격식체 종결 어미로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 학생의 글쓰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혼용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표 13>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종결 어미의 혼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w102, w104, w113, w119, w120의 경우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비슷한

57) 본래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의 유형은 많지 않다. 실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았/-었-’, ‘-는-’, ‘-(으)겠-’, ‘-더-’ 등의 시상과 관련된 것과 ‘-(으)시-’, ‘-옵-’ 등에 불과하다.

58) 이런 문제는 비단 북한 이탈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험적으로 남한 대학생의 글쓰기 교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글쓰기에 친숙한 인문, 사회 계열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쓰기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과 계열 학생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으로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특히 공과 계열 학생이 주를 이루는 교실에서는 종결 어미 사용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통일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교수요목에 포함되기도 한다.

비율로 나타날 정도로 혼용이 심하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이탈 학생 글의 전체적인 특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w117, w118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격식체를 유지함으로써 종결 어미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3절 다양한 어휘의 사용

1. 명사 관련

명사의 사용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용 다양성 지수 면에서 가장 낮은 37.84와 가장 높은 76.09 사이에는 두 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평균적으로 54 내지 55%가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자. 명사 사용 다양성 지수가 가장 낮은 w116의 경우 전체 111번의 명사 사용이 나타났는데 그 중 어머니가 20번, 큰엄마가 19번 사용되었다. 이 학생이 작성한 글의 제목이 보고 싶은 엄마, 보고 싶은 큰엄마인 점을 고려해도 주로 이 두 단어의 사용이 전체 명사 사용의 35%를 넘는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실제로, w114의 경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 전체 166개 명사 사용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각각 20번과 10번 사용하였다. 이는 비율상 전체 명사 대비 18% 정도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명사의 반복된 사용은 어휘력의 부족과 콘텐츠의 빈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모두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사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단어로 바꾸어서 쓰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명사 관련

대명사는 학생별로 사용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항목 중 하나이다. 가령, w107과 w114의 경우는 60회 이상의 대명사 사용이 나타난 반면, w103에서는 단 1회의 사용만 나타났다. 이보다 조금 더 사용된 예에서도 w120은 10회, w117에서 13회 사용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인위적으로 대명사의 사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명사의 사용은 글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 상관없이 개인의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현열(2014)에서는 공과 계

열 학생과 예술 계열 학생의 글을 비교하였는데, 예술 계열 학생이 훨씬 더 많은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따라서 이 경우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대명사에 의한 표현이 적절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도하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북한 이탈 학생의 글에서 대명사 가운데 지시대명사의 사용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w103, w117, w122 등에서는 대명사의 사용이 전혀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직접적 표현이 많은 북한식 표현의 특성이 반영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의문대명사의 사용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분석 대상 글에서는 의문대명사의 사용이 거의 없으며, w102, w107, w110, w114, w117, w120, w122에서 몇 차례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끝으로 인칭대명사의 사용에서는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북한 이탈 청소년이 주로 자기중심적 서술이 강한 면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와 더욱 관련이 있어 보이며,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동사, 형용사 관련

동사의 사용 다양성 지수는 58%가 평균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동사의 사용을 다양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16>에서 본 바와 같이 동사의 다양성 지수가 낮은 경우는 35.53%이며, 높은 경우 76.19%이다. 이는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w116의 경우 동사 사용 다양성이 매우 낮는데 76회의 동사 사용 가운데 12회가 ‘오다’이다. 이는 특정 동사의 사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동사의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형용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형용사의 다양성 지수는 평균 54.06%이다. 그렇다면 이에 미치지 못하는 w107, w108, w110, w116의 경우는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w110의 경우는 한 글에서 사용된 형용사의 총 사용 빈도가 31회인데, 그 중 12회가 ‘있다’이고, 전체 유형 빈도가 12회로 나타나고 있다.

59) 임현열(2014)에서는 예술 계열과 공학 계열의 대명사 사용 빈도의 상대적 차이를 1.48:0.68로 보고하고 있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글쓰기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교육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소개되었으며, 대략적인 개요는 요약문으로 제시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연구의 한계와 이후의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료, 분석, 해석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자료의 측면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글을 쓴 학생의 기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은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다. 글쓰기 자료의 문체 분석 연구에 있어서는 필자의 정보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더불어 이런 제한적인 자료 수집 환경은 조사 대상 표본의 수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분석의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이 사실 아주 복잡한 분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사실 문체 분석 연구는 좀 더 대량의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량의 자료를 가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동 분석 프로그램이다.

해석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다른 집단, 즉 남한의 유사 집단과 비교하지 못한 채 다소 피상적인 해석에 머무르게 된 점이 아쉽다. 현재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식은 비교적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남한 학생의 글을 분석한 결과가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북한 이탈 학생 글의 특성만 가지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비교 또는 대조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그 논의는 다소간 임의적인 해석인 면을 띄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어학적으로 계량적 방식의 문체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글쓰기 교육과 관련지어 설명하려 했다는 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로 고려된다면 이 연구가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 남한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이 없는데 남북의 비교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방법론으로 남한 학생들의 글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북한 이탈 학생의 특성과 비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분석이 유용하다면 교실 환경에서 이러한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는 향후 IT 관련 전문가와 협업하여 문체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의 글쓰기 교육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여기서 자동화된 필수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참고 문헌

- 강범모, 김흥규, 허명희,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제22집(1998), pp.3~57.
- 강영, “문체론 연구에서 보이는 남북한 차이”,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19집(2012), pp.127~143.
- 권수현, “통일 이후 바라보며 탈북자 교육에 관심을”, 「통일한국」 제255집(2005), pp.94~95.
- 김부경, 김대희, “탈북학생의 쓰기 태도와 쓰기 효능감 향상 연구”, 「작문연구」 제21집(2014), pp.125~149.
- 김소양, “글쓰기에 대한 유아들의 개념”, 「어린이문화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11), pp.65~92.
- 김은정, “학문목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글쓰기 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3호(2012), pp.541~568.
- 김지혜, “대학 계열별 글쓰기 수업의 교육 방안”, 「이화어문논집」 제32집(2014), pp.151~170.
- 김혜경,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연구”, 「비평문학」 제51집(2014), pp.7~34.
- 박미영, “성인 대상 국어 재교육의 현황과 전망-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9집(2013), pp.37~67.
- 박영순, “문체론의 본질”, 「국어문체론(박갑수 편저)」, 대한교과서주식회사(1994), pp.2~25.
- 박인기, “쓰기 교육과 문체”, 「국어문체론(박갑수 편저)」, 대한교과서주식회사(1994), pp.245~261.
- 백영옥, 유조안,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진학 및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 서혁,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2007), pp.51~86.
- 신명선, 권순희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8집 제2호(2011), pp.57~89.
- 신윤경, “대학 글쓰기 반의 재외국민 학습자 특성 연구-글쓰기 능력이 글쓰기 전략

- 과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14집(2012), pp.339~363.
- 안미애, 지현배, 김영철, “웹 활용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1호(2014), pp.53~77.
- 유목상, 「한국어의 문법구조」, 한국문화사(2007).
- 이봉희, “문학치료에서 활용되는 글쓰기의 치유적 힘에 대한 고찰과 문학치료사례”, 「한국교양교육학회」 제8집 제1호(2014), pp.281~310.
- 이재승, “작문 교육의 현황과 발전 과제”, 「작문연구」 제1집(2005), pp.39~64.
- 이종오, 「문체론」, 살림출판사(2006).
- 이주행, “남북한 전문 서적의 문체”, 「국어문체론(박갑수 편저)」, 대한교과서주식회사(1994), pp.400~417.
- 이주행, 「알기 쉬운 한국어 문법론」, 역락(2011).
- 이희영, “대학 글쓰기의 교육 현황 검토와 교육 방향의 설정”, 「한성어문학」 제32집(2013), pp.449~467.
- 임현열, “대학생 글쓰기의 어휘 사용 양상 분석-공학과 예술 계열 학생의 자기서사문을 대상으로”, 「어문논집」 제59집(2014), pp.455~471.
-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집 제1호(2003), pp.155~208.
- 정성미, “북한이탈주민의 인문치료 글쓰기 어휘 분석”, 「어문논집」 제58집(2014), pp.77~104.
- 조성문, “김영랑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7집(2010), pp.197~214.
- 통일부, 「2014 통일백서」, 통일부(2014).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탁용달
코리아연구원

제1장 서론	619
제2장 주요 개념 및 자료의 설명	623
제3장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	638
제4장 비교우위의 고착 및 수렴에 관한 회귀식 검증	672
제5장 결론	676
참고 문헌	678

표 목차

<표 1> SITC 신규 단위 항목수 비교표	637
<표 2> 대분류별 최종단위 항목수 증감내역	638
<표 3> 계획경제의 대외무역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들	640
<표 4> 기술수준별 제조업 분류기준	645
<표 5> 북한 기술수준별 수출 상품의 비교우위: 1992~2000	660
<표 6> 북한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 1992~2000	661
<표 7> 북한 기술수준별 수출 상품의 비교우위: 2001~2010	663
<표 8> 북한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 2001~2010	663
<표 9> 비교우위 구간 분석	666
<표 10> 북한 수출의 마르코프 전이행렬 변화	668
<표 11> 회귀식에 대한 설명: 고착 및 수렴	673
<표 12> 회귀모형에 따른 북한의 시기별 추정결과	674

그림 목차

<그림 1> STAN Industry List	644
<그림 2> 북한의 수출 RCA 분포	650
<그림 3> 북한 수출 RCA Median의 변화	651
<그림 4> 북한 수출 RCA Standard deviation의 변화	652
<그림 5> 북한의 수출 RCA 분포: 기술수준별	655
<그림 6>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저급 기술군	656
<그림 7>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중급 기술군	657
<그림 8>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고급 기술군	658
<그림 9> 북한 수출의 기술수준별 RCA 변화: 1992~2000	659
<그림 10> 북한 수입의 기술수준별 RCA 변화: 1992~2000	660
<그림 11> 북한 수출 상품군별 RCA 변화 추이: 2001~2010	662
<그림 12> 북한 수입 상품군별 RCA 변화 추이: 2001~2010	662
<그림 13> 북한의 수출 RCA 시기별 변화	666
<그림 14> 북한의 RCA 누적함수 그래프	667
<그림 15> 북한 수출 RCA 상향 전이성	669
<그림 16> 북한 수출 RCA 정향성	670
<그림 17> 북한 수출 RCA 하향 전이성	671

요 약 문

북한의 대외무역은 공식적인 대외경제관련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관점과 시장의 원리에 의한 비교우위 보다는 지도자의 선호와 같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무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의 선호 또한 내부 경제적 상황이나 의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정책적 방향성이나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이후 북한은 적극적으로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대외무역을 수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무역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주의 우호시장의 상실은 북한에게는 큰 시련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출을 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재화와 식량을 수입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북한의 1990년 초반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는 변화하거나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퇴행적으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 우호시장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략의 변화와 무역제도의 변화 등을 추구하고, 이는 무역에서 교역국의 다양화와 수출 상품의 다양화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는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비교우위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역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퇴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무역 및 산업구조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 있다. 다만 특정 국가들의 경제제재는 일정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국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재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 반면에 지원의 경우에도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권계층의 지대추구(rent seeking)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은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비교우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생산재의 경우에는 비교열위가 개선되지 못했다. 또한 기술수준별로 보면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에서 비교우위가 있었던 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1970년대 산업화 이후에 확보했던 낮은 기술수준의 비교우위마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에너지난 등으로 상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후진국형의 퇴행적인 비교우위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지만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의 비교우위는 지도자의 선호와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경제향상이라는 관점과 경제의 질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도자의 선호와 정책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근본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대부분의 북한 경제 연구자들은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건전하지 못한 지배구조 (bad governance)를 강조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북한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나 방법론적 완벽성 추구하기 보다는 최근 북한을 떠난 고위직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증언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북한주민의 경험이 연구자의 입으로 각색된 연구결과들이 쏟아졌다. 이런 연구들은 소위 비공식 영역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북한의 시장화 현상과 시장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나쁜 지배구조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계획이라는 이름의 공식적인 경제영역이 존재하고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북한의 공식영역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공식부문에 대한 연구를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행동양식, 거시경제와 재정, 대외무역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정 정도 진행되었다.¹⁾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통계자료 부족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역의 속성은 거래 상대국이 존재하고 이는 설령 특정 국가가 무역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도 그 거래 상대국들의 무역통계를 활용하면 북한과 같이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국가들의 무역량을 추정할 수 있고, 이는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²⁾

*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탁용달 “1990년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비교우위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을 활용했음. 심사를 해주신 선배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서울: 산업연구원, 2003); 양문수,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양문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 지배구조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양문수 외, 『통일부 연구용역: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체계 연구』(서울: 통일부, 2008); 고일동,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서울: KDI, 2004);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 재건 실태』(서울: 산업연구원, 2007);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 등을 참조.

2)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서울: KDI, 2008), p. 10. 이러한 연구방법을 ‘거울 통계(mirror statistics)’라고 한다. 북한과의 무역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은 KOTRA, IMF, UN 등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개발 기관들 간의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통계와 관련한 특히 거울통계와 관련한 자료의 신뢰의 문제는 이석·이재호,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서

북한의 대외무역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외무역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의 결과이고 이는 북한의 산업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수입 품목은 북한의 국내 수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북한의 수출 품목은 현재 북한의 산업별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업별 현황 및 특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대외무역량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낸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무역량의 변화과정,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수출과 수입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고, 이는 비교우위를 만들어내는 여러 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계획과 목표의 실현 여부, 외부 경제 환경과의 조응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자본주의 국가의 비교우위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과는 다른 비경제적 행위들로 비교우위가 결정된다. 또한,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여러 기제들, 가령 노동생산성, 기술수준, 가격경쟁력, 시장규모와 같은 일반적인 요인들이 북한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 논문은 북한 대외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단편적인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와 교역량을 소개하는 수준을 벗어나, 북한의 대외무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산업별 혹은 기술수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시계열적으로 비교우위의 변화 양상, 고착화, 심화 정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비교우위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라는 대외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 당국의 대응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분석했다. 사회주의 우호 시장의 상실과 내부적인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으며, 인식변화는 제도와 실적에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출: KDI, 2008)의 내용을 참조.

둘째, 북한의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무역의 경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이하 SITC)³⁾ digit-3을 통해서 전체 교역 자료에서 각 군(群)별 교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고, 북한 교역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과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셋째,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현시적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이하 RCA)지수를 활용하여 북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시계열적으로 비교우위가 지속하거나 변화하는 등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및 이론에 대한 검토 부분이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일반적 개념과 북한에서는 비교우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통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우위에 대한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립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국가분업체계를 구축하면서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스탈린체제 붕괴 이후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비교우위를 인식하고 활용하려고 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서도 체제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전까지는 비교우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계획경제의 대외무역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와 주요 연구결과들에 대한 분석도 시도했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비교우위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결정, 지도자의 선호, 무역제도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결정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가 변화되는 상황을 정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교우위 품목의 시기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교우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전체적인 산업별 비교우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고착화(수렴)되거나 특화(분산)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분석대상인 1992년~2010년까지의 비교우위 분석에서는 초기의 비교우위가 고착화되고 비교우위 상품은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비교열위 상품은 비교열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제적으로 무역상품을 분류하는 방식은 1938년 국제연맹에서 무역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해 최초로 제정한 무역상품 분류방식으로 현재의 SITC는 1963년에 개정된 것으로 경제 분석이나 산업정책에 맞도록 상품을 식료품, 원재료, 화학제품, 기계류 등으로 통합하여 상품제조단계별 혹은 산업용도별로 분류했다. SITC는 한국은행과 산업자원부의 무역분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 대외무역의 비교우위를 평가하고, 북한의 경제계획, 외부 환경 변화, 대외무역 정책수단 등이 어떻게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북한경제에서 비교우위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고, 대외무역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려고 시도했다.

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의 대외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왜 1992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1992년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부적 체제개혁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정치변동이 있었던 시기였다. 1989년 소련의 체제전환과 1990년 독일의 통일 등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체제전환이 종료되는 시점이 1992년인 것이다.

둘째, 1992년은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공식적인 무역데이터를 제공했던 시기이기도 하다.⁴⁾ 과거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 국가 간의 교역시장이 존재했고 해당 국가 간의 교역통계량이 존재한다.⁵⁾ 북한은 아직 국제사회에 대외무역과 관련한 교역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에 상당한 제약조건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거울통계 기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구소련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데이터 제공시기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에서 대외무역과 관련한 커다란 정책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과거 북한에서 지속해서 유지했던 무역의 중앙집권화에서 벗어나 분권화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교우위의 개념에 입각한 대외 무역의 인식 전환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우호 시장의 상실이라는 외부조건에 대한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외부적 환경변화라는 측면만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체제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변화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하겠다.

4) 선행연구들 가운데서 1992년부터 국제사회에 보고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무역데이터 가운데서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밝혀내고 1995년부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의 오류를 극복할 정도의 중요한 북한 내부적 변화 시기도 1992년이라는 가설 때문에 1992년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선정했다. 데이터 오류와 관련해서는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참조.

5)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교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Foreign Trade Commodity Nomenclature* (FTN)와 구소련에서 발간한 *Vneshniaia torgovlia SSSR*(Foreign Trade of the USSR)등의 자료가 존재한다. 1962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제2장 주요 개념 및 자료의 설명

제1절 비교우위의 개념과 북한에서의 비교우위

1. 비교우위의 개념과 변화

애덤 스미스는 국제무역을 설명하면서 개별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별 분업 혹은 전문화(특화)의 원리가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가 내부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도태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개인이나 혹은 기업만이 생존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무역장벽이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했고,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상품을 수출하고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의 상품을 수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간 분업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⁶⁾

앞서 언급한 절대 우위론에 입각한 국제분업이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국제무역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한 이론이다. 리카르도(David Ricardo)에 의하면 개별 국가에서 산업 간 노동 이동이 자유로우면 분업과 이를 통한 생산전문화는 절대 우위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노동이 이동할 수 없는 국가 간의 무역 및 분업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리카르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록 X, Y재 생산 모두에서 절대열위(혹은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은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으로 생산을 전문화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 간의 분업과 무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⁷⁾

각국은 서로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결국 각국은 무역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X, Y재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은 결국 누가 무엇을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소위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비교우위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생산요소가 한 나라 안에서는 산업 간에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만 국가 간에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 간의

6) 남중현·이홍식, 『국제무역론-이론과 정책』(서울: 경문사, 2012), pp. 33~34.

7) 위의 책, p. 34.

연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했고, 무역이전에 각국에서 거래되는 재화들의 가치는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에 입각해서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는 토지와 자본 최근에 들어 인적자원과 같은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맹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이론의 효시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이론으로 국가 간의 무역이 왜 혹은 어떤 패턴으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⁸⁾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자들의 노력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카르도는 무역패턴이 상대적 노동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생산에 완전히 특화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 간의 생산비를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국제무역패턴을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무역이론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리카르도 모형은 2국가, 2재화, 1생산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노동투입 비율이 다르면 한 나라가 두 재화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양국은 상대적 비교우위를 통해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모형의 가정은 상품교역에 따라 국제상품가격은 균등하게 결정되지만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는 국가간에 이동하지 못하며 노동가격 등 생산요소가 가격은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노동생산비용의 차이 때문에 상대가격이 달라진다. 이처럼 리카르도 모형은 노동력의 규모나 소비자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투입비율로 대변되는 기술수준의 차이를 유일한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이라고 보고 있다.⁹⁾

헤셔-오린 모형은 리카르도 모형과는 다르게 생산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리카르도 모형과 차별화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헤셔-오린 모형은 생산요소 공급량과 국제생산가격을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생산요소가격, 산출수준, 소비수준을 내생변수로 취급한다. 국제무역이란 국내적인 산출수준과 소비수준 간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모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리로 설명될 수 있다.¹⁰⁾

8) 위의 책, pp. 37~38.

9) 최낙균·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분석과 정책 시사점』, p. 172.

10) Leamer and Levinsohn, "International Trade Theory: The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4940, Section 3. 이들은 헤셔-오린 모형이 요소공급과 생산가격 등 두 개의 내생변수와 요소가격, 산출수준, 소비 등 세 개의 내생변수 간의 네 가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헉셔-오린 정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생산과정에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정리는 생산요소 공급과 무역패턴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서 무역패턴은 국내 생산과 소비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헉셔-오린 정리는 생산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하고 동질적인 선호(identical, homothetic tastes)에 대한 가정을 통해 소비 측면을 중립화시킴으로써 무역이 생산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립진스키(Rybczynski)정리는 만일 두 국가가 같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기술을 가지고 요소집약도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 요소부존도가 증가할 경우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산출은 비례 이상으로 증가하고 다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산출은 비례 이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정리는 국제가격의 변화가 국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요소집약도 역전이 없고, 두 나라가 동일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 재화의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가격도 상승하게 되며, 나머지 요소가격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정리는 상대가격이 변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정리는 무역장벽이 희소한 요소도 도움이 되지만 풍부한 요소에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요소가 충분히 희소하면 그 요소는 무역장벽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넷째, 요소가격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정리는 만일 동일한 요소비율을 가정한다면 각 나라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재화를 동일한 비율로 생산할 것이며, 생산요소가격은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한 나라 내에서 생산요소가격은 재화가격이 불변이라면, 생산요소 공급량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즉 개방경제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무한대로 탄력적이다. 이에 따라 생산요소 공급이 변화되더라도 한 나라가 다른 재화로 생산특화를 변화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다.

헉셔-오린 정리를 기초로 발전된 헉셔-오린 모형은 신고전파 무역이론의 중심이 되었고, 이 모형은 무역이 국가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고전적 비교우위이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안 이론들이 등장한다. 고전적 이론으로 분류되는 리카르도와 헉셔-오린 모형은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비용 및 생산요소와 같은 비교우위근원(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결정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제 규모, 지리적 문제와 무역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고 비교우위의 개념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¹¹⁾

첫째, 비교우위 개념을 협의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국제무역 교과서에서는 비교우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리카르도 및 헉셔-오린 모형에서만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비교우위는 균형 가격¹²⁾ 및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비용차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우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두 모형은 각각 노동비용(리카르도)과 생산요소비용(헉셔-오린)의 차이 때문에 상대가격¹³⁾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기존의 무역이론들은 생산비와 요소부존도와 같은 비교우위 차이에 따라 국제무역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규모의 경제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산업내무역¹⁴⁾ 현상을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¹⁵⁾

둘째, 비교우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생산비용이 경쟁자 혹은 경쟁국에 비해 낮다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생산비용의 차이가 균형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비교우위의 산출에서 생산비용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산비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은 원자재와 중간재의 풍부성(헉셔-오린), 기술격차(리카르도), 지리적 요소(Frankel), 대규모 생산(Krugman), 제품 주기설(Vernon)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비교우위 창출요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고 특히 규모의 경제를 비교우위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⁶⁾

비교우위의 광의 해석은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이론과 무역이론에서 한 국가의 비교우위는 동태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내부적 변화과정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Lucas,¹⁷⁾ Young¹⁸⁾ 그리고 Grossman과 Helpman¹⁹⁾의 연구에 의하면 잘못된 특화(wrong specialization)가

11) 최낙균·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분석과 정책 시사점』, pp. 31~32.

12)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지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13) 각 상품의 가격을 상품 상호간의 교환비율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산업 내 무역은 동일한 산업 내의 제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수입하는 무역패턴을 일컫는 개념으로, Herbert G. Grubel & P. J. Lloyd, *Intra-Industry Trad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5)를 참조.

15) 최낙균·이홍식, 위의 책, p. 32.

16) 최낙균·이홍식, 위의 책, p. 33.

17) Robert E. Lucas,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No. 1 (1988), p. 342.

18) Young, A., "Learning-by-doing and Dynamic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May 1999), pp. 396~406.

한 국가의 성장률을 항구적으로 저하할 수 있고, Findlay²⁰⁾와 Deardorff²¹⁾등의 연구에 의하면 요소의 축적이 국제무역의 전개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 사회주의 국가의 비교우위인식과 변화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교우위에 관한 인식은 동일했다. 개별 국가들은 국가 내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국제분업 및 교환을 통해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과정으로 비교우위를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가치설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경제인식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통한 사회적 필요노동의 절약으로 나타나야 했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비교우위를 활용한 대외무역을 경제활동의 독립된 부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단지 계획경제의 한 부분으로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기 위한 외화확보 차원에서 대외무역을 이해했다. 비교우위에 대한 협의(狹義)의 인식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에는 찬성했지만, 자본축적이 미약한 후진국들의 공업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닌은 대외무역을 시장형성 과정에서 대외적인 불균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행위라고 설명했으며, 스탈린은 대외무역이 사회적 목적 즉 외교정책에 일치되는 경로를 정식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²²⁾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우위의 유효성은 인정하였지만 국제무역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지극히 제한적 역할을 했다. 특히 소련의 경우에는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봉쇄로 인해, 노동의 절약이라는 비교우위 이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기술적·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족적인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했고, 이러한 정책적 결정의 배경에는 소련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 내수시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소련의 정책적 결정은

19) Grossman, G. and Helpman, E. "Comparative Advantage and Long-run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4. (1990), pp. 769~815.

20) Findlay, R. *Factor Proportions, Trade and Growth*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21) Deardorff, A. "Factor Proportions and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Long Run: Com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4, (August 1974), pp. 829~833.

22) 마르크스는 보호무역을 보수적이고 자유무역은 파괴적이라는 소위 "자동혁명론"적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했으며, 엥겔스는 보호관세가 갖는 본질적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잠정적이 아닌 보호관세에 반대했다.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9), pp. 23~24.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뿐 아니라 중국, 북한 등의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되었고 스탈린 사망까지 지속되었다.²³⁾

사회주의경제학자들은 ‘비교생산비원리는 경제적 자유방임사상의 산물로서 그것은 국가 간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를 영구화함으로써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후진국에 대한 지배를 영구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해 왔다.²⁴⁾ 하지만 스탈린 사망 이후에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소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립경제(아우타르키)의 고수는 불가능했으며, 국제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은 1949년 창설된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이하 CMEA)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회주의권 블록 내에서의 비교우위를 실현하기 시작했다.²⁵⁾

사회주의 경제이론가들은 사회주의 교역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의 효율의 내용과 효율성 지표(effectiveness index)’를 창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1962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CMEA 가맹국의 ‘공산당노동자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국제분업의 기본원칙”에서 ‘사회주의 국제분업의 목적은 사회적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²⁶⁾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비교생산비원리는 잘못된 이론이었고 부정했지만, 대외무역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이러한 공개적인 대외무역의 수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교역의 보통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생산비용(평균)과 국제시장가격의 차이로 결정되고, 교역의 총효용은 생산비용과 국내수요 그리고 사회정치적 요소의 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체코의 체르니안스키(V. Cerniansky)는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부르주아 경제학 선학들의 업적은 이들이 처음으로 노동가치설과 관련하여 대외무역이 양국의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이는 적절한 태도이고 현실에

23)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1970), p. 174.

24) *Ibid.*, p. 175.

25) 공산권경제연구실, 위의 책, pp. 26~28.

26) 위의 책, pp. 28~29.

27) Frederic L. Pryor, *The Communist Foreign Trade System*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2), p. 106.

맞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²⁸⁾ 또한, 동독의 틸레(R. Tiele)도 “대외무역과 국제분업을 통해 사회적 노동을 절약할 가능성은 이미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율리에 의해 알려진 것이며, 이것은 핵심적으로 올바르고 그 한계는 마르크스도 인정하고 있다” 주장했다.²⁹⁾

소련 및 동구의 국가들에서 비교우위의 근간인 비교생산비율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은 물론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비교생산비율리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에는 이를 받아들여 대외무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적용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가격 결정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고, 소련의 정치적 압력이 교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역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소련의 정치적 압력이 제거되자 갈등이 증폭했고, 대외무역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등장했다.³⁰⁾

1960년대 이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 좀 더 강하게 사회주의권 내에서 회자되면서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대외무역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헝가리의 경제학자 Irma Vajd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³¹⁾

경제성장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요구로서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세계시장에서의 활발한 무역활동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성장과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를 강화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세계무역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사회주의 국제 분업 개념을 차용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념은 중국의 사회주의 개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났다.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는 문제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은 첫째, 국제적인 분업은 국가들

28) *Ibid.*, p. 107.

29)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pp. 29~30.

30) Frederic L. Pryor, *The Communist Foreign Trade System*, p. 155.

31)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p. 31.

사이의 무역과 모든 경제관계의 기초이며, 국제적 분업은 생산력 발전의 결과물이다. 둘째, 국제적 분업은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셋째, 국제적 분업을 통해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확대는 중국의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³²⁾

3. 북한의 비교우위 개념과 변화

북한에서 발간한 『경제사전』³³⁾에서는 비교우위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교우위 개념의 기초인 ‘비교생산비설’에 대한 설명의 과정에서 이 개념의 인식과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우선 이 책에서는 비교우위를 ‘나라들간의 상품 무역원리이며 비과학적무역이론이고 자유무역주의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서도 정확하게 비교우위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생산비설의 주장자들은 생산의 전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무역은 생산비수준을 낮춤으로써 사회생산물의 수량을 더욱 늘이게 하며 결국에는 국가적 복리를 보다 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세계시장을 초력사적인것을 외곡하면서 비교생산비설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영원성을 고집하여 나섰다.³⁴⁾

비교우위를 국제 분업의 기초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속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 이전에 1957년에 북한에서 왜 무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역설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정택은 대외무역이 왜 발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외 시장에 따라서 대외 무역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국제 분업의 유리성을 더욱 합목적적으로 리용 하여야 하는 데 있다”³⁵⁾라고 언급하면서 비교우위의 주요한 근본원리인 ‘국제분업’을 이해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지속해서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비교우위의 개념을 활용했고, 비교우위 개념의 확대하여 해석된 국제 분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국제 분업만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국제 분업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32) Guglielmo Carchedi, “Comparative Advantage,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ism,” *Economy and Society*, Vol. 15, No. 4, (1986), pp. 437-438.

33) 북한에서 비교생산비설에 대한 비판은 최초의 경제사전인 1970년판과 1985년판에서 같은 의미로 서술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659.

34) 위의 책.

35) 문정택, “공화국 대외 무역의 가일층의 발전과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외화 문제,” 『경제연구』(1957년 제2호),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7), p. 52.

등의 자세를 보였다.³⁶⁾ 이러한 분리된 인식은 여타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보여주었던 인식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교우위를 통한 대외무역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외무역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대외무역은 부등가교환에 의한 착취와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호상성의 원칙에서 서로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³⁷⁾ 즉, 사회주의무역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사용가치의 교환이 위주로 되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소극적인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유지되었다. 단지 대외무역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며 비교우위론적 관점을 활용한 정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1970년대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했으며, 그 원인은 대외무역을 통해서 주요 산업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국제적인 데탕트의 분위기 그리고 남한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³⁹⁾ 1970년대 까지 북한에서의 교역량의 변화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북한의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1982년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서 ‘자립적 민족경제는 결코 폐쇄경제가 아니며 대외무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⁴⁰⁾ 이 연설 이후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을 통해서 대외경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법률제정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회의(1984년 1월)에서도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⁴¹⁾

36)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pp. 81~89.

37)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90.

38) 위의 책, p. 544.

39)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p. 221.

40) 김일성, “신년사,” 『김일성저작집 3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54.

41)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4』(서울: 국토통일원, 1987), p. 158.

합영법 제정을 통한 대외투자유치 확대를 모색했던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일시적인 교역의 확대는 이끌어냈지만, 근본적인 북한의 대외투자 환경의 미비와 국제적인 신용도의 하락으로 인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합영법 제정 이후 1993년 말까지 외국투자 유치 실적은 금액으로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북한과 일본 내 조총련 간의 협력 사업이 대부분이었다.⁴²⁾

북한은 대외무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변화의 과정에서 비교우위의 개념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자유무역의 폐해에 대한 경계의 시각은 버리지 못했지만, 비교우위에서 주장하는 비교생산비율과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비교우위에 대한 인식은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의 등장 과정에서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무역체계를 발표한 리신효는 ‘국제적 분업’과 ‘협업’을 언급하고 무역에 따른 생산의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평등, 호혜, 유무상통원칙에 벗어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개념에 근거하여, 새로운 무역체계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무역은 생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무역이자 생산은 사회적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의하여 발전하게 된다. 분업과 협업은 나라들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며 그것은 무역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무역은 나라들간의 경제적 연계를 보장하는 기본형태이다. 무역에 의하여 나라들 사이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가 보장되며 따라서 생산과 대외무역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생산과 대외무역을 다같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⁴³⁾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국제무역에 참여하여 자원배분상의 효율(allocative efficiency)을 얻는다. 또한, 협소한 국내시장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무역활동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생산방법의 개선이나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등 동태적 이익(Dynamic gains from trade)을 얻게 된다.⁴⁴⁾ 리신효는 비교우위에 따라서 무역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의 이익(gains from growth)과 부합된다는 논리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무역체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2) 윤기관, 위의 책, p. 225.

43)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1992년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pp. 30~32.

44) Gerald M. Meyer,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 485~509.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우호 시장의 상실과 모든 국가가 대외무역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건에서 무역을 ‘사회주의 방법’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⁴⁵⁾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비교우위의 개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고, 대외무역 정책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견지하면서 중앙집권적 무역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이행 이후에 우호 시장의 상실은 북한 당국의 인식 전환을 유발했고, ‘새로운 무역체제’를 도입하게 했다.

하지만, 대외무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의 개념보다는 절대우위의 개념을 적용하여 무역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 대외무역을 확대 발전’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대외무역 발전의 핵심⁴⁶⁾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김일성의 연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에는 없고 우리에게 많은 것, 대량적으로 수출하여 한꺼번에 많은 외화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제품의 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그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⁴⁷⁾

북한에서는 독점지표⁴⁸⁾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북한에 가장 많은 자원(부존요소)에 대한 특화,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사장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⁴⁹⁾

북한은 대외무역에서 독점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대외무역이 북한 당국에 중요한 외화별이 수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에서

45)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일, 26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p. 280.

46) 과거에는 수출보다는 수입을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견지했던 원칙이다. 수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고 이는 무역을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47) 김일성, 『김일성 전집 3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 165.

48) 독점지표에 대한 북한의 설명은 무역거래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질과 양이 보장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박명철, “독점지표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는 것은 현시기 수출무역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200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 29.

49) 박명철, “독점지표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는것은 현시기 수출무역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p. 28.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⁵⁰⁾ 북한에서는 비교우위 개념은 초기 비교우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우위에 입각한 무역을 강조하고 있고, 독점지표를 가진 제품에 대한 수출을 지속해서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2절 자료의 활용과 분석

1. 북한 대외무역 통계자료의 특성

북한은 공식적으로 대외무역 자료를 국제기구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의 방법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를 역추적 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에 관해 이용 가능한 자료는 첫째, KOTRA가 매년 집계 발표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둘째, UN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UN Comtrade Database의 자료이다. 셋째, IMF(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의 대외무역자료이다. 개별 자료들은 각각이 장단점을 갖고 있다. 우선 KOTRA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사회주의체제전환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한 기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자료들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생산이 KOTRA의 해외지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전 세계 200여 국가 모두에게 지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중동 및 남미 지역의 자료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둘째, UN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북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교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전 세계 교역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개별 국가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앞서 언급한 KOTRA 자료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IMF의 자료는 단순히 품목별 자료가 없고, 국가별 자료만 있다.⁵¹⁾

이러한 자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첫째, 무역통계는 수출은 본선인도(Free on Board: 이하 FOB) 기준,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하 CIF) 기준으로 발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상대국 통계에서 추출한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이므로 이 기준이 반대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50) 박명철, 위의 글, pp. 28~29.

51) 이 자료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으로 수출입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수입통계는 과소평가, 수출통계는 과대평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⁵²⁾

둘째, 북한의 교역대상국들이 남북한을 혼동하여 남한과의 무역을 북한과의 무역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혼동은 북한의 수입보다는 수출 쪽에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KOTRA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무역통계들 가운데서 남북한을 혼동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자료를 재구성하고 있다.⁵³⁾

셋째,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 가운데 북한에 대한 원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례로 2001년 KOTRA 및 UN 자료에 나오는 북한의 수입액 통계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자들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쌀 도입액을 크게 과대평가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쌀 원조량을 수입액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가격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⁵⁴⁾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는 첫째, 북한과의 거래상 대국을 확정하는 문제, 둘째, 북한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문제, 셋째, 남북 교역통계와 거울통계간의 시계열적 단절의 문제 등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들을 보여주었다.⁵⁵⁾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노력과는 별개로, 북한의 무역 통계는 단순히 자료의 불충분한 수준을 넘어, 연구 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⁵⁶⁾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세부 연구주제와 특정 지역과 시기로 한정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한 경우도 있다.⁵⁷⁾ 몇몇 연구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52)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경우를 고려하여 수출의 경우에는 FOB조건으로, 수입의 경우에는 CIF조건으로 환산하여 북한의 대외무역 금액을 조정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 = 교역상대국의 대북한 수입/1.1, 북한의 수입 = 교역상대국의 대북한 수출*1.1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찬도,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p. 43.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53) KOTRA 자료는 세계 70여개 국가의 무역통계만을 가지고 구성한 자료로서 거의 모든 나라가 포함되는 UN 자료에 비해 포괄범위가 작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북한과의 무역규모가 얼마 되지 않고 남북한을 오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포괄범위를 좁힌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pp. 10~19.

54) 실제로 UN의 자료 가운데서 일본의 2001년 쌀 원조금액을 쌀 수입 금액으로 부풀려져 보고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01년 북한의 대일본 쌀(SITC Rev. 3: 042) 수입액은 9억 2,440만 달러에서 1억 600만 달러로 정정되어야 한다.

55)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서울: KDI, 2010)을 참조.

56) 김석진, “북한의 수출실태 분석,” 이석기 외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서울: 산업연구원, 2009).

자료를 그룹화해서 분석을 시도했고, 실제 무역통계와의 검증과정을 통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재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수십만 건에 대한 개별 자료이기보다는 상품군별 분류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로 무역통계 자료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⁵⁸⁾

이러한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1990년대 초반의 북한 무역통계 차이의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국에 반환된 홍콩과 같은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래량이 KOTRA에만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기에 나타난 혼란을 UN과 IMF는 정확하게 필터링하지 못했던 반면에 KOTRA는 체제전환국의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⁵⁹⁾

하지만, 이러한 무역통계 생산주체별 격차는 1998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오히려 이러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이후에 자료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체제전환 이후의 자료검증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체제전환국들의 데이터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첫째, 거래대상국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IMF와 UN의 경우에는 무역상대국은 평균 110여 개(1998~2010)개 내외이지만, KOTRA의 경우에는 60개 내외이다.⁶⁰⁾ 둘째, 거래 금액에서 거짓이나 허수를 반영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명백한 실수를 찾기는 쉽지 않고, 북한 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⁶¹⁾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1990년대부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료를 생산하는 개별주체들의 데이터 격차로 인해서 개별 기관들의 신뢰와 인용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57) 이석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구성했고,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효과를 분석하였다.

58)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참고.

59) 위의 책.

60) 위의 책, p. 224.

61) 북한과의 거래상대국을 확정하고,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구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거래 금액에서 거짓이나 허수를 발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통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데이터의 미시적 분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패턴과 경향에 대한 일반적 분석과 미시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결합하는 형태의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자료의 활용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UN 통계자료의 취약성 문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문제들은 국제사회가 북한과 남한을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동 및 남미지역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아프리카, 중동 및 남미지역의 무역데이터 가운데서 의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작성했다.⁶²⁾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품군 만을 한정해서 자료로 활용했다. 이는 전체적인 데이터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무역데이터 가운데 SITC 분류법은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UN통계 위원회에 의해 ‘국제표준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로 제정되었다. 1950년 7월 12일 UN 국제사회이사회(ECOSOC)가 대외무역통계분류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SITC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SITC의 기본구조는 무역 상품의 종류별, 조립단계별, 산업원천별 분류를 하고, 크기는 원료품-중간제품-완제품 등의 집단으로 종합해서 분류하고 있다. SITC는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비교를 쉽게 하는데 필요한 상품통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품분류상의 적용한계에 대하여 명백한 설명이 없어’서 분류상 착오를 유발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⁶³⁾

본 논문에서는 SITC(Rev 3. 4) digit 3을 기준으로 북한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RCA 지수를 산출하였다. SITC Revision 3에서 4로 전환되는 시점은 2007년이며 이를 기준으로 2007년 이후에는 Revision 4의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은 두 비교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표 1> SITC 신규 단위 항목수 비교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5단위분류 (세세분류)
SITC revision 3	10	67	261	1,033	3,121
SITC revision 4	10	67	262	1,023	2,970
증감	-	-	+1	-10	-151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무역분류 11차 개정안』(대전: 통계청, 2009), p. 2.

62) 의심되는 데이터는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 재건 실태』 참조.

63) 이종덕, “국제무역상품분류제도에 관한 고찰: HS를 중심으로,” 『명지논단』 제17권 1호 (명지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1998), p. 114.

SITC Revision 3은 지나치게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는 경향을 극복하고, 기술개발로 인한 신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분류단위를 좀 더 단순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소분류를 증가하여 신소재 관련 제품, 기술수준별 차이가 나는 제품을 세분화했다.

〈표 2〉 대분류별 최종단위 항목수 증감내역

대분류	SITC revision 3	SITC revision 4	증감
0 식표품 및 산 동물	344	335	-9
1 음료와 담배	22	21	-1
2 비식용 원료(연료 제외)	267	239	-28
3 광물성 연료, 운할류 및 관련 물질	38	32	-6
4 동식물성의 유지 및 왁스	44	41	-3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 및 관련 제품	474	467	-7
6 재료별 제조제품	829	767	-62
7 기계 및 수송장비	654	642	-12
8 기타 제조제품	443	420	-23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6	6	0
계	3,120	2,970	-151

출처: 통계청, 『한국표준무역분류 11차 개정안』(대전: 통계청, 2009), p. 3.

제3장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

제1절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상품군 분류

1. 계획경제 무역구조 분석을 위한 가정

무역을 연구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대체로 ‘계획경제 하의 무역은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⁶⁴⁾ 관련 연구들도 즉흥적이고 특정한 개인의 개인적 구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연구를 수행

64) Hewett, Ed A. “Foreign Trade Outcomes in Eastern and Western Economies,” Paul Marer and John M. Montias, (eds.), *Eastern European Integration and East-West Trad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 49.

하지 못했다.⁶⁵⁾

계획경제 국가들의 대외무역을 분석하기에 앞서, 계획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계획경제의 제도적 특성은 첫째,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다국적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계획경제는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갖고 있으며 중앙의 결정과 권위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중앙 집중화된 권력체계를 만들어 냈다.

둘째, 사적 기업이 부재하며, 시장경제체제와 비교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다. 또한, 기업의 청산 과정 역시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재산권과 직업선택권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⁶⁶⁾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 혁신에 방해가 된다. 새로운 혁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도전받지 않고, 외국 시장에서도 진화하지 못한다. 사적 기업의 부재는 전형적인 계획경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부족한 상황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 국민들은 소비재 시장에서 재화의 부족에 대한 상황에 동의한다. 또한,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초과수요는 부채문제와 관련이 있고 재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⁶⁷⁾ 이는 연성예산제약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부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이다.

계획경제의 제도적 특성은 구체적으로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환경의 측면, 생산 기술의 원천의 측면, 자본특성의 측면, 선호의 측면으로 나뉘 세부적인 가정을 통해서 계획경제 대외무역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가정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65)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New Heav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 53~54.

66) Granick, David, *Job Rights in the Soviet Union: Their Consequ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참조.

67) Kornai, J. *Economics of Shortage* (New York: North-Holland, 1980) 참조.

〈표 3〉 계획경제의 대외무역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들

제도적 특성	가정의 주요 내용
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환경	성취된 수준의 계획은 전세계 경제체제에서 계획경제가 늦게 반응함.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집중된 산업부문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에서 가격정책은 자본집중재의 수출을 증가시킨다 평균비용가격은 토지와 자연자원으로 구체화된 재화의 수출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요의 패턴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계획경제에서 전 통적 인센티브는 높은 품질재의 생산과 수출을 적게 만든다.
생산기술원천	무역패턴은 계획경제가 비교가능한 시장경제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로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유의미한 창업과 다국적 기업의 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갖는다.
	계획경제는 신제품 생산 혹은 생산공정에서 기술변화 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갖는다.
	위계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열망은 수확채감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갖고, 수확채증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위계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열망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시장진입 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종제품의 산업생산에서 비교우위와 다양한 생산으로 인해 계획경제가 이 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갖게 했다.
계획경제는 다양한 생산이 없고 산업내 무역은 시장경제 보다 적게 유의미하다.	
자본특성	민약 계획경제에서 R&D 부문이 효율적이면, 계획경제에서는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R&D 부문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계획경제에서의 마케팅 기술의 부족은 많은 판매기술을 요구하는 부문에서 비교열위
	동-서의 무역패턴은 국내생산 수준에 의해 좀 더 집약적인 자연 자원에 대한 수출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적게 나타나고, 역전의 상황은 소비에트의 상황이다.
	계획경제의 무역패턴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무역패턴에 가깝다
선호	리더의 선호에 의하면 계획경제는 소비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투자재에 비교열위를 갖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범용으로 사용가능한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수요측면의 요인은 계획경제가 산업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적용될 수 있음
	수요측면의 요인에서 계획경제가 식량에 비교열위인 것이 적용될 수 있음
	수요측면에서 고려는 계획경제가 럭셔리재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다고 논쟁할 수 있음

출처: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Lessons from Easter European Foreign Trade* (New Heav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61~81 참조하여 작성.

2. 계획경제 무역구조 분석

계획경제에의 대외무역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 연구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비교우위 창출요인에 대한 검증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비경제학적 원리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제담론이 실물경제에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론이 갖고 있는 맥락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가정을 통한 단순화의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계획경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외무역을 결정하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역행위들과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건에서 경제적 실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외무역 환경과 정책 결정 동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담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⁶⁸⁾

따라서 Murrell은 앞서 언급한 가정을 적용하여 네 가지 관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분석했다. 첫째, 경제발전의 단계나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경제발전과정에 따라서 무역구조의 상품특화에 차이가 발생한다. Hufbauer와 Chilas는 무역의 시대적 발전과정(chronological development of trade)에 따라 천연자원재화군(Ricardo goods), 표준기술재화군(Heckscher-Ohlin goods), 기술집약재화군(Product cycle goods)의 3개 재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⁶⁹⁾ 그는 경제발전단계(OECD와 저개발국가)와 경제체제 간(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기술집약적 상품군에서 비교열위에 있지만, 천연재화군과 표준기술군⁷⁰⁾의 경우에는 OECD의 저소득 국가들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둘째, 생산 특성을 고려하였다. 생산 특성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경제의 규모, 기술 및 연구개발 수준 그리고 정부의 환경규제와 같은 비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요소를 활용하였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보다는 경제조직이

68)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p. 55.

69) 조영기,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현시적 비교우위의 구조모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 54.

70) Hufbauer and Chilas는 국가의 발전단계 및 생산 소비규모에 따라 선진산업국, 소규모 선진산업국, 저개발국으로 국가군을 분류하고, 천연재화군(Ricardo Goods), 표준기술재화군(Heckscher-Ohlin Goods), 기술집약재화군(Products Cycle Goods)으로 분류했다.

나 규모가 크고, 이러한 규모의 비경제(규모 경제의 반대현상을 만들어내는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의 소모가 발생한다. 즉 계획경제와 같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관료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경제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비교열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¹⁾ 또한 기술수준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관점에서 계획경제의 관료적 구조와 동기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체제가 기술적 후진성(technologically backward)의 상태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⁷²⁾ 이는 계획경제에서 기술도입은 시장경제보다 지연되고 그 결과 무역구조에서는 낮은 기술수준이 반영된다는 것이다.⁷³⁾

셋째, 시장의 특성이다. 계획경제에서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생산량을 조절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 따라서 계획경제하의 기업의 지배인은 생산량을 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많은 투입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계획경제에서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독점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다. 시장진입이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분야에서 시장경제는 계획경제 보다는 상대비용이 낮으므로 계획경제는 이 분야에서 비교열위의 상태에 있다.⁷⁴⁾ 또한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중요한 분야에서 계획경제는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생산된 재화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계획경제는 많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비교열위에 있고, 다양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다.⁷⁵⁾

넷째, 재화의 특성이다. 계획경제에서 계획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정치·사상적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작성된다.⁷⁶⁾ 계획경제 하의 정치지도자는 시장

71)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p. 70.

72) 이러한 논의는 Amann and Cooper의 구 소련의 공업혁신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업의 동기유발에서 총생산량목표의 중요성은 비용절감의 의지를 갖게 하는 한편,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제한된 계약은 기술정보의 확산을 억제하고, 중앙중심의 가격결정은 기업이 신제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신기술 도입을 꺼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Amann Ronald and Cooper Julian, *Industrial Innovation in the Soviet Un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73) Murrell, P. *ibid.*, p. 67.

74) *Ibid.*, pp. 61~68.

75)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 69.

76) 이는 우선순위경제(priority economy)라 하고, 계획경제의 기본 본성 가운데 하나로 봤을 때 이외의 본성은 명령경제(command economy), 억압경제(pressure economy),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 폐쇄경제(closed economy)가 있음. Brown Alan A. and Neuberger Egon, "The Traditional Centrally Planned Economic Reforms," in Morris Bornstein (ed.), *Comparative*

경제의 정치지도자보다 재화의 최종조합(the final mix of goods)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투자율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고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투자재는 수요압력이 작용하여 비교열위를 갖게 하고, 지도자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소비재는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게 한다. 또한 지도자는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총량 수준에서 공산품보다는 식량을 더 선호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로 인한 소비재 소비 수준이 낮아진다. 이는 수요 요인을 고려하면 계획경제는 소비재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식량에 비교열위를 갖게 된다.⁷⁷⁾

계획경제의 대외무역 패턴을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서 분석해보면, 경제발전 수준에서는 계획경제가 기술수준이 높은 재화군에서는 비교열위에 있고 표준 기술군과 천연재화군에서는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생산 특성을 고려하면 계획경제체제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관료적 비용의 증가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교열위 상태에 놓여 있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계획경제에서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상품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상품군에서 비교열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계획경제의 정치지도자는 재화의 최종조합의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하므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계획경제 하의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독점적 기업보다는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3. OECD 상품분류 기준과 북한의 적용

사회주의 국가의 비교우위를 설명하려는 방안으로 RCA지수⁷⁸⁾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⁷⁹⁾ RCA 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계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RCA 지수는 시장점유율의 단순한 비교가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 간 비교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고려

Economics Systems: Models and Cases (Irwin Series in Economy, 1989).

77) Murrell, P. *ibid.*, pp. 78~79.

78) RCA 지수는 특성상 간단하고 명쾌하게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반면에 해석의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상품에 대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분석하기 보다는 부존자원이나 기술수준으로 분류된 상품군별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79) Hufbauer, G. C. (1970)는 RCA를 활용한 비교우위 분석을 위해 상품을 ① 소비를 위한 생산재, ② 생산을 위한 생산재, ③ 리카르도재, ④ 헥셔-오린재, ⑤ 생산주기재로 구분하였다. Hufbauer, G. C., "The Impac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y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in Manufactured Goods," in Vernon, R. (ed.), *The Technology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pp. 145~231.

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지표이다. 특정 품목의 RCA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국가는 그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⁸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발표하는 STAN(Structural Analysis Database) Industry List는 산업별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로서 모든 국가들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상품분류 기준은 기술수준별 국제비교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러한 상품군 분류 기준의 결정요소는 노동투입량, 국제적 교역량, 상품별 국제시장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또한 이 분류법은 UN 통계국에 등록된 표준적인 방법이다.

Description	ISIC Rev.3	Description	ISIC Rev.3
TOTAL	01-99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01-05	MINING AND QUARRYING	10-14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	01-02	...MINING AND QUARRYING OF ENERGY PRODUCING MATERIALS	10-12
...AGRICULTURE, HUN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01	...MINING OF COAL AND LIGNITE, EXTRACTION OF PEAT	10
...FORESTRY, LOGG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02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AND RELATED SERVICES	11
...FISHING, FISH HATCHERIES, FISH FARMS AND RELATED SERVICES	05	...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	12
		MINING AND QUARRYING EXCEPT ENERGY PRODUCING MATERIALS	13-14
		...MINING OF METAL ORES	13
		...OTHER MINING AND QUARRYING	14
INDUSTRY INCLUDING ENERGY	10-41		
MANUFACTURING	15-37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40-41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15-16	...ELECTRICITY, GAS, STEAM AND HOT WATER SUPPLY	40
...FOOD PRODUCTS AND BEVERAGES	15	...COLLECTION, PUR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WATER	41
...TOBACCO PRODUCTS	16		
TEXTILES, TEXTILE PRODUCTS, LEATHER AND FOOTWEAR	17-19	CONSTRUCTION	45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17-18		
.....TEXTILES	17	WHOLESALE AND RETAIL TRADE - RESTAURANTS AND HOTELS	50-55
.....WEARING APPAREL, DRESSING AND DYEING OF FUR	18	WHOLESALE AND RETAIL TRADE - REPAIRS	50-52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19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 RETAIL	50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20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EXCL. MOTOR VEHICLES	51
PULP, PAPER, PAPER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21-22	...RETAIL TRADE EXCL. MOTOR VEHICLES - REPAIR OF HOUSEHOLD GOODS	52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21	HOTELS AND RESTAURANTS	55
...PRINTING AND PUBLISHING	22		
CHEMICAL, RUBBER, PLASTICS AND FUEL PRODUCTS	23-25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	60-64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23	TRANSPORT AND STORAGE	60-63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24	...LAND TRANSPORT - TRANSPORT VIA PIPELINES	60
...CHEMICALS EXCLUDING PHARMACEUTICALS	24 <i>excl</i> 2423	...WATER TRANSPORT	61
...PHARMACEUTICALS	2423	...AIR TRANSPORT	62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25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63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26	POST AND TELECOMMUNICATIONS	64
BASIC METALS,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27-35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27-28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65-74
...BASIC METALS	27	FINANCIAL INTERMEDIATION	65-67
...IRON AND STEEL	27+2731	...FINANCIAL INTERMEDIATION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65
...NON-FERROUS METALS	27+2732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66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28	...ACTIVITIES RELATED TO FINANCIAL INTERMEDIATION	67
MACHINERY AND EQUIPMENT	29-33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70-74
...MACHINERY AND EQUIPMENT, N.E.C.	29	...REAL ESTATE ACTIVITIES	70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30-33	...RENTING OF MACH. AND EQUIP. - OTHER BUSINESS ACTIVITIES	71-74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30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71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31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72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32	...RESEARCH AND DEVELOPMENT	73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33	...OTHER BUSINESS ACTIVITIES	74
TRANSPORT EQUIPMENT	34-35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34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75-89
...OTHER TRANSPORT EQUIPMENT	35	PUBLIC ADMI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75
...BUILDING AND REPAIRING OF SHIPS AND BOATS	351	EDUCATION	80
...AIRCRAFT AND SPACECRAFT	353	HEALTH AND SOCIAL WORK	85
...RAILROAD EQUIPMENT AND TRANSPORT EQUIPMENT N.E.C.	352+359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90-93
MANUFACTURING N.E.C. AND RECYCLING	39-37	...SEWAGE AND REFUSE DISPOSAL, SANITATION AND SIMILAR ACTIVITIES	90
...MANUFACTURING N.E.C.	36	...ACTIVITIES OF MEMBERSHIP ORGANIZATIONS N.E.C.	91
...RECYCLING	37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92
		...OTHER SERVICE ACTIVITIES	93
HIGH-TECHNOLOGY MANUFACTURES	2423,30,32,33,35,3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95
MEDIUM-HIGH TECHNOLOGY MANUFACTURES	24 <i>excl</i> 2423,29,31,34,352+359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99
MEDIUM-LOW TECHNOLOGY MANUFACTURES	23,25-28,351		
LOW TECHNOLOGY MANUFACTURES	15-22,36-37	TOTAL SERVICES	50-99
HIGH AND MEDIUM-HIGH TECHNOLOGY MANUFACTURES (incl. 351)	24, 29-35	BUSINESS SECTOR SERVICES	50-74
ENERGY PRODUCING ACTIVITIES	10-12,23,40	NON-AGRICULTURE BUSINESS SECTOR excluding Real Estate	10-67, 71-74
		BUSINESS SECTOR SERVICES excluding Real Estate	50-67, 71-74

〈그림 1〉 STAN Industry List

출처: www.oecd.org/sti/ind/40729523.pdf

80) 강유덕 외,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125.

위의 리스트는 기술수준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고급기술, 중급-고급기술, 중급-저급 기술, 저급 기술, 그리고 고급-중급의 중간형태 기술, 에너지 생산 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토대로 남한의 경제 분석을 위해 분류를 단순화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⁸¹⁾

〈표 4〉 기술수준별 제조업 분류기준

기술수준별 제조업 산업분류	ISIC Rev 3.	SITC Revision 4
고급기술	2423**, 30, 32, 33, 353	515, 541, 542, 713, 714, 751, 752, 759, 761, 762, 763, 764, 772, 774, 776, 778, 792, 871, 872, 873, 874, 881, 884, 885
중급기술	23, 24 less 2423, 25~28, 29, 31, 34, 352+359, 351	266, 267, 325, 334, 335, 342, 344, 511, 512, 513, 514, 516, 522, 523, 524, 525, 531, 532, 533, 553, 554, 571, 572, 573, 574, 575, 579, 581, 582, 583, 591, 593, 597, 598, 621, 625, 629, 651, 661, 662, 663, 664, 665, 666, 671, 672, 673, 675, 676, 679,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9,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9, 711, 712, 716, 718,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31, 733, 735, 737,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73, 775, 781, 782, 783, 784, 785, 786, 791, 793, 811, 812, 882, 891, 893, 894, 899
저급기술	15~22, 36~37	0, 1, 211, 232, 244, 245, 246, 247, 248, 251, 261, 263, 264, 265, 268, 269, 411, 611, 612, 613, 633, 634, 641, 642,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821, 831, 841, 842, 843, 844, 845, 846, 848, 851, 895, 898

* SITC 0(식품 및 산동물), 1(음료 및 담배)코드는 해당 코드의 품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ISIC 2423은 SITC 54(의약품 및 약제제품) 및 그 하위분류인 SITC 541(의약품 및 약제제품), 542(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에 해당하며 SITC의 가장 상위코드인 SITC 5(화학물 및 관련제품)의 대다수가 중급기술 제조업에 속한 만큼 고급기술 제조업으로 따로 분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4세부항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함.

*** 출처: www.oecd.org; 원자료는 홍진영, “한·중·일 현시비교우위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pp. 38~39.

81) OECD의 STAN 산업분류는 ISIC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SITC 코드와의 연계를 위해 UN Statistic Division에서 제공하는 코드 매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SITC 3 Digit에 맞게 재분류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홍진영, “한·중·일 현시비교우위와 산업내 무역에 관한 연구,” pp. 38~39.

OECD의 상품분류는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기술수준별 분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술수준별 차이에 의해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진다는 헥셔-오린 가정에 가장 충실한 분류기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SITC 0, 1을 모두 저급기술로 평가하고 있어서 기술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농업분야의 생산물의 경우에도 고급기술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산업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위의 <표 4>는 남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분류한 것으로 북한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북한의 산업별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품분류에 대한 고민은 거의 존재하지 못했다. 또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OECD의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기준은 국제적 표준으로 최근의 기술수준별 국제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이므로, 현재의 북한의 비교우위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수출품의 비교우위 분포와 수준

1. 이론적 배경

비교우위 모형 가운데 헥셔-오린 모형은 교역상대국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변하는 경우에만 무역패턴이 변하고, 개별 국가의 상대적 요소부존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무역패턴이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⁸²⁾이 작용하는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에서는 규모의 경제에서 요소 집약도의 영향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요소비율이론 결과들이 그대로 나타난다.⁸³⁾

82)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of Scale)이란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하면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산업이론에서 적용되던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 of Scale)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한 한계생산량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어떤 산업이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량의 자원을 대규모로 가공·처리하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반면에 적은 자원과 집약된 첨단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체증의 법칙이 통용된다.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하면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고, 반면에 한번 실패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83) 이재득, 박재진, “한·중·일 3국의 동학적 비교우위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pp. 56~57.

Grossman과 Helpman은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범위가 국제적이라는 가정에서는 개별 국가의 생산구조가 장기적인 무역패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기적인 무역패턴은 상대적인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모형들은 규모의 경제가 개발 국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⁸⁴⁾ 규모의 경제를 가진 경제주체들이 장기적으로 무역패턴이 변화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일부 국가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무역패턴은 초기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모형이 가정과 결과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특화 영역이 더욱 전문화되어 특화수준이 고도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Proudman 과 Redding의 내생적 기술변화에 기초한 국제무역 이론은 어떤 요인들은 지속적 혹은 고착된 무역패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다른 일부 요인들은 무역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⁸⁵⁾ 그리고 요소의 축적과 경제 지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모형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⁸⁶⁾ 결과적으로 국제무역패턴의 구조가 장기적인 속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지는 실증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무역패턴의 지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2. 분석방법

북한의 RCA지수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분포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모수통계학과 같이 검정대상이 모집단에 관한 것이며 표본에서 계산된 통계량을 사용하지만, 모집단 분포가 정규분포라든지 등의 특별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는다.⁸⁷⁾

일반적인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설명하면 확률변수란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사건에 수치를 부여한 것을 말하며, 보통 X로 표현한다. 또한 확률 분포란 어떤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과 이 값들이 나타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84) Grossman, G. and Helpman, E. "Comparative Advantage and Long-run Growth," pp. 769-815.

85) Proudman, J. and Redding, S. "Evolv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 64 (2000), pp. 1-31.

86) 이재득, 박재진, "한-중-일 3국의 동학적 비교우위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p. 57.

87) 박정식·윤영선·박래수, 『현대통계학』(서울: 다산출판사, 2010), p. 380.

확률변수는 이산확률변수(예를 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와 연속확률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확률함수는 확률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일정한 수치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확률변수가 취하는 값에 대해 합이 1인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확률분포이다. 이때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해 그 수치에 대한 확률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함수를 확률함수(probability function) 혹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라 한다.⁸⁸⁾

연속확률변수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은 무한히 많다. 그러므로 이산확률변수와 같이 어떤 특정한 값에만 국한된 확률은 말할 수 없다. 즉, $P(X_i)=0$ 이다. 대신 어떤 구간에 대한 확률은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시속이 60~61.5km 사이일 확률이라거나, 오늘 저녁 기온이 15.4~16°C 사이일 확률 등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오늘 저녁 기온이 15.4~16°C일 확률이 30%라면, $P(15.4 \leq X \leq 16)=0.3$ 으로 표현한다.⁸⁹⁾

모집단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수적 방법만으로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특히,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모수의 추정을 통한 분포의 추정은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비모수적 함수 추정 기법이다.

비모수적 확률밀도함수 추정은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 도구이다. 비모수적 밀도함수 추정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스토그램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확률밀도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고 추정된 밀도함수가 부드럽지 않다는 등의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커널형 밀도함수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은 밀도함수 f 로부터 얻은 크기 n 의 랜덤 표본을 X_1, X_2, \dots, X_n 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8) 위의 책, p. 99.

89) 통상 기온의 분포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에 높이는 확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온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경우는 0이다. 따라서 연속확률변수일 경우에는 어떤 구간(interval)에 대한 확률은 넓이로 나타내고, 위의 예에서는 그 넓이가 0.3이라는 의미이다. 위의 책, p. 100.

$$f(x) = \frac{1}{nh} \sum_{i=1}^n k\left(\frac{x - \bar{x}}{h}\right)$$

여기서 커널 K는 $\int K(x)dx = 1$ 를 만족하고, h는 평활량을 나타낸다. 평균이 0이고 단봉형 대칭 확률 밀도함수를 커널로 사용하는 경우, 커널 K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int K(x)dx = 1, \int xK(x)dx = 0, \int x^2K(x)dx = \mu_2(K) > 0.$$

커널형 추정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커널함수들은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⁹⁰⁾을 사용한다.

3. 커널밀도함수와 북한의 비교우위 분포: 산업전체

북한의 전체 수출패턴을 분석하는 도구로 전체산업의 RCA지수 분포도가 있다. 이 분포도를 이용하여 무역패턴의 동태적 특징을 실증 분석하는 비모수적 접근방법⁹¹⁾은 Proudman and Redding⁹²⁾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그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었다.⁹³⁾

커널확률밀도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한 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중앙값과 표준편차이다. 첫째, 중앙값은 RCA 지수가 기본적으로 분포가 심해 경사를 가지기 때문에 산술평균 대신 중앙값이 일국의 지수 분포의 중심위치 즉 평균적인 비교우위 수준에 관한 유용한 측도이다. 따라서 중앙값 변화 추이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 표준편차는 지수의 분산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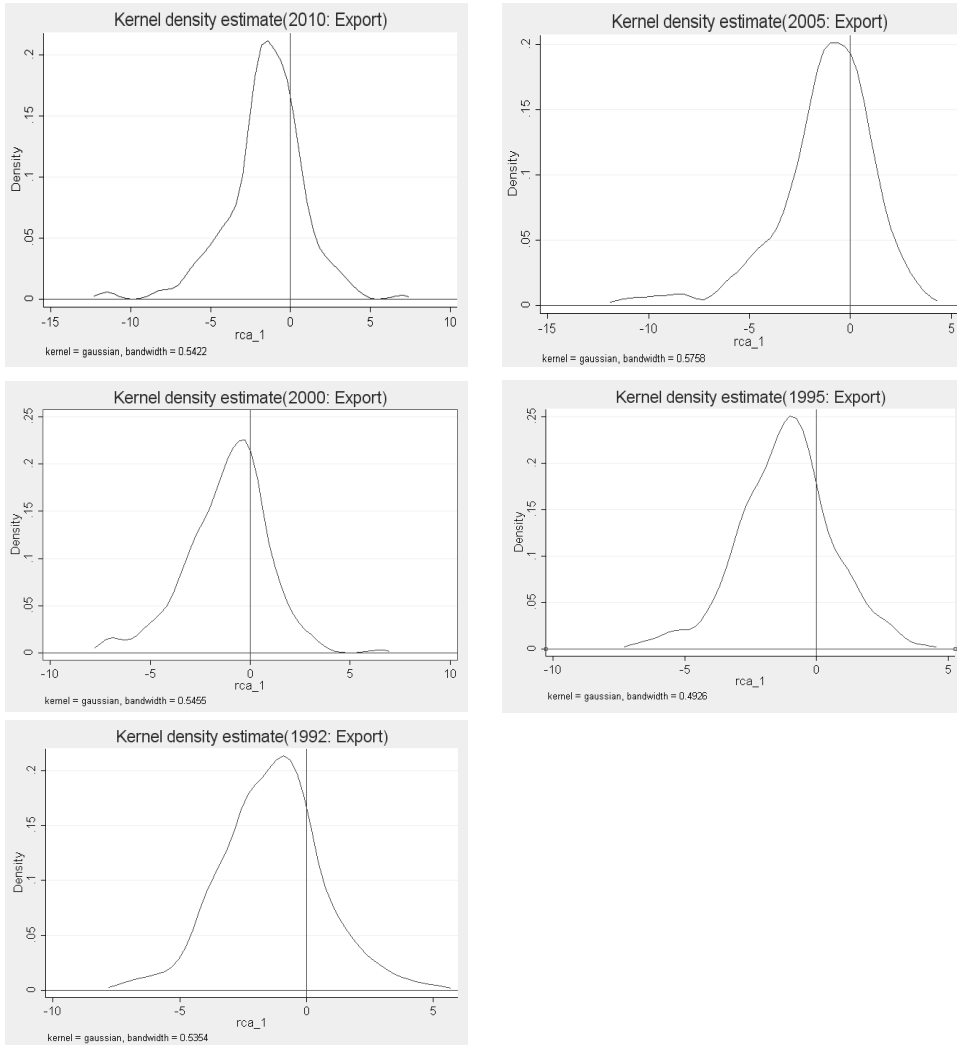
90) 가우시안은 정규분포를 의미한다.

91) 확률에서 추정의 방법들 가운데 모수적(parametric)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모양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필요하며 사용되는 자료가 수량적 자료 중에서도 연속적 자료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되며, 질적 자료를 사용하거나 수량적 자료라 하더라도 빈도 수와 같은 비연속적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 박정식·윤영선, 『현대통계학』, p. 28.

92) Proudman, J. and Redding, S. "Persistence and Mobility in International Trade,"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Vol. 64 (1988) p. 131; "Evolv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 No. 3 (2000) pp. 373~396.

93) 이재득, 박재진, "한·중·일 3국의 동학적 비교우위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p. 61.

국가의 지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특정국가의 일부 산업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특화를 실현하고 다른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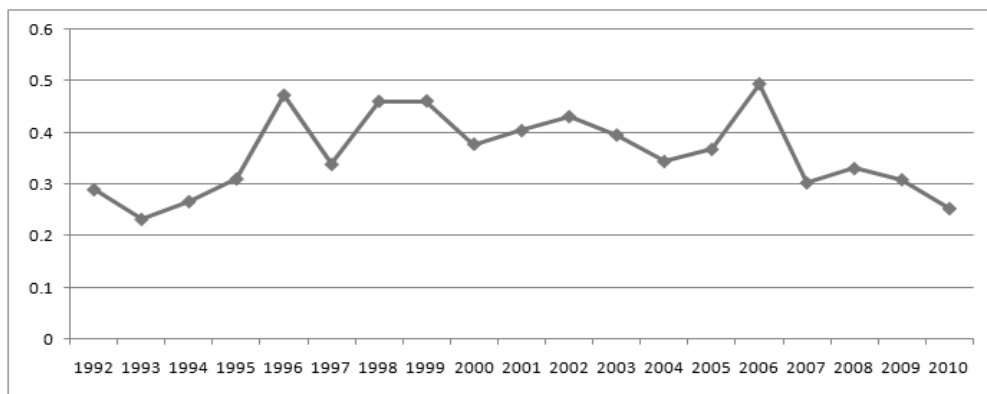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수출 RCA 분포

* 주: 본 연구에서 구현한 일반적인 데이터로는 RCA값은 0 이하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 분포를 정규분포로 확인하여 보기 위한 수학적으로 log값을 취하여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RCA 분포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출처: STATA 11.0을 사용하여 작성.

위 그림은 1992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 북한 수출 RCA지수의 분포를 커널밀도함수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의 중간부분의 수직선은 비교우위와 비교열위를 구분하는 경계를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경사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의 커널밀도함수 곡선이 중간값이 가장 경제선에 가깝게 나타났다. 2000년을 중심으로 1992년~2000년까지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고, 이후 2000년~2010년까지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우위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술 수준별 비교우위가 높은 상품의 수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2000년 이후에는 기술 수준별 비교우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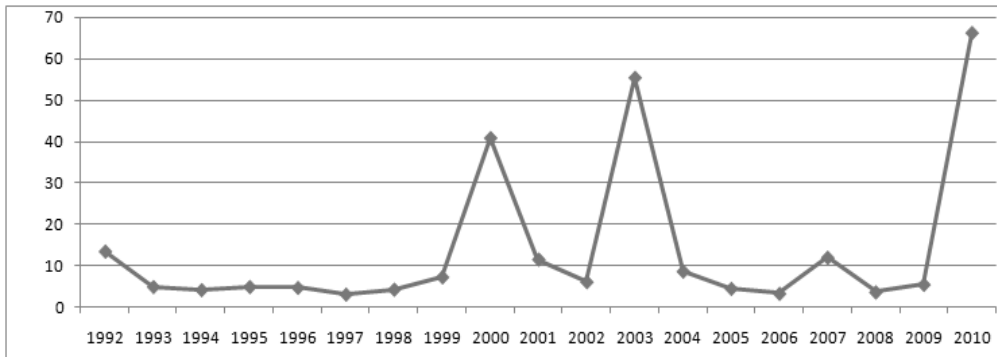
〈그림 3〉 북한 수출 RCA Median의 변화

출처: UNcomtrade 1992~2010년, STATA 11. 0.

분석대상기간동안의 북한의 RCA 중앙값(median) 변화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시기적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1993년~1996년까지 중간값이 상승하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2006년까지는 중간값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의 변화나 값의 변화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의 중앙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0년의 경우 1993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2010년 시기에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항목이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커널밀도함수 그래프에서 보여준 것처럼 비교우위의 변화가 경향성을 띄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북한 수출 RCA Standard deviation의 변화

출처: UNcomtrade 1992~2010년, STATA 11. 0.

북한 RCA 지수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RCA의 분산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북한의 RCA 지수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북한이 특정 산업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특화를 실현하고 다른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 2003년과 2010년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북한 수출산업의 비교우위의 특화수준이 양극화를 보여주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산업 간의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커널밀도함수 곡선에서는 2000년의 비교우위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중간값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1993년~1996년까지 상승했고, 이후 1996년~2006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며, 2006년~2010년까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2000년, 2003년, 2010년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간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교우위가 200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품들에서 비교우위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각론적으로 보면 1993년~1996년의 시기가 개별 상품들에서 비교우위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2006년 이후에는 반대로 비교우위가 하락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시기에 비교우위의 특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교역 특성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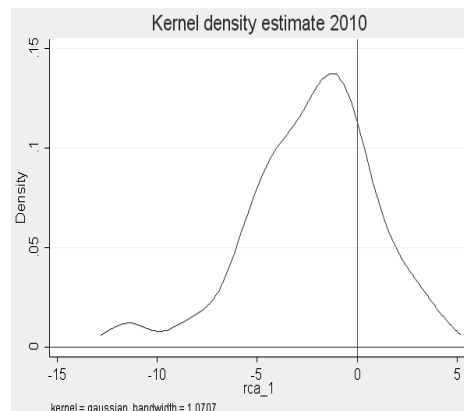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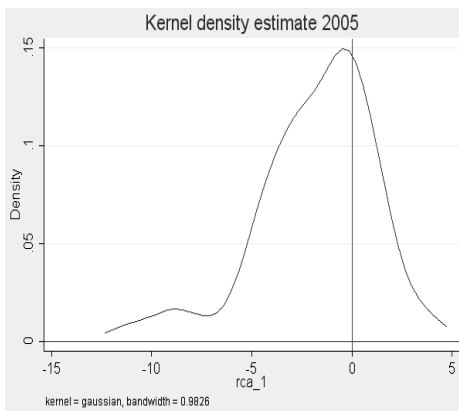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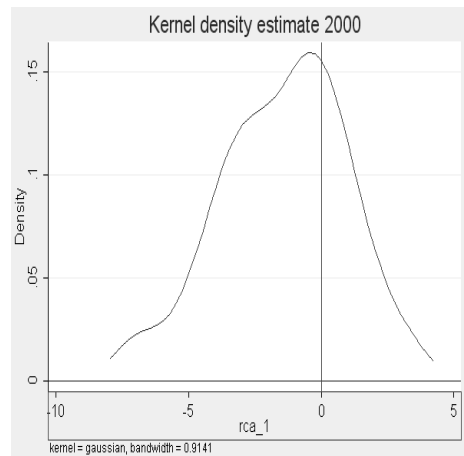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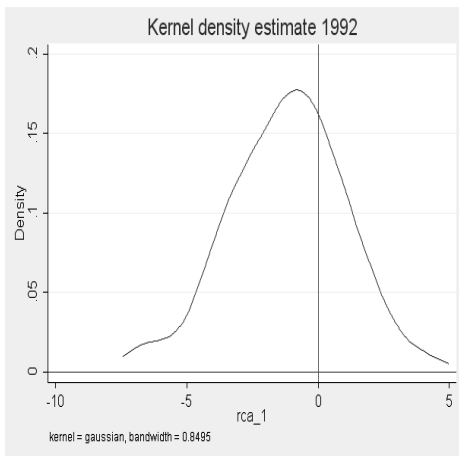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의 급격한 증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비교우위는 어느 한 방향으로 특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찾기는 어렵고, 특히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특성도 찾기 어렵다.

4. 기술수준별 커널밀도함수와 북한의 비교우위 분포

북한의 수출 상품 전체에 대한 비교우위 분포와는 다르게 기술수준별 분포수준을 보면 해당 기술수준의 상품군들이 어떻게 비교우위가 분포하고 어떤 특성들이 변화하고 있는 지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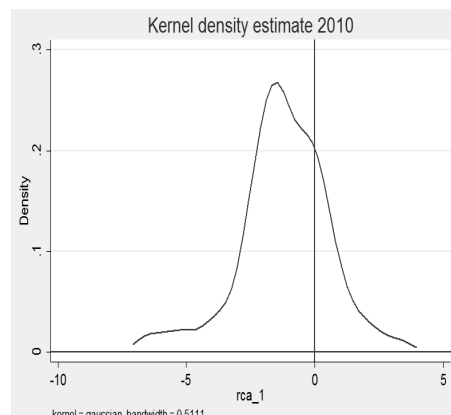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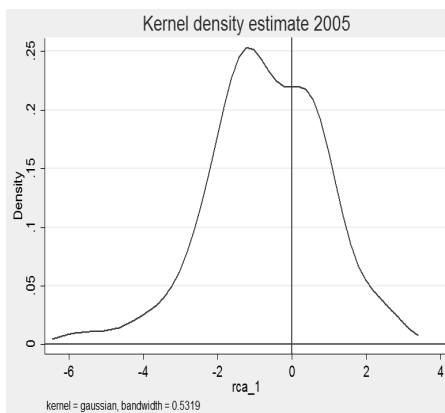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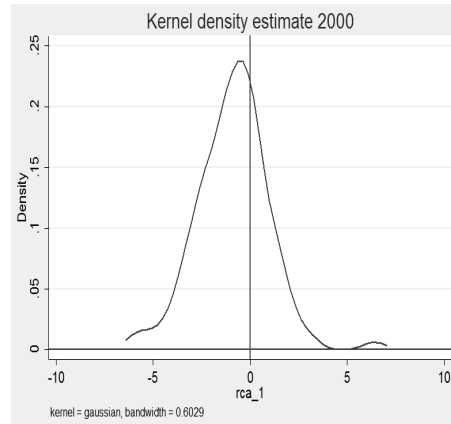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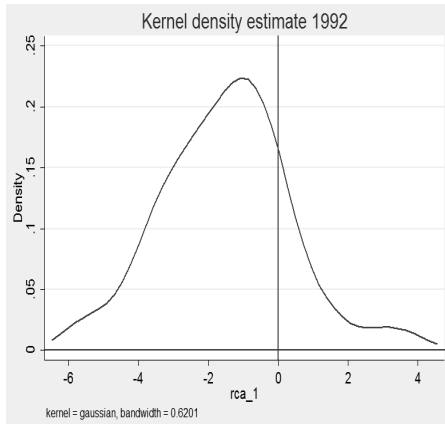
* 저급기술군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군의 RCA 분포 밀도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중앙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비교우위의 밀도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급기술군의 제품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그 비율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2010년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중앙값이 변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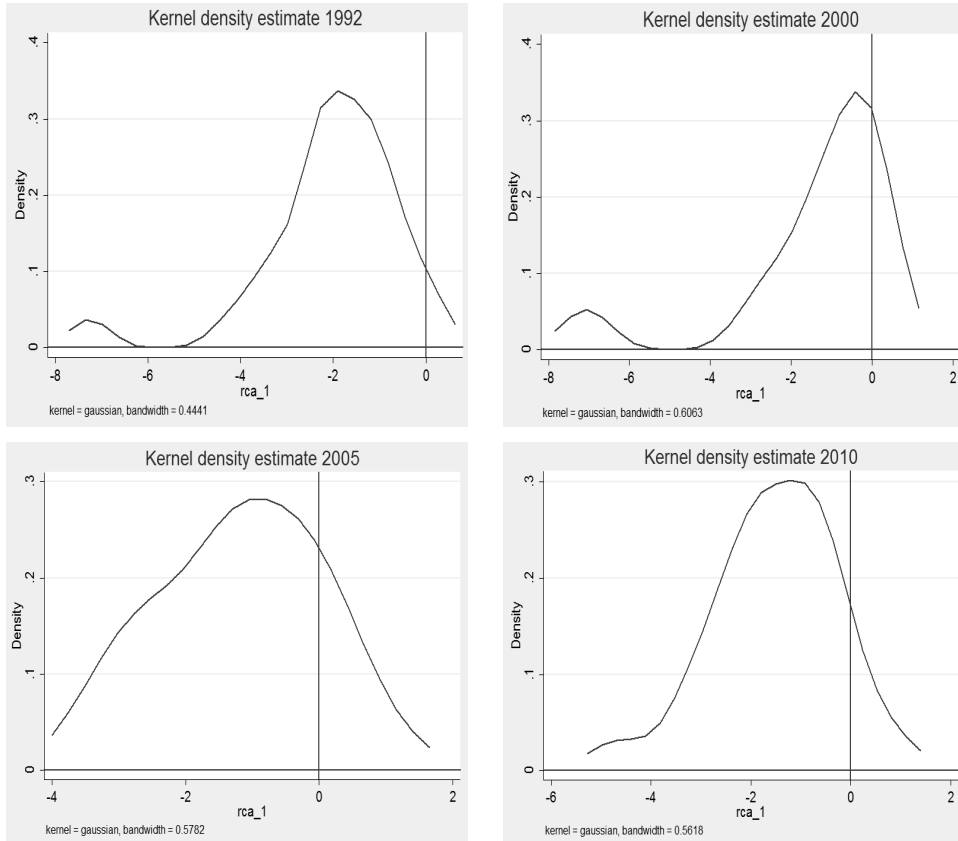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군의 경우에는 1992년에 비해 2010년에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군에서 북한이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원인은 원자재 중심의 상품수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대외무역구조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산업전반에 대한 생산성 약화로 인해서, 수출부문에서는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천연자원기반 수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중급기술군



중급기술제품군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중앙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졌지만, 이후의 기간에는 중앙값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졌다. 이는 북한에서 중급기술군 제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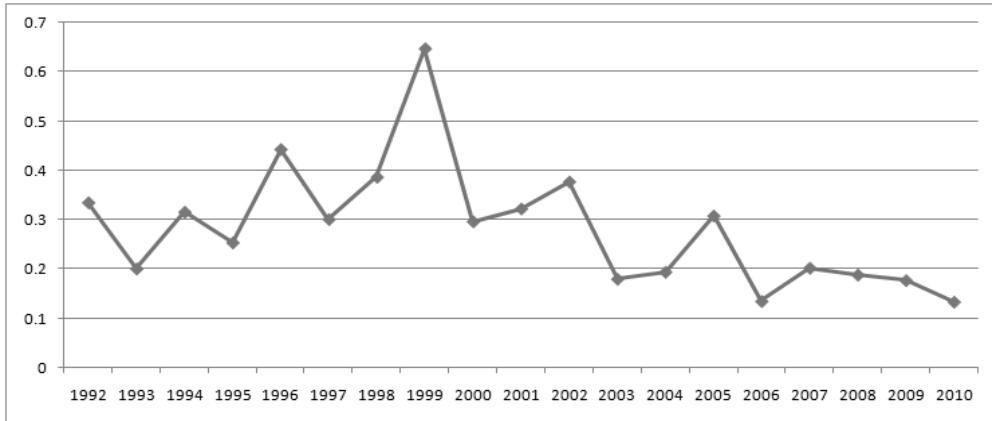
* 고급기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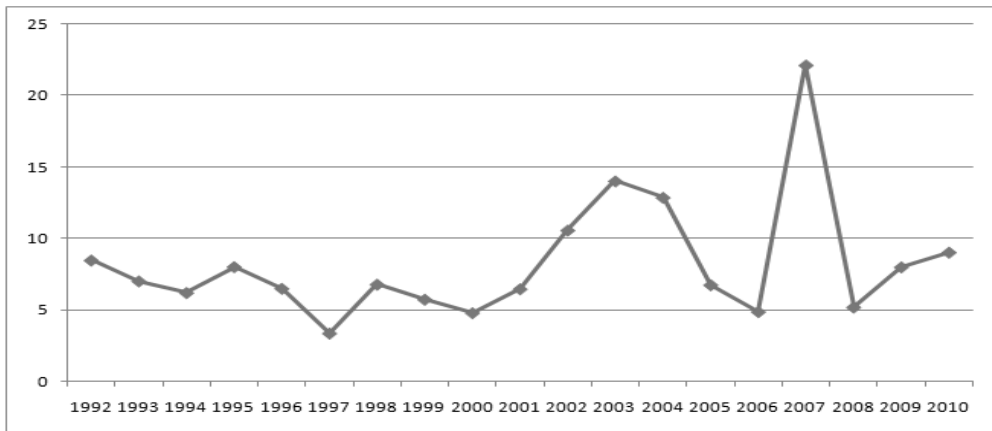
〈그림 5〉 북한의 수출 RCA 분포: 기술수준별

고급상품군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졌다. 이는 중앙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005년과 2010년의 경우에는 중앙값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졌다.

* 저급기술군(Me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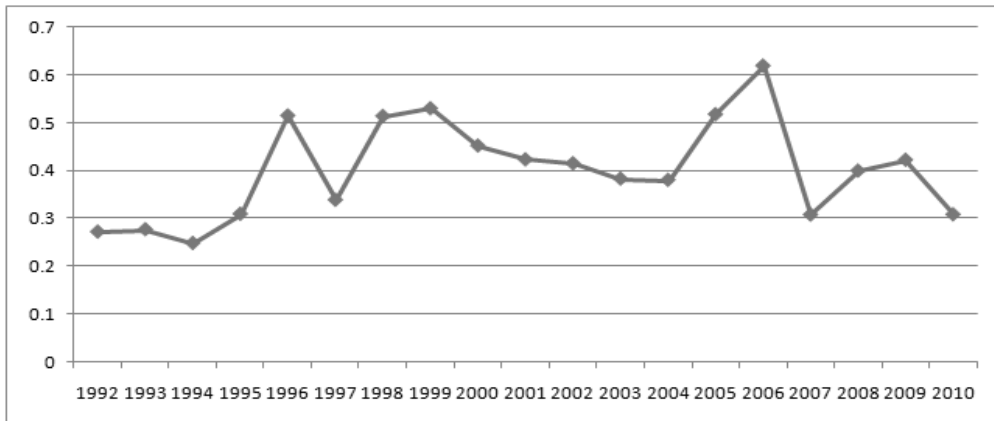
* 저급기술군(St.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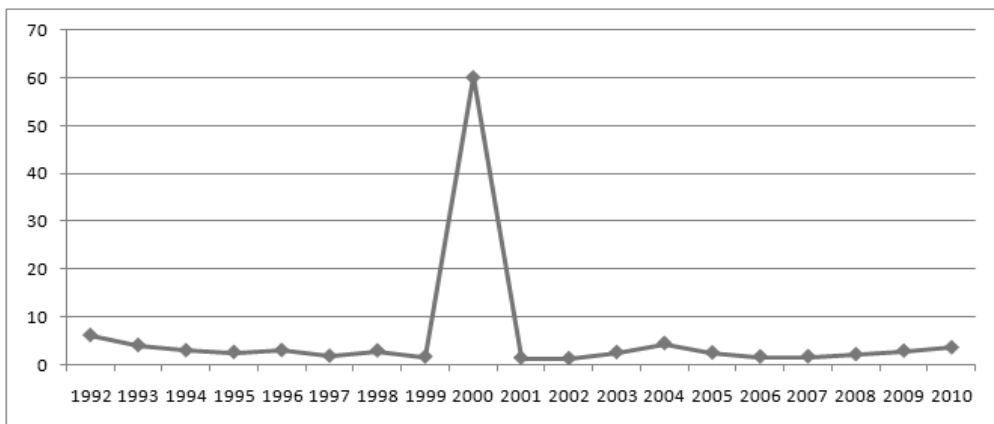
〈그림 6〉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저급 기술군

OECD의 기술수준별 분류 기준으로 나타난 북한의 수출 RCA값의 중간값은 2000년대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였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저급 기술군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비교우위가 2000년까지 증가하였고, 이후의 시기에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200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2003년 2008년의 경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저급기술 상품군 내에서 비교우위의 변화의 폭이 컸음을 의미한다.

*중급기술군(Me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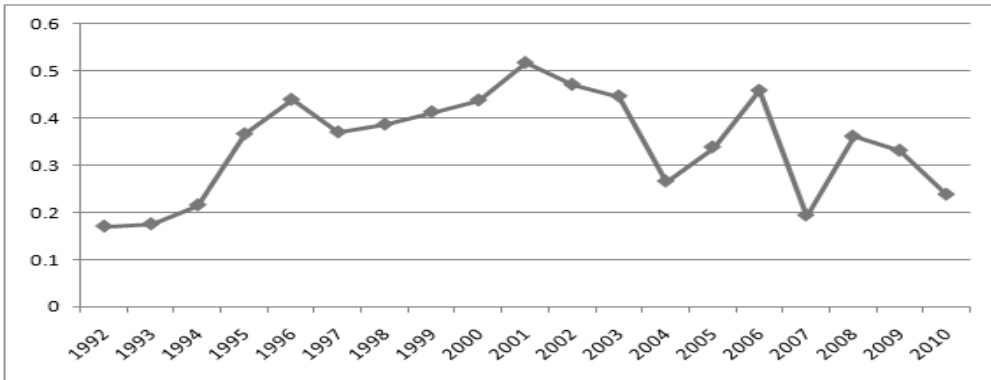
* 중급기술군(St.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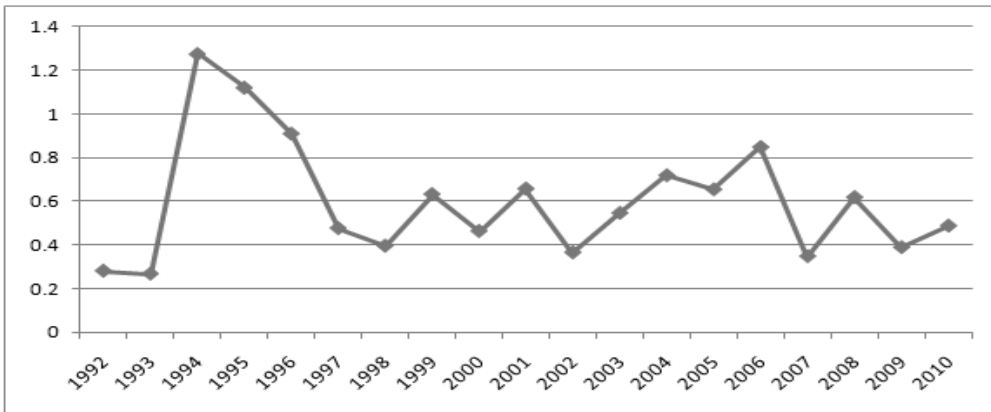
〈그림 7〉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중급 기술군

중급 기술군 제품들의 경우에는 중간 값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다른 기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0년의 경우에는 1992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급 기술군 상품들의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1995~2006년의 시기가 높고 나머지 기간은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는 거의 변화가 없고 2000년의 시기에만 급격한 변화가 존재한다. 이는 2000년 시기의 중급기술제품군의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 고급 기술군(Median)



* 고급 기술군(St. d)



〈그림 8〉 상품 그룹별 Median과 St. d 변화: 고급 기술군

고급 기술군 상품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값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03년까지 지속된다. 이는 고급 기술군에 해당되는 상품의 비교우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이후의 시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2010년에는 1992년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표준편차를 통해서 보면 1994년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등락을 함께 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증가하고, 이후에는 하락하고 있다. 이는 중급 기술군에서 보여준 표준편차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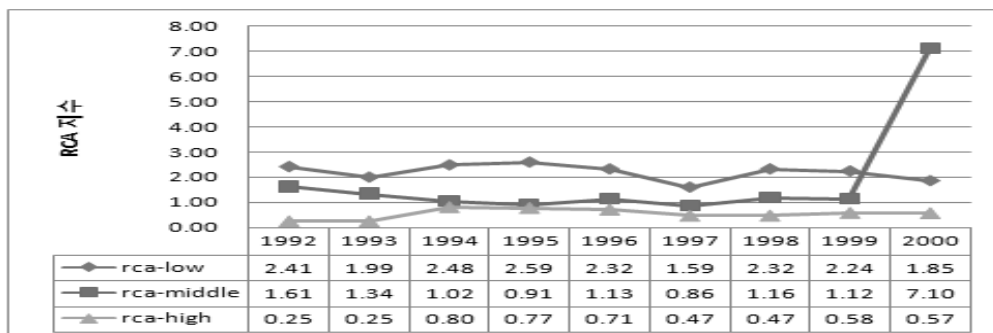
하겠다. 고급 기술군 상품의 경우에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북한 비교우위의 미시적인 변화

1) 19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수출의 기술수준별 비교우위 변화를 보면, 첫째,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특정시기(1997, 2000)를 제외하고는 중간수준($2 \leq RCA < 4$)의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간기술 수준의 제품군에서는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승한다. 셋째, 고급기술 제품군에서는 언제나 비교열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산업구조가 기술수준이 낮거나 혹은 중급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는 상품군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에 있어서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보면 첫째, 낮은 기술의 경우에는 실크류, 의류관련 제품과, 1차 상품위주의 분야가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간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금속가공 제품들에서 비교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 가운데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고급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1992~2000년 사이의 기간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특정시기에 한정되어 통신 장비 및 기초적인 전자제품 등에서 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1990년대 수출에서 고도로 발전된 산업관련 제품보다는 1차 상품위주의 수출,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 기초소재 정도의 수출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북한 수출의 기술수준별 RCA 변화: 1992~2000

출처: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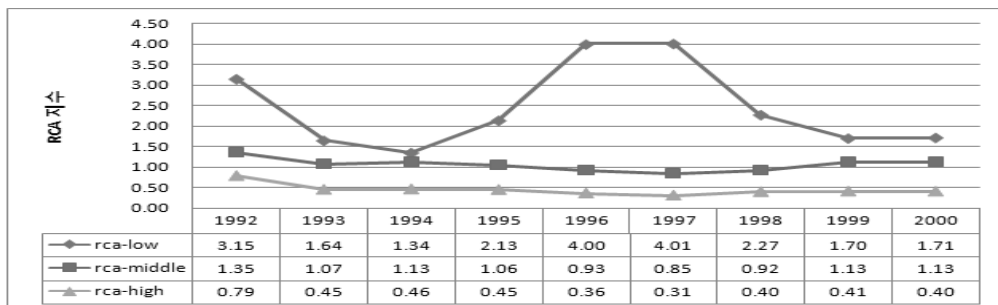
〈표 5〉 북한 기술수준별 수출 상품의 비교우위: 1992~2000

기술 수준	주요 비교우위 상품 코드*	주요 상품군
낮은 기술	261, 841, 36, 34, 54, 35, 842, 653, 37, 247	실크, 의류 및 관련제품, 갑각류, 생선(냉동 및 냉장), 야채 및 과일, 목재류
중간 기술	686, 685, 793, 673, 672, 671, 661, 266, 571, 625	아연, 납, 선박 및 요트 관련 구조물, 철 및 비철금속 판금제품, 아연철강 제품, 비철금속광 제품, 방적용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등
고급 기술	764, 763, 873, 778, 776**	통신 장비 및 액세서리, 비디오 및 오디오 관련 녹화기, 계량기, 전기기계류 등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없음. 위의 표는 1994년의 기준임.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수입의 기술수준별 비교우위 변화를 보면, 첫째,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군의 비교우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또다시 하락하는 등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전 기간에 걸쳐서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SITC digit 3의 042, 046, 047(쌀, 밀가루, 곡물류)의 RCA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상승시켰다. 이는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인한 곡물의 지속적인 유입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여 수입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간기술 수준의 비교우위는 1996~1998년의 시기에 걸쳐서 비교열위가 나타났다. 이 시기 중간기술 수준의 수입은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군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높은 기술수준 제품군에서는 전 시기를 거쳐서 한 번도 비교우위를 보인 적이 없고, 비교열위 정도도 수출에서 나타났던 비교열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림 10〉 북한 수입의 기술수준별 RCA 변화: 1992~2000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수입품목들 가운데서 비교우위를 보였던 상품들을 살펴보면 곡물류, 기타 철강 및 기계 공업관련 원부자재, 통신장비 및 주요 기초과학 소재 공업에서 활용되는 원자재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수입 부문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수출 부문과 유사한 비교우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저급 및 중급 수준의 기술수준 상품군에서 비교우위가 나타났고, 고급 기술군 제품들에서는 비교우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북한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 1992~2000

기술 수준	주요 비교우위 상품 코드*	주요 상품군
낮은 기술	46, 44, 653, 654, 62, 655, 41, 263, 61, 121	쌀, 밀, 곡물류, 섬유류, 담배류, 면화류 등
중간 기술	325, 722, 672, 737, 591, 512, 671, 791, 266, 532	코크스, 트랙터, 철강 및 비철 관련 주요 부분, 철강재 기계류, 화학원료 및 제품, 알루미늄 및 페놀 등
고급** 기술	885, 761, 871, 515, 763, 774	시계류, 통신장비 및 전화 관련 장비, 저울 및 관측 장비들, 유기화합물 등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없음. 위의 표는 1994년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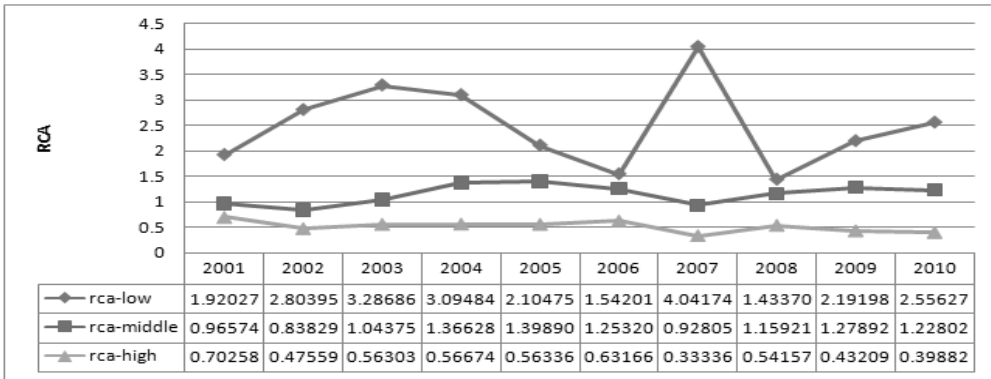
출처: UN Comtrade

1990년대 북한의 비교우위를 보인 분야는 전통적인 1차 산품위주의 수산물, 약간의 기술이 요구되는 신발 및 섬유 가공 분야이며, 광물 원재료, 노동집약적 상품 등에 대한 비교우위가 약간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의 측면에서 보면 광범위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 보다는 약간의 재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얻었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비교우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북한의 비교우위와 관련하여 기술수준별 분석을 통해서 보면 수입과 수출에서 기술수준이 낮거나 중간 수준의 제품들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들이 존재했고, 기술수준이 높은 수준의 제품군들에서는 비교우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2)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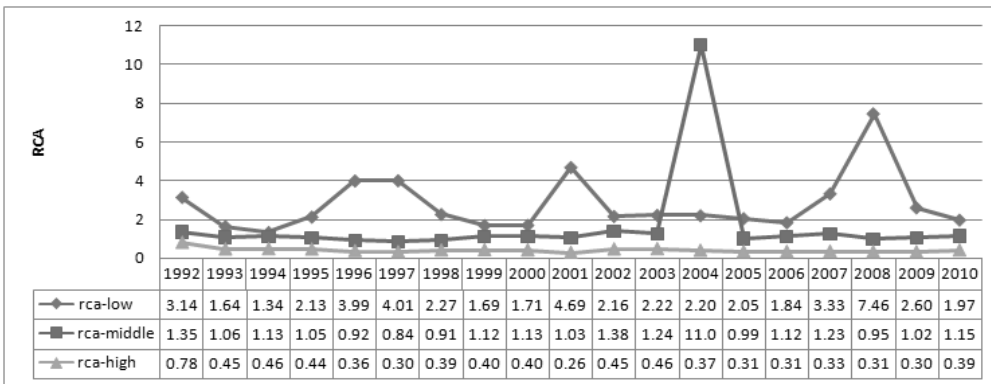
2000년대 북한 수출 기술수준별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기술수준이 낮은 상품군의 경우에는 2007년을 기점으로 큰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비교우위가 하락하다가 2008년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간

기술 수준의 제품군에서는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비교열위에 있고,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즉, 낮은 상품군의 비교우위가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북한 수출 상품군별 RCA 변화 추이: 2001~2010

수입의 경우에는 중간수준의 기술제품에서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낮은 기술 수준의 제품은 파동성이 크게 나타나서 일정한 경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높은 기술수준의 제품에서는 비교열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은 수출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은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등의 전형적인 후진공업국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2〉 북한 수입 상품군별 RCA 변화 추이: 2001~2010

북한의 수출품목들 가운데서 기술수준이 낮은 상품군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던 종류는 실크, 생선류, 의류, 옷감류 등과 같은 1차 상품용 원자재 및 목재, 섬유, 펄프 제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였고, 중간 기술수준의 제품군에서는 철강재 및 석탄과 같은 광물, 간단한 기술수준의 전력관련 제품들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에서는 간단한 전자제품 및 부속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표 7〉 북한 기술수준별 수출 상품의 비교우위: 2001~2010

기술 수준	주요 비교우위 상품 코드*	주요 상품군
낮은 기술	261, 36, 841, 269, 232, 842, 247, 653, 34, 251	실크, 생선류, 의류, 옷감류, 합성고무류, 목재류, 섬유류, 펄프류 등
중간 기술	686, 671, 685, 672, 266, 325, 693, 711, 793, 572	아연류, 철 및 철강재, 납, 철강괴, 합성수지, 코크스 및 석탄류, 와이어 제품, 발전기 제품들, 선박류, 폴리스틸렌 제품
고급 기술	761, 764, 774, 763, 759, 776, 881, 778, 751, 752	모니터류, 전화기류, 의료용 전기기기, 녹음기류, 기계부품류, 티비용 부품류, 카메라 등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거의 없음.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2000년대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다.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군에서는 식량류 및 개인 기호품과 같은 제품군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간기술제품에는 원유 및 광물류 제품이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고급기술 제품군에서는 전자기기류 등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8〉 북한 기술수준별 수입 상품의 비교우위: 2001~2010

기술 수준	주요 비교우위 상품 코드*	주요 상품군
낮은 기술	42, 263, 46, 35, 44, 653, 122, 12, 37, 61	쌀, 면화, 밀가루, 가공생선류, 밀, 의류, 담배류, 고기류, 생선류, 설탕류
중간 기술	334, 671, 687, 651, 512, 325, 266, 511, 693, 523	원유, 철광석류, 깡통류, 섬유류, 알코올류, 석탄류, 합성수지, 유기화학물, 와이어제품
고급 기술	761, 778, 752, 763, 872, 774, 873, 772, 881, 885	모니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전자회로기판류, 약기류, 카메라류, 시계류

주: * 낮은 기술과 중간 기술은 비교우위 상위 10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음.

** 반면에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거의 없음.

출처: UN Comtrade

북한의 기술수준별 상품군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특성은 첫째, 단순임가공의 증가가 비교우위에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교역량이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은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둘째, 1차 상품의 비교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식량부문에서는 수입, 생선류 및 수산물 등의 수출에서 비교우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자제품의 단순조립 및 임가공도 비교우위로 나타났다.

제3절 비교우위 내부 동태성(Dynamics) 분석

1. 개념 설명

마르코프 체인(Markov Chains)은 어떻게 사회나 물리적 현상들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용한 모델이다. 데이터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예측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RCA지수들은 특정 연도의 비교우위상태에 대한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동태적인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⁹⁴⁾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Proudman and Redding, Hinloopen and Marrewijk)은 비교우위가 동태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마르코프 전이행렬을 분석하고 있다.⁹⁵⁾

만일 비교우위지수가 일정한 구간별로 구분되면 각 구간별로 이동하는 확률행렬인 마르코프 전이행렬(Markov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P로 표현될 수 있다. 비교우위 지수를 x 라고 하고 x 의 t 기에서 산업 간의 분포를 $F_t(x)$ 라고 하면 확률변수 λ_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lambda_t([-\infty, x]) = F_t(x)$$

위의 식의 확률변수 λ_t 는 아래의 식과 같이 확률차분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⁹⁶⁾

94)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비교우위가 있던 품목 또는 산업이 그 다음 연도에 어떤 변화를 보이며 이에 따라 비교우위 패턴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95) 마르코프 전이행렬 방정식 모형은 최낙균·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p. 61.

96) Quah, D. T, "Empirical Cross-Section Dynamics in Economic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7 (1993).

$$\lambda_t = P^*(\lambda_{t-1}, \mu_t)$$

위의 식에서 μ_t 는 오차항이며 P^* 는 오차항과 확률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산자(operator)이다. 단순화를 위해 확률차분방정식이 1차 차분식이며 연산자 P^* 는 시간에 따른 변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오차항 μ_t 가 0이라고 가정하고 확률차분방정식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lambda_{t+\delta} &= P^*(\lambda_{t+\delta-1}, 0) = P^*(P^*(\lambda_{t+\delta-2}, 0), 0) \\ &\cdot \\ &\cdot \\ &\cdot \\ &= P^*(P^*(P^* \dots (P^*(\lambda_t, 0), 0 \dots 0), 0) \\ &= (P^*)^\delta \lambda_t \end{aligned}$$

만일 비교우위 지수가 일정한 구간별로 구분되면 P^* 는 각 구간별로 이동하는 확률행렬인 마르코프 전이행렬(Markov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 P 로 표현될 수 있다. 즉 마르코프 전이행렬, P 는 p_{kl} 로 구성되는데, p_{kl} 는 비교우위 지수가 k 구간에서 1구간으로 이동하는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마르코프 전이행렬을 통해 비교우위 지수가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정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에르고드 분포(ergodic distribution)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우위지수의 분포유형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요국의 산업이 전기·전자 등 특정 산업 위주로 특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산업에 걸쳐 고르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⁹⁷⁾

2. 마르코프 전이행렬 분석

마르코프 전이행렬을 구할 때 어떤 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며, 구간(bandwidth)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비교우위지수의 경우에는 Balassa의 RCA 지수를 활용하였다. 구간 설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Hinloopen and Marrewijk⁹⁸⁾는 중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97) 이러한 전이행렬을 통한 국가별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선행연구는 OECD, "Comparative Advantage and Export Specialization Mobility in OECD and Selected Emerging Market Economies," TAD/TC/WP(2010)16, TAD/TC/WP(2010)16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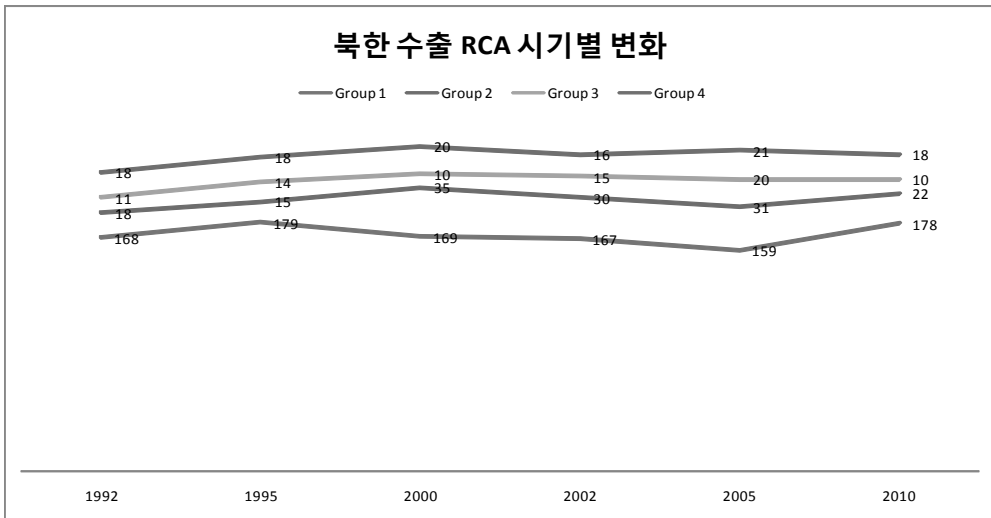
통계적 분석을 통해 10개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RCA 지수의 1, 2, 4 등의 값을 임계치로 하는 4단계 구간을 설정하였다.⁹⁹⁾

〈표 9〉 비교우위 구간 분석

비교우위 구간	기준
높은 비교우위 구간 (group 4)	$4 \leq RCA$
중간 비교우위 구간 (group 3)	$2 < RCA \leq 4$
비교우위 구간 (group 2)	$1 < RCA \leq 2$
비교열위 구간 (group 1)	$0 < RCA \leq 1$

출처: Hinloopen, J. and Marrewijk, C. "Dynamics of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04.

위의 비교우위 구간 분석에 따른 연도별 비교우위 지수(수출에 한정)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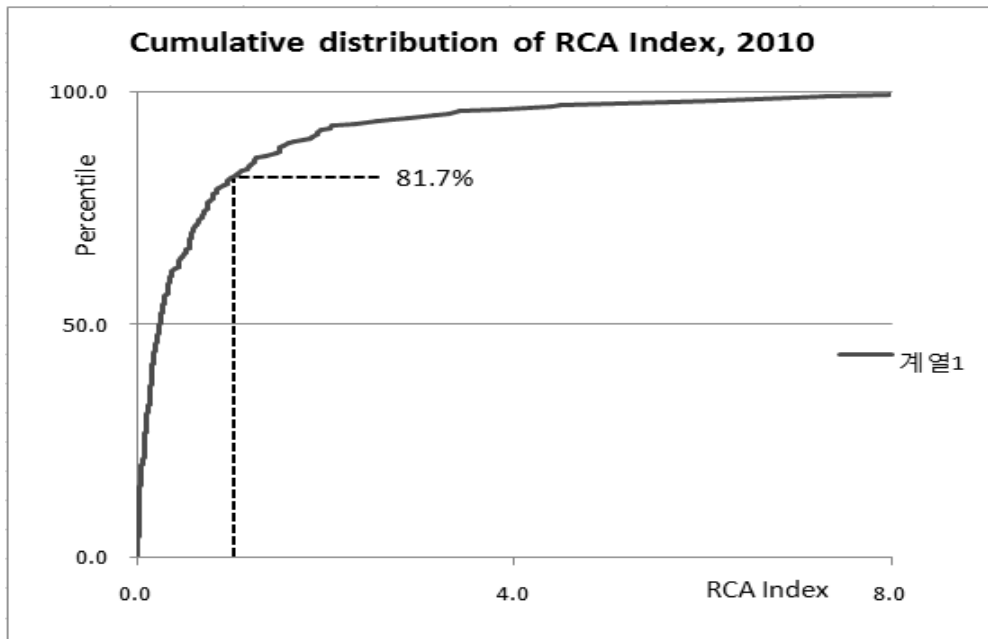


〈그림 13〉 북한의 수출 RCA 시기별 변화

98) Jerosen Hinloopen and Charles Van Marrewijk. "Dynamics of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04).

99) 구간설정과 관련한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2와 4가 중간열위, 중간우위, 우위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일부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경우 RCA지수가 매우 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동태적 비교우위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는 위험성도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비교우위의 구간이 1995년부터 확대되다가 2005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비교열위의 영역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비교우위와 중간수준의 비교우위 영역간의 비율이 전체적인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교우위 구간 내에서의 전이 현상을 의미하며, 전 시기에 걸쳐서 비교열위의 품목이 비교우위로 전환되는 흐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림 14〉 북한의 RCA 누적함수 그래프

위 그래프는 RCA의 누적분포함수 그래프이다. 2010년 북한의 RCA 지수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품 가운데서 81.7%가 비교열위(RCA지수가 1보다 낮았음)였고, 나머지는 비교우위와 중간비교우위 그리고 높은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의 경우에도 비교열위 구간이 81.7%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비율은 전 시기를 거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상품별 비교우위가 확대되거나 감소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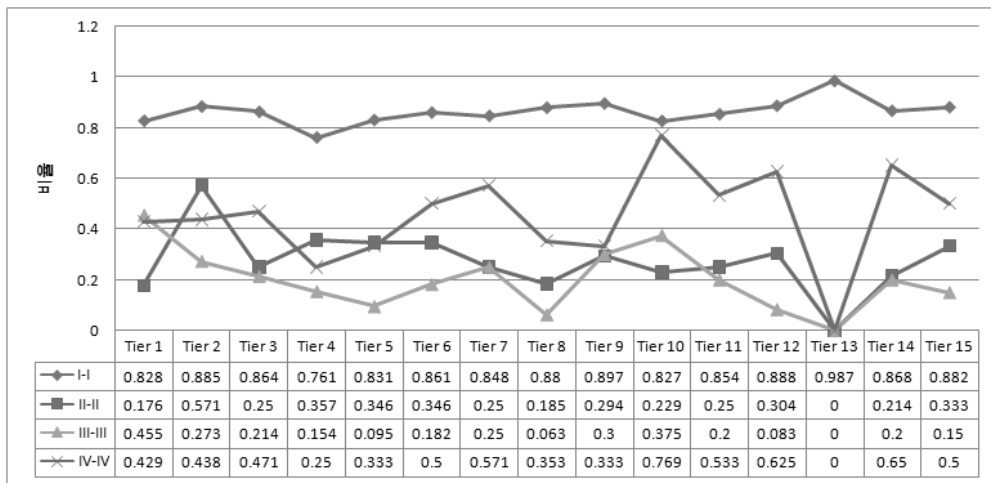
아래의 표는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 구간(bandwidth)를 기준으로 마르코프 전이행렬(Markov transition matrix)의 확률을 구한 것이다.

〈표 10〉 북한 수출의 마르코프 전이행렬 변화

1992~1996					1999~2003									
	I	II	III	IV		I	II	III	IV					
I	0.828	0.115	0.045	0.013	I	0.880	0.08	0.033	0.007					
II	0.588	0.176	0.118	0.118	II	0.704	0.185	0.111	0					
III	0.182	0.182	0.455	0.182	III	0.313	0.063	0.063	0.563					
IV	0.143	0.071	0.357	0.429	IV	0.235	0.235	0.176	0.353					
1993~1997					2000~2004									
	I	II	III	IV		I	II	III	IV					
I	0.885	0.073	0.036	0.024	I	0.897	0.058	0.013	0.032					
II	0.357	0.571	0	0.071	II	0.500	0.294	0.118	0.088					
III	0.182	0.182	0.273	0.364	III	0.200	0.3	0.3	0.2					
IV	0.250	0.25	0.063	0.438	IV	0.278	0.222	0.167	0.333					
1994~1998					2001~2005									
	I	II	III	IV		I	II	III	IV					
I	0.864	0.08	0.043	0.012	I	0.827	0.115	0.038	0.019					
II	0.417	0.25	0.167	0.167	II	0.514	0.229	0.171	0.086					
III	0.214	0.429	0.214	0.143	III	0.188	0.25	0.375	0.188					
IV	0.176	0.118	0.235	0.471	IV	0.077	0	0.154	0.769					
1995~1999					2002~2006									
	I	II	III	IV		I	II	III	IV					
I	0.761	0.176	0.031	0.031	I	0.854	0.076	0.051	0.019					
II	0.429	0.357	0.214	0	II	0.464	0.25	0.179	0.107					
III	0.231	0.154	0.154	0.462	III	0.267	0.333	0.2	0.2					
IV	0.313	0.125	0.313	0.25	IV	/	0.2	0.267	0.533					
1996~2000					2003~2007									
	I	II	III	IV		I	II	III	IV					
I	0.831	0.117	0.019	0.0321	I	0.888	0.075	0.038	0					
II	0.462	0.346	0.115	0.077	II	0.609	0.304	0.043	0.043					
III	0.381	0.238	0.095	0.286	III	0.333	0.25	0.083	0.333					
IV	0.333	0.167	0.167	0.333	IV	0.063	0.188	0.125	0.625					
1997~2001					2004~2008									
	I	II	III	IV		I	II	III	IV					
I	0.861	0.111	0.017	0.011	I	0.987	0.006	0.006	0					
II	0.346	0.346	0.269	0.038	II	1.000	0	0	0					
III	0.182	0.273	0.182	0.364	III	1.000	0	0	0					
IV	0.083	0.167	0.25	0.5	IV	0.588	0.176	0.235	0					
1998~2002					2005~2009									
	I	II	III	IV		I	II	III	IV					
I	0.848	0.113	0.04	0	I	0.868	0.11	0.007	0.014					
II	0.583	0.25	0.042	0.125	II	0.679	0.214	0.036	0.071					
III	0.375	0.188	0.25	0.188	III	0.400	0.3	0.2	0.1					
IV	0.143	0.143	0.143	0.571	IV	0.150	0.1	0.1	0.65					
설명: 로마자의 숫자는 각 그룹을 의미함. 그룹의 구분은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 분석기간을 의미함.					2006~2010									
						I	II	III	IV		I	II	III	IV
					I	0.882	0.066	0.039	0.013	I	0.882	0.066	0.039	0.013
					II	0.593	0.333	0.037	0.037	II	0.593	0.333	0.037	0.037
					III	0.500	0.1	0.15	0.25	III	0.500	0.1	0.15	0.25
IV	0.375	0.125	0	0.5	IV	0.375	0.125	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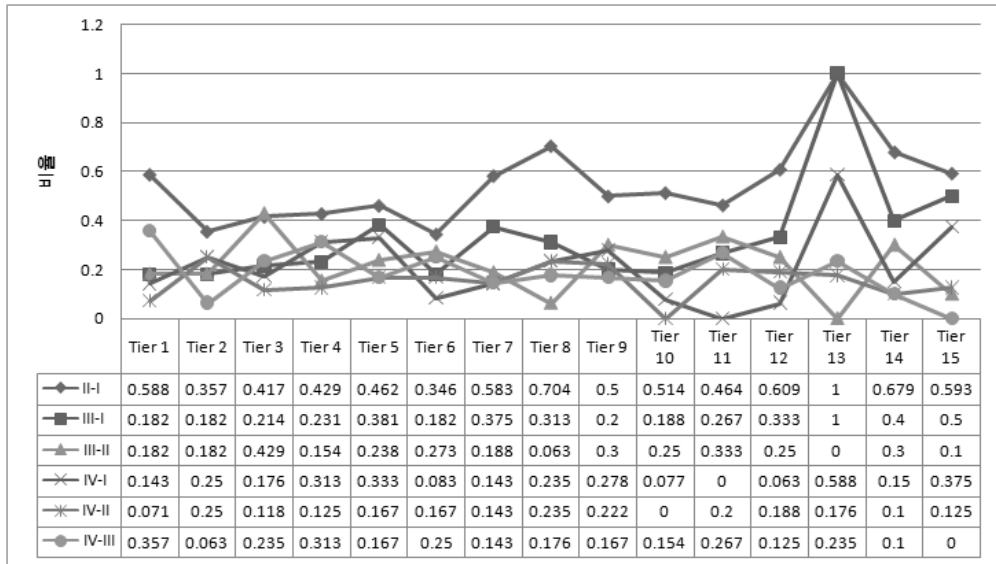
약 5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Group 1에서 3으로 이전하는 평균은 3%, Group 1에서 4로 이전하는 비율은 평균 1.5%이다. 또한 Group 2에서 3으로 이전하는 평균은 10.8%이다. Group 2에서 4로 이전하는 평균은 6.8%이고, Group 3에서 4로 이전하는 평균은 24.1%이다. 이는 중간 비교우위에서 높은 비교우위로 이전한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비교열위와 비교우위 구간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 수출 RCA의 상향 전이성은 비교우위가 수렴되기 보다는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비교우위가 높아지는 특화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16〉 북한 수출 RCA 정향성

위 그림은 RCA 지수가 그룹간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가장 높은 안정성을 보인 것은 비교열위의 품목이 지속적으로 비교열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비교우위의 구간은 전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Tier 13의 시기에는 비교열위가 고착되었음을 보여준다. 각 그룹별로 변화가 없는 정도는 Group 1은 81%, Group 2는 25.6%, Group 3은 18.7%, Group 4는 42.2%이다. 이는 비교열위는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높은 비교우위의 상품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7〉 북한 수출 RCA 하향 전이성

위 그림은 북한 수출 RCA의 하향 전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비교우위의 하락은 비교우위 항목이 비교열위로 떨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Tier 13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교우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Group 2에서 1로 떨어지는 비율은 54.9%이고, Group 3에서 1로 떨어지는 비율은 32.9%, Group 3에서 2로 떨어지는 비율은 21.6%, Group 4에서 1로 떨어지는 비율은 21.3%, Group 4에서 2로 떨어지는 비율은 15.2%, Group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비교우위의 하향 정향성이 상향 정향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비교우위 품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보다 비교열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즉 북한 산업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내부적 상황 변화,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4장 비교우위의 고착 및 수렴에 관한 회귀식 검증

제1절 회귀분석의 개념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란 변수들 간의 회귀식의 추정 및 검증, 그리고 회귀식을 이용한 예측 등에 관한 통계적 추론이다. 원래 회귀분석 및 상관관계의 분석은 Galton에 의해 시작되었고, Darwin에 의해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Galton은 아버지의 키와 자식의 키와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졌으나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하지만 Darwin의 권유로 Galton은 완두콩을 지름 크기에 따라 7개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에 10쌍의 완두콩을 재배하여 자손 완두콩의 지름을 측정했고, 1세의 크기가 클수록 2세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을 쉽게 알 수 있었다. Galton은 이러한 경향은 어떤 하나의 직선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만일 두 변인이 동일한 단위를 사용한다면 그 직선의 기울기의 정도는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다.¹⁰⁰⁾

이러한 관계는 하나의 직선적인 함수관계로 잘 나타낼 수 있으며 위의 각 점들이 이 직선상에서 얼마나 밀접해 있는 가를 나타내는 선형적 강도(liner intensity)가 바로 상관관계이다. Galton은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와의 관계를 다음의 식으로 만들어냈다.

$$\hat{Y} = 33.73 + 0.516X \text{ (단위: inch)}$$

이 관계식은 45° 이하의 기울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신장이 큰(작은) 아버지 아들의 신장은 전체 평균보다 크지만(작으나) 아버지의 신장보다는 작아서(커서) 결국 평균 신장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즉 회귀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연구를 회귀분석이라 하고 오늘날의 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양적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기울기)를 유도하고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변수 Y가 나머지 다른 변수(X_1, X_2, \dots, X_k)들로부터 예측이 가능케 하는 통계적 기법이다.¹⁰¹⁾

100) 최창현, 『조사방법론: SPSS, UCINET 활용』(파주: 학현사, 2011), pp. 213~214.

101) 위의 책, p. 215.

제2절 북한의 비교우위 고착 및 수렴 여부

본 절에서는 비교우위 패턴이 고착되고 있는지, 산업별로 비교우위가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동일 국가 내에서 산업간에 비교우위 패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동일 산업 내에서의 비교우위 수렴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Pavitt¹⁰²⁾, Cantwell¹⁰³⁾, Dalum et al¹⁰⁴⁾, Hinloopen and Marrewijk¹⁰⁵⁾ 등이다. 아래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대상기간 중 북한의 비교우위 강화 혹은 약화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RCA_{ij}^{t_2} = \alpha_i + \beta_i RCA_{ij}^{t_1} + \epsilon_{ij}^{t_2}$$

위의 식에서 t_1 과 t_2 는 각각 초기년도와 최종년도를 표시하며, α 와 β 는 각각 표준적인 선형회귀 파라미터이며, ϵ 은 잔차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회귀식은 t_2 기의 i 국의 j 산업에서의 RCA지수를 t_1 기의 RCA 지수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¹⁰⁶⁾

〈표 11〉 회귀식에 대한 설명: 고착 및 수렴

	조건	설명	비고
비교 우위 고착	$\hat{\beta}=1$	$t_1 \sim t_2$ 시기 비교우위 패턴에 변화 없음	
	$\hat{\beta}>1$	비교우위는 강화, 비교열위는 약화	β -특화(specialization)
	$0 \leq \hat{\beta} < 1$	RCA 높음→낮음, 낮음→높음	β -비특화(de-specialization)
	$\hat{\beta} < 0$	RCA 순위가 역전, 평균보다 낮은 RCA	0보다 큰지 여부가 비교우위 고착 여부
비교 우위 수렴	$\hat{\beta}=1$	$t_1 \sim t_2$ 시기 비교우위 패턴에 변화 없음	
	$\hat{\beta}>1$	비교우위는 강화, 비교열위는 약화	β -발산(divergence)
	$0 \leq \hat{\beta} < 1$	RCA 높음→낮음, 낮음→높음	β -수렴(convergence)
	$\hat{\beta} < 0$	RCA 순위가 역전, 평균보다 낮은 RCA	0보다 큰지 여부가 비교우위 수렴 여부

출처: 최낙균·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 73~76.

102) Pavitt, K. L. R. "International Patterns of Technological Accumulation," in H. Hood and J. E. Vahlne (eds.), *Strategies in Global Competition*. (London: Grom Helm, 1989).

103) Cantwell, J.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Oxford: Blackwell, 1989) 참조.

104) Dalum, Bent, Keld Laursen and Gert Villumsen, "Structural Change in OECD Export Specialization Patterns: de-specialization and 'stickines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 12, No. 3. 1998.

105) Hinloopen, J. and Marrewijk, C. "Dynamics of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 참조.

106) 이 회귀식은 비교우위 패턴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내에서 산업간 비교우위 패턴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우위의 고착과 수렴 여부에 대한 위의 정리표는 회귀식의 기울기의 값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렴과 발산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고착 여부와 관련해서, $\hat{\beta}$ 의 추정치가 0보다 작으면 비교우위 패턴이 역전하거나 랜덤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만일 $\hat{\beta}$ 의 추정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hat{\beta}$ 의 추정치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면 비교우위가 초기에 어떤 가에 따라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표 12〉 회귀모형에 따른 북한의 시기별 추정결과

시기	$\hat{\alpha}$	$\hat{\beta}$	\tilde{R}^*	$\hat{\beta}/\tilde{R}$	F	표본수**
Tier 1	0.68 (4.04)***	0.45 (13.62)	0.48	0.009278	18,550	199
Tier 2	0.63 (0.72)	1.35 (3.54)	0.05	0.244565	1,200	217
Tier 3	0.96 (7.59)	0.23 (11.21)	0.37	0.006218	12,561	216
Tier 4	-9.79 (-2.49)	11.7 (11.91)	0.40	29.25	36.46	209
Pre-Tier	4.09 (1.28)	0.2 (0.42)	0.09	2.22222	17	203
Post-Tier	6.09 (1.29)	0.1 (0.27)	0.0003	0.002459	14,190	215
E-Tier	3.98 (0.75)	1.77 (1.7)	0.01	1.204082	289	195

주: Tier 1(1992~1996), Tier 2(1997~2001), Tier 3(2002~2006), Tier 4(2007~2010), Pre-Tier(1992~2000), Post-Tier(2001~2010), E-Tier(1992~2010)

* \tilde{R} 값은 R^2 의 값임.

** 표본의 숫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품으로 한정했음.

*** ()안의 값은 t 검정 값임.

**** 95% 신뢰수준임.

북한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1992년~1996년까지의 시기와 2002년~2006년까지의 시기에는 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가 특화되지 못하고 비교우위 상품군과 비교열위 상품군 사이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1997년~2001년 그리고 2007년~2010년의 시기에는 비교우위가 특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1996년까지의 시기에는 북한의 산업별 비교우위가 특화되지 못하고 비교우위 상품군과 비교열위 상품군 사이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 비교우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엔 비교우위가 높아지고, 비교우위가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비특화 현상이 발생했다. 북한은 체제전환 이라는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2001년의 시기는 앞선 시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북한의 비교우위가 특화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는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하고 있다. 1992년~1996년의 비교우위 변화 결과가 1997년~2001년에는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2002년~2006년에는 비교우위의 변화가 나타났다가 다시 2007년~2010년의 시기에는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기를 좀 더 확장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전형적인 비특화 현상이 발생했다. 1992년~2001년의 시기에는 전형적인 비특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비교우위의 변화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반영과 산업정책 전반에서 비교우위에 특화하려는 일반적 발전국가의 전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렴의 경향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동시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을 전체기간으로 확장하면, 북한의 비교우위는 특화하고 있고, 발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비교열위 품목은 지속적으로 비교열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교우위의 수렴과 발산의 여부와 관련해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5년 혹은 10년 단위의 비교우위에서는 특화나 발산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에는 북한의 비교우위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 잘못된 특화의 경우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로 비추어보면, 북한의 잘못된 특화분야인, 광물자원, 수산자원,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들에서의 특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질적인 발전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결 론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연구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경제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현재 지나치게 비공식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의 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가운데 하나이다. 대외무역은 무역의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교우위 보다는 지도자의 선호와 같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무역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스탈린 사후 이전까지는 굳건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 무역을 통한 사회적 노동의 감소라는 비교우위의 관점과 인식을 통상 사회주의 국가들은 비교우위 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무역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스탈린 사후 이전까지는 굳건하게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스탈린체제 이후에는 무역을 통한 사회적 노동의 감소라는 비교우위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윤이나 실리적인 관점에서 무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탈 스탈린체제의 흐름이 유입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비교우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주의체제 이전까지는 확고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전환 이후에 북한은 적극적으로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대외 무역을 수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현실에서는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무역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우호시장의 상실은 북한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고,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출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재화와 식량을 수입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북한의 1990년 초반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는 변화하거나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퇴행적으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 우호시장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략의 변화와 무역제도의 변화 등을 추구하고, 이는 무역에서 교역국의 다양화와 수출 상품의 다양화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는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비교우위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역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퇴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의 무역 및 산업구조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 있다. 다만 특정 국가들의 경제제재는 일정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3국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재의 순기능적인 측면은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

반면에 지원의 경우에도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권계층의 렌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는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비교우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생산재의 경우에는 비교열위가 개선되지 못했다. 또한 기술수준별로 보면 낮은 기술수준의 상품에서 비교우위가 있었던 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1970년대 산업화 이후에 확보했던 낮은 기술수준에서의 비교우위마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에너지난 등으로 상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교우위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전망과 희망적 전망이 교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부정적 전망은 근본적으로 개혁적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선 조치로 일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약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제재로 인해 특권계층의 권한이나 이권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의 비교우위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정책과 지도자의 선호는 희망적 전망이 가능하게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중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무역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의 선호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개선과 선호를 대내외적으로 구현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일시적인 비교우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후진국형의 퇴행적인 비교우위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지만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의 비교우위는 지도자의 선호와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경제향상이라는 관점과 경제의 질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도자의 선호와 정책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근본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고일동.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KDI. 2004.
- 고일동·이석·김상기·이재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2008.
- 공산권경제연구실. 『북한무역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9.
-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 실태』. 산업연구원. 2007.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1998.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남종현·이홍식. 『국제무역론-이론과 정책』. 경문사. 2012.
-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박정식·윤영선. 『현대통계학』. 다산출판사. 2003.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해남. 2003.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경제리론해설』.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양문수.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KDI. 2008.
- 양문수 외. 『통일부 연구용역: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체계 연구』. 통일부. 2008.
-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 이석·이재호·김석진·최수영.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KDI. 2010.
-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산업연구원. 2003.
- _____.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2010.
-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 _____.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009.
- 최낙균·이홍식.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통일부·통일교육원.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통일교육원. 2010.

통일원.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통일원. 1997.

2. 논문

- 김남순. “대외무역에 따르는 국제결제를 잘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997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명호. “무역경제정보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현 시기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002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성철. “김정일의 경제 인식에 관한 담화 분석: 개혁·개방 가능성과 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0.
- 김승철. “대외상품시장체계와 그 구조.” 『경제연구』. 2004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윤. “북한의 대외교역 담당기관과 무역정책 변화.” 『월간 북한』. 북한연구소. 1995.
- 김영일.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족되는 원료. 연료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3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일성. “쇠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1965.1.22).” 『김일성저작집 1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10.5).” 『김일성저작집 20』.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968.5.11).” 『김일성저작집 2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당. 국가. 경제 지도 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일, 26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5년 8월 3일).” 『김정일선집 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김정일선집 10』.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전당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7년 1월 24일.” 『김정일선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철.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키는것은 그 발전의 합법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2년 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철용. “무역거래에서의 실리의 원칙.”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 김철준. “우리 식으로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경제사상”. 『경제연구』. 2008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혜선. “국제경제기구와 그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2년 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명숙. “현 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리춘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지방무역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1997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문정택. “공화국 대외 무역의 가일층의 발전과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외화 문제.” 『경제연구』. 1957년 2호. 과학원출판사.
- 박광서. “북한의 무역관계법규 및 실제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제8집. 북한법연구회. 2005.
- 박상철. “경제의 <<세계화>>의 <<필연성>>에 대한 제국주의 변호론자들의 설교의 반동성.” 『경제연구』. 2003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영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제의 <<세계화>>”. 『경제연구』. 2006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손종철. “<<세계화구상>>은 남조선경제를 영원한 식민지 예속경제로 만들려는 매국배족적인 망상”. 『경제연구』. 1995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송두형.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그 심화발전.” 『경제연구』. 2004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안철주. “국제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8년 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여음. 『북한연구방법론』.

- 도서출판 한울. 2003.
- _____.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 _____.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업 지배구조변화: 제도경제학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북한문헌. 어떻게 읽을까?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제12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 이석·이재호.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2008.
- 이재득·박재진. “한중일 3국의 동학적 비교우위의 커널밀도곡선과 마르코프 전이 행렬에 의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제15권 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9.
- 이종덕. “국제무역상품분류제도에 관한 고찰-HS를 중심으로.” 『명지논단』. 제17권 1호. 명지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1988.
-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경남대 북한대학원여음. 『북한연구 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2003.
- 이영훈. “북한의 ‘자력갱생’을 위한 축적체계의 전환: 1957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9권 2호. 통일연구원. 1999.
- 임을출. “9.9 김정일 신체제 출범이후의 남북경협 동향.” 『통일경제』. 1998년 10호. 평화문제연구소.
- 전은숙. “자본주의증권류통시장과 그 기능.” 『경제연구』. 2005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용덕·김근세.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과 기구: ‘클락-디어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1권 3호. 한국행정연구원. 2002.
- 정춘심. “현 시기 자본주의무역에서 강행적인 수출촉진에 의한 수입규제의 심화.” 『경제연구』. 2006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장학수. “개항직후 <<조일무역>>을 통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 『경제연구』. 1992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KDI. 2009.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 『경제연구』. 1994년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최영옥.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 근본적 우월성.” 『경제연구』. 1989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_____. “자본주의 <<마케팅>>은 산업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 이행하면서 생산과 소비사이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어 상품의 판로가 막히게 된 자본주의시장위기를 반영하여 출현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8년 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탁용달. “북한의 세계경제에 관한 인식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2010년 2호. 북한연구소.
- 한희옥. “현대자본주의사업에서의 광고전략과 그 특징.” 『경제연구』. 2008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함택영. “북한 통계자료 분석 및 추정: 경제총량 및 군사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원유음. 『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2003.

3. 기타 학위논문 및 발표문

- 권영경.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실태: 현황과 쟁점.”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평가와 전망』. 2012년 북한 개혁·개방 국제공동학술회의 발표문.
- 양문수.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우리의 정책 방향.” 『긴급진단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정세』. 통일연구원 북한정세세미나 자료집. 2012. 8. 1.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4~1964): Kaleckian CGE 모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북한의 농민시장.”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진유정. “북한의 남한경제 연구분야.” 『북한의 남한연구 특성과 인과메커니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 학술회의 발표문 2010년 4월 23일.

4. 외국문헌

- Deardorff. A. “Factor Proportions and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Long Run: Com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4. 1974.
- Findlay. R. *Factor Proportions, Trade and Growth*. The MIT Press. 1995.
- Meyer, Gerald M.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 University Press. 1984.
- Granick, David. *Job Rights in the Soviet Union: Their Consequ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Grossman. G. and Helpman. E. "Comparative Advantage and Long-run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4. 1990.
- Helpman. E. and Krugman. P.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The MIT Press. 1985.
- Krugman. P. "The Narrow Moving Band, the Dutch Disease, and the Competitive Consequences of Mrs. Thatcher: Notes on Trade in the Presence of Dynamic Scale Econom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7, No. 1. 1987.
- Hewett. Ed A. "Foreign Trade Outcomes in Eastern and Western Economies." Paul Marer and John M. Montias. (eds.). *Eastern European Integration and East-West Trad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 Hinloopen. J. and Marrewijk. C. "Dynamics of Chinese Comparative Advantag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2004.
- Holzman D. Franklyn. *The Economics of Soviet Bloc Trade and Finance*. Westview Press. 1987.
- Kornai. J. *Economics of Shortage*.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80.
- Lucas. Robert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No. 1. 1988.
- Murrell, Peter.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ies: Lessons from Eastern European Foreign Trad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OECD. "Comparative Advantage and Export Specialization Mobility in OECD and Selected Emerging Market Economies." TAD/TC/WP(2010)16.
- Proudman. J. and Redding. S. "Persistence and Mobility in International Trade."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Vol. 64. 1997; "Evolv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 No. 3. 2000.
- Proudman. J. and Redding. S. "Evolv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No. 64. 2000.
- Sanjaya Lall. "The Technological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y Manufactured Exports 1985-1998."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 June, 2000.

Young, A. "Learning-by-doing and Dynamic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1991.

Wilczynski, J. The Economics of Socialism-Study in Economics.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0.

5. 사전류, 잡지, 신문 등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1985.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백과사전출판사. 2010.

『조선신보』.

『로동신문』.

『연합뉴스』.

김정은 집권 전후(2008년 1월~2014년 3월) 북한 보도매체를 통해 본 정치사상 변화 연구

한승호
선문대학교

제1장 서론	692
제2장 북한 보도매체의 정치사상 보도 동향	702
제3장 북한 보도매체의 정치사상 내용 분석	721
제4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향후 전망	738
제5장 결론: 정책적 대응방안	751
부록 1. 2008년-2014년 「로동신문」 사설	753
부록 2. 2008년-2014년 「로동신문」 정론	776
참고 문헌	784

표 목차

<표 1-1>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주요일지	697
<표 2-1> 신년공동사설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사용 빈도	703
<표 2-2> 「로동신문」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관련 기사 빈도	705
<표 2-3> 「로동신문」의 주체사상 기사 목록	706
<표 2-4> 「로동신문」의 선군사상 기사 목록	712
<표 2-5> 「로동신문」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사 목록	716
<표 2-6> 「로동신문」의 ‘김정일-애국주의’기사 목록	720
<표 3-1> ‘선군’과 ‘총대’를 주제로 한 『조선중앙TV』 프로그램 방영 횟수 ...	731
<표 3-2> ‘선군’과 ‘총대’를 언급한 『로동신문』기사 수	731
<표 4-1> 붉은기 사상의 이론체계	744

그림 목차

<그림 1-1>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과정	698
<그림 1-2> 북한 정치시스템의 이산사건적 특성	700
<그림 2-1> 「로동신문」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기사 빈도 추이	706
<그림 3-1> 북한의 공식이데올로기 변화과정	728
<그림 4-1> 피지배계급의 지배계급 담론 수용 행태	740
<그림 4-2> 북한 사회의 물질토대	741
<그림 4-3>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사상 변화 비교	741
<그림 4-4> 김정일 시대의 통치담론 변화	746
<그림 4-5> 지배계급의 언어 독점 과정	748
<그림 4-6> 영웅의 담론에 주입된 지배계급의 담론	750

요 약 문

2008년 8월 김정일 와병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3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혹은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사상 변화의 의미와 내용, 특징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으며, 하나의 체제 혹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사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북한에는 새로운 구호, 담론 등이 대내외적으로 등장했다. 예컨대 ‘백두산대국(2012)’,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2012)’, ‘마식령 속도(2013)’, ‘비약의 불바람(2014)’, ‘조선속도(2014)’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 당국의 구호 재생산 전략은 강성국가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중 독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실제 2013년 3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 즉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공고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4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공식화되었고 실천담론으로서의 ‘김정일-애국주의’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북한 보도 매체를 통해 김정은 집권 전후(2008년 1월-2014년 3월) 시기의 정치사상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전망했다.

첫째, 북한사회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북한 보도매체를 통하여 정치사상 부문의 통사적인 사실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부문의 사실적 흐름과 변화 지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 정도, 위기관리체제로서의 선군정치 변화, 김일성-김정일주의 실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와의 관계, 김정일과 김정은의 정치·사상부문에서의 정책적 차이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적 현상 및 현실을 진단하고 북한 정치·사상의 미래 예측을 했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부문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북한 정치사상 부문의 변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상을 점검하고 분석·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에 있어서 방대한 기초자료인 「로동신문」에 대한 연구 활용도를 높였다.

셋째,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의 관계를 「로동신문」을 통해 고찰하고 역할 변화 여부를 전망했다. 김정은 시대의 시대적 상황 및 정치사상은 보도매체 내용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하며, 사회상을 담은 「로동신문」 내용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정치사상 변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북한 정치사상 연구의 저변과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하여 향후 정치사상에서의 지속과 변화 혹은 새로운 정치사상의 등장에 대한 전망을 가능케

했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및 이데올로기 등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14년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및 공고화를 위하여 김정일이 추진했던 정책을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면서 국가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2008년 8월 김정일 와병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3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혹은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¹⁾ 특히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¹⁰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14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사상 변화의 의미와 내용, 특징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으며, 하나의 체제 혹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사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북한에는 새로운 구호, 담론 등이 대내외적으로 등장했다. 예컨대 ‘백두산대국(2012)’, ‘최후의 승리

1) 북한의 정치·경제 구조에서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작금의 정치체제를 유지·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새로운 담론 및 정치사상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경제영역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를 향하여 앞으로(2012)²⁾, ‘마식령 속도(2013)’, ‘비약의 불바람(2014)’, ‘조선속도(2014)’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 당국의 구호 재생산 전략은 강성국가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중 독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실제 2013년 3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 즉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공고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14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³⁾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공식화되었고 실천담론으로서의 ‘김정일-애국주의’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북한 보도 매체를 통해 김정은 집권 전후(2008년 1월-2014년 3월) 시기의 정치사상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사회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북한 보도매체를 통하여 정치·사상 부문의 통사적인 사실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부문의 사실적 흐름과 변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 정도, 위기관리체제로서의 선군정치 변화, 김일성-김정일주의 실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와의 관

2) 1) 이 구호는 새로운 주체100년 대진군의 장엄한 개시를 알리는 우렁찬 포성이며 전당, 전군, 전민을 승리로 부르는 힘찬 돌격구령이다. 2) 이 구호에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 백년 대계의 투쟁목표와 방식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함축되어있다. 3) 이 구호에는 혁명승리에 대한 우리 당의 심오한 철학이 새겨져있다. 4) 이 구호에는 우리의 막강한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깃들어있다. 5) 이 구호는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다. 6) 이 구호에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최단기간내에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7) 이 구호는 적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리는 사회주의수호의 혁명적기치이다. 『우리민족끼리』, 2012년 6월 8일.

3) 『로동신문』, 2014년 1월 1일.

계, 김정일과 김정은의 정치·사상부문에서의 정책적 차이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적 현상 및 현실을 진단하고 북한 정치·사상의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을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부문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북한 정치사상 부문의 변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상을 점검하고 분석·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에 있어서 방대한 기초자료인 「로동신문」에 대한 연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의 관계를 고찰하고 역할 변화 여부를 전망할 것이다. 현재 김정은 시대의 시대적 상황 및 정치사상이 보도매체 내용에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사회상의 담론적 매체로서 정치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 가능하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북한 정치사상 연구의 저변과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하여 향후 정치사상에서의 지속과 변화 혹은 새로운 정치사상의 등장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1990년 전후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북한적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즉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된 현실 사회에서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자기충족적 혹은 자살적이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 또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북한 미래 전망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 변화상을 조명함에 있어서 북한의 대표적 공식 보도매체인 「로동신문」⁴⁾, 「민주조선」⁵⁾, 「조선중앙통신」 등을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 등의 각종 학술잡지 및 「정치사전」, 「철학사전」, 「조선중앙년감」 등과 같은 사전류도 참고할 것이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들은 로동당의 입장을 반영

4) 「로동신문」의 중심과업으로 되는 것은 당의 방침과 정책, 당원들의 투쟁임무를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56.

5) 「민주조선」의 중심과업으로 되는 것은 인민정권의 법령, 규정 및 국가의 정책을 군중속에 해설침투시켜 그들을 국가정책실행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위의 책, p. 56.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적 현상과 북한 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공식 문헌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fact)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⁶⁾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을 통하여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작금의 정치체제에 맞게 재구성된 허구를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용이한 분석기법으로 내용분석 방법과 징후적 분석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⁷⁾ 내용 분석 방법은 김정은 담화 및 「로동신문」 정론, 사설, 논설 등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김정은 시대 정치사상 변화상의 일단을 찾아내는데 용이하다. 내용 분석은 북한과 같이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또한 기록 문서 이외의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커뮤니케이터의 언어 사용 및 구조가 중요할 때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그러나 내용 분석을 통해서도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변화 요인과 원인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 방법과 더불어 징후적 분석 방법도 활용할 것이다. 징후적 분석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된 정치사상 이면에 있는 북한 당국의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렘리놀로지(kremlinology)기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크렘리놀로지 기법은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상징교차(symbolic interaction)나 의전절차, 성명이나 고위인사들의 대외메시지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 변화 추이를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변화를 감지해내는데 있어서 적용 가능한 기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렘리놀로지 기법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변화의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하여 비선형적(non-linear) 행태를 보이면서 창발(emergence)적 결과물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자기충족적 예측으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충분히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방법을 기초로 내재적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더불어 정량적 측면의 양적분석방법과 정성적 측면의 질적분석 방법을

6) 이은죽, “북한 사회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적 과제” 『사회과학정책연구』 4권 3호, 1982, pp. 205-224.

7)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88), pp. 33-34.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변화상을 고찰 및 분석하고자 한다.⁸⁾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김정일 와병설 및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보였던 시기인 2008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북한 보도매체에 게재되었던 정치사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김정은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사상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보도매체는 중앙지와 지방지, 출판기관별 발행하는 격일간지 혹은 주간지 등 다양하게 있다. 북한 중앙지의 경우 사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계층에 따라 열독하는 신문은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전국의 정권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는 청년동맹원을 비롯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계층을 불문하고 사회 전 구성원들이 열독하고 있다.⁹⁾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보도매체 중에서 로동당을 대변하는 공식적 담론 매체이자 북한 사회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정치사상 변화 분석을 할 것이다. 「로동신문」은 보통 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설, 논설, 정론 등의 이름으로 실린 기사가 중요하다. 사설은 당의 지령서나 지침서로서 「로동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이다. 논설은 원리적 해설 논증이 필요한 문제들의 본질과 내용을 과학이론적으로 풀이해주는 기사로서 정세에 관한 당의 입장을 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론은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시대적 문제들의 정치적 본질과 현실적 의의를 분석 및 일반화하면서 선전·선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 기사 중에서도 사설과 논설, 정론 등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할 것이다.

8) 한승호, “북한의 통치담론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강성대국건설 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고.

9) 「로동신문」은 북한을 대표하는 일간지이며 발행부수는 150만 부 이상이다. 「로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기관지로, 평양에서 「정로」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1946년 8월 북조선 분국이 조선신민당과 합당함에 따라 조선신민당기관지 「전진」을 흡수하여 1946년 9월 1일부터 「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한 것이 현재 「로동신문」이다. 「로동신문」은 연중무휴이며 6면 조간 체제로 발행된다.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또는 대외 순방 등 특별한 날에는 8면으로 증면 발행하기도 한다. 주정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사회과학연구』 제30집 2호, 2014, p. 62.

둘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 범위를 김정일 와병설이 대두되었던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던 2014년까지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 김정은의 등장 및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김정일 후계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징후적 분석을 통하여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전, 2010년 9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의 실체가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후계체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12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2008년 12월 20일 김정일의 희천청년 전기연합기업소 현지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2008년부터 이미 김정은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의 공식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이 내정된 시점은 2006년 2007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를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표 1-1〉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주요일지

연도	행사 명	내용
2008년9월9일	북한 정권 수립 65주년- 9.9절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후계체제 구축 가속화
2008년12월20일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 현지도	김정일-김정은 공동 현지도 (2010년12월22일, 조선중앙통신)
2009년5월25일	제2차 핵실험	
2009년11월30일	제5차 화폐개혁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1로 교환
2010년9월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의 공식 등장
2011년12월17일	김정일 사망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 구축
2012년4월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 당규약 개정
2012년4월13일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 사회주의헌법 개정
2013년8월	유일사상10대원칙 개정	김일성, 김일성 혁명사상 등이 김일성-김정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화
2013년12월8일	장성택 체포 및 숙청	12월 12일 장성택 숙청
2014년3월1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셋째,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아래 <그림 1-1>에 보이듯이 북한의 정치사상은 이미 순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과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사상 및 구호, 담론 등이 있다.

순수 이데올로기	주 체 사 상(김일성주의) ⇒ ⇒ ⇒			김일성-김정일주의 등장 ⇒ ⇒ ⇒??
실천 이데올로기	붉은기 사상 ⇒ ⇒ ⊂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 ⇒ ⇒	선군사상 ⇒ ⇒ ⇨	김정일-애국주의 등장 ⇒ ⇒ ⇒??
	1995년	1998년	2003년	2012년

<그림 1-1>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과정

위 <그림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위상 변화는 전혀 없지만 실천이데올로기에서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94년 11월 1일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기존의 구호인 붉은기를 재강조하기 시작했고, 붉은기에 상징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부여했다.¹⁰⁾ 그러나 1997년부터 북한에서의 붉은기 사상 언급 빈도는 급격히 줄었고, ‘선군’ 용어의 등장 이후 북한에서는 선군의 담론화 및 선군정치에서 선군사상으로 의미와 위상이 격상되기 시작했다.¹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 북한의 정치사상을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정치사상에서의 변화상은 「로동신문」에 게재된 논설, 사설, 정론 등을 분석할 것이다.

10) 1994년 11월 1일자 「로동신문」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에서 “자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언급된 것에서부터 붉은기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19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들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 구호로 발전했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로동신문』, 1995년 10월 4일; 『로동신문』, 1995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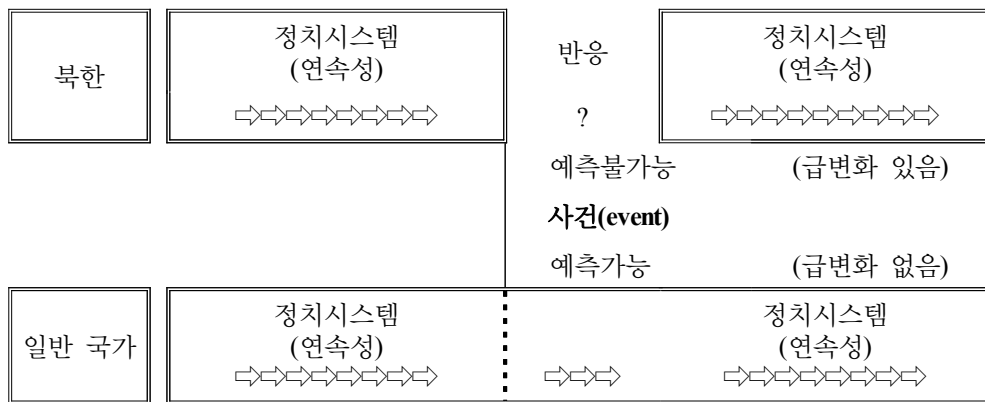
11) 붉은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58; 『로동신문』, 1995년 1월 1일; “수령님과 장군님의 제자들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가는 앞길에 설사 지뢰밭이 가로 놓인다 하더라도 당이 가라면 용감하게 그 길을 가며 끝까지 주체의 한 길, 혁명의 한 길로 나아간다. 이것이 혁명의 철학, 우리 당의 붉은기의 철학이다.”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W제3절 연구구성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학적으로 평등을 지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로동당의 최고 결정권자인 김일성·김정일, 즉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체제가 움직이는 수령 중심의 유일지도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 정치·경제·사회학적으로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¹²⁾ 특히 북한의 경우 당의 유일 영도에 따라¹³⁾ 모든 것이 서열화되어 있으며 각기 출신 성분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¹⁴⁾ 북한의 이러한 차등정책은 북한체제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색출하여 이들의 반당적·반혁명적 행위를 진압하고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통제 장치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¹⁵⁾ 김일성은 건국 이후 꾸준히 당세포사업을 확대하고 로동당을 사상·조직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켰다.¹⁶⁾ 이는 김일성의 정치권력 획득에 있어서 하부 당원과 일반주민들의 지지 기반이 되었다.¹⁷⁾ 북한의 당세포 강화사업은 대중과의 유대관계를 확대시키는 연결 고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사회체제인 북한에서 하나의 대가정으로까지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
- 12) 수령은 사람들에게 생명수인 혁명사상을 주고 그들을 정치조직에 묶어 세워 정치적 영도로 이끌어 준다. ...(중략) 인간의 진정한 탄생은 부모로부터 육체가 태어나는데서가 아니라 당과 수령에게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 안을 때 이루어진다. 『로동신문』, 1987년 8월 23일.
- 13) 『로동신문』, 2010년 9월 14일; 『로동신문』, 2010년 9월 23일.
- 14) 송홍근, “북한 공작원 리호남 15년 스파이 행각”, 『신동아』 통권 612호 (서울: 동아일보사, 2010), pp. 310-323.
- 15) 북한이 계급정책을 공식 수립한 것은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식 계층 구조의 골간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복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공민증 갱신사업’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성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 286.
- 16)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당 시 당 세포 수가 1만 2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1947년 말에는 2만 8천여 개까지 확대되었다. 김일성, “군중단체의 지도사업에 관하여”,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1 (서울: 국토통일원, 1979-1980), pp. 146-147; “당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당정책관철의 중요한 담보” 『로동신문』, 2011년 5월 10일.
- 17)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종파 놈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당매에 족쳐버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파 놈들의 죄행에 격분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올리는 한결같은 충성의 맹세였다. 전당·전민이 최창익 동당에 치솟는 격분을 안고 반종파투쟁에 떨쳐나섰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 p. 294.

아래 <그림1-2>에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정치시스템은 선형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처럼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선형적이던 정치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질토대가 부족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비동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정치체제의 연속변수시스템을 이산사건 시스템으로 급작스레 변화시키는 경우이다. 북한은 물질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생산품과 노동력을 둘러싸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연속적이던 정치 시스템이 비가역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북한 지배계급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비동기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치사상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주체사상, 붉은기사상, 선군사상, 강성대국론 등과 같은 정치사상을 상황 변화에 따라 생산 및 재생산하고 있다.



<그림 1-2> 북한 정치시스템의 이산사건적 특성

출처: 한승호, “북한의 통치담론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강성대국건설 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 152.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유지 및 고수하는 북한에 있어서 대내외적 환경변화인 비동기적 사건은 기존 정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당과 대중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를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인민들을 혈연관계처럼 무조건적이며 이념적으로 무장시켜 김일성 유일체제에 있어서 당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관철시키고 있다.¹⁹⁾ 결국 오늘날 북한은 수령

18) 북한은 1962년 신년사를 통하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고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 발휘를 요구하였다. 『로동신문』, 1962년 1월 1일.

을 아버지로 로동당을 어머니로 그리고 전체 인민을 그 자녀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²⁰⁾ 즉 북한은 수령=아버지와 당=어머니 그리고 인민=자식을 혈연적 관계로 형성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묶음으로써 국가를 김일성의 가족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²¹⁾ 북한의 가족국가적 특성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생명체론에²²⁾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김정일 시대에서도 사회주의 대가정²³⁾은 적극 활용되고 있다.²⁴⁾

북한이 이처럼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이념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것은 수령중심의 정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부족한 물질토대를 극복하고 있다.²⁵⁾ 북한의 이러한 정치방식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도 정치권력을 유지 및 공고화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양 강화도 중요하지만 물질토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와 같은 정치사상 및 실천담론 등을 생산하면서 사회의 담론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토대의 악화는 단순히 정치사상 강조 및 변화만을 통하여 사회 전

19) 노귀남, “가정생활: 소설 속의 모습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378-379.

20) 근로단체출판사 편,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가정혁명화를 다그치자”, 『조선녀성』 6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74), p. 22.

21) 『로동신문』, 1996년 10월 13일.

22) 백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 단결에 토대한 공고한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p. 54.

23) “선군 대가정은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의 수뇌부와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가랑과 정을 같이하는 무적의 혼연일체, 이 세상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 일심단결의 대부대이다. 백두산 총대를 앞세워 승리만을 떨치며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워가는 오늘에는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대가정의 맏아들이 되었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하는 투쟁기풍의 일치라는 군민일치사상이 선군시대 대가정의 단결의 초석이 되었다.” 『로동신문』, 2006년 9월 14일.

24) “한 가정에도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에도 전체 인민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그 아버지는 곧 수령,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다. 영도자는 인민의 지향과 염원을 빛나게 실현시켜 주는 위대한 은인이고 자애로운 스승이다. 위대한 영도자를 아버지로 모실 때 인민들은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빛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32-437.

25) 근로단체출판사 편,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가정혁명화를 다그치자”, 『조선녀성』 6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74), p. 22.

구성원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이에 북한은 구체적 국가발전전략인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물질토대의 조건이 필요조건 상황이기 때문에 작금의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하여 정치시스템이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생산된 정치사상 및 실천담론 등은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최고지도자를 옹호보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시대에 생산된 정치사상은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유지 및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북한 당국이 생산한 정치사상은 일정 정도 북한 사회에서 정치사상 또는 실천담론으로 유지되다가 또 다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생기면 선군사상처럼 의미가 격상되거나 붉은기사상처럼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북한 보도매체의 정치사상 보도 동향

제1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보도 동향

1. 신년공동사설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보도

2013년 1월 1일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 발표에서 ‘주체사상’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체사상’은 2007년 2회, 2008년 및 2009년 3회, 2010년 2회, 2011년 및 2012년 1회 등 언급되었으며 그 횟수 역시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정치사상 관련 용어 및 강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정치사상과 관련된 용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주 언급되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빈도는 각각 총 9번, 7번이었다.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연평균 횟수는 각각 1.28번, 1번 정도이다. 연도별로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사용빈도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신년공동사설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사용 빈도²⁶⁾

연도	주체사상	선군정치	선군사상	신년사 제목 및 구호
2007년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08년	2	2	2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9년	3	1	2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2010년	2	0	1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2011년	1	1	1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2012년	1	0	1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13년	0	0	0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2014년	0	0	0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누적 횟수	9	4	7	
연 평균	약 1.28	약 0.57	1	

출처: 「로동신문」.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경제부문에서의 과업을 정치사상보다 우선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신년공동사설에서 기존 패턴인 정치사상, 군사, 경제 등의 순서를 탈피한 조치이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2007년 경제부문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²⁷⁾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 당국은 다시 정치사상, 군사, 경제 등의 순서로 신년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7년 북한 당국이 제시했던 경제부문에서의 과업

26) 2013년과 2014년 이례적으로 김정일이 대중 앞에서 신년공동사설을 연설했으며, 신년사 제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7)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김정일 두리에 뭉쳐 선군사상을 잘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일성 탄생 95돌, 인민군창건 75돌, 5.25교시 40돌 등 사상교양사업과 관련된 부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실제로 달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신년공동사설 및 북한 공간문헌에서는 여전히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경제문제 및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표 2-1>에 보이듯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용어 빈도가 신년공동사설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신년공동사설이 한 해의 당면과업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북한에서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용어를 사용해 정치사상에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년공동사설에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의 용어 사용 빈도가 줄었다고 하여 그 역할 및 의미가 전 사회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2-1>에 나타난 신년공동사설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평균 3건 이내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년공동사설에 사용된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빈도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부터 신년공동사설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용어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확인된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용어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정치사상 사업에서의 통제를 약화시킨 것은 아니다.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2008년 이후 정치사상, 군사, 경제 등의 순으로 분야별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사상문화적 침투 방지, 심리모략전 배격, 사회주의 위해 요소 불허 등을 언급하면서 사상교양 사업에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있어서 2010년은 창당과 해방의 65주년이 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정신력과 대중의 노력 동원에 입각한 과업 달성을 강조하면서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과 같은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과업으로 제시하였다.²⁸⁾ 이처럼 북한 당국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북한

28)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정신력을 기본무기로 하여 전진하는 불패의 위업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사상의 힘, 정신의 위력을 틀어쥐고 나가려는 우리 당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대중의 사상 정신력이 최대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 (중략)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위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10년 1월 1일.

당국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사상교양사업과 관련하여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로동신문」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보도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관련 기사는 각각 168건과 57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연도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로동신문」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관련 기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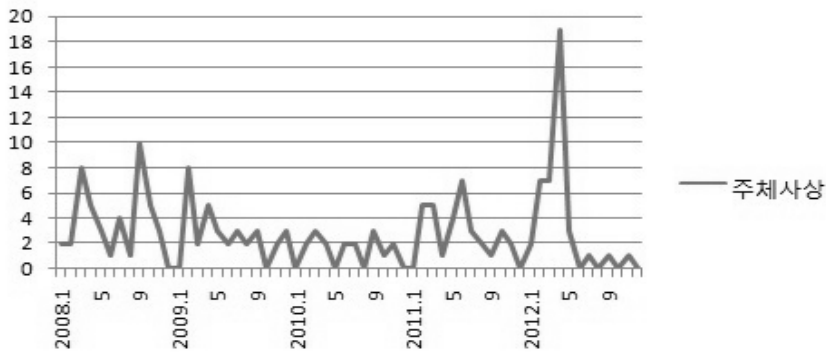
연도 별 기사 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누적기사
주체사상	44 건	33 건	17 건	33 건	41 건	총 168 건
선군사상	29 건	11 건	8 건	5 건	4 건	총 57 건

출처 : 『로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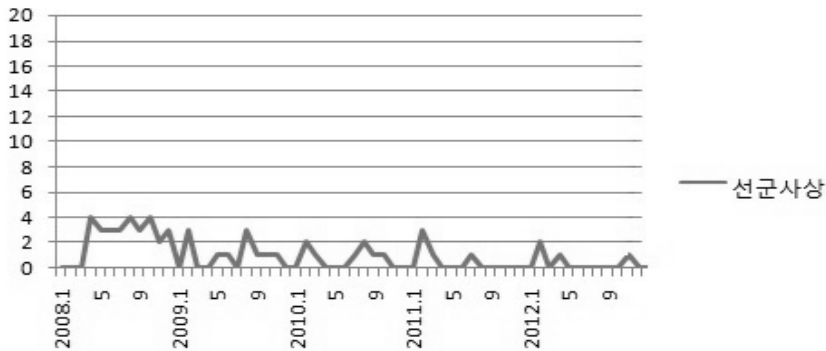
위 <표 2-2>에 나타듯이 「로동신문」에서 선군사상의 언급은 주체사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등의 신문에서 보였던 패턴과 비슷하다. 예컨대, 김일성 사망 이후인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의 「로동신문」에 게재된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체사상은 1번 언급되었다. 이후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체사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로동신문」에 게재된 북한의 대표적인 순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관련 사설에서 주체사상의 직접적인 언급이 많았다. 하지만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설은 거의 없다. 선군과 관련된 북한 사상 기사는 주로 선군혁명, 선군령도, 선군위업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관련 제목의 기사 빈도 추이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주체사상



선군사상



〈그림 2-1〉 「로동신문」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기사 빈도 추이

출처: 「로동신문」.

〈표 2-3〉 「로동신문」의 주체사상 기사 목록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1	주체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신 사상리론의 영재	2012. 11. 28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출판일군대표단과 방글라데슈 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2012. 09. 12
3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위력한 사상적무기	2012. 07. 16
4	주체사상은 위대한 혁명학설 가장 과학적인 지도사상	2012. 05. 30
5	전세계가 찬양하는 주체사상	2012. 05. 20
6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매혹되여	2012. 05. 05
7	백두산 대장군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대표단이 선물과 훈장을 드리였다	2012. 04. 22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계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계 로씨야련방 문화상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표단 주체사상세계대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와 선물 훈장들을 드리였다	2012. 04. 17
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주체사상세계대회에 참가한 명예손님들을 만났다	2012. 04. 17
10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사상세계대회에 참가한 대표단 대표들 명예손님들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들 국제민주녀성련맹과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국제주의전사 야 때 노비첸 꼬가족일행이 꽃바구니 진정	2012. 04. 17
11	주체사상세계대회에 참가한 외국손님들 만경대 방문	2012. 04. 16
12	공화국정부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2012. 04. 15
13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 수여	2012. 04. 15
14	주체사상세계대회 평양선언	2012. 04. 14
15	주체사상세계대회 폐막	2012. 04. 14
16	주체사상세계대회 참가자들에게	2012. 04. 13
17	인류사주위업의영원한향도적기치위대한주체사상만세	2012. 04. 13
1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계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주조무관단 주조 몽골대사관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선물을 올리였다	2012. 04. 13
1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계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계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과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2012. 04. 13
20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여러곳 참관	2012. 04. 13
2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계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선물들을 올리였다	2012. 04. 10
22	조선의 위성발사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	2012. 04. 06
23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에 대한 공보	2012. 04. 05
24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승리의 력사이다	2012. 04. 03
25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정치 생활력	2012. 04. 03
26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를 발표하신 뉘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2012. 03. 31
27	주체사상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신 위대한 사상리론의 영재	2012. 03. 31
28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인류사주위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2012. 03. 31
2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뉘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2012. 03. 30
30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과 더불어	2012. 03. 29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31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지지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담화 발표	2012. 03. 16
32	인류자주위업과 주체사상	2012. 03. 04
33	자주권과 세계평화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토론회 진행	2012. 02. 23
34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	2012. 02. 19
3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과 일본 김정일저작연구회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2012. 02. 17
36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 김정일전집 제 권 출판	2012. 02. 16
3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과 일본김정일 저작연구회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2012. 02. 15
38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2012. 02. 03
39	전국주체사상토론회 진행	2012. 02. 03
40	주체사상과 김정일장군로작연구 베닌전국위원회 년자총회 진행	2012. 01. 26
4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중국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2012. 01. 01
42	주체사상은 영원한 지도사상	2011. 11. 25
43	주체사상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2011. 11. 05
44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모스크바지부 결성	2011. 10. 20
45	나라의 자주적발전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2011. 10. 12
46	주체사상과 민족의 발전	2011. 10. 03
47	주체사상과 세계대회	2011. 09. 27
48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매혹되어	2011. 08. 23
49	주체사상탑 기념석재들에 어려있는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	2011. 08. 07
50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	2011. 07. 18
51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이는 수령님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자	2011. 07. 07
52	주체사상 선군사상학습을 주선으로	2011. 07. 07
53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연합토론회	2011. 06. 30
54	주체사상전국토론회 진행	2011. 06. 28
55	동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	2011. 06. 14
56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에 전적인 지지 표시	2011. 06. 09
57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 지지	2011. 06. 08
58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지지하는 집회	2011. 06. 05
59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	2011. 06. 02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60	주체사상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2011. 05. 24
61	주체사상보급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가자	2011. 05. 21
62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	2011. 05. 18
63	라틴아메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	2011. 05. 09
64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세기의 위인	2011. 04. 12
65	주체사상은 격동하는 세기와 더불어 끝없이 빛날것이다	2011. 03. 28
66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에 관한 주체사상전국토론회	2011. 03. 24
67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을 지지한다	2011. 03. 18
68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을 받기	2011. 03. 12
69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세계자주화위업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2011. 03. 07
70	조선은 주체사상이 현실로 꽃핀 진정한 인민의 나라	2011. 02. 23
7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령도	2011. 02. 19
72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2011. 02. 19
73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는 반제자주위업의 필승의 무기	2011. 02. 18
74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11. 02. 09
75	주체사상과 조선의 경제발전	2010. 11. 29
76	주체사상과 조선의 경제발전	2010. 11. 08
77	혁명적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학습을 심화시키자	2010. 10. 21
78	조선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	2010. 09. 26
79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필승의 보검	2010. 09. 07
80	선군정치와 위대한 주체사상	2010. 09. 01
81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관한 토론회	2010. 07. 15
82	주체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2010. 07. 11
83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와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2010. 06. 30
84	주체사상전국토론회	2010. 06. 22
85	사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자	2010. 04. 12
86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2010. 04. 04
87	주체사상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승리의 기치	2010. 03. 31
88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뉘를 뜻깊게 맞이하자	2010. 03. 19
89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	2010. 03. 04
90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	2010. 02. 25
91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불멸의 령도	2010. 02. 19
92	주체사상의 승리를 떨치시는 희세의 령장	2009. 12. 30
93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2009. 12. 29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94	주체사상은 자주시대를 향도하는 화불	2009. 12. 03
95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한 토론회	2009. 11. 09
96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한 전국토론회	2009. 11. 02
97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9. 16
98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2009. 09. 13
99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2009. 09. 11
100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8. 08
101	전당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백승떨치는 불패의 혁명적당	2009. 08. 02
102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심장의 웨침	2009. 07. 25
103	주체사상교양의 심화와 강성대국건설	2009. 07. 15
104	주체사상교양 령도업적교양에 힘을 넣어	2009. 07. 08
105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09. 06. 19
106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6. 13
107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연합토론회	2009. 05. 28
108	주체사상의 요구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자	2009. 05. 25
109	주체사상과 아프리카의 변영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	2009. 05. 10
110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연합토론회	2009. 04. 30
111	주체사상전국토론회	2009. 04. 26
112	자주시대 주체사상 선군정치에 관한 토론회	2009. 04. 24
113	주체사상연구 메히꼬전국조정위원회 결성	2009. 04. 15
114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	2009. 04. 13
115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와 변영의 기치	2009. 03. 31
116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과 사회주의건설	2009. 03. 18
117	온 사회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2009. 02. 20
118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신 뚝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2009. 02. 19
119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2009. 02. 19
120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기치높이 백승떨쳐온 영광의 년대기	2009. 02. 18
121	주체사상교양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2009. 02. 18
122	온사회에 주체사상화강령 선포 뚝	2009. 02. 15
123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2. 11
124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	2009. 02. 06
125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에 적극 기여	2008. 11. 30
126	주체사상과 현시기의세계화	2008. 11. 21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127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2008. 11. 03
128	주체사상교양을 참신하고 방법론있게	2008. 10. 29
129	주체사상을 따르는것은 막을수 없는 흐름	2008. 10. 25
130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적지침	2008. 10. 20
131	주체사상연구센터	2008. 10. 19
132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방문	2008. 10. 15
133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8. 09. 27
134	주체사상학습을 원리적으로	2008. 09. 21
135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공동 토론회	2008. 09. 18
136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해온 공화국의 승리의 년	2008. 09. 17
137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대표단이 떠나갔다	2008. 09. 11
138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 차회의 진행	2008. 09. 09
139	주체사상전국토론회	2008. 09. 04
140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도착	2008. 09. 04
141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2008. 09. 03
142	부아손 붓파완동지 주체사상탑과 서해갑문 참관	2008. 09. 01
143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2008. 08. 23
144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자	2008. 07. 15
145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바탕	2008. 07. 09
146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의 거점답게	2008. 07. 08
147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신 불멸의 기도	2008. 07. 06
148	주체사상은 독창적인 혁명사상	2008. 06. 06
149	주체사상은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	2008. 05. 21
150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8. 05. 12
151	주체사상은 가장 위대하고 독창적인 지도사상	2008. 05. 10
152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창시	2008. 04. 27
153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탁월한 정치가	2008. 04. 26
154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위력한 정치장식	2008. 04. 18
155	주체사상을 따르는것은 시대의 흐름	2008. 04. 13
156	주체사상은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	2008. 04. 12
157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과 투쟁의 기치	2008. 03. 31
158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2008. 03. 31
159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세계평화와 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2008. 03. 29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승리를 안아오자	
160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60주년 선언	2008. 03. 29
161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	2008. 03. 21
162	주체사상연구보급과 더불어 년	2008. 03. 15
163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2008. 03. 15
164	주체사상전국토론회	2008. 03. 05
165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오	2008. 02. 19
166	도시 불멸의 주체사상을	2008. 02. 19
1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	2008. 01. 15
168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선군정치 만세	2008. 01. 07

출처: 「로동신문」.

〈표 2-4〉 「로동신문」의 선군사상 기사 목록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1	선군사상은 조선의 영원한 지도사상	2012. 11. 21
2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승리의 력사이다	2012. 04. 03
3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 김정일전집 제 권 출판	2012. 02. 16
4	교양거점을 통한 선군사상학습열풍	2012. 02. 05
5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2012. 02. 03
6	주체사상 선군사상학습을 주선으로	2011. 07. 07
7	선군사상의 창시자 김일성주석	2011. 03. 29
8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2011. 02. 19
9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11. 02. 09
10	방송기재를 통한 선군사상학습	2011. 02. 02
11	혁명적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학습을 심화시키자	2010. 10. 21
12	자주위업의 불멸의 기치 선군사상	2010. 09. 07
13	선군사상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삼고	2010. 08. 24
14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선군사상의 빛나는 승리	2010. 08. 07
15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관한 토론회	2010. 07. 15
16	선군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2010. 03. 24
17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	2010. 02. 25
18	선군사상교양에 큰 힘을	2010. 02. 22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19	방법론있게 진행된 선군사상교양	2009. 11. 14
20	실천과 결부된 선군사상학습	2009. 10. 14
21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9. 16
22	위대한 선군사상리론을 집대성한 대백과전서	2009. 08. 27
23	선군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2009. 08. 24
24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8. 08
25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6. 13
26	선군사상의 빛나는 력사	2009. 05. 31
27	온 사회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2009. 02. 20
28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옹호자들로	2009. 02. 14
29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9. 02. 11
30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 활발	2008. 12. 24
31	선군사상교양사업을 주선으로 틀어 쥐고	2008. 12. 23
32	선군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2008. 12. 13
33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에 적극 기여	2008. 11. 30
34	선군사상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조국 강산을 아름답게 꾸려갈 애국적열의안고	2008. 11. 07
35	선군사상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사상	2008. 10. 30
36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적지침	2008. 10. 20
37	선군사상을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	2008. 10. 19
38	선군사상학습을 생활화하여	2008. 10. 10
39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8. 09. 27
40	선군사상교양과 인민경제기술개건에 적극기여	2008. 09. 24
41	선군사상을 부강축구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2008. 09. 08
42	선군사상학습에서 틀어쥐고 고리	2008. 08. 30
43	선군사상과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2008. 08. 24
44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2008. 08. 23
45	선군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2008. 08. 16
46	선군사상은 현시대 자주위업의 필승의 기치	2008. 07. 18
47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자	2008. 07. 15
48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의 거점답게	2008. 07. 08
49	선군사상학습을 실속있게	2008. 06. 18
50	선군사상의 창시자	2008. 06. 14
51	선군사상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2008. 06. 14

번호	제 목	발행일/권호
52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2008. 05. 12
53	선군사상학습에 도움을 주는 참신한 예술선동	2008. 05. 12
54	선군사상교양을 깊이있게	2008. 05. 10
55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창시	2008. 04. 27
56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탁월한 정치가	2008. 04. 26
57	당의 선군사상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2008. 04. 24
58	선군사상교양을 이데처럼 방법론있게 짜고들자	2008. 04. 03

출처: 「로동신문」.

제2절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도 동향

1.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등장

2012년 4월 6일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라는 담화를 통하여 주체혁명위업 및 선군혁명위업을 계승 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본 담화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 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기존의 정치사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고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2012년 4월 11일 북한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로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명명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정된 당규약 전문을 살펴보면 ‘주체사상’ 용어 사용 빈도는 급격히 줄었다. 제4차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일한 정치사상이었던 주체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정치사상에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북한 공식문헌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김정일주의가 명시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1974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주체사상을 이론화·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는 최고지도자가 선대

29) 북한은 ‘4.6담화’를 통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명명했고, “혁명위업계승에 있어서 핵심은 선대 수령의 혁명사상 계승”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 및 공식화할 수는 있다. 이에 2012년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당규약에 등장하고 당규약의 최종목적으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북한 당국은 김정일 시대에 이미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결합시키며 김일성이 창시한 선군혁명사상을 김정일이 더욱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¹⁾ 그러나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 및 논리가 필요하다.

2012년 김정은의 ‘4.6담화’와 ‘당규약 개정’, ‘유일사상10대원칙 개정’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이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당의 영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8월 25일 「로동신문」의 기사 “8월25일은 4월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역사적인 날입니다”에서 북한 당국은 “우리의 선군절 맹세는 천만군민의 수령결사옹위의 의지”라고 언급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기 보다는 김일성 시대에 생산된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정일 시대에 생산된 새로운 정치사상인 선군사상을 순수 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새로운 정치사상을 생산하지 않고 기존 선대 수령의 정치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1970년대 초 김정일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주의화를 매개로 권력의 정통성 및 적통성을 확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새롭게 급부상한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미미한 만큼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권력의 정통성 및 혁명경력의 적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2. 「로동신문」의 김일성-김정일주의 보도

2014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

30)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31)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1호, 2014, 참고.

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드러나듯이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작금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찾을 수 없다. 지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공식화되었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동신문」에서 보도된 ‘김일성-김정일주의’ 관련 기사는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로동신문」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사 목록

게재날짜	기사 제목
2012.12.28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2012.12.17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내세우시어
2012.12.12	불레쥬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 방글라데슈단체가 발행
2012.12.01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제일선전자로
2012.08.21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소조 명명식 진행
2012.06.16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자주위업수행의 기치
2012.05.25	사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2012.05.24	빠루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결성
2012.05.20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
2012.05.06	일본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회 결성
2012.04.19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영원한 백승의 기치
2013.01.05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승리의 기치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
2013.01.08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
2013.03.01	여러 나라 단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2013.03.02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국제사회계가 강조
2013.03.22	김일성-김정일주의강좌 베네수엘라의 대학에 설립
2013.03.26	론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의 계승발전》
2013.05.31	로씨야 로스토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결성
2013.07.11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
2013.07.19	빠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조선해방 68돐 성명
2013.09.12	론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2013.09.21	벨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선군절 담화
2013.10.10	사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혁명적당이다》
2013.11.29	김정은동지의 서한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게재날짜	기사 제목
	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발표 1 뚝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2013.12.05	방글라데슈단체 불레진 《김일성-김정일주의》 발행
2013.12.25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조직 결성 및 명명
2013.12.27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조직이 새로 결성되거나 명명된데 대하여 쓴 글
2014.02.19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2014.02.21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2014.03.14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으로 혁명적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2014.03.28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주의의 빛나는 계승발전

제3절 ‘김정일-애국주의’ 보도 동향

1. 김정일-애국주의의 등장

북한은 구호에 대해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상과 과업, 요구 등을 간결한 형식에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호소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말과 글”이라고 정의하고 “구호가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한 구호로 되자면 당과 수령의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며 대중의 절실한 지향과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중략)...당이 제시한 구호를 높이 받들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싸워 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무이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³²⁾ 북한의 구호를 분석하면 최고지도자 및 당의 노선과 정책 등이 파악 가능하여 북한의 현재적 상황과 당면 목표 및 그 실행을 분석할 수 있다.³³⁾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구호 및 담론으로 붉은기, 선군, 총대, 강성대국, CNC 등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은 유독 강성대국과 관련하여 2012년이라는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1998년 이후 꾸준히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2천리마전투를 비롯한 각종 전투 및 영웅따라배우기운동 등을 전개했다. 김정은 시대에서도 김정일 시대에 생산된 정치사상 관련 구호 및

3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 88.

33) 이우영, “혁명구호”,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 132.

담론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현재는 각종 공간문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등의 용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김정일-애국주의’라는 구호가 등장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³⁴⁾ 이 구호는 북한의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³⁵⁾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³⁶⁾ 김정은의 ‘김정일-애국주의’ 노작 발표를 전후로 하여 「로동신문」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발표되었다.³⁷⁾ 대내외적으로 방송되는 「조선중앙TV」의 경우 ‘김정일-애국주의’를 해설하는 좌담회를 방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³⁸⁾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보도매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김정일-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중앙연구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토론회와 미술전시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강조하였다.³⁹⁾

북한 당국의 ‘김정일-애국주의’ 의미 부여는 2013년 신년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는 ‘부강조국 건설의 원동력’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이 2013년 6월 발표한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서도

34) 『조선중앙통신』에서는 5월 11일 게재된 「김정은동지의 인민관, 후대관이 집약되어있는 강령적문헌」이라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애국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로동신문』에서는 5월 12일자 기사 「승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애국주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35) 2012년 이후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의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앞세워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들과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자는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다.

36) 이 노작은 김정은이 2012년 7월 26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이며 2012년 8월 3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37)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21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로동신문』 2012년 8월 5일; “애국은 실천속에서 빛난다”, 『로동신문』 2012년 9월 14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애국자의 자세”, 『로동신문』 2012년 10월 28일;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전군선전회의일군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0일 등에 발표되었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글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38) ‘연속좌담회’ “천만군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부르는 애국의 강령 (1)~(3)”, 2012년 10월 8일~14일; ‘선전선동’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워 강성국가건설의 열풍을 일으키자”; ‘선전선동’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노래춤’ “김정일-애국주의로 불타는 심장의 노래” 등이 『조선중앙TV』에서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39)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0일; 2012년 10월 4일.

이의 실천을 강조하였다.⁴⁰⁾

북한에서 노작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 있으며 주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는 문서”이다.⁴¹⁾ 북한에서 노작을 전달하는 보도매체들은 수령과 당의 의도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여”⁴²⁾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노작과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김정일-애국주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애국주의’ 구호 속에 북한 수뇌부의 일정한 의미와 의도를 부여하고 사회 전 구성원들을 이것에 동조시켜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로동신문」의 김정일-애국주의 보도

2012년 5월부터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김정일-애국주의’라는 구호가 등장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⁴³⁾ 이 구호는 북한의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⁴⁴⁾ 김정일은 이것을 주제로 한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도 발표했다.⁴⁵⁾ 김정일의 ‘김정일-애국주의’ 노작 발표를 전후로 하여 「로동신문」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발표되었고⁴⁶⁾ 「조선중앙

40) 『조선중앙TV』 2013년 1월 1일;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4일.

4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972.

4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 80.

43) 「조선중앙통신」에서는 2012년 5월 11일 게재된 「김정은동지의 인민관, 후대관이 집약되어 있는 강령적문헌」이라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애국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로동신문」에서는 2012년 5월 12일자 기사 「승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애국주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44) 2012년 이후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의 북한 매체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앞세워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들과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자는 내용의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다.

45) 이 노작은 김정일이 2012년 7월 26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이며 2012년 8월 3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46)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21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로동신문』, 2012년 8월 5일; “애국은 실천속에서 빛난다”, 『로동신문』, 2012년 9월 14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애국자의 자세”, 『로동신문』, 2012년 10월 20일;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전군선전회의일군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8일 등에 발표되었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글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TV』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해설하는 좌담회가 방영되었다.⁴⁷⁾ 「로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일-애국주의’ 관련 기사 목록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로동신문」의 ‘김정일-애국주의’기사 목록

게재날짜	기사 제목
2013. 01. 10	김정일-애국주의는 조선인민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라고 여러나라 출판보도물 강조
2013. 01. 11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김정일-애국주의
2013. 07. 19	김정일-애국주의는<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정신력의 근본핵
2013. 09. 02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영원한 넓이고 숨결이다
2013. 11. 06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자
2012. 12. 31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안아온 기적
2012. 12. 07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통일위업을 추동하는 위력한 정신적무기
2012. 10. 13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올린 위대한 창조물 후손만대의 귀중한 재부
2012. 09. 26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2012. 09. 21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
2012. 09. 21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연구체득하며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2012. 09. 04	사실 모두다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자
2012. 08. 12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며 일해나가자
2012. 08. 09	사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2012. 08. 07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나가자
2012. 08. 06	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불후의고전적로작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를중국로씨야에서보도
2012. 08. 05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도있게
2012. 08. 03	김정일-애국주의가 맥박치는 명작
2012. 08. 03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2012. 07. 12	사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일군들이 기수가 되자
2012. 06. 22	김정일-애국주의의 위력으로 황해남도물길공사에서 일대 혁신을
2012. 06. 21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47) ‘연속좌담회’ “천만군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부르는 애국의 강령 (1)~(3)”, 2012년 10월 8일~14일; ‘선전선동’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워 강성국가건설의 열풍을 일으키자”; ‘선전선동’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노래묶음’ “김정일-애국주의로 불타는 심장의 노래” 등이 『조선중앙TV』에서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게재날짜	기사 제목
2012. 06. 20	김정일-애국주의는 천만군민을 애국의 한길로 이끄는 승리의 기치
2012. 06. 18	김정일-애국주의기치 높이 조선청년의 슬기와 용맹 힘있게 펼쳐간다
2012. 06. 16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온 세기적인 창조물
2012. 06. 14	김정일-애국주의의 거세찬 숨결이 맥박치는 룡매도간석지건설장
2012. 06. 10	김정일-애국주의에 맥박치고있는 숭고한 후대관
2012. 05. 30	정론 김정일-애국주의로 승리하자
2012. 05. 29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자
2012. 05. 27	김정일-애국주의와 더불어 력사에 빛날 대고조시대의 자랑찬 기적들
2012. 05. 25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체득한 인재의 대부대는 강성대국건설의 제일밑천
2012. 05. 24	김정일-애국주의의 숨결로 설레이는 내 나라의 푸른 산 푸른 들
2012. 05. 23	김정일-애국주의의 고귀한 결정체 새 세기 산업혁명
2012. 05. 21	사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2012. 05. 19	김정일-애국주의는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2012. 05. 12	위대한김정일-애국주의기치높이내나라

출처: 『로동신문』.

제3장 북한 보도매체의 정치사상 내용 분석

제1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관계 분석

1. 선군사상의 등장과 역할

북한에서 ‘선군’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로동신문」 1997년 12월 12일 자 이다. 북한에서의 ‘선군’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사용된 것이 아니다. ‘선군’이라는 용어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고, 이후 보다 구체화된 개념인 ‘선군정치’로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발전된 북한의 새로운 정치사상이다. 이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변화과정과도 그 패턴이 비슷하다.

대내외적 시대적 상황이 변화해도 북한 당국은 당의 영도적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⁴⁸⁾ 특히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목표 실현”을 위해서 선결되어

48) 『조선중앙통신』, 1999년 6월 16일.

야 할 것은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⁹⁾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로동당이 중심이 되어 혁명과 건설의 당사자인 인민대중을 준비시키고 동원하는 당사사상사업 강화”를 의미한다.⁵⁰⁾ 이처럼 북한 당국은 김일성 시대에 이어 김정일 시대에서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당원 및 일반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 현상의 증가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로 인하여 기아 및 사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얼마고, 배급도, 기름도, 아이들 교복도 곧 주겠다”는 로동당의 구호만 재생산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도부 차원에서는 책임전가(transference of responsibility) 현상이, 일반주민 차원에서는 불만의 전가(transference of discontent) 현상이 나타났다.⁵¹⁾ 특히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김정일 중심의 정치체제를 유지 및 고수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 당국은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당 사상사업인 선군사상을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선보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온 사회를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계속화인데, 선군사상은 그보다 높은 단계로 규정했다. 북한의 이러한 선군사상 규정은 진리성과 정당성을 심화하고 발전시킨 김정일만이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김정일 시대의 통치담론인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 같은 수준을 의미하고 있다.⁵²⁾

김정일 시대에 등장한 ‘선군’은 사상으로 변모했다. 북한에서 선군사상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준비시키고 동원하는 것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정신적 무기로 소개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상중시 노선은 모든 인민과 사업의 근본조건이고, 군대라도 정신력이 결여되면 군력이 강화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인민군대의 사상적 견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이 사상중시를 첫째로 내세우는 이유는 인민들이 선군혁명사상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강성대국건설을 추진할 수

49) 강성대국건설에서의 사상중시노선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강화발전시키는 위력한 무기이다. ... (중략) 사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근본 초석이다. 김재호, 앞의 책, p. 20.

50) 2010년 9월 28일 개정된 『로동당 규약』 참조.

51)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권 2호, 2004, p. 102.

52)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2008, pp. 105-108.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⁵³⁾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정치사상강국은 당, 군 인민들이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하며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적 문화적 침투를 지켜낼 수 있는 사상적으로 굳건한 국가를 의미한다.

2000년 북한이 3대 기둥 중 하나로 제시한 총대는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선군혁명의 기초에서 출발하고 있다.⁵⁴⁾ 북한이 강조하는 총대는 평화도 총대 위에 있고 사회주의도 총대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총대를 통해 선군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⁵⁾

북한은 당의 선군정치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끊기우느냐 마느냐하는 우리 혁명의 엄혹성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⁵⁶⁾ 선군정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북한은 선군정치를 정치적으로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998년과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고화 하면서 선군사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총대의 출발을 선군으로, 선군의 출발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으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일의 정치 권력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⁵⁸⁾

53)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입니다.》 즉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혁명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의 기본내용은 우선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혁명정신이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은 혁명적군인정신의 핵을 이룬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수령의 안전과 신변을 결사호위하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결사수호하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결사보위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무기로 되고있다.” 『로동신문』, 2010년 8월 16일.

54) 본사기자,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조선녀성』 제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pp. 6-7.

55) 김정일은 1996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지휘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내가 여러번 강조했지만 정원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중략)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강해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를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오현철, 『선군과 민족의 운명』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 121.

56)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p. 7-8.

57) 천리마사 편, 『천리마』 제8호 (평양: 천리마사, 2009), p. 76.

58) 선군정치의 시원에 대한 북한 최초의 설명은 1995년 1월 다박솔초소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점차 해석의 시기가 상향조정되면서 김정일이 1960년대 제108땅크사단을 방문한 날까지 소급되고 있다. 서유석, “북한 『회상기』의 영웅서사 상징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 2006, pp. 215-216.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정의의 총대를 쥐어야 한다. 총대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가장 위력한 수단이다. 총대철학에는 바로 자주적인민에게 있어서 총대는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는 진리가 집대성되어있다. ...(중략) 총대철학의 진리성에 기초하여 총대를 확고히 앞세우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게 하는데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중략)... 총대는 곧 군대를 의미한다.⁵⁹⁾

이처럼 북한은 선군혁명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총대중시와 군사중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선군혁명의 기초, 출발점을 마련하여야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총대로 혁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북한의 논리에서 기인한 것이다.⁶⁰⁾ 결국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문제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군의 충실성, 성실성, 획일성 등의 특성을 사회 전면에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한다면서 군사는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선다”고 언급하고⁶¹⁾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 스스로 제국주의와 대항할만한 무력 없이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김정일은 2001년 7월 당중앙위원회 담화에서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총대중시 군사중시 기풍이 차 넘치게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의 실현을 관철해야 한다면서 전체 인민이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철저히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⁶²⁾ 이는 정치에서의 군사선행, 즉 어느 집단보다도 인민군대에 의거하는 선군후로의 정치를 강조한 것이다.⁶³⁾ 북한의 이러한 논리는 총대를 중시하여야 사상중시도 확고히 견지할 수 있고 경제강국도 건설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는 국가 중에서 제일국사이며, 총대중시와 군사중시노선은 사회주의를 지키고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노선이라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⁶⁴⁾

59) 김정일,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144-154.

60) 근로단체출판사 편, 『조선녀성』 제12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6), pp. 6-7.

61) 위의 책, p. 6.

62) 평양출판사 편,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4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 129.

63) 김창희,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의 함의와 평가”, 『사회과학연구』 32집, 1호, 2008, pp. 101-102.

북한에서 총대중시를 견지하다는 것은 선군정치의 구현으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⁵⁾ 특히 북한이 인민군을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것은 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성, 규율성, 혁명성으로 인하여 높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진정으로 국가의 부국강병을 바란다면 군사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김정일 선군정치의 지속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과의 상관관계는 학계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하위담론, 즉 실천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이다. 광승지⁶⁶⁾는 김정일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상황 변화에 적응하며 주민 통합 및 체제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변용담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양무진⁶⁷⁾은 먼저 선군사상과 강성대국론과의 관계를 초기 선군정치는 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으나 2002년 이후 선군사상은 상위개념의 담론으로 변화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에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요구와 원리를 전면 구현하는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다.

김연각⁶⁸⁾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의 하위담론 혹은 변용담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같이 전일적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담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 혹은 주체사상과 같은 성격으로 선군사상이 발전해 간다는 관점이다. 먼저 서재진⁶⁹⁾은 혁명의 주력군이 인민군으로 바뀐 것과

64) 오현철, 앞의 책, p. 245.

65) “왜 총대를 중시해야 하느냐의 이유로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그리고 고립압살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를 들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완전하게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동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27.

66) 광승지, “김정일 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9권 2호, 2000, pp. 115-146.

67) 양무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3호, 2008, pp. 57-93.

68) 김연각,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1955년-2007”, 『한국정치연구』 16집 1호, 2007, pp. 257-277.

69)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2006),

선군사상의 사용 빈도수 증가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통치담론이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동⁷⁰⁾ 역시 혁명의 주력군이 인민에서 인민군으로 바뀐 것을 예로 들면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선군사상이 다른 구호 혹은 하위개념의 통치담론들과 달리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선군사상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최대석·현인에⁷¹⁾는 주체사상이 당장은 통치담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체사상의 사용빈도는 더욱 떨어지고 그 의미는 선군사상에 비해 무색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주체사상은 현실 규정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전미영⁷²⁾은 선군사상이 김정일 정권의 정치방식을 정당화하는 정치이데올로기, 즉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증거로 ‘선군사상교양’, ‘선군사상 일색화’ 등 사회적 정치운동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전미영은 선군사상이 북한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선군사상은 북한 사회의 새로운 철학(ethos)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석⁷³⁾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 즉 주체 담론의 재생으로 보고 있다. 즉 북한이 초기에는 선군을 주체와 혼용하였으나 체계화 과정을 거쳐 선군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선군’이 ‘주체’를 재생하여 나타났다는 논리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 예로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된 주체사상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연구된 선군사상, 주체사상을 위한 제도적 완비와 선군사상을 위한 제도적 완비 등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북한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과의 관계를 아직 명확히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두 관점 모두 타당성이 있는 관점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관계를 두 번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⁷⁴⁾ 김정

참조.

70)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성격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치』 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참조.

71) 최대석·현인에, “주체사상의 재인식: 형성과 확립 그리고 쇠퇴”, 『북한연구학회』 11권 2호, 2007, pp. 255-274.

72) 전미영, “선군담론의 기능과 특징”,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서울: 선인, 2010), 참조.

73) 서유석,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4권 1호, 2008, pp. 92-120.

74) 북한은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공동으로 로동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9년 8월 8일.

일은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 후로하라”라고 하면서 군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⁷⁵⁾ 북한은 주체사상 강조에서 선군 강조로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⁷⁶⁾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란 맑스-레닌주의에도 없는 우리가 내놓은 새로운 정치 용어이며 우리식의 새로운 정치령도방식”이라면서 주체사상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⁷⁷⁾ 2006년 이후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사상을 집중 강조하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 선군사상의 위상 변화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2009년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북한은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격상시키면서 김정일 시대의 통치담론으로, 즉 주체사상과 동등한 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⁷⁸⁾

물론, 2003년까지 북한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⁷⁹⁾ 하지만 2010년 당대표자회의 양형섭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주체사상에서 선군사상으로의 변화된 이유를 “미제국주의의 악랄한 대조선 압박 정책, 1990년 이후 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대조선 압박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군사상이 필요하다”면서⁸⁰⁾ 상위 개념의 통치개념으로 격상시켜 설명하고 있다.⁸¹⁾

75)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월호, 1999, pp. 17-18.

76) ‘선군후로’라는 말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대를 로동계급보다 앞에 내세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선군후로의 사상은 혁명력량편성에서 군대를 로동계급보다 앞에 놓고 군대에 정치의 주도적 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혁명로선이며 전략전술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혁명력량편성에서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나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경험은 군대의 우선적인 강화와 그 역할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 선군후로사상은 변화된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 86-87.

77)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 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35.

78) 북한에서의 선군은 2000년 선군정치를 시작으로 2003년 선군사상으로 체계성을 갖추었고 2004년 이후 선군사상의 교양, 즉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79)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며 공화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민주조선』, 2003년 1월 1일.

80) 2010년 2월 28일, 44년 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의 양형섭은 선군사상 등장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중앙TV』, 2010년 9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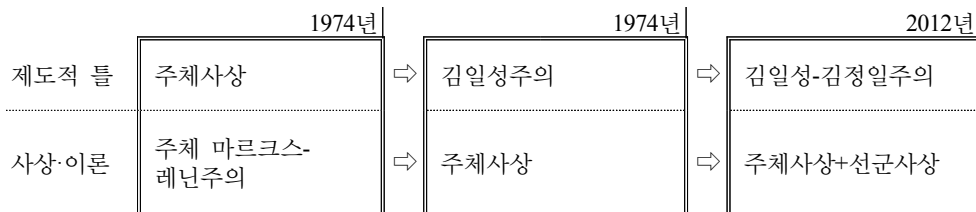
81)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정치철학에 기초한 선군정치방식의 사상적 기초로 규정하면서 선군의 시조가 김일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현재의 선군정치는 단순히 오늘날 엄혹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내려진 산물이 아니라 선군혁명영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김정일에 의해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발전된 가장 혁명적인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 105-115.

2010년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당의 지도사상을 주체사상으로 부각한 것은 선군사상의 해석권을 새로운 지도자에게 완전하게 이양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의도는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김일성-김정일주의’ 의미와 내용 분석

1.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의미

2012년 4월 6일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였다.⁸²⁾ 김정은의 ‘4.6 담화’ 이후 북한은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식 이데올로기로 규정하였다. 북한 공식 문헌에 당의 지도사상으로 김정일주의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1970년대 초에 등장한 김정일이 이미 김일성주의화를 매개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했지만 해방 이후 세대로서 공산당 권력의 정통성인 혁명경력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세운 업적이 바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발전시킨 것이다.⁸³⁾



〈그림 3-1〉 북한의 공식이데올로기 변화과정⁸⁴⁾

82) “오늘 우리 당과 혁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리론,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83) 탁진·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 2부 (동경: 동방사, 1984), pp. 12-22.

위 <그림 3-1>에 나타나듯,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하여 가족국가적 운영 지침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⁸⁵⁾ 동시에 1974년 2월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은 유일사상10대원칙과 함께 충실성의 4대 원칙(신격화, 신조화, 절대화, 무조건성)을 제시하면서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⁸⁶⁾

김정은 역시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사상을 활용하고 있다.⁸⁷⁾ 예컨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북한 당국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수정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당의 최고강령이 되었다는 것은 선군사상 역시 주체사상과 더불어 김정은 시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즉 정치사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⁸⁸⁾ 김정은 시대의 이러한 행태는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화’하면서 주체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킨 것과 같다. 또한 2013년 8월 9일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꾸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일의 권력 공고화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 김정은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꾼 것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해 “로동계급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완성된 혁명사상으로서 주체시대, 선군시대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생산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김일성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⁸⁹⁾ 즉 김정은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하여 체계화

84) 한승호,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와 통치담론의 지속성” 『통일과 법률』 7호, 2011, 참고.

85) 안찬일, 『주체사상의 종언』 (서울: 을유문화사, 1997), pp. 115-116.

86) 위의 책, pp. 175-178.

87)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 위대한 령도의 거장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의 위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다.” 리영호, “전당과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 실현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천리마』 1호 (평양: 천리마사, 2014), p. 17.

88) 북한 당국은 김정일을 김일성과 같이 수령으로 격상 시켰고, 기존 김일성동지의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명명하고 있다. 김정은,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사회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 5;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89) 오천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 『철학연구』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p. 4.

및 정식화함으로써, 백두혈통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사상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더불어 선군사상으로 요약되는 김정일주의를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킴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북한 발전전략에 필요한 실천이데올로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국 김정은 시대에 생산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실천이데올로기의 친구상을 펼 수 있게 된 것이다.⁹⁰⁾

2.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내용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군사를 제일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이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⁹¹⁾ 그러나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해외유학경험과 중국과 추진 중인 각종 경제사업, 그리고 6.28방침 등을 보면서 선군정치보다 개혁·개방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⁹²⁾ 하지만 북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태이며⁹³⁾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선군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고 있다.⁹⁴⁾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노작인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통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⁹⁵⁾

90)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84호, 2014, pp. 78-85.

91) “우리 당이 펼친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우리 당의 총대철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p. 3.

92) 백학순, “김정은 제1비서의 통치 8개월 평가와 전망”, 『정세와 정책』 9월호 2012년; 정성장,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국가전략』 제18권 4호 2012년 참고.

9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7월 29일이 외에도 북한은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변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많은 글들을 발표하였다.

94)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론은 무력증강론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3일.

95)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중략)…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입니다. 조국보위전조선에 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후방의 인민들은 뜨거운 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일단 적들이 달려들 때에는 단호히 맞받아나고 조국보위정선에 애국충정을 바쳐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중략)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일.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선군’이란 표현 빈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선군의 내 조국’, ‘선군시대의.....’ 라는 표현과 ‘군사를 중시하고 이를 성실히 배우자’는 문구에 드러나듯이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의 산물인 ‘선군’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의도는 북한의 공식매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아래<표 3-1>은 2011년과 2012년의 「조선중앙TV」프로그램에서 ‘선군’과 ‘총대⁹⁶⁾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방영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표 3-2>는 「로동신문」에 ‘선군’과 ‘총대’가 언급된 기사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 ‘선군’과 ‘총대’를 주제로 한 『조선중앙TV』 프로그램 방영 횟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2 (3.1-8.2)	2012 (8.3-12.31)	비고
보도	3	0	0	0	· 재방송은 포함, 사 노래 등은 제외 · 2012년 구분은 김 정은의 ‘김정일-애 국주의’관련 노작 공개 일기준 (8.3)
영화	48	84	21	35	
시사교양	66	76	35	37	
공연오락	3	8	3	4	
총 계	120	168	59	76	

* 출처: 『조선중앙TV』.

<표 3-2> ‘선군’과 ‘총대’를 언급한 『로동신문』 기사 수

구 분	2011년	2012년	2012 (3.1-8.2)	2012 (8.3-12.31)
건 수	4,200	4,604	1,965	1,870

* 출처: 『로동신문』홈페이지.

위의 <표 3-1>과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선군’에 대한 선전을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지속 반복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한 ‘노작」『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발표한 전후의 같은 시기를 비교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산물인 ‘선군’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선군’을 대신할 새로운 구호, 사상, 철학 등을 생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선군’이 김정은 시대에도

96) 북한은 ‘총대’라는 개념에 대해 “선군정치를 낳은 사상리론작기초”라고 말하고 있어 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포함하였다.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우리 당의 총대철학』, p. 3.

북한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치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군’은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잇는 핵심 주제로써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선군’ 기조를 유지·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들로는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도한 미사일 발사 시도와 2013년 2월 12일 실시한 제3차 지하 핵실험이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2012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2.29합의를 이끌어냈고 북미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2.29합의 직후 2012년 4월 13일과 12월 12일 ‘광명성 3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켰다.⁹⁷⁾ 물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동년 12월 12일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종합적국력을 세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5천년 민족사의 특대사변’이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⁹⁸⁾

북한은 2012년 2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2013년의 제3차 핵실험은 김정은의 위상을 대내적으로 높이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⁹⁹⁾ 하지만 북한은 이로 인하여 미국의 식량지원과 이후 후속조치로 있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 6자회담 및 북미대화 역시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선군’과 군사모험주의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이 ‘선군’ 대신에 개혁개방과 같은 ‘선경’을 우선시 했다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대신 2.29합의의 실천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강화했을 것이다.

북한의 ‘선군’ 중심적 사고는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김정은은 이 노선에 대

97)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합의했던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하였고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바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이끌어 내었다.

98) “선군조선에 차넘치는 인민의 걱정과 환희, 필승의 신념 --우리 군대와 인민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를 열렬히 축하”,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2일; “선군조선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역사적사변”,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22일.

99) 북한은 12월 12일 로켓 발사를 성공한 이후 대내적으로 모든 대중매체를 동원해 김정은의 로켓발사 지도를 부각시켰고 김정일의 1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경축군 민대회, 경축공연 등을 열었으며 로켓발사 관계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축제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3차 지하 핵실험 성공 후에도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핵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군민연화대회가 개최되었고 김정은은 핵실험 관계자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하였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선물을 보내주었다.

해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노선,’ ‘국방비 증가 없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도,’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노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려는 당의 신념과 의지의 구현’이라고 설명했다.¹⁰⁰⁾ 그러면서 김정은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강위력한 핵무력 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핵이 바탕이 된 국방력, 즉 선군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경제발전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전략은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 북한이 경제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문제 및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31일 노동당 중앙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 핵무기 병진노선’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와 목적보다도 핵을 바탕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중심의 체제를 결속시켜 나가겠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¹⁰¹⁾

100)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101) 2013년 김정은의 군 시찰은 24번 있었고 군 관련 「로동신문」 보도는 27번 있었다. 군시찰은 다음과 같다. 제526대련합부대지휘부 방문(12.25),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11.30),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화력타격훈련을 보시였다(10.30), 월내도방어대를 시찰(9.3),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9.2), 새로 건조한 전투함선의 기동훈련 지도(8.24), 조선인민군 제3404군부대 시찰(8.17),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포사격훈련 지도(6.30),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비행훈련 지도(6.18), 오성산 초소들과 인민군제507군부대 시찰(6.2), 조선인민군 제405군부대를 시찰(5.20), 상륙 및 반상륙훈련을 지도(3.25), 제1501군부대 시찰(3.24), 제1973군부대관하 2대대를 시찰(3.23),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를 시찰(3.22), 자행고사로케트사격훈련을 지도(3.20), 서부전선 포병구분대들의 실탄사격훈련 지도(3.13), 서부전선 월내도방어대를 시찰(3.11), 제 641군부대관하 장거리포병구분대 시찰(3.11),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또다시 시찰(3.7), 포병화력타격훈련을 지도(2.25),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제630대련합부대 비행 훈련들을 지도(2.22), 제526대련합부대관하 구분대 공격전술연습 지도(2.21), 조선인민군

제3절 ‘김정일-애국주의’ 의미와 내용 분석¹⁰²⁾

1. ‘김정일-애국주의’의 의미

북한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을 따라 배워 김정일처럼 북한을 위해 애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사회적 위치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김정일을 따라 배워 그와 같은 삶을 살자고 강조하는 북한의 행태는 당위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당국이 단순히 김정일의 행적과 행동을 따라 배우자는 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첫째,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강화와 이어져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 공식매체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주체혁명위업의 대는 굳건하며 선군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¹⁰³⁾와 같이 김정은이 김정일을 그대로 계승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문구들이다.¹⁰⁴⁾ 이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 수십 년간 준비했던 김정일과는 달리 단시일 내에 최고지도자 자리에 등극한 김정은이 김정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은 갑자기 등장한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김정일을 이을 수 있는 준비된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이러한 작업을 김정일의 이상과 염원을 현실화시키자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시대에서도 김정일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정일은 강성국가건설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을 운영했다. 즉 김정일을 따라 배우고 그의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한다는 것은 김정일 시대의 과업을 그대로 이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김정은은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

제323군부대 시찰(2.20) 특히 김정은의 명령은 두 차례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군사칭호 명령(2.15),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대장칭호 수여(6.11) 등 군 관련 내용이었다.

102)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정책연구』 29권 2호, 2013, 참고.

103) “우리에게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9일; “슬픔을 던고 일어서는 인민들”,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20일.

104) 북한에서 이러한 의도를 가진 문구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조국통일유훈관찰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임무”, 『로동신문』, 2012년 10월 22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자”, 『로동신문』, 2012년 12월 4일;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인간, 걸출한 령도자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8일 등의 글들이 대표적이다.

한 요구로 나섭니다”,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⁰⁵⁾ 이는 김정일 시대의 목표였던 강성국가건설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최고지도자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정책들이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수령이라는 존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따라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로서 최고 영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¹⁰⁶⁾ 따라서 북한에서 수령은 절대적인 능력과 지위, 권한, 권위, 영도력을 가진 신적인 능력을 지닌 최고의 지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 충성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다.¹⁰⁷⁾ 이러한 존재인 수령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위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문제와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과연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그의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다음과 같이 수령에 대한 충성과 애국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됩니다. 그럴기때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이자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됩니다.¹⁰⁸⁾

위 문구는 수령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어서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것이며 애국심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령에 대한 충성을 애국주의와 연결하여 강조하는 글들은 ‘김정일-애국주의’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한 이후 쉽게 북한 공식매체들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글들은 공통적으로 ‘수령이 곧 조국’, ‘수령중심, 인민대중 중심의 애국주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애국의 최고 표현’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사회 전

105)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일.

106) 김유민, 『후계자론』(출판지 불명: 신문화사, 1984), pp. 19-20.

107) 이수원, “북한 주체사상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5호, (2011년), p. 316.

108)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령과 그의 가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⁹⁾

북한이 이렇게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바로 수령의 대를 이은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수령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후계자 외에는 없으며 후계자가 바로 수령인 것이다.¹¹⁰⁾ 따라서 수령인 김일성의 계보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어 이를 잇고 있기에 김정은이 바로 수령이다. 결국 북한에서 ‘수령이 곧 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이라는 말은 곧 수령의 후계자로서 수령이 된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¹¹¹⁾

2. ‘김정일-애국주의’의 내용

‘김정일-애국주의’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이에 대해 언급한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건에서 김정은은 “사람들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¹¹²⁾

기본적으로 북한은 국가에 대한 최대한의 사랑과 희생,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의 애국심을 본받아서 애국을 하자는 점에서

109)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21일; “김정일-애국주의로 승리하자”, 『로동신문』, 2012년 5월 30일;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2012년 6월 21일; “9.9 국경절의 애국주의호소”, 『조선신보』, 2012년 9월 10일.

110) 김유민, 앞의 책, 참고.

111) 북한은 “모두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조국번영의 위대한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 김정은 중심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애국으로 한생을 빛내이신 절세의 위인”, 『로동신문』, 2012년 5월 14일;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로동신문』, 2012년 10월 10일.

112)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일.

일반적인 애국주의와는 다르다. 북한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해 언급한 문건들에 공통적으로 김정일이 생전에 걸어온 길을 설명하면서 김정일의 애국심을 칭송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의 애국심을 사회 전 구성원이 따라 배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자는 것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 조국을 위해 한생을 모두 바친 조국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절세의 애국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애국심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김정일-애국주의’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생전에 취했던 사업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김정일이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¹¹³⁾ 북한이 이처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그의 방식과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과 이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언급한 문건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건들은 “김정일의 애국심을 귀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거나, 조국을 소중히 여기는 품모를 따라 배워야 한다거나, 김정일을 따라 배워 그와 같은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체제를 결속시키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¹¹⁴⁾

김정은은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조국관에 대해 “김정일이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사상을 밝혀주었다”고 하면서 “조국은...(중략)...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중략)...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¹¹⁵⁾ 이는 조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

113)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철저히 실현하며 조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일.

114)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2012년 6월 9일; “달리는 렬차안에서”, 『로동신문』, 2012년 7월 11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타는 애국헌신장정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6일;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로동신문』, 2012년 8월 9일; “모두다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자”, 『로동신문』, 2012년 9월 4일 등의 글들 이외에도 다수의 글들이 있다.

115)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일.

있는 것으로서 수령과 국가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들은 수령에게 절대 복종하고 있는 구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관에 대해서는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었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였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김정일-애국주의’의 바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후대관에 대해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으며 늘 하시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라며 김정일의 후대관을 언급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후대관은 후대를 위해 지금의 고생을 감내하고 이겨내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조국관과 인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민관, 후대를 위해 지금을 견뎌 내야한다는 후대관이 더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북한이 주민들을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으로 무장시켜 최고지도자에 충성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4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치사상 향후 전망

제1절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지속 가능성

북한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¹¹⁶⁾ 이는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제49조와 1998년 9월 채택된 ‘김일성 헌법’ 제63조에도 잘 나타나 있다.¹¹⁷⁾ 북한이 이처럼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을

116)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회이며 그 내부의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 상관없이 집단적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이다.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p. 95-98.

117) 사회주의 헌법 제4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

가져오고 또한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⁸⁾ 특히, 북한 헌법 제63조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문구에 나타났듯이 북한은 이론적으로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북한은 사회에서 집단 또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 혹은 집단의 이익이 곧 개인의 이익과 결부된다는 논리를 생산해냄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위한 의무를 각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집단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구현된다. 예를 들면, 선거 혹은 투표에 있어서 집단 전체가 동의하는, 즉 집단주의가 팽배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 혹은 적극성이 무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¹¹⁹⁾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는 북한에서 노동계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¹²⁰⁾ 다시 말해서 이는 북한 사회 내 모든 계급과 계층을 노동계급으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계급과 계층 간 야기될 불평등 및 정치·경제·사회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통제인 군 혹은 경찰 등을 통한 강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의 사회통합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곧바로 사회통제 기능도 그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집단주의의 사회통제 기능이 집단주의의 사회통합 기능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집단주의의 사회통제 기능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 기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¹²¹⁾ 결국 집단주의의 인민대중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은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집단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집단주의의 사회통제 기능은 인민대중의 집단주의 생활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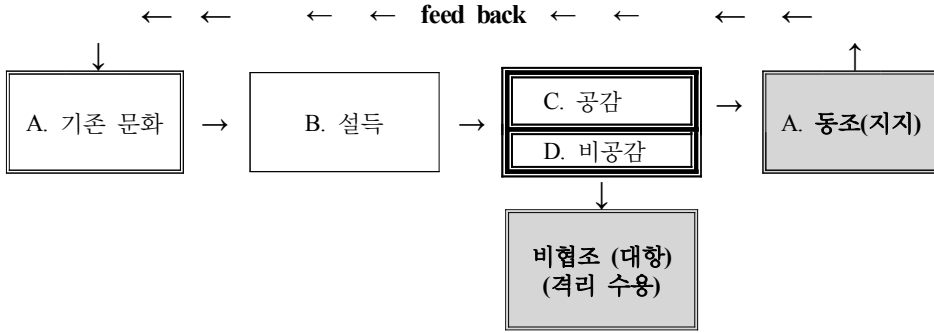
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3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p. 3; 김일성주 의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18)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으며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54-455.

119) 진희관, 앞의 책, p. 251.

120) 우리의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요구에도 맞는 사회입니다.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선집』 1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0-80.

121) 이태섭, “북한 집단주의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44.



〈그림 4-1〉 피지배계급의 지배계급 담론 수용 행태

북한의 집단주의는 도시주민들로 조직되어 있는 인민반 제도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¹²²⁾ 인민반은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있으며 주로 20-30대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반의 반장 또는 당분조장은 인민반을 조직화¹²³⁾하지만 이들은 주로 주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은 피지배계급에 대한 통제라는 구조 속에서 피지배계급을 조직화하여 피지배계급 스스로 정치참여를 유인(inducement)하고 있는 것이다.¹²⁴⁾ 이는 피지배계급 스스로 지배계급에 대한 지지를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잠재된 대중의 내적 조건을 자극하거나, 동인을 제공하는 기능(역할)을 하고 있다.

유인 통치로서 피지배계급 통치는 무엇보다 대중(노동자)가 겪었던 역사적·사회적 경험과 조건에 주목한다.¹²⁵⁾ 여기서 유인은 위로부터의 단순 지배와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동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유인통치는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 통치를 피지배계급의 평등지향성 그리고 시대적·사회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분단과 경제재건을 위한 강성대국건설의 조건이 피지배계급의 평등지향성과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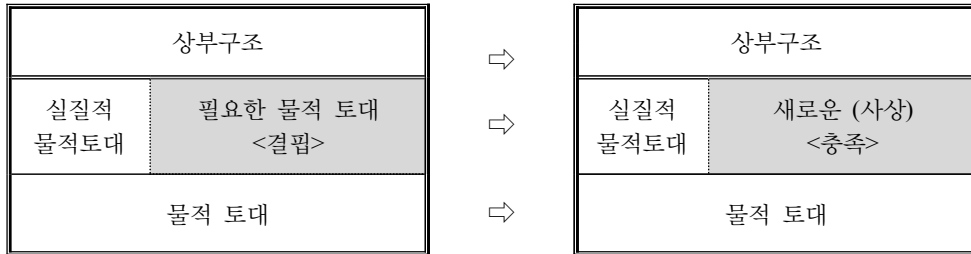
122)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인민반에 소속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꾸리고 혁명화 하는 문제도 모든 반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문제도 다 인민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399-400.

123)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2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654.

124) 유인(inducement)이란 유기체를 행동적으로 끌어당기는 유인(attraction)과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유인(incentive)을 말한다. 즉 유인은 인간의 무의식적 힘에 의하거나 상황 및 조건 속에서의 선택 혹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인간 행위를 유발시키는 자극 및 유혹 등의 환경을 의미한다. 조봉구, 『실천인간관리』 (서울: 진한도서, 1998), pp. 110- 130; 홍득표, 『정치과정론』 (서울: 학문사, 1999), pp. 68-75.

125) 김영평, 『규제의 역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pp. 159-251.

된 북한적 특수성을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지배계급의 경제적 욕구와 열망인 인간의 본능적 지향과 일당 독재에 대한 저항만으로는 김정은 시대와 북한 인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4-2〉 북한 사회의 물질토대

위 <그림 4-2>에 나타나듯이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에서는 물질토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이러한 물질토대의 부족은 사회 전 구성원들의 내핍담론을 형성하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 지배계급은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 유지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물질 토대를 채워줄 새롭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부족한 물질토대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지배계급의 정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김정일 시대에 이어 부족한 물질토대를 충족시켜줄 구체적인 전략 혹은 실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 당국이 유일사상 10대원칙 및 당규약을 개정한 것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김정일 시대	선군 등장	선군 강조	주체사상과 차별화	선군사상 강조
	2012년	20XX년	20XX년	
김정은 시대	김정일-애국주의 등장	김일성-김정일주의 차별화 시도	새로운 사상 강조	

〈그림 4-3〉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사상 변화 비교

위 <그림 4-3>에 나타나듯이 북한 당국의 사상은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북한 사회의 완전한 사상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2000년 초반까지 선군과 관련된 의미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지만 이후 선군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선군의 적용범위 역시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대외적으로도 확대되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이 점차 정교화되고 사상화되었듯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김정일-애국주의는 실천 이데올로기로써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통치는 그것이 폭력적 수단에 의한 것이나 비폭력적 수단에 의한 것이든 구분하지 않으며, 강제적 방식과 설득적 방식, 그리고 유인적 방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¹²⁶⁾ 따라서 통치는 그것이 작동되는 순간 이미 폭력과 비폭력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으며 강제와 설득 그리고 유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폭력은 대중에게 침묵과 순응을 강요하는 심리적 강제와 더불어 설득으로도 작용이 된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는 통치에 있어서 강압이라는 일면적 특성만을 지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점차 이론화 및 구체화하고 있는 행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통치 역시 강압이라는 일면성 속에 내재된 피지배계급 친화적 또는 동의 획득을 구하기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

제2절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변화 가능성

북한 정치체제 위기의 직접적 요인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정책이었다.¹²⁷⁾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은 당사국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게 혁명적 바람을 넣는 단초를 제공하였다.¹²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정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126) 달(Robert A. Dahl)은 정부의 통제를 군사력과 정치적 무력에 의해 기초한 폭력에 의한 강제, 설득, 유인과 사회경제적 제재에 기초하는 비폭력적 강제, 설득, 유인으로 구분한다. Robert A. Dahl·Stinebrickner·Bruce, *Mordern Political Analysis* (New jersey: Prentice Hall, 2007).

127) “쏘련방에서도 군대가 1991년 8월 사변 당시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징벌을 가할 데 관한 쏘련방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사회주의배신자 엘진의 반혁명적 도구로 전락되어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시켰다. ...(중략) 이 나라들에서 군부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총소리를 울리었다면 사대는 달리 되었을 것이다.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3.

우리식 사회주의¹²⁹⁾,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¹³⁰⁾ 등을 제시했고 이는 체제를 유지하는 지탱력이 되었다.¹³¹⁾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의 근본 원인을 “사회주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하네 있다”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협조관계가 심히 약화되었기에 제국주의와 맞설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²⁾ 따라서 북한은 이를 통하여 정치체제의 정통성 확보 및 체제 결속력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¹³³⁾

붉은기 사상은 1994년 11월 1일 「로동신문」을 통하여 김정일이 언급한 “나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언급한 내용이 게재된 이후 1995년 8월 28일 「로동신문」에서 본격적으로 붉은기 사상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북한은 붉은기와 관련하여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이론적 체계성이 없었기 때문에 붉은기 철학, 붉은기 정신 등 다양한 언어와 더불어 사용되었다. 이후 붉은기는 체계화 과정을 거쳐 정치적 구호로 발전하였으며 붉은기는 북한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¹³⁴⁾

1996년 북한은 붉은기 철학, 붉은기 정신 등을 붉은기 사상으로 대체하면서 그 의미의 체계성을 갖춰 설명하기 시작했다.¹³⁵⁾ 이처럼 북한이 붉은기 사상을 새롭게 선보인 것은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중국의 시장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 그리

128) 현인택,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 『사상』 가을호, 1997, pp. 192-218.

129)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헌법 개정을 거쳐 1992년 4월 최고 인민회의 제9기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적 틀을 완성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진 가장 독특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 발전완성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국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식사회주의를 발전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 강령”, 『근로자』 6호 (평양: 근로자사, 1991), p. 32.

130)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제기되었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유한한 육체적 생명과 무한한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6.

131) 이상우, 『북한 정치』 (서울: 나남, 2008), p. 193.

132)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133) “지금은 강자가 약자를 먹어 치워도 어디에 가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때이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오늘 조건에서 자체의 균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자기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이다.” 리영섭, “선군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철학연구』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 30.

134) 『로동신문』, 1995년 12월 30일; “붉은기 사상은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철학, 신념의 철학인 것으로 하여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로 된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135)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고 계획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한 책임 문제 등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북한 지배계급이 생산한 붉은기 사상은 현 체제에 대항하는 담론인 수정주의 혹은 물신주의 등의 태동을 미연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표 4-1〉 붉은기 사상의 이론체계

원리	붉은기 사상의 주요내용
주체의 혁명철학	주체사상에 의한 이념
일심단결 혁명철학	실천적 행동강령 제시 지향목표: 수령 중심 혼연일체 실천사향: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세부지침: 자력갱생정신, 난관극복정신, 낙관주의정신
신념의 철학	위기극복을 위한 체제고수

출처 : 고명주,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 100.

<표 4-1>에서 보듯이 북한은 붉은기 사상을 ‘단결을 하여도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붉은기에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일심 단결의 혁명철학을 이끌어내고 있다.¹³⁶⁾ 결국 북한은 피지배계급을 붉은기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내세우고 고난의 행군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 그리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의 정신, 낙관주의 정신, 자기희생 정신 등을 강조했던 것이다.¹³⁷⁾

북한의 경제위기는 특히 식량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배급사정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¹³⁸⁾ 이에 김정일은 식량문제 해결을 당면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대중동원에 집중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중운동 형태를 띤 고난의 행군정신을 재생산하고 항일무장투쟁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붉은기 사상을 강조했던 것이다.¹³⁹⁾ 이후 북한은 천리마 운동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체제를 이룩했던 교훈을 되새기면서 1998년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을 다시 전개했다. 이는 북한이 제2의

136) 실제 북한은 1997년부터 붉은기 철학에서 붉은기 사상으로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

137)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로동신문』, 1996년 10월 18일.

138) 『로동신문』, 1997년 1월 28일.

139) 배성인, “김정일체제의 지배담론: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5권 1호, 2001, pp. 43-45.

천리마 운동을 통하여 만성적인 경제문제와 식량난을 극복하고 김정일 체제를 유지, 공고화하려는 목적 하에 진행된 것이라 하겠다.¹⁴⁰⁾

북한에서 붉은기 사상의 언급이 사라진 것은 1998년 4월이다.¹⁴¹⁾ 이는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사회 전 구성원에게 확실한 비전, 즉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에 따라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과 같은 대중동원 구호들이 현격히 줄어들고 동시에 ‘강성대국론’이 등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강제의 혁명정신,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군정치, 과학중시사상, 대항단 정신, 총대정신 등을 강조하면서 기존 담론인 붉은기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¹⁴²⁾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강성대국론이 그 체제화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8년 북한은 선군정치보다 3개월 늦게 「로동신문」을 통하여 강성대국건설론을 발표하였다.¹⁴³⁾ 이후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강성대국건설 방식은 선 사상 및 군사건설, 후 경제건설방식으로 설명하였다.¹⁴⁴⁾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통치담론으로 제시한 강성대국건설론은 선군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건설 이론인 것이다.¹⁴⁵⁾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이 거창한 사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¹⁴⁶⁾

140)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 변질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49-151.

141)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보면 붉은기와 관련된 표현이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12회 등장했다가 1998년에 5회,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1회 등장하였다. 정성장,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붉은기사상과 북한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p. 313.

142) 배성인, 앞의 논문, pp. 4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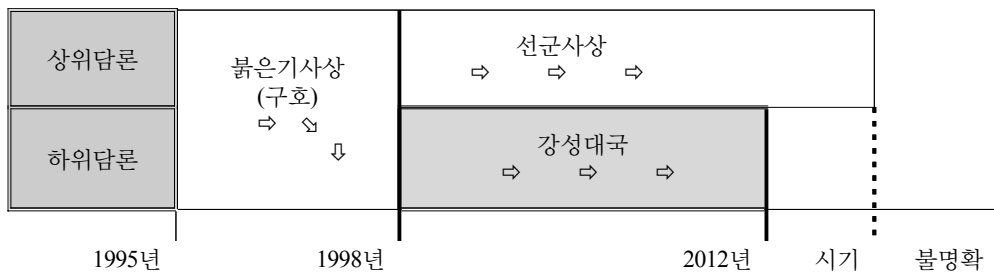
143) 북한은 강성대국론에 대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오늘의 장엄한 역사적 시기에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신성한 목표는 강성대국건설,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 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 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설명하였다.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144) 『민주조선』, 1999년 1월 1일.

145)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235.

146) 『조선중앙통신』, 1998년 9월 13일.

위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선군사상 및 선군정치를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논리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 사상인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동원체, 즉 상위담론으로서의 통치담론인 것이다.¹⁴⁷⁾ 북한은 이미 상위담론과 하위담론을 통합한 붉은기 사상을 선보인 바 있다. 1994년 11월 북한은 기존의 구호인 붉은기를 재강조하기 시작했고¹⁴⁸⁾ 1995년 8월 28일 청년절을 맞아 ‘붉은기를 높이 들자’를¹⁴⁹⁾ 언론보도를 통해 게재하면서부터 붉은기에 상징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부여했다.¹⁵⁰⁾



〈그림 4-4〉 김정일 시대의 통치담론 변화

그러나 붉은기 사상은 경제문제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고난의 행군 이후 단순한 구호로 전략하게 되었다.¹⁵¹⁾

147)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원동력이다. 오늘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것이다. 이 거창한 과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148)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149) “수령님과 장군님의 제자들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가는 앞길에 설사 지뢰밭이 가로 놓인다 하더라도 당이 가라면 용감하게 그 길을 가며 끝까지 주체의 한 길, 혁명의 한 길로 나아간다. 이것이 혁명의 철학, 우리 당의 붉은기의 철학이다.”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150) 붉은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깃발”을 의미한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58; 『로동신문』, 1995년 1월 1일;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151) 북한은 1996년 1월 9일 로동신문을 통하여 붉은기 사상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적 철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7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온 사회를 붉은기 사상으로 일색화 하자”면서 붉은기 사상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규정하였다. 즉 북한 지배계급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붉은기 사상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면서 실천적 지침으로는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조하고, 구체적 지침으로는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의 정신, 자기희생의 정신 등을 강조하면서 지배계급의 정통성에

하지만 1998년 이후 북한은 선군사상과 강성대국건설론을 비슷한 시기에 상위담론과 하위담론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선군사상을 통해서도 정치사상을, 강성대국론을 통해서도 실질적 국가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선군’은 국가 발전을 위한 목표로서 북한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⁵²⁾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여 온 우리의 강성대국 건설 위업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중략)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이고 우리의 진군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며 우리의 힘은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다. ...(중략)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습니다.¹⁵³⁾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나듯이 북한은 강성대국론이 선군의 기초 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이 제시한 강성대국론은 선군정치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기초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에서의 강국을 건설하여 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강성대국론은 선군정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김정일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일성-김정일주의’ 및 ‘김정일-애국주의’의 의미에 변화를 주어 김정은 중심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제3절 북한 정치사상의 신개념 등장 가능성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공산당이 모든 국가기구 또는 모든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도적인 핵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⁴⁾ 사회

의미를 부여하였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 『로동신문』, 1997년 3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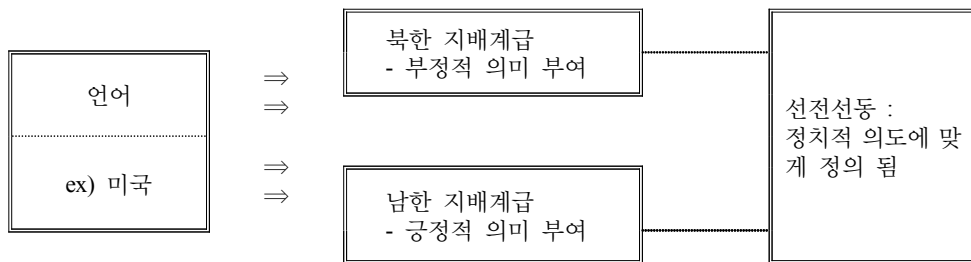
152) 북한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선군정치에 대해서 “선군정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라면서 선군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2010년 9월 25일.

153) 『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1일.

154) Stalin, I. V. “Foundation of Leninism”, *Problems of Lenin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28, p. 73.

주의 국가에서 당 우위원칙이 정립된 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정권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자본계급 및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계급투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단일적이고도 무제한적 지배권력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¹⁵⁵⁾ 즉 피지배계급은 무지하고 무의식적이며 무계획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직업 혁명가들로 구성되는 공산당의 독재가 필요한 것이다.¹⁵⁶⁾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은 외형상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민대표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치는 민주집중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¹⁵⁷⁾ 따라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을 선출하여 구성하면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각종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한다.¹⁵⁸⁾ 결국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 계급 정당은 국가의 여당이 되며 여당은 국가정권에 대해 정치적·사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¹⁵⁹⁾ 그러나 실질적으로 담론은 지배계급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언어에 있어서 단어, 문장, 구호, 명제 등은 생산해내는 지배계급에 의해 그 의미가 순수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¹⁶⁰⁾



<그림 4-5> 지배계급의 언어 독점 과정

출처: 허버트 바르쿠제 지음, 문헌병 옮김,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서울: 동녘, 2000), pp. 27-29.

<그림 4-5>에서 보는 것처럼 지배계급에 의해 생산된 언어, 구호, 담론 등은

155) Onikov, L.·Kazutin, D. “Both Democracy and Centralism”, *Moscow News*, No. 42 October 15, 1989, p. 14.

156) 김병하·김충남, 『현대 공산주의의 분석』 (서울: 법문사, 1975), p. 144.

157) 인민대표제 원칙은 첫째,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며,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민이 직·간접 선거를 통해 대표(의원)을 선출하며 이들이 각급 국가 권력기관을 구성하여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

158) 임도빈, 『인터넷 시대의 비교 행정 강의』 (서울: 박영사, 2005), p. 337.

159) 위의 책, p. 337.

160) 로잘린트 코워드 지음, 이만우 옮김, 『언어와 유물론』 (서울: 백의, 1994), p. 79.

강력한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배계급의 언어 독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지배계급을 정당화·합리화하는데 기여하고 현실을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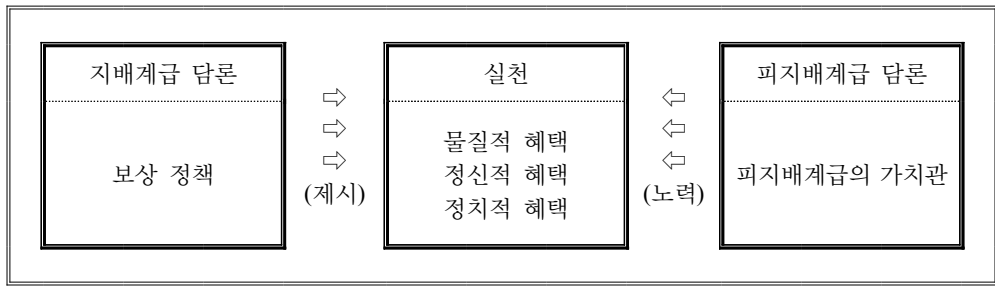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특성은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언어를 독점하고 독점된 언어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확산시키는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수령에 대한 언어를 형식적으로는 제한을, 내용적으로는 지정을 하고 있다. 즉 수령이라는 언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철저히 통제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연결하는 모든 매개 언어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매개 언어는 영상매체와 인쇄매체를 비롯하여 물리적인 통제 그리고 물질적·정신적 보상 혹은 정치적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 생산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언어들은 지배계급을 옹호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물질 토대 부족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11년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는 수령 중심의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아직까지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이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만성적인 경제문제와 식량난으로 물질적 보상을 북한 당국이 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도 물질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 보상의 기능이 이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은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의 복원과 재창조, 지배계급의 상징 조작 등을 통하여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등 일련의 과정(행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전술적 혹은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이데올로기 독점을 위한 복원과 재창조 과정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담론을 사회에 내재화하고 피지배계급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은 피지배계급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정치체제의 정통성 확보와 체제 안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담론을 전달하는 매체를 통하여 지배계급의 의도에 부합하는 의미를 전달하며 의도에 부합하는 인간전형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은 국가 혹은 체제의 요구에 맞게 순응 및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각종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영웅의 담론에 주입된 지배계급의 담론

출처: 한승호, “북한의 통치담론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강성대국건설 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고.

여기서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으로부터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보상을 통하여 유인하고 있다. 국가는 체제 또는 권력에 부합하는 구성원들을 선택하여 물질적 또는 정신적, 정치적 보상을 함으로써 지배계급이 지향하는 가치를 사회 전 구성원이 적극 수용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그림 4-6>과 같이 피지배계급과의 담론 형성을 위하여 각종 보상을 통하여 확산된 지배계급의 통치담론은 지배계급의 의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지배계급의 의식과 인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뀌고 있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체제안정을 위해서 변화하는 피지배계급의 의식과 인식에 맞추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북한의 사회 전 구성원들 인식 체계는 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사회 전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상 혹은 구호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즉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가 북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 구성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 혹은 구호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이 작금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상에 맞는 새로운 사상을 생산하여 사회 전 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키는 작업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 이어 3년 차가 되어 가는 김정은 시대에서도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의 틀을 반복하여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 결론: 정책적 대응방안

2012년 4월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동년 5월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사상과 백두산대국, 마식령 속도, 조선속도 등 각종 구호를 만들어낸 후 매체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기치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실천을 각각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에 김정은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모든 영역을 규율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김일성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군사상 역시 김정일의 권력을 공고화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써 존재했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사상은 대내외적 정치·경제적인 여건과 남북관계 등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였지만 최고지도자의 정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이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새로운 전략 및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선보이기보다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전략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산물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사용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포함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여러 글 등을 통해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김정일 따라 배우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체제의 안정을 위해 기존 김정일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14년 2월 북한은 10년 만에 “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면서 예년에 열리지 않았던 행사들과 기존에 비해 규모를 키워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2013.8.25, 2014.3.16., 2014.4.26.), 당중앙위 정치국회의(2014) 등을 통하여 비서국 및 조직지도부 등의 전문부서의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였다. 이는 내부 조직을 단단히 하고 김정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여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 통치방법인 ‘선군정치’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륙간탄도탄미사일로 의심되는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고 선군정치에 대한 강조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것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선군이 국정운영에 주요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북한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헌법 등을 개정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및 ‘김정일-애국주의’가 김정은 시대의 이데올로기로써의 역할을 지속할 지,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이 ‘김일성-김정일주의’ 및 ‘김정일-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기사, 논문 등의 문구를 통해 확인가능한 것은 김정일 시대에 강조되었던 선군에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일 시대에 ‘선군’이 등장하고 북한 사회에서 실천 이데올로기로써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선군사상은 실천 이데올로기가 아닌 순수 이데올로기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가 실천 이데올로기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김정일 시대에서의 붉은기 사상처럼 유명무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거나 실행에 옮긴다면 북한 정치사상에서의 변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기치로,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담론화할 것을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이 정치사상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구호가 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새로운 시도 대신 김정일 방식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김정일 시대 북한은 형식적 차원에서의 개혁·개방을 했기에 실질적인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작금의 상황 하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감성적인 접근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이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및 이데올로기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2014년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및 공고화를 위하여 김정일이 추진했던 정책을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면서 국가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록 1. 2008년-2014년 「로동신문」 사설

- 20080103 사설 뜻깊은 올해를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진격 앞으로!
- 20080109 사설 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자
- 20080114 사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혁명적사상공세를 벌리자
- 20080116 사설 강제정신의 위력으로 부강조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자
- 20080121 사설 올해 총공격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 20080202 사설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 20080216 사설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 20080220 사설 일군들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자
- 20080225 사설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자
- 20080301 사설 반외세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 위업을 힘차게 다그치자
- 20080308 사설 녀성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자
- 20080309 사설 성강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가자
- 20080317 사설 총공격전의 앞장에 선 현지도단위들을 적극 따라배우자
- 20080324 사설 천리마 대고조시기의 투쟁기풍으로 총공격전을 다그치자
- 20080401 사설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 20080409 사설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20080415 사설 당의 선군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 20080425 사설 가위력한 혁명무장력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20080501 사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세계근로자들의 혁명적명절
- 20080507 사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20080510 사설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 20080515 사설 혁명적인 선동공세를 벌려 온 나라에 총진격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 20080520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자
- 20080528 사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 20080606 사설 소년단원들을 선군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 20080615 사설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20080619 사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 20080623 사설 사상전선에서 총진격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자
- 20080625 사설 내외전쟁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주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
현하자
- 20080628 사설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를 들끓게 하자
- 20080708 사설 우리 조국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부강번영할 것이다
- 20080715 사설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자
- 20080717 사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자
- 20080721 사설 모두다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 20080727 사설 당의 선군령도따라 백전백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 20080730 사설 녀성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힘있게 이바지하자
- 20080804 사설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자
- 20080813 사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9월의 대축전을 빛나
게 장식하자
- 20080815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것이다
- 20080818 사설 오늘의 총공격전의 선봉투사는 당원들이다
- 20080825 사설 당의 선군령도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다
- 20080828 사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천영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자
- 20080901 사설 공화국창건 60돐을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 20080909 사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 공화국의 끝없는 룡성번영을 이
룩해나가자
- 20080912 사설 공화국창건 60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총돌격하자
- 20080915 사설 모든 힘을 가을건이 전투에 총동원하자
- 20080923 사설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 20081001 사설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에
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 20081004 사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 20081010 사설 일심단결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20081013 사설 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이자

- 20081016 사설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 20081023 사설 경제건설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 20081027 사설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터세운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자
- 20081103 사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 20081110 사설 모두가 떨쳐나 조국강산을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자
- 20081118 사설 총공격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20081124 사설 다음해 농사차비에 큰 힘을 넣자
- 20081203 사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 20081208 사설 당의 경제정책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 20081224 사설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선군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 20081227 사설 당의 선군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20090106 사설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
- 20090110 사설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하자
- 20090112 사설 공동사설에 기초하여 올해전투작전과 설계를 잘하자
- 20090115 사설 전민이 무장한 우리 사회주의조국은 영원히 금성철벽이다
- 20090121 사설 강선의 본때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 20090130 사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청치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리자
- 20090203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신뢰의 표시
- 20090206 사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가자
- 20090216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부강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 20090220 사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20090223 사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20090225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20090301 사설 민족의 자주적 기상을 떨치며 조국 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자
- 20090302 사설 부강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
- 20090307 사설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 20090308 사설 모두 다 선거에 참가하여 우리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 20090316 사설 당원들은 대고조의 앞장에서 선봉투사의 영예를 높이 떨치자
- 20090323 사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자
- 20090327 사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전투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 20090330 사설 일군들은 대고조시대 지휘성원답게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내밀자
- 20090401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 20090407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위대한 역사적사변
- 20090408 사설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 20090409 사설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안아오게 될 의의깊은 회의
- 20090411 사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것이다.
- 20090415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 20090425 사설 당의 선군령도 및에 우리 인민군대는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 나갈 것이다
- 20090501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시대 근로자의 영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 20090504 사설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드높이 150일 전투를 벌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력사에 특기할 해로 되게 하자
- 20090507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150일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자
- 20090511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올해 모내기를 제때 질적으로 하자
- 20090514 사설 150일 전투에서 새로운 대고조진군속도를 창조하자
- 20090518 사설 로동계그븐 대고조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제끼자
- 20090523 사설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자
- 20090525 사설 주체사상의 요구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자
- 20090528 사설 일군들은 비상한 열정과 책임성을 가지고 150일 정투를 혁명적으

로 조직지위하자

- 20090606 사설 소년단원들은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이다
- 20090609 사설 모든 것을 대고조의 승리를 위하여!,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총돌격하자
- 20090611 사설 집중적인 선전선동공세로 몽든 150일 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자
- 20090616 사설 분렬주의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힘찬 진군을 다그치자
- 20090619 사설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 20090622 사설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 20090625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자
- 20090629 사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높이 150일 전투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자
- 20090708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조국땅우에 활짝 꽃피우자
- 20090713 사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20090720 사설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20090727 사설 반제투쟁에서 백승떨쳐온 선군조선의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 20090729 사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는 구호를 높이 들고 150일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리자
- 20090730 사설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여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 20090810 사설 모든 150일전투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자
- 20090815 사설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20090825 사설 당의 선군혁명령도는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 20090828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전투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 20090901 사설 15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돌격 앞으로!
- 20090907 사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대고조 전투장마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 높이 울리자
- 20090909 사설 선군조선의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 20090916 사설 모든 힘을 집중하여 올해농사 결속을 잘하자
- 20090922 사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 20090923 사설 승리의 북소리 높이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 대고조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 20090925 사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 20091010 사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세련된 위대한 향도자이다
- 20091012 사설 모두다 100일 전투에서 영웅이 되고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 20091028 사설 일군들은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 20091103 사설 당원들은 100일전투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 20091111 사설 현지도도단위들이 100일전투의 앞장에서 대고조의 북소리 높이 올리자
- 20091114 사설 100일전투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자
- 20091117 사설 신심과 락관에 넘쳐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 20091119 사설 100일전투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자
- 20091201 사설 1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자
- 20091203 사설 인민군대식으로 총돌격전을 본때있게 벌리자
- 20091205 사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100일전투결속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20091207 사설 100일전투에서 천리마대진군때와 같은 혁명적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 20091209 사설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자
- 20091214 사설 대중기술혁신으로 대고조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 20091216 사설 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20091222 사설 신심과 락관에 넘쳐 1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 20091224 사설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이다
- 20091227 사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2010. 01. 05 사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집중하자
2010. 01. 08 사설 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자
2010. 01. 09 사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며 신심드높이 앞으로
2010. 01. 12 사설 김철의 호소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총진군 앞으로
2010. 01. 20 사설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자
2010. 01. 22 사설 성강의 본때와 투쟁기풍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2010. 01. 29 사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켜 올해의 총공세를 다그치자
2010. 02. 02 사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2010. 02. 07 사설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총돌격하자
2010. 02. 09 사설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2010. 02. 11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 온 나라의 대경사
2010. 02. 16 사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미래으로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2010. 02. 20 사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의 이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자
2010. 02. 24 사설 기자 언론인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총진군의 나팔수가 되자
2010. 03. 01 사설 자주화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자
2010. 03. 02 사설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2010. 03. 04 사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고조의 드세찬 폭풍을 일으키자
2010. 03. 08 사설 당의 령도따라 모든 녀성들은 선군조선의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2010. 03. 09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2010. 03. 12 사설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벌리자
2010. 03. 15 사설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자
2010. 03. 18 사설 당원들은 오늘의 총공세에서 능숙한 정치활동가 용맹한 돌격투사가 되자
2010. 03. 23 사설 당조직들은 대고조전투장마다에 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송풍기가 되자
2010. 03. 25 사설 다시한번 최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비약하자

2010. 03. 27 사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자
2010. 03. 29 사설 인민생활대고조에서 로동계급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2010. 04. 01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2010. 04. 02 사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가자
2010. 04. 09 사설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2010. 04. 12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자
2010. 04. 15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2010. 04. 20 사설 천리마시대 영웅들처럼 당과 조국이 기억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2010. 04. 25 사설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2010. 04. 28 사설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힘차게 떨치자
2010. 05. 01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조선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2010. 05. 09 사설 조중친선의 력사에 길이 빛날 획기적인 사변
2010. 05. 11 사설 모든 힘을 모내기에 총집중 총동원하자
2010. 05. 22 사설 총련 제 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2010. 05. 23 사설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2010. 05. 25 사설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자
2010. 05. 27 사설 위대한 백두령장의 강행군정신으로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자
2010. 05. 29 사설 모두다 떨쳐나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하자
2010. 05. 31 사설 멸적의 기세드높이 대고조진군에서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떨치자
2010. 06. 05 사설 전군중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2010. 06. 06 사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다

2010. 06. 09 사설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새 세기의 위대한 창조물
2010. 06. 11 사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자
2010. 06. 14 사설 일군들은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나아가자
2010. 06. 15 사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하자
2010. 06. 19 사설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할것이다
2010. 06. 22 사설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총진격 앞으로
2010. 06. 23 사설 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새로운 평양변영기를 펼쳐나가자
2010. 06. 25 사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2010. 06. 28 사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다그치자
2010. 06. 30 사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2010. 07. 08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이자
2010. 07. 12 사설 경공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인민소비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자
2010. 07. 15 사설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자
2010. 07. 19 사설 로동당시대의 불멸의 기적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2010. 07. 22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2010. 07. 27 사설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어나가자
2010. 07. 30 사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2010. 08. 02 사설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자
2010. 08. 07 사설 노래소리 높은 곳에 대고조의 승리가 있다
2010. 08. 09 사설 사회주의경쟁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2010. 08. 12 사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자
2010. 08. 15 사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2010. 08. 19 사설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2010. 08. 25 사설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
2010. 08. 28 사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사상과 결심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전위투사가 되자
2010. 09. 02 사설 조중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사변
2010. 09. 03 사설 통일애국투사들처럼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
2010. 09. 05 사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2010. 09. 09 사설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끝없이 강성번영할것이다
2010. 09. 14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2010. 09. 17 사설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농사결속을 잘하자
2010. 09. 22 사설 혁명적대고조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자
2010. 09. 30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2010. 10. 04 사설 북남선언들의 기치따라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자
2010. 10. 10 사설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2010. 10. 13 사설 당의 령도따라 새 승리의 진군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총진격 앞으로
2010. 10. 17 사설 ㅌ ㄷ 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2010. 10. 21 사설 인민소비품의 질을 더욱 높이자
2010. 10. 25 사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영원불멸할것이다
2010. 10. 28 사설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자
2010. 11. 01 사설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자
2010. 11. 05 사설 군민단결의 위력으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2010. 11. 08 사설 경희극 산울림 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2010. 11. 15 사설 대고조진군에서 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2010. 11. 27 사설 공동사설과업을 틀어쥐고 올해전투결속을 잘하자

2010. 11. 30 사설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생활향상을 추
동하자
2010. 12. 08 사설 김철이 올린 대진격의 포성이 화답하여 더 빨리 내달리자
2010. 12. 14 사설 오늘의 대고조성과를 더 큰 기적과 승리로 이어가자
2010. 12. 18 사설 일군들은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지휘를 잘하자
2010. 12. 24 사설 백두의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조국은 끝없이 강성
번영할것이다
2010. 12. 27 사설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누리에 빛내이자
2011. 01. 04 사설 당의 부름따라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2011. 01. 08 사설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최대의 진격속도로 앞으로
2011. 01. 17 사설 전국가적힘을 집중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
룩하자
2011. 01. 24 사설 승리의 길 노래 높이 부르며 오늘의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2011. 01. 26 사설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2011. 01. 29 사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자
2011. 02. 07 사설 위대한 백두령장의 강행군정신으로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2011. 02. 16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은 영원히 강성번영
할것이다
2011. 02. 21 사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당대표자회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2011. 02. 24 사설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관심을 높이자
2011. 02. 28 사설 청년들은 조선청년행진곡 을 높이 부르며 오늘의 대고조격전
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2011. 03. 01 사설 반외세자주화의 기치높이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2011. 03. 02 사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
2011. 03. 05 사설 우리 당의 토지건설업적을 빛내이며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키자
2011. 03. 08 사설 여성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
가자
2011. 03. 10 사설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키자
2011. 03. 15 사설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자

2011. 03. 21 사설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정치사상공세의 포성을 더 높이 올리자
2011. 03. 30 사설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자
2011. 04. 01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
2011. 04. 04 사설 당의 령도따라 백과주렁지는 강성대국무릉도원을 꾸려나가자
2011. 04. 09 사설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끝없이 강성번영
할것이다
2011. 04. 15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2011. 04. 25 사설 백두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는 조선인민군은 필승
불패이다
2011. 05. 01 사설 선군조선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2011. 05. 11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
2011. 05. 14 사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2011. 05. 20 사설 대선행부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2011. 05. 25 사설 모든 력량을 농촌지원전투에 총집중 총동원하자
2011. 06. 06 사설 소년단원들은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다
2011. 06. 08 사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힘있게 과시한 희천의 기적
2011. 06. 10 사설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으로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
2011. 06. 13 사설 경공업에 련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
치자
2011. 06. 15 사설 북남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위업을 다그치자
2011. 06. 19 사설 일심단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우리 당의 혁명위
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2011. 06. 23 사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자
2011. 06. 24 사설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
2011. 06. 25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자
2011. 06. 29 사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2011. 07. 01 사설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한 승리적으로정
2011. 07. 08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빛나
게 실현하자

2011. 07. 12 사설 원수격명의 기상안고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2011. 07. 19 사설 김일성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2011. 07. 24 사설 모두다 선거에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2011. 07. 27 사설 백두령장의 선군령도따라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까지 이어
가자
2011. 07. 30 사설 녀성들은 오늘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대고조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2011. 08. 01 사설 경공업에 련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자
2011. 08. 04 사설 월 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2011. 08. 05 사설 래일을 위하여 빛나게 살자
2011. 08. 08 사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2011. 08. 15 사설 위대한 김일성조선을 후손만대에 빛내여나가자
2011. 08. 23 사설 혼연일체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2011. 08. 25 사설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무적필승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
2011. 08. 27 사설 조로친선의 년대기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력사적사변
2011. 08. 28 사설 청년들은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
치자
2011. 09. 09 사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자
2011. 09. 13 사설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자
2011. 09. 16 사설 올해농사를 자랑차게 결속하자
2011. 09. 21 사설 라오스인민의 친선의 사절
2011. 09. 28 사설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2011. 09. 30 사설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따라배우자
2011. 10. 04 사설 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
2011. 10. 10 사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릴
것이다
2011. 10. 17 사설 ㅌ ㄷ 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가자
2011. 10. 22 사설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자
2011. 10. 27 사설 우리 식의 우월한 생활양식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2011. 10. 28 사설 함남의 불길따라 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총공격하자

2011. 11. 02 사설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차게 벌리자
2011. 11. 07 사설 인민소비품의 질제고를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리자
2011. 11. 16 사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자
2011. 11. 21 사설 공동시설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2011. 11. 29 사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2011. 12. 15 사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2011. 12. 17 사설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높이 경제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일으키자
2011. 12. 22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2011. 12. 24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2012. 01. 05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년의 자랑찬 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2012. 01. 09 사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
2012. 01. 20 사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하자
2012. 01. 26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서 당원들이 선봉투사가 되자
2012. 02. 01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창조하며 비약하자
2012. 02. 09 사설 위대한 장군님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2012. 02. 16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 나가자
2012. 02. 21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자
2012. 02. 27 사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자
2012. 02. 29 사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 과로 맞이하자
2012. 03. 01 사설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2. 03. 02 사설 애국의 열정을 안고 더 많은 나무를 심자
2012. 03. 06 사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무리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2. 03. 08 사설 녀성들은 강성국가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나가자
2012. 03. 25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2012. 04. 03 사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뜻을 민족사적대경사로 맞이하자
2012. 04. 05 사설 조선로동당 제 차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뜻깊게 맞이하자
2012. 04. 09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 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2012. 04. 11 사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이정표로 될 조선로동당 제 차 대표자회
2012. 04. 13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2012. 04. 15 사설 위대한 주체의 태양의 력사는 천만년 흐를것이다
2012. 04. 23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전진하자
2012. 04. 25 사설 무적필승의 년력사를 창조한 백두산혁명강군에 영광이 있으라
2012. 04. 28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문헌들을 깊이 학습하자
2012. 05. 01 사설 선군시대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2012. 05. 11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2012. 05. 12 사설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2012. 05. 17 사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2012. 05. 21 사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2012. 05. 23 사설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2012. 05. 25 사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2012. 05. 28 사설 혁명적동지에 전우애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해나가자
2012. 05. 30 사설 일군들은 창발적으로 참신하게 일해나가자
2012. 06. 06 사설 조선소년단창립 뜻을 열렬히 축하한다
2012. 06. 09 사설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2012. 06. 15 사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2. 06. 19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령도사를 만대에 빛내어나가자
2012. 06. 25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2. 06. 29 사설 장마철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2012. 07. 01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2012. 07. 05 사설 조국통일 대원칙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2. 07. 08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2012. 07. 12 사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일군들이 기수가 되자
2012. 07. 20 사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자
2012. 07. 27 사설 승리의 은 우리 조국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2012. 07. 30 사설 녀성들은 강성국가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2012. 08. 02 사설 월 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2012. 08. 08 사설 창성련석회의정신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자
2012. 08. 09 사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2012. 08. 15 사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자
2012. 08. 20 사설 일심단결의 전민항쟁으로 백승을 떨치자
2012. 08. 25 사설 선군의 길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
2012. 08. 28 사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자
2012. 08. 29 사설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드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가 되자
2012. 09. 04 사설 모두다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자
2012. 09. 06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자
2012. 09. 09 사설 애국의 한마음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자
2012. 09. 15 사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번영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2012. 09. 27 사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2012. 09. 28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2012. 10. 01 사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이 노래 힘차게 부르며 총공격전을 다그쳐나가자
2012. 10. 04 사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2012. 10. 06 사설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따라배우자
2012. 10. 08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2012. 10. 10 사설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여 나가자
2012. 10. 16 사설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으로 창조하며 승리해나가자
2012. 10. 17 사설 ㅌ ㄷ 의 전통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2012. 10. 19 사설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올해 총돌격전의 승리를 이룩하자
2012. 10. 22 사설 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속에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지휘하자
2012. 10. 25 사설 년대의 시대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자
2012. 11. 01 사설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2012. 11. 06 사설 총돌격전으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
2012. 11. 15 사설 제 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2012. 11. 22 사설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전투적기질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2012. 11. 28 사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2012. 12. 04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자
2012. 12. 12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품모를 따라배우자
2012. 12. 15 사설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친 장쾌한 승리
2012. 12. 17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2012. 12. 24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다
2012. 12. 26 사설 겨울철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자
2012. 12. 27 사설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여나가자
2012. 12. 30 사설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진두에 모신 선군혁명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 20130102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 20130104 사설 《우주강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20130111 사설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최후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 20130115 사설 《당사업을 1970년대처럼 화선식으로 전환시키자》
- 20130117 사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자》
- 20130122 사설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 20130128 사설 《우리 당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 20130131 사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 20130204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 20130206 사설 《<일당백>의 구호를 영원히 추켜들고나아가자》
- 20130214 사설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뭉개버릴것이다》
- 20130216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 20130221 사설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에 공헌한 영웅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 20130225 사설 《핵과 위성을 가진 강국의 기상으로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20130301 사설 《반외세,통일애국의 기치높이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 20130302 사설 《전군중적운동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자》
- 20130304 사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 20130307 사설 《민족의 신성한 자주권을 결사수호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 20130308 사설 《녀성들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계 싸워나가자》
- 20130315 사설 《모든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 20130318 사설 《혁명적민간무력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자》
- 20130322 사설 《군민대단결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 20130327 사설 《전당,전군,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
- 20130401 사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 20130405 사설 《새로운 병진로선따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 20130406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자》
- 20130407 사설 《생산문화,생활문화확립에 적극 떨쳐나서자》
- 20130408 사설 《온 나라를 선군문화가 구현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자》
- 20130409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 20130411 사설 《백두의 천출위인을 진두에 모신 우리 당과 조국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 20130415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백두산대국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 20130417 사설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리자》
- 20130419 사설 《강선이 지펴올린 증산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자》
- 20130425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

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사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백두산혁명강군은 필승불패이다》를 편집

- 20130429 사설 《새땅을 적극 찾아 곡식을 심자》
- 20130501 사설 《강성국가건설에서 선군시대 근로자들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 20130507 사설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 20130508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 20130509 사설 《선군시대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자》
- 20130510 사설 《전당에 세포를 중시하고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자》
- 20130602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 20130606 사설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 20130608 사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리자》
- 20130609 사설 《자기 공장,자기 일터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나가자》
- 20130610 사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곡식을 정성껏 가꾸자》
- 20130615 사설 《6.15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 20130617 사설 《위대한 선군령장의 공격정신으로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자》
- 20130619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20130620 사설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하자》
- 20130625 사설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 20130628 사설 《군민협동작전으로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 20130703 사설 《반제반미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 20130705 사설 《당의 령도따라 과학기술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 20130708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 20130710 사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박차를 가하자》
- 20130713 사설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자》
- 20130715 사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 20130717 사설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은 끝없이 강성변영할것이다》
- 20130727 사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다》
- 20130730 사설 《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 20130802 사설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 20130812 사설 《경제강국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비약과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 20130815 사설 《위대한 인민의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길이 빛내이자》
- 20130822 사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리자》
- 20130825 사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백전백승을 떨치자》
- 20130826 사설 《선군혁명승리의 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을 깊이 체득하자》
- 20130828 사설 《청년들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 20130904 사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20130906 사설 《가을걷이전투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자》
- 20130909 사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끝없이 룡성번영할것이다》
- 20130914 사설 《당의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20130927 사설 《올해농사결속에서 다수확군들이 앞장에 서자》
- 20130928 사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사업하고 생활하자》
- 20131001 사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20131004 사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자》
- 20131008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 20131010 사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혁명적당이다》
- 20131015 사설 《우리 혁명의 지도적지침인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자》
- 20131017 사설 《〈트.디〉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20131019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어나가자》
- 20131022 사설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 20131028 사설 《친선의 정을 안고오는 사절》
- 20131106 사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자》
- 20131113 사설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 20131116 사설 《선군시대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강성조선의 미래

를 꽃피워나가자》

- 20131118 사설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는 용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자》
- 20131122 사설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20131126 사설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 20131201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20131208 사설 《대건설의 힘찬 포성으로 선군조선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자》
- 20131210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나아가자》
- 20131217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다》
- 20131221 사설 《당중앙결사옹위의 생산돌격전으로 부르는 동해의 승전포성》
- 20131224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자》
- 20131227 사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 2014.01.29.사설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 2014.01.30.사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 2014.02.01.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2014.02.03.사설 사상전, 선전선동의 힘찬 포성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게 하자
- 2014.02.05.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
- 2014.02.06.사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기수가 되자
- 2014.02.08.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서한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 2014.02.11.사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 2014.02.12.사설 출판보도부문이 앞장에 서서 사상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 2014.02.16.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다
- 2014.02.19.사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 2014.02.20.사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 2014.02.24.사설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될 력사적인 대회
- 2014.02.25.사설 사회주의농촌테제는 우리 당의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다
- 2014.02.27.사설 최후승리를 위한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자
- 2014.03.01.사설 외세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 2014.03.02.사설 모두다 떨쳐나 온 나라를 수립화, 원림화하자
- 2014.03.05.사설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
- 2014.03.08.사설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 2014.03.09.사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 2014.03.13.사설 우리 공화국정권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 2014.03.14.사설 김일성-김정일주의 학습열풍으로 혁명적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 2014.03.16.사설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자
- 2014.03.18.사설 모든 군을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2014.03.19.사설 경공업전선에서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리자
- 2014.03.20.사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자
- 2014.03.21.사설 봄철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의 된바람을 일으키자
- 2014.03.24.사설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을 즐기차게 이어나가자
- 2014.03.26.사설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자
- 2014.03.28.사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
- 2014.03.29.사설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리자
- 2014.03.31.사설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2014.04.01.사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 2014.04.04.사설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에 이바지하자
- 2014.04.08.사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전선의 기수, 전초병의 책임을 다하자
- 2014.04.09.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업적은 선군조선의 만년재보

이다

- 2014.04.11.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 2014.04.15.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 2014.04.17.사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 2014.04.22.사설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자
- 2014.04.23.사설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2014.04.25.사설 백두의 혁명정신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 2014.04.28.사설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온 나라가 끓게 하자
- 2014.05.01.사설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쳐나아가자
- 2014.05.05.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
- 2014.05.07.사설 기자, 언론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 나팔수가 되자
- 2014.05.09.사설 경제선동의 북소리높이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키자
- 2014.05.12.사설 전사회적으로 책임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 2014.05.16.사설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자
- 2014.05.19.사설 문학예술인들은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자

부록 2. 2008년-2014년 「로동신문」 정론

- 20080101 정론 일편단심 영원하리라
 20080104 정론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
 20080118 정론 강선의 붉은 노을 안고 살자
 20080207 정론 위대한 력사가 우리를 부른다
 20080211 정론 조국청사에 그대의 이름을 새기라!
 20080215 정론 영원히 모시리, 길이 받들리
 20080307 정론 축복받은 조선녀성
 20080328 정론 조국은 청년영웅을 부른다
 20080413 정론 세월의 끝까지 올려가라 태양의 노래여!
 20080517 정론 병사의 량만
 20080601 정론 언제나 웃으며 승리하리
 20080607 정론 락원으로 가는 길
 20080628 정론 빨지산 이야기는 영원하리라
 20080721 정론 뜻깊은 9월의 대축전이 다가온다.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시대는
 용감한 일군을 부른다
 20080804 정론 대흥단의 감자꽃바다
 20080812 정론 위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내 조국의 삼복절
 20080908 정론 무궁변영하라 김일성 조선이여!
 20080914 정론 천만심장이 하나로 고동친다
 20080923 정론 전 세대들처럼 살자
 20081002 정론 인민이여 천만년 잊지 말자!
 20081007 정론 창조하라,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20081014 정론 레성강의 공격정신
 20081022 정론 우리 행복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20081106 정론 강선의 불길
 20081122 정론 우리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20081126 정론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이어가리
 20081211 정론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
 20081219 정론 어머니의 그 념원 꽃피우리라
 20081226 정론 선군조선의 천리마여 세기를 주름잡으라

- 20081230 정론 강선의 본때로 용감무쌍하게 앞으로!
- 20090108 정론 자기 힘을 믿으라
- 20090112 정론 진격의 나팔소리 천만심장 울린다
- 20090124 정론 장군님 발자욱 소리 심장에 새기자
- 20090208 정론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
- 20090212 정론 백두산 밀영 고향집 찬가
- 20090306 정론 천백배로 뭉치여 더 좋은 래일로!
- 20090314 정론 신념은 행복을 안아온다
- 20090321 정론 뿌리가 되라
- 20090328 정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 20090403 정론 강선의 붉은 쇠물은 비약의 폭풍을 부른다
- 20090407 정론 강성대국 대문을 두드렸다
- 20090412 정론 불씨를 귀중히 여기자
- 20090413 정론 절세의 애국자
- 20090417 정론 축포
- 20090420 정론 붉은 당원증을 펼치라
- 20090503 정론 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이자
- 20090507 정론 푸른하늘과 오곡백과
- 20090512 정론 오산덕의 백살구꽃
- 20090516 정론 선군조선의 로동계급
- 20090527 정론 내 나라는 강대하다
- 20090601 2면 정론 상승하자
- 20090610 2면 정론 승리의 시간이 프른다
- 20090616 2면 정론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라!
- 20090620 2면 정론 조선사람의 본때
- 20090624 2면 정론 백두산을 안고 살자
- 20090627 2면 정론 강성대국포전으로 가자
- 20090704 2면 정론 150일로 갑시다
- 20090713 2면 정론 변이 나는 해
- 20090716 2면 정론 사회주의 푸른 전야
- 20090720 2면 정론 승리의 날을 약속하자
- 20090724 2면 정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 20090729 2면 정론 승리의 결승선에서 만나자
 20090801 2면 정론 더 좋은 래일이 우리를 부른다
 20090806 2면 정론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20090810 2면 정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20090811 2면 정론 첨단을 돌파하라
 20090820 2면 정론 우리는 그늘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
 20090829 3면 정론 경쟁바람이 분다
 20090907 3면 정론 푸른 산, 푸른 들
 20090918 정론 장군님 따르면 승리가 온다
 20090919 정론 우리는 자기 힘을 굳게 믿는다
 20090922 정론 삼일포에 단풍이 불탄다
 20090926 정론 희천속도
 20091002 정론 기술혁명의 룡마를 타라
 20091004 정론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는다
 20091007 정론 조선의 <부귀영화>
 20091014 정론 네온등밑의 초병은 시대에 말한다
 20091103 정론 강성대국 리상촌을 부러워하라
 20091105 정론 묘향산에 변이났다
 20091112 정론 문패를 어서 달자
 20091114 정론 조선은 세계에로 나간다
 20091116 정론 전선시간이 흐른다
 20091202 정론 소리치며 잘살 날이 눈앞에 왔다!
 20091205 정론 장군님 병사들의 위대한 힘을 보라
 20091214 정론 래일의 행복이 우리를 부른다
 20091219 정론 우리의 리상은 실현되고있다!
 20091225 정론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
 20091229 정론 리상을 높이 세우라
 20091230 정론 승리의 전선에서 촉배를 들자
 2010. 01. 08 정론 향도의 당을 위해
 2010. 01. 12 정론 김철의 불길이어 거세차게 타오르라
 2010. 01. 15 정론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승리의 령마루에로
 2010. 01. 29 정론 실천으로 증명하라

2010. 02. 01 정론 우리의 승리를 굳게 믿는다
2010. 02. 11 정론 비날론삼천리가 펼쳐진다
2010. 02. 15 정론 장군님 따라 신심드높이 가리라
2010. 03. 04 정론 우리의 미래를 자랑하자
2010. 04. 12 정론 강대한 조선의 힘을 보여주라
2010. 04. 24 정론 희천의 돌격대
2010. 04. 28 정론 산울림 은 시대를 뒤흔든다
2010. 05. 03 정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2010. 05. 20 정론 무릉도원에 사과꽃이 폈다
2010. 05. 25 정론 강성대국 산울림 으로 세계를 뒤흔들자
2010. 05. 29 정론 여리에서 또 몇천리
2010. 06. 10 정론 승리자들
2010. 06. 12 정론 애국에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
2010. 06. 14 정론 격류여 통일어로 노도치라
2010. 06. 17 정론 백두산에서 철령기슭까지
2010. 06. 23 정론 우리의 행복을 부러워하라
2010. 06. 28 정론 창조하라 앞당기라
2010. 07. 09 정론 수령님의 리상 꽃피는 내 나라
2010. 07. 22 정론 백두청춘 서사시
2010. 07. 24 정론 혁명동지
2010. 08. 01 정론 조선의 경고
2010. 08. 07 정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2010. 08. 21 정론 우리는 누구인가
2010. 08. 24 정론 김정일장군
2010. 09. 06 정론 위대한 향도자
2010. 09. 17 정론 곧바로 가자
2010. 09. 20 정론 사과바다 웃음소리
2010. 10. 05 정론 백만점 리상춘이 펼쳐졌다
2010. 10. 08 정론 위대한 당이 우리를 향도한다
2010. 10. 14 정론 무궁토록 조선은 빛나라
2010. 10. 16 정론 혁명의 불보라
2010. 10. 18 정론 대비약의 북소리 더 요란하게 울리자

2010. 10. 29 정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2010. 11. 01 정론 신념과 영광의 붓대
2010. 11. 13 정론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2010. 11. 19 정론 우리의 래일을 여기서 보라
2010. 11. 22 정론 후대들은 잊지 않으리라
2010. 12. 04 정론 경공업전선 더 기세좋게 앞으로
2010. 12. 13 정론 창성땅에 불길이 타올랐다
2010. 12. 18 정론 김철의 녀성들은 강하다
2010. 12. 25 정론 성스러운 불길
2010. 12. 30 정론 진격의 나팔소리 더 힘차게 울리라
2011. 01. 07 정론 온 세계에 앞서나가기
2011. 02. 10 정론 김정일동지의 소원
2011. 03. 19 정론 승리의 열쇠를 틀어줘자
2011. 04. 04 정론 용감성의 시대
2011. 04. 30 정론 황남은 보란듯이 일어섰다
2011. 05. 18 정론 조선의 속도
2011. 06. 09 정론 과수의 새시대가 왔다
2011. 06. 13 정론 단숨에
2011. 06. 26 정론 철령의 철쭉
2011. 07. 29 정론 사회주의백과락원
2011. 08. 02 정론 코스모스
2011. 08. 03 정론 래일도 이렇게 추억하리
2011. 08. 20 정론 연백별농민
2011. 08. 23 정론 우리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흐른다
2011. 08. 26 정론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모습
2011. 09. 03 정론 천만의 힘 용솟음친다
2011. 10. 21 정론 따뜻한 보금자리
2011. 10. 26 정론 함남의 불길
2011. 10. 29 정론 월의 축하연
2011. 11. 10 정론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발을 더 높이 들자
2011. 12. 20 정론 영원한 우리의 김정일동지
2011. 12. 22 정론 위대한 눈보라한생

2011. 12. 24 정론 우리의 최고사령관
 2011. 12. 25 정론 장군님의 영원한 동지가 되자
 2011. 12. 28 정론 김정일동지의 혁명유산
 2012. 01. 04 정론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여
 2012. 01. 07 정론 지구가 깨여진대도
 2012. 01. 12 정론 발이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2012. 01. 16 정론 부글부글 끓자
 2012. 01. 21 정론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2012. 02. 11 정론 인민의 눈물이 말한다
 2012. 02. 15 정론 영원한 광명성
 2012. 02. 17 정론 그이의 회답편지
 2012. 03. 05 정론 정의의 보복성전
 2012. 03. 23 정론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2012. 04. 07 정론 이 조선 무궁강대하라
 2012. 04. 11 정론 김일성조선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이다
 2012. 04. 23 정론 거족적인 성전
 2012. 04. 27 정론 강대한 우리 힘을 자부한다
 2012. 05. 04 정론 강성원의 웃음소리
 2012. 05. 30 정론 김정일애국주의로 승리하자
 2012. 06. 02 정론 최우선 절대적으로
 2012. 06. 09 정론 설령의 소년
 2012. 06. 23 정론 어머니들의 생각
 2012. 06. 30 정론 그이와 인민
 2012. 07. 25 정론 의 선언
 2012. 08. 19 정론 장재도의 거세찬 파도
 2012. 08. 27 정론 발걸음도 힘차게 젊은 힘 떨치자
 2012. 08. 31 정론시 조선의 월은 웨친다
 2012. 09. 07 정론 조국이 개척자들을 부른다
 2012. 09. 20 정론 정으로 흐르는 세월
 2012. 10. 01 정론 조선의 기상
 2012. 10. 14 정론 우리의 당기는 높이 날린다
 2012. 11. 14 정론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한다
 2012. 11. 22 정론 행복의 창조자

2012. 12. 07 정론 흰눈우에 쓰리라
2012. 12. 13 정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앞날을 축복하신다
2012. 12. 14 정론 조선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
2012. 12. 16 정론 천만년 환히 웃으시라
- 20130107 정론 《우리가 사는 시대》
- 20130125 정론 《우리에게는 당세포가 있다》
- 20130126 정론 《다른 선택은 없다》
- 20130205 정론 《인민은 한마음 따르리라》
- 20130214 정론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 20130215 정론시 《백두산불의 선언》
- 20130218 정론 《우리과 함께 계신다》
- 20130307 《김일성,김정일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최후결전에 떨쳐나 세기를 두고 쌓인 피의 원한을 풀자》라는 표제아래 정론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론설 《조선정전협정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노래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등을 편집
- 20130310 정론 《조국은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 20130316 정론 《포병들은 선언한다》
- 20130328 《성스러운 반미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가 시작되었다, 결사의 보복성 전으로 침략자,도발자들에게 죽음을!》이라는 제목의 표제밑에 정론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 글들 《전면적인 대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다》, 《천만의 선택은 하나-정의의 전쟁》, 《피할수 없는 핵전쟁은 친미 사대매국의 산물》 등을 편집
- 20130331 정론 《정의는 타오르는 불길이다》
- 20130414 정론 《승리를 안아오는 4월의 봄》
- 20130417 정론시 《세계에 격함》
- 20130421 정론 《병진의 승전포성 울리며 앞으로!》
- 20130424 정론 《백전백승의 최정예강군》
- 20130425 정론 《핵과 평화》
- 20130602 정론 《내 나라의 푸른 잔디》
- 20130610 정론 《진취적인 일군이 되자》
- 20130615 정론 《〈마식령속도〉로 조국이어 앞으로!》
- 20130625 정론 《6.25를 기억하라!》
- 20130708 정론 《철령아래 사과바다》

- 20130722 정론 《7.27진군가높이 백전백승 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20130824 정론 《빛나라 선군절이여!》
- 20130908 정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 만세!》
- 20130920 정론 《젊어지라 복받은 대지여!》
- 20131028 정론 《아름다워라 인민의 꿈이여》
- 20131101 정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 20131118 정론 《생이란 무엇인가》
- 20131212 정론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 20131214 정론 《우리는 김정은동지밖에 모른다!》
- 20131221 정론 《동해의 붉은 <단풍>》
- 20131228 정론 《최고사령관과 전우》
- 20140102 정론 해돋는 아침의 나라
- 20140103 정론 청춘조국송가
- 20140104 정론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
- 20140111 정론 조선이 가는 길
- 20140113 정론 눈부신 주로
- 20140205 정론 따뜻한 보금자리
- 20140205 정론 2월의 환호성
- 20140215 정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른다
- 20140228 정론 사상전의 포성으로 강산을 뒤흔들자
- 20140307 정론 나는 공화국국민이다
- 20140321 정론 우리의 하루
- 20140324 정론 봄맞이
- 20140407 정론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다
- 20140414 정론 영원히 인민들속에서
- 20140428 정론 혁명의 교과서를 심장에 안고 살라
- 20140505 정론 젊어지는 시대
- 20140511 정론 청천강은 노도친다
- 20140520 정론 백두의 행군길은 영원한 승리의 길
- 20140528 정론 첨단공업을 련이어 개척하고있는 3월5일청년광산의 눈부신 비
약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조선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가자
- 20140621 정론 사회주의 바다향기
- 20140624 정론 문암의 석수소리

참고 문헌

1. 북한문헌

○ 사전, 정기간행물, 기초자료

근로자사, 『근로자』, 평양: 근로자사.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김일성, 1960-64. 『김일성선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6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1996.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1978.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5.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7-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1998.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8.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 2008-2014.

『민주조선』, 2008-2014.

『청년전위』, 2008-2014.

『조선중앙통신』, 2008-2014.

『조선중앙TV』, 2008-2014.

『조선전사』

『천리마』

『조선예술』

『철학연구』

『근로자』

『조선녀석』

○ 단행본

강봉희, 『선군정치문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8.

강운빈,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6: 인간개조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고초봉,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 평양: 평양출판사, 2005.
- 김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9-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김유민, 『후계자론』, 출판지불명: 신문화사, 1984.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백 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평양: 인문과학사, 1968.
- 사회과학원 편,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 인민과학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해설』, 평양: 인민과학사, 1973.
- 외국문출판사 편, 『위인 김정일』,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 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조선인민군출판사 편, 『조선인민군』,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1948.
- 전하철, 『선군혁명사상에 대하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 탁성일, 『선군-김정일정치』, 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 탁진·김강일·박홍제, 『김정일 지도자』2부 , 동경: 동방사, 1984.

○ 논문

-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 11. 20).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1967. 12).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3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정하,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는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 근로자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 『근로자』 제7호. 평양: 근로자사, 1971.

박상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에 대한 공산주의도적의 최고 표현”. 『철학연구』 제3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백 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공고한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2. 국내문헌

○ 단행본

김영평, 『규제의 역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병하·김충남, 『현대 공산주의의 분석』, 서울: 법문사, 1975.

노귀남, “가정생활: 소설 속의 모습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문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로잘린트 코워드 지음, 이만우 옮김, 『언어와 유물론』, 서울: 백의, 1994.

미셸 푸코 지음,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200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박종철 외,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서울: KINU, 2013.

송홍근, “북한 공작원 리호남 15년 스파이 행각”, 『신동아』 통권 612호, 서울: 동아일보사, 2010.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이데올로기로』, 서울: 박영사, 2006.

안찬일, 『주체사상의 종언』, 서울: 을유문화사, 1997.

이교덕 외,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상우, 『북한 정치』, 서울: 나남, 2008.

이 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체제-지도자』.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봄플러스, 2010.

임도빈, 『인터넷 시대의 비교 행정 강의』, 서울: 박영사, 2005.

전영선,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정성장, “통치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장달중편, 『현대북한학강의』, 서울: 사회평론, 2013.

- 정성장,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서울: 세종연구소, 2014.
- 조봉구, 『실천인간관리』, 서울: 진한도서, 1998.
- 진희관, “계층구조와 사회통제”, 민병천 외, 『북한학 입문』, 서울: 들녘, 2001.
- 최완규, 『북한의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출판부, 1996.
- 크리스토퍼 피어슨 지음, 백형선·이택연 옮김, 『근대 국가의 이해』, 서울: 일신사, 1998.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4.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 홍득표, 『정치과정론』, 서울: 학문사, 1999.
- Deleuze, Gilles. *Foucault*.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988.
- Stalin, I. V. *Foundation of Leninism, Problems of Lenin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28.
- Onikov, L.·Kazutin, D. *Both Democracy and Centralism*, Moscow News, No. 42 October 15, 1989.

○ 논문

- 강성윤, “조선노동당의 형성에 관한 연구”, 『안보연구』 19호, 1990.
- 강성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출현과 전개과정”, 『안보연구』 24호, 1994.
- 강성윤, “김정일정권의 안정화가능성과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1호, 1998.
- 강성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 곽승지, “김정일 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9권 2호, 2000.
- 고명주,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광수, “북한의 선군사상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권 2호, 2004.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30권1호, 2014.
- 김도태, “북미 핵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 2003.
-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 변질 과정”,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연각,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1955년-2007”, 『한국정치연구』 16집 1호, 2007.
- 김일기, “북한 개혁개방의 단계와 방향: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일기,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북아논총』 65권, 2012.
-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22집 3호, 2013.
- 김창희,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7권, 2013.
- 김창희,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의 함의와 평가”, 『사회과학연구』 32집, 1호, 2008.
-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 역할, 1945-1947”,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 박영자, “김정은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국방연구』 56권2호, 2013.
- 배광복,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배성인, “김정일체제의 지배담론: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5권 1호, 2001.
- 백학순, “김정은 제1비서의 통치 8개월 평가와 전망”, 『정세와 정책』, 2012년 9월호.
- 서유석, “북한 통치담론의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4권 1호, 2008.
- 서유석, “북한 선군담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양무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3호, 2008.
-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성격에 관한 연구” 『북한의 정치』 2.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이기동,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과 변수”,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2010.
- 이기동, “김정은 유일지도체제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권력 엘리트간 수평적 균열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8권 2호, 2012.
- 이수석, “김정일 후계구도와 북한체제 전망”, 『통일연구』 14권1호, 2010.
- 이수석, “김정은 시대의 권력개편과 체제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9월호, 서울: KDI, 2012.
- 이수원, “북한 주체사상학습체제의 종교성연구”, 『통일문제연구』 23권 1호, 2011.
- 이우영, “혁명구호”,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이온죽, “북한 사회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적 과제” 『사회과학정책연구』 4권 3호, 1982.
- 이윤식, “북한의 대남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통일연구논총』 22권1호, 2013.
- 이윤식, “탈냉전기 북한 대미전략 변화의 다차원적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태섭, “북한 집단주의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장용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구조: 북한의 시장화와 소득분화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20권 1호, 2008.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전미영, “선군담론의 기능과 특징”, 『김정일과 북한의 정치』 서울: 선인, 2010.
- 전영선, “북한영화에 나타난 생활경제 문제”, 『통일인문학논총』 51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 정성장,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국가전략』, 제18권 4호, 2012.
- 주정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사회과학연구』 제30집 2호, 2014.
- 최대석·현인애, “주체사상의 재인식: 형성과 확립 그리고 쇠퇴”, 『북한연구학회』 11권 2호, 2007.
- 최 성, “수령체제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의 의미와 정치적 의

- 도”, 『국방정책연구』 29권 2호, 2013.
- 한승호, “북한의 혁명학원과 운영정책”, 『북한』 9월호, 2009.
- 한승호, “북한영화 <평양 날파람> 연구”, 『정신문화연구』 33권 1호, 2010.
- 한승호,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와 통치담론의 지속성” 『통일과 법률』 7호, 2011.
- 한승호, “북한의 통치담론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강성대국건설 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한승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조선예술영화’ 분석-조선예술영화 <들꽃소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59집, 2014.
- 한승호·이수원,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구호 ‘김정일-애국주의’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국방정책연구』 29권2호, 2013.
- 현인택,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 『사상』 가을호, 1997.

2014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인 쇄 : 2014. 12.

발 행 : 2014. 12.

발행처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 북한자료센터

☎ 02)592-2295

인쇄처 : 웃고문화사

☎ 02)2267-3956
